

韓國書院學報

제
19
호

韓國書院學會

2024. 12



목차

■ 기획논문 1 : 호계서원의 학술과 문화

虎溪書院의 理解 방향	정만조 .	7
虎溪書院의 立地 景觀과 儒學的 審美	김덕현 .	39
여강서원과 호계서원의 상량문	심경호 .	75
호계서원 제향 인물의 문학과 공간 감성	정우락 .	125
호계서원과 경세 - 국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정재훈 .	159
예학적 관점에서 본 학봉과 서애의 학술	한재훈 .	181

■ 기획논문 2 : 전환기 중국 서원의 변모상

西方教會의 中國書院	鄧洪波 .	213
書院精神在臺灣的實踐 - 以「奉元書院」為討論中心	吳進安 .	231
宋朝書院盛行的原因及其與官方的互動關係研究	林葉連 .	249
理念與實踐的變革 - 晚清書院藏書轉型與近代圖書館	張曉新 .	293

■ 일반논문

조선시대 서원과 향례(鄉禮)		
- 경상도 지역 향음주례(鄉飮酒禮) 시행과 의미	김진홍 .	321

書院의 社會史: 庶類系 儒賢의 登場과 社會的 外裝	
- 章山書院의 사례를 중심으로 -	권지은 。 351
安東 西礪祠 建立 과정과 의미	김충현 。 373
근세말 일본의 난학 수용 양상과 특징	
- 난학숙(蘭學塾)의 교육문화를 중심으로 -	박소영 。 407
趙旅(1420~1489) 현창과 함안 西山書院의 역할	
- 『西山延謚錄』을 중심으로	김현지 。 441
조선 후기 陽谷 吳斗寅의 추모와 정치적 위상	
- 德峰書院을 중심으로 -	김우진 。 471

■ 휘보

- 연혁·활동 | 509
- 회칙 | 514
- 편집 규정 | 521
- 논문투고 규정 | 525
- 원고작성 규정 | 531
- 연구윤리 규정 | 535
- 임원 및 편집위원 | 538

■ 기획논문 1 : 호계서원의 학술과 문화

- ▣ 虎溪書院의 理解 방향
- ▣ 虎溪書院의 立地 景觀과 儒學的 審美
- ▣ 여강서원과 호계서원의 상량문
- ▣ 호계서원 제향 인물의 문학과 공간 감성
- ▣ 호계서원과 경세 - 국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 ▣ 예학적 관점에서 본 학봉과 서애의 학술

虎溪書院의 理解 방향*

정 만 조**

- I. 머리말
- II. 溪門 중심 사림에 의한 建院
- III. 갈등을 딛고 수립한 首院의 위상
- IV. 안동부의 지원과 강학의 활성화
- V. 강학을 통해 확립된 퇴계학의 本山
- VI. 맺는말

【국문초록】

호계서원은 1576년(선조9) 퇴계 이황의 學德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그 문인들이 安東에 세운 서원이다. 처음은 廬江서원이었으나 1676년(숙종2) 虎溪로 사액되었다. 건립이후 直傳弟子의 入享문제로 계파간에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상호 존중과 양보, 협력하는 정신으로 극복하면서, 퇴계학의 본산으로서 학설을 발전시키고 학풍을 이어 왔다. 그러나 19세기에 발생한 문종과 계파간의 갈등인 屏虎是非의 과정에서 끝내 화합치 못하고 철폐되는 비운을 맛았다. 오늘날 재건된 호계서원에서는 이러한 호계정신의 부활과 함께 그 새로운 역할을 위한 진로 모색과 강회활동의 현대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位次논쟁, 儒生上疏, 道學, 理學, 禮學, 主理說, 書院講學, 講會, 虎溪精神

* 이 글은 2024년의 한국서원학회 추계학술회의 “호계서원의 학술문화 스펙트럼”의 기조발표 원고를 논문체제로 수정해 재작성한 것임.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mjc1213@hanmail.net

I. 머리말

안동의 호계서원에 대해서는 屏虎是非를 벌인 한쪽 편의 서원으로서 알려져 왔고, 따라서 그에 대한 종전의 인식은 썩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호계서원의 講學活動과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면서 退溪學의 本山이며 안동을 대표하던 서원으로서의 존재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안동사림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호계서원의 역사를 그려 보고자 한다.

II. 溪門 중심 士林에 의한 建院

難進易退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門人들과 함께 朱子學의 講論과 저술에 몰두하던 退溪는 宣祖 3년 말 70세로 작고하였다.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兒童走卒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존경을 받았고, 마침 士林의 시대가 막 열리던 때이니 만큼 死後의 追崇사업은 거국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정은 영의정을 추증하고 祭官을 파견해 조문하며 朝廷 縉紳을 비롯한 사대부의 弔問이 뒤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에 문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墓道文字를 撰進하고 생전에 남긴 문자를 정리해 문집과 저술로 編刊하는 일과, 학통을 계승하며 학설을 發揚 傳承하는 일이었다. 묘도문자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다. 문제는 오랜 작업과 인원이 필요한 문집이었다.

퇴계의 문인이 전국에 걸쳐 있었다지만 그 문인의 핵심은 향리인 禮安과 인근 安東에 있는 문인들이었다. 이들이 그 至難한 작업을 담당했다. 그런데 양쪽지역의 문인들은 及門한 시기와 出處觀이 조금 달랐다. 대체로 말해 趙穆을 위시한 예안사람에는 早年及門者가 많았고, 그런 만큼 溪門에서는 선배집단이었다. 이에 비해 안동은 퇴계가 道學으로 이름을 드러내는 50대 이후에

급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후배대열을 이루었다. 양쪽은 벼슬살이에서도 달랐다. 예안이 踐履篤實하다는 爲己之學에 보다 충실하여 향촌을 지켰다면, 안동사람은 居敬窮理는 물론 君主를 통한 經世를 위해 出仕에 적극적이어서 다수의 文科출신자에 柳成龍 金誠一 같은 조정의 新進氣銳한 사류를 대표하는 관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문집편찬과정에서 선생의 片言隻字라도 빠뜨릴 수 없다는 “全稿收錄”과, 안부편지 같은 閑漫한 문자는 제외하고 실제로 필요한 글만 실자는 “刪節精選” 원칙문제를 놓고 月川(趙穆)과 西厓(柳成龍)가 異見을 보인¹⁾ 배경에는 이러한 학문풍토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全稿收錄을 하되 문집과 표리를 이루며 흔히 外史라 말해지는 年譜는 서애가 편찬하는 것으로 타결되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양금은 溪門의 分歧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집편찬도 그렇지만 선생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키며 學統을 천명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이 남긴 저술을 정리하여 발간함은 물론, 선생 도덕의 顯揚과 학통 계승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先師 퇴계에 의해 확립된 祠廟와 강당을 가진 書院²⁾이 바로 그 답이었다. 퇴계 생전에 그 諮問을 받아 榮川에 세워져 있던 伊山書院이 맨 먼저 사묘를 세워 퇴계 位版을 奉安하면서 賜額되었다. 예안문인들도 퇴계의 학문이 이루어지고 체취가 스민 陶山書堂을 개축하고 사묘를 세우는 서원 작업을 서둘렀고, 선조 9년 위판을 봉안하면서 이미 조정에서 내려 보낸 陶山書院의 사액현판을 내 걸었다.

예안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다수의 사람을 포용하고 평소 퇴계문인의 淵藪임을 자부해온 안동 또한 퇴계를 享祀하는 서원건립을 추진하였다. 퇴계가 도산에서 연구 강학하던 시기, 예안과 안동에는 그 문인들이 세워 운영하는 書堂 精舍 등이 20여개나 되었다³⁾. 그런데 그 중 月川書堂을 제외하고는 거

1) 서정문, 『『退溪集』의 편간과 月川·西厓 門派의 성립』, 『조선중기의 文集編刊과 門派형성』,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의가 안동부내에 위치하였다. 옛날 晦庵(朱熹)이 武夷精舍와 滄洲精舍에서 저술을 통해 朱子學을 완성할 당시 蔡元定, 黃榦, 葉味道 같은 문인들이 武夷山 일대에 精舍 書堂을 세워 晦庵의 저술을 돕고 강론을 수행했다. 이를 놓고 제자들이 스승을 받들기를 못별들이 달을 에워싸고 두 손을 모아 옹위하는(衆星拱月) 모양처럼 한다고 하는데⁴⁾, 이를테면 안동에 있던 퇴계문인들의 정사 서당도 ‘衆星拱月’하는 형세였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안동사람의 퇴계 祭享 熱意는 강하였다. 특히 당시 사림정권의 집권명분 확보와 정통성 공인을 목적으로 東方儒賢의 文廟從祀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사림의 大宗師인 퇴계의 문인이라는 점은 관계에 진출한 具鳳齡 柳成龍 金誠一같은 안동출신 관료들의 立朝명분과 정치적 위상을 강화해 주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벼슬에 나오지 못한 權好文 南致利 등 鄉儒들의 경우도 향촌에서의 활동에 퇴계문인이란 점은 크게 유리하였다. 각자의 관심과利害는 달랐겠지만 先師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데는 異論이 없었다. 이처럼 안동출신 관료와 在鄉 사림의 열의와 협력에 의해 건립을 보게 된 것이 여강서원이었다. 퇴계의 先塋이 府內에 있는데다 일찍이 府의 동북쪽 廬江邊에 있는 白蓮寺에서 독서한 적이 있다는 연고가 建院의 명분이었다⁵⁾. 문인 권문해가 부사로 부임함

3) 예컨대 趙穆의 月川書堂(예안), 金彥璣의 佳野書堂(府東佳野) 權好文의 青城精舍(松坡)·鏡光書堂(府西, 所夜), 柳成龍의 遠志精舍(河回), 柳雲龍의 謙庵精舍(河回), 具鳳齡의 養正書堂(臥龍山西) 등이다(李樹健,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445쪽 참조.)

4) 方彥壽, 『朱熹考亭書院源流考』, 9쪽, (2002, 中國文史出版社)

5) 비슷한 예는 朱子를 제향하는 紫陽書院(중국 安徽城 歙縣 소재)에서 찾을 수 있다. 朱熹는 福建 尤溪縣에서 태어났지만 徽州 婺源人으로 그 先代의 묘소가 있어 省墓次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1176년(47세 때임)의 두 번째 방문 때는 2달 간 머물며 鄉人子弟들에게 강학했다 한다. 이를 인연으로 歿後 지방관에 의해 文公祠가 세워졌다가, 1246년 紫陽書院으로 賜額되고, 門人 黃榦과 蔡元定을 配享했다고 한다. 1315년 兵燬되었다가 1519년(明 正德14년) 紫陽山으로 옮겨 復設되었다. 祭享과 강학을 하되 嘉靖 萬曆연간(16세기 후반) 이후는 鄉約을 같이 시행했다 한다(『中國歷代書院志』 제9책, 「紫陽書院志」〈安徽省 歙縣〉). 그러나 여강서원을 창건한 金彥璣나 權好文은 이 紫陽書院 보다는 白鹿洞書院이나 嶽麓

을 계기로 전폭적인 지원과 문인들의 경제력에 힘입어 안동향교에 맞먹는 80여 칸의 건물을 축조하고는 선조 9년 도산서원이 위판을 봉안하는 날, 같이 퇴계의 위판을 봉안하면서 廬江書院으로 정식 출발하였다.

이런 여강서원의 건립에는 애로도 있었다. 도산 쪽 문인들로 부터 先師의 본거인 도산서원의 건립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장차의 서원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부내의 豐山에 있는 豐岳書堂이 일찍이 官으로부터 지급받았던 學田의 移給을 요청했다가, 成事는 못보고 풍산 쪽 사람과 불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疊設의 혐의 때문에 伊山과 도산서원이 받았던 사액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欠事였다.

이처럼 애로가 있기는 했지만 건립된 후 여강서원은 안동부 최초의 서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평생을 處士로 지내면서 佳野에 惟一齋(佳野書堂)를 세워 200명 가까운 제자를 양성하는 한편, 南致利 鄭士誠 등을 陶山에 보내어 배우게 함으로써 퇴계의 학문을 천명해 안동 일원에 퇴계학맥이 뿌리내리게 한 金彦璣는, 여강서원의 초대원장으로서 강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의하였다. 조목을 위시한 예안사람들도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을 털고 여강에서 퇴계문집 편찬을 위한 교정작업을 김언기계통의 權好文 남치리 등과 수행하거나, 때로는 門友들과 강론하였다. 처사로 자처하던 권호문은 同門 權宇와 여강에 留宿하며 선사의 저술인 『宋季元明理學通錄』의 편찬을 조정하고 교정을 보아 府使 權文海의 도움으로 간행까지 보게 했으며, 洞主가 되어서는 〈院中儀節〉과 〈儒生入院之規〉를 제정하고 때로 諸生과 함께 강학을 수행하였다⁶⁾.

그러나 문집 교정을 위해 留宿하며 토론했다는 정도 이외에 이때의 강학 내용을 전해 주는 자료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예안의 李德弘이 동문 선배인

書院 등 朱子가 강학했던 서원이니, 晩年에 세워 자신의 학문을 총정리 했던 滄洲精舍에 비유했다(『惟一齋實記』 권1, 上府伯權草潤. 松巖集 續集, 詩, 次李安仲題廬江書院韻).

6) 權好文, 『松巖集』, 年譜

조목의 부탁으로 그가 구해준 『學菴通辨』 한질을 놓고 여강서원에서 강론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시피 하다⁷⁾. 이에 대해서는 先行 연구에서 이미, 당대에 문제가 되었던 陽明學과 性理學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조선 나름으로 이해하려 한 것으로 퇴계가 설정한 성리학의 이해체계가 초창기 여강서원의 학풍 형성에 영향을 준 사례라고 적절히 지적해 놓았다⁸⁾.

전반적으로 말해 여강서원은 안동이 예안과 함께 퇴계의故里라는 인식하에 그 도덕과 학문을 顯揚하여 사림의 矜式으로 삼아 趨向을 정해 주며(定士趨) 스스로 奮發興起하게 하는 祭享處임을 표방하였고, 겸하여 선사의 학문을 계승한다는 목적도 지녔다. 그런 만큼 초창기인 16세기 후반기는 춘추로 지내는 享祀가 중시되고 독서와 藏修⁹⁾ 위주로 활용되며, 門友들의 參拜를 겸한 탐방과 詩文을 주고받는 정도여서, 아직 적극적인 강학활동은 전개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¹⁰⁾.

Ⅲ. 갈등을 딛고 수립한 首院의 위상

17세기 벽두에 여강서원은 대홍수의 피해를 입었다. 院宇는 다 떠내려가고 位版만 겨우 건져 낼 정도였다 한다. 재건이 시급하나 倭亂 후의 재력고갈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復設은 홍수 피해를 거울삼아 장소를 옮겨야 하였다. 여기서 物力이 조금 나은 편인 豐山 移建論이 제기되었다.

잠시 당시 여강서원의 운영이나 여론 형성과 관련된 人的 세력분포를 보기

7) 『艮齋集』 권7, 雜著, 陳淸蘭學菴通辨心圖說辨.

8)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2022.

9) 藏修는 禮記의 學記에서 나왔는데 專心學習하는 의미라 한다(『漢語大詞典』). 조선학자들은 보통 마음을 오로지 하여 독서를 통해 心身을 닦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0)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의 2, 16세기 호계서원의 운영과 위상 참조.

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강서원 창건은 안동지역의 퇴계문인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성과였다. 류성룡 김성일처럼 관계에 활동 중인 인물들은 고향에 있는 일족들을 통해 土論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로 물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향리에 머물며 학문을 닦아오던 문인들이 건립의 실무를 담당하고 건립 후의 운영, 강화 등을 맡았다. 처사로 일생을 보내며 수백명의 제자를 양성했던 惟一齋 金彦璣가 그 중심이었다. 府使인 權文海에게 여강서원의 건립을 알리며 지원과 사액 주선을 요청하는 안동사림의 의견을 모은 글을 올리고, 초대 원장을 역임한 것이 그 드러난 역할이었다¹¹⁾. 建院과 운영의 실무를 사실상 주관하며 院規 등을 만들었던 權好文과 權宇, 權春蘭, 裴龍吉, 鄭士誠 등은 그의 문인이거나 가까운 사이였다.

한편 서애와 학봉이 비록 관직에 있기는 했으나, 河回와 川前에 근거하는 그 형제나 친족이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며 서원에 관여해 왔다. 이처럼 대체로 3계열이 설립 이래 서로 협조하며 큰 문제없이 여강서원을 운영하고 土論을 지탱해 온 셈이었다.

그런데 1605년의 홍수로 인한 서원복설논의에서 제기된 豐山 移建案은 세 계열간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서애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풍산 쪽이 그 향리인 만큼 서애계에게 의심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서애는 영의정으로서 왜란을 극복한 大功을 세운만큼 정치력도 압도적이고 鄭經世 李堧 金奉祖 등 쟁쟁한 문인들을 포용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여강서원에 관한 서애계의 입장은 초창기와 달리 크게 성장하여 우세하였다. 학봉계는 김성일이 왜란에 순절함으로써 문인이 적었으나, 그 대신 내앞을 근거로 한 5형제의 자손이 벌려 있어 교리를 지낸 金涌(퇴계의 孫婿)을 앞세운 형세가 서애계에 버금갔다. 반면 그동안 여강서원을 지켜오다시피 한 惟一齋系는 점점 약화되는 상태였다. 중심인물이던 김언기는 물론 권호문 남치리가 왜란 전에 이미 작고한 데다 官力과 族勢 면에서 약세였기 때문이다.

11) 金彦璣, 『惟一齋實記』, 上府伯權草潤(文海).

유일재의 문인인 權春蘭과 裴龍吉이 移建論이 여강서원을 망하게 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¹²⁾하고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실 여강서원은 퇴계가 白蓮寺에서 독서한 연고를 들어 그 절터에 세웠던 만큼 移轉의 명분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전은 백지화되고 원래 자리에서 가까운 곳을 골라 세우기로 하였다. 류성룡이 지휘하고 문인으로 안동부사이던 金功의 지원과 鄭士誠 權春蘭 金涌의 협조로 1607년 복원되었다. 金功은 伊山書院에 연고를 둔 인물로 오랜 관인생활을 통해 서애와 가까웠고, 정사성과 권춘란은 유일재 문인인데 서애와 학봉(권춘란의 子婦가 鶴峯女)과 가까운 인물이며, 김용은 김성일의 조카(守一의 子)로서 문인이었다¹³⁾. 다시 한 번 세 계열은 힘을 합쳐 여강서원을 복원했으나, 서애가 총찰하고 김능의 지원 하에 정사성이 주선한데서 보듯이 서애계가 사실상 이끌었다고 할 것이다.

1614년(광해군 2) 수십년에 걸쳐 사람이 요구해온 五賢從祀가 실현되면서 鄭仁弘을 중심으로 한 南冥從祀論이 제기되자, 道統과 學統의 傳授 계승여부가 정치세력 간의 명분논쟁으로 떠오른다. 이런 와중에 예안의 월천문인들이 추진해온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從享이 대북정권의 도움으로 실현되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퇴계문인의 분화가 표면에 나타난다. 정경세 등 서애문인 쪽에서 학봉계와 연결하여 서애와 학봉을 여강서원에 추향하려 한 움직임이 그것이다. 실록의 柳成龍 卒記에 실린 史評¹⁴⁾을 빌릴 것도 없이 世人에 의해 溪門의 3대 領袖로 공인된 상태에서, 이미 월천이 도산에 從享된 마당에 여강에 양인이 追享되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位次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원래 서원 제향은 道學에 기준을 두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

12) 權春蘭, 『晦谷集』 附錄, 家狀; 裴龍吉, 『琴易堂集』 권3 書, 答西厓柳先生, 上西厓柳先生.

13) 이상은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파」,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과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屏虎是非」, 『퇴계학과 한국문화』 45를 주로 참고하였음.

14) 『선조실록』 40년 5월 13일조. “成龍與趙穆金誠一 俱學於退溪之門 … 退溪門下 以此三人爲領袖”

지 않기에 옛 부터 항상 논란이 일었다. 서애 학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도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쉽겠으나, 이는 애초부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차선으로 官位와 年齒로 坐次를 논했으나 이것 역시 公論으로 정하기는 어려웠다. 결국은 학봉계가 물러서는 선에서 타결을 보아 퇴계 묘정에 東(서애), 西(학봉)로 配享되었다. 配享論 자체가 서애문인들에서 나온 데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문인을 포함한 동조세력에서 다소 열세였던 학봉계는 퇴계의 嫡傳임을 공인받는 配享을 통해 학봉의 위상을 高揚할 필요가 절실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애계로서도 퇴계의 嫡統임을 인정받음으로써 월천으로부터 입은 主和誤國이란 불명예를 씻고 中興第一의 공을 세운 經世의 宰相으로서의 면모를 천명하려고 적극적이었음은 물론이다.

厓鶴의 추배를 서애계가 주도하였다면 이젠 학봉계가 나설 차례가 되었다. 추배가 성사된 이듬해인 광해군 13년(1621) 안동 進士 金是樞¹⁵⁾를 앞세운, 權奸 李爾瞻의 罪誅를 청하는 200여명의 聯名上疏가 올려 진 것이다. 이이첨은 大北정권의 핵심으로 鄭仁弘을 업고 권력을 농단하며 廢母論을 조종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을 直擊함으로써 안동사림의 義氣를 드러내었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厓鶴 추배를 통해 구축된 안동사림 결속력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여강서원을 통해 결집된 안동사림의 힘은 反正을 통해 들어선 인조의 서인 정권이 추진한 李珣·成渾의 陞撫문제에 대한 대규모의 반대운동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서인은 母子之義와 對明義理를 反正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성리학의 이념으로 정당화하여 内外에 공인받을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특히 趙光祖의 己卯사림이 道統說을 내세워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한 이래 각 정치세력의 道學的 系譜가 정권의 向背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광해2년 5賢從祀 時에 大北系가 南冥 從祀를 추진했던 것이다¹⁶⁾. 서인정권이라 하여 다르지

15) 『연려실기술』 권21, 「廢主 光海君 故事本末」, 論劾李爾瞻等, 金是樞는 김성일의 子 湏의 아들로서 퇴계 손자 李純道の 사위이며, 이 시기 金涌에 이어 학봉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16) 『연려실기술』 권19, 「廢主 光海君 故事本末」, 鄭仁弘削儒籍.

않았다. 서인 학통의 開祖인 율곡·우계의 종사론이 대두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들은 퇴계까지의 道統이 牛栗에게 전수되었다는 논리를 폈다. 당장 남인의 반발이 館學의 남인계 유생을 통해 표출되었다. 그들은 율곡의 出處上의 欠節과 우계의 主和論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다. 儒罰이 자행되고 그에 맞선 과거 응시 거부가 벌어지는 등 파란이 일었으나, 임금 인조가 調劑保合의 자세를 취하여 牛栗 陸廡문제를 보류함으로써 실현은 되지 않았다.

효종이 즉위하고 의리명분을 앞세우는 金集, 宋時烈系의 이른바 山黨의 정치적 진출이 현저해진 상황에서 우율승무론이 다시 제기 되었다. 평소 퇴계의 嫡傳으로 자부하는 영남, 특히 厓鶴 配享을 통해 이를 공인받았다고 자신하는 여강서원의 士論이 격화되었다. 柳稷을 疏頭로 한 950여 명이 연명한 陸廡反對疏는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근 1000명이 참여한 擧道의인 儒疏는 당시로서는 처음이었고 그만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곧이어 류직의 소를 반박하며 우율승무를 찬성하는 상주 유생 申碩亨 등 40여 명의 상소가 올라오는가 하면, 성균관에서는 다시 서인 남인계 유생 간에 儒罰과 空館이 일어나고 조정의 언관 사이에 상호 攻斥이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정가와 재야 사람 간에 큰 사건이었던 류직의 상소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여강서원이었다. 처음 승무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안동 사림은 여강서원에 모여 道內 列邑의 서원과 향교에 통문을 보내고, 이어 疏會를 개최하여 상소문을 짓고 이를 임금께 奉呈하기 위한 陪疏者를 정하며 여기서 류직을 소수로 추대하였다. 이 모든 과정의 發議·發通·製疏·陪行 과정·疏首 선정 등의 절차가 여강서원을 근거로 하여 계획·진행된 것이다. 여강서원에서의 이런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학봉계였다. 그것은 疏首인 류직의 疏錄과 疏廳日記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¹⁷⁾. 류직은 鄭經世 문인이라고 알려졌으나 그 증조인 柳城이 내앞 金龜(金誠一의 父)의 사위가 되어 川前里 인근 水谷(무실)에 정착, 후손이 世居¹⁸⁾하였던 관계로 학봉집안 출신이나 다름없었다.

17)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17세기 嶺儒들의 牛栗陸廡反對 참조.

앞서 말했지만 여강서원에는 서에게 학봉계 그리고 유일재계의 사람들이 관여했고 서애 학봉의 配享 이후, 유일재계가 南致利의 追享論을 제기하면서 내부적으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여강서원에서 疏廳을 설치하던 날 일부에서 남치리 추향문제를 들고 나와 한바탕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학봉계와 서에게의 반대와 무마책으로 수습되었다. 그리하여 안동 내 사림의 단합된 힘으로 영남 사림을 이끌어 승무반대소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한 직후 禮訟이 일어났다. 宋時烈이 마련한 서인계의 期年說에 남인 尹鑄, 許穆이 3년설을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한동안 조정이 시끄러웠으나 기년설로 國葬을 마쳤다. 그런데 6년 후인 현종 7년 영남유생 柳世哲을 疏首로 1000여명이 聯名한 服制疏가 올라왔다. 1000여명이 聯名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喪禮考證〉 책자를 첨부하여 송시열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박한 것은 학설논쟁을 선언한 것에 다름없었다. 『현종실록』과, 남인이 편파적으로 편찬했다고 하여 서인이 개정했던 『顯宗改修實錄』에 모두 全文이 실린 것을 보면 당시 정계와 학계에 미친 충격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²⁰⁾. 바로 이 服制疏는 이번에는 서에게 쪽에서 주도하였다. 屏山書院에서 疏會가 열려 모든 절차를 계획하였고 무엇보다도 부록까지 붙은 복제소를 柳元之(서애 손자)가 주관하여 작성하였으며²¹⁾ 疏首인 류세철은 서애의 伯氏 柳雲龍의 증손으로 류원지의 7촌 조카였다. 아무래도 정권세력에 맞서

18) 정만조, 「조선 후기 全州柳氏 水谷派의 文化史的 意義」, 『조선 후기 양반가의 생활상』, 2004, 한국국학진흥원.

19)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 『퇴계학과 한국문화』 45, 2008, 경복대.

20) 이수진, 「현종 7년 柳世哲 등의 嶺南儒疏」,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524쪽, 1995, 일조각.

21) 안동대 퇴계학연구소편 《퇴계학자료총서》 32의 『拙齋集』 권3의 疏, 「道內儀禮疏(丙午代儒生作)」, 附錄, 喪禮考證 上篇, 下篇. 『拙齋集』의 이 부분은 《文集叢刊》의 『拙齋集』에는 권11 雜著에 「長子服制」 하에 간단한 글만 있을 뿐이다.

는 만큼 주동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무반대를 학봉계가 맡은 데 대해 이번 복제소는 서애계가 담당한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세기 조정의 서인정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애계와 학봉계는 상호 밀접한 협조 속에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안동 내부에서의 갈등은 잠재하였지만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 속에 필요한 힘을 결집해 단일된 의론을 표출하는 데는 힘을 합쳤다. 그래서 서인들에 대해 안동사람은 異論이 없는 純鄉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협조관계에서의 역할분담을 자세히 보면 牛栗陞庶문제에서는 물론 우울의 개인적인 處身도 문제 삼았지만 “認氣爲理”를 들어 그 理學上的 오류를 거론했던데 비해, 복제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禮制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朱子が 말하기를 “禮는 天理의 節文이요 人事의 儀則”이라고 했다²²⁾. 理와 節文(禮)은 불가분의 관계이나 다만 리는 內在的이요 예는 그 리가 밖으로 들어난 것으로 풀이한다. 다시 말해 節文은 禮儀로서 天理가 현실에 구현된 실제의 근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학봉계는 천리 방면을, 서애계는 절문 부면을 각기 담당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양측의 역할분담에서 이념문제인 리학 쪽은 학봉계가, 정치를 통한 실천면인 예학 쪽은 서애계가 분담했다고 보는 것이다.

京中仕宦家에서 낙향해 尙州에 살던 서애 집안의 사위(서애의 손자 柳千之의 壻)이기도 한 息山 李萬敷는 〈退陶淵源筆帖跋〉에서 퇴계의 從遊者와 문인들을 열거하고 나서, 孔子문화에 각기 그 長處에 따라 德行·言語·政事·文學의 4科가 있듯이 퇴계문화에도 그 성취한 바가 각기 달라 門派를 이루었다면 서애에 대해서는 “收功於靜而發揮於事功”이라 하고 학봉에 대해서는 “的確用功 臨大節而益驗”이라 하였다²³⁾. 서애는 事功으로 크게 이루고 학봉은 大節이 뛰어났다는 것이다. 두 사람에 대한 息山の 이런 평가는 논자에 따라 의

22) 『論語集註』 顏淵 제1장.

23) 『息山集』 권18, 題跋, 退陶淵源筆帖跋.

견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식산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당시 士論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했다고 보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事功과 大節 모두 天理에서 나온 節文이지만 사공은 정치실제, 절의는 정치이념에 가까운 것이어서 위의 학봉계 서애계의 역할분담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후일 18세기에 들어가 학봉계가 퇴계의 ‘互發說’을 발전시켜 ‘主理說’을 확립해 나가면서 여강서원과 高山書堂에서의 강학을 통해 학봉계의 학통을 정립한 것도 이의 연장이었다.

1000여 명씩의 유생을 동원한 승무반대소와 복제소는 집권서인에게 위협적이었다. 그래서 영남, 특히 안동에 대한 유형 무형의 압력과 박해가 가해졌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숙종의 즉위로 정권이 남인에게로 넘어 오면서 상황이 크게 호전된다. 권력을 장악한 것은 서울과 近畿지역의 남인이었지만 영남지역에도 그 恩澤이 미쳤다. 이런 과정에서 여강서원의 오랜 숙원이던 사액이 실현된다. 여강의 사액요청은 창건당시부터 추진되었으나, 인근 伊山서원과 陶山書院이 이미 사액되었기에 疊額한다는 嫌疑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서애 학봉 追配이후에도 인조 효종 현종을 거치면서 柳元之·李玄逸·柳世鳴·金恂 등이 지은 請額疏가 사람명의로 올려졌지만, 남인 士論의 본거지로 알려진 여강서원에 집권서인이 이를 허용할리 없었다. 그러던 차 남인정권이 들어서면서 1676년(숙종2) 임금의 特命 형식으로 虎溪로 扁額이 내려온 것이다²⁴⁾. 청액소가 서애계 2명, 학봉계 2명에서 나온 사실이 말해주듯이²⁵⁾ 양쪽의 협력 하에 안동서원의 결집력이 거둔 결실이라 하겠다.

이제 사액서원이 된 만큼 享祀에서 지방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상징하듯, 안동의 首院으로서 여강서원의 위상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어 호계서원의 막이 열리는 것이다.

24) 『書院騰錄』 肅宗2년 2월 13일. 生員李巨等 上疏 … 今此安東書院 亦未免爲疊設 則臣曹於此 有不敢輕議 上裁何如…特爲賜額爲良如教.

25) 柳元之(서애손자), 柳世鳴(서애 伯兄 雲龍의 曾孫, 유원지의 7촌조카), 李玄逸(外祖 張興孝가 鶴峯 直傳門人), 金恂(학봉 仲兄 守一의 증손).

IV. 안동부의 支援과 강학의 활성화

18세기부터 현저해지는 호계서원의 講學·講會 개최는 퇴계학통을 학문적, 학설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²⁶⁾. 사실 學說의 뒷 받침없는 學統 계승만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朱子가 寒泉精舍(1170년)·雲谷 晦庵草堂(1175년)·武夷精舍(1183년)를 차례로 세우면서 저술과 강학을 통해 자신의 學說, 곧 朱子學을 확립한 뒤, 최후로 63세 때인 1192년 考亭에 滄洲精舍를 건립할 때 講堂에 孔子肖像을 걸고 4聖 10哲을 配享하며, 周敦頤·程顥·程頤·張載·邵雍·李侗 등 6인의 宋儒를 從祀의 대열에 설치²⁷⁾해 拜禮함으로써, 비로소 孔聖에 淵源하고 周程張邵를 계승한 자신의 學統을 闡明했던 것이 그 하나의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호계서원 강학 활성화의 토대로서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은 葛庵 李玄逸의 학문이다. 南嶽草堂 琴韶寓舍에서 수행된 퇴계학 연구 성과가 중앙정계에 알려지면서 그는 남인정권에 의해 山林으로 徵召되어 이조판서까지 올랐다. 그러나 甲戌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할 때 名義罪人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멀리 귀양 가고 이름이 丹書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학문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26) 조선 후기의 서원교육이 居齋讀書 중심이었다가 18세기에 들어와 講會로 이동한다는 지적은 이미 박종배 교수의 「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서원강회」(『교육사학연구』 19-2, 2009)에서 지적되었다. 그런 변화의 원인과 관련해, 한재훈교수는 서원 濫設과 疊設로 인해 서원이 향사 쪽에 집중되는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朴世采가 서원설립 본의가 講學에 있음을 천명(文會書院 院規)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였다(「조선시대 서원학규의 시기별 경향- 16~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183쪽). 필자도 이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17세기 후반 明代의 書籍이 전래되면서 講學이 성하였던 東林書院(강학을 위한 人員組織, 期間, 諸般儀式節次, 費用 등을 규정한 會約이 유명한데 18세기 조선의 서인계 서원의 院規와 대비됨)같은 明代의 서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정보수집이 빨랐던 西人系 서원에서 講會에 관한 學(院)規가 먼저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호계서원의 강회가 조금 늦은 18세기 이후 활성화하는 사실도 본문에서 다른 官의 재정지원 외에, 이런 점과 관련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7) 方彥壽, 『朱熹考亭書院源流考』의 10쪽.

서 귀양이 풀려 향리에 돌아 온 다음에는 수많은 文士들이 금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의 학설은 아들인 密庵 李裁에 의해 마침내 퇴계의 互發說이 理發 위주의 主理說로 정립 발전되면서, 기호지역의 主氣說과 相峙하게 된다. 18세기 이후의 호계강학은 바로 이들의 문인들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강학 내용의 방향도 주리설을 발양하고 확산시키는 쪽으로 흘렀다.

여기서 잠시 호계서원의 강학관련 문제를 보기로 한다. 여강서원의 건립 당시 사림강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建院의 緣由를 퇴계의 立祀에 두었기 때문에 강학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더구나 서애와 학봉이 仕宦하느라 서원을 찾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초창기 서원의 운영은 초대 원장을 지내며 향리에 머물던 金彦機와 그 문인들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권호문과 남치리에 의해 院規가 마련되었고 퇴계문집과 〈理學通錄〉 등의 퇴계저술에 대한 교정 편집을 수행하면서, 담당 同門들이 서원에서 회합하며 先師의 글을 검토 보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호간에 의견교환 형태로 講論이 진행되었음은 앞에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서원과 관련해서는 先賢奉祀와 儒生의 자발적 興起를 위한 讀書과 藏修가 강조되는 분위기²⁸⁾여서 그런지 강회의 기획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시기 안동지역 사람들의 학문이 침체했다는 말은 아니다. 같

28) 퇴계는 朱子和 마찬가지로 서원에서의 講明道學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朱子가 강명도학의 구체적 방식을 自學을 기초로 한 洞主·師長과 諸生사이의 토론과 義理辯析과 같은 集體教育을 위주로 했다면, 퇴계는 學德을 갖춘 학자를 향촌에서 구하기 어렵고 만약 그렇지 못한 인물을 洞主삼았다가는 教授·訓導로 인한 鄉校와 같은 頽廢相이 재현될 우려가 많다하여, 士子 스스로의 분발과 興起에 의한 독서와 藏修같은 개인 위주의 학습을 권장하였다(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관」). 그러다 보니 士子가 본받을(矜式) 만한 모범적인 인물을 祠廟에 奉安할 필요가 있었다. 퇴계는 반드시 道學의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으나, 인물평가에 절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퇴계 다음 世代에 가면, 제향인물 선정을 위한 公論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비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끝내는 향론의 분열로 제향인물 위주로 建院하게 되는 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請額疏에서 士子講學보다는 제향인물의 學德·節義을 表揚하기 바쁘고 朝廷 또한 제향인물에 대한 평가로 사액여부를 결정하였던 경향은 이런 趨勢를 더욱 助長하였던 것이다.

암 이현일, 芝村 金邦杰로 대표되는 一群의 학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서당이나 精舍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해 왔다. 하지만 17세기에도 여강서원에서의 강학 기록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와 관련해 유의할 것은 17세기는 집권세력의 廬江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광해군 때의 大北이나 인조 이후 서인들이 모두 그랬다. 監司나 특히 安東府使를 내려 보낼 때는 자기들 내에서 治民에 유능하면서도 風力이 있어 威嚴으로 臨民하는 인물을 선정하였다. 도산서원이 한때 박해를 받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사액서원도 아닌 여강서원에 대해 지방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원은 커녕 이미 지급받았던 婢子의 소생을 다시 屬公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²⁹⁾. 하기에 한 고을에 다수의 서원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관의 物力 지원은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 아무리 서원의 물력이 다른 곳에 비해 우세하다 하더라도 여강서원의 재정이 어려울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³⁰⁾. 그래서 여강서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春秋享祀에 모아 둔 院財를 소비하고 다른 곳에 드는 비용은 최대한 절약해야 하였다. 일반적으로 17세기의 서원 운영이 享祀 위주이고 居齋나 강학을 위한 유생의 留院을 허용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留院하려면 식량을 지참하라는 사창이 院規에 明記되어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한다. 문집을 통해 간간이 드러나는 여강서원에서 독서했다는 기록 외에 居齋, 강학관련 기사가 잘 보이지

29) 여강서원에 대한 호계의 賜額(숙종2년 2월 13일, 『서원등록』)이 결정되지 한달도 채 못된 3월 11일 안동유학 金漢璧 등이 올린 상소에 보면 7·80년 전인 宣祖 때 金宇顥과 鄭述가 안동부사로 있으면서 여강서원에 官婢 蘭香과 莫介를 각기 지급했는데, 1653년(효종3년) 부사로 부임한 李後天이 그들의 소생인 院奴婢를 屬公시켰다면서 이들을 다시 서원에 還屬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승정원일기』, 숙종 2년 3월 11일 癸巳).

30) 호계서원의 都有司인 金聖鐸이 1729년 안동부사에게 낸 牒呈에는 호계서원의 형세가 도산서원에 비해 10분의 1.2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풍요로움이 尙州의 道南書院, 星州의 川谷書院에 10분의 5.6도 안된다고 말하여(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16·17쪽) 일반적으로 막대한 물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않는 이유 중의 상당한 부분이 재정문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강서원의 강학 활성화에 발단을 열어 준 사건은 1718년(숙종44) 안동부사 權以鎭의 요청에 의해 열린 虎溪講會였다. 더운 날씨에다가 촉박한 시일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채로 열려 院長이던 李裁와 權斗經·金昌錫·權斗紀 등 갈암 문인의 대표적 학자 몇 명만 참여한 초초한 강회였지만 太極無極의 要旨와 四七理氣之辨을 놓고 논란을 벌였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였다고 한다. 권이진은 다시 長文의 편지를 보내 자기주장을 펼쳤으며 이제 역시 自說을 굽히지 않는 답장을 보내었다³¹⁾. 권이진은 일찍이 <太極圖記疑>를 지어 師門인 明齋 尹拯과 問答辯論을 했던 만큼 性理說에도 一家見을 가졌기에, 퇴계의 互發說을 主理說로 발전시킨 당대 퇴계학파를 이끌던 밀암과 능히 논란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³²⁾. 유감스럽게도 강회에서의 내용을 수록한 講會錄 같은 문자는 보이지 않고 주고받은 書信도 한 번에 그쳐서 모처럼의 강회에 아쉬움은 남지만, 그러나 이 호계강회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권이진이, 宋時烈 尹宣擧와 사돈 간이면서 潛治 朴知誠의 문인으로 湖西山林의 일원이던 炭翁 權謨의 손자이고, 그 상대가 영남학파의 宗匠인 갈암의 아들로서 그 衣鉢을 전수한 밀암이어서 두 사람이 갖는 당시 학계에서의 큰 비중 때문이다. 특히 권이진은 남인이기는 하나 퇴계학맥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탄옹의 손자이면서 서인 산림의 宗師인 우암 송시열의 유일한 血孫(外孫子)이며, 尹拯과 尹義濟(尹鑣의 아들)가 고모부인 기호지방 산림의 핵심 집안 출신이었다³³⁾. 밀암과는 黨色은 같은 남인이라고 해도 학

31) 與李院長(『有懷堂集』 권7, 書), 答權地主(『密菴集』 권3, 書).

32) 『有懷堂集』 권11, 雜著, <太極圖記疑>, 壬午(숙종38년) 與宋友子眞(儒傳)同榻虎溪問答.

李鍾晟, 「有懷堂 權以鎭과 明齋 尹拯의 太極論辯 연구」, 『동양철학』 32, 동양철학연구회, 2009.

여기에 의하면 明齋는 <太極圖記疑>의 논리가 정밀함을 칭찬하였다고 한다.

33) 權以鎭(1668-1734)은 고모부인 尹拯을 사사하고 27세(숙종20년) 때 문과하여 清職을 거친 후 41세 때 東萊府使로 나아가 對馬島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업적을

문적 풍토나 분위기, 혈연적 계파와 學的 淵源이 달라 학설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權·李 사이의 虎溪文會는 기호와 영남남인학과 간에 無極太極과 理氣說을 놓고 토론과 논란을 벌인 희귀한 會습이며 그 학설상의 同異를 살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權·李의 호계문화가 갖는 의의는 다른 면에서도 말할 수 있다. 우연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文會 이후 앞선 시기에서는 보이지 않던 호계서원에서의 강학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³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8-19세기 호계서원 강학 활동

연도	강학 교재	원장과 참여자	근거 자료
1718.06	〈太極圖說〉	李菽(洞主), 權斗經, 金昌錫, 權斗紀, 權以鎭(安東府使)	『密菴集』, 虎溪書院 文會
1728.07	『近思錄』	金聖鐸, 李楊	『霽山集』, 年譜, 講近思錄
1729. 春	講學	李菽(洞主), 李光靖, 金聖鐸 등 7인	『密菴集』, 『霽山集』, 年譜, 遊虎溪書院
1731	〈西銘〉, 〈太極圖說〉	李楊(訓長), 안동부 유생	『顧齋集』(?)
1765. 윤2	『大學』, 『心經』	金宅東(洞主), 李象靖(講席), 金樂行, 李象辰, 柳範休 등 90여 명	『廬江記聞錄』, 『大山集』
1789.07	『心經』	鄭來成(洞主), 柳長源(講席), 200여 명(7일 간)	『廬江講會錄』
1801.07	『心經』	金炫	『龜窩集』
1831	〈太極圖說〉, 『近思錄』, 『中庸』, 〈大學或問〉	李秉遠(洞主, 講席), 金岱鎭 등(20일 간)	『訂窩集』
1841.08	『中庸』	李蓍秀	『訂窩集』, 年譜, 講中庸
1856.11	『心經』	柳致明(講席) 수 백명	『虎溪書院講錄』

(정재훈 논문54쪽에 의함)

쌓았고, 51세(숙종44)에 安東府使로 2년 재임 후 승지 참판을 거쳐, 영조3년 60세 때 호조판서가 되어 호조 재정을 확보하고 封不動제도를 창안함으로써 당대 제일의 世務宰相이라는 평을 받았다.

- 34)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2022 ; 김자운, 「조선후기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2021, 충남대 유학연구소.

여기에 보면 18세기만 해도 6회, 19세기는 4회가 열렸다. 그동안 享祀 때나 사림 간 시비를 논하는 會時 때를 제외하고는 혹은 독서하는 유생이나, 祠廟 참배 겸 遊息하는 일부 인사의 내방 외에는 儒士의 출입이 많지 않던 서원에, 師席이 마련되어 儒生들이 雲集하고 그들을 향한 강회가 열림으로서 비로소 서원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강회의 활성화가 반드시 1718년의 權·李文會의 영향이었다고 말하기에는 牽強附會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까지는 안동은 물론 그 인근에까지 강력한 사실이 잘 찾아지지 않는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10년 뒤인 1728년부터는 연속해서 강회가 개최되고 또 그 강회의 주도인물이 밀암이거나 그 文友들이었다는 점을 마냥 간과할 수만은 없다. 같은 시기에 인근 고을인 尙州의 道南書院이 淸臺 權相一이 원장이 된 1723년부터 居齋와 講論을 정비하는 <道南書院規約>을 제정하고 牧使 宋寅明의 참석 하에 『心經』·『性理大全』 등에서 몇 구절을 摘出해 問難을 벌이는 강학을 하게 되는 것³⁵⁾도 호계에서의 權·李文會가 이 지역의 서원강학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뿐만 아니라 권이진이 文會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서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지원은 10년 후인 1728년(영조4) 戊申亂을 겪으면서 조정의 안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唐평파의 嶺南憂慮說로 인해, 경계는 하면서도 사림의 불만을 慰撫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그 일환으로 아래에서 보듯이 안동부의 서원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의 물고를 터는 先例를 만들었다. 權·李文會의 의의는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영조6년(1730) 唐평파의 대표이며 嶺南慰撫論을 제창한 趙顯命이 영남감사로 부임해 향교를 중심으로 한 興學策을 폈다. 그는 道(樂育齋)-邑(鄕校)-面(書院 書堂)으로 教學體系를 정비하였다³⁶⁾. 서원을 향교 밑에 위치 짓기는 했

35) 김정운, 「도남서원의 공부모임(講會)과 공부(講學)」, 『한국서원학보』 16, 2023.

36) 정만조, 「조선후기의 教學振興論에 대한 검토」, 『한국학논총』 10, 198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으나 일단 행정체계 속에 편입한 이상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했을 것임은 예상할 수 있다. 1731년의 李楊이 주관한 호계강회는 조현명의 이런 흥학책의 결과였다. 다만 향교가 아닌 호계서원이 담당한 것은 안동의 首院인 호계의 위상으로 보아 먼 단위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³⁷⁾.

서원강학을 위해 안동부가 재정을 지원한 분명한 사례는 영조27년(1751년) 안동부사이던 尹光紹가 제정한 〈興學規範〉에서 잘 드러난다. 거기에 보면 안동부 내의 7개 서원에 각각 20명에서 8명에 이르는 居齋生을 배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양식을 안동부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였다³⁸⁾. 사실 그동안 서원의 유생거재와 강학이 부진했던 이유는 서원재정에 여유가 없어 유생을 支拂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또 학문에 뜻을 두고도 집안일에 구애되거나 飢寒에 쪼들려 학업에 힘쓰지 못함으로 인해 居齋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점도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거재 비용을 官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획기적인 조치였다. 호계서원은 屏山·三溪서원과 함께 각각 20명의 정원을 배정 받았다.

尹光紹는 童土 尹舜舉의 현손으로 族曾祖인 尹拯의 문하에 출입한 少論으로서, 탕평파인 趙顯命과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안동사림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고 보인다.

이처럼 안동부의 자세가 달라지자 호계서원은 적극적으로 관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霽山 金聖鐸이 1729년 안동부사에게 보낸 牒呈에는 奴僕이 10여 명에 불과한 데다, 30~40명 정도인 假屬으로는 院宇를 수호하기조차 어려우므로 軍役に 充定된 人員을 다시 免役시켜 서원의 雜事와 使喚으로 일하

37) 趙顯命의 教學策에 따르면 호계강회는 원칙적으로 향교에서 열려야 하였다. 그런데 여강서원이던 시기부터 서원 임원들이 향교의 校任을 겸하는 등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에 호계서원에서 연 것이다. 주도자인 李楊의 직임을 都訓長이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한다. 그런데 李楊이 鄉內 유생의 勸學을 위해 지은 學規(『顧齋集』 권7, 學規의 내용에 所習之書로 〈三綱二倫行實圖〉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學規는 서원과과는 일단 구별해 보아야 할 것 같다.

38) 『素谷集』 권13, 「福州錄」, 興學規範.

게 해 달라고 되어 있다³⁹⁾. 김성탁은 이때 호계서원의 행정을 책임진 都有司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그는 원래 葛庵의 문하에서 명망이 높은 데다 무신란 당시 안동에서 결성된 柳升鉉을 대장으로 한 倡義軍의 參謀役을 맡아서 안동권의 민심수습에 기여한 바 있었다. 嶺南慰撫論으로 안동부와의 관계가 好轉되자 서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동부의 지원 조치가 얼마나 實效를 거두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지원 조치가 향후 호계서원의 강학활동의 활성화에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은 위의 <표>에 보이는 강회사실로 보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V. 講學을 통해 확립된 退溪學의 本山

흔히 서원을 유생의 학문과 인격도야에 의한 한 사람의 土人(林)을 양성하는 학교라고 보아, 그 방법으로 강학을 말하지만 그 강학에도 몇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藏修라고 하는 독서를 통한 유생 스스로의 奮發과 興起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물론 여기에도 朋友講習이라는 麗澤의 兌卦의 전통에 따라 朋友 간에 切磋琢磨와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일단은 개인적인 수양이 위주였다.

이와 달리 師弟 간에 경전을 강독하고 문답하는 강학방식이 있다. 이것은 비단 서원만이 아니라 私塾이나 書齋·草堂 등에서 취하여지는, 흔히 후진을 訓誨하는 교습행위도 함께 포함된다. 그러나 朱子が 행한 서원에서의 강학은 師席이 堂에 올라 좌정하면 諸生이 堂下에 착석하여 疑問處나 難解한 곳에 대

39) 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2022.

假屬이란 雜事 담당과 院宇守護를 도운다는 의미에서 지방수령의 권한으로 軍役을 져야 할 대상에서 일정한 인원을 서원에 배정하여 免役해 주는 대신 서원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숫자가 한 서원에 수 백 명이 되기도 하고, 서원이 다수 있는 고을에서는 수 만 명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여 군역을 져야 할 良丁의 부족을 초래하는 서원폐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 질의응답과 義理辨析이 진행된다. 이러한 集體討論 辨解방식을 升堂講學이라고 이름하였다. 朱子는 “獨學而無友인 則孤陋而寡聞하고 講學而會友인 則道益明하며 取善而輔仁인 則德日進(『禮記』 學記)”이라 하여 師席을 모시고 하는 집체토론 방식을 서원강학이라 하였다.⁴⁰⁾

이러한 升堂講學에 의한 집체토론 방식을 제도화하여 개최시기와 인근 유생을 망라한 참여대상, 강학의 교재, 儀式 절차 등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강학모임을 講會라고 하였다. 현대의 서원연구자들은 이를 교수가 특정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독일 대학에서 발생한 세미나(習明納, seminar)방식에 비유하기도 한다.⁴¹⁾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회는 東林講會로 말해지며 강회의 組織과 儀式·節次·내용·진행방식 등을 규정한 <東林會約>⁴²⁾은, 자료를 아직 찾지 못해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으나 18세기 서인계 일부 서원의 講學規約⁴³⁾이나 華西學派를 이끈 李恒老의 강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⁴⁴⁾.

또 규모가 가장 큰 강학 모임으로는 會講(symposium)이 있다. 이 방식은 朱子가 1167년 嶽麓書院을 찾아 湖湘學派의 대표로 서원의 主敎로 있던 張栻과 사이에 中庸의 未發已發과 察識持養之序 문제를 놓고 며칠에 걸쳐 토론을 벌인데서 비롯되었다. 이때 모인 청중의 수가 너무 많아 그들이 타고 온 말이

40) 方彥壽, 앞의 책.

41) 盛郎西는 『中國書院制度』(1934, 華世出版)에서 배우는 자가 老師의 一言一動을 기록한 것을 言行錄, 講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講錄으로 구분하였다. 조선의 경우 <退溪言行錄>과 <朱書節要講錄>(李德弘), <心經講錄>(李咸亨), <四書質疑>·<心經質疑>(李德弘), <家禮講錄>(金隆) 등이 그 예가 된다.

42) 鄧洪波·趙偉, 「白鹿洞書院的建立背景與中國書院的變化－宋元明清」, 『한국서원학보』 11, 2020.

43) 예컨대 尹鳳九가 지은 <老江書院講學規目>(고령군 다산면소재, 1692년 宋時烈 제향의 <會講之規>(『屏溪集』 권34, 雜著) 같은 것이다.

44) 조선말의 여러 서원의 강회와 관련해서는 정순우 교수의 「19세기말 서원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한국서원학보』 12, 2021)에서 자세히 다루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 논문 258쪽에 나오는 柳重敎의 <書舍旬講儀>의 강회 운영절차와 의례에 관한 규정은 <東林會約>과 흡사한 면이 찾아진다.

서원 연못의 물을 다 먹어버려서 말랐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이를 〈朱張會講〉이라 하며 몇 년 후에 열린 鵝湖寺(書院)에서의 〈朱陸之辨〉과 함께 書院會講의 역사를 연 先河로서 유명하다.

그러나 이런 회강은 자주 있을 수 없었고 통상적인 사제 간의 問答論辯인 강학과 평소의 강학한 바에 기초하여 간헐적으로 개최되는 강회가 주류였다. 앞서 제시한 호계서원의 강학활동 〈표〉에서 독서와 장수 위주이던 16-17세기의 그것은 퇴계나 학봉의 저술을 교정, 편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朋儕 간의 講論 정도이고, 講席을 두고 諸生과 問難討論하며 分析義理하던 18-19세기의 강학은 講會로 구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호계강회에 대해서는 선행의 연구⁴⁵⁾에서 이미 자세히 검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강회관련 기록이 전하는 1765년과 1789년의 강회, 鄉飲酒禮를 竝行한 1856년의 강회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1765년(영조41년) 大山 李象靖을 講席으로 하여 90여 명이 1주일에 걸쳐 『大學』·『心經』을 놓고 問答, 辯析을 벌인 강회는 호계서원 講會題名錄을 작성하고, 특히 강회의 儀節 절차와 문답내용을 수록한 〈廬江記聞錄〉을 남겼다. 아마도 서원강회와 관련해 講錄을 작성한 예는 이전에는 찾기 힘든 사례가 아닌가 한다. 그런 만큼 이때의 강회는 이후 전개되는 호계서원 강회의 모범과 기준이 되었다.

1789년(정조13)의 『心經』講會는 柳長源을 講席으로 하여 200여 명의 文友가 참석한 가운데 1주일 간 진행되었고 강회가 제도화되기를 바라면서 顛末을 담은 〈廬江講會錄〉이 작성되었다. 이 글은 행방을 알 수 없고 金道行이 지은 後書만 현재 전한다⁴⁶⁾. 이에 따르면 1765년 이후 다시 강회를 열고자 했으나, 李象靖의 별세로 동력을 잃어 폐지되다시피 했는데, 全羅都事로서 虎溪洞主 자리에 있던 鄭來成(惟一齋系인 鄭士誠 후손)의 물적 지원으로 강회

45) 권오영, 「퇴계학맥의 전개와 호계강회」, 2023년 한국서원학회 기획학술회의 “호계서원과 조선후기 영남공론”의 기조발표, 2023년 10월.

김자운, 앞의 논문.

46) 金道行, 『雨阜集』 권5, 雜著, 〈書廬江講會錄後〉.

재정을 마련해 24년 만에 다시 개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강회 개최의 關鍵이 물력의 확보에 있음이 확인된다. 앞서 17세기에 서원 居齋가 거의 없고 강회가 부진했던 원인을 재정 부족과 관련해 보았는데 지나친 억측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본다.

1856년의 강회는 감사 申錫愚의 요청과 부사 趙在應의 주선에 의해 개최되었다. 柳致明을 丈席으로 하여 십수명으로 강회운영조직을 구성했으며 수백명의 유생이 모인 가운데 『心經』을 강론하면서 퇴계의 心性理氣와 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辨釋했다. 강회가 끝나고는 200여 명의 士人이 鄉飲酒禮를 행하였다고 한다. 이 강회는 감사의 요청이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안동유림들이 결속을 강화하고, 장차의 患難에 대비해 각오를 다지는 모임으로서의 의의를 지녔다. 강회가 개최되던 때는 內憂外患으로 국내에 위기감이 감돌던 시기였다. 1840년의 阿片戰爭과 南京條約으로 서양의 침입이 본격화한데다가 太平天國의 반란으로 중국이 동요한다는 소식에 더하여 해안 쪽에 異樣船이 자주 출몰하는 것이 外患라면, 戚族勢道로 民心의 離叛이 심각한 것은 內憂이었다. 감사 신석우의 강회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향촌의 주도세력인 土族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신적인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를 이면에 깔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호계서원으로서는 더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 1805년부터 시작된 屏虎是非로 격화된 土論을 재정비하여 虎論 쪽의 결속과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었다. 퇴계학설의 핵심인 心性理氣와 敬을 다루고, 특히 참석자 200여 명이 함께한 향음주례의 시행이 그러하다. 퇴계학설의 傳授·發揚基地로서의 천명과 鄉黨에서의 長幼·朋友 간의 질서와 신의를 행동으로 통해 표현함으로써 虎派의 결속을 강조하는 회합이었던 것이다⁴⁷⁾.

앞의 표에서 보이는 18세기 전반의 강회를 주도하였던 李栽, 李楊, 金聖鐸 등은 이현일의 문인들이었다. 18세기 후반 이후는 大山 李象靖과 그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이현일이 栗谷學派의 主氣說을 비판하고 퇴계의 互發

47) 권오영, 앞의 논문의 4. ‘호계강회의 의의’ 참조

說을 理중심으로 정리한 分別論的 觀點을 계승 발전시켜 主理說을 확립하고 서원강회를 통해 이를 전파시켰다. 그런데 이들은 師承관계 뿐 아니라 혈연적으로도 밀접히 연결되었다. 李栽는 李玄逸의 아들이며 李楊은 그 조카, 李象靖은 이재의 외손, 李秉遠은 이상정의 손자, 柳致明은 이상정의 외증손이었다. 뿐 아니라 金聖澤은 金誠一의 형 克一의 현손이며 金樂行은 그의 아들, 金岱鎭 역시 克一의 후손이다. 柳長源과 柳致明은 모두 학봉집안의 外裔인 무실 全州柳氏들이다. 이런 학맥과 혈연관계의 맨 위에 자리하는 갈암 이현일은 잘 알려져 있듯이 敬堂 張興孝의 외손이며 장흥효는 바로 학봉의 直傳門人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鶴峯-敬堂-葛庵-密庵-大山-定齋로 이어지는 학봉학맥이 사실상 호계강학을 주도하였고⁴⁸⁾, 또 달리는 그런 호계강회를 통해 퇴계학설을 發揚, 傳播시키면서 그 학맥을 뚜렷이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17세기의 집권세력에 대한 대응관계에서 鶴峯系는 여강서원에 기반하여 이념과 관련된 陸廡반대운동을, 西厓系쪽은 服制 誤謬와 관련해 屏山書院을 중심으로 禮學 쪽을 각기 담당해, 역할분담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息山 李萬敷가 “퇴계문하에서 서애는 事功으로 학봉은 大節로 성취했다”고 한 말을 經世와 理念으로 풀이하면서, 이를 서애·학봉계의 학문성향으로 연결시켜 본 적이 있다. 이 풀이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면 18-19세기에 들어와 학봉계의 虎溪講學을 통한 退溪 主理說의 확립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호계강회를 학봉계가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18세기의 60년간에 걸친 호계서원 院長의 명단인 〈虎溪任錄〉을 통해서 類推해 볼 수 있다. 명단에 있는 총 62명 중 義城金氏·全州柳氏가 각기 11명씩이고 安東權氏 8, 眞城李氏 5, 豐山柳氏와 載寧李氏가 각기 4인이며 나머지는 2명 이하의 姓貫들이었다. 이 중에서 학봉계라 할 수 있는 의성김씨·전주류씨만 해서 22명이고 다시 이현일집안인 載寧李氏까지 합하면 26명(46%)에 이른다. 거기에 비해 확실한

48) 권오영, 앞의 논문. 이하의 논술에서는 이 글을 주로 참고하였다.

서에게인 豐山柳氏는 4명에 불과하다. 설사 婚姻과 師承관계로 얹히는 他姓의 인물이 있어 이를 합산한다 하더라도 학봉계에 미치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學脈別로 볼 때 25명이 학봉계 이현일의 문인이었다 한다.⁴⁹⁾ 60년 간의 기록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호계서원의 운영이 서에게보다는 학봉계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호계강학이 학봉계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수 있었고 동시에 강회를 통해 문인 세력을 확산시킴으로써 학봉계의 서원운영과 장악에 힘을 더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1649년(孝宗即位) 『鶴峯集』이 開板된 데 이어 1726년 〈鶴峯年譜〉, 1782년 『鶴峯續集』이 계속해서 간행되고 李德弘의 〈朱子書節要講錄〉을 修補한 李栽의 『朱書講錄刊補』, 역시 李象靖의 교정을 거쳐 그 사후인 1785년에 호계서원에서 간행되었다. 이것을 보면 실상 학봉계는 金彥機系의 인물들을 포용하면서 일찍부터 여강서원에서의 비중을 키워왔고, 18세기 虎溪講會를 통해 主理說 중심으로 퇴계학설을 확정, 퇴계의 嫡傳문파로서의 지위를 천명하며 호계서원으로 하여금 퇴계학설의 本山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했다고 본다.

호계강회에서의 교재는 주로 『心經』이었고 때로는 〈玉山講義〉가 등장하기도 했다. 『심경』은 南宋末의 사회변동과 異民族의 침입에 따른 內憂外患, 權臣들의 권력 장악에 따른 부패한 정치현실을 극복할 원리로서 正人心을 들고, 그 방법으로서 程朱의 心性學을 발전시킨 窮理持敬을 說破한 眞德秀의 저술이다⁵⁰⁾. 대체로 帝王과 士大夫의 理學經世에 의한 도덕실천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여 治國平天下를 도모하려는 정치사상을 담고 있다고 말해진다. 〈옥산강의〉 역시 朱子가 晩年에 장차 자기학파에 닥칠 禍難(慶元僞禁)에 대비하여 그 문인들에게 聖學에 대한 신념과 각오를 다지게 하려고 자신의 학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서원의 경우도 비슷하겠

49) 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2022.

50) 『中國儒學百科事典』, 678~679쪽, 陳德秀·西山文集·心經 항목, (中國孔子基金會編,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北京, 1997), Baidu, 검색어:朱熹玉山講義 思想价值, 항목:朱熹〈玉山講義〉- 百度文庫.

지만) 호계강회에서 『심경』과 〈옥산강의〉를 강론한 것 역시, 당시 사람들이 당면했던 시대적 위기상황과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의 강화와 사림의 정신적 무장을 촉구함으로써, 유가적 理想社會를 수호하려는 신념과 각오를 다지려는데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후일 영남지역 衛正斥邪 운동의 사상적 淵源이 된다고 말해지는 所以이기도 하다.

淸末 중국 서원은 洋學을 받아들여 과학과 수학을 학습하며 變法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관료층 중심의 甲午·光武개혁은 있었다. 그러나 조선 儒林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衛正斥邪와 같은 운동이 중국에서 일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에 대처하는 實事의 학문으로서 일어난 實學은 근대로 향하는 改革사상의 조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실학의 사상적 밑바탕에, 窮理持敬을 위주로 한 理學精神이 서원강학을 통해 자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호계강학이 갖는 의의는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학봉계가 강학을 주도하면서 서원운영권을 서서히 장악하게 되자, 초기의 우세하던 형세로부터 17세기의 역할분담을 통해 구축해 왔던 공동운영에 의한 균형관계에서의 서애계가 가졌던 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서애계로서는 병산서원 쪽에 보다 집중하게 되며 그것이 철종14년(1863) 사액을 받는 성과로 나타난다. 屏虎是非를 촉발시킨 厓鶴 序次논쟁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양대 계열 간의 이러한 균형상의 변화가 잠재되어 있었다고 본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도산서원이 퇴계학통⁵¹⁾의 淵源으로서 立祠를 통해 우리나라 儒學의 大宗師를 제향하는 首院에 자리하게 했다면, 호계서원은 퇴계학설의 基地로서 강학과 傳授를 통해 그 학설을 發揚, 闡明하는 위상을 갖게 됨으로써 상호 表裏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51) 도산서원은 18세기 이후 權斗經의 『溪門弟子錄』을 보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陶山及門諸賢錄』을 간행해 퇴계학통을 밝혔다.

VI. 맺는 말

호계서원은 여강서원으로 불릴 때, 단합된 힘의 표현인 通文과 상소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믿는 正義를 천명하고 邪論을 辨破해 조선 사림의 正學을 수호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과 大乘의 次元에서 양보하는 협력정신을 길러 왔다. 虎溪란 賜號를 걸게 되면서는, 퇴계에 의해 수립된 조선성리학을 계승, 강학을 통해 발전적으로 후학들에게 전수하면서 내우외환에 대처하는 士君子의 正心과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정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屏虎是非의 과정에서 이러한 虎溪精神이 실종되자 끝내 철폐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廬江志』와 『廬江事實』을 보면서 시비 논란을 전하는 문자도 중요하지만, 호계서원 역사의 실제적 모습이기도 했던 상호존중과 배려, 협력관계 및 강학관련 자료를 대폭 보강하여 함께 수록해 엮은 새로운 “虎溪書院志”의 편찬⁵²⁾을 망상해보기도 하고, 오늘날 부활된 호계서원의 사회적·사상적

52) 대개 書院志의 편찬목적은 先儒의 道脈이 끊어져 없어지지 않게 하여 文獻을 徵考하여 배우는 자가 興起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한다(『東林書院志』序, 志則何以道脈不替 徵文考獻 學者可以興焉爾也). 그래서 君子의 道統淵源과 出處本末이 史冊에 散在한 것을 정리하고 論斷을 드러내어 서원지를 만든다고 한다(諸君子道統源流 出處本末 散在史冊者 爲之校核位置 發揚論斷 彙爲一書). 특히 서원지에 講學한 내용을 기록한 ‘會語’를 둔 것은 後學으로 하여금 弟子의 班列에서 先賢의 말씀을 親炙하는 것 같아서 私淑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한다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端以明教爲主…故諸賢會約會語 確系東林者 決宜備載 後學一展卷問 卽不啻親切敬聽於弟子班列 卽私淑之念 當有油然而生者, 『東林書院志』總目). 中國 최초의 서원지는 宋代의 『萊山書院志』라고 하나 서원이 아니라 一族의 義莊에 불과할 뿐이어서 의미가 없다 한다. 진정한 서원지는 기록이 축적된 15세기 말부터 나오는데, 1498년의 『白鹿洞書院志』가 그것이다. 이후 이 서원지는 1513, 1525, 1592, 1632년의 5修를 거친 5種이 현재 전하고 있다. 이후 각 서원은 자기 서원의 문헌자료(規章制度, 講學記錄, 建院姓氏, 田畝財産, 藏書目錄)를 정리해, 原志(沿革), 語錄, 會語, 問答, 規章, 書目, 文集(書院記 같은 諸人의 記述), 詩集(서원과 관련해 諸人이 지은 詩) 등의 항목으로 서원지를 편찬하였다(鄧洪波, 『中國書院史』, 2005, 臺灣).

우리나라 서원지는 『竹溪志』가 최초이고 이어 『迎鳳志』, 『吳山志』가 초창기에

기여, 역할의 새로운 진로와 관련해 강회활동의 현대적 활성화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혼자 궁리해 보기도 한다.

편찬되었는데, 축적된 기록이 없어서인지 창건사실 관계 외에는 祭享人物의 소개나 學規, 學田, 藏書 등에 관한 기록으로 그치고 있다. 그래서 朱子의 글이나 서원관련 기록, 그리고 『明一統志』에 所載된 각 縣의 개개 서원에 관한 기록을 轉載해 놓았다. 18세기에 퇴계후손 李守淵이 『陶山誌』를 편찬했다는데(李晚仁의 『靑壁集』跋, 李中麟의 『靑壁集』識), 확인할 수 없고 1930년대에 다수의 서원지가 나왔지만 대부분 간단한 沿革 외에는 제향인물에 관한 기록으로 시종하고 있다. 최근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 古文書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한 『玉山書院志』, 『道東書院志』, 그리고 소수서원에서 편찬한 『紹修書院志』가 나와서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서원이 소장된 이런 고문서 등의 자료와 『실록』·『승정원일기』·『書院謄錄』 같은 연대기, 官廳의 公移나 明文 牒呈 및 특히 개인의 文集에서 보이는 該當 서원 관련 기사, 편지나 詩文 등을 뽑아서 함께 재편집하고, 알맞게 항목을 설정하여 서원지를 편찬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道脈이 不替하고 學者가 興起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서원의 과거 역사로부터 미래 서원의 전개 방향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사회문화교육의 새로운 場面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1. 원전

『書院謄錄』

『松巖集』(權好文)

『惟一齋實記』(金彥璣)

『拙齋集』(柳元之)

『密菴集』(李栽)

『有懷堂集』(權以鎭)

『中國歷代書院志』, 江蘇教育出版社, 1995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 1995

『中國書院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6

『東林書院志』, 中華書局, 2004

2. 논저

권오영, 「퇴계학맥의 전개와 虎溪講會」, 2023 한국서원학회 기획학술회의 기초발표.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2, 2021.

김학수, 「廬江書院과 영남학파, 조선시대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사연구회, 1998.

서정문, 「조선중기 文集編刊과 門派형성」, 국민대 박사논문, 2006.

설석규, 「퇴계학파의 分化와 屏虎是非」, 『퇴계학과 한국문화』 45, 2008.

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2022.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2022.

정순우, 「19세기말 서원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 『한국서원학보』 12, 2021.

Abstract

The Way of Understanding about so-called Hogye seowon's 虎溪書院 Controversy

Chung, Man-jo*

The Hogye seowon was established in 1576 (the 9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in Andong by the disciples of Yi Hwang, also known as Toegye, to honor and perpetuate his scholarly virtues. Originally named Yeogang seowon, it was granted the royal plaque of Hogye in 1676 (the 2nd year of King Sukjong's reign). Since its establishment, there were some disputes among factions over the enshrinement of direct transmission disciples. However, these were overcome through mutual respect, concession, and cooperation,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oegye's scholarly teachings and the continuation of its academic tradition as a principal center of Toegye studies. Unfortunately, during the 19th century, internal conflicts known as the Byeongho Dispute 屏虎是非 arose between different factions and lineages, ultimately leading to the abolition of the seowon. Today, with the reconstructed Hogye seowon, there is hope for the revival of the Hogye spirit, along with discussions on exploring new roles, charting future directions, and modern revitalization strategies for scholarly gatherings and lectures.

Key word : Order of Precedence Dispute, Confucian Scholars' Appeal, Theory of Principle (Li, 理), Neo-Confucianism, Ritual Studies, Primacy of Principle, Seowon Lectures, Scholarly Gatherings(講會), Hogye Spirit

* Emeritus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논문 투고일: 2024. 11. 18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虎溪書院의 立地 景觀과 儒學的 審美*

김 덕 현**

- I. 호계서원 입지 경관 연구의 의의와 審美的 接近
- II. 創建과 立地 景觀
- III. 호계서원 경관을 노래한 詩文들
- IV. 江景 書院 門樓 養浩樓
- V. 養浩然之氣의 서원

【국문초록】

虎溪書院은 안동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호계서원의 대표성은 제향 인물, 강학 전통뿐 아니라, 건축 규모와 입지 경관에도 있다. 호계서원은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었으나, 최근에 移轉 復原되어 옛 건축을 되살렸다. 이 연구는 호계서원의 立地和 景觀에 대한 儒學的 審美를 詩文을 통해 고찰한다.

낙동강을 바라보는 江景 立地の 호계서원은 유명한 신라시대 불교 사찰 白蓮寺터를 계승한 것이다. 浩闊한 경관은 중국 廬山의 五老峰 경관에 비유되었고, 이를 전망하는 문루 養浩樓는 『孟子』의 ‘養浩然之氣’에서 유래했다. 불교 사찰 白蓮寺의 枕碧樓가 유교 서원 虎溪書院의 養浩樓로 바뀐 것이다. 枕碧樓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孤高하고 淸淨한 장소를 가리킨다면, 養浩樓는 유학적 수양을 통해 축적된 道義가 山水와 만나 天人合一하는 즐거움을 뜻한다.

養浩樓의 이름은 虎溪書院에 祭享된 退溪가 지었으며, 호계서원의 건립은 퇴계의 안동지역 제자들이 주도하였다. 호계서원을 건립한 안동의 유학자들은 이 서원을 道場 삼아 藏修遊息하며 養浩然之氣를 추구하였다. 즉 양호루는 호계서원의 전

* 본 논문은 안동 호계서원 「2024년 한국서원학회 추계기획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전면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 dukhyunk@naver.com

망경관의 특성-유학적 수양의 지향성-제향 인물 퇴계의 精神世界가 三位一體로 함축된 장소이다. 진정한 힐링이 요구되는 현대에, 호계서원의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養浩然之氣의 기상을 유학적 자연 심미의 맥락에서 재해석 재해석 재밌미하는 것이 유학의 현대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江景 立地, 儒學的 審美, 養浩然之氣, 天人合一, 退溪

I. 호계서원 경관 연구의 의의와 審美的 接近

1. 한국의 서원에서 경관의 의의

虎溪書院은 영남의 雄府 안동대도호부 首善 서원이었다. 최근 호계서원이 한국 유교문화와 국학을 研鑽하는 한국국학연구원 뒷 언덕에 옛 건물을 복원하고 서원 현판을 다시 달았다. 호계서원은 1871년(고종 8) 정치적 맥락에서 훼손되었다. 20세기 후반 국토개발 과정에서 그 터전마저 안동호 물 아래로 사라졌으니, 이제 옛 호계서원의 웅장한 규모와 아름답던 풍광은 기억으로 떠올리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다. 복원된 새 호계서원은 건축물에서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입지에서는 원래처럼 낙동강에 인접하지는 못했으나 멀리 낙동강과 그 뒤를 둘러싼 連峰을 俯瞰한다는 점에서, 옛 호계서원의 경관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옛 호계서원 경관, 특히 입지에서 유래한 전망 경관의 유학적 涵意에 초점을 두고, 詩文과 같은 기록 자료에 의존하여 고찰한다. 시문 자료를 중심으로 한 고찰은 일차적으로 원래의 호계서원 경관이 수몰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호계서원 경관의 유학적 함의를 찾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호계서원에서 藏修遊息했던 유학자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시문에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호계서원에 관한 연구는 최근 2023년과 2024년의 한국서원학회 기획학술 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학회에서는 호계서원의 강학 전통 과 제향 인물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24년 학술회의에서는 필자의 ‘호계서원의 입지 경관과 유학적 심미’에 관한 발표도 포함되었다. 그간 적지 않는 호계서원 연구가 있었으나, 호계서원의 탁월한 입지 경관에 주목하여 그 유학적 함의에 대한 고찰은 본 논문이 처음이다. 한국 서원 연구의 전체에 서도 경관을 포함한 공간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축적 측면에 집중되 었다. 건축학계의 연구는 대부분 서원의 건축양식과 그 공간적 배치에 대한 고찰이었다.¹⁾ 한국 서원의 ‘立地 景觀’의 특성과 그 유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는 사실상 필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필자는 한국 서원의 입지 경 관 유형을 산기슭 경사지에서 서원이 하천과 접하는[背山臨水] 방식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작은 시내를 바라보는 溪景, 큰 강을 바라보는 江景, 그리고 전면에 들판을 두고 멀리 강이나 시내를 바라보는 野景으로 분류하고 그 유 학적 함의를 문루 당호를 중심으로 해석한 바 있다.³⁾ 필자의 한국의 서원 입

- 1) 건축학 분야의 연구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상해(『서원』, 열화당, 1998 ;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건축관」, 『퇴계학보』 110, 2001), 조재 모(「조선시대 서원의 누각 도입과 정침 구현」,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 회, 2022), 유인호·하현정(「도동서원의 배치형태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 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11-3, 2008), 이왕기(「한국유교건축의 경의 공간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7), 1986)
- 2) 본 연구에서 ‘입지 경관’이란 서원의 입지 특성에서 연유한 경관, 즉 전망 경관 을 뜻한다. 김덕현의 한국 서원 입지 경관 연구는,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한국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 1·2, 『문화역사지리』 25-2, 3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a·b) ; 『道 東書院 景觀에 再現된 性理學의 精神世界』, 『문화역사지리』 29-4, 1917 ; 「儒學 의 自然美와 조선 서원의 展望景觀」, 『문화역사지리』 31-1, 2019.) ; 「한국 서원 과 중국 서원의 입지 공간구성과 유식공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등이 있다.
- 3) 필자(앞의 논문, 2011)는 서원이 마주 보는 案對 景觀의 특성에 따라 野景 山景 江景 溪景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앞의 논문, 2022)는 山景도 전면의 하천이 큰 江과 작은 시내[溪]로 나뉘므로, 서원 전망 경관 유형을 江景 溪景

지 경관 類型化(溪景 江景 野景)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입지 경관에 대한 분류와 해설에 실제로 반영되었다.⁴⁾

한국 서원의 입지 경관과 그 유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9개 서원을 연속유산(serial prosperities)로 등재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의결하면서 채택한 ‘보편적 가치’에는, ‘한국의 서원’이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 전통의 탁월한 증거”이며, 한국 서원의 ‘탁월한 가치’에서 차지하는 입지(위치)와 경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서원의 위치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선현과의 관련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경관으로 자연 감상과 심신 단련을 위해 산과 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서원에서 누마루 양식의 개방적인 건물은 그러한 경관과의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학자들은 성리학 경전과 문학 작품을 공부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격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인이 된 조선시대 성리학자를 배향하고 강력한 학문의 계보를 형성했다. ...⁵⁾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지지하는 발언에서, 중국 대표는 ‘한국의 서원’의 고유한 특성으로 ‘자연 환경과의 조화’와 ‘한국 성리학의 이상’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성리학의 교육기관이 비록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서원 역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 유가 문화의 보급과 지역화에 기여한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 환경과 잘 조화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건축 형식을

野景 등 3가지로 다시 구분하였다.

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경관 및 입지」, 『한국의 서원 사진 및 도면집』, 48~102쪽.

5) 이상해,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19~20쪽.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성리학이 추구하는 이상을 꽃피도록 하였습니다.⁶⁾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서원의 보편적 탁월성을 서원의 臨水 입지와 자연 감상을 위한 경관, 누마루 양식의 개방적 건물(문루)의 경관과의 연결, 이러한 입지와 경관 속에서 한국 서원의 유학자들이 추구한 우주 이해와 이상적 인격으로 예시하였다. 그리고 서원이 기원한 국가인 중국의 대표는 자연 환경과 잘 조화된 서원 건축 형식과 성리학적 이상의 연관을 한국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과 다른 독자적 특성으로 지적한 것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서 ‘한국의 서원’의 고유한 특성 즉 “자연에 조화로 온 서원 건축 형식과 성리학적 이상의 연관성”은 어떻게 이해되고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방안으로 본 연구는 한국 서원의 ‘立地 景觀’(입지에서 연유된 전망 경관)과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혹은 우주관)과의 함축적 관련성을 儒學的 審美的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유학적 심미’는 산수 자연과 유학적 인격의 정감적 합일, 즉 ‘天人合一’의 ‘道場’인 서원 경관에 대한 詩의 심미를 뜻한다.⁷⁾

공간을 문화적으로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경관은 흔히 말하는 경치와 다르다. 경관은 특정한 문화적 입장에 입각한 전망을 뜻한다. 객관적 위치를 의미하는 입지와 달리, 경관은 관찰 주체의 어떤 ‘자세’ 혹은 ‘시각’에서 본 ‘場面’이다. 경관은 주체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입각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한 세계의 모습과 충분히 통합된(fully integrated with the world of make-believe)” 전망이다.⁸⁾ 따라서 경관이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특정 문화집단

6) 이상해, 앞의 논문, 17쪽.

7) “공자는 형상에 대한 반성과 초월에 대한 추구가 있었으나, 그것은 개념 사변적 추상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시적 의미의 審美로 나타냈다. 공자가 추구한 초월은 또한 결코 감성 세계와 시공에 대한 초월이 아니고 바로 감성 시공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李澤厚著·權瑚譯, 『華夏美學』, 동문선, 1990, 78쪽.

8) Yi-Fu Tuan, *Topophilia-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 Y., 1974, p.133.

이 그들의 가치관·세계관에 따라 인식한 모습으로 재현된(represented) 자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적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재현된 자연 장면은 儒學的 審美的 관점에서 지각된 서원의 전망 경관이다.

안동호에 수몰 전후의 호계서원 입지 경관 비교	
	
〈그림 1〉 수몰 이전(1960년대 지형도) 南南東 방향으로 돌출한 곳[岬] 모양의 산지 아래에 입지한 호계서원은 낙동강이 휘감아 흐르고, 앞에 백사장과 강물, 그리고 멀리 오로봉[案山]을 바라보는 江景이다.	〈그림 2〉 수몰 이후(1980년대 이후 지형도) 안동호에 수몰되어 남쪽으로 길게 뻗어 섬처럼 보이는 호계서원 옛터와 안동호 건너편 오로봉 산등성이 남아 있다.

2. 서원 경관에 대한 심미적 접근

호계서원 경관에 대한 유학적 심미는 原形 景觀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옛 호계서원에 관한 詩文 등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에 의존해야 한다.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은 특정 문화 집단이 그들의 이상세계를 현실에 구현했던 역사적 장소를 再現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대체로 조선의 서원은 산수 풍광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案對 방식으로 입지하고, 그 안대 경관을 審美할 수 있도록

건축을 개방적으로 구성 배치한다.

본 연구는 호계서원의 입지 경관을 그 기능적 효용성이 아니라 유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감적 심미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유학의 전통에서 美와 善은 혼재되거나 대체로 같은 뜻이었다.⁹⁾ 유학에는 도덕적 가치 곧 善을 미적 感受의 방식으로 체험하는 심미 전통이 있다. 審美는 쾌감·즐거움이라는 감성적 형식일 뿐 아니라, ‘孔顏樂處’와 같은 정신과 영혼의 즐거움(悅志悅神)이라는 聖賢의 인생 경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¹⁰⁾ 맹자는 개체의 인격을 善 信 美 大 聖 神의 6단계로 나누고, “充實한 것을 美라고 부른다.”하여 美를 ‘충실하게 실현된 善’으로 보았다.¹¹⁾

天命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유학자들에게, 공자는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言 天何言哉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사계절이 운행하고 만물이 생겨난에 있어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論語』「陽貨」-19)하고 최고의 존재 하늘[天]의 근본적 의미를 動態的 ‘生’으로 보았다. 유학의 세계관이 천명된 『易傳』은 外在하는 自然인 天에 天人合一의 심리 정감적 내용을 갖추게 하였다. 즉,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하늘의 운행은 건실하여, 군자는 이로써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않고 힘쓴다.”(『乾卦』 象辭), “天地之大德曰生 천지의 큰 베풀음을 생이라 한다.”(『繫辭』 上-1),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날마다 새로워짐을 盛德이라 하고 낳고 낳음을 易이라 한다.”(『繫辭』 上-5) 하였다. 이는 하

9) 李澤厚(『중국미학입문(原題 美學四講)』, 중문, 2000, 47~52쪽)는 ‘美’ 자는 서로 연계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첫째, 감각적 쾌감을 강렬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羊大則美”에서 유래했다. 둘째, 윤리적 판단의 약한 형식 즉 엄숙한 윤리를 감상하고 즐기는 형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羊人爲美”나 美와 善의 未分化和 관련된다. 셋째, 審美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美는 대부분 심미 대상을 가리킨다. 즉 미적 감상 대상에 대한 심미 판단이다.

10)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勿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論語』「雍也」.

11) 浩生不害問曰 樂正子何人也? 孟子曰 善人也 信人也. 何謂善 何謂信? 曰可欲之謂善. 有諸己之謂信. 充實之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大.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樂正子二之中. 四之下也 -『孟子』「盡心」下.

늘의 마음이 ‘낭음(生)’이라는 德性으로 산수 자연에 體現되어 있으니, 사람은 이를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易傳』의 가르침은 ‘人與天地參 사람은 천지와 함께한다.’는 천인합일의 유학적 세계관을 심미적 정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장구한 유학의 심미 전통은 산수 자연을 비유하거나, 의인화하여 산수에 도덕적 품격과 생동하는 정감적 내용을 부여하였다.¹²⁾

하늘의 덕성이 실현된 客體인 산수 자연을 詩的으로 표현하여, 인간과 자연·美와 善, 나아가 眞善美·天의 정감적 合一을 추구해 온 것은孔子로부터 시작된 유학의 오랜 전통이다. 공자는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침이 없도다.”(『論語』「子罕」-17)하여, 정감적으로 자연과 인생을 詠嘆하는 詩的 審美를 열었다. 孟子는 “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如天地同流 군자가 지나가는 곳은 교화되고 머무는 곳은 신비로워지며, 상하로 천지와 흐름을 같이 한다.”(『孟子』「盡心」上13) 하여 天人同構 사상을 드러내고, 최초로 유학의 심미 범주에 崇高 곧 ‘陽剛의 美’를 수립했다. 도덕과 생명이 일체로 드러나는 도덕 주체의 생명력을 “我善養浩然之氣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孟子』「公孫丑」-上2)라고 천명한 것이다. 마침내 朱子에 이르러서는 “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인데, 사람이 이를 얻어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朱子大全』 67 雜書 「仁說」)하였다. 주자는 만물을 낳고 낳는 산수 자연과 마음으로 感通 合一하는 경지를 仁의 체득으로 보고, 이를 詩的 情趣로 읊었다.¹³⁾ 조선의 退溪는 제자와 함께 노닐며 학문하는 즐거움을 자연에 대한 시적 심미로 드러냈다.¹⁴⁾

12) 李澤厚著·權瑚 역, 앞의 책, 1990, pp. 96~97.

13) 危亭俯清川 登覽自晨暮 佳哉陽春節 看此隔溪樹 連林爭秀發 生意各呈露 大化本無言 此心誰與晤—『朱子大典』 권6 「題林澤地之欣木亭」;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夫既有欲矣 則不能無思 既有思矣 則不能無言. 則有言矣 則言之所不能盡 而發於咨嗟詠嘆之餘者 必有自然之音響節奏 而不能已焉 此詩之所以作也—『詩傳』 「詩傳序」.

14) 次韻金秀才士純 金성일의 시 운자를 써서 짓다 3絶중1·2絶—『退溪文集(內集)』 卷5.

이처럼 유학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인화하여 영탄하고, 도덕 주체의 생명력에 비유하며, 천인합일의 정신을 드러내어, 천지만물을 낳고 낳는 생명 세계에 대한 直觀과 山水 自然에서 함께 노닐며 학문하는 즐거움까지 시적 심미로 표현하는 문화 전통이 있다. 유학자는 산수 자연에 대한 시적 예술적 심미를 통해 도덕적 역량을 축적하고[以美儲善], 깨달음으로 진리를 자유롭게 직관함으로써[以美啓眞], “上下與天地同流 천지와 더불어 흐르는” 天人合一의 인격 경지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호계서원의 건립 과정과 遊息 활동에서 나타난 情景交融의 기록, 그리고 集義의 소산으로서 浩然之氣의 장소 養浩樓에 대한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유학적 장소로서 호계서원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이다. 超移動 超接續의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힐링을 위해 산수 자연 속 문화적 체험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사유에서, 한국의 서원이 입지와 경관을 통해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상적 인격을 추구한 것에 주목한 것은 한국 서원 경관이 현대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인류 문화의 보편 가치를 함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원 경관에 대한 儒學的 審美의 탐구는 유학의 현대적 활성화에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雲裏巢成我勝鳩	구름 속에 둥지 트니 내 신세 비둘기보다 낫고
能專一壑果前謀	한 골짜기 맡아서 전에 마음먹었던 일 이루었네.
可憐地老天荒處	아리따구나! 오래된 땅 하늘이 남겨둔 이곳을
分付閑人待此秋	한가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이 가을을 기다렸구나.
應俗多妨頭雪白	세상 일 겪어내는 어려움으로 머리에 눈 내린 듯하지만
得君偏喜眼湖青	그대 얻으니 오직 기뻐 맑은 눈동자로 대하네.
從今日日開幽款	지금부터는 날마다 그윽한 마음 활짝 열어놓고
莫負雲窓與月亭	부디 저버리지 말자구나. 구름 속 창과 달빛 어린 정자를.

15) 李澤厚著·張泰鎮譯, 앞의 책, 2000, 76~86·194~196쪽.

II. 創建과 立地 景觀

1. 여강서원의 건립

호계서원은 퇴계 선생께 훈도 받은 16세기 후반 안동 士林이 天人合一의 세계를 그들 고장에서 最適의 장소를 선정하여 탁월하게 구현한 장소였다. 특히 ‘강물을 바라보는[江景 立地]’ 호계서원 문루 養浩樓는 호활한 산수 자연과 정면으로 대면[案對]하여, 도덕적 인격 주체의 정신이 하늘·땅과 더불어 하나 되는 즐거움의 무대였다. 學堂일 뿐 아니라 심성 함양의 道場으로서 산에 기대어 멀리 강물을 바라보는 浩闊한 한국 서원의 특징적 입지 경관은 廬江書院[虎溪書院]으로 사액 이전의 명칭에서 시작되었다.

退溪를 제향하는 廬江書院 창건 논의는 1573년(癸酉 선조 6, 萬曆元年) 정월에 권호문(權好文, 1532~1587) 등 안동 士林들의 『퇴계선생문집』 교정을 위한 易東書院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1576년(丙子) 2월 불교 사원 白蓮寺 터에 서원을 건축하여, 예안의 陶山書院과 같은 날에 퇴계선생의 위패를 봉안하였다.¹⁶⁾ 조선의 최초 서원인 紹修書院(1543년)이나, 濫溪書院(1552년) 伊山書院(1558년), 그리고 易東書院(1570년)보다도 늦지만, 여강서원은 도산서원 玉山書院(1572년)과 함께 초기 서원이다.

여강서원은 1576년(丙子) 창건과 1605년(乙巳) 대흥수 이후 重建에까지 안동 사람의 일치된 주도와 안동부사 권문해(權文海)·김륵(金玞) 등 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건축되었다.¹⁷⁾ 여강서원은 그 건축 규모가 93칸에 달해서, 官學인 안동향교보다 컸다.¹⁸⁾ 비슷한 시기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의 주도로 세

16) 『廬江志』 原志 立院事實；『松巖集』 「年譜」.

17) 여강서원 창건 시기 안동부사 권문해(權文海)와 중건 시기 안동부사 김륵(金玞)의 문집에 나타난 여강서원 창건과 중건 사업에 대한 기록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안동부가 이 사업을 실제로 주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權文海, 『草潤集』 「年譜」, 金玞, 『柏巖先生文集』 「年譜」).

18) 『永嘉誌』에 따르면, 여강서원은 廟宇 尊道祠 6칸 神門 3칸 神廚 5칸, 강당 崇教

위진 옥산서원의 60칸 규모보다도 훨씬 크다. 강당 崇敎堂은 정면 5칸 측면 3칸(7檁 도리)의 15칸 건물로 보통 10칸 규모인 다른 서원의 강당에 비해 매우 크다.¹⁹⁾ 특히 숭교당은 좌우 대칭의 정면 맞배지붕으로 동서 夾室을 구성하여 매우 인상적 건축이다.



〈그림 3〉 규모가 크고 독특한 건축양식의 강당 崇教堂

2. 名人和 名所の 만남 여강서원

여강서원은 신라시대에 세워진 불교 사찰 白蓮寺를 廢寺시키고 그 자리에 건립한 서원이다. 초기 서원인 소수서원과 옥산서원도 사실상 官이 설립을

堂(東夾室 思誠齋, 西夾室 主敬齋) 15칸, 동재 求仁齋 서재 明義齋 각 4칸 童蒙齋 15칸, 문루 養浩樓 10칸, 대문 進學門 1칸 등 63칸이고, 有事房 5칸 齋廚 10칸 寶上庫 15칸을 더하면 모두 93칸 규모이다. 安東鄉校는 大成殿 9칸 東西廡 각 8칸 神門 3칸, 明倫堂 10칸 東西齋 각 5칸, 문루 靑養樓 9칸, 外大門 1칸을 포함하여 약 60칸 규모이다.

- 19) 목조 전통 한옥의 규모는 전체 면적보다 측면의 폭을 나타내는 도리 수(3, 5, 7, 9)로 비교한다. 경복궁 경회루가 9량 도리로 가장 크다. 한국 서원의 강당은 대부분 5량 도리인데, 호계서원 숭고당의 7량 도리는 사례가 드물다.

주도하여, 과거 불교 사찰 터를 인수한 것이다.²⁰⁾ 작은 시냇가에 있는 소수서원·옥산서원과 달리, 큰 강가에 입지한 여강서원은 일대의 공간 규모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廢寺址가 아니라 현존하는 사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서원을 설립했기에, 승려의 저항에 직면하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²¹⁾ 불교는 고려시대의 지배 이념 역할을 했고, 불교의 거점인 사찰은 선호되는 지리적 위치 즉 경승지를 점유할 수 있었다. 국가의 지배 이념이 유학으로 바뀐 조선에서 서원이 불교 사원의 자리를 계승 점유하는(sequent occupancy) 사례는 많았다. 여강서원의 경우, 현존하는 유서 깊은 큰 사찰을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거기에 서원을 세워야 할 만큼의 매력적 입지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안동지역 유림들이 여강서원 건립을 위해서 안동부사에게 올린 문文中에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도학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은 한둘이 아니지만 공자 [洙泗]의 적통을 빛내고 程朱의 宗派를 이은 사람은 退溪 한 사람이라고 하며, 안동 廬山에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을 세워야 하는 당위와 功效를 아래와 같이 펼쳤다.²²⁾

... 생각해 보면 안동은 영남의 큰 고을이며 여산은 한 고을의 명승지인데,

20) 소수서원은 宿水寺, 옥산서원은 定慧寺 옛터에 설립되었다.

21) 『惟一齋先生實記』 권2 「行狀」; 士林營建書院于廬江五老峰下 首以先生爲洞主 徹白蓮寺 毀其佛像 投之江 僧徒初欲拒不受;

『增補 景泗流芳』(천상문화보존회, 2019) 속집 선현 약전 「南嶽 金復一」, 602쪽; “선조6년(1573) 선생(金復一)이 33세이던 해 4월에 예안 廬江에서 士林들이 모여 퇴계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을 논의하여 시행기로 결말이 났다. 여강의 白蓮寺를 헐고 그 자리에 서원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승려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에 엮으려 죽기로 항거하여, 방백과 열읍의 수령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예천 김 아무개 나리가 당도하였다.’ 외치니 승려들이 모두 내려와 굴복하고 철거에 순응하였다 하고 행장에 써어 있다.”

22) 『廬江志』 권1, 原志 立院事實 「上府伯權草潤文海書」; 이 문文은 남악 김복일(南嶽 金復一, 1541~1591)이 起草하고, 여강서원 洞主 유일재 김언기(唯一齋 金彦璣, 1520~1588)가 안동부사에게 올렸다.

실은 선생께서 어린 시절 독서하시던 곳이다. 골이 그윽하고 깊으며, 구름 어린 골짜기가 조용하고 그 가운데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마치 선생의 거동 모습이 뚜렷이 강 가운데 머무는 듯하다. 그러니 그 땅을 보고 선생을 생각하고, 높은 산을 우러르듯 선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선생의 조상들이 대대로 여기에 살았음에랴. 다만 한두 대(代) 전에 예안으로 옮겼지만, 조상의 여러 선영이 또한 우리 고을에 있으므로 곧 선생은 우리 고장 사람이다. ...

산천의 아름다움 역시 사람에 따라 드러나거나 흐려지는 것이 틀림없다. 武夷九曲이 천하에 이름을 날린 것은 朱夫子가 남긴 아름다운 덕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산이 비록 한 지방의 기이한 절경이라 하지만, 만약에 선생께서 노닐며 즐긴 적이 없었다면, 흔히 보이는 강산의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아름다운 손길이 닿게 되면 정채가 백배나 더해지고, 만대의 우리름이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앞으로 武夷와 이름을 나란히 하여 아름다움을 함께할 것이니, 이곳의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까지 모두 도덕의 빛을 입게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을 영험하게 하고 선비를 뛰어난게 하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 벗들과 함께 강습하여 도덕에 흠뻑 빠지고 의리를 되새기며, 여산의 뛰어난 모습을 우러르며 숭고한 덕을 행할 생각을 일으키고, 낙동강의 쉬지 않는 흐름에서는 천지의 도가 이와 같은 이치임을 깨달아, 들은 바를 존중하고 이는 바를 행한다면, 선사의 유훈을 어기지 않고, 보살펴 주신 합하의 뜻도 저버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²³⁾

이 글은 영남의 큰 고을 안동의 명승인 이곳 廬山이 퇴계 선생이 젊은 시절 독서하던 곳이니, 여산 산수가 선생의 모습을 떠올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23) 顧惟安東嶺南之鉅府 廬山一府之勝地 而實先生少時讀書處也. 洞府幽邃雲壑窈窕 江流不息混混乎其間 先生儀形宛在水中坻 則見其地而思其人 以致高山景仰之意者 寧有極乎 況先生祖先世居于此 特二世移于禮安 而祖先諸塋亦在於吾府 則先生即吾鄉人也. 且山川勝槩 亦必因人而顯晦 武夷九曲 得名於天下者 以其有朱夫子遺徽也 今茲廬山 雖曰一方之奇絕 而苟非先生之遊賞則 人之視之也 不過尋常 一溪山而已 一經芳躅 精彩百倍 萬世瞻仰 此其權輿 將與武夷齊名而并美 凡一草一木 皆衣被道德之光矣 況靈而爲人秀而爲士者乎. ... 士友相與講習 涵泳乎道德咀嚙乎義理 仰廬山之卓爾 興高山景行之思 臨洛江之不息 悟逝者如斯之旨 尊所聞行所知 則庶不背先師之遺訓 而亦不負閣下眷眷之意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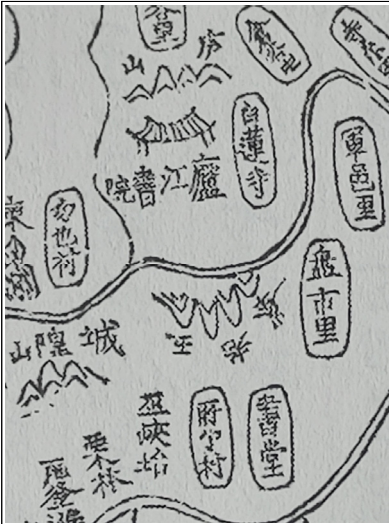
일으키게 하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열어간다. 나아가 안동 땅에 퇴계의 선영이 있으므로 퇴계는 사실 안동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산천의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의해서 명성이 달려 있는데, 주자와 武夷九曲이 그렇다. 여산이 안동의 絶景이라 하지만 퇴계의 손길이 닿은 곳인 까닭에 생기 넘치는 기상이 백배로 더하고 만대에 이어질 승모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니 앞으로 서원이 세워지면, 무이산과 명성을 나란히 하여, 사람을 영험하게 만들고 뛰어난 선비를 양성하게 될 곳으로 믿는다고 주장한다. “山川勝槩 亦必因人而顯晦 산천의 아름다움 역시 사람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여강서원 건립 정문의 주장은 天人同構 天人感應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²⁴⁾ 산수를 말하면서 사람을 찬양하고²⁵⁾ 성현과 명산을 竝稱함으로써 사람과 산수를 동일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²⁶⁾ 하지만 퇴계의 젊은 시절 여산에서의 행적은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안동에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지는 안동 사람의 주장은 퇴계와 같은 뛰어난 현인을 제향하는 서원은 마땅히 안동부에서 가장 탁월한 경

24) 山은 어진 이로써 일컬어지고, 경관은 사람을 통해 빼어나게 된다. 赤壁은 칼로 자른 듯한 절벽 언덕에 불과하였는데, 蘇子가 2편의 「赤壁賦」를 지음으로써 그 빼어나함이 온 강산에 드러나게 되었다. 峴首山은 남방의 瘴氣가 있는 산이었는데, 羊公이 한번 올라서 그 이름이 천지에 드러났다(山以賢稱 境緣人勝 赤壁 斷岸也 蘇子再賦 而秀發江山 峴首 瘴嶺也 羊公一登 而名垂宇宙—王惲, 『秋澗集』, 『遊東山記』) 아름다움은 스스로 아름다워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蘭亭이 王右軍을 만나지 않았다면 맑은 여울과 긴 대나무가 빈산에 묻혀버렸을 것이다.(夫美不自美 因人而彰 蘭亭也 不遭右軍 則清湍脩竹 蕪沒于空山矣—柳宗元, 『柳河東集』 권26, 「邕州馬退山茅亭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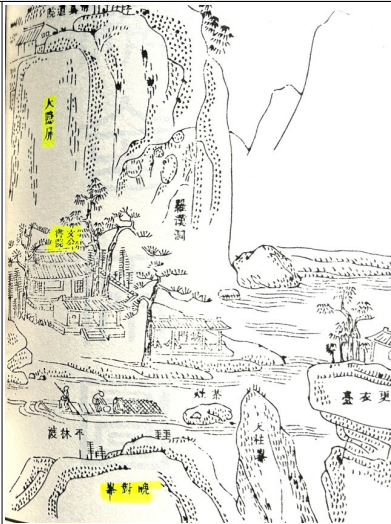
25) … 雲山蒼蒼 江水泱泱 先生之風 山高水長—范仲淹, 「嚴先生祠堂記」, 『古文眞寶』 下.

26) 孔子는 중국 산의 岱宗 泰山에 비유된다.(孔子人中之泰山 泰山岳中之孔子—嚴雲霄, 「咏孔子篇」.) 현대 중국에서 孔子가 泰山에 비유되듯이 朱子는 武夷山에 비유된다.(東周出孔丘 南宋有朱熹 中國古文化 泰山武夷—蔡尚思) 朱子를 名山 武夷山에 비유한 것은 중국문화에서 朱子和 武夷山の 위상이 孔子和 泰山과 比肩된다는 의미이다. 武夷山에서 차지하는 朱子の 比重은 더 강조되어 ‘地因人勝(費宏, 『武夷山志』 序)’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승지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주자와 무이산의 경우처럼 인물과 경치가 결합되어, 서원의 명성은 높아지고 사람은 더욱 영험해지며 양성된 선비는 더욱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여강서원에서 학업을 통해 익힌 도덕과 의리는 여산과 낙강에서의 遊息으로 실천을 다짐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藏修遊息으로 정문을 마무리하며,²⁷⁾ 이것이 퇴계선생의 유훈을 지키고 고을 수령의 보살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림 4〉 낙강을 앞으로 띠처럼 두르고 여산 아래에서 오로봉을 案對로 보는 江景, 여강서원 - 『永嘉誌』



〈그림 5〉 조선 江景 서원의 모델이 된 중국 무이서원과 대은봉, 만대봉 - 『武夷山志』

3. 地理志에 보이는 경승지 廬山

호계서원 자리가 빼어난 경승지라는 언급이 역대 지리지에 많다. 서원이

27) 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 - 『禮記』 제18장 「學記」.

발생하기 전 조선 전기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 安東大都護府 山川 조에 “廬山이 府 동쪽 25리에 있다.”하고, 佛宇 조에 “白蓮寺는 廬山에 있는데, 枕碧樓가 있다.”하고, 權漢公(權漢功)의 침벽루 시를 수록하였다.²⁸⁾ 또 조선 초기 인물 배환(裴桓)의 시 「枕碧樓次韻」도 있다 하였다.²⁹⁾

조선 후기 18세기에 간행된 지리지 『輿地圖書』 안동 산천조 廬山 항목에, “예안 영지산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안동부 水閣山이 되는데, 혹 廬山이라고 하는 것은 五老峰이 호계서원 앞에 있는 까닭이고, 三笑亭을 언급하면서 ‘모두 경치가 좋은 땅[皆勝地]’라 하였다. 호계서원이 바로 물가에 있으므로, ‘물을 바라보는 누각[水閣]’을 세우기 좋은 곳이며, 이 입지는 중국 여산의 오로봉을 바라보는 경치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廬山’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³⁰⁾ 壇廟 항목에서 서원으로는 虎溪書院이 첫 번째에 실려 있는데, 養浩樓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양호루를 읊은 명나라 장수 朱元兆와 감사 韓浚謙의 시를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대표적 전국 지리지인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은 모두 호계서원 터가 강과 산을 바라보는 경치로 오로봉이 있는 중국 여산과 비슷한 경승지라고 적었다.

17세기 초에 편찬된 안동의 私撰邑誌 『永嘉誌』에도 여강서원 터와 서원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다. 산천 조에 五老峰 항목이 있고, 各里 조 廬山村 항목에

28) 權漢功詩: 十載讀書處 布衣今再遊 長松蔭古道 亂石嗽寒流 白日山村晚 青春洞府幽 何日擁萬騎 一笑上江樓 - 『新增東國輿地勝覽』 安東大都護府, 佛宇 條.

29) 배환(裴桓)의 저술은 거의 유실되어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栢竹堂先生實記 附四棟史蹟』에 한 수 전해진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30) 廬山: 안동부 동쪽 25리에 있다. 북쪽의 예안 영지산에서 내려와 남으로 안동 수각산에 이른다. ‘여산’이라고도 하는 것은 오로봉이 호계서원 앞에 있기 때문이다. 삼소정 수각암이 있는데 모두 경치가 빼어나다.(在府東 25里 北自禮安靈芝山來 南至本府水閣山 而惑作廬山因稱五老峰前臨虎溪書院 有三笑亭水閣庵皆勝地 - 『輿地圖書』 안동도호부 산천 조) 水閣山은 특정 산의 이름(고유명사)이라기보다, 물에 임해서 산수를 즐기기에 좋은 산을 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水閣庵’의 물가에 있다. 이는 호계서원이 곧바로 물가에 있으므로, ‘물을 바라보는 누각[水閣]’을 두기에 좋은 곳이며, 이곳이 중국 여산 오로봉을 바라보는 경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서는 “강이 빙 둘러싸고 흐르는데 오로봉과 향로봉이 비녀를 꽂은 고리처럼 둘러서서 강가의 명승지이다.” 하였다. 또 퇴계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을 세우고 이름도 ‘廬山’으로 바뀌었다 했다.³¹⁾ 서원 조에서는 “여강서원은 白蓮寺 옛터에 있는데, 10칸 규모 문루 양호루는 옛 枕碧樓 자리이다.” 하고, 1599년(萬曆 己亥春) 양호루 경치를 읊은 주원조와 감사 한준겸의 시를 실었다.³²⁾ 이어서, 1605년(乙巳年) 대흥수로 물에 잠기니, 다시 북쪽 백보 좁 되는 곳에 南南東向[壬坐丙向]으로 터를 다시 잡고 해를 넘겨 1606년(丙午年)에 중건하였다고 하였다.³³⁾

- 31) 안동의 私撰 邑志 『永嘉誌』는 1608년(戊申, 선조 41) 용만 권기(龍巒 權紀, 1545~1624)가 편찬하였고, 교정본으로 간행이 된 시기는 1899년이다. 『永嘉誌』 권2 山川 편, “五老峰; 안동 府治에서 동쪽 20리이다. 여강서원의 서쪽 낙동강의 남쪽이다. 청자 옥체가 나온다.”(在府東二十里 廬江書院之西 洛流之南 青紫玉菜產焉); 권2 各里 편, 廬山村: “일명 白蓮寺이다. 부치에서 30리이다. 인가가 많고 영호(映湖) 경치의 본원이다. 앞으로는 강물이 넓게 펼쳐지고 낙동강이 피처럼 둘러 흐른다. 오로봉 향로봉 등 여러 봉우리가 비녀를 꽂은 고리처럼 둘러서 있어 상류의 경승지가 되었다. 신라시대 큰 절이 있었는데 서쪽 몇 리 거리에 작은 연못에 백련 몇 송이가 살아있었다. 그래서 절 이름이 백련이 되었다. 절 남쪽에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이름이 枕碧이다. 권한공의 시가 승람에 실려있다. 만력 갑술년에 고을 선비들이 퇴계선생을 위해 절을 철거한 후 서원을 건립하고 사당을 세우고, 이름도 여산으로 바뀌었다.”(一名白蓮寺在府東三十里 人家盛居所謂映湖勝概之本也 臨水廣平洛江襟帶 五老香爐諸峰插簪環立爲上流勝景 羅代有大刹 西數里許有小池白蓮數朶生焉 因以白蓮名其寺 寺之男有高樓數檻名曰枕碧 權漢公有詩載勝覽 退溪李先生少時讀書處也 萬曆甲戌一鄉士人爲先生撤去之 建院立祠改名廬山)
- 32) 廬江書院 在府東廬山村 卽白蓮寺舊基也 … 進學門外 樓十間名曰養浩卽枕碧樓舊基 萬曆己亥春正月二日 參征東大將軍幕府行軍事浙水四明 鶴林朱元兆詩, “先生已逝數十載 因祠先生更起樓 先生已逝數十載 因祀先生更起樓 俎豆春秋稱萬玉 衣冠陟降聽鳴球 水聲徹几機湛漣 山色當窓靜可求 養就浩然充六合 子興不獨只生鄒” 監司韓俊謙詩, 韓俊謙詩, “閒將玉節到名區 肅謁賢祠更陟樓 山意靜時看窈窕 溪聲終日聽琳球 先生杖履尋常近 後學詩書寤寐求 佳境向來無信地 不知誰魯復誰鄒” - 『永嘉誌』 권4, 서원조.
- 33) … 乙巳大水 廟宇堂齋墊沒蕩析 改卜院地北百步許 壬坐丙向之基 越明年丙午重建焉. - 『永嘉誌』 권4, 書院 條

다른 지리지에도 여강서원 부근 지명에 五老峰, 虎溪, 三笑菴 등 중국 여산의 지명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즉 김정호의 『大東地志』 안동 산수조에 廬山 항목을 두고 五老峰으로도 부른다고 하였다. 조선 말의 『嶠南志』에도 여산은 안동부 邑治에서 25리에 있다. 日月山에서부터 온 산인데 虎溪가 그 아래를 돌아가고 三笑菴이 그 위에 있다고 하였다.³⁴⁾

호계서원이 발행한 『廬江志』 첫머리에 여강서원(호계서원)의 입지, 창건 경위, 그리고 사당 강당 누각의 이름에 관한 설명이 있다. 특히 여강서원 터는 과거 백련사가 있던 곳으로, 퇴계선생이 젊은 시절에 독서하던 곳으로 여겨서 선택한 것이며, 그 입지와 전망 경관을 중국 여산의 오로봉과 향로봉 폭포 등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 주목된다.³⁵⁾



〈그림 6〉 안동부 治所에서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在府東三十二里) - 『永嘉誌』

34) 廬山, 一云 五老峰 東二十五里 - 『大東地志』 慶尙道 安東 山水條; 在府東 25里 自日月山來 虎溪環其下 三笑菴在其上 - 『嶠南志』

35) 按廬江在安東府東三十里 廬阜山五老峰下 洛江經其前香爐之瀑懸 其傍卽白蓮寺舊地也 西厓鶴峯諸先生 以爲先師少時嘗讀書于此倡儀建院 推金惟一彦璣爲洞主 擧上舍秀才并十人幹之 功既成祠曰尊道堂曰崇教樓曰養浩 一院樓之扁以養浩蓋昉於星州迎鳳書院而出自老先生所用故述此意而名此樓云 - 『廬江志』 권1, 原志 立院事實.

Ⅲ. 호계서원 경관을 노래한 詩文들

호계서원이 입지한 여산기슭[廬阜山]에는 신라 고찰 백련사가 있었고, 누각 침벽루는 그 앞을 휘감아[環抱] 흐르는 낙동강이 五老峰을 만나 湖沼를 이루어 만든 물안개와 산그림자를 전망하는 호활한 풍광으로 일찍부터 이름났다.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東文選』 卷10에 함께 실린 고려 후기 권신 권한공(權漢功 ?~1349)의 「廬山寺枕碧樓」 詩에서 비롯하여, 호계서원을 노래한 많은 역대 시문은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흥을 일으키고, 地靈人傑의 관점에서 서원의 풍광을 읊고 퇴계의 德化에 힘 입어 유학의 발전을 기원했다. 權漢功은 고려가 元나라의 영향 아래 있던 시기 忠烈王부터 忠定王 대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쳐 활약한 權臣이다. 따라서 權漢功의 아래 시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시문과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少時的 노닐던 풍광 좋은 이곳을 또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더 호기롭게 누각에 올라 즐기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다.

廬山寺 枕碧樓-權漢功	여산사 침벽루- 권한공
十載讀書處 布衣今再遊	십년동안 글 읽던 곳에 선비로 이제 다시 노니네.
長松蔭古道 亂石嗽寒流	큰 소나무 옛길에 그늘 드리우고 어지러운 돌 찬 물결에 씻기누나.
白日山村暗 青春洞府幽	한낮에도 산촌이라 어두워 봄날 골짜기 안은 그윽하기만 하네
何日擁萬騏 一笑上江樓	언젠가 많은 군사 거느리고 한바탕 웃으며 강루에 오르리라.

임진왜란 때 안동에 주둔한 명나라 장군 주원조(朱元韶)도 여강서원 양호루의 아름다운 경치가 호연지기를 기르기 좋으니 맹자같은 인물이 여기서 태어날 수도 있겠다 하였다.

朱元兆 詩

先生已逝數十載

因祀先生更起樓

俎豆春秋稱薦玉

衣冠陟降聽鳴球

水聲徹几機湛遡

山色當窓靜可求

養就浩然充六合

子輿不獨只生鄒

주원조 시

선생 가시고 벌써 수십년

선생을 제사하러 다시 누각 세웠네

봄가을 향사에 귀한 제물 올리고

참여하는 벼슬아치들 구슬 소리 올리네

안석을 흔드는 물소리 맑아서 거슬러 오를 만하고

앞산 경치 고요하니 찾을 만하네

호연지기 길러 천지사방을 가득 채우면

맹자 같은 분 추나라에서만 태어나지 않을 것이네.

여강서원 창립을 제안하고 주도했던 인물 權好文도 권한공의 시를 차운하여 여강서원 경치를 노래했다. 침벽루가 있던 여산에 여강서원을 새로 지으니 유생들이 유람할 만한 곳이 되었다면서, 산 겹겹이 우뚝한 곳에 맑은 물 굽이굽이 흐르니, 백록동서원처럼 현인을 제향하고 호계처럼 그윽하고 경치 좋은 누각에 올라 본다고 읊었다. 출세한 인물이 고향에 돌아와 보여 주고 싶은 위세와 호기를 읊은 권한공의 시와 달리, 권호문은 천겹 푸른 산과 아홉 굽이 맑은 물 굽이치는 산수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누리는 선비의 즐거움을 읊은 것이다.

次 廬山枕碧樓

一新廬阜院

縫掖可羣遊

碧岫千重峙

清波九曲流

尊賢鹿洞勝

訪友虎溪幽

風物增光景

登臨萬古樓

「여산 침벽루」시에 차운하다

여산 언덕에 새로 지은 이 서원은

유생의 옷을 입고 함께 노닐 만 하네

푸른 산들은 천 겹으로 마주섰고

맑은 물결은 아홉 굽이쳐 흐르네

현인을 제향하니 백록동처럼 빼어나고

벗을 찾아드니 호계처럼 그윽하다네

더욱 아름다운 빛 더하는 풍경 보고파

만고의 누각에 오르는구나.

1576년(선조 9) 2월 정축(丁丑) 13일에 안동의 선비들이 백련사 옛터 廬江

書院에 退溪의 위판을 봉안하고 釋菜禮를 행하였다. 퇴계 선생을 봉안하는 제 문에서, 서에 유성룡(西厓 柳成龍)은 퇴계 선생의 고향인 안동 여산 언덕에 사당을 세우니, 선생이 남기신 德化에 초목도 향기를 먹음은 듯하다. 산은 높고 물은 도도하게 멀리 흐르는 것처럼, 퇴계 선생의 유풍은 남겨지고 덕망은 더욱 성대할 것이라 하고, 유생과 벼슬아치들이 모여 성대하게 거행하는 석례에서 선생의 신명께 잔을 올린다고 하였다.³⁶⁾

...	
矧伊鄉邦 敢昧所尊	더욱이 고향 땅이니 더욱 높이 받들지 아니할까
翼翼書堂 經始廬原	날아갈 듯 웅장한 서당 여산 언덕에 세워졌네.
追惟過化 草木含馨	선생이 남기신 덕화 생각하니 초목도 향기 머금고
山高而峙 水流益清	산은 우뚝하게 높고 물은 흐를수록 더욱 맑도다.
遺風如在 盛德彌長	남은 유풍 있어 성대한 덕망 더욱 오래 가리라
揭虔妥靈 時日孔良	경건히 영혼을 편히 모시니 이날이 더욱 좋구나.
青衿濟濟 群佩鏘鏘	유생들 성대하게 모이고 벼슬아치 걸음소리 울리니
神其來假 儼如茲觴	신명이여 부디 강림하셔서 환하게 이 잔 받으소서.

18~19세기 호계서원은 많은 유생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講會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³⁷⁾ 강회를 마치고 낙동강에 배를 띄우고 仙遊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 1765년(乙酉, 영조 41) 윤2월 既望에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 1712~1781)은 호계서원에서 『대학』을 강론한 후, 오로봉 아래에 배를 띄우고 여러 유생들에게 「赤壁賦」를 읊게 했다. 이 선유 모임에 대하여, 大山은 주자의 「讀書有感」 2번 째 시를 차운하여 시를 짓고 그 감회를 밝혔다.³⁸⁾ 주

36) 『西厓先生文集』 제19권, 祭文.

37)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 활동과 학풍」, 『韓國書院學報』 15, 한국서원학회, 2022, 54~55쪽.

38) 廬江講會罷 適值既望之夕 偕長少數十人泛舟五老峯下 烟波浩渺沂洄上下 相與顧而樂之 使人誦赤壁賦 仍謹次朱先生觀書韻 蓋竊取景物之偶同 而託興寓感之意則有 不敢窺焉 嗚呼歎矣 乙酉—『大山集』 제3권 詩.

자의 시는 책을 읽어 지식이 축적되면 마치 오래 가물다가 지난밤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불어난 것과 같고, 그동안 독서 부족으로 힘이 모자라 수고롭기만 했던 것은 마치 물이 모자라 강바닥에 처박혀 있던 큰 배와 같으니, 축적된 배움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는 것이 마치 불어난 물에 깃털처럼 가볍게 둥둥 떠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것이다. 오로봉 아래 낙동강에 배를 띄운 大山과 선비들은 비 개인 뒤 보름달 뜨는 光風霽月의 경치에 흥이 일어났으니, 주자가 시에서 비유한 것처럼 함양된 학문의 힘으로 자유롭게 떠가는 감흥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大山은 학문에 더욱 힘쓰기를 스스로 격려하는 다짐의 뜻에서, 감히 주자의 경지를 엿볼 수는 없었다고 겸손해한다.



〈그림 7〉〈舟中眺廬山五老諸峰〉胡佩衡 作:一方 主編, 2005, 『中國名勝古今書畫精選-廬山卷』, 中國傳媒文學出版社, 22쪽에서 재인용.



〈그림 8〉 수몰된 호계서원 옛터에서 안동호 수면 건너 五老峰 방향의 현 경관

여강서원에서의 강회가 끝났다. 마침 이날이 既望 저녁이기에 어른과 젊은이 수십 명이 함께 오로봉 아래에 배를 띄웠다. 안개가 아득한 강물을 위아래로 다니면서 서로 돌아보며 즐겼다. 어떤 이에게 「적벽부」를 외게 하고, 이어서 주자의 「觀書有感」 두 번 째 시 “昨夜江邊春水生 蒙衝巨艦一毛輕 向來枉費推移力 此日中流自在行” 지난 밤 강가의 봄물 불어나니, 전함 같은 큰 배도 터럭 하나처럼 가볍네. 이제까지 추진하는 힘 헛되었지만, 오늘은 강 가운데로 자유로이 떠서 나아가네.”에 차운하였다. 대개 주자의 시와 景物이 우연히 같아서 일어나는 흥에 의탁하여 감회를 부치는 뜻이 있었지만, 감히 주자의 생각을 엿볼 수는 없었으리라. 아아, 슬프다.

暮雨纔收月欲生
飄飄衣袂御風輕
春江也是無今古
依舊扁舟自在行

저녁 비 이제 그치고 달뜨려 하는데
나부끼는 옷소매 바람결에 가볍도다
봄 강물은 예나 지금 변함아 없으니
그 옛날처럼 작은 배 자유로이 떠가네.

IV. 江景 書院 門樓 養浩樓

1. ‘枕流漱石’의 백련사 枕碧樓에서 ‘養浩然之氣’의 호계서원 養浩樓로

호계서원은 서원 앞으로 낙동강이 피처럼 휘감아 흐르고 강 뒤에는 오로

봉 향로봉이 열을 지어 둘러서서, 산 그림자가 강물에 어리는 ‘영호경치의 본원(所謂映湖勝概之本)’이라는 勝地에 세워졌다.³⁹⁾ 이 경치를 전망하는 白蓮寺 시절의 누각 枕碧樓는 여강서원이 세워지면서 養浩樓로 바뀌었다. 避世的 隱遯을 뜻하는 ‘枕流漱石’의 枕碧樓에서 儒學的 涵養을 뜻하는 ‘養浩然之氣’의 養浩樓로 堂號 변화는 불교 사찰에서 유교 서원으로의 변천이라는 외면적 의의를 넘어서 天人合一의 道場으로서 서원 문루가 함축한 유학적 심미를 읽을 수 있다.

양호루는 경치를 전망하며 情景를 노래한 시문이 많이 전해지는 역사적 장소이다. 고려시대의 權臣 權漢功은 백련사 침벽루에 올라, “언젠가 많은 군사 거느리고 한바탕 웃으며 강루에 오를까.(何日擁萬驂 一笑上江樓)”하고 위세롭고 호탕한 기개를 읊었다.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와서 양호루에 오른 명나라 장수 浙水 朱元兆는 “養就浩然充六合 子輿不獨只生鄒 호연지기를 길러 천지를 가득 채우면 어찌 맹자 같은 분이 추나라에서만 태어나겠는가.”하고, 地靈人傑을 노래했다.

조선시대 유교 서원의 문루 ‘養浩樓’는 『孟子』의 ‘養浩然之氣’에서 유래한다. 浩然한 경관을 전망하면서, 맹자가 수립한 道德主體的 생명력으로서 ‘浩然之氣’를 體認하는 장소이다. 누각 이름 ‘養浩’는 일찍이 퇴계가 星州의 鹿峰精舍 문루 이름으로 성주목사 黃俊良에게 제안했던 명칭이니, 퇴계를 봉안한 서원의 누각 당호로 마땅하고 江景을 전망하는 누각 이미지에도 부합한다.⁴⁰⁾

39) 廬山村: 一名白蓮寺在府東三十里 人家盛居所謂映湖勝概之本也 臨水廣平洛江襟帶五老香爐諸峰簪環上爲上流勝景。-『永嘉誌』「各里」 廬山村: 江流環帶 最爲一群佳處-『朱子大全』卷79, 『衡州石鼓書院記』, 박정해 한동수, 2011, 『書院地의 水勢論 分析 -辛未存置 書院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7호, 151쪽에서 재인용.

40) 養浩樓는 성주목사 황준량(黃俊良)이 문의에 퇴계가 제시한 의견으로 처음 보인다. 황준량은 성주 鹿峰精舍의 문루 이름을 ‘浩然樓’로 정해서 퇴계에게 편액을 부탁하였다. 퇴계는 ‘浩然’ 두 글자로 이어진 이름은 발음이 분명치 못하니 ‘養浩’로 짓는 것이 어떠냐고 답한 것이다. 녹봉정사는 황준량과 오진 등이 건립한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의 강학당으로 지금은 터만 있다. 녹봉정사의 誠正堂·時習齋·養正軒·養浩樓·觀物臺 등의 현판은 모두 퇴계가 직접 명명하고 편액한 것

養浩樓 堂號는 전망 경관의 이미지, ‘養浩然之氣’의 유학적 의미, 그리고 제향 인물의 정신세계가 삼위일체로 함축된 記號이다.

‘養浩然之氣’는 주체 내면에서 함양된 도의가 외부 산수 기운과 감응하여 천지를 채운다는 것이다. ‘호연지기’는 물질적 氣(생명역량)가 정신적 道義(도덕이성의 凝聚)에서 생긴다는 뜻으로, 인간적 品德일 뿐 아니라 理性을 응취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일종의 感性的 생명 역량이다.⁴¹⁾ 공자를 계승하여, 맹자는 유학의 審美 범주에 崇高美 곧 ‘양강의 미(陽剛之美)’를 수립했다.⁴²⁾ 맹자가 수립한 ‘陽剛之美’ 곧 ‘밝고 크면서도 굳센 아름다움’은 일종의 도덕 주체적 생명력으로서 인격미이며, 인간 개체가 응집한 내재적 도덕 역량의 顯示로 직접 우주와 통하고 천지와 합일하는 것이다.⁴³⁾ 따라서 맹자의 ‘浩然之氣’는 산수 자연에 대한 유학적 심미의 본질이 유학적 심성 수양에서 淵源하고 직결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지기라 합니까?
말하기 어렵다.

그 기는 지극히 크고도 강한 것인데 바르게 길러 해가 없으면 천지간을 가득 채운다.

그 氣는 義와 道에 짝이 되는 것이니, 義·道가 없게 되면 허탈하다.

浩然之氣는 안에서 義가 쌓여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 갑자기 들어온 것을 취

이라 한다.(...鹿峯精舍事 甚善甚善 彼中士人 乃發如此之願慕 將由使君與教官倡作之力耶 勝於此間之俗 遠矣 扁額當依示 但浩然樓然樓二字 相接呼之 音不響亮 作養浩樓何如 頃因李大用 聞州學顏記 將謀繕修 苟如是 可謂俱全 而又可塞洪監司之責盧牧矣 然若專用力於是 而書院一事 徇時意而弛之 則與彼所見何異哉’ -『退溪先生文集』卷之二十, 書「答黃仲舉」)

41) 李澤厚저·權瑚역, 앞의 책, 1990, 84~93쪽.

42) 大體 陽剛者氣勢浩瀚 陰柔者韻味深美 - 曾國藩, 『求闕齋日記類鈔』, 劄下. 蒲震元저·신정근 역,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의경(意境)』,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422쪽에서 재인용.

43)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 『孟子』「盡心」上;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 『孟子』「滕文公」下.

하는 것이 아니다. 行한 것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氣는 위축된다.⁴⁴⁾
-『孟子』, 「公孫丑」上.

여강서원 건립을 주도한 인물의 하나인 백담 구봉령(柏潭 具鳳齡, 1526~1586)은 이곳 여산의 山高水長한 풍광은 음양으로 채워진 천지의 기운이 만들어 준 것이니, 사람도 참된 노력을 꾸준히 하라는 맹자의 浩然之氣 교훈을 여기서 다시금 새기게 된다고 하였다. 생명 활력 가득한 여산의 산수에서 인격 주체의 부단한 도덕적 수행을 고무 받은 것이다.

川流山峙日星垂
此氣由來塞兩儀
須使眞功勿忘助
孟謨端的不吾欺

시내 흐르고 산 우뚝한 곳에 해와 별 드리웠으니
이 기운은 음양 가득한 천지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만드시 참된 공력을 다하되 잊지도 조장도 말라는
맹자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나를 속이지 않다.

여강서원 건립을 발의하고 주도한 松巖 權好文은 道義를 집적하여 浩然의 생명력을 함양하라는 양호루 시를 2편 읊었다.⁴⁵⁾ 고쳐서 쓴 두 번 째 양호루 시는, “한 기운이 천지간에 일어나니 그 호연한 기상은 시작도 끝도 없다.”에서 시작하여, 강물은 밤낮으로 흐르고 청산은 변함없이 우뚝하니, 그 속에서 “물고기 뛰고 솔개는 하늘로 날아 가는(魚躍于淵 鳶飛戾天)” 자연 현상을 관찰하며 은미한 천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 도의를 쌓아가는 공부로 ‘浩然之氣’를 기르라는 맹자 가르침에 따르면 마땅히 송나라 현인을 본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44) 我善養吾浩然之氣 問何謂浩然之氣 曰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則餒矣

45) 권호문의 양호루 시 2편 가운데, 먼저 읊은 「題廬江養浩樓」; 元氣扶與天地中 廓然今古浩無窮 誰遵孟訓常涵養 自與顏功可擴充 抵死從容爲義士 畢生堅志幾豪雄 登樓感發斯剛大 爲報吾儕佩厥躬.

題廬江養浩樓，改前詠

一氣扶輿天地中
浩然無始又無終
水流山峙古今樣
魚躍鸞飛上下同
善養誰遵鄒聖訓
擴充宜效宋賢功
登樓感發斯剛大
爲報吾儕幾箇雄

여강서원 양호루 시, 전의 것을 고치다.

한 기운이 천지 가운데서 일어나니
호연한 기상은 시작도 끝도 없다.
흐르는 물과 우뚝한 산 옛날과 변함없고
아래는 물고기 뛰고 위로는 솔개 나네.
호연지기 잘 기르라는 맹자 가르침 누가 따를까
확충하여 마땅히 송나라 현인의 공업 본받아야지
누에 오르니 이 곧고 큰 기운 느끼고 드러나서
우리에게 옹혼한 기운 많이 알려주는구나.

‘養浩樓’ 이름이 유래한 맹자의 ‘호연지기’는 내면적 도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도덕적 이성이 밖으로 드러난 기운과 모습(外觀)이므로, 유람하면서 그냥 산수를 바라보고 즐기는 것으로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내면 인격의 涵養이 외부 자연과 交融하고合一하는 문제는 『論語』의 ‘樂山樂水’를 참고할 수 있고, 퇴계가 권호문에게 보내는 편지 「答權好文論樂山樂水」에서 친절하게 설명한 바 있다. ‘知者樂水 仁者樂山’에 대해서, 퇴계는 그냥 높이 솟아 무성한 산을 보고 仁者の 즐거움을 즐긴다고 하고, 도도한 강물을 보고 知者の 즐거움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퇴계는 “이 두 가지 즐거움(樂山樂水)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해야 한다. 이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내 마음에 인자함과 지혜의 씨앗(實)이 있으니, 그것을 배양하여 자기 마음을 채우고 바깥까지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게 되며,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즐거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⁴⁶⁾

46) “樂山樂水는 성인의 말이지만, 산은 어질고 물을 지혜롭다는 말도 아니며 또한 사람과 山水는 본래 性이 같다는 것을 이르는 말도 아니다. 다만 어진 자는 산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즐긴다는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물과 비슷하기에 물을 즐긴다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의사를 지적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나는 이 두가지

맹자의 호연지기는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갑자기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道와 義가 마음속에 응집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퇴계는 공자의 ‘요산요수’도 “내 마음에 어짐과 지혜의 씨앗(實) 배양하여 자기 마음을 채우고 바깥까지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게 되며...”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맹자의 호연지기와 공자의 요산요수는 내면에 응집된 도덕 정신이 산수 자연과 만나 외면의 생명 역량 즉 氣象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공유한다.

매창 정사신(梅窓 鄭士信, 1558~1619)은, 「廬江書院養浩樓重修上梁文」에서, 누각에 오른 선비의 응축된 도덕적 생명력이 바라보이는 산수 경치와 부합하여 느끼는 호연지기를 양호루에서 체험하도록 축원하는 뜻을 절실하게 읊었다.

.....

산 울창하게 우거져 집을 둘러싸니 고요한 본체 바뀌지 않고,
물 굽이쳐 흘러 섬돌을 돌아나가니 활발한 작용 막힘이 없도다.
거기에 더하여 노닐며 바라보는 아름다움도 보통이 아니구나.
진실로 양호루 이름과 뜻 부합하기 바라니, 지극히 크고도 지극히 굳세도다.
천지를 가득 채운 것은 도와 의가 함께 짝한 것이니, 잊지도 말고 조장도 하지 말라,

즐거움의 뜻을 알려고 하면. 마땅히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해야 한다.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그 깊은 곳의 진실을 취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에는 어짐과 지혜의 씨앗(實)이 있다. 그것이 마음을 채우고 바깥까지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게 되며,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즐거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짐과 지혜의 씨앗을 확충하지 않고서, 오로지 높이 솟은 나무가 무성한 산을 보고 어진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고, 거칠고 도도하게 흐르는 냇물을 보고 어진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틀린 것이며,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실에서 더욱 멀어지지 않을 수 없다 ...” [自省錄, ‘答權好文論樂山樂水’, 권17, 王璉 著 李章佑 譯, 『退溪詩學』, 중문출판사, 262쪽에서 재인용.

의지와 기운을 하나로 하면 모여져 생긴 氣를 체험할 것이니,
갑자기 얻은 氣는 허탈해진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라. ...47)

정사신은 양호루 주위 산수를 動靜과 體用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더하여 양호루에서 노닐며 바라보는 경치까지 탁월하다고 감탄한다. 나아가 양호루 이름 ‘養浩然之氣’와 선비가 추구하는 뜻이 부합하기를 바라며, 道義를 응축하여 생기는 호연지기는 매우 크고 굳센 것이니 잊지도 조장하지도(勿忘勿助) 말 것을 당부한다. 또 의지와 기운을 하나로 하면 응축된 氣를 체험할 것이니, 밖에서 일시에 들어오는 氣는 곧 쭈그러진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경계하라고 당부한다.

2. 天人合一의 장소 江景 서원 門樓

호계서원은 산기슭에 입지하여, 앞으로 둘러 흐르는 강과 그 뒤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는 江景 서원이다. 조선시대 한국 서원이 중국의 서원과 차별화되는 중요 요소는 先賢祭享과 山水遊息의 강조에 있다. 한국의 서원은 사원마다 연고가 있는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전망 경치가 좋은 입지를 선택하여 前低後高 지형의 전면에 門樓 등 유식 장소를 두어 전망을 즐기도록 했다.⁴⁸⁾ 中國의 서원은 서원에 따라 그 명성과 규모의 차이가 크지만, 국가가

47) 山葱蘢而繞舍 靜體不遷 水汨瀾而循除 動用無滯 匪直爲游觀之美 實亦觀名義之符 至大至剛 塞天地而配道義 勿忘勿助 壹志氣而驗集生 襲餒之戒常存. ...

48) 한국 서원의 특징적 건축공간 구성은背山臨流 입지를 활용하여 前低後高 지형의 전면에 유식 공간 樓閣을, 그 가운데에 講堂, 후면 가장 높은 위치에 祠堂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서원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른 특징적 구성 요소는 단연 樓閣이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누각은 서원에서만 있지 않고 사찰과 향교에서도 등장하는 건축양식이다. 서원에 누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572년(선조5)에 창건된 玉山書院이다. 옥산서원 無邊樓는 외부 자연이 아닌 내부 강당 쪽으로 개방된 건축으로 강학 공간을 보완하는 기능이 크다. 외부 경관을 전망하는 문루가 한국 서원의 특징적 유식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1576년(선조9)

필요로 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學堂’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朝鮮의 서원은 서원마다 고유한 인물을 제향하고, 문루 등 유식 공간에 전망 경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유학적 함의가 있는 堂號를 내걸어, 경관 특성-당호의 유학적 함의-제향 인물의 정신세계를 三位一體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별 서원의 정체성을 정립했다. 이를 통하여 그 서원이 추구하는 敎學과 修道의 결합과 인성 함양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道場’의 특성을 드러냈다.⁴⁹⁾

다수의 한국 서원이 문루를 갖추고 있지만, 서원의 규모를 보여 주기 위해 서원 건립 후기에 문루를 추가한 서원이 많다. 전면의 강과 먼 산을 멀리 그리고 넓은 시야로 웅장하게 바라보는 案對 경관을 가진 서원이 江景 서원이다. 전망 경관이 넓고 웅장한 강경 서원은 展望과 裨補를 위하여 개방적 구조의 2층 누각 문루를 세우게 된다. 이 문루 누각이 자연과 어울린 한국 서원 건축의 簡明하고도 明媚한 특성을 대표하면서, 浩然한 기상을 품도록 한다. 1576년 도산서원과 같은 날 釋菜禮를 행한 여강서원은 개방적 문루를 창건 당시부터 갖추어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서원이다. 養浩樓는 앞을 휘감아서 晝夜不息으로 흐르는 낙동강과 千紫萬紅으로 生生하는 봉우리들이 강 건너편에 빙 둘러서 호수 같은 강물에 비치는 淸光映湖勝柳을 廣角으로 전망하는 遊息 공간이다. 江景 호계서원 문루 양호루는 주체의 응집된 도덕 정신과 전망되는 호활한 산수 경치가 交融 合一하여 天人合一을 지각하는 탁월한 장소로 이름났다. 큰 강을 바라보는 江景 양호루는 전망 경관의 특성-당호의 유학적 함의-제향 인물 퇴계의 정신세계를 삼위 일체로 함축하여, 누각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맹자의 ‘養浩然之氣’의 진정한 의미를 體得認識하도록 한 것이다. 천인합일의 공간으로서 강경 서원의 문루

건립된 여강서원 양호루를 한국 서원 누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 49) 함양 濫溪書院의 風詠樓는 멀리 전망되는 花林洞과 曾點의 “風乎舞雩詠而歸” 그리고 一蠹 鄭汝昌의 기상, 현풍 道東書院의 水月樓는 북향하여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를 떠올리고 寒暄堂 金宏弼이 일관한 “持敬工夫”를 추념하게 한다. 장성 筆巖書院의 廓然樓는 전면의 野景과 程明道의 “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그리고 河西 金麟厚의 기상이 삼위일체로 함축된 堂號로 이해된다.

는 여강서원 양호루에서 시작되어 屏山書院 晚對樓, 道東書院 水月樓 등 다른 서원의 문루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養浩然之氣의 서원

虎溪書院은 조선 후기 안동 일대 書院講學 활동의 중심이었다. 신라 고찰 백련사 터를 이어받은 호계서원의 입지 경관은 廬山 아래를 휘감아 흐르는 洛江이 五老峰을 만나 湖沼를 이루며 푸른 산빛을 가득히 담아 비추는 映湖勝景의 源流였다. 탁월한 江景을 전망하는 호계서원 문루 양호루는 안동의 유학자들이 ‘養浩然之氣’하는 儒學的 審美的 초점 장소였다.

옛 호계서원이 훼손되고 그 터마저 안동호 깊은 물에 잠긴 후 반 백년이 지나서, 안동호를 멀리 조감하는 한국국학진흥원 뒷산에 호계서원이 복원되었다. 문루 養浩樓는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유학자들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산수 자연에 대한 審美的 방식으로 표현한 시문을 남긴 곳이다. 복원된 양호루에는 전망 경관을 노래한 많은 詩板들이 걸렸다. 양호루의 天人合一 精神은 ‘養浩然之氣’로 압축된다. 養浩樓 이름은 호계서원 제향 인물 退溪로부터 기원하였다. 퇴계는 도산서당에서 道義 정신이 修養을 통한 오랜 축적 끝에 비로소 얻어지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⁵⁰⁾ 配義與道の 集義로 생긴 퇴계의 즐거움은 곧 역대 유학의 聖賢들이 누렸던 즐거움이었으며, 퇴계를 제향하며 그 리워하는 호계서원 선비들이 洛江 山水에서 ‘養浩然之氣’하는 즐거움이었다. 지금 양호루에 걸린 수많은 시판에서 聖賢의 天人合一 境地를 바라는 안동 선비들의 身心 修養의 道場 호계서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조선의 서원은 立身出世를 위한 과거 중심의 官學을 보완하고 유학의 본령

50)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怡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陶山雜詠并記」玩樂齋.

곧 성현을 닮고자 하는 배움을 위해 설립된 私學이다. 안동의 先賢들은 서원 창건 운동을 주도한 退溪 선생을 제향하는 호계서원을 안동 제일의 勝地에 창건하고 퇴계 선생을 배우고자 했다. 그들은 호계서원 물안개 가득한 강변에서 선생의 모습을 보았고, 養浩樓 누각에 올라서는 山川에 가득한 생명의 氣運과 自身 속에 충만한 생명의 意志(生意)의 共鳴을 느끼며, 天人合一의 氣象을 詩文으로 審美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서원제도가 기원한 중국의 서원이 지식인을 양성하는 學堂에 주력한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시대 우리나라 서원은 儒學의 學堂에 머물지 않고 ‘天人合一’을 체험하는 道場이었다. 유네스코 世界遺産委員會는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 인간을 추구하는 유학 사상과 자연에 조화롭고 개방적인 한국 서원 경관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자연과 인생의 궁극적 관련이라는 인류 문화의 보편성을 한국의 서원 경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체험 장소가 養浩然之氣의 맥락을 함축한 江景 서원 호계서원 양호루이다. 우리 선현들은 養浩樓에 올라 낙강과 오로봉을 전망하면서, 퇴계 선생이 읊었던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을 떠올리고, 주체가 集義로 함양한 生意 곧 ‘仁’이 洛江의 氣運과 합일하는 浩然之氣를 느끼면서, 옛 성현의 天人合一하는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다. 儒學은 ‘배움과 즐거움이 합—’하는 학문이다.⁵¹⁾ 이는 배움으로 涵養한 생의 의지(生意)가 ‘하늘의 마음(天地之心)’이 펼쳐진 山水와 만나 浩然之氣의 기쁨을 깨닫는 데서 알 수 있고, 호계서원은 그 道場이었다.

더욱 浩然해진 洛江 映湖 景概를 俯瞰하는 언덕에 우뚝한 虎溪書院에 올라, 孔孟과 退溪가 바랐던 배움과 즐거움이 합일하는 체험을 儒學的 自然審美를 통해 열고자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다.

51) ... 樂是樂此學 學是學此樂 不樂不是學 不學不是樂 ...—『明儒學案』卷32, 「樂學歌」, 陳來저 안재호 역, 『宋明性理學』, 예문서원, 1997, 514쪽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1. 원전

『孟子』, 『周易』, 『朱子語類』, 『朱子大典』, 『詩傳』, 『古文眞寶』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廬江志』, 『永嘉誌』, 『嶠南志』
『退溪先生文集』, 『惟一齋先生實記』, 『西厓先生文集』, 『草澗集』, 『柏巖先生文集』, 『大山集』

2. 논저

(社)養浩會, 『虎溪書院과 關聯 文獻 略介』, 2022.
金德鉉, 『韓國 書院과 中國 書院의 立地·空間構成과 遊息空間에 대한 比較研究』, 『韓國書院學報』 15, 韓國書院學會, 2022.
金德鉉, 『道東書院 景觀에 再現된 性理學的 精神世界』, 『文化歷史地理』,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29-4, 2017.
金德鉉, 『書院 堂號 懸板의 教學的 意味』, 韓國書院世界遺産登載推進團 資料集, 『書院懸板資料 整理, 保存管理 現況과 課題』, 2012.
金德鉉, 『儒學的 自然美와 朝鮮 書院의 展望景觀…以美儲善과 以美啓眞의 自然美-』, 文化歷史地理, 31-1,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2019.
金德鉉,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韓國書院學會, 2011.
董天工, 『武夷山志』, 方志出版社, 2007.
鄧洪波 彭愛學 主編, 『中國書院覽勝』, 湖南大學出版社, 2000.
李澤厚저 權瑚역, 『華夏美學』, 東文選, 1990.
李澤厚저 張泰鎮역, 『중국미학입문(原題 美學四講)』, 중문, 2000.
박정해 한동수, 『書院立地의 水勢論 分析－辛未存置 書院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2011.
北京聯合出版公司, 『世說新語』, 2015.
王甦 著 李章佑 譯, 『退溪詩學』, 中문출판사, 1981.
이상해, 『“한국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陳來저 안재호 역, 『宋明性理學』, 예문서원, 1997.

천상문화보존회, 『國譯 聯芳世稿』, 2001.

천상문화보존회, 增補 景泗流芳, 2019.

최석기, 「전통 명승의 인문학적 의미」, 『전통명승 동천구곡의 활성화방향』, 문화재청, 2008.

蒲震元 저 신정근 역,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의경(意境)』,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한국서원학회, 『韓國書院學報』 15, 2022.

한국서원학회, 『韓國書院學報』 17, 202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 사진 및 도면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s://encykorea.aks.ac.kr/>

Yi-Fu Tuan, *Topophilia—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 Y., 1974,

Abstract

The Location Landscape of Hogle Seowon and its Confucian Aesthetics

Kim, Duk Hyun*

Hogle Seowon(虎溪書院) is a representative private Confucian Academy in Andong(安東) of the Chosun Dynasty era. Hogle Seowon is representative of not only the ritual person and the tradition of teaching, but also the location landscape and the architecture. Hogle Seowon was submerg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Andong Dam in the 1970s, but was recently restored to its original architecture in different site. This study examines Confucian Aesthetics of Hogle Seowon on the location and landscape through poetry.

Hogle Seowon, which overlooks Nakdong river, inherits the site of White lotus flower temple(白蓮寺), a famous Buddhist temple from the Silla Dynasty. The vast view was compared to the view of the five peak of Lu Mountain(廬山五老峰) in China. The name of Gate Building, Yang-ho ru(養浩樓) means Nourishing vast vital force(養浩然之氣) in Mencius(孟子). Chim-byuk ru(枕碧樓) of the Buddhist temple was changed to the Yang-ho ru of the Confucian academy. If Chim-byuk ru means quiet and clean place isolated from the secular world, Yang-ho ru means the joy of Heaven and human beings in harmony as one(天人合一) by morality accumulated through Confucian discipline.

Yang-horu was named by T'oegye(退溪), a ritual at Hogle Seowon, and the

* Emeritus Professor, Gyongsang National University / dukhyunk@naver.com

construction of Hogle Seowon was led by Toegye's disciples from Andong. Confucian scholars in Andong, who built Hogle Seowon, used Nourishing vast vital force as the direction of cultivation for the Heaven and human beings in harmony as one. In other words, Yang-ho ru is a place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spective landscape of Hogle Seowon, the orientation of Confucian discipline, and the spiritual world of Toegye are experienced as one.

In a modern era that requires true healing, I think that the re-learning and reinterpretation of Nourishing vast vital force, which was pursued by Confucian scholars in Andong, in the context of the natural aesthetics of Confucianism will contribute to the modern revitalization of Confucianism.

Key word : Riverside Scenic Site, Confucian Aesthetics, Nourishing vast vital force, Heaven and human beings in harmony as one, Toegye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여강서원과 호계서원의 상량문

심 경 호*

- I. 서론
- II. 「여강서원 명륜당 상량문(廬江書院明倫堂上樑文)」
- III. 「여강서원 존도사 상량문(廬江書院尊道祠上梁文)」과 「여강서원 양호루 중수 상량문(廬江書院養浩樓重修上梁文)」
- IV. 호계서원 복원과 「호계서원 존도사 중건 상량문」 및 「양호루 중건 상량문」
- V. 결론

【국문초록】

1574년 봄, 이항 문하의 산림처사 권호문(權好文)은 「여강서원 명륜당 상량문(廬江書院明倫堂上樑文)」을 지어, 장식(張弼)과 주희(朱熹)의 서원 이념과 이항의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 교훈에 따라 하학(下學)을 통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실현을 서원 교육의 목표로 제시했다. 1606년 여강서원 중건 때 안동부사 김륵(金玞)과 이항의 재전 제자 배용길(裴龍吉)이 각각 「존도사 이건 상량문(尊道祠移建上樑文)」을 지었다. 김륵은 관아의 후원을 더욱 천명했고, 배용길은 류성룡(柳成龍)과 권춘란(權春蘭)의 위상을 부각시켰다. 상량식에서는 김륵의 상량문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봉령(具鳳齡)의 문인 정사신(鄭士信)은 「여강서원 양호루 중수 상량문(廬江書院養浩樓重修上梁文)」을 작성하여, 제생들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서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실효를 이룰 것을 축원했다. 여강서원이 호계의 사역을 받은 이후 서원의 여러 건물이 개축, 중건되었을 듯하지만, 그와 관련한 상량문을 찾을 수가 없다. 병호시비(屏虎是非)의 와중에 건물의 개건(改建)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2010년대에 호계서원은 한국국학진흥원 경내에 복원되고 이상정(李象靖)이 추가 배향되었다. 2018년 10월 안동인 김창희(金昌會)가 존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도사 상량문을 작성하고 2020년 5월 전주인 류창해(柳昌海)가 양호루 상량문을 작성했다. 여강서원의 여러 상량문들과 호계서원 복원 후 상량문들은 퇴계 이황이 게시한 서원 교육 정신을 충실하게 재확인해 왔다.

주제어 : 廬江書院, 虎溪書院, 上樑文, 明倫堂, 尊道祠, 養浩樓

I. 서론

호계서원(虎溪書院)은 1575년(선조 8) 이황의 안동 제자들이 이황의 위판을 봉안하고 도학을 강론했던 여강서원(廬江書院)에 연원을 둔다.

여강서원은 1605년(선조 38) 낙동강의 범람으로 사당이 물에 잠겼다. 이때 배용길(裨龍吉)은 여강서원과 병산서원을 합치자고 주장했으나, 류성룡(柳成龍)은 병산서원을 폐지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1606년 옛 자리에서 북쪽 백 보쯤 되는 곳에 여강서원을 중건했다. 1676년(숙종 2)에는 ‘호계’의 액호를 받았다.

1973년 안동 댐 건설로 인해 호계서원은 월곡면 도곡동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로 이건되었다. 다시 2010년대에 유림은 한국국학진흥원 경내에 호계서원을 복원하고 이상정(李象靖)을 추가 배향하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2018년 2월 7일 착공하여 2018년 10월 28일 호계서원 복원사업 존도사 상량식(虎溪書院復元事業 尊道祠 上樑式)이 있었다. 2019년 6월에는 신문, 구인재, 명의재, 진학문, 양호루, 재주, 유사방, 보상고 등 93칸을 복원했다. 국가유산포탈에는 호계서원의 현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001-36(도산면)으로 되어 있다.

여강서원의 건립, 호계서원으로의 확장, 서원 이건 등의 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여러 건물들이 개건되고 그에 따라 각각의 상량문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 이전의 문헌에는 호계서원 관련 상량문이 눈에 띄지 않고, 여강서원 창건과 중건 때의 상량문만 각 제술자의 문집에 전한다. 즉 다음과 같다.

권호문(權好文), 『松巖先生集』 別集 권2, 「廬江書院明倫堂上樑文」.

김륵(金玞), 『栢巖先生文集』 권6, 「廬江書院尊道祠上梁文」(丙午○後宣額虎溪書院).

배용길(裴龍吉), 『琴易堂先生文集』 권4, 「廬江書院尊道祠移建上梁文」.

정사신(鄭士信), 『梅窓先生文集』 권4 「廬江書院養浩樓重修上梁文」.

서원은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각 지역의 인사들이 공의에 따라 설립한 사설 교육 기관이다. 대개 전교당 혹은 홍교당으로 불리는 강당을 중심에 두고, 동재와 서재를 마주보게 하며, 강당 뒤에 사우(祠宇)를 배치했다. 선현의 위패를 모신다는 점, 유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점에서는 성균관이나 향교와 같지만, 중국 선현을 배향하지 않으며 국가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균관이나 향교와 다르다. 서원은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유림의 공의(公議)를 결집하는 준-공적 기구였다. 즉, 선현·향현을 존송하는 각종 의식을 통해 향촌의 질서를 확인하고 현안마다 구성원이 회합하여 공론을 결집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안향(安珦)을 배향하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서 시작했다. 이후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와서 중국 백록동의 예처럼 조정에서 사액(賜額)과 전토(田土)를 내리도록 건의했고, 이에 따라 1550년(명종 5)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額)과 함께 학전(學田)·노비를 국가에서 받았다. 이후 전국의 서원은 명종 이전에 29개이던 것이 선조 때 124개로 되었다. 숙종 때는 300여 개소에 이르렀으며, 사액 서원만도 130여 개소에 이르렀다.

서원의 주요 건축물들은 창건·중건·개건의 때에 반드시 상량식을 거행했다. 상량식에서 낭독되는 상량문은 학덕과 문재를 갖춘 인사가 작성했으며, 공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건물 영건의 과정을 확인하고 영건의 의의를 선창했다.

본래 상량문은 건물 영건에 관계한 집단의 공통 의식을 수사적 장치를 통해 결집하는 특이한 문체이다. 일반 주택에서는 장혀 배바닥에 먹글씨로 써서 마루에서 올려다 볼 수 있게 하지만, 공공건물에서는 마루도리 배바닥이나 받침장혀 등덜미에 써서 들보가 올라가면 가려져 보이지 않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량문은 약식(略式)일 따름이다. 공공의 장엄한 건물이나 준-공적 건물, 혹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개인 건물의 상량식에서는 장편 상량문을 종이나 비단에 써서 함에 넣어 들보 안쪽의 홈에 보관했다.

장편 상량문은 첫머리 입론과 끝 부분 축원문을 변려문(駢儷文)으로 작성하고 중간에 각각 3~7구로 이루어진 육위송(六偉頌)을 두었다. 변려문을 줄여서 변문(駢文) 혹은 여문(儷文)이라고도 한다.

상량문은 건물의 창간·중간·개건의 연기(緣起) 확인, 건물의 보존에 대한 당부, 덕업 및 이념의 계승에 대한 훈계 등을 내용으로 삼아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미학적 구성이 치밀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표전(表箋) 등의 제작에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변려문을 연마했지만, 누구나 상량문을 지을 수 있거나 누구나 상량문 제작을 의뢰받는 것은 아니었다. 상량문은 한 집단이나 한 기구의 '문화권력'을 지닌 인물이 작성했다. 사장(詞章)을 중시하지 않는 학자들도 국가적 건물이나 서원·종택·자택을 위한 상량문 찬술에는 적극적이었다.

종래 상량문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상량문 문체에 관한 연구 자체가 부족했다.¹⁾ 1553년(명종 8) 9월 14일 경복궁에 화재가 나자 대사성 이황이 「위안종묘문(慰安宗廟文)」을 제진(製進)하고, 이듬해 동궁과 사정전이 중건될 때 「동궁상량문(東宮上樑文)」과 「사정전상량문(思政殿上樑文)」을 제진했다. 이 일은 이황이 단순히 학덕이 뛰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황이 당시 관각문인으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1) 심경호, 「상량문의 문학성 시론」,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319~354쪽.

사실을 웅변해준다.²⁾

본고는 여강서원과 호계서원의 상량문에서 제시된 공의(公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여강서원 명륜당 상량문(廬江書院明倫堂上樑文)」

1573년(선조 6) 이황의 사후 4년이 되는 해에 안동 유림들은 안동부 동쪽 2·30리에 있는 노산촌(廬山村) 오로봉(五老峯) 서쪽 백련사(白蓮寺) 옛터에 서원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곧 안동군 월곡면 도곡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이듬해 1575년(선조 8) 서원을 준공하고 김언기(金彦幾, 1520~1588)를 동주(洞主)로 삼았다. 1576년(선조 9) 2월에는 ‘증 영의정 문순공 퇴도 이선생(贈領議政文純公退陶李先生)’ 위판을 봉안했다. 도산서원에 이황의 위판이 봉안된 날과 같은 날이었다. 이 때 서원의 이름을 여강서원이라 했고, 노산촌의 지명은 여산촌(廬山村)으로 바뀌었다.

1575년 완성된 여강서원은 존도사(尊道祠) 6칸, 신문(神門) 3칸, 신주(神廚) 5칸, 숭교당(崇教堂) 15칸, 동재(東齋) 구인재(求仁齋) 4칸, 서재(西齋) 명의재(明義齋) 4칸, 진학문(進學門) 1칸, 동몽재(童蒙齋) 15칸, 유사방(有司房) 5칸, 재주(齋廚) 10칸, 보상고(寶上庫) 15칸 등 83칸이었다. 또 진학문 밖에 있던 양호루(養浩樓) 10칸까지 합하면 모두 93칸에 달했다.

류성룡(柳成龍)은 봉안문을 작성하고, 조목(趙穆, 1524~1606)은 상향 축문을 작성했다. 건물의 명칭은 구봉령(具鳳齡, 1526~1586)이 붙였고, 제액(題額)의 글씨는 홍사제(洪思濟, 1539~?)가 썼다. 홍사제는 권벌(權穰, 1478~1548)의 외손이다. 남치리(南致利, 1534~1580)와 권우(權宇, 1552~1590)는 원규(院規)

2) 12월에는 「景福宮重新記」를 지었다. 심경호, 「이황의 表箋과 上樑文」,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185~217쪽.

를 마련했다.

그런데 1574년 봄, 이황 문하의 산림처사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이 명륜당(明倫堂) 상량문을 찬술했다. 명륜당이라는 명칭은 여강서원 구조를 추측하게 하는 여러 글에 나오지 않는다. 존도사를 본래 명륜당이라고 불렀는지 모른다.

권호문은 본관은 안동,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 재호는 관아재(觀我齋)이다. 권벌이 그의 재종숙이며, 이황의 백형 이잠(李潛)의 외손자이다.³⁾ 문집 『송암집』을 보면 상량문은 여강서원 명륜당 상량문이 유일하다.

권호문의 명륜당 상량문은 오로지 ‘퇴도(退陶) 선생’만을 민락(閔洛, 程朱)의 후각(後覺)으로 규정하고, “도를 믿고 실천하여 사업이 복두성처럼 높고, 정미한 의리는 신묘함에 들어 이학(理學)이 동방의 조종이다.”라고 칭송했다. 그리고 이황이 백록동서원 학규를 도입한 사실을 거론하여 여강서원도 영재를 얻어 경륜(經綸)으로 교육해야 하며 제생(諸生)들에게 훈고(訓誥)를 일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학교(學校)와 현송(絃誦)이 긴밀한 연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송은 목민관의 교화를 의미한다.

권호문이 작성한 명륜당 상량문의 형식을 살펴보면, 구중 핵어의 평측 교체는 의식하지 않았으나 구말 평측의 교호법(交互法)과 엄법(嚴法)을 엄격하게 지켰고 변우(駢偶)의 구법 또한 정밀하다. 육위송의 경우, ‘拋梁東·拋梁西·拋梁南’의 평東·평齊·평覃 운의 구절에서 제3구는 반드시 측성을 사용했다. ‘拋梁北·拋梁上·拋梁下’의 입職·상漾·상馬 운의 경우에는 제3구에 반드시 평성을 사용했다.⁴⁾

3) 1561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연이어 부모를 여의자 관계 진출을 단념했다. 청성산(靑城山) 아래에 무민재(無悶齋)와 연어현(鰲魚軒)을 짓고 은거했으며, 1573년에는 청성정사(靑城精舍)를 완공했다. 후사가 없어서 친형 권선문(權善文)의 둘째 아들 권행가(權行可)로 대를 이었다. 사후에 안동의 송암서원(松巖書院)에 제향되었다.

4) 權好文, 『廬江書院明倫堂上樑文』, 『松巖先生集』別集 권2.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권영락 역, 2018,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제공. 본고에서는 이를

땅이 보배를 아끼지 않아, 토지신이 이름난 구역을 바쳤고, 하늘이 사문(斯文)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 어진 수령이 도를 높이는 서원을 세웠으니,

무리지어 거처하며 학업을 익히기에 좋을 뿐만이 아니고, 참으로 벗들이 와서 인륜을 강론하기에 마땅하여라.

무지개 대들보가 우뚝 완공되었다고 고하자,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축하를 하도다.

삼가 우리 영가(永嘉) 대도호부는, 연원 있는 학문의 바다요, 성대한 문학의 수풀이라,

간간이 큰 선비가 배출되어, 공경(公卿)의 지위에 혁혁하게 우뚝섰고, 빛나도록 좋은 선비가 많아, 울연하게 고을의 스승이 되어왔다네.

이는 인걸을 내는 땅의 신령함 때문이요, 또한 임금의 교화가 바다처럼 젖어들었기 때문이로다.

학교가 진작되어, 풍모와 도덕을 서로 겨루더라도, 현송(絃誦)이 잘못되면, 간혹 도의(道義)를 논하지 않게 되리니,

누가 본원(本源)을 연구하겠는가? 말단의 재주만 교묘하게 다룰 뿐일 터.

다행히도 명부(明府)가 이것을 염려하여, 마침내 유관(儒館)을 특별히 설립했으니,

어찌 사람을 만드는 장소일 뿐이겠는가? 참으로 스승을 높이는 기틀이라네.

아아 퇴도(退陶) 선생은, 참으로 민락(閩洛, 程朱)의 후각(後覺)으로,

도를 믿고 실천하여, 사업이 복두성처럼 높고, 정미한 의리는 신묘함에 들어 이학(理學)이 동방의 조종이시기에,

이 때문에 우러러 사모하고, 이에 추앙하여 숭모한다네.

윤리를 두텁게 하고 풍속을 완성시키려는 마음으로, 동방의 기자(箕子) 가르침을 넓혔고, 현인을 높이고 도를 호위하려는 뜻으로, 백록동의 주자 학규(學規)를 흠모하셨기에,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친함으로, 존비(尊卑)의 법을 인도하고, 부부의 분별과 장유의 질서로, 예법의 장을 연마하셨네.

영재를 얻어 경륜(經綸)으로 교육할 수 있거늘, 제생(諸生)들에게 어찌 훈고(訓誥)를 일삼게 하겠는가?

자신을 완성하여 남에게 미치도록 하니, 마땅히 실리(實理)에 힘써 투철해지도록 해야 하리니,

『시』 읽고 『서』 외우는 것이, 어찌 재리(財利)와 영록(榮祿)을 구해서일 뿐이겠는가?

일상에서 체득하여 징험함을 그만두지 않고, 밤낮으로 경각시키는 떳떳함이 있어야,

장차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성인들은 떳떳한 덕을 지니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행실은, 예전 현인들만 오로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수양한다면, 어찌 오늘날에 다시 흥성(興盛)하지 않겠는가?

드디어 윤리를 밝히고 가르침을 세우고자 해서, 홀연 불도(佛徒)를 쓸어버리고 유자(儒者)를 모아서는,

이에 유사(有司)에게 명하니, 일을 싫어하는 이가 없었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즐겁게도 유식(游息)⁵⁾하는 장소가 되었고, 구름 그림자 및 하늘 광채와 더불어, 왕성하게 배회하는 곳⁶⁾이 되었도다.

먼저 사당을 세우니 그 모습은 날아갈 듯하고, 다음으로 강당을 지으니 들보가 드높아라.

계획하고 경영하자, 아름답고 빛나게 되어,

더러운 먼지가 깨끗하게 사라져서, 공사 일정이 매우 엄격함을 기뻐했고, 웅장하게 얹고 날아갈 듯 지으니, 바로 준공의 효과를 보게 되었어라.

이는 마땅히 공수반(公輸盤)의 먹줄을 빌려 지어, 용마루 처마가 두괴성(斗魁星)보다 높이 된 것이로다.

못사람 논의가 분분하여, 누런 소 가죽으로 잡아매라 하고,⁷⁾ 가르치는 법도가 엄정하여 백면서생의 부류를 모으라고 권면하니,

5) 원문의 ‘유식(游息)’은 『예기』 「학기(學記)」의 “군자는 학문을 때에 장하고 수하고 유하고 식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에서 나왔다. ‘장수’는 항상 학문을 닦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식’은 정해진 과정에 의해서 쉬는 시간에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한다.

6) 중국 복건성(福建省)의 무이산(武夷山)에 주자(朱子)가 정사(精舍)를 짓고 강학했으며 조그만 못을 파놓고 “구름의 그림자와 하늘의 빛 함께 배회한다.[雲影天光共徘徊]”는 시를 지었다.

7) 『주역』 「혁괘(革卦)」에 “초구(初九)는 공고히 하되 황소 가죽을 쓴다.[鞶用黃牛之革]”라고 했고, 그 전(傳)에 “공고히 하되 황소 가죽을 쓴다는 것은 중순한 도(道)로써 스스로 굳게 지키고 망동(妄動)하지 않음을 이른다.”라고 했다.

교육은 때때로 익혀 앎에 이르게 만들고, 공효는 날로 새로워져 위로 통달하게 하리라.

승당(升堂)하여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양양하게 시선을 높이 두고 의관을 바르게 하며, 함장(函丈)이 이끌고 잡아줄 때는, 우아하게 부앙을 가지런히 하며⁸⁾ 경전(經典)을 토론하리니,

진실로 성현의 학문에 힘입어, 몇몇한 윤리가 다시 밝아지리라.

동재와 서재의 따뜻한 방은, 진실로 경의재(敬義齋)이기에 부합하고, 높고 낮은 섬돌은, 완전히 승강의 등급이 있도다.

이에 좋은 아침을 택하여, 마침내 들보를 올리기에,

감히 육위(六衛)의 노래를 선양하여서, 오교(五教)의 바름을 서로 경하하노라.

아랑위 포랑동, 푸른 잣나무가 우뚝 솟아 울창하게 둘러있네. 열은 안개와 햇살로 아침이 밝아오고 또 밝아오며, 부유하는 빛이 어지러이 청동같은 물에 비치네.

아랑위 포랑남, 높은 오로봉이 푸른 못에 비치누나. 층층이 붉은 벼랑이 그림 병풍 펼쳤고, 입 벌린 빈 골짜기에 안개와 이내가 가득하다.

아랑위 포랑서, 강물에 연한 관로는 높았다가는 낮아지네. 골짜기 그윽한 곳으로 길손들이 오가고, 풍물(경승)은 새로 짓는 시에 거두기 좋아라.

아랑위 포랑북, 개와 닭의 소리가 아침저녁으로 들리누나. 쓸쓸할 정도의 고요한 어촌은 신선의 구역과도 같아, 즐거움이 사내는 발 같고 아낙네는 베 짜는 데 있도다.

아랑위 포랑상, 형세가 창룡⁹⁾에 들어가니 몇 길 높이런가? 맑은 기운의 청허한 하늘은 움켜쥐에만하고, 배회하는 해와 달을 다투어 쳐다보네.

아랑위 포랑하, 봉액 입고 위의 갓춘 학자가 많기도 해라. 낮에 독서하고 밤에 사색하여 공부가 정밀하니, 시기가 도래하리니 시골에 있다고 어찌 근심하랴?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 여러 어진 이들이 죄다 모이고, 훌륭한 선비들이 이르러서,

8) 『예기』 「악기(樂記)」를 이용한 표현이다.

9) 창룡칠수(蒼龍七宿)를 말한다. 28수(宿) 가운데 동방(東方)의 7수를 총칭한다. 각수(角宿), 항수(亢宿), 저수(氐宿), 방수(房宿), 심수(心宿), 미수(尾宿), 기수(箕宿)가 여기에 속한다.

먼저 재주가 넉넉하고 덕이 밝아지도록 해주고, 또한 체(體)가 확립되고 용(用)이 넓어지도록 해 주소서.

나의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고 나의 노인을 노인으로 대한다면, 풍속을 선하게 하고 마을을 교화시킴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존귀한 이를 존경하고 어진 이를 어질게 대하면 결국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은혜를 받게 되리라.

황천(皇天)이 내려준 본성을 어기지 말고, 무재(茂宰)가 인재를 기르려는 소원을 어기지 마소서.

자제들에게 언어문자만 익히는 공부를 금지하여, 악록(嶽麓)¹⁰⁾의 인재 양성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예전 학교에서 과거(科擧)를 일삼던 폐단을 없애어, 석고(石鼓)¹¹⁾의 장수(藏修, 수학)에 그칠 정도만이 아니게 하소서.

地不愛其寶，后嫗獻擅名之區；天未喪斯文，賢侯建導道之院。
仄仄仄仄仄，仄仄仄仄平平 平仄仄平平 平平仄仄仄仄仄
不徒群居肄業之好，實是朋來講論之宜。
仄平平仄仄仄仄 仄仄平平仄平平
虹梁巋然而告成，士林樂只而獻賀。
平平平平平仄平 仄平仄仄仄仄仄
恭惟我永嘉大都護府，淵淵學海，郁郁文林。
平平仄仄仄仄仄 平仄仄仄 仄仄平平
間出鴻儒，赫立公卿之位；皇多吉士，蔚爲閭里之師。
平仄平平 仄仄平平平仄 平平仄仄 仄平平仄平平

- 10) 악록은 악록서원(嶽麓書院)을 말한다. 송나라 서원의 하나로 현재 호남성 장사시(長沙市) 서쪽 악록산(西嶽麓山)에 있다. 송나라 태조 개보(開寶) 9년(976) 담주 태수(潭州太守) 주동(朱洞)이 강당과 서재를 건립하고, 진종(眞宗) 함평(咸平) 2년(999) 담주 태수 이윤칙(李允則)이 규모를 넓혔으며, 대종상부(大中祥符) 8년(1015)에 ‘악록서원’이라 사액했다. 이해 산장(山長) 주식(周式)이 국자학 주부(國子學主簿)에 제수되었다. 장식(張栻)과 주희(朱熹) 등이 수학했다.
- 11) 석고는 호남성(湖南省) 형양현(衡陽縣) 석고산 밑에 있는 석고서원(石鼓書院)을 가리킨다. 당나라 헌종(憲宗) 원화(元和, 806~820) 연간에 이관(李寬)이 형주(衡州)의 석고산(石鼓山)에 세웠으며 송나라 지도(至道) 연간에 ‘석고서원’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중간에 황폐해졌다가 남송 순희(淳熙) 12년(1185)에 담주 지사(潭州知事) 반부(潘黼)가 옛터에 복원했고, 1187년에 송약수(宋若水) 등이 더욱 확장했다. 주희(朱熹)가 기문을 지었다.

是人傑之地靈，亦王化之海潤。

仄平仄平仄平 仄平仄平仄仄

學校振作，雖相競其風猷；絃誦流訛，或莫論其道義。

仄仄仄仄 平平仄平平平 平仄平平 仄仄平平仄仄

孰本源之研究？但未技之巧爭。

仄仄平平平仄 仄仄仄平仄平

倖明府之是憐，遂儒館之別設。

仄平仄平仄平 仄平仄平仄仄

豈徒作人之所？信爲隆師之基。

仄平仄平平仄 去平平平平平

竊惟退陶先生，展也閩洛後覺。

仄平仄平平平 仄仄平仄仄仄

信道踐實，事業擬北斗之高；精義入神，理學爲東方之祖。

仄仄仄仄 仄仄仄仄仄平平 平仄仄平 仄仄平平平平平

是以景慕，迺能追崇。

仄仄仄仄 仄平平平

厚倫成俗之心，恢廓青丘之箕教；尊賢衛道之志，歆艷白鹿之朱規。

仄平平仄平平 平仄平平平平仄 平平仄仄平仄 平仄仄仄平平平

君臣義父子親，誘掖乎尊卑之則；夫婦別長幼序，切磋乎禮法之場。

平平仄仄仄平 仄仄平平平平仄 平仄仄仄仄仄 仄通平仄仄平平

得英才可育以經綸，使諸生寧事乎訓誥？

仄平平仄仄仄平平 仄平平平仄平仄仄

成乎己及乎物，宜勉透實理也哉；讀其詩誦其書，豈要取利祿而已？

平平仄仄平仄 平仄仄仄仄仄平 仄平平仄平平，仄仄仄仄仄平仄

在日用體驗之不輟，當夙夜警覺之有常。

仄仄仄仄仄平仄仄 平仄仄仄仄平仄平

將見小子之知方，可致成人之有德。

中仄仄仄平平平 仄仄平平平仄仄

嘉言善行，匪獨專美於前賢；正心修身，盍復興盛於今日？

平平仄仄 仄仄仄平平平平 仄平平平 仄仄仄仄平平平

肆欲明倫而立教，奄爾掃釋而聚儒。

仄仄平平平仄仄 仄仄仄仄平仄平

爰命有司，俾事無斁

平仄仄平 仄仄仄平

山明水麗，樂哉游息之居；雲影天光，藹然徘徊之處。

平平仄仄 仄平平仄平平 平仄平平 仄平平平仄平

先立廟貌之翼翼，次豎堂櫺之隆隆。

平仄仄仄平仄仄 仄仄平通平平平

經之營之，輪奐矣矣。

平平平平 平仄仄仄

穢塵淨盡，喜程事之孔嚴；傑構翬飛，卽僦功之見效。

仄仄仄仄 仄仄仄平仄平 仄仄平平 仄仄平平仄仄

是宜借公輸之繩墨，抗棟宇於斗魁。

仄仄平平平平仄平 仄仄仄平仄平

衆議紛紜，執之用黃牛之革；敦法峻整，勸其集白面之流。

仄仄平平 仄仄平平平平仄 仄仄仄仄 仄平仄仄仄平平

教時習而致知，功日新而上達。

仄仄平平仄平 平仄平平仄仄

升堂進退，洋洋乎尊瞻視而正衣冠；函丈提撕，雅雅焉齊俯仰而討墳典。

平平仄仄 平平平平平仄平仄平平 平仄平平 仄仄平平仄仄平仄平仄

寔聖學之有賴，庶彝倫之復明。

仄仄仄平仄仄 仄平平平仄平

東西櫺室，允合敬義之齋；高低列階，宛然升降之級。

平平仄仄 仄仄仄仄平平 平平仄平 仄平平平仄平

乃差穀旦，乃舉脩梁。

仄平仄仄 仄仄平平

敢揚六偉之聲，胥慶五教之正。

仄平仄仄平平 平仄仄仄平平

兒郎偉拋梁東，翠柏森然繞鬱蔥。細靄晴曦曉復曉，浮光凌亂照青銅。： 瓚東

平平仄平平平 仄仄平平仄仄平 仄仄平平仄仄仄 平平平仄仄平平

拋梁南，五老高峯倒碧潭。層巖丹崖開畫幃，哈呀空谷滿煙嵐。： 瓚覃

平平平 仄仄平平仄仄平 平仄平平平仄仄 平平平仄仄平平

拋梁西，傍水官程高復低。洞府幽幽來往客，好收風物入新題。： 瓚齊

平平平 平仄平平平仄平 仄仄平平平仄仄 仄平平仄仄平平
 拋梁北, 狗吠鷄鳴朝又夕. 寥落漁村仙境界, 樂在男耕而女織 : 입職
 平平仄 仄仄平平平仄仄 平仄平平平仄仄 仄仄平平平仄仄
 拋梁上, 勢入蒼龍高幾丈? 灝氣虛清猶可掬, 徘徊烏兔爭瞻仰 : 상漾
 平平仄 仄仄平平平仄仄 仄仄平平平仄仄 平平平仄平平仄
 拋梁下, 縫掖魚魚多學者. 晝讀夜思業自精, 時來豈患身在野? : 상馬
 平平仄 仄仄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仄平 平平仄仄平仄仄

伏願上梁之後, 群賢畢集, 吉士鼎來.
 仄仄仄平平仄 平平仄仄 仄仄仄平
 先須才富而德明, 亦足體立而用廣.
 平平平仄平仄平 仄仄仄仄平仄仄
 長吾長老吾老, 何難善其俗化其鄉? ; 尊所尊賢所賢, 卒可新其民澤其物.
 仄仄仄仄平仄 平平仄仄仄仄平平 平仄平平仄平 仄仄平平平仄平仄
 皇天降衷之意不悖, 茂幸育才之願無違.
 平平中中平仄仄仄 仄仄仄平平仄平平
 禁習子言語文字之工, 無愧嶽麓之儲養 ; 洗前日學校科舉之陋, 不啻石鼓之藏修.
 平仄仄平仄平仄平平 平仄仄仄平仄平 仄平仄仄仄平仄平仄 仄仄仄仄平仄平

이 명륜당 상량문의 마지막 변우(駢偶)에 권호문의 학문관과 여강서원 산장에 대한 기대가 잘 나타나 있다. 즉, “자제들에게 언어문자만 익히는 공부를 금지하여, 악록의 인재 양성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라고 했는데, 악록은 악록서원으로, 장식(張栻)과 주희(朱熹) 등이 수학했던 곳이다. 즉, 권호문은 여강서원에서는 장구지학(章句之學)을 배격하여 장식과 주희를 배출한 악록서원과 위상이 같아지길 바랐다. 그리고 장식의 『남軒집(南軒集)』 권10에 실려 있는 「악록서원 중수기(岳麓書院重修記)」(「嶽麓書院記」 혹은 「潭州重修嶽麓書院記」)에서, 서원의 제생들은 반드시 ‘구인(求仁)’을 배워야 하며, 생활 속에서 ‘묵지이존지(默識而存之) 확충이달지(擴充而達之)’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1165년(남송 효종 乾道 원년) 호남안무사(湖南安撫使) 유공(劉珙)이 악록서원을 중수하여 이듬해 완성되자 유공은 장식에게 기문을

청했다.¹²⁾ 이때 장식은 서원이 결코 제생들이 무리지어 거처하며 일담(佚談)을 하게 하는 곳도 아니고 결과(決科)하여 이록(利祿)을 챙기게 하는 곳도 아니며 제생들로 하여금 언어문사의 공교로움을 익히게 하는 곳도 아니라고 했다. 장식은 서원의 이념은 인재를 성취하여 도(道)를 전하고 사민(斯民)을 구제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천명했다. 이 서원 교육론은 호상후학(湖湘後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황도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에서 장식의 「악록서원중수기」를 인용하여 장식이 “인(仁)으로 도를 전하고 민생을 구하려고 했다.”라고 특별히 언급했다.¹³⁾

또한 권호문은 “예전 학교에서 과거(科擧)를 일삼던 폐단을 없애어, 석고(石鼓)의 장수(藏修)에 그칠 정도만이 아니게 하소서.”라고 축원했다. 석고는 당나라 이관(李寬)이 형주(衡州) 석고산(石鼓山)에 지은 서원인데, 남송 때인 1187년에 송약수(宋若水)가 확장하자 주희가 기문을 지었다. 주희는 석고서원의 수학도 과거 공부의 폐단에 빠져 있는 것을 비판한 일이 있다. 즉, 『주자대전』 권58 「답송용지(答宋容之)」에 보면 “과거 공부는 사람의 식견을 그르치고 사람의 심술을 무너뜨리니, 기예가 정밀할수록 해로움이 더욱 심합니다. 정말이지 지난날에 따르던 사우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일 듯하니, 지금 위에서 말한 여러 설로 구해보면 최근에 석고에서 들은 것도 아마도 이런 병통을 면치 못하는 듯합니다. [大抵科擧之學誤人知見, 壞人心術, 其技愈精, 其害愈甚. 正恐前日所從師友多是只得此流. 今以上來諸說求之, 則此所聞於石鼓者, 恐亦未免於此也.]”라고 했다. 하지만 권호문은 이 비판의 뜻을 취한 것이 아니다. 주희가 「형주석고산기(衡州石鼓山記)」에서 논한 내용에 주목한 것이다. 주희는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이 학자들이 하학(下學)과 위기지학(爲己之學)에

12) 악록서원은 본래 송나라 태조 개보(開寶) 연간에 주동(朱洞)이 창건하고, 진종 때 담주지사(潭州知事) 이윤칙(李允則)이 부흥했다. 즉, 1015년(大中祥符 8년) 진종이 산장 주식(周式)을 소견하고 서적을 반포하고 사액(賜額)했다. 하지만 남송 초에 서원이 쇠퇴해 있다가, 유공에 의해 중수되었다.

13) 『退溪全書』 권42, 「伊山書院記」.

매진할 것을 권면했다.

지금 군현의 학궁(學宮)에 박사(博士)와 제자(弟子)를 두고 있는데, 모두 평소 쌓은 덕행과 재능을 따져보지 않아 그들이 공부하는 것이 모두 세속의 책이고 과거(科擧) 준비일 뿐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利)를 보게 하고 의(義)를 보지 못하도록 하니 위기(爲己)의 학문에 뜻을 둔 선비는 언급하길 부끄러워했다. 이 때문에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 배운 바를 함께 강습(講習)하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두 분이 이 일에 개연히 뜻을 두고 번거로움도 꺼리지 않았던 까닭이다. 단지 옛날 유적이 황폐해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여 한 것일 뿐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 일의 본말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두 분이 그런 뜻을 가졌던 이유를 알게 하고, 오늘날 학교에서 과거(科擧)의 뜻으로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다. 또 관직에 있는 자들을 넉넉히 깨우쳐서 오늘날 학교에서 과거 교육에 치우친 폐해가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인데, 이를 그렇저렇 관찮다고 여기고 구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자 한다.

제생들이 배워야 할 바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날 나의 친구 장경부(張敬夫)[장식(張栻)]가 지은 악록 기문에 자세하다. 그런데 하학(下學) 공부를 궁구(窮究)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외우는 자가 종사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실질을 행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어찌 다른 것에서 구하겠는가? 역시 아직 발현(發顯)되기 이전에 온전함을 기르고 장차 발하려는 즈음에 기미를 살펴서 선하면 넓혀서 채우고 악하면 이겨서 제거하는 것이 이와 같을 따름이라고 하겠다. 어찌 내 말을 기다리겠는가?¹⁴⁾

14) 『朱子大全』卷79, 『衡州石鼓書院記』. “抑今郡縣之學官置博士弟子員, 皆未嘗考其德行道藝之素, 其所受授, 又皆世俗之書, 進取之業. 使人見利而不見義, 士之有志於爲己者, 蓋羞言之. 是以, 常欲別求燕閒清曠之地, 以共講其所聞, 而不可得. 此二公所以慨然發憤於斯役而不敢憚其煩. 蓋非獨不忍其舊迹之蕪廢而已也. 故特爲之記其本末, 以告來者, 使知二公之志所以然者, 而毋以今日學校科擧之意亂焉. 又以風曉在位, 使知今日學校科擧之教, 其害將有不可勝言者, 不可以是爲適然而莫之救也. 若諸生之所以學而非若今人之所謂, 則昔者吾友張子敬夫所以記夫嶽麓者語之詳矣. 顧於下學之功有所未究, 是以誦其言者, 不知所以從事之方, 而無以蹈其實. 然今亦何以他求爲哉? 亦曰: 養其全於未發之前, 察其幾於將發之際, 善則擴而充之, 惡則克而去之. 其如此而已矣. 又何俟於予言哉?”

이항도 「이주서원기」에서 장식의 「형주석고산기」를 인용하여 “석고의 제생에게 하학의 공효를 보여준 것이 지극하다.”라고 언급했다.¹⁵⁾ 권호문의 명륜당 상량문은 그 점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권호문의 「여강서원 명륜당 상량문」은 장식과 주희의 서원 교육 이념, 그리고 이항의 서원 교육 이념에 매우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여강서원 존도사 상량문(廬江書院尊道祠上梁文)」과 「여강서원 양호루 중수 상량문(廬江書院養浩樓重修上梁文)」

1605년(선조 38) 낙동강이 범람하는 대홍수가 나서 여강서원의 사당이 물에 잠겼다. 배용길(배)이 여강서원과 병산서원을 합치자고 주장했으나, 류성룡은 병산서원을 폐할 수 없다고 하여 반대했다. 1606년(선조 39) 원래 터에서 북쪽으로 옮겨 서원을 중건하고, 이듬해 1607년 이항의 위패를 새로 봉안했다.¹⁶⁾ 당시 여강서원 동주(원장)는 이형남(李亨男, 1556~1627)이었다.¹⁷⁾ 이 중건에는 영의정에서 물러난 류성룡과 안동부사로 재직하던 김륵(金玿, 1540~1616)¹⁸⁾이 앞장섰다. 또한 정사성(鄭士誠)·권춘란(權春蘭)·김용(金涌) 등이

15) 『退溪全書』 권42, 「伊山書院記」.

16)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 : 17세기 초반의 묘향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17) 본관은 진성(眞城), 자는 가중(嘉仲), 호는 송계(松溪)이다. 안동 이계(伊溪) 동촌(東村)에서 출생했다. 이항의 문인으로 1588년(선조 21) 진사·생원 양시(兩試)에 합격했지만 구로동(九老洞)의 대취헌(對翠軒)에서 학문과 실천에 힘썼다. 임진왜란 때 임하(臨河)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정제장(整齊將)이 되어 김득연(金得研)과 함께 의창에 양식을 모아 의병과 관군에게 제공했다. 1600년(선조33) 경릉 참봉(景陵參奉)을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도산서원에서 『퇴계집』 교정에 참여했다. 『송계집(松溪集)』이 있다.

18)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희옥(希玉), 호는 백암(柏巖)이다. 박승임(朴承任)과 이항의 문인이다. 1604년 8월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에 부임했다. 1610년 한성부 좌윤을 거쳐 대사헌이 되었다가 봉자전 의절(奉慈殿儀節) 문제 때문에 강

적극 협조했다. 김성일·김언기·권문해·구봉령 등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1620년에는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을 추배했고, 1676년에는 호계서원으로 사액되었다.

김득은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65세 되던 1604년의 8월에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부임했다. 이듬해(1605년) 7월 큰 비로 낙동강 둑과 반변천(半邊川) 둑이 무너지고 안동 부성(府城)이 잠기자, 감영에 상신하여 경상좌도 열 네 고을의 민정(民丁)을 동원하여 제방을 복구했다. 그리고 여강서원 중수에 진력했다.

김득은 문집 『백암집』에 「이산서원 사묘 상량문(伊山書院祠廟上梁文)」¹⁹⁾과 「여강서원 존도사 상량문」을 남겼다.

여강서원 존도사 상량문은 병오년 찬술로 되어 있다. 곧 1606년 중건 때의 상량문이다. 이 상량문은 존도사 개건(改建)의 경위와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서원은 경모(景慕)의 땅으로서 감발(感發)의 기회를 주는데 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언명했다. 또한 개건이 향당의 계획과 유림의 합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득은 서원 교육이 활성화되어 도맥(道脈)이 성장하고 문교(文敎)가 흥기하기를 축수했다. 1620년 류성룡과 김성일을 추배하기 이전이므로 그 두 사람이 퇴계학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를 부사로 좌천되었다. 1612년 4월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讞)으로 삭탈관직 당하고 향리에 돌아왔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민절(敏節)이다. 이현일(李玄逸)이 행장(行狀)을, 권해(權海)와 조현명(趙顯命)이 각각 신도비명을 짓고, 권두인(權斗寅)과 이광정(李光庭)이 묘지명을 각각 지었다. 시호를 받은 후에 채제공(蔡濟恭)이 신도비명을 지었다. 『백암집(栢巖集)』 5책이 있다.

- 19) 이산서원은 1558년(명종 13) 영천군수 안상(安瑒)이 지금의 영주시 이산면(伊山面) 원리(院里, 휴천1동 속칭 구서원)에 창건했으며, 이항이 원규를 만들었다. 1572년(선조 5) 묘우를 세우고 이항의 위패를 봉안했다. 묘우상량문(廟宇上樑文)은 김득이, 봉안문(奉安文)은 박승임(朴承任)이 작성했다. 1574년(선조 7) 사액을 받았다. 1614년(광해군 6) 현재의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로 이迁했다. 이진상량문(移建上樑文)은 이준(李埈)이, 이진기(移建記)는 군수 조찬한(趙讚韓)이 지었다. 1871년 훼손되었다가 1936년 경지당과 지도문만 복원되었다.

김득이 지은 존도사 상량문의 형식을 보면, 구말 평측의 교호법과 염법을 엄격하게 지켰다. 구중 핵어의 평측 교체는 의식하지 않았다. 육위송의 경우, ‘拋梁東’·‘拋梁西’·‘拋梁南’의 평東·평齊·평覃 운의 구절에서는 제3구에 반드시 측성을 사용했다. ‘拋梁北’·‘拋梁上’·‘拋梁下’의 입職·상漾·상馬 운의 구절에서는 제3구에 반드시 평성을 사용했다.

위대한 고인을 영원히 공경하여, 새 사당의 터를 잡는데 길일을 얻었고, 지난 공적을 확장하여, 건물이 옛 제도보다 훨씬 훌륭하기에,
원근의 사람들이 고쳐 바라보고, 소민이나 대인이나 함께 기뻐하네.
아아, 우리 퇴도선생은 포백(布帛)의 문채요, 규장(圭璋)의 자질로서,
도는 깊은 경지에 이르러, 성인 되는 규범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학은 집대성할 수 있어서, 마음 전하는 법을 발휘하셨으니,
이는 바로 백세의 사표라 이를 수 있기에, 국가의 사당에서 제향될 수 있도다.
광산(匡山)의 옛 거처를 찾아, 여부(廬阜)의 샛된 터²⁰⁾를 도려내고,
혁혁하게 아름다운 침묘를 계시하여, 날아갈 듯 하고 위엄이 있으며, 질질하게 위 의(威儀) 있는 제기들을 이용하여, 제향을 받들고 제사를 올려서,
장차 이 참다운 구역에서 영구하기를 바랐더니, 어이하여 거친 물흐름에 휩쓸려 부서지고 말았던가!
요 임금 때 산언덕 삼켰던 일에 비하여, 재앙이 백성들이 혼점²¹⁾되었던 것보다 심했으며, 상나라 조을(祖乙)의 경(耿) 땅처럼 소금기 많고 척박한 것은 아니었지만, 환란이 육지가 물에 잠긴 일보다 아무래도 다급해서,
큰 물이 프락과 계단을 삼키고는, 미친 물굽이가 궤안과 침석까지 육박했더니,
신령께서 수고해주셔서, 다행히 인력을 용납해주시고, 하늘이 보우하셔서,
마침내 영좌(靈座)가 무양(無恙)했도다.
당초 사사로운 집에 옮겨 봉안하자, 티끌과 소음을 금하지 못했기에, 곧바

20) 백련사를 말한다. 진(晉)나라의 고승 혜원(慧遠)이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서 백련사(白蓮社)를 결성하고 도중(徒衆)과 정토 수행에 전념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21) 『서경』 「우서(虞書) 익직(益稷)」에 “홍수가 하늘까지 치솟아 호호탕탕하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까지 차 올라감에 따라 백성들이 물에 빠지는 해를 당했다.[洪水滔天, 浩浩懷山襄陵, 下民昏墊.]”라고 했다.

로 공공의 당에 임시로 모셔두었으나, 아무래도 신령이 오르내릴 장소가 아니
라서,

비록 덕의 휘광이 희릿하지 않다고는 해도, 어찌 신의 도리상 편안할 수 있
었겠는가?

현가(絃歌)의 음향이 그치자, 빈 골짜기에 황량한 구름이 잔뜩 끼고, 빈조(蘋
藻)의 향이 쇠잔하자, 남은 터에서 차가운 달을 조문했기에,

길 가는 이들조차 탄식을 일으키고, 많은 선비들은 수치심이 무거웠으므로,
개건하는 일에 황망하게 다급했기에, 비록 옛 건물을 그대로 쓴다고 해도
그려했겠지만, 앞서 수레가 얹어졌던 일에 조마조마 두려움이 있거늘, 어찌 새
로 터 가리는 일을 그만두겠는가?

계획은 향당에서 숙성하고, 의론은 유림에서 한가지로 되어,

한 골짜기의 땅 머리를 선택하여, 궁벽하지도 막히지도 않으며, 백보의 산기
슭을 점유하여, 멀지도 높지도 않다.

천년이나 신령이 아끼던 지역을 열어주고, 지금의 거북점과 화협하니,

영험한 바람이 골짜기에서 나와, 산천 전체를 드러내고, 맑은 기운이 공중에
솟아, 구름 낀 해의 아름다운 빛을 옹위해주네.

구역을 얻은은 하늘의 작성에 관계하고, 일을 헤아림은 사람의 행위를 극진
히 한 바로다.

못 공인들을 한데 모으자, 사람마다 자금을 내어 향응했으며, 각 역꾼들을
분부하자, 집집마다 장정을 뽑아 모두 달려왔도다.

산장(山長)에게 책무 맡겨 지휘하게 하고, 향현(鄉賢)에게 임무 주어 감독하
게 했으며,

백성들은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힘을 쓰니, 이는 몇몇한 인륜을 함께 하기
때문이요, 선비는 도모하지 않고도 능히 협조하니, 이는 진실하고 꾸밈없는 정
성이 발현했기 때문이었네.

사업은 반드시 진미(盡美)하기를 기약했으니, 공적이 어찌 구완(苟完)²²⁾에
그치겠는가?

공수반(公輸般)은 공교하고 이루(離婁)는 눈이 밝아, 규구와 준승, 방원과 평

22) 『논어』 「자로(子路)」의 “공자가 위나라의 공자 형이 살림을 잘한다고 말씀하셨다. 처음 소유하게 되자 그는 ‘그럭저럭 모았다.’라 했고, 조금 늘자 그는 ‘그럭저럭 갖추었다.’라고 했다.[子謂衛公子荆, 善居室. 始有, 曰: “苟合矣”, 少有, 曰: “苟完矣.”]”라고 한 데서 가져온 말이다.

직은 이루다 쓸 수 없을 정도이고, 소래 소나무와 신포의 측백나무로, 쪼구미와 짧은 기둥, 지도리와 문 말뚝, 빗장과 문설주가 각각 적의함을 얻었기에, 이미 제도(制度)가 정당한데다가, 또한 염우(廉隅)도 준엄하다.

소나무 측백나무가 무성한 듯하여, 풍모와 의표가 굳건히 안정됨을 상상할 수 있고, 해와 달이 임하여서, 옥색보다도 희디힐 것을 생각하게 되노라.

이미 경모(景慕)의 땅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 감발(感發)의 기회가 없겠는가? 산악이 응결하고 하천이 녹아흘러, 인(仁)·지(智)의 정(靜)과 동(動)을 징험하고, 하늘에 날고 못에 튀어, 술개와 물고기에서 화육(化育)을 완성할 수 있다. 몸과 마음에서 하나의 본(本)을 추리하고, 일과 품물에서 온갖 리(理)를 전부 구명하니,

이에 하학을 하여 상달하고,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이르러감에 마땅하여라. 『시』를 외고 『서』를 읽어서, 도의 곤내(閫內)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약하고, 예에 노닐고 덕에 의거하여, 현자의 관문(關門)임에 부끄럼 없기를 바라노라.

정말로 인재는 산림에서 기르는 것이 의당하니, 저 성학이 온 나라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으리라.

태평세월 여는 것을, 어찌 오백년마다의 좋은 시기를 기다려야만 하겠는가? 천하인민 비호하는 일은, 천만 칸 넓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이에 좋은 송가를 진술하여, 긴 들보를 함께 올리고저 하노라.

아랑위 포랑동, 바라보면 분명히 창해의 해와 통하니,²³⁾ 나는 본심이 이렇게 밝은 것을 알거늘, 어찌 어둡고 더러운 것이 흥중에 이르게 하랴?

아랑위 포랑서, 아침해가 떠오르지만 또한 지기도 쉬워라. 정정(鼎鼎)하게 흘러가는 광음을 애석하게 여겨야 하니, 하늘의 명명(明明)을 지켜서 혼미를 고집하지 말아라.

- 23) 해일(海日)은 당나라 시의 “누대에 올라 창해의 해를 보고, 창문에서 절강의 파도를 대하네. [樓觀滄海日, 門對浙江潮.]”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당나라 맹계(孟郊)의 『본사시(本事詩)』에 송지문(宋之間)이 항주 영은사에 가서 달구경을 하면서 ‘취령은 울창하게 솟아 있고, 용궁은 고요 속에 싸였네. [驚嶺鬱蒼巖, 龍宮鎖寂寥.]’라고 두 구절을 읊은 뒤 뒷부분을 잊지 못했는데, 한 노승이 지나가다가 ‘누대는 푸른 바다의 해를 바라보고, 문은 절강의 조수를 대하네. [樓觀滄海日, 門對浙江潮.]’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고는 연이어 열 구절의 시를 읊었다. 구절마다 아주 비범하여 송지문이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 노승은 낙빈왕(駱賓王)이었다고 한다.

아랑위 포랑남, 해가 맑은 못을 내리쬘니 만상이 담겨 있네. 훈풍이 순임금 궁전에서 온다면, 성스런 공과 신령한 교화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아랑위 포랑북, 개미 올라탄 멧돌이 돌고 돌아 잠시도 쉬지 않듯 하네. 구만 리 창천은 높고 높아 계제로도 오르기 어렵지만, 이 마음은 밤이면 밤마다 북극을 향한다네.

아랑위 포랑상, 하늘 빛이 땅을 비추어 항시 통랑함을 선포하네. 규성(奎星)이 지난 밤 문명의 시대를 알려주어, 찬란한 정화의 빛을 사람들이 우러르네.

아랑위 포랑하, 샘이 깊은 물은 혼혼하여 아침저녁 쉬지 않고 흐르네. 이로써 근본 있으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니, 나아감에 반드시 영과(盈科)해야 하지 응당 멈추지 말아라.

부디 바라건대, 상량한 이후에, 도맥(道脈)이 차츰 성장하고, 문교(文教)가 이에 흥기하여,

모두가 향방을 알고, 사람들이 대도로 매진하게 하며, 공식(矜式)하는 바가 있어, 선비들이 고산(高山)을 우러르게 하소서.

봄 가을로 향화(香火)를 받들고, 문고(文稿)를 추환(芻豢)처럼 좋아하게 하소서. 창금(靑衿)이 제제하여, 백록동 선현을 노래하고, 녹색(綠竹)이 의의(猗猗)하여, 기옥(淇澳)의 군자를 칭송하게 하소서.

학문 준적의 흥심(과녁)을 맞추고²⁴⁾ 도의 관문에 붉은 깃발을 세우게 하소서, 영가(詠歌)의 유포에 의거하여, 다리 곳곳이 세워²⁵⁾ 준칙에 따라 공부해 나가

24) 『주자어류(朱子語類)』 권58에 보면, 『맹자』 「만장 하(萬章下)」 백이목불시악색장(伯夷目不視惡色章)의 내용에 대해 황자공(黃子功)이 ‘백이, 이윤(伊尹), 유하혜(柳下惠)는 힘만 있고 지혜는 없다는 뜻인가?’ 묻자 주자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이 편벽되므로 이르는 곳 역시 편벽된 것이다. 공자 같은 경우는 화살마다 모두 흥심에 맞히지만 세 사람은 사람마다 각각 한쪽만을 맞히는 것이다.[不是無智。知處偏。故至處亦偏。如孔子則箭箭中紅心，三子則每人各中一邊。]”라고 대답했다.

25) 『주자어류(朱子語類)』 권7, 「학(學) 1 소학(小學)」에 “다만 지금의 처지에 의거하여 다리를 곳곳이 세우고 힘써 공부해가서 전일의 흠결(欠闕)을 보전하여 후일의 근본을 심어놓아야 한다. 예컨대 20세에 깨달았으면 곧 20세부터 다리를 곳곳이 세우고 힘써 공부해가고, 30세에 깨달았으면 곧 30세부터 다리를 곳곳이 세우고 공부해나가야 하며, 설령 8, 9십 세에 깨달았더라도 마땅히 현재에 의거하여 머물러 곳곳하게 공부해나가야 한다.[只據而今當地頭立定脚做去，補填前日

고, 훈목(薰沐)의 여화(餘化)에 따라, 백성들을 정해진 범위에 들게 해주십시오.

永敬大恤. 祠廟得吉於新基 ; 將多前功. 棟宇增美於舊制.
 仄仄仄仄 平仄仄仄平平 平平平平 仄仄仄仄仄仄
 遠近改觀. 小大同歡.
 仄仄仄仄 仄仄平平
 恭惟我退陶先生.
 平平仄仄平平平
 布帛之文. 圭璋之質.
 仄仄平平 平平平仄
 道已至於深造. 昭示作聖之規 ; 學能集乎大成. 發揮傳心之法.
 仄仄仄仄仄仄 平仄仄仄平平 仄仄仄仄仄仄 仄平平平仄仄
 是所謂師表於百世. 抑可以廟食於一邦.
 仄仄仄仄仄仄仄仄 仄仄仄仄仄仄仄平
 尋舊棲於匡山. 易邪墟於廬阜.
 平仄平平平平 仄平平平仄仄
 揭赫赫寢廟之美. 有翼有嚴 ; 舉秩秩籩豆之儀. 以享以祀.
 仄仄仄仄仄仄仄 仄仄仄平 仄仄仄仄仄仄平 仄仄仄仄
 庶將永久於真境. 胡乃蕩析於洪流!
 仄平仄仄平平仄 平仄仄仄平平平
 比堯時之懷襄. 災有甚於昏墊 ; 非耿地之斥鹵. 患亦急於陸沈.
 仄平平平平平 平仄仄平平仄 平仄仄仄仄仄 仄仄仄仄仄平
 淫潦已沒於庭階. 狂瀾將迫於几席.
 平仄仄仄平平平 平平平仄平平仄
 神所勞矣. 幸人力之可容 ; 天其佑之. 竟靈座之無恙.
 平平平仄 仄平仄仄仄平 平平仄平 仄平仄平平仄
 始遷奉於私室. 已塵囂之不禁 ; 旋假妥於公堂. 亦陟降之非所.
 仄平仄平平仄 仄平平平仄平 平仄仄平平平 仄仄中平平仄
 縱德輝之未昧. 豈神道之能安?
 仄仄仄平仄仄 仄平仄平平平

欠闕, 栽種後來合做根株. 如二十歲覺悟, 便從二十歲立定腳力做去 ; 三十歲覺悟, 便從三十歲立定腳力做去. 縱待八九十歲覺悟, 也當據見定筭住硬案做去.”라고 했다.

響輟絃歌. 鎖荒雲於空谷 ; 香殘蘋藻. 弔寒月於遺墟.
 仄仄平平 仄平平平平仄 平平平仄 仄仄仄平平平
 屬行路之興嗟. 重多土之懷恥.
 仄仄仄平平平 仄仄仄平平仄
 遑遑乎惟急於改構. 雖舊築之當仍 ; 憫憫焉有懼於覆車. 詎新卜之可已?
 平平平平仄仄仄 仄仄仄平平平 仄仄仄仄仄仄仄 仄仄仄平平仄
 計已熟於鄉黨. 議亦同於儒林.
 仄仄仄平平仄 仄仄平平平平
 擇一洞之地頭. 既不偏而不阻 ; 占百步之山趾. 亦非遠而非高.
 仄仄仄平平平 仄仄平平仄仄 仄仄仄平平仄 仄仄仄平平平
 挾千載之神慳. 協一時之龜兆.
 仄仄仄平平平 仄仄平平平仄
 靈風出壑. 露全體於山川 ; 淑氣騰空. 擁休光於雲日.
 平平仄仄 仄仄仄平平平 仄仄平平 仄平平平平仄
 得地實係於天作. 料事極盡於人爲.
 仄仄仄仄平平仄 通仄仄仄平平平
 鳩集衆工. 人出資而爲餉 ; 分付各役. 戶抄丁而皆趨.
 平平仄平 平仄平平平仄 平仄仄仄 仄平平平平平
 責山長而指揮. 任鄉賢而監督.
 仄仄仄平平平 仄平平平仄仄
 民非勸而自力. 是所同於秉彝 ; 士不謀而能諧. 斯固發於惇愷.
 平平仄仄仄仄 仄仄平平仄平 仄仄平平平平 平仄仄平仄仄
 事必期於盡美. 功豈止於苟完?
 仄仄平平仄仄 平仄仄平仄平
 公輸巧離婁明. 規矩準繩方圓平直咸適其用 ; 徂徠松新甫栢. 樽櫨侏儒椳闔戽楔各得其宜.
 平平仄平平平 平仄仄平平平仄仄仄仄 平平平平仄仄 仄平平平平仄仄仄仄
 平平
 既制度之亭當. 又廉隅之峻整.
 仄仄仄平平平 仄平平平仄仄
 如松栢之茂. 想凝定於風儀 ; 若日月之臨. 思瑩白於玉色.
 平平仄平仄 仄仄仄平平平 仄仄仄平平 平平仄平仄仄

夫既有景慕之地。詎可無感發之機?

平仄仄仄仄平仄 仄仄平仄仄平平

嶽結川融。驗動靜於仁智；天飛淵躍。玩化育於鳶魚。

仄仄平平 仄仄仄平平仄 平平平仄 仄仄仄平平平

推一本於身心。盡萬理於事物。

平仄仄平平平 仄仄仄平仄仄

斯下學而上達。宜日就而月將。

平仄仄平仄仄 平仄仄仄仄平

誦其詩讀其書。期不違於道閭；游於藝據於德。庶無忝於賢關。

仄平平仄平平 平仄平平仄仄 平平仄仄平仄 仄仄仄平平平

信人材宜養於山林。伊聖學可振於邦國。

仄平平平仄平平平 平仄仄仄仄平仄

開太平之日月。奚待五百年之嘉期？；庇天下之人民。不必千萬間之廣廈。

平仄平平仄仄 平仄仄仄平平平平 仄仄仄平平平 仄仄仄仄平平仄仄

載陳善頌。同舉脩梁。

仄平仄仄 平仄平平

兒郎偉拋梁東。望裏分明海日通。我識本心如許皦。肯教陰穢到胸中？

平平仄平平平 仄仄平仄仄仄平 仄仄仄平平仄仄 仄平平仄仄平平 ； 瓊東

兒郎偉拋梁西。曉日初昇又易低。鼎鼎光陰宜可惜。莫將明命執昏迷。

平平仄平平平 仄仄平仄仄仄平 仄仄平平平仄仄 仄平平仄仄平平 ； 瓊齊

兒郎偉拋梁南。日照清潭萬象涵。若使薰風來舜殿。聖功神化可相參。

平平仄平平平 仄仄平仄仄仄平 仄仄平平平仄仄 仄平平仄仄平平 ； 瓊覃

兒郎偉拋梁北。蟻礎旋磨常不息。高高九萬信難梯。此心夜夜傾辰極。

平平仄平平平 仄仄平仄仄仄平 平平仄仄仄平平 仄仄仄仄平平仄 ； 嶺職

兒郎偉拋梁上。天光照地恒宣朗。奎星昨夜報文明。燦燦精輝人所仰。

平平仄平平平 平平仄仄平平平 平平仄仄仄平平 仄仄平平平仄仄 ； 上漾

兒郎偉拋梁下。原泉混混流晨夜。從知有本摠如斯。進必盈科應不舍。

平平仄平平平 平平仄仄平平平 平平仄仄仄平平 仄仄平平平仄仄 ； 上馬

伏願上梁之後。道脈漸長。文教載興。

仄仄仄平平平 仄仄仄平 平仄仄平

皆知向方. 人自邁於大道 ; 有所矜式. 士咸仰於高山.
 平平仄平 平仄仄平仄仄 仄仄平仄 仄平仄平平平
 奉香火於春秋. 悅芻豢於文稿.
 仄平仄平平平 仄平仄平平仄
 青衿濟濟. 賦鹿洞於先賢 ; 綠竹猗猗. 頌淇澳之君子.
 平平仄仄 仄仄仄平平平 仄仄平平 仄平仄平平仄
 破紅心於學的. 豎赤幟於道關.
 仄平平平仄仄 仄仄仄平仄平
 詠歌遺風. 定腳力於準則 ; 薰沐餘化. 納民物於範圍.
 仄平平平 仄仄仄平仄仄 平仄平仄 仄平仄平平平

김득의 존도사 상량문은 “정말로 인재는 산림에서 기르는 것이 의당하니, 저 성학이 온 나라에서 펼쳐 일어날 수 있으리라.”라고 하여, 지방 서원의 교육이 국가의 성학을 진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강조했다.

본문의 “공수반은 교묘하고 이루는 눈이 밝아, 규구와 준승, 방원과 평직을 이루다 쓸 수 없을 정도이고, 소래 소나무와 신포 측백나무로, 쪼구미와 짧은 기둥, 지도리와 문 말뚝, 빗장과 문설주가 각각 적의함을 얻었다.”라는 구절은 아래에서 보게 될 정사신(鄭士信)의 「여강서원 양호루 중수 상량문(廬江書院養浩樓重修上梁文)」에도 동일하게 나온다. 서로 참작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 구절의 아랫 구는 한유(韓愈) 「진학해(進學解)」의 어절을 빌려왔다.²⁶⁾

26) 앞의 구절은 『맹자』 「이루 상(離婁上)」의 “이루(離婁)의 밝음과 공수자(公輸子)의 정교함도 규구(規矩)로써 하지 않으면 네모와 원을 만들 수 없었고, 사광(師曠)의 예민한 귀도 육율(六律)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음(五音)이 바르지 않았으며, 요순(堯舜)의 도(道)가 있어도 어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릴 수 없었다.[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圓 : 師曠之聰, 不以六律, 不能正五音 ;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라는 구절과 『여씨춘추(呂氏春秋)』 「자지(自知)」에 나오는 “수평인지 직선인지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기울기를 측량하는 수준기와 먹줄인 준승에 의거하고 네모진 것과 둥근 것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그림쇠와 직각자인 규구에 의거하며 군주가 스스로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곧은 말을 하는 정직한 선비인 직사에 의거해야 한다.[欲知平直, 則必準繩, 欲知方圓, 則必規矩, 人主欲自知, 則必直士.]”라는 구절을 근거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배용길(裵龍吉, 1556~1609)도 「여강서원 존도사 이견 상량문[廬江書院尊道祠移建上梁文]」을 작성했다.²⁷⁾ 배용길은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이어 류성룡(柳成龍)과 조목(趙穆)에게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김해(金垓)가 의병 대장이 되어, 이정백(李庭柏)과 배용길을 좌우 부장으로 삼아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방어했다.²⁸⁾ 1605년(선조 38) 대흥수로 여강서원이 피해를 입자, 배용길은 「상서애류선생(上西厓柳先生)」에서 여강서원이 먼저 지어졌고 병산서원은 아직 시설이 다 갖추어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강서원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병산서원을 여강서원에 합치자고 주장했다.²⁹⁾

배용길은 「존도사 이견 상량문」에서 주벽(主壁)으로 모신 이황이 신안 주씨(주자)에 특히 힘을 쏟았고 주리론의 입장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황의 저술 가운데 『계몽전의(啓蒙傳疑)』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거론했다. 또한 “원(元)·명(明) 선비들을 통록(通錄)하여 유학(儒學)과 육학(陸學)의 다르고 같음을 분변했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자세히 분석하여 리(理)는 근원이고 기(氣)는 말단임을 천명했다.”라고 언급했다. 전자는 특히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의 편찬 계획과 관련이 있다. 이황은 『퇴계이선생집주자행장(退溪李先生輯注 朱子行狀)』을 목판으로 단행(單行)한 이후 그 후속으로 제자들이 『송계원명이학통록』을 완성시켜 주길 기대한 바 있다.³⁰⁾

배용길의 「존도사 이견 상량문」은 구말 평측의 교호법과 염법을 엄격하게

27) 자는 명서(明瑞), 본관은 흥해(興海)이다. 호는 금역당(琴易堂) 또는 장록당(藏六堂)이다. 임진왜란 때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켜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부장으로 활약했으며, 정유재란 때는 화의(和議)에 반대하는 상소를 했다.

28) 당시 초유사 김성일과 안집사 김륵이 조정에 보고하면서 김해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29) 장재호, 「『금역당집(琴易堂集)』 해제 : 거문고와 『주역』을 벗 삼다」, 한국국학진흥원, 2013년 12월 30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조.

30) 심경호, 「李滉『朱子行狀』輯注小考」, 沈慶昊 外 18명, 『朱子學研究』 32집, 『朱子學研究』編委會編, 江西教育出版社, 2019, 198~213쪽.

지켰다. 구중 핵어의 평측 교체는 의식하지 않았다. 육위송의 경우, ‘拋梁東’·‘拋梁西’·‘拋梁南’의 평東·평齊·평覃 운의 구절은 백량체(伯梁體)를 따라 제3구도 같은 운목의 글자를 사용했다. ‘拋梁北’·‘拋梁上’·‘拋梁下’의 입職·상漾·상馬 운의 구절도 역시 백량체를 제3구에도 같은 운목의 글자를 사용했다.³¹⁾

하늘이 사문(斯文)을 없애려 하지 않으니, 선유(先儒)가 낙동강 가에서 도학을 강론하고, 땅은 비경(秘境)을 드러내 주어, 후학이 여산(廬山) 북쪽에 사당을 세웠다.

어찌 향화만 숭상하겠는가? 장차 전형(典刑)을 밝혀 보이리라.

삼가 퇴도 선생 문순공은 전체대용(全體大用)의 학문으로, 하늘과 인간에 통한 유학자이시다.

입으로 우(虞)·하(夏)·상(商)·주(周) 4대의 서적을 전하며 늙음이 장차 이르는 줄 알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공(孔)·맹(孟)·정(程)·주(朱) 등 군유(群儒)의 법을 받으시니, 어떤 이도 앞서지 못했다.

비록 제가(諸家)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신안 주씨(주자)에 특히 힘을 쏟았다.

『계몽전의』로 우매한 이들을 계도(啓導)함에 정정당당했으며, 『성학십도』로 군왕을 일깨움에 끝없이 넓고 엄숙했다.³²⁾

원(元)·명(明) 선비들을 통록(通錄)하여 유학(儒學)과 육학(陸學)의 다르고 같음을 분별했고, 사단과 칠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리(理)는 근원이고 기(氣)는 말단임을 천명했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³³⁾ 백세(百世)가 흘러도 나의 말은 바뀌지 않으리라.

31) 裴龍吉, 「廬江書院尊道祠移建上梁文」, 『琴易堂先生文集』 권4. 한국국학진흥원 최원진 역, 2013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고.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로 약간 수정했다.

32) 양웅(楊雄)의 『법언(法言)』에 “우하 시대의 글은 혼 혼하고, 상서는 호 호하고, 주서는 악 악하다. [虞夏之書渾渾爾 商書灑灑爾 周書噩噩爾]”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3)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기 몸을 돌이켜 보아 참되다면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라고 했다.

상서로운 햇빛과 구름을, 선비들이 상쾌히 바라보고, 심의(深衣)와 대대(大帶)를, 부리는 사람들도 알아보았다.

장차 고비(阜比)를 백 년 동안 길이 의탁하려 했거늘, 어찌 화책(華實)을 하룻저녁에 급히 바꾸셨던가? 요금(瑤琴)이 줄이 끊겨, 태산교악의 위의를 잃은 지 오래이지만, 목탁은 소리 멈춘다고, 어찌 강한(江漢)과 추양(秋陽)의 사모³⁴⁾를 금지하겠는가?

그런데 이 문헌의 고장은, 실로 상재(桑梓)가 심겨진 고향이로다.

세(歲)는 마침 알봉(鰲逢)[갑:갑술(1574)]을 만났고, 의론은 향노(鄉老)들 사이에 합했다.

산길로 6, 7리를 가서 고려조 백련사 옛터를 얻으니, 강가의 8, 9채 마을집이 태평성세에 유생의 거처로 바뀌었도다.

하물며 선생의 어렸을 적 향기가 절간의 누각 사이에 뿌려져 있었으니, 과화존신(過化存神)의 여운을 상상하며, 동기가 서로 구하며 소리가 상응하는 오묘함이 있음에랴?

교문(橋門)을 에워싸고 다투어 경청하여, 사람들이 장차 듣고서 알게 되고, 고협(鼓篋)³⁵⁾하며 다투어 오니 선비들도 학문의 대체(大體)를 알게 되었건만,

어찌 알았으랴,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쳐, 신우(神宇)가 표류하게 될 줄을?

옛 건물은 버리고 새 건물을 도모하니, 때를 놓칠 수 없고, 어제 패했으나 오늘은 이기나니, 하늘도 유정(有情)한 듯하다.

사우(士友)의 답문이 처음에는 들쭉날쭉 달랐으나, 향린(鄉隣)의 의론이 끝내 난만하여 의견이 같아졌으며,

서애(西厓)와 회곡(晦谷)이 존사(尊師)함에 도움 입고, 동포(東浦) 부사(府使)의 흥학(興學)에 힘입어서,

궁한 형편을 돌파해서 넉넉하게 하며, 드넓은 궁정(宮庭) 터를 고쳐 잡았고, 시절은 어려워도 성대히 거행하여, 크고 높은 침묘를 먼저 세웠노라.

백성들이 자식처럼 와서 돕기를 뒤질세라 먼저 하고, 넓고 큰 규모는 새가 날개 펼치듯 화려함이 이전보다 더하도다.

34)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보면, 증자가 “비교하자면 공자는 장강과 한수에 씻고서 여름 햇볕에 말린 것이어서 더할 수 없이 깨끗하다.[江漢以濯之，秋陽以暴之，皜皜乎不可尚已.]”라고 했다.

35) 『예기』 「학기(學記)」에 “입학하여 복을 쳐서 올리고 책을 꺼내는 것은 그 학업을 공손히 받기 위함이다.[入學鼓篋，孫其業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에 갱장(羹牆)에도 떠오르는 그리움을 부치고자 하니, 유업 이어받는 긍당궁구(肯堂肯構)에 태만함이 있으랴?

담장이 몇 길 높이로 세워졌으니,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거실마다 여덟 곳에 창문을 내니, 밖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안에 있어도 볼 수 있도다.

다시금 현송(絃誦)의 곳이 되게 하고, 범패 읽는 무리에 속하지 않게 하여라. 산은 더욱 높아지고, 물은 더욱 깊어지니, 천지가 개벽하여, 도학이 여유롭게 되고, 사설(邪說)이 그쳐, 상도(常道)가 바르게 되고 백성이 흥기하리라.

어찌 한 때의 지나간 시절 계승에 그치랴? 응당 영원토록 앞날을 열어가리라. 예법(禮法)의 도장(道場)과 인의(仁義)의 부고(府庫)³⁶⁾를, 완연(宛然)히 지팡이를 짚고 따르니, 속속(蓊蓊)의 맛을 알고 포백(布帛)으로 옷 입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풍모를 듣고 흥기하지 않겠는가?

좋은 날을 점복하여, 긴 들보 함께 올리니, 솜씨 좋은 도끼질 잠시 멈추고, 파창(巴唱)³⁷⁾을 다같이 들어보구려.

아랑위 포량동, 어렴풋이 새벽 해 떠오르기에 발을 건어올리네. 일신의 덕을 밝힘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못 사람들이 격치 공부를 더해 가소서.

아랑위 포량서, 활수(活水)의 원두가 퇴계로 이어지네. 무슨 일로 부지런부지런 새벽닭 울자마자 하는가?³⁸⁾ 다투어 현인과 성인을 닮고자 원하서라네.

아랑위 포량남, 맑은 강 굽이굽이 쪽물 들인 듯 푸르네. 이와 같은 오묘함에 누가 참여했는가? 종전의 회암(주자)이 한 일을 일규(一揆)로 하시도다.

-
- 36)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27년 조에 “조쇠(趙衰)는 ‘시서(詩書)는 의(義)의 부(府)이다.’라고 했다.” 했으며, 소옹(邵雍)은 「관물내편(觀物內篇)」에 그 말을 인용하여, 『주역』, 『시경』, 『서경』, 『춘추』를 성인(聖人)의 사부(四府)라고 했다.
- 37) 초나라 민간에서 유행하던 파리(巴里)라는 곡명을 말하는데, 세속적인 음악을 뜻한다. 여기서는 자신의 육위송을 겸손하게 가리킨 말이다.
- 38)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새벽에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서 부지런히 선행을 힘쓰는 자는 순 임금의 무리요, 새벽에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익을 구하는 자는 도척(盜跖)의 무리이다. 순 임금과 도척의 구분을 알고 싶은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단지 이익을 탐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그 사이에 있을 뿐이다. [雞鳴而起, 孳孳爲善者, 舜之徒也; 雞鳴而起, 孳孳爲利者, 跖之徒也. 欲知舜與跖之分? 無他, 利與善之間也.]”라고 했다.

아랑위 포랑북,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시니 물칙(物則)이 있도다.³⁹⁾ 외진 곳에서도 깊이 함양하여 아름다운 덕 밝히고, 조정에서 펼쳐 넓히어 황극을 보좌하라.

아랑위 포랑상, 건건(乾乾)하게 쉬지 않아 현묘한 상이 있도다. 밝고 밝은 이 이치를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하늘을 본받아라 아아 우리 무리여!

아랑위 포랑하, 깊고도 너른 이 집에 머물러,⁴⁰⁾ 일심으로 고금(古今)과 화이(華夷)에 통하여, 힘이 남거든 안연·민자건이며 굴원·가의에 나란히 하련다.

앞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뒤로 청구(靑丘)에 문풍(文風)이 일고, 영남(嶺南)에 가르침의 은택이 흠뻑 내리게 하소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 받들고 봉우를 친애하는 품성은, 사람마다 갖춘 양지(良知)에 근거하게 하시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바로잡으며,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방도가, 각 집의 시습(時習)을 가져오게 하소서.

문사가 겉모습만 치장하여 방황하는 술수를 끊고, 군자가 몸소 실천하며 돈후한 성실(誠實)함으로 이루는 공부를 더하게 하소서.

어려서 배운 것을 장성하여 실행함이, 비록 출처(出處)의 의리에 달린 일이라 해도, 대본(大本)과 달도(達道)를, 응당 위육(位育)의 때에 증험하게 하소서.

동방의 유자(儒者)들이 모두 일어나 서주(西周)의 성대함을 바라보게 하소서.

天未喪斯文. 先儒講道於洛水之上 ; 地爲挾其祕. 後學建祠於廬峯之陰.

豈香火之徒崇. 將典刑之昭示.

恭惟退陶先生文純公. 全體大用之學. 通天與人之儒.

口虞夏商周四代之書. 不知老至 ; 心孔孟程朱群儒之法. 莫之或先.

雖諸家無所不通. 於新安尤致其力.

傳疑啓聾瞽. 亭亭堂堂 ; 聖學詣君王. 灝灝噩噩.

通錄元明之士. 辨儒陸之異同 ; 縷分四七之情. 闡理氣之源委.

39) 『시경』 「대아(大雅) 증민(烝民)」의 “하늘이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는 곳에 법칙이 있도다. 백성들이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라는 말에서 가져왔다.

40) 『시경』 「진풍(秦風) 권여(權輿)」의 “나에게 큰 집이 깊고 넓더니 지금은 밥 먹을 때마다 남음이 없도다. 아, 권여를 잊지 못함이어.[於我乎, 夏屋渠渠, 今也每食無餘. 于嗟乎, 不承權輿.]”라는 말에서 가져왔다.

萬物皆備於我. 百世不易吾言.
 瑞日祥雲. 多士快觀; 深衣大帶. 走卒皆知.
 將臯比百年之永憑. 奈華簪一夕之遽易?
 瑤琴絃斷. 久失泰山喬嶽之儀; 木鐸聲停. 寧禁江漢秋陽之思.
 顧茲文獻之府. 實是桑梓之鄉.
 歲適丁於闕逢. 議克諧於鄉老.
 山行六七里. 得前朝白蓮遺基; 江村八九椽. 變昭代青襟攸宇.
 矧又先生少年之馥. 曾播禪宮梵樓之中.
 想過化存神之餘. 有氣求聲應之妙.
 環橋競聽. 人將聞而知之; 鼓篋爭來. 士亦識其大者.
 那知陰沴之暴至. 以致神宇之漂流?
 舍其舊而親是圖. 時不可失; 敗於昨而今者勝. 天若有情.
 士友之談始參差而異序. 鄉隣之議卒爛漫而同歸.
 幸西厓晦谷之尊師. 賴東浦明府之興學.
 拔貧爲富. 改卜實實之宮庭; 時屈舉羸. 先建奕奕之寢廟.
 忙庶子來之恐後. 宏規鳥革之侈前.
 寔欲寓慕於羹牆. 其敢有意於堂構?
 牆成數仞. 仰之彌高鑽之彌堅; 室洞八窓. 出必有聞入必有見.
 復令絃誦之所. 不屬梵唄之徒.
 山增而高. 水增而深.
 天開地闢. 道爲之閑; 邪爲之息. 經正民興.
 豈特繼往於一時. 應亦開來於永世.
 禮法場仁義府. 宛然操杖而從; 菽粟味布帛文. 孰不聞風而起?
 吉日始卜. 修梁共拋; 郢斤少停. 巴唱齊聽.

兒郎偉梁之東. 瞳矐曉日上簾櫳. 一身明德將無司. 群產須加格致功.
 西. 活水源頭接退溪. 底事孜孜趁曉鷄? 希賢希聖競思齊.
 南. 澄江曲折綠綏藍. 如斯之妙問誰參? 一揆從前有晦菴.
 北. 天賦斯民有物則. 屋漏沈涵明懿德. 巖廊展擴佐皇極.
 上. 乾乾不息有玄象. 昭昭此理指諸掌. 須法天行嗟我黨!
 下. 處此渠渠之廣廈. 一心今古通夷夏. 餘力淵騫方屈賈.

伏願上梁之後 扇文風於靑丘 霈教雨於南嶺.

愛親敬兄 隆師親友之性 本人人之良知 ; 修己治人 化民成俗之方 致家家之時習.

絕文士浮華放浪之術 加君子踐履篤實之功.

幼學壯行 雖係出處之義 ; 大本達道 當驗位育之時.

盡起東魯之儒 疇見西周之盛.

배용길은 이 존도사 상량문에서 서애 류성룡과 회곡(晦谷) 권춘란(權春蘭, 1539~1617)⁴¹⁾의 존사(尊師) 사실과 함께, 동포(東浦) 명부(明府) 즉 김륙의 흥학(興學) 사실을 나란히 현창했다. 류성룡과 권춘란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여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사우(士友)의 담론이 처음에는 들쭉날쭉하여 달랐으나, 향린(鄉隣)의 의론이 끝내 난만하여 의견이 같아졌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했다.

이렇게 여강서원 존도사 중건 때 김륙과 배용길이 각각 상량문을 지었다. 당초 유림에서 두 사람에게 상량문의 찬술을 위뢰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림은 류성룡과 권춘란의 위상을 부각시킨 배용길 찬술의 상량문을 배제하고, 관아의 후원을 더욱 천명한 김륙의 상량문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 여강서원의 개축이나 이건 때 구(舊) 상량문의 수습 사실이 보고되어 있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른 사례를 보면, 복수로 상량문을 제술하여 그 가운데 한 편만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구한 말 1894년(고종 31) 12월 신좌희(申佐熙)가 남원 군수로 부임하여 이듬해 남원 정각(동각)을 중수했는데, 신득구(申得求, 1850~

41)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언회(彦晦), 호는 회곡(晦谷)이다.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된 권석충(權錫忠)의 아들로, 구봉령과 이황의 문인이다. 1560년(명종 15)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3년(선조 6)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사성·청송 부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회곡문집(晦谷文集)』과 『공문언인록(孔門言仁錄)』 등이 전한다. 1612년(광해군 4)에 사람의 공의로 구봉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용산의 용산서당에 위패를 봉안하고 그 뒤 권춘란을 배향했다. 1693년(숙종 19)에 ‘주계(周溪)’로 사액을 받았고, 그 이듬해 주계서원(周溪書院)이 주계리(周溪里)로 이건되었다.

1900)는 「남원정각 중수 상량문(南原政閣重修上樑文)」을 찬술해서, 동학군을 적대시하기보다 왕정의 미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고, 지방관의 인정(仁政)을 촉구했다. 남원 정각의 대들보 안쪽에서 근래에 발견된 상량문은, 그 찬술자를 알 수는 없으나, 동학군을 적대시하는 뜻이 역력하다.⁴²⁾

한편 정사신(鄭士信, 1558-1619)은 『매창선생문집』에 「여강서원 양호루 중수 상량문(廬江書院養浩樓重修上梁文)」을 남겼다. 정사신은 구봉령(具鳳齡)의 문인이다.⁴³⁾ 연보에 의하면 48세 되던 선조 38년(1605년, 을사)에 「여강서원 양호루 중수 상량문」을 찬했다고 되어 있다. 여강서원의 중건이 이루어진 것은 1606년이므로 1년의 차이가 있다. 양호루의 건립이 존도사 중창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사신의 양호루 상량문은 제생들이 호연지기를 길러서 함양(涵養)과 독비(篤斐) 즉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실효를 이룰 것을 축원했다. 이것은 거생(居生)의 ‘양호(養浩)’를 호계서원의 가장 중요한 교육 이념으로 내세운 것이다.

형식을 보면, 구말 평측의 교호법과 염법을 엄격하게 지켰다. 구중 핵어의 평측 교체는 의식하지 않았다. 육위송의 경우, ‘拋梁東·拋梁西·拋梁南’의 평

42) 심경호, 「농산의 시문에 관한 규견(窺見)」, 남원문화원 주관, 농산학회·고령신씨문중, 『농산 신득구 선생 학술대회』, 지리산소극장(남원시립도서관 4층), 2023. 12.12.

43) 정사신의 본관은 淸州, 자는 子孚·叔孚, 호는 梅窓·神谷이다. 鄭料(1508~1576, 竹軒)의 아들로, 1582년(선조 15)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 1595년 선산 군수를 지냈으며, 1609년(광해군 1) 문과증시에 을과로 급제했다. 掌隸院 判決事, 밀양 부사 겸 경상도중도방어사 등을 역임했다. 예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청주정씨는 淸河君 鄭愼이 金方慶(1212~1300)의 손서가 되어 그 아들 鄭旒(雪軒)와 鄭誦(雪谷) 형제가 진외가를 따라 안동 府西 檜谷里에 정착했다. 그 후 雪軒이 와룡 池內 茅山으로 이거하였고, 그의 손자 鄭斗가 16세기부터 마암에 정착하여 동성반촌을 형성하였다. 이후 청주정씨는 안동지역 사족들과 혼반을 형성하며 세력을 형성하여 후손들은 북후 도진과 서후 광평 등지로 세력을 확장했다. 죽헌의 아들 鄭士誠(1545~1607)과 鄭士信, 鄭士毅(1562~1631)는 명성이 높았다. 류병훈, 「定齋學派의 現實認識과 救國運動」 제Ⅱ장 ‘정재학파의 형성과 향촌기반’ 1. ‘안동 유림과 정재학파의 형성’, <https://blog.naver.com/hyuni1121/223406408078>

東·평齊·평覃 운의 구절은 제3구 말에 반드시 측성 글자를 사용했다. ‘拋梁北’·‘拋梁上’·‘拋梁下’의 입職·상漾·상馬 운의 구절은 제3구 말에 반드시 평성 글자를 사용했다.⁴⁴⁾

운행 기운이 평상이 아니라서, 명승 구역이 망가지는 사태를 참혹하게 보았으나, 인순(因循)과 변혁(變革)에는 정해진 운수가 있어, 멋진 언덕의 큼지막한 건물⁴⁵⁾을 기쁘게 목도해 왔다.

이에 경영을 새로 하여, 가영(歌詠)을 일으킴이 마땅했으나,
이 누정의 경승을 돌이켜 생각하면, 제제다사의 귀에 진실로 화협하여,
저쪽 물속의 모래섬⁴⁶⁾은, 아스라한 난간에서 맑은 광휘를 부감하고, 기수(沂水)의 취향을 즐기던, 선배의 유풍을 손에 따듯이 했건만,

어이 알았으랴 큰물이 넘치는⁴⁷⁾ 재앙이 일어나, 돌연 수해로 무너지는 환란을 만나게 될 줄을?

깨진 주춧돌에 물이 고여, 봄옷이 이루어진 때 서글퍼하고, 남은 터에 풀이 우거져, 긴 밤에 가을 귀뚜라리를 조문하다니.

다행히 밝은 세상이 다시 펼쳐, 선비들이 한 목소리로 성대하며,
나의 거북점이 진실로 좋아, 산에 적합하여 사당의 모습이 빛나고, 건물이 새가 낮빛 바꾸듯 하여,⁴⁸⁾새로이 도모하여 당과 단을 열었도다.

44) 鄭士信, 「廬江書院養浩樓重修上梁文」, 『梅窓先生文集』 권4. 『매창선생문집』에 실려 있는 상량문은 이 1편뿐이다.

45) 원문의 ‘환륜(輿輪)’은 ‘운환(輪奐)’이라고도 한다. 진(晉)나라 문자(文子)가 집을 낙성하자, 대부인 장로(張老)가 그 으리으리한 규모를 보고 칭송하기를 “아름답구나, 높고 큼이여. 아름답구나, 많고 많음이여. 여기에서 제사 지내며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서 곡을 하며, 국민과 종족이 여기에서 모일 것이다. [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라고 했다.

46) 『시경』 「진풍(秦風) 겸기(蒹葭)」에 “물결 거슬러 올라가 따르려 하나, 길이 막히고 또 높으며, 물결 따라 내려가 따르려 하지만, 완연히 물 가운데 모래섬에 있도다. [邇游從之, 道阻且躋. 邇游從之, 宛在水中坻.]”라고 했다.

47) 회양(懷襄)은 회산양릉(懷山襄陵)의 준말이다. 『서경』 「요전(堯典)」에 “넘실대는 홍수는 산을 삼키고 언덕을 잠기게 하며, 멀리 넘쳐 나는 홍수는 하늘에 이르고 있소.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48) 『시경』 「소아(小雅) 사간(斯干)」에 “동우(棟宇)는 새가 놀라 낮빛을 변한 것처럼

진학(進學)할 문과 답을 활짝 띄웠으니, 유예(游藝)할 누관(樓觀)이 없을 수 있겠나?

선비는 경전을 내려놓고 일을 감독하고 공인은 기예를 다하여 기획을 바쳤으며, 공수반은 교묘하고 이루는 눈이 밝아, 규구와 준승, 방원과 평직을 이루다 쓸 수 없을 정도이고, 소래 소나무와 신포 측백나무로, 쪼구미와 짧은 기둥, 지도리와 문 말뚝, 빗장과 문설주가 각각 적의함을 얻었다.

응룡이 머리를 쳐들고 구천으로 분비하고, 큰 자라는 다리를 잘라 사방 끝에 서 있듯이 하고,

산은 질푸르게 사재를 둘러, 고요히 몸체를 견지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물은 팔팔 소리내며 뜰을 따라 흘러, 운동하여 쓰여서 응체하지 않누나.

단지 유관(游觀)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로 명(名)과 의(義)가 부합하길 기대한다네.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어, 천지를 채우고 도의(道義)에 배합하며, 마음에 잊지도 말고 억지로 조장하지도 않아, 지기(志氣)를 한결같게 하여, 호연지기가 의로운 행동을 쌓아나감으로써 생겨남을 징험하네.⁴⁹⁾

엄습해서 취할 것도 아니고 움츠러들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경계가 늘 있고, 술개는 날아 하늘에 오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는 오묘함이 이에 계합하니,

기왕에 들은 것을 외워 동지를 규간하고, 신명에게 질정하여 지금 이후의 미래를 기대하노라.

긴 들보 들어올리는 일을 도우려고, 삼가 짧은 창가를 진설하노라.

아랑위 포랑동, 일만 골짜기 일천 바위에 아침 해 붉구나. 눈 아래 삼삼하게 경물을 보나니, 도는 천지의 형물 속에 관통한다네.

아랑위 포랑서, 지기(志氣)가 신령하면 성스러워 헛갈리지 않노라. 고요한 밤에 꿈이 돌아와 경지가 맑아 잠 못 이루나니, 숲에 가득한 서릿달에 흰 잔나

높게 일어났고, 처마는 펄이 날개를 편 것처럼 화려하고 높다.[如鳥斯革，如翬斯飛.]라는 구절이 보인다.

- 49)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서 “호연지기라는 것은 도의(道義)와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몸이 움츠러들게 된다. 호연지기는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겨나는 것이니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갑자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행동에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몸이 움츠러들게 된다.[其爲氣也，配義與道，無是，餒也。是集義所生者，非義襲而取之也，行有不慊於心，則餒矣.]”라고 했다.

비 올어대네.

아랑위 포랑남, 극기복례 공부가 깊기에 이치가 절로 함양되네. 한 조각 맑은 향으로 세간사를 없이 한 뒤에, 가을물이 쪽보다 푸른 사실을 웃으며 보노라.

아랑위 포랑북, 찬란하게 못 별들이 하나의 극성 주위에 둘러 있도다. 내 마음은 고요하게 감응함이 다만 이와 같으니, 하늘 한 가운데서 극성이 만국을 비춤을 보노라.

아랑위 포랑상, 일만 이치가 분명함이 손바닥 가리키듯 하여라. 발과 눈이 높을 때에 절로 알 수 있거늘, 안배하여 형상 본뜬 필요가 전혀 없다네.

아랑위 포랑하, 특 트이게 순응하여 신화(神化)를 이루도다. 천지가 제 자리를 찾고 만물이 생육함이 하나의 근본에서 이루어지나니, 현명하여 곡진히 하여 무아(無我)의 그 경지와 같고자 지향하라.

삼가 바라건대 상당한 이후에, 영재가 무리지어 나와, 문교가 울연히 흥기하기를 기원한다오.

함양의 본원을 찾아, 앞의 성인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확장하고, 독실하게 보좌하라는⁵⁰⁾ 땃땃한 가르침을 따라, 세간 도리가 바야흐로 흥륭함을 찬조하길 바라노라.

運氣靡常. 慘見名區之蕩析 ; 因革有數. 喜覩鮮原之奐輪.

聿新經營. 宜興歌詠.

緬惟茲樓勝槩. 允協多士依歸.

在彼水中坻. 俯清輝於危檻 ; 樂此沂上趣. 挹前修之遺風.

詎意懷襄之災. 奄遭圯耿之患?

溜雨殘礎. 悵春服之成時 ; 茂草遺墟. 弔秋蛩於遙夜.

幸休明之再振. 藹士類之同聲.

我龜允臧. 適于山而煥廟貌 ; 如鳥斯革. 新是圖而闢堂壇.

既恢進學之門牆. 可無游藝之樓觀?

士釋經而敦事. 工殫技而獻壽.

公輸巧離婁明. 規矩準繩方圓平直不可勝用 ; 徂徠松新甫栢. 樽櫨侏儒閭闔居楔各得其宜.

50) 『서경(書經)』 「주서(周書) 군석(君奭)」에 주공(周公)이 소공(召公)에게 “임금을 독실하게 보좌할 사람은 나와 그대 두 사람뿐이다.[篤棊, 時二人]”라고 했다.

應龍驤首而奮九天. 巨鰲斷足而立四極.
 山葱蘢而繞舍. 靜體不遷; 水汨瀾而循除. 動用無滯.
 匪直爲游觀之美. 實亦觀名義之符.
 至大至剛. 塞天地而配道義; 勿忘勿助. 壹志氣而驗集生.
 襲餒之戒常存. 飛躍之妙斯契.
 誦舊聞而認同志. 質神明而俟來今.
 助學脩梁. 恭陳短唱.

兒郎偉拋梁東. 萬壑千巖旭日紅. 眼底蕭森看景象. 道通天地有形中.
 兒郎偉拋梁西. 志氣如神聖不迷. 靜夜夢回清不寐. 滿林霜月白猿啼.
 兒郎偉拋梁南. 復禮功深理自涵. 一瓣清香無事後. 笑看秋水碧於藍.
 兒郎偉拋梁北. 燦爛衆星環一極. 吾心寂感只如斯. 看取中天照萬國.
 兒郎偉拋梁上. 萬理分明如指掌. 足目高時自可知. 安排不用摹形象.
 兒郎偉拋梁下. 廓然順應成神化. 位育從來一本爲. 賢之致曲希無我.

伏願上梁之後. 英才輩出. 文教蔚興.
 涵養本原. 擴前聖之未發; 篤棊彝訓. 贊世道之方隆.

정사신의 양호루 상량문은 호연지기를 기르는 공부 방법을 강조했다. 그런 데 배용길의 존도사 상량문과는 달리, 류성룡과 권춘란의 존사(尊師) 사실이 나 김득의 흥학(興學) 사실을 현창하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IV. 호계서원 복원과 「호계서원 존도사 증건 상량문」 및 「양호루 증건 상량문」

여강서원이 호계의 사액을 받은 이후 서원의 여러 건물이 개축, 증건되었을 듯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상량문을 찾을 수가 없다. 호계서원이 병호서원과는 독립하여 운영되면서 새 건물을 짓거나 기왕의 건물을 중수한 일이 없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2010년대에 호계서원이 한국국학진흥원 경내에 복원되기 시작하여, 2018년 10월 28일 호계서원복원사업 존도사 상량식이 있었다. 이때 「호계서원 존도사 중건 상량문」은 안동인 김창회(金昌會)가 찬술하고 전주인 류창석(柳昌錫)이 글씨를 썼다.⁵¹⁾

김창회의 존도사 중건 상량문은 변우를 충실하게 지켰으나, 구말 평측의 교호법과 염법을 자주 어겼다. 물론 구중 핵심어의 평측 교체는 의식하지 않았다. 육위송의 경우, ‘拋梁東·拋梁西·拋梁南’의 평東·평齊·평覃 운의 구절은 제3구 말에 측성 글자를 사용하거나 각각 동일 운목의 글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평東 운의 구절에서는 제3구에 평성 高자를 사용하고 평覃 운의 구절에서는 제3구에 평성 晝를 사용했다. ‘拋梁北·拋梁上·拋梁下’의 입職·상漾·상馬 운의 구절은 제3구 말에 반드시 평성 글자를 사용하거나 동일 운목의 글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상馬 운의 구절에서는 제3구에 측성 足자를 사용했다.

산 맑고 물 환한 영남의 웅부 영가 안동은, 기운 맑고 정기 모여 우리나라 추로(鄒魯) 고을이로다

대현의 유풍과 여운이 백세토록 없어지지 않았고, 후학의 우모하고 추념하는 마음이 천년토록 그치지 않았다.

현인을 존경하고 우리 도를 지키는 것이 만고의 치국평천하 방도이고, 학문을 강론하고 인륜을 도탑게 함이 바로 삼대의 상덕하는 가르침이로다.

다행스럽게 묘우가 중건되는 것을 보니, 글 숭상하는 풍습이 진작될 것을 알겠노라.

생각하건대 퇴도 노선생께서는

우리 유학을 크게 떨치시어, 우리 동방에 우뚝하셨으며

51) 이 상량문은 이동구(李東喬) 님의 블로그 『陶山書院博約齋』에 번역문과 함께 게시되고(陶山書院博約齋 <https://cafe.daum.net/dosanseowon>), 장두강의 학가산 사랑 ‘학가산문화환경연구소’ 블로그에 전재되었다(장두강의 학가산 사랑 <https://cafe.daum.net/hakga/9Ztp/1678> ‘2018.11.21.講讀’). ‘伏願上樑之後’ 이하의 부분은 상량문을 적을 때 변우(駢偶)를 원양쌍대격으로 적는 서식(書式)을 잘못 파악하여 원문의 구조를 훼손했다.

도 이루고 덕을 온전히 하시어, 천년토록 법도가 되셨다.

서애선생 류공께서는

학문이 넓고 덕이 높으시어, 후세에 모범을 드리우셨으며

우리나라를 건지셨으니, 공훈이 사직에 남아 있다.

학봉선생 김공께서는

스승을 좇아 배우고 도를 물어, 병풍의 명⁵²⁾으로 전함을 얻으셨고

초유하라는 명⁵³⁾을 받으셨으니, 이름이 역사책에 실려 있다.

대산선생 이공께서는

정자와 주자의 연원을 이어시고, 학문은 도산(퇴도) 적통을 이으셨으며

성현을 잇고 후학을 여는 위대한 일로, 사문의 태산복두 같도다.

천운이 순환하여 이미 왕복하고 흥성하고 쇠퇴하는 이치가 있거늘, 우리 유학에 운수가 있어 회명하고 소장하는 때가 어찌 없겠는가?

선조 계유년[1573]에 안동부에서 30리쯤 되는 곳에 여강서원을 창건했고, 숙종 병진년[1676]에 나라의 특명으로 103년 뒤에 호계서원이라 사액되었다.

슬프게도 고종 신미년[1871]에 온 나라 서원과 사우를 훼손하는 재액 있었으나, 흥성하게도 민국 무술년[2018]에 민족문화의 어진 이를 존송하는 일이 일어났도다.

옛터가 안동호에 수몰되었으니 개탄함이 어떠했겠나? 새로운 터를 영지산 용호(명당)에 자오(정남향)로 마련했도다.

국가와 지자체가 헤아려주는 혜택을 입었고, 사람이 진심갈력하는 간절한 정성에 힘입었다.

당은 숭교당, 동쪽 방은 사성 서쪽 방은 주경이라 하고, 누마루는 양호루, 동재는 구인재 서재는 명의재라 했도다.

열두 채의 웅장한 건물을 우러러 살피고, 아흔 세 칸 방의 배치를 굽어 살펴보니

아! 성대한 일이다.

사람이 도회를 열어 대산 선생을 추배하자자는 논의가 높게 일어났고, 선비들

52) 이황이 김성일에게 준 병명(屏銘)을 말한다. 『학봉집』 부록 권3 「김사순의 병풍에 쓴 명[題金土純屏銘]이 그것이다. 요 임금으로부터 주희에 이르기까지 도학의 연원을 기술했다.

53) 김성일은 임진왜란에 경상 우도 절도사와 초유사를 역임하였는데, 진주대첩에서 병사했다.

이 모두 모여 한 목소리로 호응하여 의견이 확정되었다.

맑게 갠 달빛은 예안향교 행단 가에 다시 밝아졌고, 어두운 거리에 우리 유학의 서광을 비출 수 있게 되었기에,

삼가 여섯 아랑위 노래를 지어, 길고 웅장한 대들보 드는 일을 돕노라.

아랑위 포랑동, 도산의 상서로운 빛이 해가 동쪽에서 솟누나. 선생의 크신 덕은 우리러볼수록 높아지고, 후학들의 힘써 나아감은 길이 무궁하다.

아랑위 포랑서, 학가산의 위용이 멀리 서쪽에 떨어져 있네. 고금의 성현들은 모두 궤철이 한가지이니, 연원을 주고받아 함께 깃들어있도다.

아랑위 포랑남, 문필봉과 갈라산이 멀리 남쪽으로 바라보이네. 수사(洙泗)의 연원에서 흘러나와 『시』와 『서』를 외우니, 해동의 아름다운 기상이 날마다 남기를 내는구나.

아랑위 포랑북, 문수산이 북쪽에서 겹겹이 호위하고 보호하네. 기를 모으고 정을 모아 큰 땅을 열었으니, 호계서원이 우뚝하게 나라에서 뻗어났도다.

아랑위 포랑상, 밝은 해가 환하게 위에 와서 비추네. 삼강오륜을 부지하여 고통을 회복하니, 지금 세상에 문물이 밝고 환해짐을 보도다.

아랑위 포랑하, 넘실대는 깊은 호수가 눈 아래 열려있네. 영남에 필요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니, 농업과 공업의 산물이 넓은 들에 가득하다.

삼가 바라옵건대 상량한 후에는

썩은 선비가 없어지고 참 선비가 흥성하며, 이단은 사라지고 우리 유학은 현양되어,

옛날의 현송(絃誦)하고 음양하는 풍습으로 혁신하여, 올연히 제기 갖추어 제향 올리는 의식이 있기를 바라노라.

많은 선비를 배출하고 끼쳐 온 교화를 돈독하게 하는 곳이자, 문물과 의관을 정숙하고 근엄하게 하는 지역으로서,

마치 천지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과 같게 되고, 마치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민국 무술[2018년] 음력 7월 하순에 후학 안동 김창희 삼가 짓고, 전주 류창석 삼가 쓰다.

山清水明, 嶠南之雄府永嘉; 淑氣鍾精, 東國之鄒魯原鄉: 明(평庚)·嘉(평麻)·精(평庚)·鄉(평陽)

大賢之遺風餘韻, 亘百世而不泯; 後學之寓慕追念, 閱千秋而無休: 韻(거間)·泯(상軫)·念(거艶)·休(평尤)

尊賢衛道, 是萬古治平之方; 講學敦倫, 乃三代尚德之教: 道(상皓)·方(평陽)·倫(평眞)·教(거效)

幸見廟宇重建, 可知文風振作: 建(거願)·作(임藥)

伏惟我退陶老先生

大闡斯道, 卓冠我東: 道(상皓)·東(평東)

道成德全, 千歲惟程: 全(평先)·程(평庚)

西厓先生柳公

博學智德, 垂範後世: 德(임職)·世(거霽)

再造山河, 功存社稷: 河(평歌)·稷(임職)

鶴峯先生金公

從師問道, 得傳屏銘: 道(상皓)·銘(평靑)

受命招諭, 名載竹帛: 諭(거遇)·帛(임陌)

大山先生李公

洛閩淵源, 道嫡陶山: 源(평元)·山(평刪)

繼開偉業, 斯文泰斗: 業(임洽)·斗(상有)

天運循環, 既有往復否泰之理; 吾道有數, 豈無晦明消長之時? : 環(평刪)·理(상紙)·數(거遇)·時(평支)

穆陵癸酉, 安東府東一舍之許, 創建廬江; 肅廟丙辰, 朝家特命百三之後, 賜額虎溪: 酉(상有)·許(상語)·江(평江)·辰(평眞)·後(상有)·溪(평齊)

嗟乎, 高宗辛未, 舉國撤院撤祠之厄; 盛乎, 民國戊戌, 民族文化尊賢之興: 未(거未)·厄(임陌)·戌(임質)·興(거徑)

舊墟安東湖水沒, 慨嘆奈何; 新基靈芝山龍虎, 子午案背: 沒(임月)·何(평歌)·虎(상夬)·背(거隊)

被國家地自軫念之施惠, 賴士林盡心竭力之懇誠: 惠(거霽)·誠(평庚)

堂曰崇教, 東室思誠, 西室主敬; 樓曰養浩, 東齋求仁, 西齋明義: 教(거效)·誠(평庚)·敬(거敬)·浩(상皓)·仁(평眞)·義(거寘)

仰觀十二棟宇之偉容, 俯察九三間室之安排: 容(평冬)·排(평佳)

於乎盛事!

士林道會，湖上追配之論峻發；賢雅咸集，同聲相應之議敦定。：會(거泰)·發(입月)·集(입緝)·定(거徑)

霽月復明於杏樹壇邊，昏衢可照於吾道曙光。：邊(旁先)·光(旁陽)

謹述六偉之詞，助舉雄脩之樑。：詞(旁支)·樑(旁陽)

兒郎偉拋樑東，陶山瑞色日昇東。先生大德仰之高，後學勉進永無窮。：東(旁東)·東(旁豪)·窮(旁東)

兒郎偉拋樑西，鶴駕偉容隔在西。古聖今賢皆一轍，淵源受授共相栖。：西(旁齊)·西(旁轍)·栖(旁齊)

兒郎偉拋樑南，文筆葛蘿望遠南。洙泗遠源誦詩書，海東佳氣日生風。：南(旁覃)·南(旁書)·風(旁魚)·嵐(旁覃)

兒郎偉拋樑北，文殊重重衛護北。鍾氣毓精大地開，虎溪鬱然秀邦國。：北(旁職)·北(旁開)·開(旁灰)·國(旁職)

兒郎偉拋樑上，白日昭昭臨照上。扶得綱常回古風，今世文物見明朗。：上(旁養)·上(旁風)·明(旁東)·朗(旁養)

兒郎偉拋樑下，洋洋深湖開眼下。南州用水豐且足，農工產物滿廣野。：下(旁馬)·下(旁沃)·野(旁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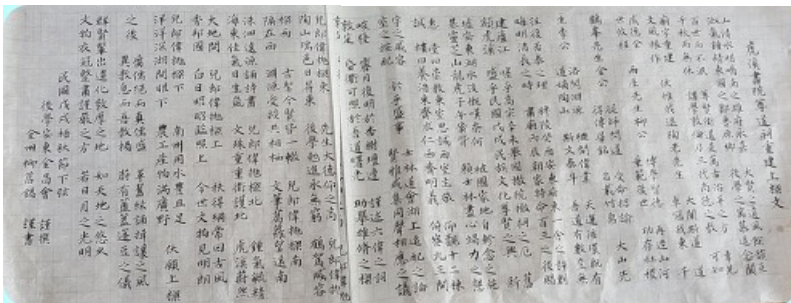
伏願上樑之後，腐儒絕而真儒盛，異教息而吾教揚。：盛(거敬)·揚(旁陽)

革舊絃誦揖讓之風，蔚有簞簋籩豆之儀。：風(旁東)·儀(旁支)

群賢輩出遺化敦厚之地，文物衣冠整肅謹嚴之方。：地(거寅)·方(旁陽)

如天地之悠久，若日月之光明。：久(旁有)·明(旁庚)

民國戊戌梧秋節下弦，後學安東金昌會 謹撰，全州柳昌錫 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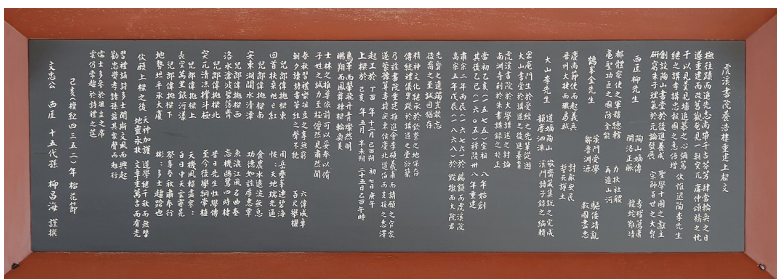
이 존도사 중건 상량문은 이황에 대해 “우리 유학을 크게 떨치시어, 우리 동방에 우뚝하였으며 도를 이루고 덕을 온전히 하시어, 천년토록 법도가 되셨습니다.”라고 존엄의 뜻을 표시한 후, 류성룡, 김성일, 이상정의 순으로 배향 순서를 정하고 배향 선현들의 덕을 칭송했다. 즉 류성룡에 대해서 “학문이 넓고 덕이 높으시어, 후세에 모범을 드리우셨으며, 우리나라를 건지셨으니, 공이 사직에 남아있습니다.”라고 했고 김성일에 대해서는 “스승을 쫓아 배우고 도를 물어, 병풍의 명으로 전함을 얻으셨고 초유하라는 명을 받으셨으니, 이름이 역사책에 실려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상정에 대해서는 “정자와 주자의 연원을 이어시고, 학문은 도산(퇴도) 적통을 이어셨으며, 성현을 잇고 후학을 여는 위대한 일로, 사문의 태산복두 같습니다.”라고 했다. 류성룡을 김성일보다 먼저 언급했지만,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퇴도의 적통을 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정을 부각시켜 도산의 적통을 이었다고 확인했다.

한편 호계서원에는 류창해가 찬술한 「호계서원 양호루 중건 상량문」이 양호루에 현판되어 있다. 단기 4352년 유화절 즉 서기 2020년 음력 5월에 제술한 것이다. 류창해는 류성룡의 15세 손이다.

虎溪書院養浩樓重建上樑文

己亥(檀紀四三五二)年榴花節

文忠公 西厓 十五代孫 柳昌海 謹撰



류창해 「호계서원 양호루 중건 상량문」, 벽담두릉연가 '안동-호계서원'

<https://dldml2xhd.tistory.com/15920694>

이 양호루 중건 상량문은 류성룡에 대해서는 “도산적전(陶山嫡傳) 민락정맥(閩洛正脈)”이라 규정하고, 김성일에 대해서는 “계문수학(溪門受學) 추로연원(鄒魯淵源)”이라고 규정했다. 그 취지는 앞서의 김창희 찬 「호계서원 존도사 중건 상량문」의 내용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V. 결론

문헌에 현전하는 상량문을 보면, 여강서원 창건 당시인 1574년 봄에 이항문학의 산림처사인 권호문이 명륜당 상량문을 찬술했다. 명륜당은 기왕의 여강서원 구조를 설명할 때 나오지 않는다. 혹은 존도사를 명륜당이라고 불렀는지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권호문은 명륜당 상량문은 형식면에서 구말 평측의 교호법과 엄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변우법 또한 엄밀하다. 권호문은 이 상량문에서 ‘퇴도(退陶) 선생’만을 민락(閩洛, 程朱)의 후각(後覺)으로 규정하여, 이항에게 독존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항이 백록동서원의 학규를 도입한 사실을 환기하여 여강서원도 영재를 얻어 경륜(經綸)으로 교육해야 하며 제생(諸生)들에게 훈고(訓誥)를 일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 목민관의 교화를 일체화할 것을 주장했다.

권호문은 장식의 「악록서원 중수기(岳麓書院重修記)」(「嶽麓書院記」 혹은 「潭州重修嶽麓書院記」)가 서원의 제생들은 반드시 ‘구인(求仁)’을 배워야 하며 실제 생활 속에서 ‘묵지이존지(默識而存之) 확충이달지(擴充而達之)’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자제에게 언어문자만 익히는 공부를 금지하여, 악록의 인재 양성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라고 했다. 또한 권호문은 주희가 「형주석고산기(衡州石鼓山記)」에서 과거(科擧)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제생들이 하학(下學)과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매진하라고 권면한 사실을 환기하고, “예전 학교에서 과거(科擧)를 일삼던 폐단을 없애고, 석고(石鼓)의

장수(藏修)에 그칠 정도만이 아니게 하소서.”라고 축원했다.

1605년(선조 38) 낙동강이 범람하여 1606년에 여강서원을 중건할 때, 영의정에서 물러난 류성룡과 안동부사로 재직하던 김륵이 앞장섰다. 또한 정사성·권춘란·김용 등이 적극 협조했다. 1620년에는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을 추배하고 1676년에는 호계서원으로 사액되지만, 중건 시의 상량문은 모두 류성룡과 김성일을 추배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때 여강서원의 중건을 주도한 김륵도, 여강서원과 병산서원을 합칠 것을 주장했던 배용길도, 「여강서원 존도사 상량문」을 작성했다. 당시 유림은 여강서원의 중건이 관아의 후원을 입은 관민 합동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 김륵의 상량문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륵이 지은 존도사 상량문은 서원이 경모(景慕)의 장소로서 감발(感發)의 기회를 준다고 천명했다. 서원의 개건과 관련하여, 그것이 향당의 계획과 유림의 합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서원의 교육이 활성화되어 도맥(道脈)이 성장하고 문교(文敎)가 흥기하기를 희원했다. 그런데, 1620년 류성룡과 김성일을 추배하기 이전이므로 그 두 사람이 퇴계학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배용길이 지은 존도사 상량문은 이황의 저술 가운데 『계몽전의』와 『성학십도』를 거론하고, 이황의 『송계원명이학통록』의 편찬 계획을 언급했다. 그런데 배용길은 김륵의 흥학(興學) 사실과 함께 류성룡과 권춘란의 존사(尊師) 사실을 나란히 현창해서 류성룡과 권춘란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여강서원의 중건 때 정사신은 「여강서원 양호루 중수 상량문」을 작성해서 제생들이 호연지기의 함양(涵養)을 통해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실효를 이룰 것을 축원했다. 정사신이 양호루 중수 때 상량문을 지은 것은 당시 청주 정씨 일문이 안동지역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사신의 양호루 상량문은 배용길의 존도사 상량문과 달리, 김륵의 흥학(興學) 사실이나 류성룡·권춘란의 존사(尊師) 사실을 현창하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강서원 창건 때 권호문이 지은 명륜당 상량문이나, 여강서원 중건 때 김륵·배용길·정사신이 작성한 관련 상량문들은 완전한 변문 형식이다. 여강서

원 중건시의 상량문들은 서원이 후진(後進)을 감발시키는 기능을 지닌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2018년 한국국학진흥원 경내로 호계서원이 복원되고 10월 28일에 호계서원복원사업 존도사 상량식이 있었다. 이때 안동인 김창희의 존도사 중건 상량문이 낭독되었다. 이 존도사 중건 상량문은 앞서의 권호문·김륵·배용갈·정사신의 상량문과 달리, 변우는 충실하게 지켰지만 구말 평측의 교호법과 염법을 자주 어겼다. 육위송의 경우도 엄격한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존도사 중건 상량문은 이황이 동방의 유학을 크게 떨쳐 도를 이루고 덕을 온전히 하여 천년토록 법도가 되었다고 존엄의 뜻을 표시한 후, 류성룡·김성일·이상정의 순으로 배향 순서를 정하고 각각의 덕을 칭송했다. 류성룡을 김성일보다 먼저 언급했지만,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퇴도의 적통을 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정을 부각시켜 도산의 적통을 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썩은 선비가 없어지고 참 선비가 흥성하며, 이단은 사라지고 우리 유학은 현양되어, 옛날의 현송하고 읍양하는 풍습으로 혁신하여, 울연히 제기 갖추어 제향 올리는 의식이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하여, 사실상 유학의 쇠퇴와 전통의 몰락을 우려하고 그 상황을 광정하려는 뜻을 짚게 담았다.

그 후 2020년 음력 5월 류성룡의 15세손 류창해는 「호계서원 양호루 중건 상량문」을 작성했다. 이 상량문은 류성룡을 “도산적전(陶山嫡傳) 만락정맥(閔洛正脈)”이라 규정하고, 김성일을 “계문수학(溪門受學) 추로연원(鄒魯淵源)”이라고 규정했다. 호계서원의 이진 후 새로 작성된 존도사 중건 상량문과 양호루 중건 상량문을 대조하여 보면, 도산계문(陶山溪門)의 적통에 관한 견해가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두 상량문은 각각 찬술 당시 유림의 합의를 반영했으리라 생각된다.

권호문은 「여강서원 명륜당 상량문」에서, 이황이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에서 그러했듯이, 장식과 주희의 서원 이념을 현창하여 하학(下學)을 통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 후 여강서원의 여러 상량문들과 호계서원의 이진 후 상량문들은 모두 이황이 제시한 이 서원 교육 정신을 충실하게 재확인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 李滉, 『增補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權好文, 『松巖先生集』, 韓國文集叢刊 41, 影印標點本, 民族文化推進會, 1988.
金玢, 『栢巖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50, 影印標點本, 民族文化推進會, 1988.
裴龍吉, 『琴易堂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62, 影印標點本, 民族文化推進會, 1988.
鄭士信, 『梅窓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續 10, 影印標點本, 民族文化推進會, 2005.

2. 논저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民族文化論叢』 70, 2018.
김소희,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서적의 생산과 보급」,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虎溪書院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충남대유학연구소, 2021.
김자운·이우진 「1765년 虎溪書院 大學 강회 연구(1)」,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金鶴洙,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朝鮮時代の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
심경호, 「李滉『朱子行狀』 輯注小考」, 『朱子學研究』 32, 『朱子學研究』編委會編, 江西教育出版社, 2019, .
심경호, 「이항의 表箋과 上樑文」,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심경호, 「농산의 시문에 관한 규견(窺見)」, 남원문화원 주관, 농산학회·고령신씨문중, 『농산 신득구 선생 학술대회』, 지리산소극장(남원시립도서관 4층), 2023.12.12.
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장재호, 「『금역당집(琴易堂集)』 해제: 거문고와 『주역』을 벗 삼다」, 한국국학진흥원, 2013년 12월 30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정경주, 「16세기 안동 지방의 서당의 강학 의식」, 『조선의 서당에서 배우는 사회

적 교육의 지혜』, 새물결, 2018.

정재훈,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강학 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陶山書院博約齋 <https://cafe.daum.net/dosanseowon>

장두강의 학가산 사랑 <https://cafe.daum.net/hakga/9Ztp/1678> '2018.11.21.講讀

벽암두릉연가 '안동-호계서원' <https://dldml2xhd.tistory.com/15920694>

류병훈, 「定齋學派의 現實認識과 救國運動」 제II장 '정재학파의 형성과 향촌기반' 1. '안동유림과 정재학파의 형성', <https://blog.naver.com/hyuni1121/223406408078>

Abstract

Eulogies to Raising Beam Ceremonies of Yōgangsōwŏn and Hōgyesōwŏn

Sim Kyung-Ho

In the spring of 1574, a hermit scholar, Kwŏn Homun, a disciple of Yi Hwang, composed “*Yōgangsōwŏn myōngnyundang sangnyangmun* [*The Eulogy to the Raising Beam Ceremony of Myōngnyundang Lecture Hall*]” to present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Sōwŏn [academy]. These goals were rooted in the idea of self-cultivation, based on the Zhang Shi and Zhu Xi’s idea for education system in academies, and teachings in Yi Hwang’s “*Isansōwŏn’gi* [*The Note on Isansōwŏn*].” When Yōgangsōwŏn was rebuilt in 1606, Andong Pusa [magistrate] Kim Rūk and Yi Hwang’s disciple-to-disciple, Pae Yonggil, composed “*Chondosa igŏn sangnyangmun* [*The Eulogy to the Moving Ceremony of Chondosa Shrine*].” Kim Rūk emphasized the sponsorship of the government office, while Pae Yonggil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yu Sōngnyong and Kwŏn Ch’ullan. It is likely that Kim’s eulogy was selected for the actual ceremony. Additionally, Chōng Sasin, a disciple of Ku Pongnyōng, composed “*Yōgangsōwŏn yanghoru chungsu sangnyangmun* [*The Eulogy to the Rebuilding Ceremony of Yanghoru Pavilion*]”, expressing a wish that the students would cultivate the spirit of greatness to achieve sageliness within and kingliness without. It is assumed that several buildings were rebuilt after Yōgangsōwŏn was bestowed the signboard of “Hogye”, though no relevant eulogies have been found. It is possible that the rebuilding and ritual were not carried out normally during the pyŏnghosibi [The Dispute between Pyōngsansōwŏn and Hōgyesōwŏn]. In the

2010s, Hogyesŏwŏn was restored within the precincts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Yi Sangjŏng was additionally enshrined. In October 2018, Kim Ch'anghoe from Andong composed "*Chondosa sangnyangmun*", and in May 2020, Ryu Ch'anghae from Chŏnju composed "*Yanghoru sangnyangmun*." The eulogies of Yŏgangsŏwŏn and those following the relocation of Hogyesŏwŏn have faithfully reconfirmed the educational ideology of the sŏwŏn, as presented by Yi Hwang.

Key word : Yŏgangsŏwŏn, Hogyesŏwŏn, Eulogies to Raising Beam Ceremony, Myŏngnyundang, Chondosa, Yanghoru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호계서원 제향 인물의 문학과 공간 감성

정 우 락*

- I. 머리말
- II. 지역사회와 호계서원
- III. 호계서원 제향 인물의 문학관
- IV. 호계서원의 공간 감성과 그 유형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의는 호계서원을 하나의 창작 공간으로 보고, 여기에 출입한 선비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감성을 지니고 작품을 창작하였던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간 감성 이론’을 활용하였다. 서정적 자아가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서를 감성이라 한다면, 이 감성은 작가의 지적·정서적 상황이 사물이 지닌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교호 작용을 하면서 형성된다. 공간 감성은 도학·낭만·생활·사회 감성으로 대별된다. 본고는 이것이 호계서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는 지를 살핀 것이다.

우선 호계서원 尊道祠에 제향된 이항, 류성룡, 김성일, 이상정의 문학관을 살필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이항 및 류성룡이 강조한 溫柔敦厚의 시정신을 기반으로, 冲澹理到(김성일)와 平鋪洪暢(김성일)·冲澹閑遠(이상정) 등의 문학세계를 열고자 하거나 그렇게 평가받았다. 이 같은 미의식을 지니면서도 문이재도론에 바탕하여 未技인 문학의 기능을 적극 인정한 것에서 출발하여 후대로 갈수록 도학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학적 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호계서원에서 시종 강조되었던 것이 요순 이래의 도통이다. 호계서원의 선비들은 이러한 도맥이 이항을 통해 류성룡과 김성일을 거쳐 이상정으로 이어진다는 생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각을 가졌다. 문학 작품에 도학 감성이 주로 작동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것이 主理論과 關異端 사상과 결부되면서 도학 근본주의를 형성하고, 척사운동과 항일투쟁이라는 강력한 행동주의로 나타나기도 했다. 즉 도학 감성이 강조될수록 사회 감성이 실천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호계서원, 문학과, 공간 감성, 도학 감성, 낭만 감성, 사회 감성, 생활 감성, 도통

I. 머리말

1676년(숙종 2)년 여강서원이 사액되면서 호계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서원은 안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으로, 李滉(1501~1570)을 주향으로 봉안한다. 이후 柳成龍(1542~1607)과 金誠一(1538~1593) 사후 이들을 배향하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의 위차 문제로 시비가 처음으로 발생한다. 屏虎是非가 그것이다. 이 시비는 이황의 적전이 누구인가 하는 학문 및 가문적 자존심과 맞물린 것이기도 하지만, 이인좌의 난(1728) 이후 관직의 길이 막힌 영남 남인 세력의 향권 장악 과정과 유관한 것이기도 하다. 호계서원은 휘철 후 다양한 논란 끝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 예안면 서부리로 복원되었지만, 그 분쟁은 성격을 달리하여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간의 이목도 집중되었다. 호계서원과 관련한 연혁을 간략하게 제시해 두자.

① 1575년(선조 8): 안동시 月谷面 道谷洞 廬山村 五老峯 아래 白蓮寺 절터에 廬江이라는 이름으로 서원 건립¹⁾

- 1) 호계서원은 1573년(선조 6)에 건립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백련사 소속 승려들의 저항이 있었다. 李光庭이 쓴 〈惟一齋金先生行狀〉(『訥隱集』 권19)에 “퇴도 선생이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사람이 廬江 五老峰 아래 서원을 세웠다. 먼저 선생이洞主가 되어 백련사를 헐고 불상을 철거하여 강에 던졌다. 승도들이 처음에는 저

- ② 1576년(선조 9): 2월에 李滉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례를 행함²⁾
- ③ 1605년(선조 38): 大洪水 서원이 유실되었지만 위판은 겨우 구제함
- ④ 1606년(선조 39): 李亨男이 원장이 되어 원래의 터에서 북쪽으로 약간 옮겨 중창
- ⑤ 1620년(광해군 12): 柳成龍과 金誠一을 추향
- ⑥ 1623년(광해군 15): 南致利 추향 제기, 1632년(인조 10), 1634년(인조 12), 1650년(효종 1) 다시 제기
- ⑦ 1630년(인조 8):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판이 이황의 것보다 높아 개판
- ⑧ 1676년(숙종 2): 여강서원이 사액되면서 虎溪書院으로 개칭
- ⑨ 1750년(영조 26): 화재로 인해 원임록 등 많은 책이 소실
- ⑩ 1812년(순조 12): 선성도회에서 李象靖 추향 발의, 1816년(순조 16) 청성도회에서 이상정 추향 재논의
- ⑪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7년 뒤 중창
- ⑫ 1973년: 안동댐 건설로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로 이전
- ⑬ 2019년: 예안면 서부리 한국국학진흥원 근처에 복원, 이상정 추향³⁾
- ⑭ 2021년: 9월 30일, 호계서원에서 이황의 위패를 모시고 나가 燒送

위의 조사를 통해 호계서원의 변화 과정을 바로 알 수 있다. 월곡면 여산촌에 여강서원 건립, 대홍수로 인한 유실, 중창, 사액에 따른 서원명 변경, 서

향하며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나, 선생이 듣고 학봉 김 선생과 함께 오니 모두 두려워하며 흩어졌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 2) 권호문의 『송암집』 연보 45세조(1576)에 의하면, “2월 정축일에 이 선생의 위패를 여강서원에 봉안하고 향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황을 도산서원 상덕사와 여강서원 존도사에 같은 날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강서원 존도사의 봉안문은 柳成龍, 상향축문은 趙鵬이 쓰고, 건물의 당호는 具鳳齡이 짓고 글씨는 洪思濟가 썼다. 초대 원장으로는 金彦璣가 추대되었다.
- 3) 이때 기존에 제향되었던 이황, 류성룡, 김성일 외에 이상정을 추향하게 된다. 『湖學輯成』 권8, 「敎學」에는 “我東自退陶夫子, 集成諸儒, 紹承洛閩, 而群賢繼起, 羽翼斯文, 至葛密兩先生, 得鶴厓遺緒於敬堂之傳, 大山先生, 發端啓鍵, 實有在此.”라고 있다. “이황→김성일·류성룡→장흥효→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명시하여, 이황의 도통이 이상정에게로 이어진다고 했다. 김지은, 「19세기 定齋 柳致明의 현실인식과 경세론」, 경북대학교 교육학박사논문, 2017, 98쪽 참조.

원철폐령에 따른 훼손, 안동댐 건설에 따른 이진, 예안면 서부리로의 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그것이다. 이황을 주향으로 류성룡과 김성일이 추향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위차에 따른 시비가 일어나 심각한 갈등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이후 남치리와 이상정의 추향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불발되었다. 2020년 예안면 서부리에 호계서원을 복원하면서 이상정이 새롭게 추향되어 호계서원 尊道祠는 이황 등 4현을 봉안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주향으로 모신 이황의 위패를 소송함에 따라 호계서원은 새로운 논란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①에서 ⑭까지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호계서원을 둘러싸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각종 문헌 속에 산포되어 있다. ①·②와 관련하여 여강서원에 이황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례를 행하였다는 權好文(1532-1587)의 『송암연보』 기록,⁴⁾ ③과 관련하여 홍수로 인해 여강서원이 떠내려갔으나 위판을 겨우 건져냈다는 金鈴(1577-1641)의 『溪巖日錄』 기록,⁵⁾ 새로 모셔 온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판 크기가 이황의 것에 비해 커서 미안하다며 대책을 물었던 여강서원 선비들의 질문에 대한 張顯光(1554-1637)의 답변⁶⁾ 등 허다한 기록이 모두 그것이다.

호계서원의 창건과 중건, 위차 시비나 훼손에 따른 기록도 있지만, 호계서

4) 권호문의 『송암연보』 45세(1576) 2월 조에 “이 선생의 위패를 여강서원에 봉안하고 향례를 행하였다. - 이날에 도산서원에서도 위패를 봉안하고 향례를 행하였다. -”라고 하였다.

5) 金鈴은 『溪巖日錄』 1605년(선조 38) 7월 21일 조에, “여강서원도 떠내려갔는데 위판은 겨우 옮겨 내었다고 하니, 들려오는 것마다 놀라워서 더욱 망극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6) 張顯光, 『旅軒集』 권5, 「答問目: 答廬江書院」, “문: 서애와 학봉 두 선생의 위판을 모두 판 서원에서 本院의 尊道祠로 옮겨 모셨는데, 위판을 만드는 법식이 서원마다 똑같지 않아서 척수의 길이와 너비가 正位인 퇴도 선생의 위판보다 훨씬 더 큼니다. 이 때문에 한 지방의 사론들이 심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위판을 고쳐야 합니까? 답: 配位の 위판이 正位の 위판보다 높은 것은 과연 미안한 일이니, 나의 얕은 생각에도 또한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바라건대 문견이 많은 사람에게 널리 질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을 지을 때의 상량문, 호계서원 사우인 존도사의 제향 인물을 뽑고 나온 다음의 감회나 문루인 養浩樓에 올라 회포를 노래했던 서정 시편 등 다양한 문학작품들도 존재한다. 이들 작품은 존도사에 봉안된 인물, 즉 이황, 류성룡, 김성일의 문학과 일련의 연관성 속에서 창작을 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에 추향된 이상정 역시 이들을 적극 계승하고 있으니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호계서원이라는 자연공간을 통해 기록하는 지역 선비들의 공간 감성을 만나게 된다.

호계서원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호계서원의 置廢 문제와 위상,⁷⁾ 호계서원의 학통,⁸⁾ 서적의 생산과 강학 활동,⁹⁾ 안동사족의 호계서원 운영,¹⁰⁾ 당대의 정국 변화에 따른 호계서원의 대응¹¹⁾ 등이 대체로 그것이다. 역사학계의 이러한 논의는 서원의 본래 기능인 尊賢과 養士의 기능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존현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와 양사 과정에서의 강학과 출판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통과

7)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2): 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우인수, 「경상도 안동 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8)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17세기 초반의 묘향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9)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 2012;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학활동」, 『儒學研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김자운·이우진, 「1765년 虎溪書院『大學』강회 연구(1)」,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김소희,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서적의 생산과 보급」,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 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10)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虎溪書院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11) 이욱,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 노력」,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김지은, 「19세기 후반 국내의 정세변화와 호계서원의 대응」,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강윤정,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시대적 대응에 관한 문제 역시 호계서원이 지닌 정체성과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주목해야 할 대상이었다.

본 논의는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가졌던 문제의식과는 다른 시각에서 호계서원을 접근한다. 즉 호계서원을 하나의 창작 공간으로 보고, 여기에 출입한 선비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감성을 지니고 작품을 창작하였던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공간 감성 이론’을 활용하기로 한다.¹²⁾ 서정적 자아가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서를 감성이라 한다면, 이 감성은 작가의 지적·정서적 상황이 사물이 지닌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교호 작용을 하면서 형성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공간 감성은 도하·낭만·생활·사회 감성으로 대별된다. 본고에서는 이것이 호계서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형상화되는지를 선비들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핀다.

먼저 호계서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 연혁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예비적 고찰로 기존 논의에 기반하여 호계서원이 가지는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리하기로 한다. 호계서원에 출입한 선비들의 공간 감성은 호계서원 존도사에 제향된 인물과 직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서원의 제향인물인 이항, 류성룡, 김성일, 이상정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¹³⁾ 나아가 호계서원의 공간 감성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로써 우리는 호계서원을 하나의 창작 공간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에서 이룩한 호계서원의 특징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영남학』 7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과 증대홍 저·정우락 외 역, 『문학지리학개론』(경북대학교출판부, 2022)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하 본고에서 제시된 공간 감성 이론은 이 논문에 기반한다.

13) 본고에서는 이상정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1812년(순조 12) 10월에 宣城道會에서 호론들이 이상정의 추향을 제의했으나 屏儒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1816년(순조 16) 12월에 靑城道會에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으나 屏儒들의 반대로 다시 무산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항 이하 제향 인물의 도맥을 계승하며 호계서원에서 강학활동을 지속하였고, 2019년 호계서원이 예안면 서부리 한국국학진흥원 근처로 복원되면서 마침내 추향되었다.

Ⅱ. 지역 사회와 호계서원

호계서원은 지리적으로 안동대도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기적으로 안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물로는 이황과 그의 대표적인 제자인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호계서원은 예안 지역의 易東書院(1570년 건립) 및 陶山書院(1574년 건립) 등과 함께 안동권을 대표하는 서원이었다. 더욱이 병호시비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경상북도와 관련 유림이 도산면 서부리에 호계서원을 복설하고 이상정을 추향하면서 유림 대통합을 도모하기도 했다.¹⁴⁾ 그러나 예안 유림의 반발로 이황의 위패를 소송하게 되었으니 시비는 새로운 국면을 띠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¹⁵⁾

호계서원을 둘러싼 시비와는 별도로 이 서원이 갖는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은 주목받아 마땅하다. 이 서원이 예안의 도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성주의 천곡서원과 비견되면서 “안동부 국학의 으뜸”이라고 일컬어진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규모의 면에 있어서도 묘우 尊道祠 6칸, 강당 崇教堂 15칸, 동재 求仁齋 4칸, 서재 明義齋 4칸, 누문 養浩樓 10칸 등 도합 102칸이나 되었다.¹⁶⁾ 이러한 규모는 향교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면에서도 안동향교의 운영까지 장악하며, 강학이 科業을 목적으로 하는 巨接에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여강서원의 동주 권호문이 안동향교 유생들의 考講에서 試官을 담당하였으며, 金聖鐸(1684-1747)이 거접에 참여하여 과거 문자를 익혔고 전례대로 수일간 거접하였던 사실은 이를 잘 말

14) 경북신문, 2020년 11월 22일자, 「400년 병호시비 마침표...호계서원 복설로 영남유림 '대통합'」 참조.

15) 안동인터넷뉴스, 2024년 9월 5일자, 「호계서원發 유림간 끝없는 갈등... 춘계향사 강행에 예안유림 '主壁없는 향사는 후안무치」 참조.

16) 이밖에도 神門, 神廚, 童蒙齋, 有司房, 齋廚, 寶上庫가 더 있었다.

해 준다.¹⁷⁾

1605년(선조 38)년에 발생했던 대홍수로 호계서원은 완전히 떠내려갔다. 이황의 위판만 겨우 건졌을 따름이었다. 이에 2년이 지난 뒤 원래의 자리에서 약간 북쪽에 다시 서원을 세웠는데, 존도사에는 김령의 장인 洪思濟가, 進學門과 養浩樓에는 裴大維가 쓴 글씨를 편액으로 걸었다.¹⁸⁾ 김령은 『계암일록』 1607년(선조 40) 10월 8일 조에 위판을 봉안하는 날이었지만 병으로 가지 못하고 당시 전해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두었다. “듣자하니 여강서원의 모임에는 거의 2백 명이나 되었고 음식도 아주 풍성했다고 한다.”¹⁹⁾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안동의 선비 사회에서 이 서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던가 하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다.

관학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던 호계서원은 향사를 통해 선현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였고, 강학을 통해 존도사에 봉향된 인물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했다. 예컨대, 권호문이 50세 되던 1581년(선조 14) 봄에 존도사를 배알한 후 유생들을 이끌고 강학을 하면서 시를 지어 따르는 이들에게 보인 적이 있다. 그는 여기서, “날마다 내 몸을 세 가지로 반성하니, 공부를 함에 이것으로 지침을 삼았다네. 때맞춰 내리는 비처럼 공자의 문하에서 누가 교화를 입었는가? 춘풍 같은 程子 문하에 다시 참여하기 어렵네. 글 읽는 소리는 거문고를 타는 듯하고, 지극한 교훈은 좋은 말씀뿐이라. 늙은 내가 병축 같음을 누가 알랴? 어두운 밤길 해매니 부끄러움 절로 많다네.”²⁰⁾라고 하였다. 이제 강학의 한

17) 김자운(2021), 앞의 논문, 참조.

18) 여기에 대하여 김령은 『계암일록』 1611년 4월 19일 조에서, “서원이 을사년 홍수에 무너져서 다시 지어 매우 좋았는데 養浩樓는 더욱 크고 웅장하였다. 사당에 배알하였다. 사당의 편액은 장인 어른의 수적으로 字體가 좋다. 進學門과 門樓의 편액은 물에 떠내려가서 裴大維가 門額을 썼는데 썩 좋지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9) 김령, 『계암일록』 1607년(선조 40) 10월 8일 조.

20) 權好文, 『松巖續集』 권5, 〈示廬江書院諸生求和裴校理〉, “吾身日省在曾三, 爲學工夫是指南. 時雨孔門誰得化? 春風程座更難參. 餘音恰似瑤琴奏, 至訓何徒玉屑談. 老學誰知同秉燭? 冥行撻墮自多慙.”

장면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趙月川이 陳清瀾이 지은 『學部通辨』 한 질을 구해 근래에 여러 사람과 여강 서원에서 한 차례 강론하였는데, 매양 나를 보면 반드시 거론하면서 유가와 불가의 歸趣와 주자와 陸九淵의 다른 점을 잘 밝혔다고 칭찬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삼가 한 번 읽어 보니, 그 책이 義理가 분명하고 이치를 드러냄이 정당하며 邪說을 물리치고 正學을 보호하여 유가의 道에 크게 공이 있음을 알았다.²¹⁾

이덕홍이 전한 것으로 조목의 『학부통변』 강론에 대한 것이다. 퇴계학과에서는 『심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하여 논란을 벌였다. 특히 조목과 이덕홍은 程敏政의 『심경부주』가 육왕학적 요소가 있다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어지는 글에서 “배우는 자들이 가까이하여 읽는다면 주자가 주자가 된 까닭과 육구연이 육구연이 된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며, 陽明 定論의 잘못과 篁墩 『道一編』의 그릇됨이 절로 그 실정을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²²⁾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이황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심경부주』가 심학을 밝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心經後論〉을 지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²³⁾ 호계서원에서는 사서 등 다양한 서적이 강론되기도 하였지만, 심학이 대표적인 강의 주제였고, 이 주제는 19세기까지 이어지면서 하나의 특징으로 부각되었다.²⁴⁾

21) 李德弘, 『艮齋集』 권7, 〈陳清瀾學部通辨心圖說辨〉, “趙月川得陳清瀾所著學部通辨一件, 頃與諸人, 一講於廬江書院. 每見弘, 必舉以稱之, 以明儒釋之歸, 朱陸之辨. 弘竊喜之, 謹一讀得, 其爲書義理分曉, 發明正當, 闢邪說衛正學, 大有功於斯道.”

22) 李德弘, 『艮齋集』 권7, 〈陳清瀾學部通辨心圖說辨〉, “學者就而讀之, 則庶可見朱之所以爲朱, 陸之所以爲陸, 而陽明定論之失, 篁墩道一之誤, 自不能逃其情矣.”

23) 이황의 제자들은 정민정의 『심경부주』에 상산학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황은 〈심경후론〉을 지어 다소의 문제가 있으나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이후 이덕홍 등은 『심경부주』의 정본을 만드는데 힘썼으며, 정구는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心經發揮』를 찬술하였다.

24) 여기에 대해서는 김자운(2021), 앞의 논문 105~112쪽 참조.

서적 간행도 호계서원의 주요 과제였다. 심학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 일반이 강학의 주요 테마였다면, 서적 간행은 지역의 선비사회에 보다 밀착되어 있었다. 이황과 그 학파의 문집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황의 『啓蒙傳疑』(1578), 김성일의 『학봉집』과 『학봉연보』(1649), 그리고 『학봉속집』(1782), 이황의 편집과 이덕홍의 주석을 거치면서 이재가 증보한 『朱書講錄刊補』(1785), 『大山實記』(1848) 등의 간행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황의 문하생들이 모여 『理學通錄』과 『퇴계집』 일부를 교정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짬을 내어 술자리를 열기도 하였는데, 다음 자료를 보자.

5월에 여강서원에 동문들이 모여 『퇴계선생문집』을 교정하였다.-선생이 동문 및 여러 벗들과 서로 모여 문집을 교정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짬을 내어 술자리를 열었는데, 학봉 김성일이 자기 집에서 가져온 鮑甲으로 술을 돌리자, 선생이 그 포갑 술잔을 취해 그 표면에 글을 쓰기를 “오색이 찬란하고, 무늬가 아름답구나! 술을 많이 마셔도, 모습이 어지럽지 아니하네.[五色燦兮, 文炫爛兮! 飲雖多兮, 儀不亂兮!]”라고 하였다. 이에 학봉이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포갑을 수습하여 보관하였다.-25)

위 글은 조목이 63세(1586년, 선조 19) 되던 해의 일로, 연보에 기록된 것이다. 여강서원에서 『퇴계집』을 교정하던 중에 김성일이 포갑으로 술을 돌리자, 여기에 대하여 조목이 명을 지어 경계했고, 김성일이 두 번 절하면서 수용하였다는 미담이다. 이처럼 동문들이 여강서원에 모여 스승 이황의 문집을 교정하기도 하고, 다시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 교정을 보기도 했다. 나이가 김성일 등이 타계한 후에는 그들의 문집 또한 이곳에서 발간되었다. 이처럼 호계서원은 심학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강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향 인물의 문집을

25) 『학봉언행록』에서도 이 내용이 전하는데, 약간 결을 달리 한다. 즉 조목이 김성일에게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일찍이 鮑甲을 선생에게 보내 주면서 銘 하나를 지어 주자, 김성일이 절을 하면서 받고는 가슴속에 새겨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정하거나 간행하는 등 지역 선비사회를 위한 일을 적극 추진하였다.

호계서원은 공론의 중심 무대로 활용되기도 했다.²⁶⁾ 이는 물론 호계서원의 학문적 위상과 맞물린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남 유림의 公論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621년(광해군 13) 請斬李爾瞻疏, 1650년(효종 1) 斥牛栗文廟從祀疏, 1720년(경종 즉위년)과 1723년(경종 3)의 이현일 신원운동, 1721년(경종 1)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벌어졌던 김상헌 서원 건립 시비,²⁷⁾ 1855년(철종 6) 사도세자 추존을 위한 만인소를 병산서원과 함께 발의하였으며, 1871년(고종 8) 10,027명의 이름으로 서원 훼손 반대를 위한 만인소 역시 호계서원이 주도하였다. 이보다 앞서 1792년(정조 16) 사도세자의 신원을 위한 만인소에 대한 일기가 호계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도 특기할 만하다.

임자년(1792, 정조 16) 儒疏에 대한 비답에 “드러내 밝히기를 생각하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로 정조께서 친히 쓴 御筆인지라 개인의 집에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安東의 校宮에 안치하였습니다. 소장에 대한 일과 전후의 일기가 三溪書院과 虎溪書院에 있었는데, 鶴林 權訪 공이 그 당시 소장을 올리는 데 참여한 유생으로서 두 서원에 보관된 문자를 절충해서 『闡揮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²⁸⁾

26) 한국서원학회에서는 2023년 10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호계서원과 조선 후기 영남공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때 발표된 논문은, 「퇴계학맥의 전개와 호계강회」(권오영), 「17세기 정치상황과 호계서원의 공론 형성」(이근호),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이욱), 「19세기 후반 국내의 정세변화와 영남유림의 대응: 호계서원을 중심으로」(김지은), 「한국 근대 안동인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강윤정)이었다.

27) 1721년, 1731년, 1738년에 김상헌을 제향하기 위한 서원 건립이 시도되었으며, 1740년 가을부터 1742년까지 안동부사가 호계서원 원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우인수(2022), 앞의 논문, 참조.

28) 李晚燾, 『響山集』 권5, 〈答崔純夫正愚〉, “壬子儒疏批. 有念念闡揮之語, 而實親題御筆也, 不可藏於私室, 故安于安東校宮. 疏事及前後日記, 在三溪·虎溪, 鶴林權公訪, 以其時疏儒, 折衷兩院所藏文字, 名之曰闡揮錄.”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는 봉화의 三溪書院이 중심이 되고, 이상정의 조카인 李堉을 소두로 김희주·김시찬·류이좌 등이 공시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 자료에서 보듯이 상소를 올리는 과정은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이 일기가 삼계서원과 호계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다. 權訪(1740~1808)은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대한 전말을 기록했는 바 『천취록』이 그것이다. 이렇듯 호계서원은 안동 지역의 공문을 주도하였는데, 만인소에 적극 참여한 것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호계서원은 강회를 통해 지역의 선비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당대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문을 형성해 나갔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실천력을 갖추고 실행행사를 하기도 한다. 위 난의 시기를 맞아 의병활동이나 항일투쟁을 전개한 것이 그 대표적이다.²⁹⁾ 호계서원은 바로 이를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의병활동은 1895년(고종 32)의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주요 계기가 되었고, 항일투쟁은 망국 이후 협동학교 계열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주목해 보자.

아아, 원통하도다! 예법을 지켰은 몸이 비린내 나는 오랑캐가 되고, 鄒魯의 풍속이 갑자기 바뀌어 도깨비 세상이 되고 말았다. 비록 저들이 못을 기울이고 바다를 뒤엎는 형세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의 갈대잎으로도 또한 버틸 수 있거늘 하물며 이 실낱같은 목숨이 이 넓은 천하에 받을 디딜 수 있는 곳이 한 조각이라도 없게 된다면 어찌 저 끓는 물이라도 달려가지 않겠으며 가마솥에라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에 이달 초 6일에 본부의 鄕校에서 서로 모이기로 하였으니, 이 義學는 상하와 노소가 없다. 진실로 몸이 있다면 자기가 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약속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자는 더러운 무리일 것이다.³⁰⁾

29) 호계서원에서의 의병활동과 항일투쟁은 강운정(2023), 앞의 논문, 참조.

30) 『乙丙隨得錄』, 〈虎溪通文〉(『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 2012), “噫噫痛矣! 禮法之身, 化爲腥羶, 鄒魯之俗, 翻成鬼魅. 雖有湫傾海倒之勢, 一葦亦可以抗之. 況此如線之命, 無一片措足之地於大天之下, 則安得不赴湯火, 而蹈鉅鑊哉! 茲以, 今月初六日, 定會于本府鄕校. 斯義也, 無上下無老少, 苟有身則無非自己事也. 其畏約退後者, 醜類也.”

『乙丙隨得錄』에는 「安東倡義通文」·「격문」 등 다양한 자료가 실려 있는데, 위는 호계서원에서 보낸 「虎溪通文」의 일부이다. 모두 향교에 모여 거사에 참여하자고 했다. 이것이 오백 년 사직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다. 『鄉會時日記』 1895년 12월 3일 조에 “예안향교의 통문과 호계서원의 통문, 그리고 임천서원의 사통이 이르렀는데 모두 이 일 때문이었다.”³¹⁾라고 하였다. 이 일이란 다음 아닌 明成皇后 시해사건과 斷髮令에 따른 창의였다. 호계서원은 여기에 적극 참여하였던바, 같은 일기 12월 초5일 조에, “들으니 모인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하회에서는 아래 뒫동네를 합해 100여 명, 풍산에서는 30여 명이 왔으며, 호계서원 쪽 각 집안에서는 석권하여 왔다고 한다.”³²⁾라 기록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의병활동을 호계서원이 주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호계서원은 이황을 중심으로 류성룡과 김성일을 존도사에 모셔두고, 『심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리서를 강학하면서 서적을 출간하는 등 안동 지역 유가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호계서원은 지역 사회의 공문을 주도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의병활동과 항일투쟁도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큰 선비가 사망하였을 때는 호계서원의 이름으로 제문을 지어 보내기도 했다. 조목(1524~1606), 구봉령(1526~1586), 이현일(1627~1704)이 사망하였을 때 호계서원 명의로 제문을 보내 조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호계서원이 지역 사회에서 갖는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게 된다.

31) 金鼎燮, 『鄉會時日記』 1895년 12월 2일 조(『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 2012), “村內三四員, 往參于面會, 會者數百人, 禮安校通, 虎溪通文, 臨川私通來到, 俱以此事故也.”

32) 金鼎燮, 『鄉會時日記』 1895년 12월 5일 조(『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 2012), “轉聞, 會客甚衆, 河回則上下合百餘人, 豐山則三十餘人, 虎邊各門, 則可謂席捲.”

Ⅲ. 호계서원 제향 인물의 문학과

서원의 양대 기능은 尊賢과 養士다. 존현은 사우에 봉향되어 있는 인물을 받들며 그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자는 것이고, 양사는 지역의 선비를 불러 모아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선비들을 양성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존현은 어떤 지표를 설정한 것이니 구심력이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양사는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을 길러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니 원심력이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계서원 존도사에 제향된 이황, 류성룡과 김성일, 이상정의 생각과 행동이 지역 선비들의 지표가 되는 것이니, 이들이 무엇을 지향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류성룡이 이황을 여강서원에 봉안하면서 “아, 선생이시여! 도는 높고 덕은 온전하도다. 청순한 자질은 특별히 하늘에서 받으셨고, 정예한 학문은 묘하게도 성현들과 부합되네.”³³⁾라고 하였다. 그리고 鄭經世(1563~1633)는 류성룡과 김성일을 여강서원에 봉안하면서, “뛰어난 분 우리 고장에서 나삼에 두분의 어진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전수받음이 진실되고 분명하였고 봉우로서 서로 양보하였습니다.”³⁴⁾라는 말로 이황에게 고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道崇德全’한 이황을 본받고자 하는 류성룡과 김성일이라는 정경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상정을 제향하자는 논의 역시 그가 이들을 따르고자 했던 생각에 기인한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황은 주자학을 명분이 아닌 도학으로 인식하면서 도학이 근본이고 문학은 말단이라 생각하였다. ‘遏人欲存天理’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지닌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고 가난하면서

33) 柳成龍, 『西厓集』 권19, 〈廬江書院退溪先生奉安祭文〉, “嗚呼先生! 道崇德全. 淸純之質, 獨得於天. 精詣之學, 妙契前賢.”

34) 鄭經世, 『愚伏集』 권16, 〈廬江書院附西厓·鶴峯兩先生, 告退溪先生文〉, “有懿吾邦, 有覺二賢. 授受眞的, 同列推先.”

도 도를 즐기며 규범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 했다. 심성수양을 중시하는 삶 속에 문학이 존재하므로 문학의 장식적 기능을 중시한 官人文學과는 대척점에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陶淵明과 주자의 시를 특별히 좋아하였다. 문학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보자.

시는 비록 末技이지만 性情에 근본을 둡니다. 체제와 격식이 있어서 진실로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지나치게 어지러이 다투고 기를 드러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숭상하며, 말이 放誕한 데 이르기도 하고 뜻이 잡스럽게 섞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자신의 입을 믿고 붓을 믿어 함부로 써내려 가는 것은 비록 일시적인 쾌감을 얻을 수는 있어도 만세에 전하기 어렵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이런 일은 능하다 하여도 계속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도에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급 명가의 작품을 취하여 착실하게 공을 들이고 스승으로 삼아 본받는다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³⁵⁾

이 글은 이항이 鄭琢(1526-1605)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이항이 시를 '末技'라 하였으니 그의 문학관이 道本文末論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도학이 근본이고 문학이 말단이라는 의미이지 문학을 배제하지는 것이 아니다. 문학이 성정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격식에 맞는 고급 명가의 작품을 취하여 작문하는 것이 마땅하고 함부로 써내려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이항은 〈陶山十二曲跋〉에서 제시한 것처럼 溫柔敦厚의 미의식에 입각하여 작품을 창작했다. 그 결과 이항은 因文入道³⁶⁾라 평가받으면서 한시 작품 2,300여 수가 현전하게 되었다. 이항이 문학

35) 李滉, 『退溪集』 권35, 〈與鄭子精〉, “夫詩雖末技, 本於性情, 有體有格, 誠不可易而爲之. 君惟以誇多鬬靡, 逞氣爭勝爲尙, 言或至於放誕, 義或至於龐雜, 一切不問, 而信口信筆, 胡亂寫去, 雖取快於一時, 恐難傳於萬世, 況以此等事爲能, 而習熟不已, 尤有妨於謹出言收放心之道, 切宜戒之, 仍取古今名家, 著實加工而師效之, 庶幾不至於墜墮也.”

36) 李珣, 『栗谷集』 권28, 「經筵日記」, “滉之學因文入道, 義理精密.”

을 경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류성룡의 문학관 역시 스승 이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830여 수의 작품을 남기면서 중국의 陶淵明과 韋應物을 시가의 정통으로 삼았고, 우리나라에서는 李崇仁의 시가 가장 좋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시를 제대로 지을 줄 모르고 시의 뜻을 조금 알 뿐이라면서도, “시의 좋고 나쁨은 취지의 높고 낮음에 있지 말의 공교로움과 줄렬한 데에 있지 않다. 비유하건대, 大羹과 玄酒가 무미한 가운데 지극한 맛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³⁷⁾라고 하였다. 〈詩敎說〉을 지어 문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떤 사람이 “시는 원망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원망은 군자의 일이 아닌데, 그래도 性情의 올바른을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개 사람이 사람된 까닭은 다만 부자·군신·부부·형제·붕우가 서로 친애하는 사이에 惻隱·忠厚한 생각이 녹아 관통하고 두루 흘러서 마치 초목이 생기를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데 있다. 혹시 불행하게도 틈이 생겨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신하는 임금에게 버림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형제가 서로 기뻐하지 않으며, 붕우가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그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탄식하는 것도, 인정이 반드시 이르는 바요, 천리의 당연한 바다. ... 오직 시의 말은 溫柔敦厚하여 스스로 그 마음의 지성을 다할 뿐이고, 激發하여 지나치게 심한 말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를 귀하게 여겨 원망할 수 있다.³⁸⁾

위의 글은 류성룡이 시는 ‘원망할 수 있다[可以怨]’는 공자의 말을 설명한

37) 柳成龍, 『西厓集』 권18, 〈書亂後詩稿後〉, “蓋詩之好否, 在意趣高下, 不在辭之工拙, 譬如大羹玄酒, 寓至味於無味中, 一下五味, 非不悅口, 終是偏者勝耳.”

38) 柳成龍, 『西厓集』 권15, 〈詩敎說〉, “夫人之所以爲人者, 只在於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相親相愛之間, 而惻隱忠厚之意, 融貫周流, 如草木之有生意, 如或不幸而有所間隔, 子不得於父, 臣不得於君, 婦不得於夫, 兄弟不相悅, 朋友不相得, 則其所以哀痛傷悼, 不能自安於心, 而發之咨嗟歎息者, 其亦人情之所必至, 而天理之所當然. ... 惟詩之言, 溫柔敦厚, 自盡乎其心之至誠, 而無激發過甚之辭, 故聖人貴之, 謂可以怨.”

대목이다. 그는 여기서 부자 등 사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측은·충후한 생각이 녹아 관통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탄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천리의 당연함이라 했다. 그러나 그 말이 溫柔敦厚한 것이 ‘가이원’의 기본 의미라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주자가 ‘굴원의 잘못은 지나친 충에 있다.’, “變風의 말류로 치달았다.”라고 평가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굴원의 〈離騷經〉 등이 시의 본지를 본받기는 하였지만, 삶을 버리고 못에 뛰어들어 죽은 일은 심하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天然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성일 역시 성리학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재도주의적 문학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를 지었고, 문집과 일고를 합하여 1,500여 수의 한시를 남겼다. 일찍이 이황으로부터 堯舜 이래 禹王, 湯王, 文王, 武王, 周公, 孔子, 顏子, 曾子, 子思, 孟子, 周子, 程子, 朱子가 서로 전한 심법의 요결을 받은 바 있으며,³⁹⁾ 鄭述(1543-1620)는 그의 시를 ‘冲澹理到’하고 오언고시에 능하며 陶淵明과 蘇軾의 시체를 터득하였다⁴⁰⁾고 했고, 趙綱(1586-1669)은 그의 시를 ‘平鋪洪暢’하여 韓愈와 歐陽修의 경지에 이르렀다⁴¹⁾고 하기도 했다. 대체로 평이하면서도 이치가 담긴 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는 이렇게 말했다.

我恨龍眠工畫物	내 이공린이 그림 잘 그리는 것을 한하나니
模形未能模其聲	모습이야 그리지만 소리는 그릴 수 없네
毛錐謾勞填靑紅	붓끝으로 울긋불긋 부질없이 채색하나
草草兒戲無足評	거친 것이 어린아이 장난 같아 평할 것도 못 되네

39) 金誠一, 『鶴峯續集』 권3, 〈言行錄〉, “老先生手書, 堯舜以來, 禹湯文武周公孔子顏曾思孟周程朱氏, 相傳心法之要言旨訣.”

40) 鄭述, 『寒岡集』 권6, 〈有明朝鮮國, 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贈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 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 世子左副賓客金公行狀〉, “詩律亦冲澹理到, 尤善於五言古詩, 深得陶蘇體.”

41) 趙綱, 『龍洲遺稿』 권11, 〈鶴峯先生集序〉, “皆平鋪洪暢, 優入韓·歐之室.”

豈如詩人彩筆下	어찌 시인이 붓으로 아름답게 하여
幻出天機聲大鳴	천기를 그려내어 큰 소리로 울리는 것과 같겠는가
胸中自有一天地	가슴속에 저절로 하나의 천지가 있나니
神與化工通其精	조물주와 더불어 그 정신이 통한다네
風雲意思浩無邊	풍운과 같은 생각 드넓기가 그지없고
山海襟度高崢嶸	산해와 같은 마음은 우뚝하게 드높다네
藏中爲體有五性	가슴속 간직한 것을 체로 삼아 오성이 있고
發外爲費具七情	밖으로 드러내 활용하여 칠정이 갖춰지네 ⁴²⁾

김성일의 〈소리를 그리다[有聲畫]〉라는 작품의 일부이다. 여기에 의하면 시인은 붓끝으로 천기를 울릴 수 있다고 했다. 마음속에 五性이 있고, 이것이 바깥 사물과 부딪히며 七情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 했다. 김성일이 같은 작품에서, “그렇지만 소리 있는 그림은 正音이 귀한 법이니, 번잡스레 읊어대어 어찌 詩城만 시끄럽게 하리”⁴³⁾라고 하였다. 결국 그에게서 시는 성정을 기르기 위한 도구였으며, 이 때문에 고인이 갔던 길을 가고자 했다. “마침내 이를 대하여 성정을 기르고, 높이 고인을 좇아 같은 길 가기를 기약하네”⁴⁴⁾라고 한 것에서 그가 추구하는 문학세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정의 경우를 보자. 그의 시는 원집과 속집을 합쳐 모두 430여 수가 확인되는데, 도학이 문학에 일방적으로 침투한 흔적이 보인다. 그는 도학과 문학은 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도와 문은 둘로 갈라짐이 없으니, 도가 자기에게 터득되어 활짝 꽃피어서 밖으로 드러나면 문이 된다. 그래서 전에 ‘도가 현저한 것을 문이라 한다.’고 했으니, 어찌 도를 도외시하고, 이른바 문이란 게 따로 있겠는가.”⁴⁵⁾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니 문학과 도학 가운데 도학을 특별히 강조한 것

42) 金誠一, 『鶴峯逸稿』 권1, 〈有聲畫〉.

43) 金誠一, 『鶴峯逸稿』 권1, 〈有聲畫〉, “雖然聲畫貴正音, 繁吹豈但喧詩城.”

44) 金誠一, 『鶴峯逸稿』 권1, 〈有聲畫〉, “終期對此養性情, 高追古人同其程.”

45) 李象靖, 『大山集』 권43, 〈鶴沙金先生文集序〉, “道與文無二致, 道得於己, 而英華著於外則爲文, 故傳曰道之顯者謂之文, 豈外道而別有所謂文者哉!”

이라 하겠다. 이러한 道文一致 사상이 지향하는 미의식 역시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자료를 보자.

시라는 것은 성정에 근본 하되 밖으로 표출하여 읊조리고 노래할 때 冲澹하고 閒遠하여 세속의 비린내를 완전히 없앤 뒤에야 귀해진다. 저 농염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하면 비루한 데에 빠지게 되고, 호방하고 방종한 것을 높이면 방탕한 데로 흐르게 되나니, 이런 것은 모두 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⁴⁶⁾

이상정은 여기서 시는 마땅히 冲澹閒遠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비판한 것은 아름답기만을 추구하는 穠艷華麗나, 교만하고 방탕한 矜豪跌宕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는 성정을 기르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문일치 사상에 기반한 이상정은 성리학적 용어를 시어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즐겼다. 예컨대 〈주일을 읊어 아들 완에게 보여 주다(主一吟示阿完)〉에서, “한 점의 허령함이 나의 몸을 주재하지만, 온갖 사욕 밀려들면 참된 마음 쉬 잃으리. 진중할사 하남에서 비결을 남겼으니, 모름지기 주일로써 공부 새로워야지.”⁴⁷⁾라 한 것 등이 그것이다. 도문일치의 문학적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호계서원 존도사에 배향된 이항, 류성룡, 김성일, 이상정의 문학관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도학사상에 기반하여 문학을 인식하였다. 문학이 도학의 지엽이기는 하나, 성정에 기반하여 正音을 지향하므로 문학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서는 4현 모두가 생각이 같았는데, 온유돈후(이항·류성룡)를 바탕으로, 김성일의 冲澹理到와 平鋪洪暢, 이상정의 冲澹閒遠 등의 미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46) 李象靖, 『大山集』 권43, 〈靜樂齋金公詩集序〉, “詩者, 本乎情性而發之爲詠歌, 必其冲澹閒遠, 絕去世俗之葷血然後爲貴, 彼以穠艷華麗爲尙則失之陋, 矜豪跌宕爲高則流於蕩, 皆未足以言詩矣.”

47) 李象靖, 『大山集』 권2, 〈主一吟, 示阿完〉, “虛靈一點主吾身, 衆欲交攻易喪眞. 珍重河南留旨訣, 須從主一下工新.”

도학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정은 이를 도문일치로 주장하였는데, 문과 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대적 추이에 따라 도학에 대한 문학적 봉사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IV. 호계서원의 공간 감성과 그 유형

특정 공간에 따른 정서적 반응은 한결같지 않다. 이 때문에 당연히 여러 유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자아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감성은 전형적인 것도 있고 변형 혹은 복합적인 것도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발상 위에서, 우선 그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이상’과 ‘현실’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불가능의 영역에 속하다면, 현실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가능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천성의 여부에 따라 ‘이념’과 ‘실제’로 나눌 수 있다. 이념이 실천과 무관하게 인식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실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으로 감성의 유형을 설정해 보면, 도학 감성·낭만·감성·생활·사회 감성으로 나누어진다.

존현양사의 기능을 하는 호계서원은 존도사에 배향된 이황과 두 제자를 하나의 지표로 삼고, 이들이 추구했던 바를 강학을 통해 따르고자 했다. 최근 추향된 이상정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인물이다. 이들은 성리학 적 도통관에 입각하여 문학활동을 하였으며, 이곳을 출입했던 선비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였다. 호계서원은 하나의 문학 창작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선비 작가들의 감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공간 감성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도학 감성에 대해서다. 이 감성은 현실보다 이상, 실제보다 이념이 강조될 때 나타난다. 도학은 天理 등 초경험적인 문제의식과 접속되면서 나타나는데, 자아와 사물 사이에서 감성이 작동하면서 문학성을 획득한다. 도

학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문학은 性情之正의 도구 역할을 한다고 본다. 載道主義의 문학관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다. 여기서 문학은 도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道本文末論이나 道文一致論 등의 문학관을 성립시킨다. 존도사에 배향된 인물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상정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였다. 이 때문에 도학 감성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여강서원의 강회를 마쳤다. 마침 16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어른과 젊은이 수십 명과 함께 오로봉 아래서 배를 띄웠다. 수면에는 안개가 아득한데 위아래로 물길을 거스르면서 서로 돌아보며 즐겼다. 어떤 이에게 〈赤壁賦〉를 외게 한 뒤에 이어서 삼가 주자의 〈觀書〉라는 시에 차운하였다. 대개 경물이 우연히 일치함을 취하여 강회를 부친 뜻에 흥을 의탁한 것이니, 감히 그 뜻을 엿볼 수는 없었다. 아아, 슬프다. 을유년(1765, 영조 41)

暮雨纔收月欲生	저문 비 막 그치고 달이 뜨려 하는데
飄飄衣袂御風輕	나부끼는 옷소매 바람결도 가볍구나
春江也是無今古	봄 강물은 역시 고금에 변함없는데
依舊扁舟自在行	예전처럼 작은 배는 자유로이 떠가누나 ⁴⁸⁾

1765년(영조 41) 윤 2월, 이상정은 호계서원에서 金樂行, 金翼溟, 李象辰 등과 함께 『대학』을 읽었다. 강회를 마친 후 五老峯 아래에 배를 띄우고 여러 제자들과 선유하면서 소동파의 〈赤壁賦〉를 읊게 하였다. 앞의 서문에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이상정 역시 여기서 시를 한 수 지었다. 주자의 〈觀書有感〉 가운데 두 번째 수⁴⁹⁾를 차운한 것이다. 도학시의 정수로 알려진 주자의 이 시를 차운한 것도 주목되지만, 合自然의 意象, 즉 도학 감성으로 충

48) 李象靖, 『大山集』 권3, 〈廬江講會罷, 適值既望之夕, 偕長少數十人, 泛舟五老峯下, 烟波浩渺, 汜汜上下, 相與顧而樂之. 使人誦赤壁賦, 仍謹次朱先生觀書韻, 蓋竊取景物之偶同, 而託興寓感之意, 則有不敢窺焉. 嗚呼! 欷矣! 乙酉〉

49) 朱熹, 『朱子大全』 권2, 〈觀書有感〉, “昨夜江邊春水生, 艤衝巨艦一毛輕. 向來枉費推移力, 此日中流自在行.”

만한 작위가 없는 세계를 제시하였다. 변함없는 춘강의 물결은 본성을, 거기서 떠다니는 자유로운 배는 작위가 없는 無妄의 意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둘째, 낭만 감성에 대해서다. 이 감성은 이념보다 실제, 현실보다 이상이 강조될 때 나타난다. 자아가 사물에 접근할 때 작가의 감성이 실제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할 세계인 이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한다. 이때 시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특별히 주목하고 이를 주요 시어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계서원은 낭만 감성의 주요 공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裴龍吉(1556~1609)이 류성룡에게 편지하여, “여강서원이 비록 홍수의 피해를 입었으나 溪山의 형세가 뛰어나고 변함없이 수려한데, 어느 곳에서 뛰어나게 좋은 산천을 찾으려 하는지요?”⁵⁰⁾라고 한 것에서도 지역 선비들의 호계 산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작품을 통해 호계서원의 낭만 감성을 살펴보자.

此夜疏狂不自裁	오늘 밤 호방한 마음 가누지 못하여
爲携尊酒上江臺	동이 술을 들고 강가 누대에 올랐네
一天明月供清賞	하늘의 밝은 달이 맑은 구경 제공하니
模却前山翠影來	앞산의 푸른 빛을 시속에 그려내리 ⁵¹⁾

배용길이 여강서원 양호루에서 함께 있는 벗들에게 화답한 시이다. 특히 서원의 문루인 양호루는 강학을 위주로 하는 송교당과 달리, 자신의 낭만 감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들은 술동이를 갖고 누대에 올랐고, 거기서 밝은 달과 푸른 산빛을 마음껏 감상하면서 흥취를 고양하였다. 권호문이 존도사의 향례에 참여하고 다시 양호루에 올라 여기에 걸

50) 裴龍吉, 『琴易堂集』 권3, 〈上西厓柳先生〉, “廬院雖被水患, 而溪山形勝, 依舊秀麗, 何處討得別樣好山川耶?” 여강서원이 홍수에 무너지자 한쪽에서 논의하여 병산서원에 합치려고 하였다. 이에 배용길이 류성룡에게 글을 올려 반대한 것이다. 여강서원을 철폐하여 병산서원에 합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51) 裴龍吉, 『琴易堂集』 권1, 〈養浩樓和同棲諸友〉.

려 있는 주련에 차운하면서, “강산이 붓으로 그린 그림보다 좋은데, 모래톱에 바람 불고 대에는 달이 밝네. 멋진 벗과 좋은 때 절경을 실컷 보며, 난간 앞엔 갈매기만 오게 하였네.”⁵²⁾라고 한 것 역시 낭만 감성에 의한 것이었다.

셋째, 생활 감성에 대해서다. 이 감성은 이념보다 실제, 이상보다 현실이 강조될 때 나타난다. 생활은 인간의 일상사를 말하는 것이니 구체적이며 실재적이다. 동시에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생사와 봉별의 경험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신분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과 맞물려 있으므로 현실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생활 감성은 이러한 인간의 생활 일체를 문학적 제재로 삼아 작품화할 때 작동한다. 호계서원은 선비들의 공간이다. 이 때문에 당연히 선비의 생활이 중심 소재로 등장한다. 독서와 강학, 서적 교정과 간행, 풍류와 놀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작품을 보자.

抱書留絕境	책을 들고 빼어난 경치에 머무니
樂在山水間	즐거움이 산수 사이에 있구나
思賢瞻廟貌	선현을 생각하며 사당을 바라보고
携友聽淙潺	벗의 손을 잡고 와 물소리를 듣네
至訓保席珍	지극한 가르침이 훌륭한 선비를 지켰고
豪句破天慳	호방한 시구가 비경을 드러내었네
淸遊幸襟期	맑은 유람을 하니 마음이 행복해지고
觴詠興萬般	술 마시고 시 읊으니 온갖 흥이 일어나네
逸尙固難及	빼어난 기상은 실로 도달하기 어렵지만
只覺超人寰	다만 속세 벗어난 것 깨달을 수 있겠네 ⁵³⁾

이 작품은 權好文(1532~1587)이 權宇(1552~1590)의 〈廬山高吟〉에 화운한 것의 일부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산은 월곡면의 여산촌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슭에 여강서원이 있다. 선비들은 이곳에서 독서, 유람, 존현, 작시, 음주,

52) 權好文, 『松巖續集』 권4, 〈月十七日參尊道祠享禮登養浩樓次柱上韻〉, “江山猶勝畫毫裁, 風滿長洲月滿臺. 勝友嘉辰饒絕賞, 檻前唯許白鷗來.”

53) 權好文, 『松巖集』 권4, 〈和權上舍定甫廬山高吟〉

흥취 등 다양한 일상을 하였다. ‘책을 들고 빼어난 경치에 머물다’, ‘맑은 유람을 하니 마음이 행복하다’, ‘선현을 생각하며 사당을 바라보다’, ‘호방한 시구가 비경을 드러내다’, ‘술을 마시고 시를 읊다’, ‘즐거움이 산수 사이에 있다’고 한 것 등이 모두 그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사당은 존도사이며, 현인은 이황을 지칭하니 호계서원이라는 공간에서 선비로서의 생활 감성을 적실히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권호문이 다른 작품에서 “봄을 좇아 먼 정자를 향했다고 들었는데, 끝내 한번 작별하고 동행하지 못했네.”⁵⁴⁾한 것도 봉별의 생활 감성을 드러낸 것이다.

넷째, 사회 감성에 대해서다. 이 감성은 이상보다 현실, 실제보다 이념이 강조될 때 나타난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의미하며, 마을과 국가처럼 단위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진다. 공동생활에는 상호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회 감성은 여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호계서원을 둘러싼 선비 사회는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다. 병호시비는 그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도 호계서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거나, 의병활동이라는 실행행사를 하는 데 있어도 호계서원이 선두적 위치에 있었다. 사회 감성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발생한다.

江沙如雪月添輝	강모래 눈과 같은데 달빛으로 더욱 빛나고
萬里晴空旅雁歸	만리의 맑은 하늘에 기러기가 돌아가네
倚樓長嘯星河爛	누각에 기대 길게 휘파람 부니 은하수만 찬란하고
壯氣中宵可解圍	한밤중의 장한 기상으로 회포를 풀만 하네 ⁵⁵⁾

이 시는 얼핏보아 낭만 감성에 가깝다. 그러나 1592년 5월, 임진왜란이 발

54) 權好文, 『松巖別集』 권1, 〈三月晦日, 聞城主送春廬江院樓 獨吟呈一首〉, “聞逐東君向遠亭, 終應一別未同行.”

55) 裴龍吉, 『琴易堂集』 권1, 〈廬江夜坐書懷, 壬辰五月以倡義事到院〉

발하자 배용길 등이 창의를 일로 호계서원에 모인 후 이 시를 지었다면 전혀 다르게 읽힌다. 배용길은 양호루에 올라가 길게 휘파람을 분다고 했다. 전쟁과 이로 인한 불안 등 가눌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한밤중의 장한 기상도 마찬가지이다. 왜적들의 침입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짐이 이 시어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기승 구에 제시되어 있는 여강서원의 아름다운 자연은 시인의 ‘長嘯’ 및 ‘壯氣’와 맞물리면서 독자로 하여금 더욱 비장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호계서원이 존현과 강학의 본래 기능과는 달리 ‘창의’라는 선비들의 사회적 책무, 이에 따른 감흥의 공간이 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사회 감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호계서원이 하나의 창작 공간으로 기능했던 점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현실’, ‘이념’과 ‘실제’를 기준으로, 도학·낭만·생활·사회 감성으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작품을 제시했다. 이러한 네 가지 감성은 조선 시대의 모든 선비 작가들이 문학을 창작할 때 작동시킨 것이지만, 창작 공간과 창작 시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호계서원의 경우 도학 감성이 가장 강하게, 그리고 사회 감성이 가장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원이 존현과 양사를 기반으로 하니 자연스럽게 도학 감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존도사에 이황을 모시고 있었으니, 그의 사상이 작가의 감성과 맞닿으면서 작품화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은 어렵지 않게 납득된다.

V. 맺음말

본고는 호계서원의 주요 연혁과 지역 사회에서의 위상을 드러내 논의의 기반을 다지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나아가 호계서원 尊道祠에 제향된 이황, 류성룡, 김성일, 이상정의 문학관을 살폈다. 여기에 근거하여 이 서원에 출입한 선비들의 공간 감성을 도학, 낭만, 생활, 사회 감성으로 나누어 탐구하였

다. 이는 호계서원을 하나의 문학 창작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 논의를 통해 밝혀진 감정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상적 맥락과 정서적 맥락, 그리고 행위적 맥락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출하기 위함이다. 제향 인물의 문학관과 이 서원에 출입한 선비들의 공간 감성을 함께 살핀 것은 존 현양사라는 서원의 본래 기능을 염두에 둔 결과이기도 하다.

호계서원이 병호시비의 진원지이기도 하지만, 안동 지역의 首院으로서 置廢를 거듭하면서도 지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존현의식 아래 이황이 중시했던 『심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리서를 강학하면서 이황의 문집을 교정하거나 김성일의 문집 등을 간행하는 등 안동 지역 선비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만인소를 주도하는 등 지역 사회의 공론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난의 시기에는 의병활동과 항일투쟁으로 맞서며 선비의 의기를 천하에 드러내기도 했다.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황 및 류성룡이 강조한 溫柔敦厚의 시정신을 기반으로, 冲澹理到(김성일)와 平鋪洪暢(김성일)·冲澹閒遠(이상정) 등의 문학세계를 열고자 하거나 그렇게 평가받았다. 이 같은 미의식을 지니면서도 문이 재도론에 바탕하여 未技인 문학의 기능을 적극 인정한 것에서 출발하여 후대로 갈수록 도학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도문일치로 나타난다. 도학이 문학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문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호계서원에 출입한 선비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도학·낭만·생활·사회 감성이 모두 나타나는 가운데, 도학 감성이 강세를 띄었고, 사회 감성이 가장 약화되었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였다. 이는 도학적 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호계서원에 내함되어 있는 도학의 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간 감성 가운데 도학 감성이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계서원의 존도사에 배향된 이황이 명종 말 이언적을 추송하면서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라는 동방사현으로 확정되고, 이후 1610년(광해군 2)에는 이황을 포함하여 동방오현으로 문묘에 종사된다. 류성룡과 김성일은 호계서

원에서 『퇴계집』을 교정하면서 이황을 새롭게 인식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서 김성일은 29세(1566)에 이황으로부터 〈屏銘〉 80자를 받았다. 이 글은 요순의 心法과 연원의 正脈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봉령과 이덕홍의 작품을 보자.

海外文風宋以還	나라 밖 문풍은 송나라에서 온 것이지만
淵源猶未直開關	연원은 오히려 바르게 열리지 못했었네
先生畢竟疏眞派	선생께서 마침내 참된 도맥을 여시니
功與朱門可一般	그 공은 주자 문하와 같다고 하겠네 ⁵⁶⁾

不獨河南有洛伊	하남에만 이락이 있는 게 아니고
淵源千古在於斯	천고토록 연원이 여기에도 있다네
風雲日夕雖多變	비바람은 밤낮으로 변화가 많지만
一鏡曾無外物移	하나의 거울은 외물에 변한 적이 없었네 ⁵⁷⁾

앞의 시는 구봉령이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어 서울로 올라가기 전 여강서원 존도사에 들러 이황을 배알한 후 지은 것이고, 뒤의 시는 이덕홍이 孫興禮(1548~1578)의 여강서원 시에 차운한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송나라의 성리학이 유입되었을 때 연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으나 이황이 이를 활짝 열었으니 주자의 정맥을 이었다고 할 만하고, 정호와 정이로 상징되는 도통이 여강서원으로 이어져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권호문이 “때맞추어 내리는 비와 같은 공자의 문하에 누가 교화를 입었던가, 춘풍 같은 程子の 강석에 다시 참여하기 어렵네.”⁵⁸⁾라고 한 것도 도통을 의식한 발언이다. 호계서원에서 조선 후기까지 『심경』을 중심으로 성리서를 강론하였던 것 역시 도통 문제와 닿아

56) 具鳳齡, 『栢潭集』 권2, 〈祗謁廬江尊道祠〉.

57) 李德弘, 『良齋集』 권2, 〈次孫君立廬江韻〉.

58) 權好文, 『松巖續集』 권5, 〈示廬江書院諸生, 求和裴校理〉, “時雨孔門誰得化, 春風程座更難參.”

있다. 『심경』이야말로 요순 이래의 심법을 ‘敬’을 통해 제시한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호계서원은 존현과 양사라고 하는 서원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강학, 출판, 공론 주도, 의병활동이나 항일투쟁 전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도학 감성에 비해 사회 감성이 더욱 직접적으로 작동·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예찬하는 등의 낭만 감성과 강학과 봉별 등 선비들의 일상을 노래하는 생활 감성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사회 감성 관련 작품은 희소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발언을 주목하자.

理라는 것은 ‘주재하여 동정하는 묘함’이고, 氣라는 것은 ‘자퇴하여 동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理에 의거하여 통괄적으로 말하면, 동정이라는 것은 진실로 理가 유행한 것입니다. 그 합한 것에 나아가서 분석하여 말하면 혹 동하고 혹 정하는 것은 곧 음양의 氣機가 왕래하는 것이고, 그 위에 타거나 실려서 발휘를 주장하는 妙는 곧 태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자가 여기에서 나누어 말하여 理氣와 道器의 분별을 밝힌 것입니다.⁵⁹⁾

도가와 불가가 성인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천리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육구연이 주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성인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⁶⁰⁾

앞의 자료에서 이상정은 ‘동정이라는 것은 리가 유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59) 李象靖, 『大山集』 권6, 〈答權清臺相一〉, “理者, 所主以動靜之妙也, 氣者, 所資以動靜之具也. 故據理而統言, 則動靜者, 固此理之流行也. 就其合而析言之, 則其或動或靜者, 卽陰陽氣機之往來, 而乘載其上, 主張發揮之妙, 則太極之爲也. 故朱子於此, 分而言之, 以明理氣道器之別.”

60) 柳致明, 『定齋續集』 권7, 〈讀書瑣語〉, “老佛不怕不合聖人, 可怕不合天理, 陸氏不怕不合朱子, 可怕不合聖人.”

主理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치명 역시 이상정의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金翺東의 물음에 대답한 바 있다.⁶¹⁾ 리를 하나의 활물로 본 것이다. 뒤의 자료에서 류치명은 도불의 虛無寂滅 사상이 천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陸九淵 역시 공자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關異端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상정과 류치명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주리론과 벽이단론은 이후 호계서원의 의병활동과 항일투쟁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도학 근본주의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며, 斯文의 吾道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보였던 것이다. 心卽理說을 주장했던 李震相의 제자들이 항일투쟁에 적극 가담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본고는 호계서원 제향인물의 문학과 공간이 이 서원을 출입했던 선비들과 어떻게 접촉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 사회의 위상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 것이다. 여기서 시종 강조되었던 것이 요순 이래의 도통이다. 호계서원의 선비들은 이러한 도맥이 이황을 통해 류성룡과 김성일을 거쳐 이상정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졌다. 문학 작품에 도학 감성이 주로 작동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것이 주리론과 벽이단 사상과 결부되면서 도학 근본주의를 형성하고, 척사운동과 항일투쟁이라는 강력한 행동주의로 나타나기도 했다. 즉 도학 감성이 강조될수록 사회 감성이 실천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다.

61) 柳致明, 『定齋集』 권6, 〈答金子翼問目〉, “理者, 所主以動靜之妙也, 氣者, 所資以動靜之具也. 故, 動靜字, 於理於氣, 皆可用. 然, 謂動靜裏面, 兼理氣則恐未然.”

【참고문헌】

1. 원전

具鳳齡, 『栢潭集』
權好文, 『松巖續集』
權好文, 『松巖集』
金 垚, 『溪巖日錄』
金誠一, 『鶴峯續集』
金誠一, 『鶴峯逸稿』
柳成龍, 『西厓集』
柳致明, 『定齋續集』
柳致明, 『定齋集』
李光庭, 『訥隱集』
李德弘, 『艮齋集』
李晚燾, 『響山集』
李象靖, 『大山集』
李 珥, 『栗谷集』
李 滉, 『退溪集』
裨龍吉, 『琴易堂集』
張顯光, 『旅軒集』
鄭經世, 『愚伏集』
鄭 述, 『心經發揮』
鄭 述, 『寒岡集』
趙 綱, 『龍洲遺稿』
朱 熹, 『朱子大全』
『湖學輯成』

2. 논저

강운정,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김소희,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서적의 생산과 보급」,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虎溪書院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학활동」, 『儒學研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 김자운·이우진, 「1765년 虎溪書院『大學』강회 연구(1)」,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김지은, 「19세기 定齋 柳致明의 현실인식과 경세론」, 경북대학교 교육학박사논문, 2017.
- 김지은, 「19세기 후반 국내의 정세변화와 호계서원의 대응」,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17세기 초반의 묘향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2): 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 2012.
- 우인수, 「경상도 안동 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 이 욱,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 노력」,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 정우락,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영남학』 7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 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 증대홍, 정우락 외 역, 『문학지리학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22.
-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 교육사학회, 2012.
- 「400년 병호시비 마침표...호계서원 복설로 영남유림 '대통합」, 경북신문, 2020년 11월 22일자.
- 「호계서원發 유림간 끝없는 갈등... 춘계향사 강행에 예안유림 '주벽없는 향사는 후안무치」, 안동인터넷뉴스, 2024년 9월 5일자.

Abstract

A study of the literary and spatial sensibilities of the figures memorialized at Hogle Seowon(虎溪書院)

Jeong, Woo-lak*

This discussion considers Hogle Seowon as a creative space and examines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sensibility the artists who entered and worked in this space had. To do so, I utilized the theory of spatial sensibility. If emotion is a series of emotions that occur when the lyrical self comes into contact with external objects, this emotion is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the artist's intellectual and emotional situation with the realistic situation of objects. The spatial sensibility is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sensibilities: Dohak(道學), romantic, life, and social. This paper examines how it operates in the Hogle Seowon and how it is literaryiz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iterary views of Yi Huang, Ryu Sung-ryong, Kim Sung-il, and Lee Sang-jeong, who were enshrined in the Jondosa(尊道祠) of Hogle Seowon. As a result, based on the poetical spirit of On You Don-hu(溫柔敦厚) by Yi Huang and Ryu Sung-ryong, the literary world of Chungdam Yido(冲澹理到, Kim Sung-il), Pyeongpo Hongchang(平鋪洪暢, Kim Sung-il), and Chungdam Hanwon(冲澹閑遠, Lee Sang-jeong) was opened or evaluated as such. Although they had this aesthetic, they actively acknowledged the function of literature as a terminal art based on the theory of munyi jadodo, and it seems that the later generations emphasized taoism more and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jwl0412@knu.ac.kr

more. This also implies a hardening of the discipline.

The Dotong(道統) lineage since Yosun was emphasized in Hogle Seowon. The masters of Hogle Seowon had the idea that this lineage led from Yi Huang through Ryu Sung-ryong and Kim Sung-il to Lee Sang-jeong. This is also the reason why literary works were mainly characterized by Dohak se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this, coupled with the ideas of Juri theory[主理論] and Ideas that defeat heresy, formed the fundamentalism of Dohak and manifested itself in the powerful activism of the Chucksamovement[斥邪運動] and the anti-Japanese struggle. In other words, the more Dohak sensibilities were emphasized, the more social sensibilities could be put into practice.

Key word : Hogle Seowon(虎溪書院), Literature, Spatial sensibility, Dohak sensibility, Romantic sensibility, Social sensibility, Life sensibility, Dotong(道統)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호계서원과 경세

—국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 재 훈*

- I. 머리말
- II. 서원의 변화와 국가와의 관계
- III. 호계서원과 경세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안동 지역에서 설립된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이 가진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서원은 본래 선현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국가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호계서원은 이항, 류성룡, 김성일 등 당대 주요 학자들을 제향하며 안동 지역의 학문적 중심지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향촌 사회와 국가 간의 공론 수합 및 학문 전파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계서원의 설립과정, 관과의 관계, 교육활동, 공론 형성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서원의 경제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서원이 단순히 학문과 교육의 장을 넘어 향촌사회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국가 통치 체제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기구로 자리 잡았음을 논의하였다. 호계서원의 사례는 조선시대 서원의 사회적 역할과 관과 민이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주제어 : 조선시대, 서원, 호계서원, 경세, 공론장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jinsojung@knu.ac.kr

I. 머리말

경세(經世)는 본질적으로 유학의 이상을 반영하며, 세상을 경영하는 유학의 지향을 의미한다. 유학은 불교나 도교와는 달리 현실에 참여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곧 현실을 움직이는 국가 권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유학의 발전과정에서 유학이 국가의 교학이 되면서 교육은 중요한 영역이었다. 대체로 官學 위주의 교육이 일반적으로 우선되었으나 중국에서 교육 기관으로 등장한 서원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서 私設의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교육의 기구였다. 따라서 서원은 그 출발과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 혹은 국가권력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서원의 출발과 발전과정에서 經世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아가서 국가 혹은 국가 권력에 대한 입장, 혹은 관련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원은 본질적으로 제사와 교육의 두 기능이 주축을 이루므로 경세적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서원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현 봉사와 교육을 위주로 한 서원에서 경세에 관련된 경세론을 제시하거나, 경세에 관한 토론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러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서원이 순수하게 교육에만 종사하는 기구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 자체가 당대 존경받는 성리학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대체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당시 사회와 국가의 경영, 즉 경세에 관여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경세론이 서원의 경세와 연관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퇴계 이황과 같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보다는 향촌 사회에서 교육에 종사하거나 향중 공론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역시 경세의

관점에서 연관하여 살필 수 있다.¹⁾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류성룡과 같이 적극적으로 국가운영에 참여한 인물이 서원에 배향된 사실은 서원이 가지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의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제사 기능과 관련하여 서원에 모셔진 인물의 위치에 관련된 논쟁 역시 경제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다음으로 서원의 교육기능 역시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원은 본래는 관학에 비해 과거 준비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인격완성을 추구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의 도학을 강론하고 이를 익히며 실천하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중시하였던 것이 서원의 중요한 특성이었다. 그렇기에 과거 시험에 참여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서원이 출현한 이래 과거시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점은 호계서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마지막으로 서원에서 일어나는 공론의 취합 기능 역시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서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호계서원에서 경제의 측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Ⅱ. 서원의 변화와 국가와의 관계

조선에서 서원은 16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周世鵬(1495~1554)과 그 지방 사람이 주동이 되어 安珦을 제향하는 白雲洞書院을 건립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러한 서원의 등장은 鄕校라는 관학에

1) 정재훈, 「이황의 사상과 사회적 실천」, 『조선사연구』 27, 조선사연구회, 2018.

대해 私學으로서 민간에 의한 교육기구로서 그 의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서원은 그 유래가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이해된다. 8세기 초 중국 사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기관이 등장하였는데, 書院이라는 명칭의 사실 교육 기관이 그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서원이 출현할 때는 원래 관학인 州縣學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민간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서원의 운영이나 교육 형식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원은 唐末 五代의 혼란기를 거치며 점차 증가하다가 남송 때에는 주현학을 능가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성격은 宋代라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즉 송대에 理學이 발흥하여 이것을 소재로 강학하는 활동의 새로운 교육 형식이 등장하였기에 이것과 연결되었다고 본 것이다. 북송에서의 서원은 교육과 교학 기능이 강화되면서 관학의 대체 역할을 하였다. 북송의 여러 큰 서원은 건립 초부터 賜額·賜書·賜田 등에서 관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²⁾

그에 비해 남송 시기의 서원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와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장식, 주희, 여조겸, 육구연과 관련된 남송의 四大書院(악록서원·백록동서원·이택서원·상산서원)의 번영은리학의 발달에 따른 서원의 진흥이 가져온 결과였다. 특히 주희가 남강군지사를 지내면서 백록동서원을 중수하고, 〈백록동서원게시〉를 제정하고,리학의 입장에서 새로운 교육이념을 제시한 것은 이후 서원제도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³⁾ 새로운 교육의 이념에 따라 서원제도가 정비되고, 학문의 연구, 교학과 전파, 장서, 제향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송대의 서원에서는 그 운영에서 반드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民營)의 방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관영(官營) 혹은 관민이 함께 운영하는 관민 합영(合營)의 사례도 있다. 관영의 경우 통상 주현관(州縣官)이 건립을 주

2) 丁淳睦, 『中國書院制度』, 문음사, 1990, 51쪽.

3) 邓洪波·赵伟, 「白鹿洞书院的建立背景与中国书院的变化—宋元明清」, 『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0, 256~262쪽.

도하고 재원도 관아에서 제공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이 주도하되 민간에서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영 서원은 대부분 주현의 읍성에 건립되었으며 대부분 주현학 내부에 위치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고 각종 시설을 구비하였다.⁴⁾ 이러한 형태의 관영 서원은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이다.

관민의 합영 방식으로 운영된 서원은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민간에서 세우고 관에서 일정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 처음에는 민영이었다가 후에 지방관의 후원으로 인해 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 기본적으로 민영이지만 관학에 교원을 요청하여 교원이 운영을 주관하는 형태 등이 있었다.⁵⁾

하지만 송대의 서원은 대체로 민립 혹은 민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⁶⁾ 또 兩浙 지방의 경우 대부분 민영의 형태가 많았으며, 이들 서원은 성읍 바깥에 세워졌다. 사대부나 부호, 종족, 邑人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세웠으며, 명망이 있는 학자가 세운 서원은 많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 사방에서 독서인이 모여서 학술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⁷⁾

이러한 송대의 서원 운영 형태는 기본적으로 민영이 많은 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관민이 합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경우 조선의 서원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주세붕이 세운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의 경우에도 주세붕이 풍기군수로서 참여하여 사람들과 함께 세웠다. 또한 院規에서도 초기 서원에 들어오는 자격으로 初試와 같은 과거 합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서, 서원을 과거 준비와 국가에 필요한 관리를 양성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조선의 서원 역시 초기에 관민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항이 적극적인

4) 李瑾明, 「12세기 兩浙 일대의 書院과 讀書人」, 『中國史研究』 119, 중국사연구회, 2019, 36쪽.

5) 李瑾明, 앞의 논문, 2019, 36~37쪽.

6) 丁淳睦, 앞의 책, 1990, 51쪽.

7) 李瑾明, 앞의 논문, 2019, 37쪽.

8) 이경동, 「16세기~17세기 초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구조와 변화」, 『중앙사론』 55, 2022, 13쪽.

으로 개입한 이산서원부터 수령을 포함한 관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도하 위주로 서원을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원대에는 과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성리학이 정통의 학설 자리를 차지하였다. 주희 또한 각 지방에서 널리 모시게 되는 제향 인물이 되었다. 원대에는 서원과 성리학이 북방지역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남북의 문화 차이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대 서원은 성리학과 일체화됨으로써 서원이 관학과 동일시되었다.⁹⁾

원대 서원의 관학화 현상과 관련해서 서원의 원장을 山長이라 불렀는데 곧 學官으로서 서원과 학교가 각급 관부의 통제 아래 있는 데서 확인된다. 또 서원에서 표면적으로는 리학을 공부한다고 표방하였지만, 학습내용은 주희의 『四書集註』만을 힘써 공부할 뿐이었다. 강학의 자유로운 학풍은 사라지고, 과거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의미만이 있을 뿐이었다.¹⁰⁾

명나라에서는 초기에 정주학이 정통의 지위에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주원장의 서원혁과 정책과 관학 지원책으로 인해 긴 침체기에 들었다. 원나라 말기에 전란 때문에 피해를 당하였던 백록동서원과 악록서원 등은 장기간 복귀되지 못하였다가 명 중기에 들어 재건되었다. 관학 교육의 폐단이 일어남에 따라 서원의 설립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¹¹⁾

그러나 명대에서 서원의 건립은 대개 관에서 세운 관립 서원이 민립 서원을 압도하였으며, 서원의 복설에서도 관변이 민변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서원이 점차 관변서원으로 대체되었던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었다. 여기에는 명의 국초부터 이전 원나라의 과거 중시 정책을 계승하고, 학교와 과거를 합쳐서, 학교 출신이 아닌 자는 과거고시에 응하지 못했던 정책적 측면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¹²⁾

9) 邓洪波·赵伟, 앞의 논문, 2020, 262~264쪽.

10) 丁淳睦, 앞의 책, 1990, 53쪽.

11) 邓洪波·赵伟, 앞의 논문, 2020, 264~266쪽.

12) 丁淳睦, 앞의 책, 1990, 54~60쪽.

원대에서 명대까지 이루어진 서원의 관학화 현상은 조선 전기에 왜 서원이 등장하지 못했었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조선 역시 건국 이후 관학을 재정비하여 강화하였던 분위기가 있었다. 조선 건국에서 다방면으로 설계자의 역할을 하였던 정도전 역시 향교와 같은 관학을 강화하고 여기에서부터 교육체제를 상향으로 조정하면서 학교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들을 평가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양성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³⁾ 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 관리의 선발이 이루어지므로 굳이 서원이 필요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의 이러한 흐름에서 초기 서원의 건립은 백운동서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민간이 중심이 된 것은 아니었다. 주세붕이 세운 서원은 안향을 제향하려고 건립한 文成公廟에 부속된 건물로서의 서원에 불과하였다.¹⁴⁾ 따라서 유생이 모여서 과거시험 공부를 하는 학습장소로서 官學의 보조기구였으므로 관민 합영에 가까웠다. 그에 비해 관학의 대체재로서 본래 학문으로서의 도학을 밝히고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서원은 이황에 의해 제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황은 교화를 위해 설치한 학교, 즉 군현의 향교가 허울뿐이고, 교육이 무너져서 선비들이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그 폐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는 오직 서원에서의 교육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쳐지고, 배우는 자들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보아서, 사풍이 바뀌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며, 덕치가 행해질 것으로 보았다.¹⁵⁾

이황의 書院觀은 교육과 관료선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함을 제기한 것이다. 이황이 대안으로 제시한 바, 도시의 가운데 있는 국학, 향교 대신 한적한 전원에 위치한 서원, 學舍이나 利祿에 이끌리는 대신 도학을 강

13) 鄭道傳, 『三峯集』 권7, 「朝鮮經國典 上」, 「治典-入官」.

14) 鄭萬祚,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15) 李滉, 『退溪全書』 권9, 「書」, 「上沈方伯」.

습하고 의리를 익히는 장소로서의 서원을 사례로 들은 것은 관학·관료 위주의 지배 질서를 거부하고, 향촌의 사람이 위주가 되어 공론으로 만드는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대부들이 국가와 독립된 자율적이고 공적인 영역을 조직적으로 만들려는 운동이었으며, 이의 기반으로서 도학, 곧 성리학이 강조되는 것이었다.¹⁶⁾

서원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의 전환은 이황이 풍기군수에 임명되어 자신의 문인으로 백운동서원의 운영권을 장악하게 하여 주변에서 사림의 학문적 근거지로 삼게 만들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이황은 이어 국가의 賜額을 통해 공인을 받아 나라 안에 그 존재를 알리고, 迎逢·伊山·研經·易東 등 10여 곳의 서원 건립에 참여하면서 그 보급에 주력하였다.¹⁷⁾

이황의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주희의 문제의식에 연결되어 있다. 주희는 남송대 이후 더욱 뚜렷해지는 지역에 기반한 엘리트인 사대부층의 사회참여 의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었다. 관직 없이 평생을 지역에서 보내야 하는 사대부들이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지위와 체모를 유지하면서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고, 또 중앙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원이나 향약, 사창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주희의 구상은 상대적으로 국가와 제도 혹은 관료 중심으로 사회가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에 대해 사대부 네트워크의 공론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송에서 주희의 사후 주자학의 전파과정이나 관학화되는 과정은 주로 주희의 제자들이 지방관으로 나가 주자학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¹⁸⁾

16) 주자학과 지역사회대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민병희, 「주희(朱熹)의 “대학(大學)”과 사대부(士大夫)의 사회·정치적 권력: 제도(制度)에서 심(心)의 “학(學)”으로」, 『중국사연구』 55, 중국사연구회, 2008, 78쪽 주3) 참조.

17) 鄭萬祚, 「退溪學派의 書院(教育)論」, 『南溪學研究』 9, 1999, 188쪽.

Ⅲ. 호계서원과 경세

안동에서 최초로 세워진 호계서원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황과 그의 제자인 류성룡, 김성일을 모신 사액서원으로서 안동을 대표하는 서원이다.¹⁹⁾ 안동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인 만큼 호계서원의 설립과 운영과 정, 그리고 호계서원의 지향 등은 경세의 관점에서 보면 안동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현에 대해 奉祀와 강학을 위한 敎學의 두 가치를 주기능으로 삼고 있는 서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서원의 설립과 운영에 이미 지역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방관을 비롯한 관도 개입하였고, 그 운영에도 일정하게 관여하였으므로 온전히 순수한 교육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존현의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해서는 도학의 관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세에 참여한 여부 역시 중요한 선정의 기준으로 참고되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서원에서의 공론이 취합되는 것 역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향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로 적용되었던 점에서 서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경세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호계서원의 설립과정, 강학의 변화, 제향 인물을 둘러싼 논란, 공론의 제기 등을 검토함으로써 경세적 관점에서 호계서원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자.

우선 호계서원의 설립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호계서원 설립의 계기는 1573년 류성룡과 김성일이 여강 일대가 이황이 어렸을 때 독서처였다는 명분으로 창건을 주장하여, 金彦璣(1520~1588)를 洞主

18) 이범학, 「남송 후기 이학의 보급과 관학화의 배경－이학계 인사들의 정치, 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19) 호계서원이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명칭은 여강서원(廬江書院)이지만 이 글에서는 후대에 명칭인 호계서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로 삼아 白蓮寺를 훼손하고 서원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²⁰⁾ 그리고 직접 안동부사인 權文海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²¹⁾ 그 결과 권문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 1575년에 완성된 서원의 건물은 사당인 尊道祠 6칸, 神門 3칸, 神廚 5칸, 강당인 崇教堂 15칸, 東齋인 求仁齋 4칸, 西齋인 明義齋 4칸, 대문인 進學門 1칸, 童蒙齋 15칸, 有司房 5칸, 齋廚 10칸, 寶上庫 15칸 등 모두 83칸이다.²²⁾

또 진학문 밖에 있던 養浩樓 10칸까지 포함하면 모두 93칸으로 거의 100칸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이러한 규모는 안동향교가 많아야 70~80칸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관학이었던 향교를 능가하는 큰 규모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송대에 민간에서 세워진 서원이 소규모로서 장서도 빈약하고 學田이 거의 없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 오히려 관의 지원을 받았고, 그 규모로 보았을 때는 송대 官營 혹은 관민 合營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창건할 때 풍기군수로서 역할을 한 점이 주목된다. 즉 주세붕은 자신이 풍기군수를 맡게 된 이후 文成公廟를 세워 영정을 모셨고, 祠廟가 있으면 서원이 없을 수 없기에 세운다고 그 동기를 밝혔던 것이다.²³⁾ 이는 서원을 사묘의 부속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역할의 하나로서 서원을 세운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묘와 서원의 건립에 소용된 비용은 당시 경상감사였던 林百齡이 지급한 魚鹽에서 마련하였고, 후임 감사였던 이언적의 도움도 받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세붕은 자주 서원에 와서 유생들과 經義를 강론하여 교학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백운동서원의 사례는 호계서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20) 『廬江志』 권1, 「入院事實」.

21) 『惟一齋先生實記』 권2, 「遺事」.

22) 『永嘉誌』 권4, 「書院」〈廬江書院〉.

23) 鄭萬祚,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28쪽.

이황은 관학의 보조기구로서의 성격이 짙었던 백운동서원 대신에 이산서원이나 영봉서원 등 10여 곳의 서원건립에 참여하면서 서원의 조직과 운영에서 講學과 藏修를 강조하는 등 서원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호계서원은 건립과정부터 관과의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권문해는 1573년 안동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이황의 문인이었다. 그는 부임한 이후 동문의 인사들과 함께 건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였고, 그해 8월에 김성일, 김복일, 김언기와 함께 모여서 현지에서 공사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에 힘입어서 다음해 5월 경에 廟宇와 동서재, 강당 등이 건립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鄉人’, 즉 지역인들에 의해 조달되었다.²⁴⁾

다만 관의 도움 역시 필요하였다. 권문해 이전에 있던 안동부사에게도 서원 건립의 당위성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언기는 기존의 학교가 읍성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 學舍에 제한을 받고, 다른 여러 가지 사물에 정신이 혼란되어 차분하게 공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대부가 서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재를 얻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 서원을 짓는 것이 한 고을의 기구만이 아니라 나라의 공공의 학교[公共之學]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⁵⁾

이러한 언급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이 된다. 우선 서원이 기존의 국학, 곧 읍성에 위치한 향교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의 적극적인 협력,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도움이나 인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원래 서원의 건립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사림의 공론에 따르는 것

24) 『廬江志』 권1, 〈上府伯權草潤－文海－書(金惟一齋－彦璣)〉, “乃就廬山之下·洛江之涯, 以相厥位, 鳩財命工. 凡供費之需, 力役之事, 大概專出於鄉人, 而官又助之. 上季秋七月始役, 今季夏五月功訖.”

25) 『廬江志』 권1, 〈上府伯權草潤－文海－書(金惟一齋－彦璣)〉.

이 원칙이었다. 예를 들어 공론을 거치지 않고 후손들에 의해 임의로 설립되는 것은 서원 건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張顯光의 주장은 비록 후손들에 의한 서원의 남설을 염려하기 위해서 나온 의견이기는 하지만, 서원의 관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전제 위에서 나온 것이었다.²⁶⁾ 그래서 아예 장현광은 “서원은 애당초 國典과 國學의 떳떳한 사례가 아니고 바로 후세에 科外로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위에서 서원 경영의 핵심을 “번거로움을 버리고 간략함을 힘쓰며 文을 버리고 質을 숭상하며 풍부함을 버리고 담박함”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²⁷⁾

따라서 호계서원은 건립부터 민간의 사람이 주도하는 형태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교육의 방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호계서원이 향교의 대항재로서 대척점에서 위치지워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안동향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운영된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면 안동향교의 堂長인 金守一은 김성일의 중형으로서 1576년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호계서원의 두 번째 원장을 맡았던 權好文(1532~1587)의 경우 1576년 8월 여강서원의 동주가 되어 1583년까지 동주를 역임하였다.²⁸⁾ 이때 권호문은 1577년과 1579년 가을에 안동부사 徐益의 요청으로 안동향교의 유생 考講에서 試官을 맡았다. 고강을 마친 뒤에 지은 시를 보면 고강에서 낙강자가 한 명도 없음을 치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향교에 배우러 오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피폐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크게 변화한 것이었다.²⁹⁾

26) 『旅軒集』 권7, 「雜著」〈書院說〉

27) 『旅軒集』 권7, 「雜著」〈書院說〉, “且書院, 初非邦典國學之常例. 乃是後世科外別設之所焉, 則凡其規畫之要, 持受之道, 必須舍煩而用簡, 除文而尚質, 去豐而取淡, 然後得以宜穩於事理.”

28)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儒學研究』 55,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1, 96~97쪽.

29) 김자운, 앞의 논문, 2021, 97쪽.

호계서원의 원장이 향교 교육에도 직접적으로 간여하였던 현상은 서원이 향교와 대립하여 향교를 대체하겠다는 의식보다는, 지역의 인재, 나아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관학으로서의 향교와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권호문은 안동향교의 운영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리고 안동부사 역시 조선후기에 호계서원의 강학이나 서원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여러 지원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金宇顥과 鄭述가 안동부사로 재직하던 1589년(선조 22)과 1607년(선조 40)에 각각 안동부 소속의 官婢를 서원에 移屬시킨 경우도 있었다.³⁰⁾ 1605년 호계서원이 홍수로 인해 유실되자, 안동부사로 부임한 류성룡의 문인인 金玢은 경상감사에게 재난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또 자신의 녹봉까지 기부하여 다음해 중건하는 데에 힘을 보탰다. 1718년(숙종44) 안동부사 權以鎭은 李裁가 주관하는 강회에 참석하여 강론을 하였다.

1730년대 초에 경상감사인 趙顯命은 勸學節目을 반포하고, 시행할 때 안동향교와 함께 호계서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점은 서원과 향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6세기에 이황의 적극적인 서원 전과 활동 때문에 국학인 향교 대신에 서원이 향촌의 교학체계를 대체하여 주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현명이 제시한 흥학책에는 기본적으로 관학 중심으로 교학체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방관의 주도하에 이전까지 부실하였던 향교를 재정비하고 서원은 향교의 하위에 위치하여 읍(향교)-면(서원)의 체제로 개편하려고 한 것이다. 이전까지 향촌에 대한 교학이라는 측면에서 서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바뀌어 이제 서원은 관학의 보조기구로서 위치지워지게 된 것으로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³¹⁾

30) 『承政院日記』, 252책, 숙종 2년 3월 11일.

31) 鄭萬祚, 「朝鮮後期の 鄉村教學振興論成에 대한 檢討-地方官의 興學策을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1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8, 131~133쪽.

이러한 현상은 비단 호계서원과 향교 사이에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8도에 모두 시행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교학체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³²⁾ 도(道, 낙육제)-읍(邑, 향교)-면(面, 서원·서당)으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서원의 위상은 이전과는 달리 관학의 교학체계 속에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호계서원의 강학활동에서도 과거 공부에 대한 학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점은 특징적이다. 南致利(1543~1580)가 지은 초기 호계서원의 원규에서는 “諸史子集과 詞章科擧의 학업도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널리 힘쓰고 두루 통해야 한다. (중략) 다른 齋에 헛되어 들러서 쓸데없이 담소하고 시간을 보내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과 과업을 황폐하게 해서는 안 된다.”³³⁾라고 하여서 학문을 닦는 것 못지않게 과거를 대비한 학습도 서원에서의 학습에 중요한 동기임을 알 수 있다.

또 호계서원에서는 과거시험을 대비하고자 居接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1698년 15세였던 金聖鐸(1684~1747)은 거접에 참여하여 과거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였고, 전례에 따라 수일 동안 거접하였다고 하므로 이전에도 이러한 형태의 거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까지 호계서원에서는 과거시험에 대비하는 거접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³⁴⁾

다만 18~19세기에는 호계서원에서 강학 활동이 활발해졌다. 산림 학자들에 의해 강회가 주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관의 권학활동과도 연관되었던 점도 특징적이다. 1731년 호계서원에서 李櫟이 훈장을 맡아 강회를 열고 『서명』과 『태극도설』을 강론한 것은 당시 경상감사였던 조현명의 흥학책 및 권학절목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 1856년 호계서원에서의 강회 역시 당시

32) 『영조실록』 권 32, 영조 8년 9월 21일(을사), “임금이 대사성 서종옥(徐宗玉)의 말로 인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영남(嶺南)의 도신(道臣)이 올린 학규(學規)를 강정(講定)하여 태학(太學)으로 보내고 제도(諸道)에 반포하게 하였다.”

33) 『永嘉誌』 권4, 「書院」.

34) 김자운, 앞의 논문, 2021, 105쪽.

경상감사였던 신석우의 홍학책에 부응하여서 柳致明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³⁵⁾

그런데 조현명의 홍학책에 참여하였던 인물인 이만, 김성탁, 李光庭 등은 모두 李玄逸의 문인들이면서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호계서원만이 아니라 향교에서도 강학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호계서원과 향교의 관련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편 호계서원에서 공론을 취합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효종 대에 서인에 의해 추진된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의 文廟從祀 문제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 인조 때에 최초로 시도된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 주장은 집권 서인세력들의 학통을 정당화하면서 집권명분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³⁶⁾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현되지는 않았었다.

효종 대에 다시 추진된 문묘종사 논의에 대해 영남에서는 柳稷을 소두로 하여 950여 명이 승무반대소를 제기하였다. 이어 찬성하는 상소가 올라오는 논란이 거듭되었는데, 유적이 올린 상소는 바로 여강서원을 중심으로 공론이 모여서 작성된 것이었다. 안동의 사람들은 여강서원에 모여서 도내의 서원과 향교에 통문을 보내고 모임을 열어 상소문을 작성하고 疏首를 선정하는 등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강서원이 근거지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주도한 이들은 주로 김성일 계열의 인물들이었다.³⁷⁾

갑술환국(1694) 이후에 안동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인 김상헌서원의 건립 문제에 호계서원의 인사들이 다수 관여되었다. 경상도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던 노론 세력은 영남 남인의 핵심지역이었던 안동에 거점을 만들기

35)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62~63쪽.

36) 설석규, 「조선시대(朝鮮時代) 유생(儒生)의 문묘종사(文廟從祀) 운동(運動)과 성격」, 『조선사연구』 5, 조선사연구회, 157-162쪽.

37)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참조.

위한 목적으로 김상헌을 배향하는 서원을 건립하고자 하였다.³⁸⁾

김상헌의 서원인 鶴東書院의 건립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나는 가운데 서원의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특히 이현일과 정희량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서원 건립의 반대를 주도하였던 안동향교측이 호계서원 관련 인사들에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호계서원의 주도세력은 이황의 문인들로서 이들은 안동향교의 주도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이후 호계서원의 주도권이 학봉-갈암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론측에서는 호계서원 관련 인사들이 안동의 공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⁹⁾

영조는 노론의 의도가 김상헌서원을 건립하여 영남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실현될 경우 노론의 독주와 당쟁의 격화를 염려하여 건립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학동서원의 건립시도는 ‘무신란과 같은 逆亂이 안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부 노론계 사족들이 참여하였지만, 建院을 주도한 것은 안동부사 어유룡과 경상도 관찰사 유척기였다. 학동서원의 훼손사건은 이후 주동자인 김경헌과 류정화가 유배되고, 서원 건립을 강행한 감사 유척기와 안동부사 어유룡이 파직되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영남의 동향에 주목하였던 영조로서 양쪽을 적절한 선에서 다스리는 미봉책으로 대응한 것이다.⁴⁰⁾

이후 노론은 안동향교와 호계서원을 직접적으로 장악하고자 무신란과 관련된 권덕수 등 3인의 이름을 鄉案에서 삭제하였다. 정국을 장악한 노론의

38) 정만조, 「英祖 14년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韓國學研究』 1, 1982(『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재수록).

39) 이욱,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 노력」,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24-25쪽.

40) 김형수, 「1738년(영조 14년) 安東 鶴東서원의 置廢와 지방관의 역할-『法城日記』를 중심으로-」, 『영남학』 17,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0 ; 이재현, 「18~19세기 安東圈 南人系의 정치적 동향 연구」,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56~60쪽.

공세가 본격화된 것이었는데, 남인들의 반발도 소용이 없었다.⁴¹⁾ 권덕수 등이 다시 향안에 입록하게 된 것은 1748년(영조 24) 이보혁이 안동부사로 있을 때였다. 한편 1740년부터 1742년까지 호계서원의 원장을 안동부사가 겸직하는 조치도 있었다.⁴²⁾ 이는 호계서원이 단순한 교육기구가 아니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 안동 남인들의 공론을 담보하였던 호계서원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호계서원은 이황을 모시는 안동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이면서 首서원으로 기능하였다. 선현 봉사와 교육을 위주로 하는 서원에서는 경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대응하는 면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서원 역시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사람의 역사적 진출과 함께 등장하였으므로 사회적 역할에 관해 경세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면이 적지 않다.

서원의 출현은 중국에서도 그러했지만, 관학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관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송의 서원이 민간의 사대부들이 주체가 되어 건립되고, 운영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관과의 연관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관에서 서원을 운영하는 관영 서원도 존재한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

조선에서 서원의 출현 역시 이와 비슷한 면이 있었다. 호계서원의 경우 류성룡과 김성일이 발의하여 김언기가 동주로 참여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동부사였던 권문해의 도움을 받았다. 이것은 종래 서원이 관학의

41) 이육, 앞의 논문, 2023, 25~26쪽.

42) 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24쪽.

대체를 추구하며 사람의 자율성을 담보로 서원을 운영해 나간다는 이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물론 호계서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김언기나 동주였던 권호문 등은 모두 퇴계의 문인이며, 이를 도왔던 안동부사 권문해 역시 퇴계의 문인이었다. 따라서 권문해의 도움을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김우옹이나 정구가 안동부사로 재직하며 관비를 서원으로 이속시킨 사례나 안동부사 김륵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호계서원을 지원한 일, 안동부사 권이진이 강회에 참석하여 강론한 사실 등은 퇴계문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관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심지어 영조 때에 경상감사 조현명은 아예 호계서원을 안동향교의 하위 교학체계의 기구로 만드는 권학절목을 만들기도 하였다.

호계서원에서의 교육 활동 역시 과거시험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학문을 닦는 것 못지않게 과거를 위한 학습도 중시하였고, 시험을 대비한 거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18~19세기에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에서도 산림 학자들에 의한 강회도 있었지만, 지방관의 권학활동과도 연관되는 점이 있었다. 호계서원의 강회가 경상감사의 홍학책에 부응한 것이거나 호계서원의 원장들이 향교의 강학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대사회적인 발언을 위해 공론을 모으는 사례도 적지않게 있었다. 인조 대에 이어 효종대에 다시 추진된 성혼과 이이의 문묘종사 주장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에서 호계서원은 중심에 있었다. 김상헌을 봉사하기 위한 서원인 학동서원의 건립을 막은 핵심 인사들도 호계서원에 연관되었다. 안동 남인들의 공론을 담보하였던 호계서원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와 같이 호계서원의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 교육활동, 공론의 수합처로의 기능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는 관과의 연관성은 호계서원의 중요한 면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징이 안동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인지, 아니면 조선의 서원이 가지는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三峯集』, 『廬江志』, 『承政院日記』, 『旅軒集』, 『永嘉誌』, 『英祖實錄』, 『惟一齋先生實記』, 『退溪全書』

2. 논저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儒學研究』 55,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1.

김형수, 「1738년(영조 14년) 安東 鶴東서원의 置廢와 지방관의 역할-『法城日記』를 중심으로-」, 『영남학』 17,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0.

민병희, 「주희(朱熹)의 “대학(大學)”과 사대부(士大夫)의 사회, 정치적 권력: 제도(制度)에서 심(心)의 “학(學)”으로」, 『중국사연구』 55, 중국사연구회, 2008.

설석규, 「조선시대(朝鮮時代) 유생(儒生)의 문묘종사(文廟從祀) 운동(運動)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5, 조선사연구회, 2008.

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회』 15, 한국서원학회, 2022.

이경동, 「16세기~17세기 초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구조와 변화」, 『중양사론』 55, 2022.

李瑾明, 「12세기 兩浙 일대의 書院과 讀書人」, 『中國史研究』 119, 중국사연구회, 2019.

이범학, 「남송 후기 이학의 보급과 관학화의 배경-이학계 인사들의 정치, 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4.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이재현, 「18~19세기 安東圈 南人系의 정치적 동향 연구」,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정만조, 「英祖 14년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韓國學研究』 1, 1982.

鄭萬祚, 「朝鮮後期の 鄉村敎學振興論成에 대한 檢討-地方官의 興學策을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1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8.

鄭萬祚,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鄭萬祚, 「退溪學派의 書院(敎育)論」, 『南溟學研究』 9, 1999.

丁淳睦, 『中國書院制度』, 문음사, 1990.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邓洪波·赵伟, 「白鹿洞书院的建立背景与中国书院的变化－宋元明清」,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0.

Abstract

Hogye Seowon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Governance (Gyeongse) in the Joseon Dynasty

Jung, Jaeho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oles (gyeongse, 經世) of Joseon Dynasty academies (seowon, 書院) with a focus on Hogye Seowon, established in the Andong region. Originally founded for the purposes of honoring Confucian sages and providing education, seowon assumed broader roles in governance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communities. Hogye Seowon, in particular, enshrined prominent scholars such as Yi Hwang, Ryu Seong-ryong, and Kim Seong-il, functioning as a central hub of scholarship in Andong. Furthermore, it contributed to the aggregation of public opinion in rural society and the dissemination of academic knowledge within the region.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Hogye Seowon, its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authorities, its educational activities, and its role in fostering public discourse. The findings highlight that seowon were not merely academic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also played an active role as public forums and intermediaries between rural communities and the central governance system. The case of Hogye Seowon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social roles of seowon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interactive dynamics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 : Joseon Dynasty, Seowon, Hogye Seowon, Gyeongse, Public Sphere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예학적 관점에서 본 학봉과 서애의 학술

한 재 훈*

- I. 여는 말
- II. 학봉의 예학과 『상례고증』
- III. 서애의 예학과 『상례고증』
- IV. 맺는 말

【국문초록】

학봉 김성일과 서애 류성룡은 누구나 인정하는 퇴계 이황의 대표적 고제들이다. 그러나 이들 두 학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경세론이나 임진왜란 당시의 활약상에 치우쳐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들이 임진왜란의 한복판에서 활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철학이나 문학 또는 경학 분야의 연구는 간간히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각각 남긴 同名異書의 『喪禮考證』이 조선시대 예학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학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희소하다. 본 논문은 학봉과 서애의 예학을 학술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시론적 작업이다. 현시점에서 학봉과 서애의 예학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그동안 『상례고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두 학자의 예학적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봉과 관련해서는 1590년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사신을 갔을 때 그가 보여준 행적들을 예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다든가, 서애와 관련해서는 『喪葬質疑』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그의 예학적 문제 의식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상례고증』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경향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봉과 서애의 『상례고증』은 모두 『예기』의 내용으로 『가례』를 보완한 예서라는 전제 위에서 서술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상례고증』을 편찬한 목적을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점들이

*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

발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았다. 즉, 학봉과 서애는 각자 부모님의 상을 치르는 상황에서 상례의 본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그 결과를 『가례』의 범주에 맞게 정리했다는 가설이다. 본 논문은 학봉과 서애의 예학과 관련한 연구가 진일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시론적으로 제기한 것일 뿐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주제어 :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상례고증, 예학, 가례, 예기

I. 여는 말

朝鮮時代 禮學의 시기별 흐름을 보면, 15세기에는 『經國大典』과 『國朝五禮儀』 등 국가 전례를 정초하는 한편, 민간 의례에 관한 국가 공인의 행례 매뉴얼이 국가 주도로 마련된다. 그리고 16세기 초·중반이 되면 조선에서는 초보적 형태의 喪祭禮書들이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생산된다. 예를 들면 龔巖 李賢輔(1467~1555)의 「祭禮」, 晦齋 李彥迪(1491~1553)의 『奉先雜儀』, 南冥 曹植(1501~1572)의 「士喪禮節要」(失傳), 秋坡 宋麒壽(1507~1581)의 「行祀儀節」, 頤庵 宋寅(1517~1584)의 「家儀」(失傳) 등이 대표적이다.¹⁾

이렇게 전개되던 조선의 예학은 退溪 李滉(1501~1570)과 함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퇴계는 상례와 제례를 비롯한 의례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기물에 관한 것은 물론, 다양한 疑禮와 變禮에 대해서까지 상세한 강론을 했다.²⁾

- 1) 고영진은 조선의 가례서가 발달되어 간 과정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나누어 보는데, 16세기 초·중반에는 제례서 중심의 저술이 이루어지고,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상·제례서로 확대되며, 16세기 말에 가면 사례서로 더욱 확대되어 가례서로서의 완전한 체계를 잡아간다고 본다(고영진, 『조선중기예학사상사』, 한길사, 1996 참조).
- 2) 유권중, 「조선시대 퇴계학파의 예학사상에 관한 철학적 고찰」, 『퇴계학보』 102,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과 중에 『家禮』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艮齋 李德弘(1541~1596)의 『家禮註解』³⁾와 勿巖 金隆(1549~1593)의 『家禮講錄』⁴⁾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嘯臯 朴承任(1517~1586)의 『四禮辨解』·『喪禮要略』·『疑禮講錄』, 梅軒 琴輔(1521~1584)의 『四禮正變』·『四禮記問』, 月川 趙穆(1524~1606)의 『家禮疑義』 등도 모두 예에 대해 퇴계가 강론한 기록물들이거나 그 결과물들이다.⁵⁾

퇴계의 문하에서는 이렇게 『가례』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조목 하나하나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강구하는 차원으로 진입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古禮 그중에서도 특히 『禮記』를 바탕으로 『가례』의 내용을 고증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관련한 예서들이 잇따라 찬술되었다.⁶⁾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예서가 鶴峯 金誠一(1538~1593)의 『喪禮考證』과 西厓 柳成龍(1542~1607)의 『상례고증』 그리고 寒岡 鄭逵(1543~1620)의 『禮記喪禮分類』다.

각각 1556년과 1562년에 溪門에 입문한 학봉과 서애의 예학은 당연히 이러한 계문의 분위기 속에서 초석이 놓였을 것이고, 두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각각 편찬한 『상례고증』 역시 이러한 조선 예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봉과 서애는 일찍이 宦路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의 한복판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예서에 침잠하고 예학을 숙성시킬 만한 물

퇴계학연구원, 1999, 34쪽.

- 3) 『艮齋集』 「艮齋先生文集序李光庭」: “先生又嘗有『心經質疑』, 已自經筵刊行于世, 而周易·四子書·古文質疑·家禮註釋等書, 藏于家”; 『游齋集』 권24, 「艮齋李公墓碣銘」: “公所著有『論語』·『中庸』·『心經』·『古文前後集』·『家禮註釋』, 皆質疑於先生而爲之.”
- 4) 『勿巖集』 권5, 「勿巖先生年譜」: “穆宗皇帝隆慶元年丁卯【先生十九歲】講『小學』·『家禮』于陶山【有講錄】… 四年庚午【先生二十二歲】三書『講錄』成【先生於『太極圖說』·『通書』·『家禮』等書, 尤極研窮, 拈出疑義, 往復辨難, 隨手筭記, 名以『講錄』.】”
- 5) 이와 관련해서는 남재주, 「조선후기 예학의 지역적 전개 양상 연구—영남지역 예학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5~6쪽; 장동우,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진전」, 『태동고전연구』 31, 2013, 216~217쪽 참조.
- 6) 유권중, 「퇴계학과의 『예기』 해석에 대한 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36, 2005 참조.

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학봉은 부친상을 당해 삼년상을 치르던 기간(1581)에, 서애는 모친상을 당해 삼년상을 치르던 기간(1602)에 각각 『상례고증』을 편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봉과 서애는 예학사에 크게 주목할 만한 예서를 남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그동안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관련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두 종의 『상례고증』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타당한지 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학봉과 서애의 예학 연구에 새로운 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학봉의 예학과 『상례고증』

1. 학봉의 예학 관련 학술 활동

예학에 관한 학봉의 학술 활동은 김언중 교수에 의해 이미 분야별로 상세하게 정리되고 발표되었다.⁷⁾ 결론적으로 “학봉학의 정수는 예학”이라고 단언한 김언중 교수는 크게 여덟 분야로 나누어 학봉의 예학적 학술 활동을 정리했다.⁸⁾ 김언중 교수의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다시 종합해보면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봉이 자신의 예학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 활동이다. 1565년부터 1570년 사이에 학봉이 스승 퇴계에게 올렸던 여섯 통의 問目들 가운데 다섯 통이 예에 관한 문목들이다.⁹⁾ 이렇게 정리된 문목들 이외에도 학봉은

7) 金彦鍾, 「鶴峯先生の 禮學」,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驪江出版社), 1993 참조.

8) 김언중 교수가 분야별로 정리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禮疑問目」을 통해서 본 학봉의 예학, ②「退溪先生言行錄」에 보이는 학봉의 禮問, ③「行狀」에 부각된 학봉의 復禮意識, ④「與或人」에 나타난 학봉의 예학, ⑤「奉先諸規」와 「吉凶慶弔諸規」를 통한 禮의 운용, ⑥『喪禮考證』의 편찬, ⑦「朝鮮國沿革風俗考異」에 집약된 時禮, ⑧禮書 刊布의 경위와 그 의의(김언중, 앞의 글 참조).

예에 관한 질문을 했고 이것을 『퇴계선생언행록』에 수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喪禮와 祭禮에 관한 것으로, 예문 가운데 의심이 가는 疑禮¹⁰⁾ 또는 기존의 예서가 제시하지 않은 變禮¹¹⁾에 관한 질문들이다. 학봉은 스승 퇴계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답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예학적 체계를 정립해 갈 수 있었다. 학봉이 부친상을 치르던 기간에 미상의 흑인에게 문의한 것으로 전하는 「與或人」도 큰 틀에서 같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9) 김연중 교수는 이들 문목을 「禮疑問目」으로 명명했다(김연중, 앞의 글, 본론 1장 참조).

10) 학봉이 ‘疑禮’와 관련하여 퇴계에게 올린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례에 따르면 사나 대부의 신분으로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께서 『가례』에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高祖之祭, 準以古禮, 則士大夫分不當祭, 而朱子著爲『家禮』, 何也?]” 이에 대해 퇴계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제를 고례로 단정을 한다면 사대부는 감히 제사를 지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고조에 대해 상복을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예기』에 “신분을 넘는 협제[王親는 고조에게까지 미친다]”는 예문도 있다. 그러므로 정자께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고, 주자께서도 이에 따라 『가례』에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예를 좋아하고 옛것을 흠모하는 선비가 이에 의거하여 행한다 하여 어찌 참람하다고 하겠는가? 다만 시왕의 제도가 3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고, 부자께서도 주나라의 예제를 따르겠다고 하셨으니, 『가례』를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이 예를 행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祭高祖, 斷以古禮, 則士大夫似不敢祭. 然高祖既有服, 『禮記』又有“干祫及高祖”之文, 故程子以謂“不可不祭”, 朱子因著爲『家禮』, 今好禮慕古之士依此行之, 豈爲僭乎? 但時王之制, 祭三代有典, 夫子亦從周, 則又恐難於據『家禮』, 盡責人人以行此禮耳.]”

11) 학봉이 ‘變禮’와 관련하여 퇴계에게 올린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성복을 한 뒤에 비로소 조식전을 행하는 것이 예입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염을 하지 못하고 복도 입지 못한 채 날씨는 이미 4일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전을 차마 폐할 수는 없어서 생시에 여행 중에 사용하던 음식물을 식사 때에 맞춰 상식하였습니다. 이 역시 감정에 따라 곧장 행한 것이지만, 옳은지 여부가 어떻습니까? [成服後, 始行朝夕奠, 禮也. 途中不殮未服, 而日數已過四日, 不忍廢奠, 將生時路次所用之物, 食時乃上食, 此亦徇情直行, 是否如何?]” 이에 대해 퇴계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역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亦當如是.]”

12) 「여흑인」의 말미에 학봉이 ‘孤哀子들이 평소예 예를 배우지 않다가 일에 닥치니 망연하기만 합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하나

두 번째는 학봉이 예와 관련한 禮書를 편찬하거나 저술한 학술 활동이다. 1581년 편찬한 『喪禮考證』, 1587년에 저술한 「奉先諸規」와 「吉凶慶吊諸規」 그리고 1590년에 쓴 「朝鮮國沿革考異」와 「風俗考異」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례고증』은 예학과 관련한 학봉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부친상을 당해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편찬한 것으로 전하며, 상례와 관련한 12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禮記』의 정문을 총 284조목 발췌하여 실었다. 한편 학봉은 1586년 12월에 3년 5개월 동안 재직했던 羅州牧使를 그만두고 안동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듬해인 1587년에 내앞마을(川前洞)의 종택이 소실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학봉은 종택의 중건을 주관하는 한편 문중의 定式을 세우기 위해 「봉선제규」를 저술하고 종족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길흥경조제규」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국연혁고이」와 「풍속고이」는 학봉이 1590년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의 副使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쓴 글이다. 당시 일본의 승려 宗陳(1532~1597)¹³⁾으로부터 『大明一統志』에 수록된 조선의 연혁과 풍속 관련 내용에 관해 질문을 받은 학봉이 『대명일통지』의 잘못된 내용을 辨破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이 글을 통해 학봉은 조선

하나 정리조차 못하고 다만 당장에 닥쳐서 행해야 하는 예들만을 모아 이렇게 문이드립니다.[孤哀等素不學禮，臨事茫然。所欲稟裁者非可一二數，而心亂不復縷縷，獨撮其面前當行之禮，呈稟如此。]”라고 언급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김연중 교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물이 月川 趙穆일 것으로 추측한다(김연중, 앞의 글, 166~167쪽). 한편, 학봉이 언급한 ‘당장에 닥쳐서 행해야 할 예들’이란 「여혹인」에서 ①大祥의 服色, ②廬墓로 인해 大祥 이후에 祔祭를 치르는 문제, ③禫祭의 복색, ④喪事に 윤달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범주들은 공교롭게도 『상례고증』에서 학봉이 다루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여혹인」을 『상례고증』의 후속타라고 평가한 연구도 있다(유영옥, 「鶴峯 金誠一의 父親喪 行禮 儀節」, 『東洋漢文學研究』 21, 동양한문학회, 2005, 167쪽).

- 13) 宗陳은 일본 臨濟宗의 승려로, 자는 古溪. 호는 蒲菴이며 京都 大德寺의 제117대 주지였으며, 豐臣秀吉이 紫野에 摠見院을 창립했을 때 제1세 開山者로 모셔 갔던 인물이다(李佑成, 「鶴峯 金誠一의 朝鮮國沿革考異 및 風俗考異」-『大明一統志』朝鮮關係紀事に 關한 批判에 對하여,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208쪽).

의 服制·婚禮·喪葬禮·祭禮 등에 관한 잘못된 내용을 조목조목 바로잡았다.

세 번째는 학봉이 중요한 예학 관련 서적들을 간행한 학술 활동이다. 대표적인 것이 1585년 나주목사 재직 중에 간행한 『鄉校禮輯』이다. 이 책은 예가 행해지지 않는 세태를 한탄한 명나라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屠義英(1523~1582)이 학교에서부터 예를 가르치기 위해 1567년¹⁴⁾에 간행한 책이다.¹⁵⁾ 이 책이 간행된 지 10년이 되는 1577년 학봉은 謝恩兼改宗系奏請使의 書狀官 자격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이 책을 구입하여 돌아왔다. 그는 1580년 부친상을 당했을 때 『儀禮』와 『家禮』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通典』과 『家禮儀節』 그리고 『향교예집』을 참고했다고 전해질 만큼 이 책을 중시하였고,¹⁶⁾ 『향교예집』 가운데 「동자례」와 「거향잡의」를 子姪에게 베풀 쓰게 하고 교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나주목사 재직시에 『儀禮圖』를 간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의례도』는 주자의 고제인 信齋 楊復이 복식·기물·궁실 등 고대의 제도를 『儀禮』의 경문에 의거하여 230장의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과 고증을 더하여 17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학봉은 이 책을 통해 학자들이 예를 실증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서 간행했던 것이다.

김언중 교수는 이상의 학술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여덟 개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역시 더 상세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로 완성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학봉의 예학적 학술 활동이 『家禮』의 자장을 벗어나 좀 더 폭넓게 조명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예컨대 1590년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사신을 갔을 때 학봉이 보여준 행적을 검토하는 것도 그러한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에서 사신으로 활동한 것이 학술 활동과 어

14) 편찬자인 屠義英이 쓴 『향교예집』의 서문에 ‘皇明隆慶元年歲之丁卯上元日’이라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다.

15) 『향교예집』은 「童子禮」[附: 童子規訓]·「冠禮」·「昏禮」·「喪禮」·「祭禮」·「鄉射禮」[附: 投壺禮]·「士相見禮」[附: 士見大夫·弟子見師長禮]·「舉子禮」[附: 立祠禮]·「居家雜儀」[附: 居鄉雜儀]·「古禮格言」·「習禮歌章」 등 11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鶴峯集』附錄 권1, 「年譜: 八年庚辰 ○閏月 丁先考判書公憂【… 喪葬之禮, 一遵家禮·儀禮, 參以杜氏通典·丘氏儀節及鄉校禮輯等書.】」

편 관련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五禮 가운데 賓禮가 엄연히 존재하고, 사행의 역할에 관한 처음과 끝이 모두 의전에 관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사행의 활동은 당연히 예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특히 학봉이 당시에 보여준 행적은 철저하게 예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나아가 학봉이 「조선국연혁고이」와 「풍속고이」를 저술한 것이 이때였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⁷⁾

일본의 전국시대가 끝나갈 무렵인 1585년 豊臣秀吉(1537~1598)은 關白에 취임했고, 1586년 그는 ‘征明假道’를 내세우며 조선 국왕의 入朝를 주선하려고 對馬島主 宗義調에게 명했다. 풍신수길의 명령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알았던 대마도주는 ‘일본의 국왕이 교체되었으니 축하 사절단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선과 접촉했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했고, 풍신수길은 대마도주에게 일을 성사시키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589년 11월 조선 조정은 일본의 정세를 파악할 필요성 등의 목적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1479년 이후 112년 만인 1590년 4월 통신사가 일본으로 향했다. 이때 학봉은 副使 자격으로 正使 黃允吉(1536~?)·書狀官 許箴(1548~1612)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당시 통신사 파견은 대마도주의 僞計로 인해 그 과정과 실상을 조선 조정은 물론 풍신수길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적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사행단 내부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당시 부사였던 학봉은 정사·서장관과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 대립을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큰 문제들만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宣慰使 영접 문제, ②國分寺 유람 문제, ③禮單의 표현 문제, ④入都할 때 禮服 착용 문제, ⑤伶人の 공연 문제, ⑥관백의 행차 관광 문제, ⑦관백 측근에게 뇌물 공여

17)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로 하우봉, 「김성일의 예사상과 일본인식」(『泐上古典研究』 67, 열상고전연구회, 2019)이 있다.

문제, ⑧傳命할 때 庭拜 문제, ⑨관백의 답서를 받기 전 出都 문제, ⑩관백의 답서 내용 수정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¹⁸⁾

이들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예와 관련된 것들이다. 학봉이 이들 사안에 대처했던 논리는 예에 입각한 명분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국분사에서 있었던 일종의 환영연회에 대마도주의 아들 宗義智가 교자를 타고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학봉은 그 ‘무례’함 지적하며 사행단의 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학봉은 “사신이 스스로 體貌를 잃으면 군왕의 명을 욕보이는 것”이라 일갈한 뒤 관사로 돌아와 버렸다.¹⁹⁾ 그런가 하면, 일본에 도착한 지 여러 달 만에 도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학봉은 정사·서장관과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음과 같이 논쟁을 벌였다.

왜의 국경에 들어오고서부터 상사와 서장관은 倭輶 타기를 좋아했지만 공은 반드시 冠帶를 갖춰 입고 행차했다. 國都에 도착했을 때 상사와 서장관은 종전대로 褻服 차림으로 들어가려 하자 공이 말했다. “사신의 예복은 왕명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국에서도 그러하기를 하물며 다른 나라의 도성에 들어가면서 예복을 입지 않는단 말입니까?” 상사와 서장관이 말했다. “국중에서 예복을 입는 것은 外臣을 공경히 맞이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왜는 영접하는 의전도 없고 관백마저 출타 중이라고 하니 사신이 예복을 입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이 말했다. “의관을 정제하고 침시를 높게 하는 것은 군자가 평소에 하는 몸가짐 방법인데 하물며 왕명을 받든 상황이겠습니까? 본조의 사신들은 영접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도 예복을 입습니다. 관백이 있는지 여부를 어찌 따지겠습니까?”²⁰⁾

18) 이상에서 꼽은 ①~⑩은 하우봉의 위의 논문을 참고하여 논자가 다듬어 정리한 것이다.

19) 『鶴峯集』 附錄 권2, 「行狀」: 義智等請遊觀國分寺, 使臣咸往. 玄蘇迎坐中堂, 義智後至, 乘輶歷階而陸. 公惡其無禮, 不欲與之爲禮, 請共避出. 上使不聽, 公曰: “夷狄雖不足責, 亦自有上下之分, 其何敢乃爾? 若仍坐而交酬, 則是使臣自失體貌, 而辱君命也, 不可苟也.” 卽起出還館.

20) 『鶴峯集』 附錄 권2, 「行狀」: 自入倭境上使·書狀喜乘倭輶, 公則必具冠帶以行. 及至國都, 上使·書狀仍前褻服而入, 公曰: “奉使禮服, 敬王命也. 在本國尚然, 況入異國之

학봉은 이 이외에도 번번이 정사·서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학봉은 이 과정에서 서장관 허성에게 글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오호라! ‘體貌’라는 두 글자가 고명께서는 이미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킬 것은 이 두 글자입니다. 사신의 일에서 중한 것으로 이 두 글자만한 것이 없으니, 내 어찌 감히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고 구차히 동조하는 행위를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몸가짐과 일 처리를 하나같이 예에 맞게 하고 구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²¹⁾라고 했다. ‘체모’ 두 글자가 당시 사행에 임했던 학봉의 기조였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예에 부합하는 몸가짐과 일 처리였다.²²⁾ 순간의 판단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가의 안위와 위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 말리는 상황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예학적 소양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2. 『상례고증』(학봉)의 특징과 예학사적 의의

학봉은 부친상을 당하여 거상 중이던 1581년에 『상례고증』을 편찬했다. 김언중 교수는 “학봉의 『상례고증』은 『주자가례』의 「상례」편에 직접 관련된 『예기』의 正文을 조목마다 찾아내어 그 근거를 밝혀 놓은 것으로,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봉의 이 저작은 주자의 『가례』가 미비한 책이라는 각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²³⁾ 『상례고증』은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都, 而不以禮服乎?” 上使·書狀曰: “國中禮服, 爲外臣祇迎也. 今倭無迎接之儀, 而關白又出外, 使臣何必禮服也?” 公曰: “整衣冠尊瞻視, 乃君子平日持身之法也, 況此奉命之時乎? 本朝奉使者非但祇迎時爲然, 在途亦禮服, 安問關白之存否乎?”

21) 『鶴峯集』 권5, 「與許書狀」: 嗚呼! 體貌二字, 高明已聞之厭矣. 然吾之所守者, 此二字也. 使事所重者, 莫二字若也, 吾何敢舍吾之所守, 而爲苟同之行哉? … 持身處事, 一於禮而不苟可也.

22) 하우봉은 당시 三使 간의 갈등을 ‘체모론’과 ‘의례론’으로 검토했다(하우봉, 앞의 글, 210~217쪽).

상례와 관련된 12개의 범주를 뽑고 이와 관련된 『예기』의 정문 284조목을 선별하여 편찬한 책이다. 하지만 『상례고증』이 『가례』의 미비점에 대한 각성 위에서 만들어진 예서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이러한 평가가 정황적으로나 심정적으로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1〉 『상례고증』(학봉)의 구성

범주	인용조목	인용 『예기』 편명(조목수)
①初終	4	喪大記(4)
②爲位	1	檀弓上(1)
③復·訃·沐浴·襲·飯含·靈座·魂帛·銘旌	15	檀弓上(4), 檀弓下(3), 曾子問(1), 喪服小記(1), 雜記上(2), 雜記下(2), 喪大記(2)
④小斂·大斂	22	檀弓上(3), 雜記上(1), 喪大記(16), 問喪(2)
⑤奔喪	6	喪服小記(2), 雜記上(3), 雜記下(1)
⑥殯	4	檀弓上(4)
⑦吊	38	曲禮上(7), 檀弓上(11), 檀弓下(9), 曾子問(1), 喪服小記(1), 雜記上(1), 雜記下(8)
⑧奠·膊	10	檀弓上(7), 檀弓下(2) / 檀弓上(1)
⑨喪葬之具	16	檀弓上(1), 王制(1), 檀弓上(6), 檀弓下(3), 喪大記(4), 檀弓下(1)
⑩葬·朝祖·遣·虞·附·練·卒哭	55	曲禮上(1), 檀弓上(16), 檀弓下(21), 曾子問(1), 喪服小記(7), 雜記上(5), 雜記下(4)
⑪居喪雜儀	98	曲禮上(3), 曲禮下(2), 檀弓上(3), 問喪(2), 檀弓上(9), 樂記(1), 檀弓上(3), 檀弓下(9), 曾子問(13), 雜記下(25), 喪大記(17), 服問(1), 問傳(8), 雜記上(1), 檀弓上(1)
⑫服制	15	三年問(7), 喪服四制(8)
	총 284	

김언중 교수의 평가 이후 『상례고증』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들이 발표되었다. “『상례고증』의 각 항목은 『주자가례』의 항목을 기준으로 그 항목에 해당 하는 『예기』의 구체적인 기사를 발췌하고 陳澧의 註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은 ‘실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가 하면,²⁴⁾ “『상례고증』에서의 ‘고증’이란 일차적으로 『가례』의

23) 김언중, 앞의 논문, 178쪽.

상례 절차에 대한 고증이지만, 실제로는 상장례의 시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예기』의 내용을 『가례』를 고증하고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고증’이라 하겠다”는 주장도 있었다.²⁵⁾

두 주장 가운데 첫 번째 주장의 요지는 『상례고증』이 『가례』를 기준으로 하되, 특히 ‘실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가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천’을 언급한 것은 “『상례고증』이 비교적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²⁶⁾는 연구자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즉, 정확적 고증서라고 하기에는 『상례고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상장례의 시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두 번째 주장에 의해서 반박된다. 실제로 『의례』라면 行禮에 도움을 주었겠지만, 『예기』는 禮意를 밝히는 고증에 특화된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례고증』이 『가례』라는 텍스트를 고증하는 정확적 고증서로 보는 것은 첫 번째 주장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의문이 남는다. 이처럼 두 주장은 『상례고증』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공히 정합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두 주장 모두 『상례고증』이 『가례』를 보완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례고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가례』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 작품의 의의를 찾으려는 데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²⁷⁾ 하지만 앞에

24) 이현진, 「학봉 김성일의 예학과 『상례고증』」, 『역사문화논총』 4, 역사문화연구소, 2008, 114쪽.

25) 유영욱, 「『상례고증』 해제」, 『한국예학총서보유』[1], 二十二쪽.

26) 이현진, 앞의 글, 93쪽.

27) 물론 장동우의 「17세기 이전 『家禮』 연구서에서 『禮記』를 활용하는 양상과 그 특색」(『南冥學研究』70,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1)처럼 『상례고증』이 『가례』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조금 벗어난 연구도 있다. 이 논문은 17세기 이전 『예기』 관련 연구에 나타난 특성과 『가례』 관련 연구서, 특히 고증서로 분류되는 저술에서 『예기』가 활용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논문 역시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상례고증』을 『가례』

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상례고증』의 목적과 의의를 『가례』와의 관련성 속에서 애써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다시 말하면, 『가례』는 고려하지 말고 『예기』와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상례고증』의 의의를 구명하는 것은 불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12개의 범주가 『가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례』를 아예 논외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 책을 『가례』의 보완서로 보아야 할 결정적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정작 이 책이 주목했던 것은 『예기』였으며, 『가례』는 그저 상례와 관련한 의미를 고증하는 주제를 선별하기 위해 참고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이었다는 관점에서 이 책의 성격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상례고증』이 『가례』를 깊이 의식한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상례고증』이 상례와 관련하여 고증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12개의 범주와 그에 속한 27개의 주제는 『가례』에서 제시하는 22개 범주에 40개의 주제에 비하면 매우 소략하다. 이렇게 소략한 주제로 『가례』를 보완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이 범주가 모두 『가례』에서만 뽑은 것도 아니고, 그 범주의 순서가 『가례』와 다른 것도 있으며, 심지어 ⑥'殯'처럼 『가례』에는 없는 것도 있다.²⁸⁾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상례고증』에서 제시한 범주가 『가례』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 둘째, 『가례』가 완성도 높은 책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상례고증』을 『가례』의 보완서로 평가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상례고증』에서 다루는 내용 중 어떤 것이 『가례』의 어떤 문제점과 연계된 것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례고증』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가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서라면 『상례고증』에 練祭·大祥·禫祭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도 해명하기 곤란하다. 『상례고증』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학봉이 “아직 부친

의 자장 안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28) 장동우, 앞의 글, 165쪽.

상의 대상과 담제를 지내기 전이라서” 그랬다는 견해²⁹⁾가 암묵적으로 수용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가례』를 보완하는 예서를 편찬하는 일이 반드시 편찬자의 행례 기간과 연동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논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례고증』은 특별히 『가례』라는 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편찬된 책이 아니며, 거상 중에 자신이 행하고 있는 상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기』를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주목했던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두려는 목적으로 편찬된 책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관련하여 이 책에서 제시하는 12개의 범주는 편 의상 『가례』의 범주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되, 『예기』의 관련 내용의 분량에 따라 『가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제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 책이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완의 작품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만일 『상례고증』이 『가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수준에 이른 예서였다면 「행장」과 같은 학봉에 관한 기록에 틀림없이 이 책이 소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30,000자가 넘는 한강이 지은 「행장」에 「봉선제의」와 「길흥경조제규」는 소개되어 있지만 정작 『상례고증』에 관한 언급은 없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³⁰⁾

이렇게 『가례』와의 상관성을 배척한다고 해서 『상례고증』이 갖는 예학사적 의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가례』라는 텍스트를 보완하는 작품으로 『상례고증』을 바라보는 관점을 교정하자는 것일 뿐, ‘喪禮’의 본질적 의미를 『예기』에 수록된 古禮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예학적 관심과 연구 자체는 당시로서는 매우 앞서가는 학술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16세기 초까지 행례의

29) 유영옥, 「鶴峯 金誠一の 父親喪 行禮 儀節」, 『東洋漢文學研究』 21, 동양한문학회, 2005, 166쪽.

30) 학봉 관련 기록에 『상례고증』이 등장하는 것은 密庵 李穡(1657~1730)가 쓴 「年譜」(1726), 李圭景(1788~1856)이 쓴 「家禮辨證說」, 響山 李晩燾(1842~1910)가 쓴 「再請鶴峯金先生陞廡疏」(1883) 등으로 비교적 후대이다.

매뉴얼로서 행례서를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당시의 예학적 경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예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표준을 만드는 수준에서 예의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예를 실천하는 이유를 확보하려는 수준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비록 『상례고증』이 이러한 흐름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만큼 완성된 예서가 아니고, 더구나 아직 상례를 넘어 예 전반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선구적으로 실천한 연구물이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런 사실만으로도 학봉의 『상례고증』은 조선의 예학사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는 예서이다.

Ⅲ. 서애의 예학과 『상례고증』

1. 서애의 예학 관련 학술 활동

1607년 서애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1627년에 愚伏 鄭經世(1563~1633)가 쓴 「행장」에 따르면, 서애의 글 대부분이 兵火에 소실되고 문집 10권이 있을 뿐이며, 『愼終錄』·『喪禮考證』·『永慕錄』·『懲忿錄』 등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고 했다.³¹⁾ 이러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서애의 예학 학술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자료 역시 다른 자료들과 함께 많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나마 남아 있다고 언급한 자료들 가운데 예학 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신중록』과 『상례고증』인데, 이 중에 『신중록』은 전하지 않고 『상례고증』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행장」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喪葬質疑』라는 작품도 다행히 문집에 실려 있어서 서애의 예학을 가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서애의 예학 관련 학술 활동은 부득이 이들 자료를 검토하는

31) 『西厓集』 西厓先生年譜 권3, 「行狀」: 平生詩文失於兵火, 今有文集十卷, 愼終錄·喪禮考證·永慕錄·懲忿錄等書藏於家.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먼저, 『신중록』은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서문이 남아 있어서 대략 해당 자료의 성격과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책은 1602년 2월에 저술되었다.³²⁾ 『신중록』은 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 묘지를 선택하고[擇地] 날짜를 잡는[擇時] 일에 관한 책으로, 고금의 術家들의 학설과 斂葬에 관한 禮文과 風習 그리고 서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모아 상·중·하 3편으로 엮은 책이다.³³⁾ 서애는 1601년 8월에 모친상을 당하고, 그해 12월 天燈山에 모셔져 있는 부친의 묘소에 모친을 합장했다. 1573년 부친상을 당했을 때는 형님인 謙庵(柳雲龍(1539~1601))이 장례를 주관하였으나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겸암이 동년 3월에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서애가 장례를 주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서애는 자식으로서 부모의 장지를 선택할 만한 식견이 없다는 것에 대한 회한을 느끼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³⁴⁾ 장례와 관련하여 擇地와 擇時 그리고 葬法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장법은 禮文에 나온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택지와 택시는 사대부들이 하찮게 여기면서 평소에도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일이 닥치면 葬師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지적한 서애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개탄한다.

오호라! 이것이 도리상 어찌 마땅한 것이겠는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용렬한 의원에게 맡기는 것도 오히려 불효라고 하는데, 하물며 어버이를 위해 영원토록 안치할 宅兆를 도모하는 일이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데 이렇게 대충할 수 있단 말인가?³⁵⁾

32) 『西厓集』 西厓先生年譜 권2, 「年譜」: 三十年壬寅【先生六十一歲】二月, 作愼終錄 ○四月, 作永慕錄, 有序跋.

33) 『西厓集』 권17, 「愼終錄序」: 乃輯古今術家之說及禮文時俗所傳關於斂葬者, 間附以所親驗者, 釐爲上中下三篇, 總名之曰愼終錄.

34) 『西厓集』 권17, 「愼終錄序」: 今年辛丑, 余年六十, 又失先妣, 是春兄先亡. 余既無兄弟, 逢天大感, 殯殮在疚, 誰與因極? 惟日夜號慟, 而性復愚鈍, 荒迷失次, 恐不能自盡於大事, 以重不孝之罪. 越十二月乙酉, 就先君舊兆而合葬焉, 日月流邁, 奄至改歲, 猶質實自持, 不即殞滅. 神識稍定, 自念前日事, 豈無一毫末歉於心者?

다음으로, 『상장질의』는 서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장례를 치를 때 드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쓴 책이다. 특히 葬具와 관련한 11가지 주제³⁶⁾를 제시하고 이들 각각에 관해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11개의 주제 가운데 10개는 모두 『가례』에 제시된 것들이고, 나머지 1개[淡酒]는 『가례의절』에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질의』야말로 『가례』(『가례의절』 포함)에서 제시하는 예문을 준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만들어진 예서라 할 수 있다. 『상장질의』의 이러한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11개의 주제 가운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주제 ‘治棺’과 두 번째 주제 ‘枕灰’의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①治棺. 『가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護喪은 목수에게 나무를 골라 관을 만들도록 명하는데, 油杉이 최상이고 柏이 다음이며 土杉이 최하이다.”³⁷⁾ 서애는 여기에서 언급한 ‘杉’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삼은 松과 같은 나무인지 다른 나무인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지 혹은 생산되는데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유삼과 송삼의 차이는 무엇인지, 백이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이지만 이를 檜에 사용하지 않는데 『가례』에서 언급한 대로 중간급의 목재인지 등을 차례차례 검토한 뒤, “상장의 기구 중에 관곽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취할 수 있는 재목이 제한적이고, 이름조차 변별할 수 없는데 쓰임을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일단 기록해두고, 나중에 博物者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마무리했다. 그런 다음 다시 안설을 덧붙였다. 안설의 내용은 『예기』에 ‘천자는 柏棺을 쓰고 제후는 松棺을 쓰며 대부는 柏棺을 쓴다’고 했고, 程子도 “松千柏萬”이라 말을 했는데, ‘杉’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³⁸⁾

35) 『西厓集』 권17, 「慎終錄序」: 嗚呼! 此於理豈所宜然? 夫病臥於牀, 委之庸醫, 猶謂之不孝, 況爲親謀萬世安厝之宅? 此何等大事, 而滅裂如此也?

36) 11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治棺, ②枕灰, ③灰漆, ④瀝青, ⑤炭末, ⑥石灰·細沙·黃土, ⑦淡酒, ⑧鐵釘·鐵鑊, ⑨作灰隔, ⑩實灰, ⑪藏明器.

37) 『家禮』 「喪禮」, ‘初終’條 [本文] “治棺.” [本註] “護喪命匠, 擇木爲棺, 油杉爲上, 柏次之, 土杉爲下.”

②秬灰. 『가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익은 秬米의 재를 4촌 두께로 (관의) 밑바닥에 깐다.”³⁹⁾ 서애는 여기에서 말하는 ‘출’이 어떤 곡물인지 검토한다. 『本草』와 『詩經』은 물론, 술을 빚기에 적합해서 陶淵明이 심었던 곡물, 유흥俞泓(1524~1594)의 집에 비치된 『字書』에 ‘黑黍’라고 기술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검토한 서애는 ‘출’이 가장 黍의 한 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가례』에서 가장의 일종인 ‘출’의 재를 사용하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곡물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찰쌀(粘稻)이나 쌀(米)을 태운 재를 사용하는 의미 없는 짓을 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집안에서도 시속에 따라 그렇게 해 온 것이 한스럽다고 고백한다. 그런 다음 “내가 젊었을 때 홍문관에서 우리나라의 物産을 기록해놓은 어떤 책에서 ‘秬은 없다’고 기술된 것을 보았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인지, 마땅히 곡물의 성질을 잘 아는 老農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한다.⁴⁰⁾

38) 『西厓集』 권13, 『喪葬質疑』: 治棺. 按杉, 未詳何木. 我國爲棺槨, 上下通用松板, 不見用杉. 或云朱子諱韋齋名作杉, 其實杉亦松. 然東坡詩旋斫杉松, 字會亦云杉松類, 其非一物明矣. 豈杉不產於我國, 雖產而人無知者, 故遂廢而不用耶? 爲可惜也. 油杉·土杉, 似是一物而以性品分上下耳. 今松板中, 堅而粗理色黃赤, 入土年久不腐者爲上, 小理而色白柔軟不堅者爲下品, 杉之分上下, 亦應如此耳. 柏, 今人指海松結實如巴豆者爲柏, 非也. 今之所謂側柏是也, 而人未嘗取以爲棺槨, 故其材之中用與否, 未可知, 亦絕難得大者也. 喪葬之具, 莫重於棺槨, 而取材不廣, 名且不能辨, 況於用乎? 姑記之, 將問於博物者. 更按, 禮記天子柏棺, 諸侯松棺, 大夫柏棺. 蓋柏勝於松, 故天子用柏; 諸侯嫌於逼, 故用松而不敢用柏; 大夫位下而無嫌, 故得用柏. 疏家之說如此. 又程子論棺槨, 有松干柏萬之說, 而并不言杉爲可用, 何也? 甚可疑. / 참고로 서애가 여기에서 검토한 내용은 東巖 柳長源(1724~1796)의 『常變通攷』(권7, 喪禮·初終·治棺槨)와 兢齋 李頤亨(1754~1832)의 『喪葬儀節』(『後溪集』 권5) 등에 인용되었다.

39) 『家禮』 「喪禮」, ‘初終’條: [本文]“治棺.” [本註]“以煉熟秬米灰鋪其底, 厚四寸許.”

40) 『西厓集』 권13, 『喪葬質疑』: 秬灰. 按本草, 秬, 似黍米而粒小, 卽詩之所謂秬也. 性宜下濕而暑, 故東南多有之, 宜作酒, 陶淵明在彭澤種秬者, 亦此物也. 貢生權英俊言嘗在俞政丞泓家, 見一字書, 云秬黑黍也, 以此知秬乃黍類. 古人於棺內, 不用他物而用秬灰, 必有其意. 我國人不識秬爲何物, 或誤以爲粘稻, 治棺之時, 多燒粘稻作灰, 其有力者, 作米燒灰用之, 皆無意義. 吾家亦未免從俗爲之, 至今以爲恨. 然余少時, 在弘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장질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장례 의식에서 실제 사용되어야 할 물품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검토를 한 작품이다. 특히 『가례』에서 제시한 물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할 수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머지 주제들에 관한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애는 참고 가능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선유들의 학설도 참조하였을 뿐 아니라 견문을 통해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도 동원해서 정확한 이해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그래도 의심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博物者’나 ‘老農’ 등 전문가들을 통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흥미로운 것은 서애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가례』에 제시된 것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禮文에 근거하지 않은 時俗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예를 들면 ⑧鐵釘·鐵鑕에서 『가례』에서 언급한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銀釘(머리 없는 못)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매우 좋다고 하면서 “비록 예문에 어긋나지만 시속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⁴¹⁾ ⑪藏明器에서도 『가례』에서는 “(광에) 흙이 반쯤 차면 명기 등을 묻고 판자를 이용하여 그 문을 닫으라”⁴²⁾고 하였으나, 서애는 “판자가 썩으면 흙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벽돌이나 돌로 대체하면 어떻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⁴³⁾ 또 ⑦淡酒에서는 『가례의절』에서 “灰隔을 만들 때 담주를 골고루 뿌리라”⁴⁴⁾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오히려 “폐해만 있고

文館見雜書記我國物產而云無秬 果然則雖欲用之而不可得 當更問於老農之知穀性者以定耳.

- 41) 『西厓集』 권13, 『喪葬質疑』: 鐵釘·鐵鑕 此古人治棺之具, 釘盖用以合板, 而鑕則以索貫以舉棺者也. 今則天地盖皆以木爲銀釘, 不用鐵物, 其制極好, 雖違禮文, 從俗可也.
- 42) 『家禮』 「喪禮」, 「治葬」條: [本文] “藏明器等.” [本註] “實土及半, 乃藏明器, 下帳苞簣豐於便房, 以板塞其門.”
- 43) 『西厓集』 권13, 『喪葬質疑』: 藏明器. 家禮以板塞其門, 但恐板木既朽, 則土有崩陷之患, 以磚或石代之, 似無此患, 更詳之.

이익은 없다”면서 “담주가 비록 예문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두려워서 감히 쓸 수 없으니, 시속에 따라 느릅나무껍질의 즙으로 대신할 뿐”이라고 했다.⁴⁵⁾

2. 『상례고증』(서애)의 특징과 예학사적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애의 예학과 관련하여 편찬하였거나 저술한 작품으로는 『신종록』과 『상장질』 그리고 『상례고증』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상례고증』을 손꼽는다.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애의 『상례고증』은 상·중·하 3편으로 되어 있으며, 46개의 범주에 이와 관련한 『예기』의 글 242조목이 인용되어 있다.⁴⁶⁾

<표 2> 『상례고증』(서애)의 구성

	범주	인용조목	인용 『禮記』 편명(조목수)
喪禮考證上	①初終:疾病遷居正寢	3	喪大記(2), 檀弓(1)
	②既絕乃哭	4	喪大記(1), 三年問(1), 喪大記(1), 檀弓(1)
	③復	12	喪大記(2), 禮運(1), 喪大記(1), 雜記(2), 曾子問(1), 檀弓(1), 喪大記(1), 檀弓(3)
	④立喪主·主婦	16	奔喪(1), 喪大記(1), 喪服小記(7), 雜記(3), 檀弓(2), 喪服小記(2)
	⑤護喪	1	檀弓(1)

44) 『家禮儀節』 「喪禮」, ‘治葬’條: [本文]“作灰隔.” [本註]“以淡酒遍灑之.”

45) 『西厓集』 권13, 『喪葬質疑』: 淡酒. 此用以灑灰, 使堅實者也, 然用酒之意未詳. 近人有遷葬舊墓者, 多言開墳之後尚有酒臭在於灰間, 而皆不凝硬, 以手掬取, 虛軟無力, 其無酒氣處, 卻稍堅凝, 以此知用酒灑灰, 有害而無利. 惟用榆皮汁和灰堅築者實, 皆凝結如石云. 此則得於目見之說, 非浪傳無據. 淡酒雖在禮文, 今懼不敢用, 只從俗用榆汁代之.

46) 이 가운데 『喪禮考證』[下]의 ⑤祥~⑪權制에 관한 내용은 목차에만 존재하고 실제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그러나 왜 빠졌는지에 관한 어떤 언급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유영옥은 “서애가 목차만 미리 정해놓고 祥祭 이후의 항목은 후일을 기약했거나, 아니면 필사자가 練祭까지만 잘못 필사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유영옥, 『『상례고증』 해제』, 『한국예학총서보유』①).

	⑥ 易服不食[附:儀禮圖式]	8	聞喪(1), 喪大記(1), 聞喪(1), 間傳(1), 喪服小記(1), 檀弓(3)
	⑦ 治棺	11	喪大記(6), 檀弓(5)
	⑧ 訃告	4	檀弓(1), 雜記(3)
	⑨ 沐浴	5	檀弓(1), 喪大記(3), 檀弓(1)
	⑩ 襲	9	雜記(2), 檀弓(2), 喪大記(3), 雜記(2)
	⑪ 飯含	6	禮運(1), 檀弓(2), 雜記(3)
	⑫ 奠	3	檀弓(3)
	⑬ 爲位	2	喪大記(2)
	⑭ 魂帛	2	雜記(1), 檀弓(1)
	⑮ 銘旌	1	檀弓(1)
	⑯ 小斂[附:儀禮圖式 ⁴⁷⁾]	20	檀弓(1), 喪大記(10), 檀弓(1), 喪大記(1), 檀弓(1), 喪大記(1), 雜記(2), 喪大記(2), 檀弓(1)
	⑰ 大斂	4	喪大記(4)
	⑱ 殯	8	喪大記(1), 檀弓(7)
	⑲ 喪次	9	喪大記(3), 雜記(2), 喪大記(3), 雜記(1)
喪禮考證[中]	① 成服[附:儀禮圖式 ⁴⁸⁾]	13	曲禮(1), 檀弓(2), 間傳(2), 檀弓(2), 喪服四制(4), 喪大記(2)
	② 斬衰以下槨	5	喪服小記(5)
	③ 並有喪	15	雜記(1), 間傳(5), ※儀禮圖式(6), 雜記(3), 服問(2), 曾子問(2), 服問(1), 雜記(1)
	④ 朝夕奠	2	雜記(1), 檀弓(1)
	⑤ 朔望·薦新	1	檀弓(1)
	⑥ 吊[附:儀禮圖式 ⁴⁹⁾]	17	曲禮(1), 檀弓(2), 雜記(4), 檀弓(4), 曾子問(1), 檀弓(4), 曲禮(1)
	⑦ 卜葬	3	喪服小記(1), 雜記(1), 檀弓(1)
	⑧ 葬具 ⁵⁰⁾	11	喪大記(2), 雜記(2), 喪大記(1), 檀弓(6)
	⑨ 朝祖	1	檀弓(1)
	⑩ 祖奠	2	檀弓(2)
	⑪ 遣	4	檀弓(1), 雜記(2), 檀弓(1)
	⑫ 發引·送葬·爲位	9	雜記(1), 檀弓(3), 曾子問(1), 雜記(2), 檀弓(2)
	⑬ 贈玄纁	2	雜記(1), 檀弓(1)
	⑭ 封墓	4	檀弓(3), 喪大記(1)
	⑮ 合葬	5	檀弓(4), 喪大記(1)
	⑯ 反哭	3	檀弓(2), 喪服小記(1)

喪禮考證[下]	①虞	4	檀弓(2), 雜記(1), 檀弓(1)
	②卒哭附:儀禮圖式 ⁵¹⁾	3	檀弓(3)
	③祔	8	檀弓(1), 雜記(7)
	④練附:儀禮圖式 ⁵²⁾	2	喪服小記(1), 雜記(1)
	⑤祥		
	⑥禫		
	⑦變禮		
	⑧聞喪		
	⑨奔喪		
	⑩總論		
	⑪權制		
		총 242	

서애의 『상례고증』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동문이었던 학봉의 『상례고증』과 이름이 같다는 점이다. 이 두 예서는 이름만 같을 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학봉과 서애 모두 부모의 상을 치르는 기간에 각각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는 점이 그렇고, 또한 상례의 본의를 고증하기 위해 『예기』를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발견된다. 두 책의 차이점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서애의 『상례고증』이 갖는 예학사적 의의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학봉의 『상례고증』과 서애의 『상례고증』 간의 차이는 우선 만들어진 시기에 차이가 있다. 학봉이 1581년에 『상례고증』을 편찬한 데 비해 서애는 1602년 『상례고증』을 편찬하여 두 책 사이에는 21년이라는 시간 차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두 책은 구성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⁵³⁾ 첫째, 상례

47) 본문에는 ‘儀禮小斂變服圖’와 ‘髻髮免髻圖’로 되어 있다.

48) 본문에는 ‘儀禮襲經帶旁通圖’, ‘成服冠制’, ‘成服衰裳制’가 실려 있다.

49) 본문에는 ‘儀禮吊服圖’로 되어 있다.

50) 목록에는 ‘明器’로 되어 있다.

51) 본문에는 ‘儀禮受服男子圖式’으로 되어 있다.

52) 목록에는 ‘儀禮變服圖’로 되어 있다.

53) 학봉의 『상례고증』과 서애의 『상례고증』을 비교했을 때 발견되는 체제상의 차

고증을 위해 설정한 범주의 분류방식과 수에서 두 책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준다. 둘째, 학봉의 『상례고증』은 『예기』의 내용만을 발췌해서 정리한 데 비해 서애의 『상례고증』은 양복의 『儀禮圖』를 여러 곳에 수록하였다. 셋째, 학봉의 『상례고증』에는 학봉의 견해가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서애의 『상례고증』에는 간단하게나마 按說을 붙이는 등의 추가 작업이 가해졌다.⁵⁴⁾ 넷째, 학봉의 『상례고증』은 해당 범주에 관한 『예기』를 인용할 때 대체로 『예기』 편들의 순서를 따르는 데 비해 서애의 『상례고증』은 『예기』 편들의 순서에 상관없이 섞어서 인용하고 있다.⁵⁵⁾ 다섯째, 학봉의 『상례고증』에는 서문 등 책의 저술 동기나 목적과 같은 일체의 정보가 없는 데 비해 서애의 『상례고증』에는 간단하지만 이 책을 왜 편찬하게 되었는지 등을 알려주는 글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내가 상중에 『예기』를 읽었는데, 이미 어둡고 막혀서 한두 편을 지나가면 잊어버렸다. 또 그 기재된 내용이 엄청난데다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기에 어려움을 걱정했다. 이에 『가례』에 실려 있는 여러 항목들을 綱으로 삼고

이는 장동우, 앞의 글, 161~166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54) 서애의 안설이 붙은 곳은 『상례고증』(중)의 '朝夕奠'에 『예기』의 '檀弓'을 인용한 다음이다. 여기에서 서애는 “『가례』에서는 조식전과 상식이 다른데 方氏는 같다고 이야기하였으니, 이해가 안 된다.[○案家禮朝夕奠與上食異, 而方氏同言之, 未詳.]”고 하였다. 이 밖에도 『상례고증』(중) '成服' 관련 대목에서 「喪服四制」를 인용할 때 “其恩厚者 …” 부분의 원문을 편집해서 실은 것이라든가, ‘並有喪’ 관련 내용 중에서 「間傳」 다음에 인용한 글에 대해 “이상 여섯 조목은 양씨의 도식 ‘병유상변복’조를 보라.[已上六條, 見楊氏圖式并有喪變服條.]”고 설명한 것, 그리고 『상례고증』(하) 「祔」 관련 내용 중 「雜記」의 여섯 번째 인용문에 [句를 표기하여 구두점을 밝힌 것 등도 모두 서애의 추가 작업 증거들이다.

55)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봉의 『상례고증』에도 ③·⑧·⑪처럼 인용된 『예기』의 편들이 『예기』의 순서에 따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는 하나의 범주로 설정했지만 엄연히 다른 주제일 경우이며, 같은 주제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예기』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애의 『상례고증』은 거의 모든 범주에서 인용된 『예기』의 편들이 『예기』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 사이의 절목들은 각각 종류별로 붙이고 상·중·하 3편으로 나누었다. 또 양씨의 『의례복제도식』을 해당 조목 아래에 붙임으로써 고열하는 데 편하도록 했다.⁵⁶⁾

사실 이 글은 『상례고증』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준다. 그것은 서애의 『상례고증』이 『가례』를 중심에 놓고(그것이 고증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행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상관없이) 『예기』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예기』를 공부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가례』의 항목들을 활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애의 『상례고증』은 학봉의 『상례고증』보다 훨씬 『가례』의 범주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학봉의 『상례고증』은 어떻겠는가? 따라서 이 책 역시 앞서 학봉의 『상례고증』을 검토했던 바와 같이 『가례』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집착하지 말고, 상을 치르는 기간에는 상례에 관해 공부하라⁵⁷⁾는 『예기』의 가르침에 따라 상례의 본질적 의미를 고례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 책으로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애의 『상례고증』이 학봉의 『상례고증』과 비교할 때 체제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가례』를 의식했다든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는 나중에 『가례』를 연구하는 데 『예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적 예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56) 『喪禮考證』(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목차’ 아래: 余喪中讀禮記, 既昏塞, 過一二編, 輒忘失. 且患其記載浩博而雜出, 難於參攷也. 於是以家禮所載群目爲綱, 而其間節目, 各以類附焉, 分爲上中下三編. 又取楊氏儀禮服制圖式, 附見於逐條之下, 以便攷閱云.(같은 글이 『西厓集』 권18에는 「題喪禮考證後」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57) 『禮記』 「曲禮下」: 居喪未葬, 讀喪禮.

IV. 맺는 말

학봉과 서애는 퇴계 문하의 대표적 고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의 한 복판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서 그런지 이들의 학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경세론이나 전란 시 활동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런 중에도 철학이나 문학 또는 경학 분야의 연구는 간간히 발표되기도 하지만 예학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그나마 학봉의 예학은 김언중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몇 편 생산되었으나, 서애의 예학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조선시대 예학사를 논하는 연구자가 16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학봉의 『상례고증』과 서애의 『상례고증』을 논외로 취급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논의는 두 종의 『상례고증』이 조선시대 예학사의 흐름 속에서 갖는 의의를 짚는 정도이지 학봉과 서애의 예학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의 가장 큰 원인은 관련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가 부족한 원인은 학봉과 서애가 서재에 머물면서 예서에 침잠하고 예학을 숙성시킬 만한 시간을 갖기 어려웠고, 그 결과 완성도 높은 예서들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봉과 서애가 각각 부친과 모친의 상을 당해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상례고증』을 생산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틀림없이 의미 있는 예서들을 더 많이 생산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보다는 그동안 놓친 자료가 있었는지를 찾아보고,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예학과 관련한 학봉과 서애의 학술 활동을 검토했다. 먼저 그동안 놓쳤던 자료를 찾는 것과 관련하여, 본고는 학봉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의 행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를 학봉 예학의 범주에서 조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서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신중록』의 서문과 『상장질의』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서애 예학의 한 면모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한 것과 관련하여, 본고

는 그동안 학봉과 서애의 『상례고증』이 모두 『예기』의 내용으로 『가례』를 보완한 예서라는 전제 위에서 서술되던 연구 경향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상례고증』을 편찬한 학봉과 서애가 『가례』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 책들을 편찬한 주된 의도나 목적이 『가례』를 보완한다고 보기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책들은 두 사람 모두 상을 치르는 상황에서 상례의 본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참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엮었을 뿐이라는 가설을 제안했다.

본고는 학봉과 서애의 예학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제를 제시하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일 뿐이다. 학봉이 일본 사행에서 보여준 행적들을 예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더 엄밀한 분석이 더해져야 하고, 서애의 예학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두 종의 『상례고증』에 대해서도 『가례』를 배제하고 『예기』에 집중했을 때 성격 규정과 의미 부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할 것인지 등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좀 더 나아가 학봉의 『상례고증』과 서애의 『상례고증』이 같은 이름으로 쓰인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두 예서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앞으로 밝혀내야 할 숙제들이다.

【참고문헌】

1. 원전

『禮記』

朱熹, 『家禮』

丘濬, 『家禮儀節』

屠義英, 『鄉校禮輯』

金誠一 『鶴峯集』

柳成龍, 『西厓集』

李德弘, 『艮齋集』

金隆, 『勿巖集』

李玄錫, 『游齋集』

柳長源, 『常變通攷』

李頤淳, 『後溪集』

2. 논저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1993.

고영진, 『조선중기예학사상사』, 한길사, 1996.

金彦鍾, 「鶴峯先生の 禮學」,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驪江出版社), 1993.

남재주, 「조선후기 예학의 지역적 전개 양상 연구-영남지역 예학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유권중, 「조선시대 퇴계학파의 예학사상에 관한 철학적 고찰」, 『퇴계학보』 102, 퇴계학연구원, 1999.

유권중, 「퇴계학파의 『예기』 해석에 대한 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36, 2005.

유영옥, 「鶴峯 金誠一の 父親喪 行禮 儀節」, 『東洋漢文學研究』 21, 동양한문학회, 2005.

유영옥, 「『상례고증』 해제」, 『한국예학총서보유』[1],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李佑成, 「鶴峯 金誠一の 朝鮮國沿革考異 및 風俗考異-『大明一統志』 朝鮮關係紀事に 關한 批判에 對하여」,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이현진, 「학봉 김성일의 예학과 『상례고증』」, 『역사문화논총』 4, 역사문화연구소, 2008.

장동우,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진전」, 『태동고전연구』 31, 2013.

장동우의 「17세기 이전 『家禮』 연구서에서 『禮記』를 활용하는 양상과 그 특색」, 『南冥學研究』 70,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1.

하우봉, 「김성일의 예사상과 일본인식」, 『洌上古典研究』 67, 열상고전연구회,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scholarship of hakbong and Seoae from a Yehak's perspective

Han, Jae-hoon*

Hakbong(Kim Sung-il) and Seoae(Ryu Sung-ryong) are Toegye(Yi Hwang)'s most accomplished and highly regarded students.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se two scholars focus on Theory of State Management or their activities during the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ir respective works of Yehak in the history of Joseon Yehak,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on the subject of their works of Yehak. This paper is a preliminary work to examine the Yehak of Hakbong and Seoae on a scholarly level.

At this point, it is believed that two things are necessary to review the Yehak of Hakbong and Seoae. Firstly, the Yehak of the two scholars have been studied by academics, mainly in the context of the book *Sangryegojeung*(喪禮考證), but it is time to expand the circle. For example, in relation to Hakbong's Yehak, it is necessary to examine his actions when he went to Japan as a messenger in 1590, and in relation to Seoae's Yehak,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his problems by using his writings such as the *Sangjangjileu*(喪葬質疑).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flectively reexamine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on *Sangryegojeung*(喪禮考證). In the meantime, *Sangryegojeung*(喪禮考證) have been described as works that utilised the contents of the *Yegi*(禮記)

* Sungkongho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orary Professor /
kjydist@hanmail.net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Garye*(家禮).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make it hard to believe that this was the purpose of compiling the books. So in this paper, I look at the issue from a different angle. In other words, it is hypothesised that during the period of their parents' funerals, Hakbong and Seoae studied *Yegi*(禮記) intensive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rituals, and organised their findings into the category of *Garye*(家禮).

This paper is merely a preliminary attempt to raise some of the question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advance the study of the Yehak of Hakbong and Seoae. Fine-tuning these points is a challenge for the future.

Key word : Hakbong(Kim Sung-il), Seoae(Ryu Sung-ryong), Sangryegojeung, Yehak, *Yegi*, *Garye*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2

■ 기획논문 2 : 전환기 중국 서원의 변모상

- 西方教会的中国书院
- 書院精神在臺灣的實踐 - 以「奉元書院」為討論中心
- 宋朝書院盛行的原因及其與官方的互動關係研究
- 理念与实践的变革 - 晚清书院藏书转型与近代图书馆

西方教会的中国书院*

邓洪波**

- 一. 中国教会书院概况
- 二. 西方教会书院的发展历程与阶段性特征
- 三. 西方教会书院对中国的影响

【국문초록】

교회 서원은 근대 이래로 중국 사회에 출현한 일종의 신형 서원 형태이다. 그 기원은 명대 말기 중국으로 건너온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중국 신자들이 설립한, 교회적 요소를 지닌 서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교회 서원은 중국 외곽 지역으로부터 본토로 진입,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편 전쟁 이후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청 조정의 선교 활동에 대한 정책이 점차 느슨해짐에 따라, 초기 나폴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중국 본토로, 그리고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점차 확장되어, 대략民国 시기에 이르면 적어도 97개의 교회 서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의 교회 서원의 발전은 대략 제2차 아편전쟁 및 서원 개제령을 기점으로 삼아 초기-유성-개혁 총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교회 서원은 중국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하는 매개체로서 중국-서양 세계 간의 문화적 교류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주로 서양의 선진 과학 기술, 교육, 의학, 인권, 관리 등의 지식들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문화 침략’이라는 본질이 숨어있었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주제어 : 서양 교회, 중국 서원, 교회 서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18)

** 湖南大学岳麓书院教授 / denghongbo2000@126.com

【内容摘要】

书院是中国士人的文化教育组织，在长期的发展过程中，它不仅为中国文化的积累和传播作出了贡献，而且也有功于中西文化交流。西学东渐之时，来华的西方传教士将其创立的School·College·Institute·University·Academy等文化教育机构都叫做书院，而且，走向世界的中国士人也将他们在西方见到的近代学堂·学校·图书馆·实验室甚至科学博物馆·展览馆等都称作“书院”，而介绍给国人。这表明，当时的中西人士对“书院”有着一种文化交流的认同感。以下我们将就西方教会书院这一具体的载体来讨论书院所具有的这种文化教育功能。

西方传教士在明代后期进入中国，北京首善书院由东林讲学之士的讲会之所，变为汤若望等传教士主导的历局及至天主堂，使它成为第一个试验西学的标志性场所，而杭州耶稣会士创建的虔诚书院，也成了明代传播西学的第一所具有教会因素的书院。但总体而言，西学东渐，明代仅开其端而已，真正有影响的工作要由清代后朝的教会书院来承担。

教会书院是在中国的西方教会及其传教士们取用“书院”这一中国教学组织的形式，加以西方宗教思想理念以及科学技术·语言文字等内容，在西学东渐大潮中新创造的一种书院类型。它是中西文化交流·交融的结果，为中西文化交流事业，为中国书院的近代化作出了自己的贡献

关键词：西方教会，中国书院，教会书院

一. 中国教会书院概况

教会书院是西方传教士进入中国以后才出现的一种新型书院。传教士与书院的关系有一个从冲突到融合的过程。两者之间最早的接触始于明代末年，据朱彝尊《曝书亭集》卷四十四载，“天启初元(1621)，邹忠介·冯恭定建首善书院于(北京)大雍时坊，为讲学之所。二年，御史倪文焕诋为伪学，是岁毁先圣栗主，燹经籍于堂中，踏其碑。西洋人汤若望以其国中推步之法，证《大统历》之差，徐宫保光启笃信之，借书院为历局，踞其中，更名天主堂，书院废而逆祠建矣”。“逆祠”一词所表达

的怨恨表明,早期来华的传教士对中国书院及其文化功效没有多少认识,更不了解中国士人将其视为与西方文明相对的中华文明象征之一的心态,因而出现了在中国士人看来是属于“冒犯”的改书院为天主堂的行为。如果说这是传教士们无意识的使天主堂与书院间发生相互冲突的话,那么下面的记载,则明确表明了中国士人有意识地将两者相互对立的态度:“理学书院在(连江县)化龙街西,国朝雍正元年(1723),知县苏习礼即天主堂改建”。¹⁾“兴庠书院在(福清县)西隅大街,旧天主堂地,国朝雍正元年(1723)改建”。²⁾这是以理学对抗天主教的强硬行为,反映了当年中西文化交流中所出现的冲撞现象。正是这种冲撞,使得来华的传教士们逐渐认识·了解了书院,于是在中国大地上就出现了前所未有的由西方传教士创办的书院——“教会书院”。据记载,明代末年,杭州耶稣会奉教士大夫杨廷筠在其私宅所建的虔诚书院,以栽培青年才俊,护卫教会,鼓励人人归主为主要目的,³⁾应该算是中国第一所具有教会因素的书院。但它由中国信徒所建,还不是西方传教士所为,因此,只能称作具有教会因素的书院,实为教会书院之滥觞。

“教会书院”的发展有一个自中国外国向本土发展的过程。传教士创办最早的书院当属马国贤的文华书院。马国贤(Matheo Ripa)是意大利天主教布教会教士,清康熙四十九年(1710)来华,任宫廷画师,颇得康熙皇帝器重。雍正元年(1723),他率谷文耀等四名中国青年返国,次年抵达意大利。历经八年奔走,始于1732年(雍正十年)获得罗马教皇批准,在那不勒斯为留学华人设立一所书院。该院本名圣家书院(Collegio dei Chinesi),亦名圣家修院,又名中国学院,国人则称作文华书院。书院最初专收中国学生,意在培养传教士,后来兼收有志到远东传教的西方人·土耳其人,经费由教会提供,学生毕业后授予学位。据统计,自创办到同治七年(1868)被意大利政府没收止,历时137年,先后招收中国学生106人,成为早期旅欧留学生的主要求学之所。⁴⁾

1) 乾隆《福建续志》卷二十。

2) 乾隆《福州府志》卷十一。

3) 黄新宪:《基督教教育与中国社会变迁》(福州:福建教育出版社,1996),第39页。

4) 参见周谷平:《明清之际来华耶稣会士与西方教育的传入》,载《华东师范大学学报》

到清嘉庆十二年(1807),英国伦敦教会教士马礼逊(Robert Morrison)来华传教,是为基督教新教自西徂东之始。不到四年(1811),清政府重申禁止西方传教士传教令,马氏等只得移往南洋华侨聚居区图谋发展。1818年(嘉庆二十三年),马氏与伦教会的另一传教士米怜(William Milne)合作,在马六甲创建英华书院(Anglo-Chinese College)及印刷所,编发《中英杂志》,在华侨中传播新约。为了传教,马氏先后完成了《汉语语法》·《华英字典》·《广东省土话字汇》等著作,1823年(道光三年)又在院中刊印其中译本《圣经》二十一卷。1825年,始招女生入学。1839年汉学家理雅各(James Legge)继任书院院长凡34年,他曾将“四书”·“五经”译成英文,以“The Chinese Classics”为名,分28卷,于1861—1886年间出版。此外还著有《中国人关于神鬼的概念》·《孔子的生平和学说》·《孟子的生平和学说》·《中国的宗教:儒教和道教评述及其同基督教的比较》等,是一位有极大影响的西方汉学家。儒家“四书”·“五经”和基督教《圣经》的互译与传播,对交流中西文化之功是不言自明的。

当马六甲英华书院正卓有成效地开展工作时,1823年,在新加坡的传教士也建立了新加坡书院(Institute of Singapore),接受华侨子弟。至1837年(道光十七年)特设一学部专招华裔,时有中国学生95人肄业其中。1839年传教士又在巴达维亚(Batavia)创立中国书院(The Chinese Seminary),作为传播交流中西文化之所。⁵⁾

1840年鸦片战争,殖民主义者用大炮战舰打开了中国的大门,传教士随之进入通商口岸及附近地区,教会书院遂出现于中国本土,先是马礼逊书院于道光二十二年(1842)在香港建立,上述马六甲英华书院也于次年(1843)迁往香港。其后,作为教会教育事业的一部分,教会书院由通商口岸推进,在中国本土开始了其发展历程。据统计,⁶⁾到民国时期,全国至少有97所教会书院,兹将各书院情况列作表如下。

(教科版)1989年第3期。

- 5) 王树槐:《基督教教育会及其出版事业》,转引自陈学恂《中国近代教育史教学参考资料》下册,第97页。
- 6) 参见《近代来华外国人名辞典》(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1);陈学恂:《中国近代教育史参考资料》(北京:人民教育出版社,1986);[美]杰西·格卢茨:《中国教会大学史》(杭州:浙江教育出版社,1987);《香港教育手册》(1988);《基督教教育与中国社会变迁》(福州:福建教育出版社,1996);刘海峰等:《福建教育史》(福州:福建

中国教会书院一览表

院名	院址	创建时间	创建人或单位	备注
马礼逊书院	香港	道光二十二年(1842)	马礼逊基金会	
英华书院	香港	道光二十三年(1843)	英国伦敦会	1818年建于马六甲
圣保罗书院	香港中环铁岗	道光二十九年(1849)	英国圣公会	
圣保罗女书院	香港		圣保罗书院兼办	
巴陵书院	香港马礼逊山	咸丰元年(1851)	德国义信会郭士立	
维多利亚女书院	香港九龙	咸丰十年(1860)	英国圣公会	
中央书院 (皇仁书院)	香港	同治元年(1862)	英国教会	光绪十五年改名皇后书院即维多利亚书院,二十年再改名皇仁书院
西医书院	香港	光绪十三年(1887)	伦敦布道会	孙中山曾肄业于此
心光书院	香港九龙土瓜湾	光绪二十三年(1897)	德国嘉迪堪会宝女士	专教盲女
嘉诺撒圣心书院	澳门	咸丰十年(1860)	意大利嘉诺撒仁爱修会	
拔萃女书院	澳门	咸丰十年(1860)	英国圣公会	
嘉诺撒圣芳济书院	澳门	同治八年(1869)	意大利嘉诺撒仁爱修会	
圣约瑟书院	澳门	光绪元年(1875)	天主教会	
圣玛利书院	澳门	光绪二十六年(1900)	意大利嘉诺撒仁爱修会	
圣保罗女书院	澳门	1914	英国圣公会	
英皇书院	澳门	1926	英国教士莫理士	
圣嘉勒女书院	澳门	1927	加拿大天主教会	
玛利诺书院	澳门	1927	美国教士玛利诺	
喇沙书院	澳门	1932	天主教喇沙会	
真光书院	广州	咸丰元年(1851)	北美长老会夏礼	专收女生
英华书院	广州	咸丰二年(1852)	美传教士何伯林	
致格书院	广州沙基	光绪十三年(1887)	美国长老会哈巴安德	
培正书院	广州	光绪十六年(1890)	美国南部浸信会	
明心书院	广州芳村	光绪十七年(1891)	美国长老会赖马女士	招女童
圣心书院	广州	光绪末年		
理学堂大书院	台湾淡水	光绪八年(1882)	加拿大海外宣教会马偕	
英华书院	厦门	道光三十年(1850)	伦敦会施敦力	
寻源书院	厦门	光绪六年(1880)	美国归正会	
培元书院	福建莆田	光绪四年(1878)		
保罗福音书院	福州	咸丰二年(1852)		
潞河书院	福州	咸丰三年(1853)	美国教士卢公明	
格致书院	福州	咸丰三年(1853)	美国公理会	
福音书院	福州	同治十年(1871)	美国美以美会武林吉	

人民出版社, 1996); 季啸风:《中国书院辞典》(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6).

院名	院址	创建时间	创建人或单位	备注
培元书院	福州	同治十年(1871)	美国美以美会武林吉	
广学书院	福州	光绪四年(1878)		
鹤龄英华书院	福州	光绪七年(1881)	美国美以美会麦利和	
圣马可书院	福州		美国圣公会	
英华书院	福州		美国圣公会	
三一书院	福州		美国圣公会	由圣马可与英华合并而成
圣学书院	福州			
真学书院	福州			
华英斐迪书院	宁波	同治三年(1864)	英国偕我公会	
三一书院	宁波	光绪二年(1876)	英国安立甘会霍约瑟	
养正书院	宁波	光绪六年(1880)	美国浸礼会卫克斯	
长老会书院	宁波	光绪六年(1880)	美国长老会	
崇信书院	宁波	光绪七年(1881)	美国长老会麦嘉狄	
华英书院	宁波	光绪十九年(1893)	英国基督教会华伊莱沙白	
圣道公会书院	宁波	清末	英国圣道公会	
虔诚书院	杭州	明末	耶稣会教士杨廷筠	
育英书院	杭州	同治六年(1867)	美国长老会	
清心书院	上海	道光三十年(1850)	美国北长老会范约翰	
圣芳济书院	上海	同治二年(1863)		
培雅书院	上海	同治四年(1865)	美国圣公会	后并入圣约翰书院
虔恩书院	上海	同治五年(1866)	美国圣公会	后并入圣约翰书院
圣约翰书院	上海	光绪五年(1879)	美国圣公会施约瑟	
中西书院	上海昆山路	光绪七年(1881)	美国监理会林乐知	
圣马利亚女书院	上海	光绪七年(1881)		
麦伦书院	上海	光绪末	英国伦敦会	
存养书院	苏州十全街	同治十年(1871)	美国监理会曹之实	
博习书院	苏州天赐庄	光绪五年(1879)	美国监理会林乐知	
中西书院	苏州宫巷	光绪二十年(1894)	美国监理会孙乐文	
秀州书院	嘉兴	光绪末年		
汇文书院	南京干干河	光绪十四年(1888)	美国美以美会博罗	后与宏育合并成金陵大学
基督书院	南京鼓楼	光绪十七年(1891)	美国基督教会美在中	后并入宏育
益智书院	南京户部街	光绪二十年(1894)	美国长老会	后并入宏育
宏育书院	南京	光绪三十二年(1906)	美国传教士	后与汇文合并为金陵大学
德华书院	青岛	光绪二十四年(1898)	德国路德会昆祚	
礼贤书院	青岛	光绪二十七年(1901)	德国同善会卫礼贤	
登州书院	山东登州	同治三年(1864)	美国长老会狄考文	
广德书院	山东青州	光绪二十年(1894)	英国浸礼会库寿龄	
郭罗培真书院	山东青州	光绪十一年(1885)	英国浸礼会	
广文书院	山东潍县	光绪三十年(1904)	美英两差会	合并登州·广德而成
文美书院	山东潍县	光绪九年(1883)	美国长老会狄乐播	
文华书院	山东潍县	光绪二十一年(1895)	美国长老会狄乐播	专招女生
新学书院	天津	光绪二十八年(1902)	英国伦敦会赫立德	

院名	院址	创建时间	创建人或单位	备注
中西书院	天津	光绪末年		
潞河书院	通州	同治六年(1867)	英国公理会委戴德	
瞽目书院	北京	同治九年(1870)	英国长老会莫伟良	
汇文书院	北京	同治十年(1871)	美国美以美会	
慕贞书院	北京	同治十一年(1872)	美国美以美会	
怀理书院	北京东城	光绪十一年(1885)	美国美以美会	后改名北京汇文
北京汇文书院	北京东城	光绪十四年(1888)	美国美以美会	
协和书院	北京	清末		
文会书院	沈阳	光绪末		
培文书院	开封	清末	西方教会	
同文书院	九江	光绪七年(1881)	美国美以美会库思非	
南伟烈书院	九江	清末		
博文书院	九江	清末		
文华书院	武昌	同治十年(1871)	美国圣公会	
博文书院	武昌	光绪十一年(1885)	英国循道公会	
训女书院	汉口	光绪二十二年(1896)	英国循道公会	
博学书院	汉口	光绪二十五年(1899)	英国伦敦会杨格非	
湖滨书院	湖南岳州	光张二十九年(1903)	美国复初会海维礼	
路德书院	湖南益阳	清末	瑞典差会	
辣丁书院	南宁	光绪二十六年(1900)	法国天主教罗思思	
法中文书院	南宁	光绪二十八年(1902)	巴黎外方传教会	
辣丁书院	广西桂平白沙圩	1929年	法国天主教会	
公义书院	重庆	清末	法国传教士古洛东	

以上97所教会书院,分布在中国香港·澳门·广州·淡水·厦门·莆田·福州·宁波·杭州·上海·苏州·南京·嘉兴·青岛·登州·潍县·青州·天津·通州·北京·沈阳·开封·九江·武昌·汉口·岳州·益阳·南宁·桂平·重庆等30个城市,前六位是福州·澳门·香港·上海·宁波·广州,分别为12·10·9·8·7·6所。以创建年代统计,明末1所,清道光5所,咸丰10所,同治15所,光绪48所,清代末洋年份12所,民国6所,最多的是光绪年间,占到总数的一半以上。以教会所属国别统计,则有英国·德国·法国·美国·加拿大·瑞典·意大利等7国,其所建书院分别是23·4·4·42·2·1·3,不洋国别17所,另有1所为英美两国教会共建。其中美国·英国分别占总数的43.29%·23.71%,可知美国后来居上,超过老牌的英国成为中国教会书院的主要创建者。

二. 西方教会书院的发展历程与阶段性特征

中国本土教会书院的发展,有70余年的历史,按照其阶段性特征,大致以第二次鸦片战争·书院改制为标志,可以划分为三个时期。

两次鸦片战争之间,即道光至咸丰年间(1842—1861)为第一个时期,约20年。《南京条约》签订后,传教士得以进入“国中之国”的通商口岸传教,但清政府禁止传教士传教的禁令仍然有效。由于禁令的威慑作用,传教士的活动不很活跃,这个时期只有15所教会书院建立,其中著名的有三所,它们是:1850年莫伦敦教士施敦力(Alexander Stomach)在厦门建立的英华书院(Anglo-Chinese Boarding School),这是一所程度在中小学之间的学校;次年,美国北长老会女教士夏礼将始建于澳门的女塾迁至广州,改名真光书院,专招女童肄业;同年,德国信义会教士郭士立则建巴陵书院于香港马礼逊山,亦招女生肄业。

这个时期共建有书院15所,分散于香港(5)·澳门(2)·广州(2)·厦门(1)·福州(3)·宁波(1)·上海(1)七个城市。这些书院有一个共同点,就是程度较低,规模较小,因而影响也不大,加以整个数量太少,故是期只能视为教会书院站稳脚跟的初始时期,或者称作下一个发展时期的准备阶段。即使这样,招收女子入学之举,对重男轻女的中国的冲击力则不能小视,它给古老沉闷的社会带来了一股清新之风。

第二个时期,从第二次鸦片战争失败签订不平等条约开始,至1900年止,即同治至光绪二十六年(1900),约40年,是教会书院的兴盛时期。咸丰十年(1860),第二次鸦片战争以中国的失败而告结束,清政府被迫与列强签订了《天津条约》·《北京条约》。条约中有关于准许外国人到中国内地自由传教,交还教产与天主教堂的条款,标志着中国政府对教会已不存在威慑力。传教士正是利用外国侵略者强加给中国的平等条约的保护,迅速从沿海少数几个口岸推进到内地,教会书院亦由原来的广州·厦门等地,发展到淡水·莆田·杭州·苏州·南京·九江·武昌·汉口·益阳·登州·青州·通州·北京·沈阳·开封·南宁·重庆等城市,这个时期新建的书院有50余所,比上一个时期增加了3倍多,相比之下,发展是迅速的。

教会书院的发展是因为其教学内容中的一部分受到洋务派·维新派等官吏和寻

求新知的中国知识分子的欢迎,从而部分改变了其形象,而不致像前一个时期受到普遍敌视。如上海中西书院的林乐知等出任江南制造局的翻译,编辑的《西国近事汇编》·《万国公报》等成为当时中国官绅获得“新学”知识的重要来源;登州书院(文会馆)狄考文编写的《代数备旨》·《形学备旨》(几何)·《振兴实学记》及狄氏继任者赫士所编的《对数表》·《声学揭要》·《热学揭要》·《光学揭要》·《天文初阶》·《天文揭要》·《是非学体要》(逻辑)等学科的教科书得到各地书院和一些新设学堂的欢迎而广为发行。苏州博习书院潘慎文所编译的代数与机械学书籍亦为各地广为采用。

传播科学使教会书院受到欢迎,得到发展,但当时的传教士普遍认为,科学“是上帝特别赋予教会去打开异教邪说的大门的工具和争取人们信仰福音的手段”,⁷⁾也就是说教会书院传播科学的目的最终是用基督教统治中国,这就使得“欢迎”的程度大打折扣。因为一般的中国士人都认为,为了学习西方语言文字和数学等科学知识而不得不屈从基督教是难以付出的太高的代价。如张之洞尽管想让其孙进武昌文华书院(又作文氏学堂)学习,并愿意提供经济资助,但不愿参加宗教礼拜,因其要求遭到拒绝而只好作罢。⁸⁾教会书院以传播福音为第一或主要目的,使它不能从根本上改变中国人对它普遍的敌视态度,人们仍然将它看作是西方殖民主义压迫中国的化身之一而加以反对。因此,它只能在殖民主义势力直接保护下的几个中心城市得以建立·生存,以每年一所多一点的缓慢速度发展着。而当中国人民对教会与外国侵略者的不满以义和团运动的形式猛烈爆发出来时,即使这种缓慢的发展也受到了打击。如上海的圣约翰书院·杭州的育英书院·广州的格致书院等先后停学,通州的潞河书院则被愤怒的民众焚烧。⁹⁾

大发展时期的教会书院,有比较明显的阶段性特征。对此,黄新宪先生作过令人信服的概括,¹⁰⁾大致而言,有如下几条值得注意。第一,教会书院的招生对象从贫

7) 狄考文:《基督教会与教育的关系》,载陈学恂《中国近代教育史教学参考资料》下册,第1-12页。

8) 参见《中国教会大学史》第41页。

9) 参见《中国教会大学史》第86-87页。

寒子弟转向精英阶层。教会书院在初创时期,大量招收来自清寒之家的学生,对他们不但免交学杂费,食宿衣着和书籍文具亦悉由院方提供。后来,随着学生人数的增加,相当一部分教会书院便不再关注清寒子弟的教育问题,他们认为,教会没有必要在中国不断地为乞丐开办义务学校,而要让富有的和聪明的中国人先得到上帝之道,再由他们去广泛宣传福音。这一观点颇具代表性,反映了处在社会转型时期的教会书院,其教育对象的明显转移。另外,为适应洋务运动所带来的社会的急剧变化,以便能在中国真正立足,教会书院在培养目标上也进行了适时调整,强调以培养通晓西学,熟习洋务的人员为主,主张书院不再只是教牧人员的养成所。据统计,武昌文华书院在1894年以前的20余年间曾有300余名学生毕业,但从事教会工作的不足15人。显然,让更多的毕业生活跃在政治·经济·商业等领域,更符合教会的切身利益。又由于教会书院多设在沿海通商口岸,与当地的洋务机构及外国人把持的海关·洋行等有着密切的联系,毕业生的出路大多较为保险,这对官僚富绅家庭很有吸引力,纷纷送子弟入学,以至有的书院人满为患。上海中西书院刚开办时招收200名学生,到1882年1月,学生数即达330名,因校舍所限,尚有许多申请者未能入学。

第二,教学课程中西并重,在尊重中国传统的同时,又大力推销西学·西艺等西方文化科学知识。教会书院在课程设置上标榜中西学并重,有的要求学生熟读孔孟经书,了解中国传统文化;有的鼓励学生钻研八股试策,为参加科举考试作准备。但教会书院为适应社会对西学的追求,确定课程的主干部分是西学,而不是中学。“中学”课程仅聊备一格,教授“中学”的教师被学生戏称为“冬烘先生”。当时,多数书院都设置了一批近代课程。福州鹤龄英华书院开设有数学·代数学·几何学·电学·格物学等课程;上海中西书院开设有数学启蒙·代数学·勾股法则·平三角·弧三角·化学·重学·微分·积分等课程。有的书院还设置了小型天文观察台·格致房·机器房等,供学生学习西学时实习操作之用。山东登州书院建有物理·化学实验室和机

10) 黄新宪:《教会书院演变的阶段性特征》,载《湘潭大学学报》,1996年第6期。又载其《基督教教育与中国社会变迁》第297-307页。以下三点皆从中摘引提炼。

械厂·发电厂·天文台等。圣约翰书院甚至花费巨资兴建“格致楼”，内设物理·化学等专门实验室。对英语教学，一般教会书院亦很重视。圣约翰书院负责人卜舛济在呈交圣公会的一份报告中列举了教授英语的四大好处：(1)能增长中国人的智慧；(2)消除中国人排外之成见；(3)促进东西方的了解，扩大国际贸易；(4)使中国人了解教会学校培养人才，为社会服务的宗旨。1896年以前，圣约翰书院的医学·神学两科的所有课程及文理科中的自然科学课程均要求用英文讲授。学生在课堂内外也一律要使用英语。上海的中西书院，从学生入学的第二年起，便实施英文的强化教育。此外，教会书院还重视艺术教育，安排学习琴韵等，以陶冶身心，提高文化素养。教会书院的主持人为了吸引士绅，取得他们的好感，往往宣称其课程设置是中西结合的完满体系，而不仅仅是传授西学。实际上，无论从课程门类的比例上，抑或从课时上比较，“中学”均不及“西学”，但这种宣传也反映出教会书院对中国传统文化的迁就。

第三，教会书院的教学形式基本是沿用西方当代学校的形式。教会书院借鉴当时西方国家学校的授课形式，突出教学层次，使得教学能够循序渐进，由浅及深，由易及难。圣约翰书院分正馆与备馆两级，正馆即正科，亦称特班，备馆即预科，学制皆为4年。中西书院仿照美国式的教育制度，实行完整的三级教育(初级·中级·高级)，总学习年限为8年，学生由低及高，依次递进。分级教学的方法，中国虽曾有少数书院用过，但没有学制4年·8年的限制。而且，大多数教会书院实行班级授课制。这在国人的旧式书院中也是罕见的。这些无疑会对传统书院的教学模式形成冲击。

第三个时期，从光绪二十七年(1901)开始，直至民国初年，即20世纪初十余年时间，它是教会书院的改革·改制期。在此之前，中国传统书院的改革已开始进行，戊戌变法时，光绪帝即下令改书院为各级新式学堂。虽然维新失败，改革受挫，但不到四年，慈禧再令改书院为学堂，随又确立了壬寅癸卯(1902-1903)学制，于是具有近1300年历史的古老书院遂过渡到近代学堂，完成了从古代向近现代的飞跃。受其影响，教会在这段时间内只建立了上海的麦伦书院(Medhurst College)·天津的新学书院(Tientsin Anglo-Chinese College)·中西书院·潍县的广文书院(Shantung Union College)·岳州湖滨书院等少数几所书院。其中的广文书院还是美国长老会

的登州书院与英国浸礼会的广德书院合并而成的, 亦称广大大学·山东联合大学. 大多数先前建立的书院, 亦与全国书院同步进入了改革过程. 如广州格致书院, 光绪二十九年(1903)改为岭南学堂, 1926年改名岭南大学. 在上海, 光绪三十一年(1905)美国圣公会将其所属的圣约翰·培雅·度恩三书院合并为圣约翰大学. 在南京, 光绪三十二年(1906)美国基督会的基督书院与长老会的益智书院合并为宏育书院, 宣统二年(1910)宏育又与美以美会的汇文书院联合, 改建为金陵大学. 上述山东潍县的广文书院, 也于光绪三十一年(1905)与青州的郭罗培真书院及济南的共和医学堂联合, 改称山东新教大学, 宣统元年(1909)改名山东基督教大学, 至1931年改名齐鲁大学. 虽然有的书院晚至20世纪20-30年代还未改名, 但统计表明, 民国期间教会只创建了6所书院. 这说明模仿中国书院(或者说为了迎合中国士人)而产生的教会书院, 随着中国书院历史的完结, 也走完了它自己的道路.

三. 西方教会书院对中国的影响

教会书院是教会为了在中国顺利传播福音而建立的教育机构, 它取名不用西方当时通行的学校·学院·大学等, 而采用当时中国通行的“书院”, 这即如前所述, 是自明末以来西方传教士认识·了解·认同中国文化的结果. 为了传播福音于中国这一同样的目的, 传教士十分重视在书院中用中文与汉语传教·教学, 对此山东登州书院的创始人美国传教士狄考文在1890年的基督教在华传教士大会上曾作专门论述.¹¹⁾ 用中国语言与文字传教的要求, 使得来华的传教士必须首先学习了解中国文化, 而学习了解的过程, 实际上即是一种文化的交流. 待到传教士在书院用中文向中国教徒和学生传教·授课时, 传教士就成了中西文化联系的纽带, 因而教会书院也就成了名副其实的融通中西文化的实体, 代表西方文明主要精神的基督教教义与

11) 见狄考文:《如何使教育工作最有效地在中国推进基督教事业》, 载陈学恂《中国近代教育史教学参考资料》下册, 第12-15页.

反映东方文明主体精神的儒家思想在这里相聚·相撞·相融,使得它成为近代中国吸收西学的重要园地,为中西文化交流尤其是西学东渐作出了重要贡献。

谈到了教会书院的文化功效,我们必须首先看到它是西方殖民主义者侵华的产物,为西方在华的侵略利益服务,亦得到侵略势力的保护,使中国基督化的口号反映了文化侵略的面目,这一点我们从前述其发展历史中就可看出,这是传教士的主观愿望所在,亦是教会书院的宗旨,从文化交流的趋势上看它是反动和消极的。

当然,这只是事物的一方面,另一方面,从客观上看,教会书院又有有功于中国文化发展的一面,概括起来讲,至少有如下几点:

第一,它将近代西方科学知识列入课程,是近代中国传播科学技术的重要基地。如属于中等教育的福州鹤龄英华书院的课程,除中英文《圣经》与中西文史等内容外,还有数学·代数学·几何学·身体学·体操·格物学·电学等。¹²⁾属于高等教育的上海中西书院,其监院林乐知所订的《课程规条》定有有关近代科学知识的数学启蒙·代数学·勾股法则·平三角·弧三角·化学·重学·微分·积分·航海测量·天文测量·地学·金石类考(地矿)等课程。

第二,与其它教会学校一起,它是在中国学校最早开展科学教育的单位之一,编写了比较完整的科学教育教材,建立了科学实验室和附属工厂等,为近代中国的科学教育工作提供了经验。如狄考文在山东登州书院就编有《代数备旨》·《形学备旨》(几何)·《振兴实学记》·《理化实验》·《电学全书》·《电气镀金》·《测绘全书》·《微积习题》等,并建有物理·化学两个实验室,机械·发电两个工厂及天文台等。

第三,传播西医知识,开设新式医院。如上海圣约翰书院光绪六年(1880)即设医学,派教士文恒理(H. W. Boone)主持其事。英伦敦布道会光绪十三年(1887)在香港设有西医书院,十八年(1892)孙中山先生毕业于此,成为第一届学生之一。

第四,招收女生,开中国女子教育之先河。咸丰元年(1851),北美长老会在广州建真光书院,专招女生,民国时改为真光女中。光绪七年(1881),上海建有圣玛利

12) 福州鹤龄英华书院规章制度,载邓洪波《中国书院学规集成》,中西书局,2011年版第556-566页。

亚女书院 上海中西书院虽不专招女生, 但设有“女师教授女生课程”.

第五, 教会书院从本质上看是移植到中国的西式学校, 西式的管理(如分班教学)·西式的课程·西式的教学方法(如培养思维能力)以及由此而构成的西方学校的气氛, 对它原来模仿的对象—传统的书院—形成了一种压力, 使其变通·改革, 反过来模仿模仿者, 最后走上了从古代向近代的过渡之路.

【参考文献】

乾隆《福建续志》卷十二.

乾隆《福建续志》卷二十.

参见周谷平：《明清之际来华耶稣会士与西方教育的传入》，载《华东师范大学学报》(教科版)1989年第3期.

王树槐：《基督教教育会及其出版事业》，转引自陈学恂《中国近代教育史教学参考资料》下册，第97页.

陈学恂：《中国近代教育史参考资料》(北京：人民教育出版社，1986).

[美]杰西·格卢茨：《中国教会大学史》(杭州：浙江教育出版社，1987).

刘海峰等：《福建教育史》(福州：福建人民出版社，1996).

季啸风：《中国书院辞典》(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6).

Abstract

The Chinese Seowon of the Western Church

DENG, HONGBO*

A church seowon is a new type of seowon that has emerged in Chinese society since modern times. Its origin can be traced back to a seowon with a church element established by Chinese believers who were influenced by missionaries who came to China at the end of the Ming Dynasty. Church seowon went through the process of entering and developing the mainland from the outer regions of China. As the Qing Dynasty's policy on missionary activities gradually loosened due to the invasion of Western powers after the Opium War, it gradually expanded from Naples, Malaysia, and Singapore to mainland China, and from the coast to the inland, and it seems that at least 97 church seowon existed by the tim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velopment of church seowon in mainland China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early-fungling-reform, roughly starting from the second Opium War and the enactment of seowon. As a medium for converging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church seowon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the Western world and mainly spread knowledge such as advanced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medicine, human rights, and manageme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ssence of 'cultural aggression' was hidden behind it.

* Yuelu Academy Professor / denghongbo2000@126.com

Key word : The Western Church, Chinese Seowon, A church seowon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書院精神在臺灣的實踐

—以「奉元書院」為討論中心

吳進安**

- 壹. 前言
- 貳. 臺灣書院的發展回顧
- 參. 奉元書院之成立緣起與目標
- 肆. 奉元書院之當代意義
- 伍. 結語

【국문초록】

유가는 선진 시기 ‘顯學’학파 가운데 하나로, 그 가치관과 윤리 사상은 중국인의 사상 및 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唐·宋 兩代 이후 유가 사상은 서원 교육이라는 형식으로 그 사상의 전승 발양을 이루었으며, 아울러 과거 제도와 결합되어 유학의 교육적 특색을 형성하게 되었다. 비록 과거 제도라는 것은 정치적 차원에 그 존재 이유가 있지만, 유학은 여전히 서원 내부에서 유가가 관심을 기울이는 修己安人 및 明倫의 도를 밝히는 사회적 포부를 완전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본고는 1949년 이후 대만 서원 가운데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봉원서원을 탐구한다. 봉원서원은 전통 국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毓鏐 선생의 지도하에서 전통 서원 및 서양의 대학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서원 구조로 나아갔다. 그가 파악한 선현의 지혜와 유가 의리의 전승은 모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미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弦歌가 울려 퍼지고 있다. 봉원서원에서는 기본적인 철학과 보편적 인문학에 대한 포부가 아우러져 여전히 고전 유가 사상과 일맥상승하고 있으며, 유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18).

** 國立雲林科技大學漢學應用研究所名譽教授

가 철학의 가치 및 시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 서원, 유가, 봉원서원, 毓鑒

【內容摘要】

儒家是先秦時期顯學學派之一，它的價值觀與倫理思想影響華人的思想與行為。在唐宋兩朝之後，儒家思想藉著書院教育的形式得到傳承與發揚，並且與科舉制度，結合形成儒學的教育特色；雖然科舉制度有其政治層面存在的理由，但儒學在書院中仍然完整地傳播儒家所關心的修己安人，明人倫之道的社會關懷。本文探討1949年之後在臺灣書院的代表書院—奉元書院，受到傳統國學很大的影響，在毓鑒導師的帶領下，奉元書院走出一條與傳統書院以及西方大學截然不同的書院格局，他把握先賢智慧與傳承儒家·道家義理，皆有可觀之處，而春風化雨數十載，至今仍弦歌不輟。奉元書院在對經典哲理與普世的人文關懷仍然與古典儒家思想是一以貫之，表現儒家哲學的價值性與時代性。

关键词 : 書院·儒家·奉元書院·毓鑒

壹. 前言

儒家由孔子(511-479B.C.)發其端，諸子繼其餘緒，由一私家之學而至西漢武帝(156-88B.C.)時獲得獨尊地位，而成唯一之欽定學派，扮演了文治教化的功能，這種教化功能的傳播是透過兩種管道，一是少數的知識份子對儒學的詮釋與開創，以維繫儒學慧命於不墜；另一則是將儒學義理俗世化於人民百姓，成為世俗生活的常規。因此讀書人傳統上即被賦予如曾子所言「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仁以為己任，不亦重乎？死而後已，不亦遠乎？」(《論語·泰伯》)的道德使命。自儒家取得

知識傳播的主導權後，影響所及即是對儒學傳統的使命繼承與發揚，進而透過科舉考試制度及書院教育將儒學義理傳至民間，所以知識份子乃背負著儒學與儒教的雙重任務。

宋·明兩朝以「書院」為傳播儒學的重鎮，歷史上傳為佳誦與美談的首推朱熹修竣白鹿洞書院，訂立書院的教規與學規，此即是爾後書院「校訓」的起源與基本典範，對於「書院」存在的意義，王陽明之看法可為代表，陽明曰：惟我皇明，…其於學校之制，可謂詳且備矣；而名區勝地，往往復有書院之設，何哉？所以匡翼夫學校之不逮也。夫三代之學，皆所以明人倫，今之學宮，皆以明倫名堂，則其所以立學者，固未嘗非三代意也。然自科舉之業盛，士皆馳騁於記誦辭章，而功利得喪，分惑其心，於是師之所教，弟子之所學者，遂不復知有明倫之意矣。懷世道之憂者，思挽而復之…。¹⁾

儒家何其有幸成為顯學，孔孟之道垂諸後世，慧命之學得以成為俗世社會之價值理據；但何其不幸的是儒學成為統治者御用之學，失去孟子所謂「大丈夫」與「浩然正氣」之志節，而淪為科舉考試之教本，莘莘學子為求功名利祿，不復知明倫之意義與聖賢之道，大道隱晦而不明，術則居廟堂之上，「士」僅稱得上記誦辭章而已，價值判斷之依據唯以功利是尚，故賢者憂。在此情形下，如何力挽狂瀾，繫儒學哲理於不墜，依陽明之見，書院即有設立之必要，方能固我古聖賢之學。書院設立的目的安在？陽明曰：今書院之設，固期我以古聖賢之學也。古聖賢之學，明倫而已。堯舜之相，授受曰：「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斯明倫之學矣。道心也者，率性之謂也，人心則偽矣。不雜於人偽，率是道心而發之於用也。以言其情，則為喜怒哀樂，以言其事，則為中節之和；為三千三百經曲之禮；以言其倫，則為父子之親·君臣之義·夫婦之別·長幼之序·朋友之信，而三才之道盡此矣。舜使契為司徒，以教天下者，教之以此也，是固天下古今聖愚之所同具。…是明倫之學，孩提之童，亦無不能，而及其至也，雖聖人有所不能盡也。人倫明於上，小民親於下，家齊國治而天下平矣。是故明倫之外，無學矣。外此而學者，謂之異端；非此

1) 王陽明：〈萬松書院記〉，《王陽明文集》，（台北：考正出版社），1972，頁21~22。

而論者，謂之邪說；假此而行者，謂之伯術；飾此而言者，謂之文辭；背此而馳者，謂之功利之徒·亂世之政。²⁾

由陽明對「明倫之學」的重視可知：書院設立的目的，即是為重振在功利主義·科舉考試制度下，已然僵化而生命呆窒的心靈，回歸到孔孟微言大義，明人倫之序，達到陽明所稱的「人倫明於上，小民親於下」的意旨。以書院設立的原始目的而言，透過教育手段使知識份子改變功利主義之價值觀，避免陷入「明於小而不明於大」的陷阱，同時在「實踐即是道德」的前提下，將「道問學」與「尊德性」合一，知行合一則儒學之脈將可不斷。當代新儒家之巨擘熊十力對書院以更貼近於哲理的表達方式，道出其中的意涵：

書院性質扼重在哲學思想與文史等方面之研究。吾國年來談教育者，多注重科學與技術，而輕視文哲，此實未免偏見。…至於推顯至隱，窮萬物之本，激萬化之原，綜貫散殊，而冥極大全者，則非科學所能及。…哲學，畢竟是一切學問之歸墟。…若無哲學，則知不冥其極，理不究其至，學不由其統，奚其可哉。…哲學者，所以研窮宇宙人生根本問題，能啟發吾人高深的理想。須知高深的理想，即是道德。從澈悟方面言之，則曰理想；從其冥契真理，在現實生活中而無所淪溺言之，則曰道德。…吾人必真有哲學的陶養，有高遠深微的理想；會萬有而識其源，窮萬變而得其則。極天下之至繁至雜，而不憚於求通也；極天下之至幽至玄，而不厭於研幾也。極天下之至常至變，而不倦於審量也。智深以沈，思睿曰聖；不囿於膚淺，不墮於卑近。以知養恬，其神凝而不亂，故其生活力日益充實而不自知，孟子所謂養浩然之氣者也。³⁾

上舉陽明對書院宗旨的論述，復以民初熊十力先生在《復性書院開講示諸生》一文以證之，二者可說相互呼應，道出書院教育之宗旨，唯以培育浩然正氣之生命氣象而不隨波逐流之士，這是書院教育的終極關懷，亦即是儒門為學與實踐之始，此種精神不因政治扞格而變異，這樣的結果正體現孟子所說：「人人親其親，長其長，而天下

2) 同註1.

3) 熊十力：〈復性書院開講示諸生〉，《十力語要·卷二》，（臺北：明文書局），1989，頁229-257.

平。」⁴⁾的道德內化與實踐的過程。若吾人再從朱熹於白鹿洞書院學規所揭示：「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右五教之目，…學者學此而已。」⁵⁾觀朱熹與陽明二人在哲學進路上雖有不同，但對於明人倫卻是同等重視。

貳. 臺灣書院的發展回顧

在論述奉元書院之前，在臺灣的歷史上，曾有一段超越功利主義·科舉取士的輝煌歷史，即是中國明朝末年鄭成功(1624-1662)治台的明鄭時期(1661-1683)，在書院千年的歷史中，這個期間雖是短暫的二十二年，但其意義與價值是不容忽視的。尤其是從儒家所強調的「春秋大義」之大是大非原則而言，因此簡述此段之內容之後，即越過清領時期與日治時期，進入1949年之後的臺灣。

清朝江日昇在其所著《臺灣外記》一書中，談到台灣書院之創立，追溯到明鄭時期的陳永華⁶⁾對鄭經(鄭成功之子，1642-1681)所說的一段鄭地有聲的規諫，才有「全台首學」之舉。

昔成湯以百里而王，文王以七十里而興，豈關地方廣闊？實在國君好賢，能求人才能以相佐理耳。今臺灣沃野數千里，遠濱海外，且其俗醇；使國君能舉賢以助理，則十年生長，十年教養，十年成聚，三十年真可與中原相甲乙，何愁侷促稀少哉？今既足食，則當教之。使逸居無教，何異禽獸？須擇地建立聖廟，設學校，以收人

4) 《孟子·離婁上》。

5) 朱熹：〈白鹿洞書院揭示〉，《朱子大全》，四部備要文集／卷七十四(台北：中華書局)，1981。

6) 陳永華，字復甫，福建同安人。有睿智，深知安邦定國的道理，明亡時，棄文從武，加入反清陣營，鄭成功父子都對他十分尊敬，並且加以重用，鄭經並請他出任相當於宰相的諮議參軍職務，事無大小，都要先行請教才付諸實行，並令其擔當起經營台灣的重責大任。陳永華建設台灣，親往各地教軍屯田，儲備糧食；教民煮糖晒鹽，以利民生；教所燒磚，改善民居；同時劃定行政區域，勵行里甲互保，使民眾安居樂業。在人民生活物資已不虞匱乏之際，陳永華又建議鄭經興建台灣首座孔廟，獎勵教化，同時規劃一套完整的教育制度來培育，拔擢人才。

材。庶國有賢士，邦本自固，而世運日昌矣。⁷⁾

鄭氏採納其說，而在臺南置聖廟並設明倫堂，開展台灣儒學教育與傳播之學風。雖然這是官方建立的學校機構，但以陳永華剴切之言的背後涵義來說，其設立書院的根本精神與儒家思想與目標是一致的，「風行草偃」與「春秋氣節」於茲顯露。

潘朝陽教授以「抗拒與復振之儒學」⁸⁾稱明鄭時期的儒學思想，若從孤臣孽子的心情來看明鄭時期的儒學學風確屬適當，尤其是陳永華所言的聖王典故，無論成湯·文王皆是以仁義之師，高舉文化復興的大旗，救斯民於水火之中。或許一時偏安海隅而無以重振華夏文明，但透過立聖廟，設學校，儒家精神得以流傳，留下一盞不熄之薪火。這種儒家文化的慧命薪傳，同樣地延續至日據時期(1896-1945)。連橫(1878-1936)所著《台灣通史》的史觀及對各種歷史發展的價值判斷上，亦表現出此種「抗拒與復振」的精神，正也說明儒者除實踐孔子之「君子」的道德人格理型外，更有孟子所說的「大丈夫」浩然正氣的器識與胸襟。連雅堂的《台灣通史·藝文志》即曰：

鄭氏之時，太僕志卿沈光文始以詩鳴。一時避亂之士，眷懷故國，憑弔河山，抒寫唱酬，語多激楚。君子傷焉。連橫曰：吾聞延平郡王入臺之後，頗事吟咏。中遭兵燹，稿失不傳。其傳者北征之檄，報父之書，激昂悲壯，熱血滿腔，讀之猶為起舞，此則宇宙之文也。經立，清人來講，書移往來，曲稱其體；信乎幕府之多士也。在昔春秋之際，鄭為小國，聘問贈答不失乎禮。齊·楚·秦·晉莫敢侵凌。⁹⁾

連雅堂(1878-1936)稱明鄭文章為「宇宙之文」，當以明鄭遺老孤臣孽子之心，秉春秋之筆之志節為價值判斷之理據，雖然明朝國祚已遭清族取而代之，但期待存留一絲一縷文化命脈於海外，其意義乃是面對華夏文明的衰敗與危機，而有待於台島之士的淬勵奮發。陳昭瑛認為明鄭文學除了充滿悲憤抗爭的意識外，亦寓有「不歸之思」及「發現臺灣的熱忱」。¹⁰⁾這即是鄭經所云：「王氣中原盡，衣冠海外留」的遺

7) 江日昇：《臺灣外記》，台灣文獻史料叢刊，(台北：大通書局)，未刊年份，頁236。

8) 潘朝陽：〈抗拒與復振的台灣儒學傳統〉，《明清台灣儒學論》，(台北：台灣學生書局)，2001，頁157~215。

9) 連橫：《台灣通史·藝文志》，(台北：黎明文化公司)，2001，頁743。

民悲情，亦可說是知識份子大是大非的判斷與抉擇。因此宋明儒學發展的價值取向之一，設聖廟與明倫堂，重振理學之風走向經世致用之學，此時期之學風無心學流弊與亡國之痛是有其關聯性。

參．奉元書院之成立緣起與目標

1949年國共內戰告一段落，國民政府播遷來台，許多傳統知識菁英隨之來台，其中即有一位滿清遺老毓鋆（1906-2011），毓鋆全名是愛新覺羅氏，名金成，號安仁居士，生於大清北京，是清朝宗室後裔（禮親王代善後裔），滿洲正紅旗人，儒家學者，創辦奉元書院，以私人講學，外界稱其為「毓老」，在臺灣宣揚中華文化六十餘年。

一．講學事業

根據《無忌錄》中對毓鋆的簡介，毓鋆來臺後「隱於鄉，以讀書自娛，自學卅餘年（按：約指至1970年之時），以《春秋》公羊學之微言大義為用，以《大易》為歸，貫徹群經，成《愛新氏八經微義》（易·書·詩·禮記·公羊春秋·論·孟·孝經）並著《新清史》·《受想行識集》（記乙酉以前事）及《無受想行識集》（記乙酉以後事）等稿」，但是這些書稿未曾出版。

根據奉元書院的網路資料記載，1958年10月，毓鋆開始在家中為外國留學生開課，講授《春秋》公羊家哲學，但為避免政治壓力，最初並不接受本國學生。加州大學洛杉磯分校(UCLA)的理察·魯道夫(Richard Rudolph)是毓老首位外國學生，至1970年初已有十多年之久。其中多數學生已拿到博士學位並在國外各大學任教。這些外國學生共計：33位美國人·2位日本人·2位英國人·1位加拿大人·和1位越南人。美

10) 陳昭瑛：〈台灣詩史三階段的特色〉，《台灣文學與本土化運動》，（台北：正中書局，1996，頁5。

國漢學家中，如簡慕善 (John Jamieson)·席文(Nathan Sivin)·孟旦(Donald J. Munro)·范力沛(Lyman van Slyke)·吉德煒(David Keightley)·魏斐德(Frederic Wakeman, Jr.)·包弼德(Peter K. Bol)·夏含夷 (Edward L. Shaughnessy)·班大為(David W. Pankenier)等多人皆曾受教門下。

1966年受到張其昀先生(中國文化學院創辦人)的一再敦請，同意到中國文化學院(今中國文化大學)任教。1967年9月，毓鋆開始在該校哲學系任教。開設「孔孟荀哲學」·「陸王哲學」·「學庸哲學」和「易經哲學」，下學期擔任系主任，但1968年7月，因人事問題而離職。此後曾受天主教于斌樞機主教敦請，至輔仁大學哲學研究所開課，由1968年7月至1969年9月，只有一學期，1970年，受政治大學哲學系主任趙雅博之邀，至政治大學開課，講授《易經》，但為期也只有一年，至1971年，校方因受政治壓力，沒有續聘，毓鋆此後開始私人講學生涯。

1971年毓老在臺北成功新村(大安區和平東路311巷，今「成功國宅社區」)自宅創設了「天德黌舍」(後改為「奉元書院」)從事私人講學事業。最初只以美國留學生為主，教了不少外國學生，其六十年的傳道與授業生涯，學生遍及政商藝界。毓老宣揚中華文化六十餘年，述而不作，並以傳承中國文化為他畢生最大的志業。毓老的教育是從儒家思想入手，他特別重視《大學》·《中庸》·《論語》·《孟子》的四書教學，所以在「黌舍」讀書，要等上過一年的四書班，才算在「黌舍」入了學籍，也才能選讀五經或諸子等其它課程。

在上世紀70年代，毓老的「天德黌舍」從週一到週五每天晚上都有開課，週一上《易經》·週二上「四書」·週三上《春秋繁露》，週四上「詩·書·禮」，週五上「子書」，包含老子·莊子·荀子·韓非子·孫子·管子等先秦諸子，並涉及《資治通鑑》及《人物志》。直到2008年，以102之高齡仍登壇授課。2011年3月20日於臺北市家中辭世，享嵩壽105歲。

二. 院訓

學由不遷怒 不貳過 臻聖王至德

苑育仁者相 帝者師 履一平要道

和中國古代的書院一樣，奉元書院也有它自己的「院訓」以作為莘莘學子努力的目標。院訓這二句話是將《論語》所言「學而時習之」（《論語·學而》）具體的實踐，為學是立人之本，同時在為人方面則是「不遷怒·不貳過」（《論語·雍也》），所以聖王至德即是落在為學與做人這兩件事上。儒學畢竟要講求實踐，而改變社會價值觀厥為首要，又當從何處入手？自古以來政治即是儒者們所關切的問題，「修己安人」之目標必須要有政治的支持與依託，因此儒家自孔·孟以來所強調的治國之人，即是「帝者師與仁者相」，此角色扮演恰如其份地展示儒家的政治抱負。

進一步言，「學由不遷怒不貳過臻聖王至德；苑育仁者相帝者師履一平要道。」上聯指明學生為學之入門處及高遠目標，亦暗指書院所傳授之學為內聖外王功夫；下聯則指書院所要栽培的學生，是可以實踐止於一·止於至善的仁相帝師，暗指毓老所傳授的全是帝王之學。由此便可見毓老辦學之大氣魄·大氣象·大格局所在。因此毓老亦嘗撰數聯語，如「以夏學奧質，尋拯世真文」，即是要以儒家及諸子學問做為治世·濟世的良方；「看破世情驚破膽，萬般不與政事同」，即說明政治翻雲覆雨，捉摸不定，但卻也可以用之來除患向善，反之不以其道，也可能亡身自斃，得無戒慎恐懼乎！又如「長白又一村，遜國花甲祭」，長白山即清朝龍興之地，又一村則指山窮水複疑無路，柳暗花明又一村來到台灣，毓老在花甲之年(60歲)領悟到不再以「復國」(復興清室)的民族主義侷限自己，而是以發揚中國天下文化的奧質，當作自己安身立命以及作為大學之門之所在。

三、學海津梁，貽範永馨

正因為毓老長年投入非屬正規教育體制的書院，因而作育英才·春風化雨之結果，在其過世之後，中華民國馬英九總統曾明令褒揚其投入中華文化傳薪與傳承，開創了正規大學之外的另一教育模式，繫傳統書院的精神於不墜，褒揚令如下：

當代經學家劉柱林，本名愛新覺羅毓鋆，沈潛醇謹，識度清邁，幼歲爛誦四書五經，修習格致西學，及長負笈日本·德國，覃思邃密，績學博文。隻身來臺後，曾遠

赴臺東部落執教，啟迪沾溉，嘉惠原鄉。嗣任教國立臺灣大學·政治大學暨輔仁大學·文化大學等校，闡揚儒學經典奧旨，析論法家治術精微。志道游藝，桃李門牆。復開辦奉元書院，暢申修齊治平哲理，厚植庠序教化功能，勤摠澹泊，述而不作；樂育宣劬，濟濟多士。綜其生平，流風德澤，見淑世牖民之深衷；紹統延緒，成中華文化之薪傳，學海津梁，貽範永馨。遽聞上壽捐館，軫悼殊殷，應予明令褒揚，用示政府篤念耆碩之至意。

肆. 奉元書院之當代意義

中國書院自宋朝以來即以民間講學方式與正式學制的教育體系產生一種緊張並帶有針貶意涵的儒者之風。對於官辦儒學造成一定程度的影響力。1949年之後，流落於海外的中國儒者，分別秉持儒者·智者的風骨，自創門戶，為傳承中國儒家的「共命慧」而努力，其中較為知名且具影響力的有錢穆先生於香港創辦新亞書院（今香港中文大學學院之一），在臺灣則以毓老創辦的「奉元書院」為著，在義理的傳承與詮釋上，秉春秋之筆而能直指社會與文化問題之弊。奉元書院在毓老苦心擘畫之下，走出一條與現代大學的不同格局。吾人認其當代意義有如下數端。

一. 書院的真精神(人格與理想)在民間

書院之名由來已久，且為儒學與儒教的象徵，亦示儒學義理走向民間而產生新生命。書院之原意為舊時私人教學讀書的場所，唐玄宗(685-762)置麗正書院，集文學之士，為中國書院設置之始，此後盛行於宋·明二朝。《五代史平話·漢史·卷上》：「慕容三郎是個有田產的人，未免請先生在書院教導義男劉知遠讀習經書。」《三國演義》第二〇回：「晨起，復至書院中，將詔再三觀看，無計可施。」¹¹⁾歷歷可考。

11) 周愚文：〈書院〉《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2000年12月。

宋朝時期之書院，創設者多為私人，少數為官立；其宗旨在進德修業，而非求科舉功名。講學、藏書及供祀是其三大事業。書院之設立，是將以往私人講學形成有組織的教育機構，由山長主之，另有副山長、講書、說書、堂講、齋長或助教等職事助之。其經費主要來自私人捐撥或官撥之田產，或官捐之俸祿。書院所授內容，仍以儒家經典為主，理學家著重四書，呂東萊等重史學。教學方法，有講演、講會、高第相授及自學等。書院教育，頗重視學生人格陶冶，朱熹所訂〔白鹿洞學規〕，為後世採用。周恩文認為書院教育之主要精神有三：(1)摒除功利思想，為學但求放心；(2)注重師生倫理關係；(3)注重自由講學。宋代書院對後世之主要影響有二：(1)在官學制度外，另建立一種私人教育機構之典型；(2)促使後世理學之發達。¹²⁾

奉元書院之創立，其精神即在於上述三則理念而能一以貫之，可說是直承宋代民間書院的真精神。曾於奉元書院之學生都應感念毓老他留下來最大的資產即是「人格與理想」二者，有別於西方式大學的教育模式。立基傳統，創造儒學的當代意涵。

西方式的大學講求分科專業教育，從教育的目的性來說，人只是社會機器、國家機器御用的工具而已，有的大學甚至淪為職教訓練的場所，離真正的大學目的已遠，可說是「失之毫釐，差之千里」。奉元書院的教育視人為目的，並不把西方科學理論視為第一且必要，而是培育人格的清明與尊嚴為首要，人格教育必當從經典中學習，這即是奉元書院所標榜的「以夏學求真文」，書院定期開設國學班，舉辦研討會，致力弘揚經典，推動成為當代知識份子的精神家園，鼓勵弟子們以智慧解決時代問題，以膽識擔當歷史責任。毓老認為書有古今，智慧無古今，應知行合一，從實踐中培養處世應世的智慧，體現儒家經典是活水源頭，而非僅是知識的傳授而已。令人驚嘆而佩服的是奉元書院牆上還掛著「天德覺舍」舊課表，課表上寫著週一至週六晚上七點至九點皆有課，週一上「四子書」，週二上「大易」，週三上「詩書禮」，週四上「大易」，週五上「春秋」，週六上「子書」(子書包含《老子》·《莊子》·《荀子》·《韓非子》·《孫子》·《管子》等先秦諸子，並涉及《資治通鑑》及《人物誌》)。當時還有選課規定，必須先選修四書一年，然後才能選讀其他課程。而進書院讀書必須有人介紹，經同

12) 同註11。

意後才可聽講，聽講後不久還必須寫一篇自傳，讓毓老師過目，可稱嚴師。

二、傳承儒學化育人才蔚為國用

立基於民間儒學立場，而有別於官方儒學的意識型態，因為一旦墜入官方儒學之巢臼，則活活潑潑的儒學生命氣息即戛然而止，歷代以來的知識階層，基本的心態即是「學而優則仕」，但是為官之道卻與儒學義理大相逕庭，才有清朝初年大儒顧炎武(1613-1682)所言「士大夫之無恥是謂國恥」之說，因此民間書院之創辦者絕意仕途，不隨波逐流，而存方寸之儒學淨土，奉元書院亦是如此，毓老之初衷雖非純為儒學教化，但是當他目睹社會沉淪，知識份子袖手旁觀，在「士大夫無恥是謂國恥」的鞭策之下，毅然決然投入民間書院六十餘載，門下子弟重新研讀四書及老、莊經典，許多從事於政治事務上的人士，經由經師與人師之點化與教誨，以氣節為重，而有截然不同的官場形象與文化，深刻地影響數代人，至今仍然春風化雨，盡知識分子之職責於不墜。

伍、結語

毓老以一介書生，抱持「風聲雨聲讀書聲，聲聲入耳，家事國事天下事，事事關心」（東林書院院訓）之胸懷，披荊斬棘，以啟山林，創建書院，為臺灣正規大學教育制度之外的奇葩，可以說是亙古未有的教育事功。儒家言「三不朽」（立德・立功・立言），毓老可稱無人能出其右，他為傳統文化的傳播立下典範，又能在正規學術殿堂之外博學弘儒，誨人不倦，針砭來自西方的大學教育之應改正之方，可以說是確立了「立人極」的價值導向，從而發揮傳統書院的影響力，寫下一則現代大師與書院的傳奇。

相比毓老以一人之力而力挽狂瀾傳承中華道統，屹立於臺灣教育界，政府的支持力量可稱得上杯水車薪，甚至到不聞不問的地步。在早期的年代（1978-2000）由於

政府提倡具有政治性與功利性的「中華文化復興運動」之故。提倡中華道統尚可在教育場域占有一席之地，但在「升學主義」與「形式主義」兩相夾擊之下，猶有毓老以及有識之士大聲疾呼注重儒家義理的教育，而非僅是對儒學的虛應故事；但是自2000年以後，隨著臺灣內部留洋派人士主張的「教育改革」的主張獲得實踐，傳統文化的教育與傳統書院學風被視為落伍、不合時代的產物，不符合教育改革的理念，形成文化上的斷層，這種斷層現象一直延續至今，而令人憂心。

相比韓國有識之士大聲疾呼對傳統書院的重視，書院在重振與傳播韓國儒學方面的成就是有目共睹，此點可以作為臺灣書院發展儒學的借鑒，期許在彼此共同面對此刻西方文化衝擊、傳統儒學價值漸趨解體以及現代性挑戰等衝擊之時刻，對書院的意義與價值能有現代性的轉換與重新建構。

【參考文獻】

一. 古籍

[宋]朱熹：《朱子大全》，臺北：中華書局，1981.

[明]王陽明：《王陽明文集》，臺北：考正出版社，1972.

二. 專書

江日昇：〈臺灣外記〉，《臺灣文獻史料叢刊》，臺北：大通書局，1978.

周恩文：〈書院〉，《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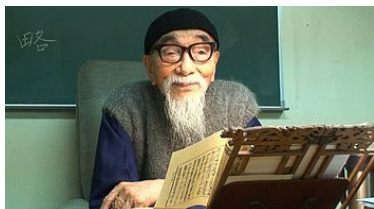
陳昭瑛：《台灣文學與本土化運動》，臺北：正中書局，1996.

連橫：《臺灣通史》，臺北：黎明文化公司，2001.

熊十力：《十力語要》，臺北：明文書局，1989.

潘朝陽：《明清台灣儒學論》，臺北：臺灣學生書局，2001.

陸 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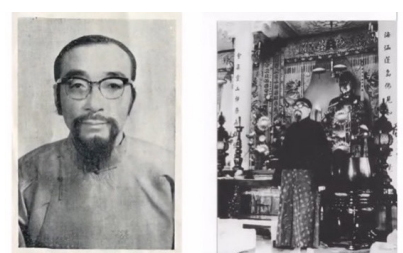
毓望老師



奉元書院



毓老與永陵



毓望老師



毓老與美國學者魏德斐



奉元書院內毓老雕像



毓老師親筆墨寶



2015年奉元書院舉辦冬季研討會

Abstract

The Spirit of College Practice in Taiwan—take Feng-yuan Academy as Center of Discussion

Wu, Chin-An*

Honorary Professor, School of Applied Chinese Studies, National Yunl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aiwan R.O.C

Abstract: Confucianism is one of the prominent schools of thought in the pre-Qin period, and its values and ethical thinking have influenced the thinking and behavior of Chinese people. After the Tang and Song dynasties, Confucianism was inherited and developed through the form of education in the academies, and combined with th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to form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Confucianism. Although th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has its own political reasons for existence, Confucianism is still fully transmitted in the academies, which is concerned with the cultivation of oneself and the well-being of others, as well as the social care of understanding the way of human ethics. In this paper, we explore how Fung-yuan Academy, the representative college in Taiwan after 1949,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raditional Chinese studies. Under the leadership of instructor Yuyun, Fung-yuan College has developed a pattern of study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raditional school and Western universities, and it is noteworthy that he has grasped the wisdom of the great sages and passed down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and Daoism, and that he has been able

* Graduate School of Applied Chinese Studies Professor / wuja@yuntech.edu.tw

to do so for decades. The school is still teaching from 1960 to today. Fung Yuen Academy is still consistent with classical Confucianism in its philosophical and universal humanistic concern, and expresses the value and contemporary nature of Confucian philosophy.

Key word : Academy, Confucianism, Feng-Yuan Academy, Yuyun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宋朝書院盛行的原因及其與官方的互動關係研究*

林 葉 連**

前言

- 一. 宋朝書院興盛的原因
 - 二. 宋朝書院與官方的互動關係
 - 三. 西方教会书院对中国的影响
- ## 結論

【국문초록】

‘서원’이라는 명칭은 唐代로부터 비롯되었으며, 藏書를 위한 장소로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장소로 변천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송대 서원이 크게 흥성한 원인을 토론한 뒤, 나아가 송대 서원의 관방과의 상호 작용 및 관계에 대해 고찰해본다. 서원은 조정으로부터 많은 상을 하사받았는데, 예컨대 토지, 서적, 편액, 심지어 관직까지 시상되었다. 아울러 서원의 사립 또는 공립이라는 속성은 언제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는 민간 학교와 관방의 인재 발탁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즉 양자는 상호 작용을 통해 각자의 수요를 충족하였으며, 동시에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였던 것이다.

당시 저명한 유학자 또는 이학자는 서원 교육 및 사상의 핵심적인 길잡이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서원이 건립될 때 학규를 제정하였고, 유가 사상의 정수를 서원 교육을 통해 발양하였으며, 원생들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도록 독려하는 것 외에도 그들이 義利의 변별을 잊지 않고 修身·養性에 뜻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무릇 이러한 도력은 국민들의 자질을 제고하고 도덕 교육을 촉진하며, 나아가 사회 풍속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18).

** 現任臺灣雲林科技大學漢學應用研究所 教授, liny1@yuntech.edu.tw

순화하는 데 매우 유익하였다. 이로 보면 민간 서원은 문화 교육 작업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관방에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자유로운 학풍의 배경 위에서, 서원의 경영은 '조정과의 관계 방식' '가족 문화 방식' '지역 문화 방식' 등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수의 理學大師들이 관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을 취하는 서원들은 모두 조정에서 시행하는 과거시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學制를 채택한 서원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가 상호 결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게다가 名師들이 운집하는 한편 문화적 교류를 중시하기도 하였기에, 종합적인 교육·연구조직이자 학술의 중심으로 변모하게 된다. 대체로 볼 때, 이러한 서원의 특별한 성취는 종종 경직되고 편협한 관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송대 서원이 학술계를 위해 개척한 신천지이자 탁월한 공헌이라 말할 수 있다.

주제어 : 서원, 이학, 송대 교육

【內容摘要】

「書院」之名起於唐朝，由藏書處所轉而成為招生授課的地點。本篇首先探討宋朝書院大興的原因。然後探究宋朝書院與官方的種種互動關係。書院屢獲朝廷的賞賜，包含土地·書籍·匾額，甚至是封賞官職。書院的私立或公立屬性，存有變更的可能；這充分顯示民間辦學與官方擢材之間，關係密切，雙方各取所需，互蒙其利。

著名儒者·理學家是書院教學及思想的主要領航者，他們為書院建立學規，也將儒家思想的精華藉由書院教育發揚開來，除了鼓勵學子參加科舉考試之外，更強調學子不忘義利之辨，必須有志於修身養性。凡此努力，對於提升國民素質，推廣道德教育，淳化社會風俗，都有莫大的助益。因此，民間書院在文化教育工作方面，為官方默默地做了很大的貢獻。

在學風自由的背景下，書院的經營呈現「朝廷關聯式」·「家族文化式」·「地域文化式」等不同模式分頭發展。但由於許多理學大師皆擔任官職，以致三種模式的書院皆與朝廷科舉有著緊密的關連。然而，畢竟書院採行自由開放的學制，具有教學和研究相結合的功能，加上名師薈萃，重視文化交流，使書院變成綜合的教育研究組織和學術中心。大致上，書院此一特殊成就往往是僵化而狹窄的官學所無可比擬的；這是宋朝書院為學術界拓展出來的新天地，堪稱卓越的貢獻。

關鍵詞：書院·理學·宋朝教育

前言

漢朝已有私人創辦精舍·精廬，有大師駐講，四方學子也聞風而至；但是，這與宋朝書院的運作方式仍然有所不同。東漢和帝期間，蔡倫發明蔡侯紙，初唐發明雕版印刷術，以致中唐之後的書院趨於定型和永續發展，此為漢朝所不具備的教育形式。

「書院」之名，始於唐玄宗開元(713-741)年間，可是，當時「麗正」·「集賢」等書院的性質，只不過是政府設置的圖書館或編校書籍的處所，而不是聚徒開課講學的地方¹⁾。而唐玄宗至昭宗年間，陳氏家族在江西江州所建家塾，逐步發展成東佳書院，成為招收學生以及講授課業的學校，後來宋朝大量興起的書院幾乎和它沒兩樣。關於這種「書院」的本質，李才棟說：

這個實質應是起始於私人或公眾創建，藏書與教學結合，並高於蒙學等等，而不光是大師講學問題。²⁾

因此，常態而固定的機構，具備藏書，從事教學，且地位高於蒙學，這樣的運作模式正是本篇所要探討的宋朝書院。

宋朝之官學，有所謂京師四學，即國子學·太學·四門學·宗學；此外，尚有小學·廣文館·諸王宮學·內小學等。中央官學以太學為最盛，太學生於兩宋學術·政治上，皆占一定的重要地位。地方學校則有府·州·軍·監·縣各立之學校，宋初不甚完備，仁宗時始大興地方之學。南宋中葉以後，地方學校漸衰³⁾。而宋朝最負盛名的教育

1) 參袁枚《隨園隨筆·卷上》，(臺北，鼎文書局，1978年)，頁200。

2) 李才棟〈書院的起源與宋代書院的發展〉《華東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1985年第3期，頁86。

場所，則是與上述官學不太一樣的·名為書院的機構。

書院的發展，除了與社會經濟政治的發展之間有密切的關係，它又與官學·私塾·科舉制度和文化學術思想的演變有著密切的聯結。茲以宋朝書院為範圍，探討當時書院興起的原因，及其與官方之間多面向的互動關係。

一．宋朝書院興盛的原因

馬端臨《文獻通考·卷46，學校考·7》：

宋興之初，…(白鹿洞·石鼓·應天府·嶽麓)四書院之名著。是時未有州縣之學，先有鄉黨之學。蓋州縣之學，有司奉詔旨所建也，故或作或輟，不免具文；鄉黨之學，賢士大夫留意斯文者所建也，故前規後隨，皆務興起。後來所至，書院尤多，而其田土之錫，教養之規，往往過於州縣學，蓋皆欲仿四書院云。⁴⁾

宋朝初年，公立的州縣之學成效不彰，辦辦又停停，只流於形式。真正有心辦學，而且做出具體成績的，則是書院；北宋甚至造就了所謂「四大書院」。至於宋朝書院之所以興起，大致上有兩大原因：

(一) 戰亂時期，給予學子求學的機會和空間

唐天寶十四年(755年)，安祿山於范陽(北平)起兵造反，至寶應二年(763年)，安史之亂結束，吐蕃大掠而去，長安為之一空。此後，唐朝面臨藩鎮割據難以收拾的困境，兵鎮幾乎遍及全國。唐憲宗曾有效地加以壓制；憲宗死後，盧龍·成德·魏博三

3) 傅樂成主編：《中國通史》王明蓀著宋遼金元史，頁一二一，眾文出版，七五年。

4) 馬端臨：《文獻通考》《文淵閣四庫全書》(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3年)，冊611，頁120。

鎮又亂，唐室從此無法收復。此外，又有回紇的漁利·吐蕃的寇侵，南詔的叛變，朝中則有宦官之亂和黨爭。及至唐懿宗·僖宗時代，遭遇寇亂以及藩鎮交兵，終於導致中央政府的解體。⁵⁾

關於五代時期的君主更替，《中國通史》如是記載：

在五代十三君中，不得其死者八人，其中唐明宗以李從榮攻宮門，受驚而死；晉出帝石重貴於國亡後忍辱偷生十八年，寂寞地死在契丹。其餘六人，四人被殺，二人自殺。以改朝換代弑君戕主為兒戲的時代，君臣猜忌，爾詐我虞，日以殺伐為事，又何能顧到國計民生。⁶⁾

總之，自唐中葉·五代以後，國家長期陷於分裂割據狀態，各地節度使擁兵自重，戰爭不斷，官學衰落，以致學子求學無門。宋朝始建，朝廷急於選拔人才以解決迫切的時用，以致教育延宕八十餘年，官學無法達到應有的發展，一般學子求學無門，書院值此教育界的空窗期，遂展現培育人才的強大生命力，發展成重要的私立教育機構。此即呂祖謙所言：

國初斯民，新脫五季鋒鏑之厄，學者尚寡，海內向平，文風日起，儒先往往依山林，即閑曠以講授，大師多至數十百人。⁷⁾

因此，北宋初期書院興起的原因之一，就是要滿足廣人士子讀書求學的願望。

(二) 糾正宋初重選而不重教的現象

宋朝初年，書院興起的另一個原因，是緩解朝廷尚文治而疏於培植根本的弊病。

5) 傅樂成：《中國通史》(臺北市，大中國圖書公司，1993年)，頁419至451。又程光裕·王吉林：《中國通史》，(臺北市，中國文化大學出版部，2004年)，頁187至198。

6) 程光裕·王吉林：《中國通史》，(臺北市，中國文化大學出版部，2004年)，頁199。

7) 呂祖謙：《呂東萊先生文集》(臺北縣，板橋，1970年)，卷6，頁10。

宋仁宗天聖三年(1025年), 范仲淹〈奏上時務書〉如下：

是故觀虞夏之書, 足以明帝王之道; 覽南朝之文, 足以知衰靡之化. 故聖人之理天下也, 文弊則救之以質, 質弊則救之以文. 質弊而不救, 則晦而不彰; 文弊而不救, 則華而將落. 前代之季, 不能自救, 以至於大亂, 乃有來者起而救之. 故文章之薄, 則為君子之憂; 風化其壞, 則為來者之資. 惟聖帝明王, 文質相救, 在乎己, 不在乎人. …大君有命, 孰不風從? 可敦諫詞臣, 興復古道; 更延博雅之士, 布於臺閣, 以救斯文之薄, 而厚其風化也. 天下幸甚.⁸⁾

范仲淹鑑於古代明君懂得「文弊則救之以質, 質弊則救之以文」, 文·質相救, 求其平衡, 這個重責大任落在執政者身上. 至於「救斯文之薄, 而厚其風化」的時代任務, 寄望於教育工作的推行. 宋仁宗天聖八年(1030年), 范仲淹〈上時相議制舉書〉也強調: 「夫善國者, 莫先育材; 育材之方, 莫先勸學.⁹⁾

仁宗慶曆四年(1044年)范仲淹極力批評當時不重教而重選之政策, 主張廣設學校. 凡應科舉者, 須先接受學校教育. 《宋史·卷314·范仲淹傳》:

帝方銳意太平, 數問當世事, 仲淹語人曰: 「上用我至矣, 事有先後, 久安之弊, 非朝夕可革也.」帝再賜手詔, 又為之開天章閣, 召二府條對. 仲淹惶恐, 退而上十事.¹⁰⁾

這裡所謂「上十事」, 是指范仲淹〈答手詔條陳十事〉, 其中第三條「精貢舉」, 內容如下:

三曰精貢舉. 臣謹按《周禮》卿大夫之職, 各教其所治, 三年一大比, 考其德行道藝, 乃獻賢能之書於王. (賢為有德行, 能為有道藝.) 王再拜受之, 登於天府. (天府, 太廟之寶藏也.) 蓋言王者舉賢能, 所以上安宗社, 故拜受其名, 藏於廟中, 以重其事也. 卿大夫之職, 廢既久矣. 今諸道學校, 如得明師, 尚可教人六經, 傳治國治人之道. 而國

8) 范仲淹: 《范文正公集·卷九》, 收錄於《宋集珍本叢刊》冊3, (北京, 綏裝書局, 2004年), 頁14.

9) 范仲淹: 《范文正公集·卷九》, 收錄於《宋集珍本叢刊》冊3, (北京, 綏裝書局, 2004年), 頁36.

10) 脫脫: 《宋史》, (臺北, 鼎文書局), 冊13, 頁10273.

家乃專以辭賦取進士，以墨義取諸科，士皆舍大方而趨小道，雖濟濟盈庭，求有才有識者十無一二。況天下危困，乏人如此，將何以救？…臣請諸路州郡有學校處，奏舉通經有道士，專於教授，務在興行。…進士先策論而後詩賦；諸科墨義之外，更通經旨，使人不專辭藻，必明理道，則天下講學必興，浮薄知勸，最為至要。¹¹⁾

《宋史紀事本末 卷38. 學校科舉之制》：

仁宗慶曆四年…時范仲淹意欲復古勸學，數言興學校，本行實，詔近臣議，於是宋祁等奏：「教不本於學校，事不察於鄉里，則不能核名實。有司束以聲病，學者專於記誦，則不足盡人材。參考衆說，擇其便於今者，莫若使士皆士著而教之於學校，然後州縣察其履行，則學者修飭矣。」¹²⁾

范仲淹〈答手詔條陳十事〉提到周朝授人卿大夫之職，必先施以教育，三年之後，考驗他們的德行道藝，這是為國舉才的重要措施。他認為宋初學校衰落的重大原因，是當時執政者的觀念是重科舉而輕學校，當時學校中如有明師，尚可教人治國治人之道，可惜事實並非如此。例如國家以辭賦取進士，可謂捨大方而趨小道，以致有才有識者達不到十分之一二。所以范仲淹建議廣設學校，傳授經學，使人明於理道，而浮薄者方能知所勸勉。

《宋史 卷157. 志第110. 選舉3》記載(仁宗)慶曆四年：

詔曰：「儒者通天·地·人之理，明古今治亂之原，可謂博矣。…今朕建學興善，以尊子大夫之行；更制革敝，以盡學者之才。有司其務嚴訓導·精察舉，以稱朕意。學者其進德修業，無失其時。其令州若縣皆立學，本道使者選部屬官為教授，員不足，取於鄉里宿學有道業者。」由是州郡奉詔興學，而士有所勸矣。

天章閣侍講王洙言：「國子監每科場詔下，許品官子役然試藝，給牒充廣文·太學·律學三館學生，多致千餘。就試試已，則生徒散歸，講官倚席，但為遊寓之所，殊無肄

11) 范仲淹：《范文正公集 范文正公奏議 卷上》(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冊40，頁178。

12) 明陳邦瞻撰：《宋史紀事本末》，收錄於中華書局編輯部：《歷代紀事本末》，(北京，中華書局，1997年)，冊2，頁1363。

習之法，居常聽講者，一二十人爾。」¹³⁾

北宋的地方學校有府·州·軍·監·縣各立之學校，宋初不甚完備，仁宗時始大興地方之學。仁宗下令於地方設置學校，詔「有司其務嚴訓導，精察舉；學者其務進德修業，無失其時」；中央也積極擴充學生員額。但是即使宋仁宗有意改革舉才方面的弊端，下詔州縣皆需設立學校，而天章閣侍講王洙還是進言，說國子監學生只專意於科考，考完即散歸，學子只是到此一遊而已，留下來學習課業的學生寥寥無幾。這充分說明官學的辦學並未落實，成效不彰，無怪乎書院逐漸興起，其聲勢足以凌駕於官學之上。

南宋朱熹曾批評北宋初年官學不振的情況，說：

予惟前代庠序之教不修，士病無所於學，往往相與擇勝地，立精舍，以為羣居講習之所。而為政者乃或就而褒表之。¹⁴⁾

朱熹〈衡州石鼓書院記〉也批評宋朝官辦學校的種種缺失：

逮至本朝慶曆·熙寧之盛，學校之官遂遍天下，而前日處士之廬無所用，則其舊跡之蕪廢，亦其勢然也。不有好古圖舊之賢，孰能謹而存之哉？抑今郡縣之學官，置博士弟子員，皆未嘗考德行道藝之素。其所受授，又皆世俗之書·進取之業，使人見利而不見義，士之有志於為己者，蓋羞言之。是以常欲別求燕閒清曠之地，以共講其所聞而不可得。此二公所以慨然發憤於斯役，而不敢憚其煩，蓋非獨不忍其舊跡之蕪廢而已也。… 又以風曉在位，使知今日學校科舉之教，其害將有不勝言者。不可以是為適然而莫之救也。¹⁵⁾

13) 脫脫：《宋史》，（臺北：鼎文書局），冊5，頁3658。

14) 朱熹：《朱文公文集》（內頁題名：《晦庵先生朱文公文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本》冊53，卷79，頁1444。

15) 朱熹：《朱文公文集》（內頁題名：《晦庵先生朱文公文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本》冊53，卷79，頁1444。

北宋官學既然表現不佳，足以使人急公近利，甚至忘義，而某些好古圖舊的熱心賢士，遂慨然發憤創立書院。而書院的辦學績效，相形之下，顯然比官學優越許多。此即馬端臨《文獻通考》所言：

「鄉黨之學，賢士大夫留意斯文者所建也。故前規後隨，皆務興起。後來所至，書院尤多。而其田土之賜，教養之規，往往過於州縣學。」¹⁶⁾《續文獻通考》也說：「宋自白鹿·石鼓·應天·嶽麓四書院後，日增月益。書院之建，所在有之。」

據學者針對今江西省範圍內書院發展情況所作研究為例，北宋新建書院40所左右，其中建於慶曆以後的，占五分之三。¹⁷⁾可見教育從此受到普遍的重視。

二、宋朝書院與官方的互動關係

有關宋朝的書院發展，李才棟將北宋分為2個階段，將南宋分為3個階段¹⁸⁾，略述如下：

北宋書院的二個階段：

第一個階段自建隆元年至慶曆興學(960-1043年)。這時學者聚徒講學於學院，一時俊秀相與講學。此時的鄉校，惟兗·潁二州有之，餘無聞矣。

第二階段自慶曆四年始至靖康元年(1044-1126年)。這時由於范仲淹·王安石·蔡京幾次興學，無論東·西兩京的國子監，還是各府·州·軍·監，以至縣城的地方官學都有所擴展和建置，形成了書院與官學並存的局面。據元朝馬端臨之說：衡陽石鼓書院·江西廬山白鹿洞書院·湖南長沙嶽麓書院·河南商丘應天書院為北宋四大書

16) 馬端臨：《文獻通考·卷46，學校考7》《文淵閣四庫全書》(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3年)，冊611，頁120。

17) 李才棟：〈唐至北宋的江西書院〉，《江西教育學院學刊》，1982年第2期。

18) 李才棟〈書院的起源與宋代書院的發展〉《華東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1985年第3期，頁85至88。

院¹⁹⁾.

南宋書院的三個階段：

第一個階段，可以高宗即位，建炎元年(1127年)起，至紹興末年(1162年)。這時書院講學的帶頭人是楊時，其學被譽為程氏正宗。楊時及其同道·弟子們反對北宋王安石所倡的「新學」，提倡理學。宋高宗為了建立和鞏固他的集權統治，加強思想控制，因此，既禁王學，也禁程學；因此使得許多程學的追隨者在朝堂中遭到排擠，迫使其中一些人只得退縮到書院的講壇來表達己見。

第二階段可自孝宗隆興元年(1163年)開始，至寧宗開禧三年(1207年)。這時學禁稍懈，許多學者自創學派，各立書院，聚徒講學。他們各抒己見·互相切磋。其中以朱熹最具影響力。朱熹興復了白鹿洞書院，在此前後還建立了雲谷·寒泉·武夷·滄州等書院和精舍，還在很多書院講學。此外，張拭主持潭州嶽麓書院，呂祖謙創辦金華麗澤書院·陸九淵主講於貴溪象山精舍。這些書院可稱當時書院教學活動的佼佼者。這一階段，南方書院很不少，僅就江西而言，始建書院五十餘所，尚不包括白鹿洞書院在內。不過寧宗時由於「慶元黨案」的影響，理學家以及他們的書院一度受到壓抑。

第三階段自寧宗嘉定元年(1208年)開始，這時史稱「嘉定更化」。理學的地位由屢遭貶斥一變為備受推崇。理學家紛紛進入朝堂，高官厚祿。書院的發展也達到宋代三百年的最高峰。淳祐元年(1241年)，宋理宗趙昀曾給許多書院題字·賜額。後來又給許多書院山長授以官職。先是由州學教授或添差州學教授兼任書院山長(府·軍·監同)，以後又給書院山長以「州學教授並視」的地位，進而以庶官兼任山長，最後又有祠官兼任書院山長的。

以下擬將北宋·南宋時期的書院做一綜合觀察，以探究此時的書院究竟與官方之間，有著怎樣的互動關係：

19) 呂祖謙所主張的四大書院，則以嵩陽書院取代石鼓書院。

(一) 公立與私立屬性的更改

中唐以後，西元八世紀末至九世紀初，已有民間人士建立書院且從事教學活動，就東佳書堂為例，即可說明書院的教學活動於起唐代。以下綜合各書院相關網站以及季嘯風《中國書院辭典》的資訊，簡述北宋四大書院的成立和發展沿革及其公·私立屬性的變更情況如下：

1. 白鹿洞書院：

(在江西九江廬山，又稱：白鹿洞書堂·白鹿書院·朱晦翁書院)

白鹿洞在唐貞元元年(785年)時原為詩人李渤·李涉兄弟隱居讀書的地方，李渤當時養一隻白鹿自娛，甚馴，時人稱渤為「白鹿先生」。後來他出任江州刺史，於此修樓建亭，取名白鹿洞。

五代十國時期，南唐昇元四年(940年)，朝廷在李渤隱居的地方建立學館，稱「廬山國學」，又稱「白鹿國學」，置田藏書，由金陵國子監九經教授李善道主持學務，四方學子慕名而來，與京師國子監齊名。西元976年，南唐滅亡，廬山國學成為廢墟。

宋初，九江人在廢墟上建起白鹿洞書院。太平興國二年(977年)，宋太宗趙匡義下令將國子監刻印的《九經》等書賜予白鹿洞書院，書院旋即知名度大增，學生有近百人，該時期已被奉為天下四大書院之一。

南宋孝宗淳熙六年(1179年)，朱熹出任南康太守，他勘察白鹿洞書院廢址後，其〈繳納南康軍任滿合奏稟事件狀〉寫道：「見其山川環合，草木秀潤，南開燕講學之區，而荒涼廢壤，無復棟宇。…既又按考此山老佛之祠，蓋以百數，兵亂之餘，次第興葺，鮮不復其舊者。獨此儒館莽為荆榛。…然此洞之興，遠自前代，累聖相傳，眷顧光寵，德意深遠，理不可廢。」²⁰⁾，朱熹呈報禮部的〈申修白鹿洞書院狀〉²¹⁾和給丞

20) 朱熹：《朱文公文集》(內頁題名：《晦庵先生朱文公文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本》，冊52，卷16，頁240。

21) 朱熹：《朱文公文集》(內頁題名：《晦庵先生朱文公文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

相的報告中申述興復書院的理由。淳熙七年(1180年)三月，白鹿洞書院初步修復，這時書院只有學生十餘人，為興復白鹿洞書院，朱熹訂下學規，置田建屋，向各地發文徵求圖書，把《四書》·《五經》納入教學課程。

由此可知，白鹿洞書院的前身「白鹿洞」在唐朝只是文人隱居之處，五代十國時期，發展成南唐朝廷整頓的書院，後來一度荒廢。宋太祖曾下令整頓，這也是朝廷介入其事。南宋孝宗淳熙六年(1179年)，朱熹在官職任內勘察白鹿洞書院廢址，次年得到初步修復，隨後盛名再起。這是一個由私人住所發展成官方學校的過程。

2. 嶽麓書院：(在湖南長沙。)

唐末五代僧人智璿等為「思儒者之道」，在麓山寺下，「割地建屋」，建起了「以居士類」的學舍。北宋太祖開寶九年(976年)，潭州太守朱洞在原僧人辦學的遺址上，「因襲增拓」，由官府捐資興建而誕生了嶽麓書院。北宋真宗大中祥符(1008-1016)年間，嶽麓書院進入了北宋的鼎盛時期。大中祥符八年(1015年)，宋真宗親自召見山長周式，嘉許其辦學績效，親書「嶽麓書院」匾額。書院之名始遠播於天下，有「瀟湘洙泗」之譽，成為天下四大書院之一。

北宋轉為南宋之際，嶽麓書院遭戰火洗劫，南宋孝宗乾道元年(1165年)，湖南安撫使知潭州劉珙重建嶽麓書院，延聘理學家張栻主教嶽麓，培養不少傳道經世濟民的優秀人才，強化嶽麓書院在南宋教育和學術上的地位。乾道三年(1167年)，朱熹來訪，與張栻論學，舉行了歷史上有名的「朱張會講」。前來聽講者絡繹不絕，時人形容「一時輿馬之眾，飲池水立涸」。

由此可知，嶽麓書院的來源是：由佛寺所建原本供給居家修行之士使用的「學舍」，北宋時被改建為半官半私屬性的書院。

3. 應天府書院：(在河南商丘，又稱：商丘書院·睢陽書院·南都學舍·南京應天書院·南京書院·南京國子監。)

應天府書院，原址位於河南省商丘市睢陽區商丘古城南湖畔，由五代後晉時期，宋州(今河南省商丘市)虞城(今商丘市睢陽區)通儒楊愬創辦南都學舍。楊愬去世後，他的學生楚丘人(今山東曹縣)戚同文在歸德軍將軍趙直扶助下聚眾講學，稱「睢陽學舍」，繼承師業，繼續辦學。

宋初，睢陽學舍設於繁華鬧市，與其它設置於幽靜山林的書院不同。北宋立國初期，求才孔急，實行開科取士，睢陽學舍的生徒參加科舉考試，登第者達五六十人之多。文人·士子慕戚同文之名不遠千里而至宋州求學者絡繹不絕，出現了「遠近學者皆歸之」的盛況，睢陽學舍逐漸形成了一個學術文化交流與教育中心，但戚同文病逝後，學校一度關閉。

景德三年(1006年)，宋真宗將太祖發跡之處宋州升為應天府；真宗大中祥符元年(1008年)，「應天府民曹誠，即楚邱戚同文舊居，造舍百五十間，聚書數千卷，博延生徒，講習甚盛。府奏其事，詔賜額曰『應天府書院』，命奉禮郎臧舜賓主之。仍令本府幕職官提舉以誠為助教。」由此可知，當地人曹誠在戚同文舊居建了學校，申請納入官學，經由應天府知府上報朝廷，受到宋真宗讚賞，令戚同文之孫臧舜賓主院，以曹誠為助教，正式納入官學。²²⁾大中祥符四年(1011年)范仲淹年十三，在獲知姓「范」不姓「朱」之後，決意自立門戶，苦讀於此。大中祥符七年(1014年)，宋真宗將應天府升格為「南京應天書院」又稱為「南京書院」。仁宗天聖年間，范仲淹主持南都府學教席，培育許多優秀學子，為北宋教育做了重大的貢獻。仁宗景祐二年(1035年)，書院改為應天府學，給田十頃。慶曆三年(1043年)，應天府書院改升為「南京國子監」，與東京(今開封)·西京(今洛陽)的國子監並列為北宋最高學府，同時也成為中國古代書院中，將私立書院捐贈給官方且升級官化為國子監的書院。

靖康之變時(1126年)，金兵南侵，中原淪陷，應天府書院被毀，學子紛紛南遷，中

22) 元馬端臨《文獻通考·卷46·學校考·7》，(臺北，臺灣商務印書館)《文淵閣四庫全書》，冊611，頁120。

國書院教育中心南移，應天府書院隨之沒落。

4. 石鼓書院：(在湖南衡陽，原名李寬中秀才書院。)

石鼓書院，位於湖南衡陽市城北蒸·湘·耒三水匯聚的石鼓山上，是湖湘文化重要發源地之一，素有「衡湘洙泗」「道南正脈」之譽。

石鼓書院始建於唐憲宗元和五年(810年)，邑秀才李寬在衡陽石鼓山上合江亭旁建房讀書，取名為「尋真觀」，刺史呂溫曾訪之，並作〈同恭夏日題尋真觀李寬中秀才書院〉一詩記其事。

宋代太平興國二年(978年)，宋太宗趙匡義賜「石鼓書院」匾額和學田。宋至道三年(997年)，李寬族裔李士真據其故事重修書院，廣招弟子，石鼓書院至此成為正式的書院。宋仁宗景祐二年(1035年)，衡州知府劉沆上奏石鼓書院事，宋仁宗閱後賜額「石鼓書院」，且賜學田，改為州學。由於兩度被皇帝賜額，石鼓書院步入鼎盛時期，成為當時與睢陽·嶽麓·白鹿洞齊名的四大書院。宋仁宗慶曆四年(1044年)，石鼓書院改為衡州路學府，屬於官學。許多名流至此講學；如蘇軾·周敦頤等。

南宋孝宗淳熙十二年(1185年)，部使者潘疇擴建石鼓書院，榜以鼓額曰「將以俟四方之士有志於學，而不屑於課試之業者居之」，奉先聖先師之像，集國子監及本道諸州之印書藏其中。淳熙十四年(1187年)，理學大師朱熹·張栻來此講學，朱熹作〈石鼓書院記〉，張栻在合江亭中立碑，書韓愈〈合江亭〉詩和〈石鼓書院記〉。後人將此鑄製成石碑，置於石鼓書院內，名曰「三絕碑」。當時戴溪擔任山長，刊行《論語》相關著作。宋理宗淳祐七年(1247年)，林珙以州學教授兼山長，刊行《尚書全解》，對經學的整理做出貢獻。

由此可知，石鼓書院原本為私人之尋真觀，後改建為書院，升格為州學。

以上書院之私立·公立屬性的轉移，顯示朝廷非常肯定書院為國育才的強大功能；並且，從朝廷將現有卓具規模的私立書院一轉成為半官半民，或公立書院的現象，可見朝廷施用了十分簡易的方法，就直接獲取了可觀的辦學成果。

(二) 書院屢獲朝廷或官方賞賜

1. 賞土地學田：

例如早在五代十國時期，南唐李煜就曾割善田數十頃，作白鹿洞書院學田。北宋仁宗也曾賜給部分學田，白鹿洞書院將學田租給附近農民耕種，歲收租廩充為養費。南宋書院經費多為自我籌措，來源為私人捐助，或經官方允准，撥歸寺觀絕產和閑地，充為經費²³⁾。宋代太平興國二年(978年)，宋太宗趙匡義賜學田給石鼓書院²⁴⁾。

除了朝廷賞賜之外，另有私人全部自備土地・經費完全自籌的情況，例如南宋浙東一帶頗為富庶，巨商甚多，屢有出資贊助書院者。東陽(今浙江金華)郭氏累代出資創辦書院，家撥良田數百用以贍士，子孫諸代先後創立了石洞書院・西園書院和南湖書院。浙東的杜洲六先生書院，據全祖望〈杜洲六先生書院記〉記載：設有先聖碑亭・禮殿・講堂・養士六齋・慈湖祠・書庫・門廊庖福(浴室)，並有田租資養學者。維持這樣規模較大的書院，顯然需要雄厚的財力和田租²⁵⁾。

德安義門陳氏能聚族同居230餘年，就是因為有獨一無二的〈陳氏家法三十三條〉。東佳書堂在有「書樓・堂廡數十間，聚書數千卷」的同時還擁有學田二十頃，陳氏家族設定學田作為書院的固定收入，保證了書院聚徒・聘任・教學・購書・藏書等各項事業的穩定發展。據文德翼《求是堂集》載，至宋初，陳氏「所藏帖與書，號為天下第一」，東佳書堂發展為鼎峙江東的三書院之一，如果沒有家族的經濟資助是很難做到的。東佳書院設學田以確保辦學經費的方法被後世廣泛繼承，開創了中國古代書院設學田的先例。另外，東佳書院突破了一般家塾較為封閉的性質，招收外姓子弟，實行開放辦學²⁶⁾。

23) 喬衛平：《中國遼金夏教育史》(北京，人民出版社，1994年，頁78。

24) 元馬端臨《文獻通考・卷46・學校考・7》，(臺北，臺灣商務印書館)《文淵閣四庫全書》，冊611，頁120。

25) 喬衛平：《中國遼金夏教育史》(北京，人民出版社，1994年，頁78。

26) <https://www.newton.com.tw/wiki/%E7%BE%A9%E9%96%80%E6%9B%B8%E9%99%A2/12574334>

程運先生歸納宋代書院經費來源，分為六類，多見官方以學田支助民間書院的事例：(1)·由官府買給學田，以充經費。(2)·由官府指撥官田以養士。(3)·撥廢寺田或絕戶產以充經費。(4)·由公帑撥充或由地方教育經費勻支。(5)·以公款為母金，生息而用其子錢。(6)·由地方官或私人捐撥。²⁷⁾

2. 賞書籍：

例如白鹿洞書院。宋太祖趙匡胤下令將國子監刻印的《九經》²⁸⁾等書賜予書院。宋太宗太平興國二年(977年)，知江州周述上書朝廷，請賜國子監印本《九經》以供生徒肄習，詔從其請，驛送國子監印本《九經》至書院。²⁹⁾淳熙六年(1179年)，朱熹知南康軍，重新整頓白鹿洞書院，八年(1181年)，又獲得朝廷所賜國子監經書，聲望更加崇隆。

再如嶽麓書院。大中祥符五年(1012年)湘陰人周式主持書院，擔任嶽麓書院首任山長，上書朝廷，請賜諸經釋文義疏，以及《史記》·《玉篇》·《唐韻》等書，此為首次獲得朝廷的賜書。大中祥符八年(1015年)，宋真宗賜給山長周式中秘書(宮中藏書)。³⁰⁾

又如應天府書院。宋真宗大中祥符三年(1010年)二月，賜予英州文宣王廟版《九經》。³¹⁾

朝廷所提供的經典版本，對於書院而言，實有重大的意義，從此可提供師生善用更佳的教材，無論做為吸收知識，或是培育學生參與朝廷所舉行的科舉考試，都是

27) 程運：〈兩宋學校制度之分析〉《政大學報》21期，頁104至106。

28) 據《五代會要》，後唐明宗長興三年(932年)，馮道·李愚奏請依石經文字刻九經，此為雕板經書之始；後漢·後周繼其事，至後周太祖廣順三年(953年)，九經皆成。此項工作係由國子監任之，故所刻本名曰「監本」；所刻內容係據唐石經刻經文，又附以經注本之注文。

29) 馬端臨：《文獻通考·卷46，學校考·7》(北京，中華書局，2011年)，冊2，頁1339。

30) 馬端臨：《文獻通考·卷46，學校考·7》(北京，中華書局，2011年)，冊2，頁1339。

31) 清徐松輯，苗書梅等點校：《宋會要輯稿·崇儒》，(開封，河南大學出版社，2004年)，頁80。

極為重要的寶藏。

3. 賜匾額：

例如宋朝太平興國二年(978年)，宋太宗趙匡義賜「石鼓書院」匾額和學田。至道三年(997年)五月，宋太宗賜額「太室書院」(即嵩陽書院)。大中祥符二年(1009年)，宋真宗頒書賜額「應天書院」。大中祥符八年(1015年)，真宗親書「嶽麓書院」匾額褒揚之。南宋淳佑十年(1246年)，理宗賜「嶽麓書院」匾額。北宋景佑三年(1035年)，宋仁宗欽賜「石鼓書院」匾額。

宋朝大小書院何其多，無論私立或官立書院，只要能獲得皇帝賜予匾額，都足以大大提升書院的地位，對國內書院的排名和招生率等方面，必能起到不小的助力。

4. 封賞職位：

例1，嶽麓書院。大中祥符八年(1015年)，真宗接見周式，任命他為國子監主簿，仍歸嶽麓書院教授³²⁾。例2，應天府書院。真宗大中祥符二年，命戚同文之孫奉禮郎戚舜賓主持院務，仍令本府幕職官提舉，以當地建校者曹誠擔任府助教。³³⁾應天府的辦學模式，令當地書院風氣大盛。例3，李觀先在南城五里的赤溪風月亭創辦了盱江書院，求學人數曾達千人之多。仁宗皇祐二年(1050年)，因范仲淹·余靖推薦於朝，授李觀將仕郎，試太學助教。仁宗嘉佑四年(1059年)，權同管勾太學³⁴⁾。例4，北宋杜子野，江西宜黃中港人，平生致力辦學，創有鹿岡書院。少年王安石受學於此。³⁵⁾神宗熙寧六年(1073)年，朝廷授予杜子野「特奏名」進士。

32) 元馬端臨：《文獻通考·卷46，學校考·7》(北京，中華書局，2011年)，冊2，頁1339。

33) 元馬端臨：《文獻通考·卷46，學校考·7》(北京，中華書局，2011年)，冊2，頁1339。

34) 管勾，管理也。

35) 後人賦詩懷念，長沙熊少牧有「子野才堪介甫師，鹿岡書院鹿岡陲」之句；明黃濯纓為詩曰：「落日荒村處士莊，至今井畔是方壙。喬林幾許迎新主，還有遊人說鹿岡。」宋神宗寧熙之後，鹿岡書院即荒廢無聞。

上述封賞相關人士職位的情況，使用在獎勵某人辦學有卓著成效時，或朝廷將私立書院變成半私半官的屬性，或是將它由私立納為完全國營書院屬性的時候。

(三) 書院學規皆本於儒家思想，影響教化極深

學規·學則由來甚古，先秦《禮記》中所載尊師求學的禮儀，〈弟子職〉一篇詳述弟子事師·受業·饌饋·灑掃和進退之禮，可以視為中國最古老的一篇學規。唐朝開元年間的《唐六典》記載諸多有關學令，入學資格·學校禮儀·專業教學·成績考核·違規懲罰·休假制度等條例，顯示學校管理的條文化，而儒家思想往往以精神指導之姿，被化入相關條文當中。

唐朝書院有學規，如唐昭宗大順元年(890年)陳崇在山西德安縣東佳山創立「東佳書堂」(後擴建更名為東佳書院)，當時即已寫下〈義門家法三十三條〉，其中規定：

「立書屋一所於住宅之西，訓教童蒙。每年正月擇吉日起館，至冬日解散。童子軍七歲入學，至十五歲出學。有能者令入東佳，逐年於書堂內次第抽二人歸訓，一人為先生，一人為副。其筆墨硯並出宅庫，管事收買應付。」

「立書堂一所於東佳莊。弟侄子姓有賦性聰敏者令修學，稽有學成者應舉。除現置書籍外須令添置。於書生中立一人掌書籍，出入須令照管，不得遺失。」

義門陳氏宗譜中〈推廣家法〉規定：

「男司耕讀，女司紡織。」

「子孫於蒙養時先當擇師。稍長，令從名師習聖賢書，教給禮義。不可讀雜字及刁滑詞訟之事，以乖行誼心術；亦不可學誣罔淫邪之說。如果資性剛敏，人物清醇者，嚴教舉業，期正道以取青紫。中人以下亦教之知理明義，使期去其兇狠驕惰之習，以承家教。又當教之以忠厚而儉樸，因之庶免習為輕浮以入敗類。」

義門陳氏辦教育的基本思想是要子孫普遍受教育，施教程度因人而異，不成才則

成人，非得「禮樂以固之，詩書以文之」而不可。宋太祖開寶二年(969年)，徐鉉〈陳氏書堂記〉：「子弟之秀者，弱冠以上皆就學焉！」。又說：「陳袞以為族既庶矣，居既睦矣，當禮樂以固之，詩書以文之，遂於居之左二十里曰東佳，因勝據奇，是卜是築，為書樓堂廡數十間，聚書數千卷，田二十頃，以為遊學之資，…四方遊學者自是宦成名立者蓋有之。」像進士章谷·夏竦即是東佳書堂學生，可見，陳氏辦教育影響之大。至於宋朝書院的學規，大略舉述其顯例如下：

1. 范仲淹為應天書院建立學程

北宋初年，胡瑗·孫復·石介·歐陽修·范仲淹等人，有自覺地肩負重建傳統中華文化·復興聖賢學說的使命，遙接三代之「道」，求「生民建教之本」，以及「救斯文之薄」，打算將儒家文化精神重新貫注到政治·社會·學術·人心之中；「創通經義」·「革新政令」，實現內聖外王的理想。

天聖五年(1027年)，范仲淹為母守喪，居應天府寧陵縣。時任南京留守·知應天府晏殊聽聞范仲淹的才名，就邀請他到府學任職。執掌應天書院教席³⁶⁾。范仲淹掌管應天府書院(睢陽書院)時，總結先師咸同文的教學方法，為書院制定一系列課程和管理規則，要求「為學次序」和「讀書次序」，嚴格要求院生學習。〈上執政書〉提出「固國本」·「厚民力」·「重名器」·「備戎狄」·「杜奸雄」·「明國事」6件大事。其中，「重名器」就是慎科舉·敦教育，初步形成了宋初河南書院教育的基本宗旨。

范仲淹平日勤勉督學·以身作則·創導時事政論，每當談論天下大事，輒義正辭嚴·慷慨陳詞。當時士大夫矯正世風·嚴以律己·崇尚品德的節操，可謂來自范仲淹的倡導，樹立了煥然一新的學風。其〈南京書院題名記〉³⁷⁾：

然則，文學之器，天成不一，或醇醇而占，或郁郁於時，或峻於層雲，或深於重淵。

36) 《宋史·卷三百一十四》：「晏殊知應天府，聞仲淹名，召真府學。」

37) 大中祥符七年(1014年)，應天府(今河南商丘)升格為南京，成為宋朝的陪都，應天書院(睢陽書院)又稱為「南京書院」。

至於通《易》之神明，得《詩》之風化，洞《春秋》褒貶之法，達禮樂制作之情，善言二帝三王之書，博涉九流百家之說者，蓋玄有人焉。³⁸⁾

此書院的基本課程是儒家經典《詩》·《書》·《禮》·《易》·《樂》和《春秋》，強調「夫善國者，莫先育才，育才之方，莫先勸學，勸學之要，莫尚宗經。」學生按照不同專長而入讀各項分科，課程主張學以致用，提倡實地考察，即所謂「明體達用」。

2. 朱熹為白鹿洞書院制訂學規

南宋朱熹在主持白鹿洞書院教務時，曾為白鹿洞書院制訂〈白鹿洞書院揭示〉(也稱〈白鹿洞書院學規〉)，以及〈白鹿洞書院教條〉。這是中國書院發展史上一個綱領性學規，對於當時及後來的教育界產生莫大影響。〈白鹿洞書院揭示〉如下：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右五教之目。堯·舜使契為司徒，敬敷五教，即此是也。學者學此而已。而其所以學之之序，亦有五焉，其別如左：

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

右為學之序。學·問·思·辨·四者所以窮理也。

若夫篤行之事，則自修身以至於處事·接物，亦各有要，其別如左：

言忠信，行篤敬，懲忿窒欲，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義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勿施於人。行有不得，反求諸己。

右接物之要。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為學之意，莫非使之講明義理，以修其身，然後推以及人，非徒欲其務記覽，為詞章，以釣聲名，取利祿而已也。

今人之為學者，則既反是矣。然聖賢所以教人之法，具存於經，有志之士，固當熟

38) 范仲淹：《范文正公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冊40，頁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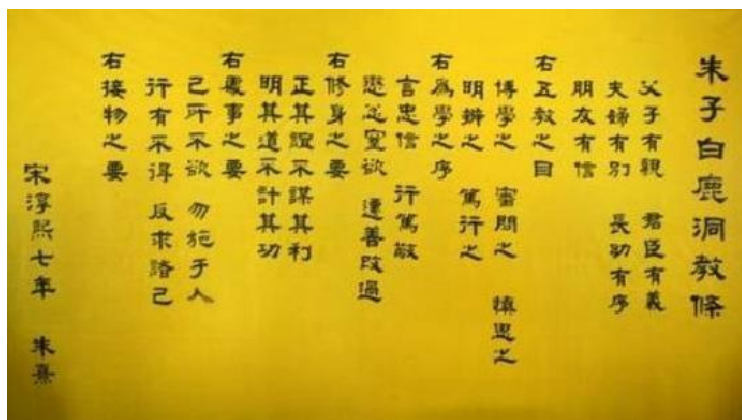
讀·深思而問·辨之。

苟知其理之當然，而責其身以必然，則夫規矩禁防之具，豈待他人設之而後有所持循哉？近世於學有規，其待學者為已淺矣。而其為法，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以施於此堂，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為學之大端，條列如右，而揭之楣間。諸君其相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焉，則夫思慮云為之際，其所以戒謹而恐懼者，必有嚴於彼者矣。

其有不然，而或出於此言之所棄，則彼所謂規者，必將取之，固不得而略也。諸君其亦念之哉。³⁹⁾

〈白鹿洞書院教條〉，內容如下⁴⁰⁾：



這是簡單扼要的綱領式列舉，除去相關的說明文字，當中強調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等五倫相處之道，要求學生敬敷上述這五倫之教；其次是明示：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等為學次第；再次則是教導學生修身·處事·接物的要領。對於

39) 朱熹：《朱文公文集》(內頁題名：《晦庵先生朱文公文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本》冊53，卷74，頁1366。

40) 資料來源：九江市白鹿洞書院的圖片2024.03.12查詢：https://www.tripadvisor.com.tw/LocationPhotoDirectLink-g494935-d1855271-i35504443-Bailudong_Collage-Jiujiang_Jiangxi.html

學子而言，此篇教條可謂簡單明瞭，易於記誦和實踐。朱子已然規定了書院教育的宗旨・內容和方式，條列具體而涵意精微，成為其後歷代書院制度模擬的範本。

3. 朱熹為嶽麓書院頒布教條

朱熹也有與上項相類的「書院教條」，那是在紹熙五年(1194年)，在距離嶽麓會講27年之後⁴¹⁾，朱熹任湖南安撫使，再次來到潭州，重整嶽麓書院，頒行〈朱子書院教條〉。經過他的整治，嶽麓書院再次進入繁盛時期。

4. 朱嘉為石鼓書院作記

石鼓書院方面，宋度宗咸淳10年(1274年)正月，湖南提刑・南宋民族英雄文天祥駐衡州時，作詩〈合江亭〉：「天上名鵠尾，人間說虎頭。春風千萬曲，合水兩三洲。…」；淳熙十二年(1185年)，部使者潘田青(一作疇)就原址建屋數間，榜以鼓額，「將以俟四方之士有志於學，而不屑於課試之業者居之」，未竟而去。提刑宋若水繼成，奉先聖先師之像，集國子監及本道諸州印書藏其中。請朱嘉作記，誠諸生勿為科舉功名所亂，而要辨明義利，有志「為己之學」。

(四) 朱熹促進書院發展，為南宋理學領航人

南宋高宗南渡之後，設置國子監和太學，地方州縣學校也相繼恢復和設立。然而，由於重科舉而輕學校，一般庠序(學校)無益於科舉功利，故教育呈衰落現象。《宋史·卷157·志110·選舉3》：

中興以來，建太學於行都，行貢舉於諸郡，然奔競之風勝，而忠信之俗微，亦惟榮

41) 南宋孝宗乾道三年(1167年)，朱熹造訪嶽麓書院，與張栻論學，舉行了歷史上有名的「朱張會講」。

辱升沉，不由學校；德行道藝，取決糊名；工雕篆之文，無進修之志；視庠序如傳舍，目師儒如路人；季考月書，盡成文具。⁴²⁾

南宋初年，如國子監·太學，以及地方州縣學校都得到設立，雖然都是政府所設立，但學子心中在意的，是科舉功名，無心進修，以致學校淪為有名無實的機構，考生將學校看成驛站裡供人休息的房舍，只把教師看成路人一般。

上述情況，到了朱熹而獲得改變。淳熙六年(1179年)三月，朱熹知南康軍，當時白鹿洞書院已廢弛百餘年，他呈報〈申修白鹿洞書院狀〉⁴³⁾給尚書禮部，請求修復白鹿洞書院。次年，書院獲得修復，朱熹自任洞主，親自掌教，發文各地徵求圖書，並於淳熙八年(1181年)上書朝廷，請賜御書石經和監本《九經注疏》·《論語》·《孟子》等書；設法籌措置田基金等。這是南宋書院大興的起點。

南宋的書院教育普遍風行，至於理宗朝(1205-1264)書院發展到極盛，獲得理宗賜院額，或賜御書的書院計有18所，這與寧宗嘉定年間至理宗景定年間，歷時半世紀，崇尚程朱理學的政策直接相關，是南宋書院創辦數量最多·規模最盛的時期。理宗為了表達對書院的支持，除了積極為書院頒書賜額，往往也委任山長以及學官，用以振興書院。⁴⁴⁾這期間，偽學黨禁漸弛，致使理學最終被奉為正宗的官方哲學而統治了宋代教育領域。⁴⁵⁾此外，據《續文獻通考·學校考·書院》的統計，南宋初創的書院約為164家，主要集中在江蘇·安徽·浙江·江西·湖廣·福建等地。其中，江蘇·安徽一帶約為19所，浙江一帶，約為23所，江西一帶，約為39所，湖廣一帶，約為23所，四川一帶，約為13所，福建一帶，約為33所，廣東一帶，約8所，廣西書院約6所。⁴⁶⁾

42) 脫脫：《宋史》，(臺北：鼎文書局)，冊5，頁3671。

43) 朱熹：《朱文公文集》(內頁題名：《晦庵先生朱文公文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本》，冊52，卷20，頁306。

44) 許家銘〈南宋書院的興盛與理學的發展〉：〈教育雲，教育大市集〉：<https://market.cloud.edu.tw/resources/web/1661212###>。

45) 孫培青《中國教育史》，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2年，頁366。

46) 喬衛平：《中國遼金夏教育史》(北京：人民出版社，1994年，頁74。

(五) 理學使書院教育臻於極盛，時代思想大放異彩

宋初，胡瑗·孫復·歐陽修·范仲淹等儒家學者們心所繫念的政治理想，經過近百年的醞釀，終於產生了令人耳目一新·融合儒·釋·道思想的儒學，名為「理學」，並且迅速成為時代的思想主流。

理學興起於北宋，著名的理學家有周敦頤·邵雍·張載·程顥·程頤等人，他們在致力理學研究與傳授之時，大多未直接參與書院的機制。

北宋仁宗嘉祐治平年間(1056年-1067年)，儒學發展形成了王安石荆公學派·司馬光溫公學派·蘇軾的蜀學等派。理學家以邵雍(康節)·周敦頤(濂溪)·張載(橫渠)·程顥(明道)·程頤(伊川)為大宗，被譽為「北宋五子」，他們大致上承繼儒家經典，講仁與心性，又講格物窮理。熙寧二年(1069年)，宋神宗任翰林學士王安石為參知政事，進行變法，次年引發黨爭，二程因此退居洛陽，理學在此後七年或十年達到成熟。北宋兼談性理而著名者，計有四派：周濂溪的濂學·張載的關中學派·二程(程顥·程頤)兄弟的洛學。到了南宋，洛學由朱熹(元晦·紫陽)發揚光大，在福建創出閩學，成為位居正統的程朱理學。濂·洛·關·閩四學派，在兩宋時期，人稱理學四派。

南宋的儒學分為三派—程顥開胡五峰之「湖湘之學」，程頤開朱子之學，也就是程朱理學，代表者乃朱熹；陸九淵則受程顥影響，並引述孟子而開出心學一派。

放眼宋明學術，程朱理學是一大流派，有時被簡稱為理學，以便與陸象山(陸九淵)·王陽明的心學相對。

書院在南宋的發展，可謂進入了另一個高峰階段。此時書院的盛行，和理學的發展密不可分。南宋(1127-1279)高宗初年，楊時·胡安國·胡宏等人將理學南傳，主要以書院教學的方式呈現。楊時曾於常州的毗陵書院·無錫的昆陵·東林書院講授理學。高宗紹興(1131-1162)初年，胡安國·胡宏父子在湖南衡山傳授理學時，創立了碧泉書院·文定書院。這是南宋時期，書院的初步發展。

及至南宋孝宗乾道(1165-1173年)·淳熙(1174-1189年)年間，理學大盛，理學家們四處創建·主持書院，傳播個人學術思想。如朱熹(閩學)·陸九淵(心學)·陳亮(永康之學)·葉適(永嘉之學)·呂祖謙(婺學)·真德秀(西山真氏學)·魏了翁(蜀學)·胡宏(湖

湘學之開創者)·張栻(湖湘學之集大成者)等著名理學家為代表人物。至於南宋的官學，雖有國家支助的經費，因為科舉制度腐敗，導致官學風氣墮落，辦學績效不振，而書院提倡高風亮節，不仰慕功名利祿，不為五斗米折腰的骨梗精神，專業於學術，推崇修己至誠之道，與腐敗的官學正好形成鮮明的對照。

南宋時期，理學雖幾度得以在太學講習，可是，當時的理學家曾經屢遭朝中權貴排抑。茲以《宋史》所記載朱熹遭受排斥的情形始末，舉例如下：

時鄭丙上疏詆程氏之學以沮熹，淮又擢太府寺丞陳賈為監察御史。賈面對，首論近日搢紳有所謂「道學」者，大率假名以濟偽，願考察其人，擯棄勿用。蓋指熹也。…本部侍郎林栗嘗與熹論《易》·《西銘》不合，劾熹：「本無學術，徒竊張載·程頤緒餘，謂之『道學』。所至輒攜門生數十人，妄希孔·孟歷聘之風，邀索高價，不肯供職，其偽不可掩。」上曰：「林栗言似過。」…太常博士葉適上疏與栗辨，謂其言無一實者，「謂之道學」一語，無實尤甚，往日王淮表裏臺諫，陰廢正人，蓋用此術。⁴⁷⁾

熹始以廟議自劾，不許，以疾再乞休致，詔：「辭職謝事，非朕優賢之意，依舊秘閣修撰。」二年(1196年)，沈繼祖為監察御史，誣熹十罪，詔落職罷祠，門人蔡元定亦送道州編管。⁴⁸⁾

自熹去國，侂冑勢益張，何澹為中司，首論專門之學，文詐沽名，乞辨真偽。劉德秀仕長沙，不為張栻之徒所禮，及為諫官，首論留正引偽學之罪。「偽學」之稱，蓋自此始。…右諫議大夫姚愈論道學權臣結為死黨，窺伺神器，乃命直學士院高文虎草詔諭天下，於是攻偽日急，選人余嘉至上書乞斬熹。…熹既沒，將葬，言者謂：四方偽徒期會，送偽師之葬，會聚之間，非妄談時人短長，則繆議時政得失，望令守臣約束，從之。

嘉泰初，學禁稍弛。二年，詔：「朱熹已致仕，除華文閣待制，與致仕恩澤。」後侂冑死，詔賜熹遺表恩澤，諡曰「文」。尋贈中大夫，特贈寶謨閣直學士。理宗寶慶三年，贈太師，追封信國公，改徽國。⁴⁹⁾

47) 脫脫：《宋史》，(臺北，鼎文書局)，冊16，頁12756至12758。

48) 脫脫：《宋史》，(臺北，鼎文書局)，冊16，頁12767。

49) 脫脫：《宋史》，(臺北，鼎文書局)，冊冊16，頁12768。

上述情形涉及到轟動一時的「偽學」案。宋光宗紹熙五年(1194年)侍講朱熹因彈劾韓侂胄「擅權害政」，被韓用「內批」免去侍講官職。宋寧宗慶元元年(1195年)二月，韓侂胄使諫官奏趙汝愚以宗室居相位不利於社稷。趙汝愚被貶至永州(今屬湖南)，後死於貶所。趙汝愚被貶，朱熹、彭龜年等奏論韓侂胄事，寧宗亦加以貶逐。韓侂胄當政，凡與他意見不合者都被稱為「道學之人」，後又斥道學為「偽學」，禁燬理學家的《語錄》一類書籍。科舉考試中，稍涉義理之學者，一律不予錄取。六經·《論語》·《孟子》·《中庸》·《大學》之書為世大禁。慶元三年(1197年)寧宗下詔，訂立偽學逆黨籍，入籍者59人都受到不同程度的處罰，凡與他們有關係的人，也都不許擔任官職或參加科舉考試。

從寧宗慶元元年(1195年)開始的禁偽學，至慶元6年(1200年)前後歷時6年之久，才獲得終止，史稱「慶元黨禁」。遇此嚴厲的「黨禁」，理學在一夕之間竟成「偽學」，而遭到查禁和打壓，著名學者們紛紛沈潛起來，專意於書院教育，賣力宣講性理，爭鳴術，也順便指論朝政。

後來，南宋的書院教育逐步恢復，至於理宗朝(1205-1264)書院發展到極盛，已見前述，茲不贅。

(六) 書院或理學家與官場之關係十分密切

北宋立國初期，急需人才，實行開科取士，睢陽學舍(睢陽書院和應天府書院的前身)的生徒參加科舉考試。登第者達五六十人之多，睢陽學舍一時成了政府倚重的教育中心。

宋真宗大中祥符七年(1014年)，應天書院改稱為「南京書院」。宋仁宗天聖五年(1027年)，范仲淹受邀執掌應天書院，寫了〈南京書院題名記〉：

若夫廊廟其器，有憂天下之心。進可為卿大夫者，天人其學，能樂古人之道；退可為鄉先生者，亦不無矣。觀夫二十年間，相繼登科而魁甲，英雄儀羽臺閣，蓋翩翩焉，未見其止。⁵⁰⁾

說明了應天書院在20年之間所栽培學子，畢業之後，進可為卿大夫，退可擔任鄉先生，順利獲得科舉功名的，確實不在少數。

北宋張載以「橫渠四句」而特別聞名：「為天地立心，為生民立命，為往聖繼絕學，為萬世開太平。」古清美評論道：

「為天地立心」這一句話雖是張載所說，但這句話可以代表他們(北宋理學家)共同的關懷和理想。當他們為中國文化重寫新頁時，他們不但關注政治國家的現實層面，更要超越此一層面，為萬千生民及後代子孫建立屬於中國人自己的生命哲學，讓天道的運行·宇宙的存在都是生生不已的至善之流。是剛健不息的實理大道。而這至善·這實理就是天的「心」，就是他們繼承往昔聖賢之學，而為天地建立的「心」！這種魄力和意志，就是北宋理學家從儒家道德精神的鎔鑄和洗鍊中迸發出來的。⁵¹⁾

北宋書院鼎盛時，官學尚未設置完備，書院講學內容與科舉之業近乎相輔相成。北宋著名理學家們，雖然大多沒有正式運用「書院」為推展教育的資源⁵²⁾，然而，這些理學家往往擔任官職；這或許是因為理學家們的人生目標，大致上是贊同「橫渠四句」的原則而奮鬥不懈。在這種情況之下，理學家們在宣揚理學的時候，難免與朝廷官職之間形成難以切割之勢。以「北宋五子」為例，只有邵雍一生和官職比較沒有關聯，只在過世之後，獲得神宗贈予著作郎，哲宗給予諡號；其他理學大師幾乎都擔任官職，大略如下：

周敦頤(1017-1073年)：歷任郴州縣令·郴州桂陽令·太子中舍，置合州判官·永州通判·邵州知州等地方官職，而後升職為廣南東路提點刑獄。

張載(1020年-1077年)：嘉祐二年(1057年)，中進士，先後任祁州司法參軍·丹州雲巖縣令，後遷任著作佐郎·崇文院校書等。因與王安石政見不同，在弟張戢上書批評王安石而被貶官之後，辭職歸鄉。熙寧九年(1077年)，因李大防推薦，應召入

50) 《范文正公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冊40，頁56。

51) 古清美：《宋明理學概述》，(臺北市，臺灣書店，1996年)頁3。

52) 張載在王安石變法期間，因為意見不同而被貶官，辭職歸鄉，自創橫渠書院，屬於比較少見之例。

京, 同知太常禮院, 遇疾西歸。

程顥(1032-1085)：為程頤之胞兄, 其曾祖父·祖父·父親皆任官職, 程顥受其父之政治思想影響尤深。程顥於宋仁宗嘉祐二年(1057年)中進士, 歷官鄆縣主簿·上元縣主簿·澤州晉城令, 神宗初, 任御史。

程頤(1033-1107年)：歷官汝州團練推官·西京國子監教授。元祐元年(1086年)除秘書省校書郎, 授崇政殿說書。

進入南宋時期, 書院因理學家的倡導, 大多講求性理自得之學, 注重學生道德倫理的自我訓練和涵養, 而不刻意追求功名利祿。然而, 南宋理學在很長一段時期占據了科舉和中央官學的主導地位, 致使理學也未必能與科舉利祿之學截然分開, 兩者往往依然是互相依存的關係。

以朱熹(1130年-1200年)為例, 他在南宋高宗紹興十八年(1148年), 賜同進士出身, 後歷仕高宗·孝宗·光宗·寧宗四朝, 曾任江西南康·福建漳州知府·浙東巡撫, 官拜煥章閣待制兼侍講, 為宋寧宗講學。後因韓侂胄擁立寧宗而得以擅權, 便將朱熹褫職出朝。慶元二年(1196年), 監察御史沈繼祖彈劾朱熹以偽學欺人, 攻訐其為「偽學魁首」, 列有六大罪。朱熹以偽學罪被落職罷祠, 回歸建陽講學著述。

其他南宋理學學者, 除了胡宏以講學為務, 力辭朝廷官職之外, 如：陸九淵·陳亮·葉適·呂祖謙·真德秀·魏了翁·張栻等各派理學代表學者, 都曾擔任官職, 足見理學與朝廷官職體制之間實有難以切割的牽繫。

至於私立書院與官職之間的關係, 例如東佳書院在唐朝開創了一代讀書新風, 取得了顯著的教育成果, 為朝廷培養了大批人才。唐宋時期, 東佳書院培育出18位朝官(其中有3人擔任過宰相), 29個地方官, 55位進士, 陳氏「八英九才子」·「同榜三進士」更是傳為美談。而且, 書院重視人倫教化, 通過對家族子弟宗法倫理意識的培養, 形成了「世守家法, 孝謹不衰, 閨門之內, 肅如公門」的良好家風, 使德安陳氏成為古代封建家族的典範。因此, 唐僖宗·南唐烈祖·宋太祖·宋太宗·宋仁宗等皇帝先後褒旌陳氏為「義門」。唐僖宗題詩：「九重天上書聲貴, 千古人間義字香。」宋太宗題詩：「三千餘口文章第, 五百年來孝義家。」書院因聲名遠播·山水佳秀·藏書豐富, 還吸引了歐陽修·朱熹·呂端·錢若水·黃庭堅·楊億·蘇軾等文人學士前來求知·講

學或遊覽，留下了300多件題詞文章和詩篇。據各地義門陳氏宗譜載：僅「宋慶曆四年(1044年)計，應舉登科者四百有三。郎署之在朝者琛·遜而下十八人，當要路而居刺史·司馬·參軍·縣令者珪·儔而下二十九人」。名震朝野，蜚聲全國。⁵³⁾

就以上現象而言，陳雯怡的看法近乎實情：雖然書院蘊含道之尊嚴的「私學理想」，但並非與科舉制度截然對立。書院的真實面貌必須回到科舉與教育的關係來理解。宋時期的官學到書院「選」到「養」，都跟科舉有關。⁵⁴⁾

李兵提出兩宋書院發展面向的複雜度：自北宋初朝廷無力辦學，書院以「替代官學」之貌出現。其中乃是順應士人求學，書院因重新修復而提供良好的物質條件，另有豐富藏書與名師巨儒之任教者，並提供跨地求學機會。至南宋，新儒學興，書院發展雖批評科舉取士，但並不等於反對科舉制度，形成德業與舉業並重之況。⁵⁵⁾

(七) 三種類型的書院皆與科舉考試有密切關係

宋朝書院可歸納為三類不同的屬性：朝廷關聯式·家族文化式·地域文化式等三種書院。分述如下：

1. 朝廷關聯式的書院：

大中祥符二年(1009年)將「睢陽學舍」正式賜額為「應天府書院」，五年後，應天府書院升格為「南京應天書院」，又稱為「南京書院」。慶曆三年(1043年)，應天府書院改升為「南京國子監」，與東京(今開封)·西京(今洛陽)的國子監並列為北宋最高學府，同時也成為中國古代書院中唯一升級為國子監的書院。從此，這所書院得到官方承

53) <https://www.newton.com.tw/wiki/%E7%BE%A9%E9%96%80%E6%9B%B8%E9%99%A2/12574334>

54) 陳雯怡：《由官學到書院：從制度與理念的互動看宋代教育的演變》(臺北：聯經出版公司，2004年)。

55) 李兵：《書院與科舉關係研究》，(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2005年)。

認，成為宋代較早的一所官學化書院。

北宋時期，影響較大、數量較多的書院，仍主要集中在北宋首都「東京汴梁」（又稱汴京）的周圍和江西、湖南一帶。首都周圍的書院，如應天府書院、嵩陽書院，官學色彩較濃，反映了這類書院在宋初興起，與朝廷的關聯較為濃厚。

應天府書院的辦學模式，與官方舉才有著密切的關係，使得當地書院風氣大盛。例如：李觀先在南城創辦了盱江書院，求學人數曾達千人之多。皇祐二年(1050年)，因范仲淹、余靖推薦於朝，授將仕郎，試太學助教，後又權同管勾太學。再如：杜子野在宜黃創辦鹿崗書院，為王安石少年讀書處。神宗熙寧六年(1073年)，朝廷授予杜子野「特奏名」進士。又如：曾鞏在臨川辦起了興魯書院，且親自製訂校規並任教，還聘請歐陽修、王安石等名人教授生徒。以上三所書院，也都同屬於與朝廷較有關聯的書院。

2. 家族文化式的書院：

五代以來，戰亂頻仍，相形之下，江西情勢安定，經濟文化穩定發展。北宋時期，集中在江西一帶的書院，如華林書院、雷塘書院、潯陽陳氏東佳書堂，則顯示了唐末、五代至宋初時期的家族文化淵源。

(1)華林書院：位於江西奉新。起先是胡氏家族式學塾，發展為華林學舍。宋初，國子監主簿胡仲堯加以擴建，稱為華林書院。其宗旨是胡氏家族聚居，數代傳承經史、詩書、禮儀，並且累代博取功名。徐鉉〈華林胡氏書院記〉稱其：「祖孫一德，洙泗高風。」宋朝胡氏一家中進士者達55人之多，並有位至刺史、尚書、宰相的高位者。吸引許多各地學者前來，書院築室百區，藏書5000卷，肄業者數百人，辦學十分活躍。為華林書院題辭讚頌的王公巨卿有72人。⁵⁶⁾ 華林書院辦學的四大特色：1.是文學派的書院。2.是家族化的書院。3.重視女學，開了收納女生的先河。4.辦學經

56) 喬衛平：《中國遼金夏教育史》（北京，人民出版社，1994年，頁73-74。

費全由家族承擔。⁵⁷⁾

(2)雷塘書院：洪氏世居於江西安義。北宋太宗太平興國年間，洪文撫於居處建雷塘書院，又名雷湖書院，以訓迪子弟，並招徠各處學者。以其南有雷塘，故名。

《宋史·孝義傳》記載：「文撫六世義居」，「就所居雷湖創書舍，招徠學者」。北宋至道年間，地方官將洪氏累世義居及創辦雷塘書院事蹟上報朝廷，宋太宗派內侍裴愈賜書百軸，文撫命有司修葺書堂以教子孫。之後洪文撫隨即派其弟洪文舉進京，進貢土特產以示答謝。宋太宗又親書一幅「義居人」賜給洪氏家族，任命洪文舉為江州助教。宋太宗又下詔，旌表洪氏門閭，並授以官資，免除洪氏徭役。自此以後，洪文撫每年都遣弟子入京進貢，宋太宗必賜答文。洪文撫任洪待用，宋咸平年間進士，官至都官員外郎。宋楊億《雷塘書院記》：「處士之兄子待用舉進士得乙科，同時儕流登是選者以十數，初覆一簣，蓋由椎輪，後來之人貫魚而進，以錫羨流光之慶，加討論博習之資；圭組相輝，將珥貂于七葉；生徒益盛，必著錄者萬人，然後臻夫極也。」⁵⁸⁾這足以表明科舉對書院及讀書人影響之深。楊億又寫道：「先是潯陽陳氏有東佳書堂，豫章胡氏有華林書院，皆聚墳索以延俊髦，咸有名流為之記述，講道論義，況力敵以勢均，好事樂賢，復爭馳而並驚，宜乎與二者鼎峙於江東矣！」⁵⁹⁾直至宋哲宗元祐間(1086-1094)，文撫裔孫洪師民重建洪氏書院，更名「招賢」。其妻兄黃庭堅曾來此講學。

洪氏于宋初興旺一時，至北宋中期，又有師民父子5人，光照門戶。洪師民，博學多才，宋熙寧三年進士，曾任石州司法參軍。性至孝，其四子皆有才名。《豫章書》稱，宋豫章有四洪，朋·芻·炎·羽，皆黃山谷(庭堅)之甥也，皆能詩而位顯；鄱陽有三洪，適·邁·遵，皆洪忠宣之子也，皆能詩文而位顯。

57)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item/%E8%8F%AF%E6%9E%97%E6%9B%B8%E9%99%A2/1122679>

58) 宋楊億：《武夷新集》，(北京，綏裝書局，2004年)，收錄於《宋集珍臺叢刊》冊2，頁245。

59) 宋楊億：《武夷新集》，(北京，綏裝書局，2004年)，收錄於《宋集珍臺叢刊》冊2，頁245。

(3)東佳書堂：唐玄宗開元十九年(731年)，義門陳氏始祖陳旺舉家遷至九江郡蒲塘場太平鄉(即今江西德安縣車橋鎮)東佳山下開創基業，創辦了培養陳氏子弟的家族私塾。陳崇於唐昭宗大順元年(890年)，將私塾發展成「東佳書堂」，屬義門陳氏家學，強調其為崇尚孝義的家族。因聲望日漸遠播，各地求學者慕名接踵而來，隨之擴大規模，改稱「東佳書院」，比「白鹿洞書院」還早五十年。徐鍇〈陳氏書堂記〉：

古之學者，家有塾，黨有庠，術有序，國有學。此繫乎人者也。聖王之處土也就間燕，孟母之訓子也擇鄰居。玄豹隱南山而成文章，成連適東海而移情性。此繫乎地者也。然則稽合同異，別是與非者，地不如人。陶鈞氣質，漸潤心靈者，人不若地。學者察此，可以有意於居矣。

潯陽廬山之陽有陳氏書樓。…助從子袞，本州曹掾。我唐烈祖中興之際，詔復除而表揭之，旌其義也。袞以為族既庶矣，居既睦矣，當禮樂以固之，詩書以文之。遂於居之左二十里曰東佳，因勝據奇，是卜是築，為書樓堂廡數十間，聚書數千卷，田二十頃，以為游學之資。子弟之秀者，弱冠以上，皆就學焉。自龍紀以降，崇之子蛻，從子渤，族子乘登進士第。近有蔚文尤出焉，曰遜，曰範，皆隨計矣。四方遊學者，自是宦成而名立，蓋有之。⁶⁰⁾

當時書院有房數十間，藏書數千卷，帖號「天下第一」(《文德翼》求是堂集)，成為宋初江南著名書院，博得宋太宗賜御書三十三卷和親題「真良家」的封號；義門陳氏是北宋中葉最大·最典型·極為罕見的家族組織機構。

3. 地域文化式的書院

南宋時期的書院，根據《續文獻通考·學校考·書院》的統計，南宋新創的書院，約有167家，就其分布來看，主要集中在江浙·江西·福建·湖南等地，其中包括許多帶有明顯的地域文化特色，它們不拘氏族，各自傳承不同的理學大師的宗旨，或追

60) 清董誥等編，孫映達等點校：《全唐文·卷888》，(山西教育出版社，2002年)，冊6，頁5469。

念本鄉先賢名人而創建。前者追念理學大師如：周敦頤·二程·朱熹·呂祖謙·張栻·陸九淵·魏了翁·真德秀·楊簡等理學學者。後者所追念的文化名人，如文翁·韓愈·胡瑗·蘇軾·黃庭堅…等。

上述地域性的現象，同時反映在祭祀活動。宋代的中央官學及州縣學校多供奉先聖先師，或在德行·政績·學業的某一方面有可鑑於教化的先賢·官吏以及神靈等，奉祀對象不拘常格。至於書院方面，其祀典的供設，既有表明對至聖先師孔子·先賢或先輩的尊敬之意，又具有標明本院教育宗旨的象徵性作用，同時也是為了彰明本書院的初創者·辦學特色及其師門傳承的系譜。例如白鹿洞書院供祀李渤，石鼓書院供祀李寬，睢陽書院供奉戚同文等創發書院者。南宋書院，由於多來自理學家創建，故其祀典也多供奉北宋的周·張·二程諸子，以彰明尊崇道統的意涵。某一學派創辦的書院也往往供祀本學派的宗師，如象山書院奉祀陸九淵，杜淵書院祀楊簡；那些接受奉祀的理學宗師，由人而升格為神，並且顯然各自標識著學術專業傳承的地域性。

（八）書院使綜合教育研究組織和學術中心已然成型

有關宋朝官學的教師，程運先生說：

宋代官學，一般視為冷官，且待遇菲薄，都不肯就，致濫竽充數。且科條繁密，動輒得咎，人事異動頻繁，…學事之廢弛，自為勢所必然的結果。⁶¹⁾

書院教育相較於官學，在各個層面皆熱絡許多，上課方式可採師生共同研習討論的方式，也比較重視學術自由。這種相對自由開放的學制，學生可以不受一家一派之學的拘束，自由擇師，來去自如。因此，學生思路比較活躍，眼界也比較開闊，例如浙江奉化舒璘，少向張栻問學，後來追隨陸九淵·朱熹·呂祖謙求學，終成大器，被丞相留正譽為「當今第一教官」。信州玉山(今屬江西上饒)人汪應辰少從呂居仁讀書，之後拜胡安國·張栻·呂祖謙為師，求得「造道之言」，終成紹興五年(1135)殿試

61) 程運：〈兩宋學校制度之分析〉《政大學報》21期，頁100。

狀元⁶²⁾南宋書院除了有著名學者主持，同時也是名師薈萃的學術中心，其教學水平高於一般官學，實質上有教學和研究相結合的功能。書院逐步發展成為綜合的教育研究組織，為一般僵化·窄化的官學所望塵莫及。

南宋孝宗乾道元年(1165年)，湖南安撫使知潭州劉珙重建嶽麓書院。他還延聘著名理學家張栻主教嶽麓，更加強了嶽麓書院在南宋教育和學術上的地位。張栻主教期間，以反對科舉利祿之學·培養傳道濟民的人才為辦學的指導思想，培養出一批如吳獵·趙方·游九言·陳琦等經世之才的優秀學生。程運先生說：

當時之書院，則課程富彈性，能發明經旨，講學自由，重義利之辨，為學能窮理以致其知，反躬其踐其實。為師者人人能確指修養方法，以示學者。務講明義理，以修其身，然後推己及人，非徒欲其務記覽，為詞章，以釣名聲名·取利祿。

程運先生以為：重人倫之精神·重實踐之精神·重禮節之精神·重組織之精神·合作之精神等五項，是書院教育之特點⁶³⁾；這也是綜合的教育研究組織和學術中心所應呈現的特質，絕非侷促於爭取科舉功名的狹隘目標。李威熊先生說：

後人對書院制度雖有許多的批評，但不可否認的，它是融學術於生活最佳的教育方式，也培養出不少人格修養極高的大師。更為政府訓練政治人才，並對時政提供一些建言，及促進平民教育的普及，這些都是書院的正面作用。又它主要的教材是中國的經書，因此，書院對經籍的整理·研究和弘揚，都有相當大的貢獻。⁶⁴⁾

(九) 書院促進了學術文化的交流

理學家們把書院作為傳播自己學說的重要基地，因此形成不同的學術流派。各學派之間即使有互相辯難的情況，但其中不乏書院教師互相流動的現象，凡當世名儒·

62) 喬衛平：《中國遼金夏教育史》(北京，人民出版社，1994年，頁79。

63) 程運：〈兩宋學術風氣之分析〉《政大學報》21期，頁129至131。

64) 李威熊：《中國經學發展史論》，(臺北，文史哲出版社，1988年)，頁288。

諸家學派的代表人物，都可能應邀講學，且不受資歷・年齡的限制。

應天府書院的交流：北宋時期，晏殊⁶⁵⁾・孫復⁶⁶⁾・胡瑗⁶⁷⁾等不同學派的學者曾在應天府書院講學，其各自不同的政治主張時而引起辯論，學術溝通的氣氛濃厚。

白鹿洞書院的交流：朱熹請南宋理學家另一派代表呂祖謙為修復工作寫記，交流學識。朱熹本人亦撰寫〈白鹿洞書院學規〉，並親臨講課，與學生質疑問難；1180年農曆3月，書院得以完成重建。理學又一派代表人物陸九淵從金溪來訪白鹿洞書院，在朱熹的盛邀之下，登臺講學。陸九淵的「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令在場的學生和客人熱淚盈眶。在朱熹的要求下，陸九淵將這段演講內容寫下，之後刻在石碑上。朱熹在南康任職的兩年時間內，是白鹿洞書院歷史上最鼎盛的時期。翌年朱熹與陸象山共同講學，稱作「白鹿洞之會」，並奏請賜額及御書，書院名聲大振。⁶⁸⁾

嶽麓書院的交流：乾道三年(1167年)，朱熹到嶽麓書院訪問，與張栻論學，舉行了歷史上有名的「朱張會講」。前來聽講者絡繹不絕，時人描繪「一時輿馬之眾，飲池水立涸」。這次會講，也推動了宋代理學和中國古代哲學的發展，所以不僅是長沙，也是中國古代文化史上的一件盛事。書院因此成為不同學派理論的討論・爭鳴・交流的場所。這促進了理學的興旺及文化學術的繁榮。

石鼓書院的交流：宋孝宗淳熙十四年(1187年)，理學大師朱熹・張栻來此講學，朱熹作〈石鼓書院記〉，張栻在合江亭中立碑，書韓愈〈合江亭〉詩和〈石鼓書院記〉。後人將此鑄製成石碑，置於石鼓書院內，名曰「三絕碑」。宋仁宗慶曆四年(1044年)，石鼓書院改為衡州路的官學。

文宗書院的交流：南宋孝宗淳熙二年(1175)，朱熹・呂祖謙・陸九齡・陸九淵等會講於上饒鉛山縣鵝湖鎮鵝湖山麓之鵝湖寺，他們各持己見，「相與講其所聞之學」，此一學術上的著名交流，就是的「鵝湖之會」。宋淳祐十年(1250)，改「鵝湖寺」為「文宗

65) 仁宗天聖四年(1026年)，晏殊聘請范仲淹主持應天書院。

66) 仁宗慶曆二年(1042年)，范仲淹・石介等推薦孫復前來書院講學。

67) 仁宗景佑三年(1036年)，范仲淹引薦胡瑗赴開封，接受宋仁宗召見，且至書院講學。

68) 維基百科，2024.3.23查詢，網址：<https://zh.wikipedia.org/zh-tw/%E7%99%BD%E9%B9%BF%E6%B4%9E%E4%B9%A6%E9%99%A2>

書院」。明代景泰年間(1450-1456)，又重修擴建，並正式定名「鵝湖書院」。⁶⁹⁾

由以上諸例，可知宋朝書院不僅各自樹立學術特色，對於推行學術交流也非常用心，中華學術進化因此得以大幅向前邁進。

結 論

一、官方與書院各取所需，互助互利，相輔相成

北宋立國初期，急需人才，實行開科取士。書院由於官方的關照，故依附於科舉制度並且得以暫代官學的角色，例如睢陽書院的教育工作為國家培育官職人才做出莫大的貢獻。尤其是緩解朝廷尚文治而疏於培植根本，且「重選而不重教」的弊病。

衡陽石鼓書院·江西廬山白鹿洞書院·湖南長沙嶽麓書院·河南商丘應天書院，是元朝馬端臨所提出的北宋四大書院。它們屢獲朝廷或官方賞賜，包括物質賞賜，或封賞職位；以致某些原本私人所創書院，發展到人氣正旺時，政府可能適時將它「收編」，改私立為公立；這是朝廷在教育機構方面獲取不小的現成果實。

北宋有五大理學家，大多擔任官職，在學術上發揮不小的影響力。南宋時期，朱熹是理學的領航者，書院是理學家們推展教育的主要場所，此時期，除了胡宏以講學為務，力辭朝廷官職之外，如：陸九淵·陳亮·葉適·呂祖謙·真德秀·魏了翁·張栻等各派理學代表學者，除了努力為時代和社會建構學術理論，同時整理、研究和弘揚傳統經學之外，也都會擔任官職，足見書院理學家們與朝廷官職體制之間實有難以切割的牽繫，雙方關係可謂互助，相得益彰。

69) 百度百科, 2024.3.28查詢, 網址：<https://baike.baidu.com/item/%E9%B5%9D%E6%B9%96%E6%9B%B8%E9%99%A2>

二、私立學術機構健全發展，已能獨當一面

就經營方式和實際表現而言，北宋民間書院不待官方的規劃或指導，其發展順遂，不僅能獨當一面，而且其輝煌成績勝過官辦太學。

南宋初年，如國子監·州縣學等官學都得到設立，但學子心中在意的，是科舉功名，無心進修，以致學校淪為有名無實的教育機構。反觀南宋書院，其提倡高風亮節，不仰慕功名利祿，不為五斗米折腰的骨梗精神，專業於學術，推崇修己至誠之道，與腐敗的官學正好形成鮮明的對照。例如前有張栻主教嶽麓，以反對科舉利祿之學·培養傳道濟民的人才為辦學的指導思想。後有朱熹請求修復已廢弛百餘年的白鹿洞書院，這是南宋書院大興的起點。從此，南宋的書院教育普遍風行，至於理宗朝(1205-1264)書院發展到極盛。

書院教育相較於官學，在各個層面皆熱絡許多，上課方式可採師生共同研習討論的方式，也比較重視學術自由。這種相對自由開放的學制，學生可以不受一家一派之學的拘束，自由擇師，來去自如。因此，學生思路比較活躍，眼界也比較開闊。南宋書院除了有著名學者主持，同時也是名師薈萃的學術中心，其教學水平高於一般官學，已充分具備教學和研究相結合的功能，成為綜合的教育研究組織，此為一般僵化·窄化的官學所望塵莫及。

程運先生以為：重人倫之精神·重實踐之精神·重禮節之精神·重組織之精神·合作之精神等五項，是書院教育之特點；這也是綜合的教育研究組織和學術中心所應呈現的特質，絕非侷促於爭取科舉功名的狹隘目標。

三、不同屬性的書院分頭發展，皆與官方相關聯

(一). 就學術派別而言，北宋嘉祐治平年間(1056年-1067年)，儒學發展形成了王安石荆公學派·司馬光溫公學派·蘇軾的蜀學等派。理學家則有邵雍·周敦頤·張載·程顥·程頤等「北宋五子」。理學發展到南宋朱熹時期，已形成著名的濂·洛·關·閩四學派。以上諸家對於兩宋學術思想及官場育才都造成不可忽視的影響力。

南宋的儒學分為三派－胡五峰之「湖湘之學」源自程顥；朱子之學，源自程頤；陸九淵則受程顥影響，並引述孟子而開出心學一派。

南宋孝宗乾道(1165-1173年)·淳熙(1174-1189年)年間，理學大盛。理學家們四處創建·主持書院，傳播個人學術思想。除了朱熹(閩學)·陸九淵(心學)之外，又有陳亮(永康之學)·葉適(永嘉之學)·呂祖謙(婺學)·真德秀(西山真氏學)·魏了翁(蜀學)·胡宏(湖湘學之開創者)·張栻(湖湘學之集大成者)等著名理學家為代表人物。他們宣揚學術理論，足以顯示書院各具特色及辦學績效。也因為以上名師大多出任官職，因此，各學派幾乎與官場育材·選材方面有著莫大的關連。

(二)．就學院的屬性而言，宋朝書院可歸納為三類不同的屬性：朝廷關聯式·家族文化式·地域文化式等三種書院。

1. 朝廷關聯式書院，如：應天府書院·嵩陽書院，以及李觀創盱江書院，杜子野創鹿崗書院，曾鞏創興魯書院，都屬於與朝廷關聯較大的書院。就為國育材·選材的功能而言，其辦學目標做了明顯的配合。

2. 家族文化式書院，如胡氏家族所建華林書院·洪氏家族所建雷塘書院，義門陳氏所建東佳書堂，都是同族聚居，顯示了唐末·五代至宋初時期的家族文化淵源。他們數代傳承經史·詩書·禮儀，其發展興盛於宋朝，同時也招收家族以外的學生，無論是講學內容，教忠教孝，淳化社會風氣，且累代成功地博取功名，與官方保持不可忽視的關聯。

3. 地域文化式的書院，例如南宋新創的大約167家書院，主要集中在江浙·江西·福建·湖南等地，使它們帶有明顯的地域文化特色，它們不拘氏族，各自傳承不同理學大師的宗旨，或追念本鄉先賢名人而創建，有些為了彰明本書院的初創者，例如白鹿洞書院供祀李渤，石鼓書院供祀李寬，睢陽書院供奉戚同文等創發書院之人。

以上無論其書院屬於哪個學術流派，或是它們的創立屬於哪一種屬性，當他們藉由書院傳授學術，推展教育的同時，除了強化道學的傳承·人格的陶冶之外，幾乎也都非常在意讓學子或家族成員參與朝廷的科舉考試，鼓勵他們出任官職，報效國家。這也明顯反映書院在力圖發展的同時，十分在意其與朝廷深刻的依存度和互動關係。

四、教育內容有助於提升人民素質，淳化社會

唐朝唐昭宗大順元年(890年)陳崇所創立的「東佳書堂」(後擴建更名為東佳書院)，當時即已寫下〈義門家法三十三條〉。北宋初年，胡瑗·孫復·石介·歐陽修·范仲淹等人，自覺地肩負重建傳統中華文化·復興聖賢學說的使命，遙接三代之「道」，求「生民建教之本」，以及「救斯文之薄」，打算將儒家文化精神重新貫注到政治·社會·學術·人心之中；「創通經義」·「革新政令」，實現內聖外王的理想。

天聖五年(1027年)，范仲淹掌管應天府書院時，為書院制定出一系列課程和管理規則。范仲淹平日勤勉督學·以身作則，當時士大夫矯正世風·嚴以律己·崇尚品德的節操，可謂來自范仲淹的倡導，樹立了煥然一新的學風。其〈南京書院題名記〉記載此書院的基本課程是儒家經典《詩》·《書》·《禮》·《易》·《樂》和《春秋》，強調「夫善國者，莫先育才，育才之方，莫先勸學，勸學之要，莫尚宗經」。學生按照不同專長而入讀各項分科，課程主張學以致用，提倡實地考察，即所謂「明體達用」。

北宋張載提出：「為天地立心，為生民立命，為往聖繼絕學，為萬世開太平。」的重要主張。這幾句話引發當時理學家們的共鳴，當他們為中國文化重寫新頁時，不但關注國家政治的現實層面，更要超越此一層面，為萬千生民及後代子孫建立屬於中國人自己的生命哲學，讓天道的運行·宇宙的存在都是生生不已的至善之流，是剛健不息的實理大道。

南宋朱熹曾為白鹿洞書院制訂〈白鹿洞書院揭示〉，以及〈白鹿洞書院教條〉，對於當時及後來的教育界產生莫大影響。他強調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等五倫相處之道，其次是明示：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等為學次第；再次則是教導學生修身·處事·接物的要領。朱子已然規定了書院教育的宗旨·內容和方式，條列具體而涵意精微，成為其後歷代書院制度模擬的範本。此外，朱熹為石鼓書院作記，誠諸生勿為科舉功名所亂，而要辨明義利，有志「為己之學」。

宋朝書院的教育，是要培養頂天立地，堂堂有為的君子，為國家，為社會，為後代子孫謀劃長長久久的幸福。因此，在為學術耕耘，為社會奉獻潛移默化的心力時，書院教育具備：提升人民素質·淳化社會風俗的功效；這可視為民間書院在文化

教育工作方面，為官方默默地做了很多事，可謂厥功甚偉。

五、提高學術研究水平，促進熱絡的溝通交流

理學家們把書院作為傳播自己學說的重要基地，因此形成不同的學術流派，各學派之間即使有互相辯難的情況，但其中不乏書院教師互相流動的現象，凡當世名儒、諸家學派的代表人物，都可能應邀講學，且不受資歷、年齡的限制。

應天府書院方面，北宋時期，晏殊·孫復·胡瑗等不同學派的學者曾在應天府書院講學，其各自不同的政治主張時而引起辯論，學術溝通的氣氛十分濃厚。白鹿洞書院方面，朱熹與另一學術流派代表呂祖謙之間有所交流。朱熹本人亦撰寫〈白鹿洞書院學規〉，並親臨講課，與學生質疑問難。不同流派的理學家陸九淵從金溪來訪白鹿洞書院，在朱熹的盛邀之下，登臺講學，也舉辦了學界津津樂道的「白鹿洞之會」。嶽麓書院方面，乾道三年(1167年)，朱熹到嶽麓書院訪問，與張栻論學，舉行了歷史上有名的「朱張會講」。石鼓書院方面，宋孝宗淳熙十四年(1187年)，理學大師朱熹·張栻來此講學。文宗書院方面：南宋孝宗淳熙二年(1175)，朱熹·呂祖謙·陸九淵·陸九淵等舉行學術上著名的交流，此即「鵝湖之會」。

由以上諸例，可知宋朝學者不僅各自樹立學術特色，對於推行不同學派之間的交流也非常用心，而書院正好成為不同學派理論的討論·爭鳴·交流的場所，這促進了理學廣泛流佈，也使中華學術的進化得以大幅向前邁進。

【參考文獻】

1. 單行本著作

- 宋楊億：《武夷新集》(北京，綫裝書局，2004年)，收錄於《宋集珍臺叢刊》，冊2。
- 宋范仲淹：《范文正公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冊40。
- 宋范仲淹：《范文正公集》(北京，綫裝書局，2004年)，收錄於《宋集珍本叢刊》，冊3。
- 宋朱熹：《朱文公文集》(內頁題名：《晦庵先生朱文公文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四部叢刊本》，冊53。
- 宋呂祖謙：《呂東萊先生文集》(臺北縣，板橋，1970年)
- 元馬端臨：《文獻通考》(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3年)《文淵閣四庫全書》，冊611。
- 元脫脫：《宋史》(臺北，鼎文書局)，冊13。
- 明陳邦瞻：《宋史紀事本末》(北京，中華書局，1997年)，收錄於中華書局編輯部：《歷代紀事本末》，冊2。
- 清袁枚：《隨園隨筆》(臺北，鼎文書局，1978年)
- 蔡仁厚：《宋明理學·北宋篇》：心體與性體義旨述引(臺北，臺灣學生，1982年)
- 蔡仁厚：《宋明理學·南宋篇》：心體與性體義旨述引(臺北，臺灣學生，1983年)
- 王明蓀：《宋遼金元史》(臺北市，眾文出版，1986年)
- 李威熊：《中國經學發展史論》(臺北市，文史哲出版社，1988年)
- 孫培青：《中國教育史》(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2年)
- 傅樂成：《中國通史》(臺北市，大中國圖書公司，1993年)
- 喬衛平：《中國遼金夏教育史》(北京，人民出版社，1994年)
- 古清美：《宋明理學概述》，(臺北市，臺灣書店，1996年)
- 程光裕·王吉林：《中國通史》，(臺北市，中國文化大學出版部，2004年)
- 余英時：《宋明理學與政治文化》(臺北市，允晨文化，2004年)
- 苗書梅等點校：《宋會要輯稿·崇儒》(開封，河南大學出版社，2004年)
- 陳雯怡：《由官學到書院：從制度與理念的互動看宋代教育的演變》(臺北，聯經出版公司，2004年)
- 戴逸，龔書鐸主編：《中國通史》(臺北縣，中和，中經社，2005年)
- 李兵：《書院與科舉關係研究》(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2005年)
- 季嘯風：《中國書院辭典》(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6年)

2. 期刊論文

- 李才棟：〈書院的起源與宋代書院的發展〉《華東師範大學學報》1985年第3期，頁85至88。
程 運：〈兩宋學校制度之分析〉《政大學報》21期，1971年，頁85至110。
程 運：〈兩宋學術風氣之分析〉《政大學報》21期，1971年，頁129至131。
羅智章：〈救斯文之薄：論北宋初年書院的教育目的〉《人文社會科學研究，教育類》第14卷，第2期，2020年6月，頁55至73。

3. 網路資料

1. 許家銘〈南宋書院的興盛與理學的發展〉：
(教育雲，教育大市集：<https://market.cloud.edu.tw/resources/web/1661212##>)
2. 百度百科，2024.3.28.查詢
<https://baike.baidu.hk/item/%E9%B5%9D%E6%B9%96%E6%9B%B8%E9%99%A2>
3. 百度百科：2024.4.03.查詢
<https://baike.baidu.hk/item/%E8%8F%AF%E6%9E%97%E6%9B%B8%E9%99%A2/1122679>
4. 中文百科：2024.4.05.查詢
<https://www.newton.com.tw/wiki/%E7%BE%A9%E9%96%80%E6%9B%B8%E9%99%A2/12574334>
5. 中文百科：2024.4.10.查詢
<https://www.newton.com.tw/wiki/%E7%BE%A9%E9%96%80%E6%9B%B8%E9%99%A2/12574334>
6. 中文百科：2024.4.10.查詢
<https://www.newton.com.tw/wiki/%E7%BE%A9%E9%96%80%E6%9B%B8%E9%99%A2/12574334>
7. 維基百科，2024.3.23.查詢
<https://zh.wikipedia.org/zh-tw/%E7%99%BD%E9%B9%BF%E6%B4%9E%E4%B9%A6%E9%99%A2>
8. Tripadvisor網站：2024.3.23.查詢
https://www.tripadvisor.com.tw/LocationPhotoDirectLink-g494935-d1855271-i35504443-Bailudong_Collage-Jiujiang_Jiangxi.html

Abstract

The reasons for the prevalence of academies in the Song Dynasty and their interaction with the officialdom

Lin-Yeh Lien*

The name "Academy" originated from the Tang Dynasty, originally referring to an institution for collecting books, but later evolved into a place for admitting students to attend classes. This article first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flourishing of academies in the Song Dynasty. Then explore the various interac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ademies of the Song Dynasty and the official court. Academies often receive rewards from the court, including land, books, plaques, and even official positions awarded to certain academy operators. There is a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private or public nature of academies ; This fully demonstrat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and official admission officials, with each party taking their own needs and benefiting each other.

The famous Confucians and Neo Confucianism in the Song Dynasty were the main leaders of the academy's teaching and thought. They established academic rules for the academy, and also carried forward the essence of Confucianism through the academy's education. In addition to encourag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imperial examination, they also emphasized that students should not forget the distinction between righteousness and benefit,

* Graduate School of Applied Chinese Studies Professor / liny@yuntech.edu.tw

and must be motivated to cultivate their moral integrity. All these efforts are of great help i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eople, promoting moral education, and purifying social customs. Therefore, folk academies have silently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offi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work.

In the context of a free academic atmosphere, the management of academies has developed in different modes, such as "court related", "family cultural", and "regional cultural color". However, due to many masters of Neo Confucianism holding official positions, all three models of academ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However, after all, these academies adopt a free and open academic system, with a combination of teaching and research functions. Coupled with the gathering of renowned teachers and the emphasis on cultural exchange, these factors have made the academies a comprehensive educ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and academic center. Generally speaking, the above-mentioned special achievements of academies are often incomparable to rigid and narrow official schools ; This is the Xintiandi that the Academy of Classical Learning in the Song Dynasty expanded for the academic community, and it can be called an outstanding contribution.

Key word : Academies, Neo Confucianism, Song Dynasty education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理念与实践的变革

—晚清书院藏书转型与近代图书馆*

张 晓 新**

- 一. 理念转变：晚清书院藏书记内容变化
- 二. 实践演进：晚清书院藏书目录属性变化
- 三. 晚清书院藏书近代化对近代图书馆的影响

【국문초록】

시대적 발전 및 서원 교육 개혁의 점진적인 전개와 더불어, 청대 말기 서원의 장서 또한 이념적·실천적 차원에서 모두 근대화로의 추세를 보이게 된다. 이념적 차원에서 보면, 청대 말기 서원 장서기를 살펴보면 여전히 장서 내용에 있어서는 ‘성인지학(聖人之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지만, 그러나 서학 서적을 중요한 ‘조력자’로 보는 진술 또한 적잖이 포착된다. 실천적 차원에서 보면, 청대 말기 장서 목록의 속성 또한 진화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서원의 장서 목록에 서는 더 이상 학문적 지향점을 부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지 않게 되었으며, 아울러 서지 항목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문헌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청대 말기 서원의 장서 체계는 그 이념과 실천에 있어서 중국 근대 도서관의 창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주제어 : 청대 말기 서원 장서, 장서의 근대화, 장서의 변혁, 근대 도서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18).

** 湖南大学岳麓书院 博士研究生 / zhou_zhan@126.com

【内容摘要】

随着时代发展以及书院教学改革的逐步开展,晚清书院藏书在理念和实践上均有向近代化演进的趋向。理念上,以晚清书院藏书记的书写为例,虽然其内容仍强调书院藏书以“圣人之学”为依归,但已不乏将西学书籍视为重要助力的表述。实践上,晚清书院藏书目录的属性开始演化,不再以指示学术门径为主要目标,并且逐渐扩展了著录项目,其文献价值逐步凸显。从结果来看,晚清书院藏书理念与实践对我国近代图书馆的创立产生了相当的影响。

关键词:晚清书院藏书,藏书近代化,藏书变革,近代图书馆

由于书院藏书需要满足书院师生的教学和研究需求,具有非常强烈的实用性,在性质上与图书馆非常接近,以往研究常聚焦于比较书院藏书与图书馆在借阅手段·管理流程等方面的相似之处,以及晚清书院藏书的开放化与公共化等议题,较少有研究从晚清书院藏书记的角度出发加以剖析,也少有研究针对晚清书院藏书目录编制属性的演变而开展。实际上,近代图书馆成立之初,不但接收了众多书院藏书,还延续使用了书院的藏书章程。仔细剖析这类史实,有助于更加立体地理解晚清书院藏书与近代图书馆之间的紧密联系,推动近代藏书史和图书馆史的纵深研究。

一. 理念转变:晚清书院藏书记内容变化

随着晚清书院在藏书·课程结构等方面的变革,其藏书理念也渐次发生了转变。虽然此一时期书院藏书领域没有诞生出富有代表性的理论,但固守传统的基石已然松动,新的演进处于萌芽状态。众所周知,晚清书院改制的骤然性,使得正处在飞速

发展中的书院建设事业戛然而止,进而导致晚清书院藏书的这种转变无从发生。历史虽然无法假设,但过往的经验却可以提供借鉴。在晚清到民初的知识转型过程里,近代中国在西方压力之下发生的知识与制度体系转型,如果只是全盘西化式地照搬移植,问题也就相对简单。可是,中国的文化不仅历史悠久,而且一脉相传,始终活跃,其巨大张力所产生的延续性,对于近代的知识与制度转型产生着重要的制约作用。¹⁾晚清书院藏书建设在理念上的转变过程,生动地展现了历史悠久的中国文化对晚清书院藏书近代化转型的制约,换言之,晚清书院藏书近代化转型并非突变性的转折,而是一个缓慢的演变过程。

晚清书院藏书发展处在各种相关体制彻底变革的前夕,这样的时间节点表明传统的惯性还在发挥着重要的作用,针对书院藏书活动的藏书记撰写就是重要的传统之一。晚清书院期冀扩充实用之学书籍的收藏,与书院追求经世致用的学风互为表里。从发展阶段来说,清代书院浓厚的官学化色彩,决定了其教学研究大多以举业为主要内容,但晚清严重的现实危机,使得追求举业与造就人才似乎成为相悖的追求,无论对西学的态度是接受还是排斥,批判科举不能造就人才以及批评围绕举业为目标的藏书和读书态度,是晚清士人的常规表达,在各家书院藏书记中时有类似的表述。

书院藏书记一般由深度参与晚清书院藏书记建设的官员·士绅或学者所作,通常记述书院藏书的由来·经过·成就等情况,作为一种较为特殊的文学作品,它们具有一定的写实性,除记载书院藏书的过程及成就之外,撰写者在行文中也透露出对于书院藏书事业的感悟和理念,一定程度上能够反映书院的藏书情况。晚清书院留下来不少的藏书记,较为常见的是各类相关人士撰写的各家书院藏书记,其中特殊的是同名的六篇《钟山书院藏书记》,是钟山书院六名学子提交的课艺作品。以这些藏书记作为基础文献,分析其写作晚清书院藏书理念,可以提供新颖的视角,作为文学作品,作者在撰写过程中必然不可避免使用修饰·夸大等文学修辞,但他们在书写过程中透露出来晚清书院藏书理念的转变,值得深入探讨。

1) 桑兵·关晓红:《近代学术的清学纠结》,上海:上海人民出版社,2020年,第7页。

同治年间河北乐亭县知县王霖为尊道书院存储书籍, 并作《尊道书院藏书记》, 云“近世之士大夫以干禄为心, 以速成为望, 四子六经之书不过童而习之, 其熟复而讲明者已不多有。”他批评了其时士子的浮躁习气, 认为许多读书士子不认真读书, “惟以剽窃袭取为要术”, 因此他认为, “欲振今日之士习, 其必自读书始矣。有院而无书, 则实不副名, 士奚赖焉。”²⁾ 书籍对于振兴士习有着重要的功效, 因为通过博览群籍, 研习实学, 士子才能达到通经致用的境界。光绪十年(1884)侯绍瀛《昭义书院藏书记》云: “兵事兴, 仕进之例杂, 用人之途广, 科目之道狭, 而士人遂以诗书为迂, 学业亦浸, 不如古矣。…学者于通经之余, 博览群籍, 优游涵泳, 朝于斯, 夕于斯, 自能心通其意, 然后发为文章也。区区科第云尔哉! 夫读书致用, 非仅以贴括文字为弋取科名之具也。”³⁾ 同样反对以举业为目标的学习, 侯绍瀛的认知更进了一步, 认为学子博览群籍应以致用为依归。

晚清书院藏书记显示藏书重要性已经得到重视和拔高。在传统观念里, 藏书虽然是一种有别于其他物品的特殊收藏, 但它的重要性似乎还没有被提升到成为生活必需品的程度, 而晚清书院藏书记中, 藏书的重要性被夸大到超越了物质的食粮。李坤所作《昆明经正书院藏书记》云: “更有饫于仓之谷者, 藏书是也”,⁴⁾ 他大力称赞经正书院的藏书主持者, 认为其“购书于沪·于粤·于楚·于金陵, 先后凡数十万卷, 栉度之楼, 纵人往观, …以是而饱乎仁义焉, 他日举于乡, 立于朝, 仕于四方, 吾知其必有以食天下之人也, 则公之食人, 岂第仓谷以为饫乎”,⁵⁾ 李坤将书籍收藏视为比民生更为重要的事业, 虽有夸大之嫌, 考虑云南地处偏远, 他如此推崇藏书的功效, 带有鼓励当地书院士子读书入仕的意味。

随着晚清社会发展, 书院藏书记中也出现了针对西学书籍的论述, 如光绪十八年(1892)葛士达《冠山书院藏书记》曰: “择其有裨于学术体用, 而不谬于圣人者, 购

2) 《永平府志》卷37, 国家图书馆藏清光绪五年(1879)刻本, 第50b-51a页。

3) 睢宁县志稿》卷8, 国家图书馆藏清光绪十二年(1886)刻本, 第15b页。

4) 《思亭文钞》卷1, 转引自李希泌, 张椒华: 《中国古代藏书与近代图书馆史(春秋至五四前后)》, 北京: 中华书局, 1982年, 第67页。

5) 《思亭文钞》卷1, 转引自李希泌, 张椒华: 《中国古代藏书与近代图书馆史(春秋至五四前后)》, 第67页。

得经史子集及算学筹海诸书九十余种,计九百八十余册,附以中外沿海水陆舆图十余幅,皮置州城冠山书院,为多士肄习之资。”葛士达在论述中秉持了晚清主流的西学中源说,并将算学视为西方先进技术的根本和基础,他认为:“历算通而百法可任意变化,三代以上,人皆童而习之,彼绛县老人,纪年甲子,军中谣诵,亦识火中,他若墨子之刻鸢,翔飞不下,偃师之饰偶,曲终邪睨,书见而并未以为奇也。”此种心态,最终归纳为以下认知:“古之圣人,无所不通,无所不能,治民以道,不屑以伎,亦未尝不尽其所能,略呈其巧,以折异邦尝试之心,所以威服荒裔,民俗阜康,成久安长治之化。”而困于科举的士子,受限儒家著作之中,无法扩展眼界,“今之所为士者,四子书五经而外,目无所见,耳无所闻,偶遇一二新异之端,其谨愿者,则极屏为妄而绝之,其喜事者,则争撷其皮毛,以期骇世震俗,为进取之具。”他既批评将西学视为异端的做法,也反对以西学哗众取宠、获取名利。在这篇读书记中,他展望当世形势,指出“夫当全球扰攘之秋,挟术以互相争胜,争地杀人,且无已时,徒以为妄而绝之,而空空无一制胜之术,固不可也。”因此他为冠山书院建设藏书,希望书院士子能够利用藏书获得致用的技能,但他也清醒地意识到,在藏书有限的情况下,难以取得理想的效果,毕竟“读此数十种书,遂可自号为儒耶!而力有未能也。”他寄希望于后来者,“冀后来者之附益之也,且学有序以渐进也,有志者即所藏而习之通之,得其端以竟其委,欲罢不能,亦各自能远访而旁搜也。”⁶⁾这篇藏书记展现了葛士达对书院藏书效用的深刻认识,他强调所收藏的书籍“不谬于圣人”,是他相信传统的儒家经典中能够找寻到制敌取胜的大道,而“附以中外沿海水陆舆图十余幅”,又表明他努力寻求实际的解决方法。葛士达为冠山书院购置的藏书目录显示他未遵循传统的四部分类系统,他将书籍分为“经义·子史·治事·词章·图”五类,其中“治事”类和“图”类收藏他认为有关致用的中西学书籍,为了更直观地了解葛士达的藏书思想,兹将他为冠山书院所购置的“治事”类和“图”类书籍列出如下。

“治事”：《筹济编》八本；《海国图志》二十四本；《瀛寰志略》六本；《水经注释》

6) 葛士达：《冠山书院藏书记》，《平定州志补》不分卷，国家图书馆藏清光绪十八年(1892)刻本，第22a-26b页。

二十四本；《数学精详》六本；《海道图说》十本；《公法便览》六本。

“图”：《海道总图》一幅；《海道分图》六幅；《地球图》两幅。

上述书籍中，《水经注释》刊于乾隆年间，是对酈道元《水经注》的补充和阐释；《数学精详》为乾隆年间屈增发所著数学专著，分类辑录传统算学与西方几何学内容；《筹济编》为光绪年间杨景仁所著荒政书。如果说，这三者尚属传统经世书籍，则《海国图志》《瀛寰志略》的购藏表明葛士达已注意到有关新的世界知识，而由美国人金约翰著·傅兰雅等人所译的《海道图说》，⁷⁾以及美国人吴尔玺著·丁韪良等人所译《公法便览》的入藏，更表明葛士达的视野不仅仅限制在本国人所作的治事著作。他希望书院士子通经博览，寄托于以古圣贤世界的映照，来解决当下现实世界的难题，虽然更多指向古代圣贤的经典著作，但在现实世界的操作中，他扩大了书院所藏致用书籍的范围，从某种程度上来说，或许他默许了西学书籍也成为了实现“圣人之学”的可能助力。

葛士达《冠山书院藏书记》展现了晚清书院西学书籍入藏的事实，他的论述和实践表明晚清注目时事的书院士人，几乎秉承着注重实学才能救时弊的思想，这种思想促进了晚清书院注重拓展书籍收藏范围的态度。总之，晚清书院藏书记体现出书院藏书建设者希望以书籍建设来促进学风转向的目的，纠正晚清书院追求举业·不重视实学的弊端，并将振兴国威的希望寄托于实学人才的培养，而实学人才的培养，除开展课程改革外，以书籍为最直接的可依赖对象。再如同样作于光绪十八年(1892)的《墨香书院藏书记》，作者详细记载藏书收购过程·内容和使用流程，进一步表明书籍收藏的最终目的是被书院士子使用，同时书籍作为可资重复利用的资源，还要持续·长久地进行流传：“购尊经·锦江两书院官书若干卷，…为两木厨，树于书院圣位前，俾展读者肃然知所起敬⁸⁾”。藏书场所选择放置在“书院圣位前”，以备读者“肃

7) 金约翰著《海道图说》十五卷，附长江图说一卷海道总图一幅分图十二幅长江图五幅，疑冠山书院藏书“图”类所藏《海道总图》一幅和《海道分图》六幅应来源于此。参见徐维则：《增版东西学书录》，熊月之《晚清新书目提要》，上海：上海书店出版社，2007年，第122页。

8) 《墨香书院藏书记》，《黔江县志》卷3，国家图书馆藏清光绪二十年(1894)刻本，第42-43页。

然知所起敬”，则其藏书建设所导向的精神同样以“圣人之学”为依归，记载充分展现了晚清书院藏书愿景与实践的相互统一，这是藏书实践可以被纳入理论准备的一种表现，暗示了晚清书院藏书理念已具备相当的理论超越性。墨香书院藏书以“经史子集”四部分类，其“史部”书籍中有《瀛寰志略》一书，表明即使地处偏僻的墨香书院，也受到了晚清学术思潮的影响。

这些藏书记表明，晚清书院士人面临严重家国危机时，从其固有知识结构出发，只能转向“圣人之学”寻求解决路径的现实，不可忽略的是，他们在寻求“圣人之学”的过程中，注意到了西学书籍的功效性和重要性。这样的理念在《钟山书院藏书记》中也有同样的表现。

钟山书院作为省城书院，地理位置优越，资讯发达，学术思想日新月异，在清末的教育界和思想界异常活跃，其藏书建设也独具特色，从其流传下来的课艺作品中，收录了六篇藏书记就可证明。这六篇作品出自《钟山书院乙未课艺》，系光绪二十一年(1895)梁鼎芬主讲钟山书院时期所刻书院士子的课艺作品，记述梁鼎芬在此期间所开展的藏书事迹，其后附梁鼎芬点评。

根据这六篇藏书记的记载，钟山书院藏书在梁鼎芬的主持下，“檄取江宁苏杨三局书籍，藏诸钟山，复分遣吏掾，遍征鄂陕湘粤浙五行省所槧官本，以惠诸生”(杨炳福⁹⁾。梁氏希望书院士子通过诵习这些藏书，进而“发愤自励，深观古人成败得失之故，蔚为经世之略，他日出而宰正天下，佐成上治，常存此中国帝王之统”(鲍梓生)¹⁰⁾。为了矫正其时书院士子重视制艺而不潜心经史的风气，借由撰写藏书记的时机，书院士子批评道：“士亦安可荒经蔑古，惟时文之务而不一究心用世之学哉”(杨炎昌)¹¹⁾。这些论述表明晚清钟山书院注重实学·倡导经世致用的学风对它的藏书建设产生了不小的影响，鉴于其书籍收藏范围主要为“经史百氏”之书，则其所强调的经世致用范围，大体仍不出中国传统经史之学。

9)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年，第270页。

10)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第272页。

11)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第269页。

按, 梁鼎芬于光绪十二年(1886)在惠州主持丰湖书院藏书建设时, 尚未表达对西学的看法, 而在十余年后主持钟山书院, 却不得不对西学有所注意. 对于西学, 钟山士子秉持这样的观点: “耶苏天主教, 邪词波说, 又为光气化重之学, 新奇可喜, 以眩惑少年新进之耳目. 盖汉宋之异同渐息, 而中西之派别又歧, 此固学术之厄, 而亦教思之穷也”(杨炳福)¹²⁾, “彼言异教者, 纵其多方以耀我, 广其术以□我, 而不为之惊, 不为之愚, 正学既昌, 然后有深固不摇之气, 而人人思治矣”(石凌汉)¹³⁾. 只需保持正统中学的牢固地位, 做到“正学既昌”, 就可以不惧西学的冲击, 是晚清时期书院士人的普遍认知.

这样的认知决定了梁鼎芬主导下的钟山书院藏书建设, 仍然以传统经史著作的收藏为主, 但时代又决定钟山书院士子在议论藏书建设时, 无法忽略西学带来的强势冲击, 在《钟山书院藏书记》中, 有学子表达了将挽救学术之弊的希望寄托于书籍购藏的想法: “淘之·汰之·精之·详之, 得书若干卷种, 将使学者集卢钱姚唐诸君之所长, 以救今日之所弊, 所谓他日各有成就者, 盖为通经致用计, 而非欲以剽窃程朱·攀援许郑, 为一切矜奇眩博之说, 以揣摩时尚者也”(杨炳福)¹⁴⁾. 在来势汹汹的西学冲击浪潮下, 通过藏书建设来巩固正统“圣人之学”, 从而抵御西学, 实现“内圣外王”的理想, 达到经世济用的目标, 是钟山书院这篇藏书记作品传递出来的理念. 而从梁鼎芬的点评来看, 梁氏注重对作者道德修养的评价, 如评杨炎昌作品: “渊雅深厚, 跌宕夷犹, 心志性情均极商挚, 真吾党之英也”¹⁵⁾, 评石凌汉作品: “深明大义, 自铸伟词, 吾党雅材庠序之佳士也”¹⁶⁾, 这些具有浓厚传统道德审美意趣的点评, 进一步表明钟山书院追求以道德教化的内圣之学, 希冀在追崇“圣人之学”的同时, 达到“救今日之所弊”的目的.

钟山书院藏书的详细情况, 目前可考的只有雍正年间《钟山书院志·卷九·经籍》

12)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 第271页.

13)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 第273页.

14)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 第271页.

15)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 第270页.

16)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 第273页.

所载目录, 计“督宪颁发书籍三十一种”,¹⁷⁾ 全部为传统经史子集类书籍。梁鼎芬主持钟山期间, “与节帅议藏书钟山书院之举, 先于江宁·苏州·扬州三局调取一分, 其南昌·杭州·武昌·长沙·广州官书皆分函乞购, 宏编具复, 文教斯裕”。(金世和)¹⁸⁾ 可见所建藏书规模应该不小, 惜藏书目录无存, 无从得知钟山书院此次藏书的详细信息。而从梁鼎芬编撰的《钟山书院乙未课艺》来看, 其内容主要包含制艺·杂文·箴·古今体诗·试帖诗, 未见西学内容, 该课艺的详细篇目为:

制艺:《事前定则不困》《孟子曰博学而详说之将以反说约也》《子曰志士仁人无求生以害仁有杀身以成仁》《君子固穷》《不信仁贤则国空虚》《民之憔悴于虐政未有甚于此时者也》《隐居放言》《风雨如晦鸡鸣不已》;

杂文:《祭顾亭林先生文》《移建文宗阁议》《钟山书院藏书记》;

箴:《行箴》《学箴》;

古今体诗:《秋怀诗》《钟山书院飨堂秋祭礼成纪事》;

试帖诗:《草长江南莺乱飞》《野人叹息朝无人》《山中归来万想灭》《误国当时岂一秦》《良晨诂可待》《读书想前辈》。

梁鼎芬为钟山书院所购的藏书中是否包含西学书籍, 由于缺乏详细目录, 暂时无法下准确的定论。但从钟山书院士子的六篇藏书记作品来看, 彼时钟山书院教学主流仍属经史之学, 主体上崇尚“兼采汉宋”“中体西用”的通经致用之学, 藏书作为可以实现学术理想的资源, 它的作用体现在维护传统中学的“正道”上。

光绪二十三年(1897)二月, 张之洞聘曹元弼为两湖书院经学分教, 其时梁鼎芬任书院监督。在两湖书院期间, 梁鼎芬与曹元弼常互相拜访, 讨论学问, 相互赠书。其所校阅书籍如下:

江宁局《汉书》初印本奉览。《后汉书》看得散乱, 回家乃能检上。叔彦吾弟。鼎芬顿首。二十三日。

17) 汤椿年:《钟山书院志》,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7册, 第544页。

18)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 第274页。

《通典》三十二册奉上留览, 所假各书, 即检四号字, 明日送来. 叔彦吾弟. 鼎芬顿首. 二十八日.

吾乡杨文懿公, 其学术为亭林所诟病. 所著《孝经》一卷, 刻入《端溪丛书》, 弟阅之, 谓亭林之言如何. 鼎芬顿首.¹⁹⁾

《近代史所藏清代名人稿本抄本》收曹元弼与梁鼎芬信札其四·其五亦撰于此时, 札中述及二人读书与校书之事:

薇隐《易解》受读. 昨所假《易传》, 循首至尾, 圈点精详, 对之令人钦服愧赧. 其连圈处, 尤见大雅宏指所在. 学《易》寡过, 以此为准矣. 此复, 即请星海大哥我师道安. 弟弼顿首.

《读书记》覆校一周送上, 厥中改误一事, 补脱点若干事, 乞审正之. 校书如扫落叶, 重以目力昏花, 颠蹶差忒, 必所不免也. 即请星海大哥我师道安. 弟弼顿首.²⁰⁾

上文中薇隐《易解》, 即小星衍《周易集解》, 《读书记》为陈澧《东塾读书记》, 从梁鼎芬和曹元弼相互之间讨论·阅读以及校对的书籍清单来看, 暂时还未出现西学书籍的身影, 可见其时书院士人群体的读书生活并不是遽然以西学为宗, 这似乎可以成为梁鼎芬主持钟山书院时所持藏书理念的一个侧面补充, 也符合上述章节所论晚清书院士人阅读转向的特征. 但不可忽略的是, 两湖书院在时任湖广总督张之洞的直接主导下, 是晚清书院改革的典范, 它在书院课程改制·藏书建设方面具有突破传统藩篱的榜样作用, 按照唐才常在两湖书院的课艺题目, 已经有《历代商政与欧洲各国同异考》《中国钞币必如何定制综论》《钱币兴革议》《征兵养兵利弊说》《唐祖庸调法得失考》等内容, 说明此时有关的西学知识已经是两湖书院日常教学内容.²¹⁾ 两湖书院在光绪二十三年(1897)改章, 分经学·史学·舆地·算学四门兼习,

19) 崔燕南:《曹元弼与梁鼎芬交游研究》, 吴飞:《南菁书院与近世学术》, 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19年, 第341-342页.

20) 虞和平主编:《近代史所藏清代名人稿本抄本》第一辑, 第135册, 郑州:大象出版社, 2011年, 第501-502页.

21) 《唐才常集》卷1, 中华书局 1980年, 第 2-21 页. 按, 唐才常肄业两湖书院的时间, 已

分教上设东·西两都督,梁鼎芬即其中之一,两湖书院在改革之后,院内来自广东与江浙的士人之间在经学问题上产生了“学统”之争,显示出本土士人接引西学的另外途径。²²⁾而在晚清书院变革改制,以“时务”为旗帜的大趋势下,梁鼎芬等人的藏书·读书理念仍坚持正统的名教立场,可见晚清书院藏书的近代化转向并不是整齐划一地集体转向西学。

晚清书院藏书记所表达的期许虽仍立足于维护中学的正统地位,但与以往时代相比,确实已然具备革新的气息。康熙四十八年(1709)李来章任广东连山县知县期间,捐建连山书院并为其购置藏书,李恒燧作《连山书院藏书记》记其事,论及书籍功用,曰:“书亦故纸耳,其云最有益于人之神智者,何也?圣贤持身接物,以及兵·农·礼·乐,细目大节具载书中,而熏陶德性,必宁静淡泊,而后能潜心理会,躬行体认,久之贯通浹洽,融会为一,庶可以云自得也。”²³⁾可见其时对于书籍功能的认知,尚强调修身养性·知行合一,与晚清时期相去甚远。汪师韩乾隆三十年(1765)为保定莲花书院山长,他延请官府“拨藩库银三百两,委官购买,于京师得书约四百函,装四大厨,于是经史大书咸备,录书目四册”,并作《莲花书院藏书记》,认为“若此书院之设,悯贫士之艰难,预备群籍以供占毕,又恐其读焉不解,而延师与解之,古经师所有事,曰都授,曰都讲,苟无书,则何以授,何以讲乎?”²⁴⁾沈琨乾隆五十二年(1787)《白鹿书院藏书记》,认为书院藏书之用处在于:“读圣贤之书,以求帝

有学者多方考证,目前有两种主要观点:第一,唐才常考取两湖书的时间在光绪二十年春,肄业书院两年半。参见湖南省哲学社会科学研究所编:《唐才常集》,北京:中华书局1980年,第1页;陈善伟:《唐才常年谱长编》上册,香港:香港中文大学出版社1990年,第53页;唐才质:《唐才常烈士年谱》,湖南省哲学社会科学研究所编:《唐才常集—附录(二)》,北京:中华书局1980年,第269页。第二,唐才常于光绪二十年冬考取两湖书院,一年半肄业。参见郭汉民·陈宇翔:《唐才常入两湖书院时间考实》,《近代史研究》,1996年,第4期,第215页。

22) 详见陆胤:《清末两湖书院的改章风波与学统之争》,《史林》,2015年第1期,第87-97,200页。文章分析了在张氏主导两湖书院改革期间,梁鼎芬·杨裕芬等“东塾弟子”与传承江浙“礼学”的蒯光典之间爆发冲突,书院制度的内部调试遭到挫折。

23) (清)李来章编:《连山书院志》卷6,《中国历代书院志》第3册,第345b页。

24) 汪师韩:《上湖分类文编》,《清代诗文集汇编》第308册,第595a页。

王之法，操存持守，明体达用。”²⁵⁾ 依据乾隆时期书院藏书记的表达，书院主事者秉持对“帝王之法”的追求，正是书院藏书仍固守传统的反映。

相较之下，晚清书院藏书记的表述，其核心立场虽仍在于期望通过建设以“圣人之学”为主的藏书体系，以达到培养人才·抵御西学的目的，但明显的变化在于其藏书记中所展现的外延已经得到了极大的扩展。虽然这些藏书记的作者们在论述中不断强化中学的正统立场，其实际的书籍购藏中却存在着大量的西学书籍。由此可见，晚清严峻的国内外形势，使得晚清书院的藏书建设者们在论证藏书合理性·表达对藏书功能性期望的时候，即使受传统的影响，希冀书院士子达到内圣外王的最高目标，实际的操作层面上却不得不重视西学不断涌入的现实，并将西学的重要性不断提高，中西兼重成为晚清书院藏书记撰写的主流式叙述。对于晚清书院藏书的建设者而言，能发挥致用功效的书籍就是首要收藏的对象，正如庄鸿烈在光绪二十五年的《寿良书院藏书记》中所言：“学问之道无穷，书籍亦无穷，惟切于用者而购之，则中材易竟其功。”²⁶⁾ 可见，晚清书院藏书记的作者充分表达了以藏书培养人才的愿望，赋予了藏书实用性的特征，以实用为标的，无论中学或西学知识，只要有助于社会发展，均应该得到重视。这是晚清书院藏书记体现出的重要特征。

二. 实践演进：晚清书院藏书目录属性变化

书院藏书目录是书院藏书体系最为直观的表达，采取何种方式编制藏书目录，某种程度上是书院藏书理念在实践中的反映，因此藏书目录如何编制是非常值得关注的议题。按照传统目录学理论，目录是指导学术门径的重要工具和手段。王鸣盛尝言：“目录之学，学中第一紧要事，必从此问途，方能得其门而入。”²⁷⁾ 就是对目录

25) 沈琨：《嘉荫堂文集》卷3，《清代诗文集汇编》第410册，第454b-455a页。

26) 庄洪烈：《寿良书院藏书记》，《寿张县志》卷8，国家图书馆藏清光绪二十六年刻本，第69b-70a页。

27) 王鸣盛：《十七史商榷》，黄曙辉点校，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年，第1页。

学功用的有效总结。在我国传统藏书领域,公私藏书基本占据主流。相应的公私藏书目录在目录史上有着重要的影响,从《七略》《汉书·艺文志》《隋书·经籍志》《四库全书总目》等公藏目录到《直斋书录解题》《郡斋读书志》等私藏目录,其目录编制都强调通过对书籍的整序达到学术梳理的目的,章学诚总结为“辨章学术·考镜源流”,是对传统目录学功效的精辟总结。

晚清随着知识体系的逐步变革,传统目录学理论受到了挑战。一些走在思想界前沿的学者,开始以一种新的眼光看待书籍和目录学,典型如康有为,他在《桂学答问》中论及目录学,认为读书人应:“当知目录之学。俾知天下书目甚多,无以兔园册子·高头讲章·时样制艺自足。书目博深,莫如钦定《四库提要》。精要且详,莫如《书目答问》。其检丛书之目,有《汇刻书目》,皆学者必应查考之书。”²⁸⁾孟昭晋认为,康有为此时所谓“俾知天下书目甚多”中的“天下”已是方言世界的天下,他的勿以科考书籍“自足”的劝导,已不仅是在旧学范围内的博与陋之争,而是勿以全部中国旧学自足的号召。因而,他的“当知目录之学”,已然与乾嘉学者王鸣盛辈的教导有了本质区别,具有了通读书目掌握世界范围文献与知识的新意义。²⁹⁾对于藏书宗旨迥异于公私藏书的晚清书院,编制藏书目录虽然仍带有一定的学术色彩,但更多的目的在于将书籍按照顺序登记,为借阅工作提供便利,既然开展目录编制的出发点不同,结果自然也有差异。晚清现存书院藏书目录中,除仙源书院和箴言书院尚坚持追求“辨章学术·考镜源流”的传统目录学主张外,多数书院编制藏书目录时更注重发掘目录的导读和登记功能,这意味着晚清书院藏书目录在属性上逐渐淡化其指示学术门径的功能,更趋向于凸显文献价值。

从这个意义上来看待晚清书院藏书目录,一种有别于传统目录学理论·具有近代目录学气息的性质已然呼之欲出。纵观晚清书院藏书目录的编制状况和发展趋势,晚清有志于传播书籍的读书人已经具有了模糊的文献意识。与注重书籍版本的私人藏书家不同,他们注重书籍所承载的内容,并强调书籍的使用价值大于收藏价值。

28) 康有为:《长兴学记 桂学答问 万木草堂口说》,楼宇烈整理,北京:中华书局,1988年,第38页。

29) 孟昭晋:《康有为的目录学思想》,《图书馆论坛》,1993年第4期,第16-20页。

按照现代文献学家的观点：“文献尽管在其漫长的历史发展中经历了各种不同的载体形态，…但它本质是一种传播媒介，载体形态的演进是人类传播需要不断深化的必然结果，…因此，我们说，文献实质上是人类文化的·精神的符号交流系统，是人类凭藉组织编码的有序语义信息的文本传播人类信息的重要传播媒介。”³⁰⁾ 这个表述吻合晚清书院编制藏书目录的目标，光绪年间葛士达为冠山书院构建藏书，尝谓：“书积之厚者其流长，蕴之深者其光远，而其所以积之·蕴之道，则非读书不为功。”³¹⁾ 当书籍的载体功能被视为首要的核心功能时，其隐含的文献学价值也逐渐凸显出来，如果将文献视为载体，那么，在被奉为万世经典的儒家著作所记载的知识内容，无法满足当下的迫切需求时，接受新的知识体系成为自然的选择，晚清书院藏书的内容和结构改革，很大程度上得益于此，即使侧重于研讨中学的梁鼎芬，对待书籍的态度也极度包容，他的弟子杨寿昌回忆，梁氏在构建丰湖书藏时，对中外书籍的收藏采取兼采的态度：“寿昌窃闻，先师论学，以有用为归宿，无新旧·无古今·无中外，一也。书藏关于近世掌故之书甚多，其涉及外国者，如《海国图志》《瀛寰志略》《四裔编年表》《俄罗斯纪要》《西轡日记》《印度日记》《克虏伯炮弹制造法》之类，皆讲备储藏。盖斯旨也。”³²⁾ 晚清书院在藏书实践中逐渐萌发出朦胧的文献学意识，使得晚清书院藏书目录在属性上发生了根本变化，归纳如下。

(一) “辨章学术·考镜源流”功能的隐退

晚清书院藏书目录虽然也存在如仙源书院·箴言书院注重辨析学术源流的提要性目录，但总体来看，这类目录不是主流，相当部分目录在编制过程中更趋向于依据收藏书籍的实际情况进行，注重目录编制的高效与简洁，当书籍不再被视为教化的象征符号，更多是一种增长学问的工具和手段时，其整序和编目工作会逐渐以

30) 周庆山：《文献传播学》，北京：书目文献出版社，1997年，第3页。

31) 《冠山书院藏书记》，《平定州志补》卷1，国家图书馆藏清光绪十八年(1892)刻本，第22-26页。

32) 黄植楨等编：《惠州丰湖书藏书目》，民国九年(1918)同仁堂铅印本。

适合借阅为主要的目的,整体看来,晚清书院藏书目录在发展趋势上已渐渐不再以分类学术门径为核心宗旨。

与清代前期及中期的书院藏书目录相比,晚清书院藏书目录最为显著的特征,是对实用性的重视。体现在两个方面:一是重视目录对书籍的登记功能;一些书院藏书不多,但重视用编撰院藏书籍目录的形式将藏书记载下来,典型如《筠阳书院书籍目录》³³⁾《岳阳书院书籍目录》³⁴⁾,藏书数量都不多,大致在两三百本之间,著录内容也简略,著录每种书名·本数,凸显了藏书目录的登记功能。二是对读书的指示性功能逐步加强,即这一时期书院目录编撰更注重对学子读书路径的引导,比如在一些类目或具体书籍下详细讲解分类由来以及书籍沿革,典型如《粤秀书院藏书目录》,在“《音论》一卷,顾炎武著”下详注:“谨案:原书目自有卷数,此析载《皇清经解》书目,即用《经解》原次之数,其中往往有与原书卷数异者,盖原书篇次各自悬殊,《经解》则酌中编辑,凡原书中非说经者,亦抽出不载。今志目虽拆著而皮藏,仍属全编,故卷第宜依《经解》原目也。”³⁵⁾在“四书文类”下,有“谨案:四书文虽自明以来悬为功令,然非经非集,实著录家之所不载,无类可附,惟书院教育人材,则首重此,今别为门目,隶于集后”³⁶⁾的详细解说,既解释了“四书文类”独立立类的原因,又说明了需要确立此类目录的理由,潜移默化之中对士子的读书路径进行了有效指导。

这种以登记·指读为导向的目录编制,强调了书籍的工具属性,即书籍是获取学问·开展学术研究的手段。这个转变意味着传统儒家经典的教化象征及其符号作用在逐渐下降,书院藏书的实用性不断加强,藏书目录的指向性也愈加明确。随着藏书目录的分类范围不再局限于四部范畴,部分书院藏书目录不再严格附和四部体系,较为突出的如光绪初年《求志书院存院书籍》将藏书分“经学·史学·掌故·舆地·算学·词章·丛书”七个大类著录。³⁷⁾光绪十三年《冠山书院藏书目录》将藏书分“经义·

33) 《高安县志》卷7,国家图书馆藏清同治十年(1871)刻本,第35a页。

34) 《巴陵县志》卷7,国家图书馆藏清同治十一年(1872)年刻本,第39-40页。

35) 梁廷枏:《粤秀书院志》卷6,《中国历代书院志》第3册,第75a页。

36) 梁廷枏:《粤秀书院志》卷6,《中国历代书院志》第3册,第88b页。

子史·治事·词章·图”五个大类,“治事”类收藏《海国图志》《瀛寰志略》《公法便览》等书籍,“图”类收藏《海道总图》《地球图》等时务书籍.³⁸⁾部分书院采取在四部之外扩充新部类来类分藏书,如《文正书院藏书目》,在“经史子集”之外,设置“时务书目录”,所收录时务书包括《四裔年表》《日本国志》《西国近事汇编》等介绍西方知识的书籍.³⁹⁾这些新型的类目名称根据新收藏的西学书籍内容来确立,表明晚清书院在藏书类目设置上以现实书籍为根据的做法,不再以学术门径的划分为依归.如冠山书院所分五个大类,其“图”类以书籍形制分类书籍,在严格的意义上甚至不能作为单独的类目存在,更遑论和前四位类目并列,但“舆图”类书籍在晚清士人的阅读中占有重要的位置,冠山书院针对藏书中的“舆图”类书籍专列一类,正是根据书籍的实际情况开展藏书编目的实证.

根据实际的书籍开展目录编制,是晚清书院藏书目录体现出来的重要特征,彻底贯彻了晚清书院藏书以实用性为主导的理念.晚清书院的藏书建设者们通过扩充新类·改造旧类等手段将具有新内容·新形制的书籍纳入藏书体系,充分证明其藏书实践具有容纳性强·包容性广的特点,同时也表明四部分类不再适用与晚清书院藏书编目领域,预示了接纳新的知识体系的可能.部分以捐赠为主要藏书来源渠道的书院,其目录通常就以捐赠人为款目开展著录,如同治年间《岳麓书院新捐官书总目录》·福州《致用堂捐藏书目》·光绪年间《丰湖书院藏书目录》《龙潭书院陈侍郎捐书名目》《中江书院尊经阁书目》等.部分书院甚至不讲求分类,只将院藏书籍登记造册,如巴川书院·凤仪书院·古桃书院等.光绪年间⁴⁰⁾寿良书院的书籍目录较为典型的反映出了这种纪实的风格特征,它共著录了十五种书籍,除登载书籍题名和数量外,还表明了前十二种书籍由“袁沂道锡良捐发,书院有碑记”,后三种书籍则“由书局购置”.⁴¹⁾寿良书院藏书目录只登录书籍的基本信息,由此可见,晚清书院

37) 《求志书院存院书籍》,《上海县续志》卷9,国家图书馆藏民国七年(1918)刻本,第11a-13a页.

38) 《平定州志补》不分卷,国家图书馆藏清光绪十八年(1892)刻本,附4a-7a页.

39) 《文正书院藏书目》,国家图书馆藏清光绪二十五年(1899)刊本.

40) 目录未注明编撰年,但依目录所注十二种书为袁沂道锡良捐置,则锡良于光绪二十年调任沂州知府,后又提拔为袁沂曹济道,则其编撰年份应在光绪二十年左右.

藏书目录类有一种从“学术性”转向“说明性”的趋势，代表着传统目录学指示门径功能的弱化。

（二）著录项目开始扩展

传统目录学著作对书籍的著录，常着眼于考证书籍的编撰起源、流传情况及其学术价值等方面，即使涉及版本，也是出于更全面地保障书籍固有价值的需求，偏重于对书籍内容的著录。而在晚清书院看来，书籍目录的编制更多在于揭示书籍的利用途径，因此其外在形制也应一并进行著录，与此同时，书籍被登载于册，也完成了书院对固定资产的登记工作。时代发展对目录编制工作产生了新的需求，这是书院藏书目录属性发生转变的又一重要原因。

在近代印刷技术出现在我国图书市场之前，手抄及雕版印刷是最为重要的书籍生产方式。晚清时期，西方先进的印刷技术被逐渐引入，图书市场上出现了众多采用新兴印刷方式生产的书籍，如石印本、油印本等。晚清书院书籍收藏过程中，注意到了书籍印刷版本的差异。如宁乡云山书院，同治十二年(1873)的院藏书目特意注明“宋版《易经》·宋版《书经》·宋版《诗》”等宋本书籍，⁴²⁾表明目录编撰者已经意识到了藏书版本的差异需要特别加以注明。在洋务运动期间成立的各地方官书局，是晚清书院采买书籍的重要来源，其生产的书籍称之为“局板”，区分于武英殿所刻“殿板”。临津书院在其院藏目录中，每种书籍下标明版本，计“局板”书籍二十六种，“石印”书籍十四种，“木板”书籍十九种。⁴³⁾《华阳书院储院书目》著录“石印”书籍十种，包括石印《正续皇清经解》·石印《瀛寰志略》等。⁴⁴⁾昭义书院藏书目录中著录有一部“洋板”《字典》。⁴⁵⁾《陕甘味经书院藏书目》著录有“海山仙馆本”·“粤雅堂本”·“本

41) 《寿张县志》卷2，国家图书馆藏清光绪二十六年(1900)刻本，第7b-8a页。

42) 《宁乡云山书院志》卷2，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5册，第297a页。

43) 《临津书院存书目录》，《宁津县志》卷4，国家图书馆藏清光绪二十六年(1900)刻本，第19b-21a页。

44) 《华阳书院储院书目》，《续纂句容县志》卷3，国家图书馆藏清光绪三十年(1904)刊本，第25b-26a页。

书院刊本”等。⁴⁶⁾《文正书院藏书目》在“时务书目录”类下收藏《湘学报》《岭学报》《格致汇编(一·四·五·六·七编)》等报刊,以及《热学图说》《全体图说》《百兽图说》等涉及多种学科且以图形为主体的书籍。⁴⁷⁾这些著录内容说明晚清书院具有发掘新书籍版本及新书籍形制的意识,同时也表明晚清书院开始采用更为多元的态度来对待书籍收藏,隐含将书籍作为传播信息媒介的工具和手段的潜在认知。

晚清书院在藏书的著录项方面的扩展,为藏书领域的相关研究提供了便利。如崇义书院在书籍题名和数量外,还表明了书籍价格,是研究晚清书院藏书经费问题的重要史料。⁴⁸⁾临津书院将院藏书籍的“局板”“石印”“木板”等特征标注出来,有助于了解此一时期书籍市场的发展情况。特别在目录中注明捐赠人,一方面反映了晚清书院藏书的捐赠比例,另一方面如实记载了一些知名人士·学者向书院捐赠书籍的清单,通过这些清单,可以从侧面了解这部分晚清知识分子对待书院藏书的态度,也是开展文化史·教育史乃至阅读史研究的重要史料。

鉴于书院藏书与社会发展·文化变迁之间存在着极其强烈的互动性,晚清书院藏书目录不仅是书院藏书事业的一个侧面,也是社会文化发展的一个反映,有学者就曾指出,应将古代图书史作为社会发展史的一个组成部分来研究。⁴⁹⁾藏书目录作为藏书真实状况的反映,其文献价值逐渐显现出来。

(三) 献价值逐渐凸显

除单行本书院藏书目录外,众多书院藏书目录被记载在地方志·书院志以及清人文集等文献中,是其文献价值渐次凸显的证明。通过史料翻检晚清书院藏书目录的过程中,笔者发现不少书院曾出版其藏书目录的单行本,如仙源·丰湖·广雅·大梁

45) 《睢宁县志稿》卷8, 国家图书馆藏清光绪十二年(1886)刻本, 15b-16b页。

46) 刘光賁:《陝甘味经书院志》不分卷, 附《藏书目录》等三种, 民国十二年(1923)刻本。

47) 《文正书院藏书目》, 国家图书馆藏光绪二十五年(1899)刊本。

48) 《崇义书院传书》卷1,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5册, 第765页。

49) 陈力:《中国古代图书史:以图书为中心的中国古代文化史》,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年, 第3页。

等藏书规模宏大的书院,也有藏书规模较小的书院刊行单行本藏书目录,如龙游凤梧书院·兴化文正书院等。但就比例来说,单行本的书院藏书目录并不占据主流。相当多的书院藏书目录被记载于地方志·书院志和清人文集等相关文献中,同治十二年(1873)《宁乡云山书院藏书章程》规定的,“书院置备书籍,责成号房收管,另置书目簿一本,记明函数若干,本数若干,随时登载”⁵⁰⁾,”随时登载”的要求,说明书院藏书目录的编制是一个动态的过程,可以想象,如果书院藏书是一个持续的长期过程,那么其藏书目录的学术性价值必然难以保持,其属性会逐渐趋向于文献性价值。

晚清书院的藏书建设者极为重视书籍的文献价值,李坤在《昆明经正书院藏书记》中认为构筑藏书供人阅读,更胜于建设粮仓为人提供食粮,“君固喜食吾人,然更有饫于仓之谷者,藏书是也”。⁵¹⁾强调了书籍带来的社会影响。晚清地方志有关教育·学校的内容如果涉及到书院,其藏书工作通常也会记载下来,这类文献中通常包含着书院藏书目录。如光绪十七年(1891)浙江上虞县知县唐煦春筹款重建经正书院尊经阁以庋藏书籍,目的在于“阐扬文教,使一邑研经之士接踵兴起”,书院的兴起·源流·田租地产及所藏书籍目录等情况均记载在《上虞县志》中,⁵²⁾书院藏书目录作为书院文献的一部分被收录,其属性已极大区别于传统以指示学术门径为主的公私藏书目录。

需要注意的是,地方志记载的书院史料有时候并不那么准确,有学者曾经考证具体地方志对地方书院的记载,指出地方志在递修中存在准确性与完整性不充分的问题。作为书院研究主要史料来源之一,研究者在使用方志书院文献时应加以甄别。⁵³⁾在这种时候可以再利用其它书院文献加以考证,如书院志·个人文集等。书院志中所记载的书院藏书目录,从数量和质量上来看均有可取之处,像箴言书院·宁乡云山书院·岳阳慎修书院·端溪书院的藏书目录都在书院志文献中获得,且藏书

50) 《宁乡云山书院志》卷1,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5册,第274b页。

51) 李希泌,张椒华:《中国古代藏书与近代图书馆史料(春秋至五四前后)》,年第67页。

52) 《上虞县志校续》卷37,国家图书馆藏清光绪二十五年(1899)刊本,第10b-11a页。

53) 张劲松:《明代宁州凤山·山泉二书院小考—兼论地方志书院史料问题》,《九江学院学报(社会科学版)》,2020年第4期,第30-34,44页。

部分在书院志中所占篇幅不小,藏书目录往往占据篇幅较多.在一些晚清士人的文集中,也会记载一些与书院藏书有关的文献.典型如袁昶,他一生致力于构建有别于四部分类体系的图书分类法.曾在日记中记载他为复初讲院所创立的十六门图书分类.⁵⁴⁾袁昶的分类思想是晚清知识体系从四部开始走向分科的萌芽,在分类法上具有重要意义.而袁氏将这一分类体系记录在册的行为,表明书院藏书目录所具备的文献价值已经被创作者捕捉到.

光绪四年黄彭年重主河北保定莲池书院,筹款购书藏于万卷楼,曾令弟子“白生钟元·范生右文分别部居,次为目录”,作《万卷楼书目序》,认为:“书之聚而必散,虽竭智者之千虑,不能保其不亡”,⁵⁵⁾但文献散佚了,藏书目录还可以作为曾经的见证保留下来,可以想见黄彭年重视书院藏书目录的编制,正是由于其具有文献价值的缘故.综上所述,从晚清书院藏书目录的编制目的·著录项目和文献价值来看,其与传统目录学“辨章学术·考镜源流”的核心价值正逐渐分离,在这个过程中,藏书目录的文献属性缓慢地凸显出来,而指示学术门径的功能却渐渐地淡化了.

三. 晚清书院藏书近代化对近代图书馆的影响

提及近代图书馆,首要论及的就是它不同于以往藏书体系的公开性和公众性.晚清之际,随着人们对世界知识的渴求,藏书的作用被提升到了与国民素质乃至国家前途密切相关的重要程度,对藏书公开的需求比以往时代迫切.对这一时期藏书开放性的探讨,学界已经有一批相当成熟的研究成果,如对浙江古越藏书楼开风气之先的“由私转公”的探讨⁵⁶⁾·外国传教士在传教过程中客观上对藏书事业的推动⁵⁷⁾

54) 袁昶:《于湖文录》,《清代诗文集汇编》编纂委员会:《清代诗文集汇编》第761册,第503-504a页.

55) 黄彭年:《陶楼文钞》卷8,《清代诗文集汇编》第693册,第601页.

56) 这方面研究较早的如高学安:《古越藏书楼与中国近代图书馆事业》,《浙江学刊》,1995年第3期;近年有学者探讨浙江绍兴的藏书文化,对徐树兰创建具有近代公共图书馆特征的古越藏书楼产生了极大影响,如那艳,周公旦:《试论绍兴藏书文化的地域特征及

等等,有学者指出,光绪三十三年(1907年)《格致书院藏书楼观书约》的第八条规定:“凡各报章,择有益于学者,无论日报·月报·教报,概照观书约例,在楼下阅看,楼上不备”,此为书报分藏,开辟报刊阅览室之始。⁵⁸⁾实际上,在晚清部分书院中,书报分藏,且各自提供借阅已经不是新鲜事,格致书院的藏书规定不能被视为近代图书馆报刊分藏的开始,晚清书院藏书出现图书馆因素的时间应该要更早一些。

龚蛟腾等人认为,中国古代图书馆学孕育于先秦·形成于西汉·兴盛于两宋并一路传承,至民国初期转型为近代图书馆学。⁵⁹⁾追溯我国近代图书馆的传承,不应只着眼于20世纪初公共图书馆建立的事件,按照前文分析,促成我国近代图书馆诞生机制的土壤应该还可以再往前推进,如程焕文就曾详细论述晚清新政影响下所产生的图书馆实践活动。⁶⁰⁾实际上,早在光绪二十二年(1896)五月初二日《刑部左侍郎李端棻奏请推广学校折》中,李端棻提出数条教育改革建议,其中第一条就是“设藏书楼”,在论及乾隆皇帝编《四库全书》,且建南三阁供士子阅读·阮元建焦山灵隐寺藏书津逮后学之事后,他言道:

泰西诸国颇得此道,都会之地皆有藏书,其尤富者至千万卷页,许人入观,成学之众,自由于此。今请依乾隆故事,更加增广。自京师及十八省省会,咸设大书楼,调殿板及各官书局所刻书籍,暨同文馆·制造局所译西书,按部分送各省以实之。其或切用之书,为民间刻本官局所无者,开列清单,访明价值,徐行购补。其西学书陆续译出者,译局随时咨送。安定章程,许人入楼看读,由地方公择好学解事之人经理其事。如此,则向之无书可读者,皆得以自勉于学,无为弃才矣。古今中外有用之书,官书局有刻本者,居十之七八,每局酌提数部分送各省,其费至省,其事至顺。一奉明诏,事即

其对古越藏书楼的影响》,《图书馆》,2022年第8期。当然,学界也不乏质疑古越藏书楼是否具备近代图书馆性质的研究,如黄少明:《质疑古越藏书楼的公共图书馆性质》,《图书馆杂志》,2004年第10期。

57) 这方面研究如齐诚·马楠:《外国传教士与中国近代图书馆事业》,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

58) 李颖:《近代书院藏书考》,《图书与情报》,1999年第1期。

59) 刘春云,龚蛟腾:《中国古代图书馆学研究述评》,《图书馆建设》2017年第9期,第11-18页。

60) 程焕文:《晚清图书馆学术思想史》,第216-319页。

立办, 而饬遗学者, 增益人才, 其益盖非浅鲜也.⁶¹⁾

李端棻的设想是在各省建藏书楼, “妥定章程, 许人入楼看书”, 他认为藏书楼的书籍有三个来源, 一是“调殿板及各官书局所刻书籍, 暨同文馆·制造局所译西书, 按部分送各省以实之”·二是“切用之书, 为民间刻本官局所无者, 开列清单, 访明价值, 徐行购补”·三是“西学书陆续译出者, 译局随时咨送”. 他的设想是针对各省藏书楼设计, 类似于对公共图书馆的设计, 但细究他提出的建各省藏书楼时书籍的三个来源, 与晚清书院藏书的来源有着大的相似性.

在我国近代大学体制的创立过程中, 大学图书馆的建设也在一定程度上借鉴了晚清书院的藏书建设. 如光绪二十四年(1898)建立的京师大学堂, 其奏定章程中曾这样表述建立藏书的重要性: “学者应读之书甚多, 一人之力必不能尽购”, “近张之洞任广东, 设广雅书院, 陈宝箴任湖南, 所设时务学堂, 亦皆有藏书. 京师大学堂为各省表率, 体制尤当崇闳. 今拟设一大藏书楼, 广集中西要籍, 以供士林浏览而广天下风气.”这个章程中还明确规定京师大学堂藏书楼的人员设置, 拟设提调1人, 办事人员10人, 以广其事.⁶²⁾ 京师大学堂的设立, 是百日维新保留下来不多的成果, 其设计之初就以广雅书院·时务学堂的藏书建设为借鉴对象, 强调“广集中西要籍”, 具有开放性的视野, 这种视野的出现与晚清书院藏书建设长久以来的潜移默化有关.

光绪二十七年(1901)安庆绅士何熙年发起倡议, 号召安徽省士绅共同出资建设皖省藏书楼, 他的设想是“约集同志, 创办书楼, 多储经史, 以培根本. 广置图籍, 以拓心胸. 旁及各报, 以广见闻.”⁶³⁾ 其所附章程有十二条, 其中第八条规定: “本楼俟开办后, 拟仿格致书院之例, 酌设季课藉以鼓舞劬学之士, 或由官府给奖, 或由本

61) 陈谷嘉·邓洪波: 《中国书院史资料》,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8年, 第1983页.

62) 《京师大学堂章程(节录)》, 李希泌, 张椒华: 《中国古代藏书与近代图书馆史料(初秋至五四前后)》, 第106页.

63) 何熙年: 《皖省绅士开办藏书楼上王中丞公呈》, 李希泌, 张椒华: 《中国古代藏书与近代图书馆史料(初秋至五四前后)》, 第107页.

楼赠资,其文字之尤佳者,当由本楼汇刊,并先送沪上各日报馆登载,以昭实学而扬大名。”⁶⁴⁾ 皖省藏书楼以其馆藏·服务和管理理念与近代图书馆相近,被认为是我国公共图书馆的先导,⁶⁵⁾ 从它的藏书结构和章程分析,皖省藏书楼仍以经史类书籍为购藏重点,但它同时注重报纸的收藏,视野已经扩展。考虑到安徽与上海之间的地理位置接近,上海更为开明与繁荣的文化氛围自然会对周边省市地区的文化建设产生辐射作用,皖省藏书楼的藏书不仅购自上海,其书楼开办之后,还准备仿造上海格致书院的课士之法,将优秀的课业作品集结后登载到上海的报纸上,可见皖省藏书楼的创立受格致书院的影响甚大。皖省藏书楼的第十一条章程更揭示了它与书院之间的渊源,其条文曰:“兹事乃官绅合力办成,以为皖省肇启新机·讲求实学之用,与省城各书院渺不相涉。”⁶⁶⁾ 此条章程特意申明皖省藏书楼“与省城各书院渺不相涉”,意味很明显,由于它的创立过程·藏书结构和章程与书院藏书太过相似,为了显示其不同于书院的性质,才需要在章程中特意申明,这反而在侧面上印证了二者之间具有紧密联系。可以想见皖省藏书楼的建立很大程度上借鉴了晚清书院的藏书体制。

晚清书院藏书的近代化发展与近代图书馆的紧密联系,是基于时代演变的特点而产生。与西方图书馆的发展相比,我国近代图书馆是内部演化与外力促进之下的产物,它自诞生之初就被知识精英群体赋予了提升民众素养的重要意义。按照一些学者的论点,中世纪的大学图书馆着重于馆藏的使用,是最早意义上的现代图书馆。它强调职业分途,注重培养律师·医师·祭师等专门人才。这些学生毕业之后,走向社会,以他们所学的法律·哲学·医学等专门知识,再去教育别人,致使中世纪的社

64) 《皖省藏书楼开办大略章程十二条》,李希泌,张椒华:《中国古代藏书与近代图书馆史料(初秋至五四前后)》,第108-109页。

65) 参见庄华峰·刘和文:《何熙年与皖省图书馆》,《国家图书馆学刊》,2006年第3期。

66) 《皖省藏书楼开办大略章程十二条》,李希泌,张椒华:《中国古代藏书与近代图书馆史料(初秋至五四前后)》,第109页。

67) 张波:《宋代书院藏书与西方中世纪大学图书馆之比较》,《新世纪图书馆》,2005年第5期。

的藏书建设中不乏萌芽，如元代鄞城历山书院藏有当时称作“方书”的医学类图书，⁶⁸⁾明代江苏常熟虞山书院“经济部”收藏《九边图考》《筹海图编》《江南经略》《水利全书》《经赋册》等经济类书籍，在“杂部”收藏《素问》《医统》《本草》《脉经》等医学书籍。⁶⁹⁾而晚清之际，书院藏书逐步向社会公众开放的事实，逐渐导致其藏书体系必然涉及对通俗类书籍的收藏。从晚清到民国，传统的士大夫阶层在转向近代知识分子的过程中，逐步意识到通俗类书籍对于民众的教育作用，这种包容的趋向性在缓慢的层面上改造着传统的书院藏书结构。山东泰安县在民国五年(1916)建通俗图书馆，购藏书籍除传统经史外，包含时务及科学类书籍，还陆续购藏了通俗小说及少年丛书等二百余种，对于购买通俗小说的原因，其论曰：“戏曲小说鼓词之类与社会人群之关系大哉！庚子拳匪之乱，兴妖作怪之徒，其所假借皆西游记侠义传人也。而贞女节妇乡曲多有之，亦未始非蒙警讽诵所感发，世有志士欲改良社会，其知所从事哉！”⁷⁰⁾可以说，随着晚清书院藏书对通俗化书籍的逐渐接纳，最终结果将是对书院藏书传统的逐渐变革，这大致是能够预料的。

68) (元)程文海：《历山书院记》，见《雪楼集》卷12，影印文渊阁《四库全书》本。

69) (明)张鼐等：《虞山书院志》卷6，见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8册，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年，第121-123页。

70) 《重修泰安县志》卷5，国家图书馆藏民国十八年(1929)铅印本，第55a页。

【参考文献】

- 邹桂香,高俊宽:《我国书院藏书事业近代化的历程·特征与意义》,《图书馆建设》,2021.
- 桑兵·关晓红:《近代学术的清学纠结》,上海:上海人民出版社,2020.
- 《永平府志》卷37,国家图书馆藏清光绪五年(1879)刻本.
- 睢宁县志稿》卷8,国家图书馆藏清光绪十二年(1886)刻本.
- 《思亭文钞》卷1.
- 张椒华:《中国古代藏书与近代图书馆史料(春秋至五四前后)》,北京:中华书局,1982.
- 梁星海:《钟山书院乙未课艺》,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第11册,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
- 梁星海:《增版东西学书录》,熊月之《晚清新学书目提要》,上海:上海书店出版社,2007.
- 墨香书院藏书记》,《黔江县志》卷3,国家图书馆藏清光绪二十年(1894).
- 崔燕南:《曹元弼与梁鼎芬交游研究》,吴飞:《南菁书院与近世学术》,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2019.
- 虞和平主编:《近代史所藏清代名人稿本抄本》第一辑,第135册,郑州:大象出版社,2011.
- 王鸣盛:《十七史商榷》,黄曙辉点校,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
- 康有为:《长兴学记 桂学答问 万木草堂口说》,楼宇烈整理,北京:中华书局,1988.
- 孟昭晋:《康有为的目录学思想》,《图书馆论坛》,1993.
- 周庆山:《文献传播学》,北京:书目文献出版社,1997.
- 张劲松:《明代宁州凤山·山泉二书院小考—兼论地方志书院史料问题》,《九江学院学报(社会科学版)》,2020.

Abstract

Change of Idea and Practice: Transformation of Library Collection in Late Qing Dynasty and Modern Library

ZHANG, XIAOXIN*

The collection of seowon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lso showed a trend toward modernization in both ideological and practical terms, along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the period and the gradual development of seowon education reform. The collection of seowon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emphasizes that most of the collection is still dependent on 'Saint Jihak' when it comes to the content of the collection, but there are also a number of statements that view calligraphy books as important 'helpers'. The nature of the collection list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has also begun to evolv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For example, the collection list of seowon no longer aims to emphasize academic orientation, and the literature value was also emphasized by gradually expanding the bibliography items. As a result, the collection system of seowon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unding of the modern Chinese library in terms of ideology and practice.

Key word : The Western Church, Chinese Seowon, A church seowon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 Yuelu Academy Ph.D. students / zhou_zhan@126.com

■ 일반논문 :

- 조선시대 서원과 향례(鄉禮)
 - 경상도 지역 향음주례(鄉飲酒禮) 시행과 의미
- 書院의 社會史: 庶類系 儒賢의 登場과 社會的 外裝
 - 章山書院의 사례를 중심으로 -
- 安東 西礪祠 建立 과정과 의미
- 근세말 일본의 난학 수용 양상과 특징
 - 난학숙(蘭學塾)의 교육문화를 중심으로 -
- 趙旅(1420~1489) 현창과 함안 西山書院의 역할
 - 『西山延諡錄』 중심으로
- 조선 후기 陽谷 吳斗寅의 추모와 정치적 위상
 - 德峰書院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 서원과 향례(鄕禮)

—경상도 지역 향음주례(鄕飲酒禮) 시행과 의미

김진홍*

- I. 머리말
- II. 향음주례(鄕飲酒禮)의 원류와 시행 배경
- III. 경상도 지역 향음주례의 시행 양상
- IV. 향음주례 시행의 예학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향음주례(鄕飲酒禮)는 향촌 사회 구성원 간 도덕적 의식을 고취하여 풍속을 교화시키는 일종의 향례이다. 그 원류는 음주에 대한 경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폐해는 구체적으로 음란(淫亂)과 무별(無別)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한 개인의 심신(心身)을 해치거나 혹은 한 나라를 망치게 되며 또는 장유(長幼)나 현우(賢愚)의 구분이 없어져 요륜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곧 음주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작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올바른 음주를 위한 의례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이러한 술의 경계와 함께 향촌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향음주례의 시행이 건의되었다. 각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수령들은 특히 향촌민에 대상으로 교화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방안으로 지역의 유력인사를 직접 초대하여 향음주례를 주관하게 된다. 그 효용은 지방민과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예를 통한 효유(曉諭)를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향음주례의 기록 중에서도 실제로 의례를 거행하고 남긴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박창우(朴昌宇)의 「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한국사학전공 박사과정, scarlet9656@naver.com.

향음주례의식(鄉飲酒禮儀式)에서부터 이형상(李衡祥), 윤광안(尹光顔), 이채(李采), 이덕영(李鐔永) 등이 각 지역의 수령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거행한 향음주례 기록들이 그것이다. 이들이 거행했던 향음주례는 『의례(儀禮)』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을 참고하였으며 대체적인 진행단계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제일 처음 빈과 개 등 참석자를 정하는 모빈(謀賓) 단계에서부터 한 공간에서 향음주례를 진행하고 이후 빈이 나가 예가 끝나는 전체적인 의례 단계는 같으나, 의절 속 세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고대에 행해진 향음주례와 시간적 차이가 있는 조선에서 이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향음주례가 일상적 의례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도 그 이유가 된다. 우선 지역의 풍속 교화를 위해 향음주례를 시행해야 하는 사실이 더 중요했으므로 세세한 의절에 대한 참작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남아 있는 향음주례의 기록들은 시행된 지역마다 대체는 같아도 완벽히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학자들이 본의에 충실하고도 시의를 참작할 수 있다는 예의 속성을 잘 이해했음을 볼 수 있다.

주제어 : 향음주례(鄉飲酒禮), 향례(鄉禮), 「주고(酒誥)」, 『동도향음록(東都鄉飲錄)』, 『달성향음록(達城鄉飲錄)』, 박창우(朴昌宇)

I. 머리말

예(禮)는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행하는 원리나 행위 규범, 혹은 인간 문화의 총체적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송대 학자인 주희(朱熹)는 이러한 예의 개념으로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으로 요약하였다.¹⁾ ‘천리’는 하늘의 이치이자 인욕(人欲)과 대비되는 지극히 선한 가치이며 절문은 인간 내면의 감정에 따라서 형식을 조절하고 절제한 것을 말한다. 예가 천리의 절문이 되는 것은 바로 타고난 감정에 따른 인간의 행위가 천리의 절도에 맞게 표현했

1) 朱熹, 『論語集註』, 卷12, 「顔淵」,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기 때문이다.

또한 예는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때에 맞게 변화하는 시의성(時宜性)을 지닌다. “예를 행하는 것은 시대를 따르는 것이 큰 것이고 시대를 따르는 것은 예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했던 것처럼²⁾ 예는 인간 시대 속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맞게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고대에 성인이 만든 이상적인 예법을 존송하면서도 현실 상황에 맞게 예를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예는 규범과 적용의 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성리학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예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예가 적용되는 범위는 인간의 삶 모든 곳이다. 크게는 군주가 사는 공간에서부터 작게는 하나의 가(家)의 내부에서까지 작동되는 것이다. 그중 향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중앙을 제외한 향촌 사회에서 시행되는 예의 총체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향(鄉)은 12,500가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규정된다.³⁾ 그러나 이는 지방 행정 단위에 따른 구분이며 실제로는 지방제도의 변화에 따라 왕궁을 제외한 시골 등 지방 촌락에서 시행되는 의례로 볼 수 있다.

조선 건국 이후 중앙에서는 지방으로의 직접 지배를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여 다스리고자 하였다. 전국에 크고 작은 군·현을 두고 등급에 따라 나눠 행정·사법·군사권 등 입법권을 제외한 권한을 가진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의 파견으로 인해 향촌은 토호 세력이 아닌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그 지배가 확고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바탕 속에서 향촌을 통제했다면 다음으로는 성리학적 교화를 통한 향촌 운영이 다음 과제로 이행되었다. 유향소(留鄉所)나 경재소(京在所) 등의 조직 운영과 함께 조선 중기에 등장했던 향약(鄉約), 향규(鄉規)가 운영되어 향촌 사회를 통제하였다.

2) 陳澧, 『禮記集說』 卷1, 「曲禮」上, “呂氏曰, 敬者, 禮之常, 禮時爲大, 時者, 禮之變體.”

3) 『周禮』 卷3, 「地官司徒」, “令五家爲比, 使之相保 五比爲閭, 閭使之相受 四閭爲族, 使之相葬, 五族爲黨, 使之相救, 五黨爲州, 使之相賙, 五州爲鄉, 使之相賓.”

이후 향촌에서 거주했던 사족들은 향촌 백성들에 대한 표면적인 통제를 넘어 의례를 활용한 내면적인 제재에도 힘쓰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향례를 통한 풍속의 교화와 집단의 통합이다. 향례를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향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집단 상호 간에 존재할 수 있었던 긴장과 갈등 등 부정적 관계성을 완화할 수 있었다. 또한 사족들이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성리학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도 향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활쏘기, 음주, 투호 등의 의례가 각 고을의 수령과 향대부 혹은 유생들이 주체가 되어 관아, 서원, 향교 등에서 거행되었다. 이후 이들은 향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남기면서 이를 단편적인 행위를 넘어 장기지속적인 의례로 이행시키고자 하였다.

본 글에서는 향례 중에서도 특히 중시되었던 향음주례(鄉飲酒禮)에 대한 의례 시행의 원류를 살펴보고 경상도 지역에서 거행된 향음주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은 경상도 고을에 부임하고 나서 지역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하 긴장을 완화하고자 향음주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향음주례의 빈(賓)은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가 맡았으며 각종 제반 업무들은 서원이나 향교 등 지역에 공부하는 유생들을 선거하여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의례 진행을 위해서 『의례(儀禮)』를 비롯한 각종 예서를 참고하여 재현하고자 했으며 시의에 따라 일부 의절을 변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행 기록들은 향음주례의 행용(行用) 차원에서의 향음주례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향음주례(鄉飲酒禮)의 원류와 시행 배경

향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 행위는 다양하게 있으나 그중 향음주례(鄉飲酒禮)는 향촌의 사족 집단이 모여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의례로 정의할 수 있다. 향음주례는 이미 고경(古經)에 언급되어 있는데, 『의례주소(儀

禮註疏』 「향음주례(鄉飲酒禮)」에는 “제후의 향대부(鄉大夫)가 3년마다 대비(大比)를 시행하여 현명한 자와 유능한 자를 군주에게 바치면, 군주는 그들을 빈(賓)으로 예우하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라고 하였다. 또한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향음주의(鄉飲酒義)」에서는 “향음주(鄉飲酒)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시기마다 모여서 음주하던 예법을 뜻한다.”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⁴⁾

그렇다면 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의례적 행위가 마련되었던 것인가. 이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경(書經)』에서 볼 수 있듯이 음주는 정치를 망치게 하는 원인이자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기고 특별히 경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주나라 문왕(文王)이 백성들이 혼란하여 덕을 상실한 것과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특별히 경계한 일화가 대표적이다.⁵⁾ 특히 은나라 주왕(紂王)이 여자와 더불어 술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아 결국 나라를 망하게 된 사건을 통해 술은 오직 제사를 위해서만 허용하며 그밖에는 제재하기도 하였다.⁶⁾ 이처럼 음주에 대한 문왕의 혼계는 이후 위정자들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주입하게 되었던 것이다.⁷⁾

4) 『儀禮註疏』, 「鄉飲酒禮」, “諸侯之鄉大夫, 三年大比, 獻賢者能者於其君, 以禮賓之, 與之飲酒.”; 陳澧, 『禮記集說』, 「鄉飲酒義」, “呂氏曰, 鄉飲酒者, 鄉人以時會聚飲酒之禮也.”

5) 蔡沉, 『書經集傳』卷7, 「酒誥」, “商受酗酒, 天下化之, 妹土, 商之都邑, 其染惡尤甚. 武王以其地封康叔. 故作書誥教之云.”; 이와 관련하여 周公 역시 成王을 보필하면서 酒德에 빠지지 말라는 것으로 경계하였다(蔡沉, 『書經集傳』卷8, 「無逸」, “無皇曰, 今日耽樂, 乃非民攸訓, 非天攸若. 時人, 丕則有愆, 無若殷王受之迷亂, 酗于酒德哉.”).

6) 蔡沉, 『書經集傳』卷7, 「酒誥」, “乃穆 考文王, 肇國在西土, 厥誥毖庶邦庶士, 越少正御事, 朝夕曰, 祀茲酒, 惟天降命, 肇我民, 惟元祀. 天降威, 我民用大亂喪德, 亦罔非酒惟行, 越小大邦用喪, 亦罔非酒惟辜.”

7) 술을 마시면서도 난에 이르지 않는 것은 오직 공자와 같은 성인의 경지에 이른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朱熹, 『論語集註』 「鄉黨」, “惟酒無量,

또한 『시경(詩經)』에서도 음주를 묘사한 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⁸⁾ 이러한 시에서도 술에 대한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음주시(飲酒詩)’에서의 술의 활용은 잔치 및 축하, 송별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정치적 의미로의 경계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⁹⁾ 대표적으로 「억(抑)」편에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정사에 어둡고 어지러워 그 덕을 넘어뜨리고 술에 빠져 지낸다. 그대들은 즐거운 일만 일삼고 이어받아 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널리 선왕의 도를 구하고 삼가 법을 밝혀라.”라고 하며 술을 덕(德)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 주의하였다.¹⁰⁾ 결과적으로 경전(經傳)에 언급된 음주 행위에 대한 일화는 개인의 덕을 해치는 동시에 국가를 망치게 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규범을 통해 제재되어야 함을 이야기 한 것이다.¹¹⁾

특히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정해진 예의(禮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음주와 그에 대한 폐해는 두 가지로 ‘음란(淫亂)’[지나치게 되는 짓]과 ‘무별(無別)’[구별이 없는 짓]로 요약된다. 물론 술이란 그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때도 많다. 특히 연향(宴享)이나 송별 등에서는 음주가 자주 활용되었으며 제사에서 강신(降神)을 위해서는 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법도를 정하지 않거나 그 양을 정하지 않으면 혹 지나치게 되어 난을 초래하거나 오류의 구별이 없어져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

不及亂.”).

- 8) 『詩經』에서는 술과 관련된 55편의 시가 있으며 ‘酒’자를 언급한 문장은 63개이다. 이중 風이 7개, 雅가 50개, 頌이 6개이다(전성수, 「『시경』의 음주시(飲酒詩)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020, 188쪽).
- 9) 전성수, 「『시경』의 음주시(飲酒詩)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020, 204쪽.
- 10) 朱熹, 『詩經集傳』 「抑」, “其在于今, 興迷亂于政, 顛覆厥德, 荒湛于酒. 女雖湛樂從, 弗念厥紹. 罔敷求先王, 克共明刑.”
- 11) 陳澧, 『禮記集說』, 「樂記」, “夫豢豕爲酒, 非以爲禍也. 而獄訟益繁, 則酒之流生禍也. 是故先王因爲酒禮, 壹獻之禮, 賓主百拜, 終日飲酒而不得醉焉. 此先王之所以備酒禍也. 故酒食者所以合歡也.”

게 된다는 것이다.

황제가 말하기를, “주왕(紂王)은 무도(無道)하게 행동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반백(班伯)이 대답하기를, “『서경(書經)』에 여자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였으니, 그가 어떻게 조정에서 방자하게 굴 수 있었겠습니까? 이른바 모든 악이 그에게로 돌아갔으나,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만약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이 계획이 어찌 경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백이 대답하기를, “술에 빠져든다는 것은 미자(微子)가 떠나기를 고한 이유입니다. ‘소리치고 울부짖는다.’라는 것은 대아(大雅)에서 그가 망탕하게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시경(詩經)』과 『서경』에서 음란(淫亂)을 경계한 것은 그 근원이 모두 술에 있었습니다.” 이에 황제는 감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반생(班生)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정론(諍言)을 듣게 되었다.”¹²⁾

『논어(論語)』, 「향당(鄉黨)」편에 이르기를 “술은 일정한 양이 없으나,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정하지 않았으나 다만 취했어도 절도를 지켜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정신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혈기라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며, 다만 몸이 훈훈하고 나면 그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호씨(胡氏)가 말하기를 “난(亂)이란,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밖으로 자신의 위의를 상실하게 하며, 심한 경우 반백이 말한 ‘음란(淫亂)의 근원은 모두 술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사람들이 술에 탐닉함을 경계한 것이다.”¹³⁾

12) 班固, 『漢書』卷100, 「敘傳上」 “因顧指畫而問伯, 紂爲無道, 至於是虐. 伯對曰, 書云乃用婦人之言, 何有踞肆於朝. 所謂眾惡歸之, 不如是之甚者也. 上曰, 苟不若此, 此圖何戒. 伯曰, 沈湎于酒, 微子所以告去也. 式號式譴, 大雅所以流連也. 詩書淫亂之戒, 其原皆在於酒. 上乃謂然歎曰, 吾久不見班生 今日復聞諍言.”

13) 權好文, 『松巖集』卷6, 洞鑑, 酒令, “鄉黨曰, 唯酒無量, 不及. 酒以爲人合權, 故不爲量, 但以醉爲節, 而不及亂. 程子曰, 非唯不使亂志, 雖血氣亦不使亂, 但浹洽而已, 可也. 胡氏曰, 亂者, 內昏其心志, 外喪其威儀, 甚則班伯所謂淫亂之原, 皆在於酒. ○此正所以戒人之溺於醉也.”

반고(班固)의 종조부인 반백(班伯)은 황제와의 대화 속에서 주왕이 정사를 망치게 된 원인을 술을 마시는 행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음주의 폐해가 곧 음란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나라를 망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황제는 반백의 말을 정론으로 여겼는데, 이후 조선의 학자였던 권호문(權好文) 역시 이를 인용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근원을 술에 있음을 주의하였다. 또한 이미 세종 때 조정에서는 술로 인해 몸을 망친 자들을 많았던 것을 언급하며 법으로 금지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며¹⁴⁾ 사대부들은 잠(箴)이나 경계의 말을 지어 스스로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행위를 주의하였다.¹⁵⁾

술을 마시는 사람들 간 분별이 없어지는 것 역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남녀(男女)·장유(長幼)·존비(尊卑)를 따지지 않고 음주를 하게 되면 이러한 구별이 없어져 이른바 오륜(五倫)을 망가뜨린다는 점이 그 폐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특히 세종대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는 음주가 계속되자 직접 주계(酒戒)를 지어 신하들을 경계하기도 하였다.¹⁶⁾ 정해진 순서나 도수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음주로 인해 소송과 같은 사람 간 잦은 투쟁의 원인이 되어 작게는 한 개인, 크게는 한 국가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음주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표명한다.

세종 15년(1433)에 주계를 짓기를, “대개 듣건대, 주례(酒禮)를 베푸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해서가 아니고神明(神明)을 받들고 빈객(賓客)을 대접하고 연세 든 분을 봉양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사로 인하여 마시는 데에는 헌수(獻酬)로 절도를 삼고, 활쏘기로 인하여 마시는 데에는 음양(損讓)으로 예를 삼으며, 향음(鄉飲)의 예는 친목(親睦)을 가르치는 것이고, 양로(養老)의 예는 연세 든 분과 덕이 높은 분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손님과 주인이 백 번 절을

14) 『世宗實錄』, 세종 15년 3월 23일 병자.

15) 특히 학자들은 이러한 음주에 대한 경계를 담아 「酒箴」이나 「酒戒」를 짓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南孝溫, 趙翼, 李滉 등이 작성한 사실이 있다.

16) 『世宗實錄』, 세종 12년 5월 28일 정묘.

하는 가운데 술은 세 순배 돈다고 하였고, 또 종일토록 술을 마시는데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후세로 내려오면서 습속이 예스럽지 못하여 술에 만취되는 것을 힘쓰기 때문에 금주(禁酒)의 법이 엄해도 끝내 그 화(禍)를 구제할 수 없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술의 화가 어찌 곡식을 축내고 재물을 소비하는 것뿐이겠는가. 안으로 심지(心志)를 어지럽히고 밖으로 위(威儀)를 잃게 하여 혹 부모의 봉양을 폐하게 하기도 하고 혹 남녀의 분별을 어지럽히기도 한다. 크게는 나라를 잃고 작게는 본성을 해치고 삶을 잃게 하니, 그 강상(綱常)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¹⁷⁾

임금이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향음주례(鄉飲酒禮)를 폐(廢)하면, 장유(長幼)의 질서를 잃어서 싸우고 다투는 옥사(獄事)가 일어난다.’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군읍(郡邑)으로 하여금 다 행하도록 하겠는가?”라고 하였다.¹⁸⁾

향음주례(鄉飲酒禮)는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고 덕 있는 사람을 숭상하여 공경하고 사양하는 풍속을 익히고 난폭하고 어지러운 짝을 잘라버리는 것이니, 경은 예문(禮文)을 상세히 조사하여 때때로 행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존비(尊卑)와 장유를 알게 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정립하도록 하라.”¹⁹⁾

이처럼 성리학자들은 음주에 대한 폐해를 분명하게 지적하였고 결국 이를 올바른 예법의 시행을 통해 제재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이미 고대 음주에 대한 경계를 바탕으로 술에 대한 의례를 만들어 국가의 풍속을 난에 빠지거나 구별이 없는 지경에서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주나라 대에 처음 제정된 음주에 대한 예법은 당(唐)·송(宋)·명(明)대 등 후대 왕

17) 李裕元, 『林下筆記』 卷20, 文獻指掌編, 酒戒, “世宗十五年, 酒戒曰, 盖聞酒禮之設, 非以崇飲, 所以奉神明, 享賓客, 養高年者也. 是以因祭而飲, 以獻酬爲節, 因射而飲, 以揖讓爲禮, 鄉飲之禮, 所以敦親睦也, 養老之禮, 所以尚齒德也. 猶曰賓主百拜而酒三行, 又曰終日飲酒, 而不得醉, 降及後世, 俗習不古, 惟荒腆是務, 故禁酒之法嚴, 而終不能拔其禍, 可勝嘆哉. 夫酒之爲禍, 豈特靡穀費財而已哉. 內亂心志, 外喪威儀, 或廢父母之養, 或亂男女之別, 大則喪國, 小則伐性喪生, 其所以潰亂綱常, 敗毀風俗, 難以枚舉.”

18) 『成宗實錄』, 성종 10년 1월 21일 무인 기사.

19) 『中宗實錄』, 중종 21년 7월 21일 임인 기사.

조를 거치면서도 국가 의례 속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시행하는 원칙이 제정되었다.²⁰⁾

또한 조선에서 개국 초기부터 향촌 통치의 한 방법으로 향음주례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정도전(鄭道傳)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는 향음주(鄉飲酒)에 대해 “예절과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현우(賢愚)와 귀천(貴賤)을 밝히고 난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향음주례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였다.²¹⁾ 이후 조선에서의 향음주례는 『주례(周禮)』, 『의례』, 『예기』 등의 예서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시행 의절과 의절들이 정리되었고 세종대에 이르게 되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명문화되었다.²²⁾

이처럼 향음주례가 명문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행이 곧 지방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효험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공자가 “향(鄉)을 보고 나서야 왕도가 잘 시행됨을 알았다고 했던 것처럼²³⁾ 지방 수령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로 풍속 교화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다. 수령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향촌민들의 생업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그 지역에 대해서 학문을 일으키는 것과 풍속의 교화를 철저하게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다.²⁴⁾ 게다가 부임한 지역이 도적의 창궐 등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임명된 수령은 강력한 법의 집행보다는 교화와 효유(曉諭)의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²⁵⁾ 그 결과 새로

20) 徐有渠의 『林園經濟志』 卷88 鄉禮志에서는 우리나라의 향음주례를 수록하기 이전 『儀禮』 향음주례와 함께 唐·宋·明의 향음주례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21) 鄭道傳, 『三峯集』 卷13, 「朝鮮經國典」 上, 禮典, “禮典, “賢愚辨貴賤明, 人知勸矣. 故其飲酒也, 樂而不至於流, 嚴而不至於離.”

22) 『國朝五禮儀』 卷4, 嘉禮, 鄉飲酒儀.

23) 陳澹, 『禮記集說』, 「鄉飲酒義」, “子曰, 吾觀於鄉, 而知王道之易易也.”

24) 丁若鏞의 『牧民心書』에서도 興學의 한 방법으로 季秋에는 養老禮, 孟冬에는 鄉飲酒禮, 中春에는 饗孤禮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丁若鏞, 『牧民心書』, 「禮典」, “季秋行養老之禮, 教以老老, 孟冬行鄉飲之禮, 教以長長, 仲春行饗孤之禮, 教以恤孤”).

25) 이 역시 공자가 말한 제도와 형벌이 아닌 덕과 예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유가의 이상적 정치와 맥을 같이 한다.(朱熹, 『論語集註』, 「爲政」,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부임한 수령들은 향촌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고 집단 내부에서 상하 관계에 이르기까지 긴장을 조금은 완화할 수단으로 향음주례 시행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향음주례에서 주인(主人)의 역할을 수령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후 향음주례는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향촌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편찬된 예서들, 정구(鄭誨)의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나 박세채(朴世采)의 『육례의집(六禮疑集)』처럼 예서에서도 향음주례를 본격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또한 1674년(현종 15)에는 『고사촬요(攷事撮要)』가 속찬(續撰)되면서 부록으로 향음주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²⁶⁾ 이처럼 전후 사회 복구 과정에서 향음주례에 대한 활용과 함께 학문적 이해가 심화되었던 것이다.

1797년(정조 21)에는 정조의 명으로 『향례합편(鄉禮合編)』이 편간(編刊)이 되면서 여러 관서와 규장각, 성균관에서부터 지방의 감영 및 주현 및 향교, 서원에서 대대적으로 반포되었다.²⁷⁾ 주자소에서 인출된 『향례합편』은 전국에 걸쳐 대략 1,000건이 반포된 것인데, 이는 정조가 지닌 향례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조는 찬술에 대한 이유를 향촌 교화를 실현하기 위해 향례 시행의 참고자료로써 활용되는 것을 염두해두었다고 볼 수 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예제의 명문화와 국가 주도의 참고자료 편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서 실제로 향음주례 시행에 대한 흔적은 드물다. 연대기에 걸쳐 조정의 신하들이 국왕에게 직접 지방의 향음주례 시행을 건의하는 모습이 실록에서도 종종 확인되지만, 이는 반대로 아직 전국적인 향음주례 시행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즉, 향음주례가 아직 제대로 조선 후기까지 제대로 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26) 魚叔權, 『攷事撮要附錄』(PC15-2, MF35-8494), 鄉飲酒禮.

27) 『日省錄』, 정조 21년 6월 2일 신미.

28) 正祖, 『弘齋全書』 卷184, 群書標記, 命撰, “鄉禮合編三卷【刊本】.

부모에게 효도는 하면서 어른에게 공손하지 않는 자는 있지만, 어른에게 공손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없다. 『예기(禮記)』 「경해(經解)」에 이르기를 “향음주(鄉飲酒)의 예가 폐해지면 장유(長幼)의 질서가 없어져서 싸우고 송사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군자는 처음을 삼가서 먼저 향당(鄉黨)의 예부터 거행하므로, 사람들이 날로 자신도 모르게 착해져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예를 후세에도 후 행하기는 하나 그 명칭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진실을 힘쓰지 않으며, 몇 년 만에나 한 번씩 거행하고 마니, 어찌 다시 공과 효험이 있겠는가?²⁹⁾

이익(李翼) 역시 향음주례 시행을 통해 그 효험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진실로 힘쓰지 않고 간헐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 향음주례에 대한 의절은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어 있음에도 그 실제의 적용이 쉽지 않음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이는 1797년 어명에 의한 『향례합편』이 편간이 되고 약 100년 뒤인 경상도 대구에서 관찰사 이현영(李鉉永)에 의해 거행된 향음주례 이후 참석자들의 회고 기록을 통해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고에서 볼 수 있듯이 『향례합편』이 편간 반포된 이후에도 향례에 관한 향촌의 관심은 증대했음지는 몰라도 중앙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의 향음주례의 시행은 일상적 예의 실천 단계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옛날 정묘(正廟) 조에서 『향례합편(鄉禮合編)』 한 권을 하사하여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지방관에게 본받아 시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해마다 그 예법을 익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예법과 풍속이 점차 퇴락하여 이를 능히 시행하는 자가 드물었으니,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생각하건대, 당영(堂營)에 이르러 이 예법을 시행한 자는 오직 김무재(金慕齋), 윤지현(尹止軒), 이종산(李鍾山) 세 공밖에 없었다.³⁰⁾

29) 李翼, 『星湖僊說』 卷7, 人事門, 鄉飲酒禮, “孝焉而不悌者固有矣, 未有悌而不孝者也. 記曰鄉飲酒之禮廢, 則長幼之序失, 而爭鬪之獄繁矣. 君子慎始, 故先舉鄉黨之禮人, 日遷善遠罪, 而不自知也. 此禮後世亦或行之, 只攬其名, 而不謀其實職, 歲一舉而止, 寧復有功效哉.”

30) 李鉉永, 『敬窩集略』 下, 「達城觀德堂鄉飲酒禮錄」, “在昔正廟朝, 頒下鄉禮補編一部,

향음(鄉飮)은 오래된 예(禮)이다. 삼왕(三王)의 밝은 시대로부터 행해져 평소의 풍속에 미친 것이 깊어 왕도(王道)가 쉽게 다스려지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근래에 선비들이 옛것을 스승으로 삼지 않았으니 곧 예가 무너지고 침체된 지 오래되었으니 세상의 큰 덕과 학문이 깊은 유현이 아니고서는 이 예법의 중요함을 아는 이가 드물다.”³¹⁾

요건대 음주의 폐해인 지나침(淫亂), 그리고 무별(無別)은 술에 대한 강한 경계심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통제의 한 방법으로 알맞은 음주의 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향음주례라는 의절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시행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향음주례의 시행은 향촌 사회를 교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향촌민들을 대상으로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장유의 구별을 짓게 하는 등 음주의 폐해를 막아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조선 시대에는 향음주례의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했으며 이는 전례의 명문화나 국가 차원에서의 향음주례 전례서 편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음주례의 시행은 완벽한 향촌 사회의 예법으로 작동하지는 못하였다. 이익이나 조선 후기 거행된 향음주례의 회고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향음주례의 예법이 향촌 사회를 교화하는데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일상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 내 단편적으로나마 거행된 기록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향음주례의 구체적인 시행 양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

令典藩守土之臣，傲而行之，歲習其儀，以爲化民成俗之本，而禮俗漸降，鮮有能行之者，豈非慨切處乎。窃惟棠蔭之莅是邦，行是禮者，惟金慕齋，尹止軒，李鐘山三公而已，而無他焉。”

- 31) 李鑑永, 『敬窩集略』 下, 「達城觀德堂鄉飮酒禮錄」, “鄉飮, 古禮也. 自三王晟世, 行之有素俗之所及者深, 而王道之易易者此也. 邇來士不師古, 斯禮之壞廢侵久, 如非世之碩德宏儒, 鮮能知斯禮之重也.”

Ⅲ. 경상도 지역 향음주례의 시행 양상

조선 내 향음주례를 행하였다고 하는 기록들은 문집이나 연보의 기록 속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수령으로 재직하면서 그 지역의 풍속을 잘 다스렸다고 하는 사례로써 한 개인이 지닌 능력과 함께 주자학적 면모를 적실히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이후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향음주례를 시행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들은 시기로는 주로 17세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²⁾

여기에서 살펴볼 자료는 1699년(숙종 25)과 1810년(순조 10)에 경주부(慶州府)에서 시행되었던 두 차례의 기록,³³⁾ 그리고 1807년(순조 7)과 1890년(고종 27)에 대구 감영에서의 두 차례의 기록이 대표적인 기록들이다. 당시 경주부에서 거행된 향음주례는 경주부윤으로 재직 중이었던 이형상(李衡祥)과 이채(李采)가 주관하여 향음주례를 거행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대구 감영 주관 향음주례의 경우 역시 지방 수령인 경상감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는데, 1804년에는 대구 감사였던 윤광안(尹光顔)이 주도하였고, 마찬가지로 1890년에는 이현영이 향음주례 거행하고 남긴 기록이 존재한다.

이들이 기록한 자료들은 모두 지방민을 대상으로 수령이 주관하여 거행된 향음주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미 『예기』에서는 향음주례가 거행되

32) 17세기 이후 설행했던 향음주례 중 특히 경상도 제읍에서 거행된 향음주례 대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權斗經, 『蒼雪齋集』 卷3, 「鷺城鄉飲酒歌」; 權濂, 『厚庵集』 卷6, 「青松府行鄉飲酒儀詩序」; 李光庭, 『訥隱集』 卷7, 「鄉飲酒詩卷序」; 朴旨瑞, 『訥庵集』 卷4, 「鄉飲酒儀序」; 趙述道, 『晚谷集』 卷8, 「鄉飲酒儀攷 己未陶山書院行鄉飲酒禮」; 姜必孝, 『海隱遺稿』 卷1, 「成仁巖肯柱宰豐基 重修校宮 行鄉飲酒禮」; 鄭來成, 『思軒集』 卷5, 「鄉飲酒禮序」; 姜必孝, 『海隱遺稿』 (卷15, 「赤羅鄉飲酒禮序 (庚辰)」; 徐贊奎, 『臨齋集』 卷12, 「鄉飲酒禮序(辛卯)」

33) 두 기록은 모두 『東都鄉飲錄』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는 장소로 향의 학교인 상(庠)에서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앞선 자료들은 모두 학교가 아닌 관아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의 관아를 거행 장소로 설정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인물들까지도 의례의 진행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향음주례 거행을 주도하고 했던 것은 당시의 향촌의 상황에 따른 수령의 직무 일환이었다. 처음 수령은 지방에 부임하면서 그 지방의 사류(士類)를 파악하여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풍속의 교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들은 향음주례를 주관하면서 지역의 유력인사를 초청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또는 자신들이 직접 주인이 되어 이들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 따르면 주인은 소재지의 관사에서 말고 빈은 연장자 혹은 덕과 재행(才行)이 있는 자, 주인을 돕는 역할인 집사자(執事者)는 자제가 맡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경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향음주례의 시행 기록에서는 이에 따라 각자의 직책이 정해졌는데,³⁵⁾ 당시 주인과 빈, 개(介)로 초청된 인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경상도 지역 향음주례 기록 중 주요 역할 담당자

순번	향음주례 기록	주인(主人)	빈(賓)	개(介)
1	『동도향음례』(1699)	이형상(李衡祥)	임면(任勉)	손덕승(孫德升) 김세흠(金世欽) 이덕현(李德玄) 박성세(朴聖世)
2	『달성향음록』	윤광안(尹光顔)	정종로(鄭宗魯)	강필효(姜必孝)
3	『동도향음례』(1810) ³⁶⁾	남경희(南景義)	정동필(鄭東弼)	이원상(李元祥)
4	『달성관덕당향음주례록』	우성규(禹成圭)	서찬규(徐贊奎)	이억상(李億祥)

34) 陳澹, 『禮記集說』, 「鄉飲酒義」, “鄉飲酒之義, 主人拜迎賓于庠門之外.【鄭氏曰, 庠鄉學也】.”

35) 『國朝五禮儀序例』 卷2, 「嘉禮」, 執事官, 鄉飲酒, “鄉飲酒. 主人【所在官司】. 賓【年高有德有才行者】. 司正【衆所推服者】. 執事者【子弟】.”

36) 부운인 이채의 경우 원래라면 주인을 맡아야 하지만 나이가 많아 사양하고 대신 주인을 돕는 僎을 맡았다. (『東都鄉飲禮』, 鄉飲禮舉行儀節, “僎【○禮曰, 老人不以筋力爲禮. 今官司春秋六十六, 不堪主人之役, 居於僎位】 府尹李采.”)

향음주례에서 주인과 빈, 그리고 개는 예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 직책들로 이들의 존재가 곧 예의 시작이다. 주인이 직접 향촌 내부에서 나이와 덕망을 파악하여 지역의 유력인사로서 빈과 개를 정하게 되며 이들을 동일한 공간 내에 직접 초대하여 향음주례를 거행한다. 또한 이들이 앉는 자리에서부터 술을 주고받는 헌(獻)과 수(酬), 그리고 음양의 도수까지 정해지며 그 결과 향촌 집단 내부 상하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 이외에도 향촌 내 다양한 인물들이 향음주례에 직책을 맡아 참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빈(衆賓)을 비롯한 올바른 음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찰을 하는 사정(司正)³⁷⁾ 등이다. 이들은 대체로 지역에 있는 향교나 서원의 유생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를 포함하면 당시 전체 향음주례의 참여 인원은 보통 해당 고을의 규모에 따라 다르더라도 적게는 89명에서 많게는 688명의 인물이 참석했을 것이다.³⁸⁾ 물론 참석했으나 명단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며 당시 향음주례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⁹⁾

위의 향음주례 기록과 함께 살펴봐야 할 기록으로 가장 이른 시기 울산부(蔚山府)로 이주하였던 박창우(朴昌宇)가 남긴 「향음주례의식(鄉飲酒禮儀式)」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원래 영천(永川) 사람이었으나 울산으로 이주하여 구강서원(鵠江書院) 설립을 주도하였는데, 이때 구강서원 사우들이 향음주례에 대한 절차를 물어보자 역대 인용된 예서들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의식들을 만들어 유생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⁴⁰⁾ 이때 활용된 것이 바로 「향음

37) 司正은 음주하는 현장에 혹시 태만하여 절도를 잃는 자를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감독하여 바로잡고자 둔 사람이다(陳澹, 『禮記集說』, 「鄉飲酒義」, “主人使相禮者一人爲司正, 恐旅酬時, 有懈惰失節者, 以董正之也.”).

38) 『달성향음록』에 따르면 최대 688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동도향음례』(1699)의 경우 89명으로 당시 참여했던 유생, 사대부들의 참여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39) 실제로 윤광안의 주도로 이루어진 향음주례의 경우 688명의 명단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의례에 참관했다고 한다(鄭宗魯, 『立齋集』, 卷4, 詩, 「達城鄉飲禮後賦其事奉贈尹方伯」, “當是時, 環四面簇, 立拱手而觀者, 以千百數.”).

40) 朴昌宇, 『槐泉集』 卷2, 雜著, 鄉飲酒禮儀式, “今本鄉鵠江書院, 圃晦先生廢享後, 將

주례의식'이며 앞선 경상도 지역 향음주례 기록과는 달리 명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의식과 절차에 대해 나타나 있어 가장 이른 시기의 향음주례 의절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음주례의 기록들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거행된 향음주례의 절차를 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향음주례의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주요 역할을 맡을 인물을 선정하고 의례를 위한 기물들을 준비하는 단계, 사람들을 초청하여 향음주례를 거행하는 단계, 모든 의절을 마치고서 이루어지는 사후 단계로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의례』나 『국조오례의』에서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 자체를 명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의 세 단계에 따라 의절을 진행하고 있다.

준비 단계에서는 모빈(謀賓)-계빈(戒賓)-설석(設席)·설준(設尊)까지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주인이 예에 참여할 선생과 빈, 개를 선정하며 참석자의 좌석을 설치한다. 또한 술이나 음식 등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다. 의례 거행 단계에서는 주인이 직접 빈을 초대해 맞이하는 속빈(速賓)과 영빈(迎賓)을 시작으로 참석자들 간 위치(位次)에 따라 앉아 술잔을 나누고 주고받거나(獻/酬) 음악을 통해 연회를 흥을 돋우어 즐겁게 하는 과정(헌빈(獻賓)~악빈(樂賓)⁴¹), 그리고 사정을 세워 예가 흐트러지지 않게 훈사(訓辭)를 읽어 음주가 지나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과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사후 단계에서는 주인이 문밖으로 나가 빈을 전송하고 사정을 위로하는 단계가 진행된다.

이상 세 가지 단계에 따라 향음주례는 거행된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향음주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의절마다 직접 이름을 붙여 진행 예의 상황을 드러내었다.

行鄉飲酒禮，鄉中士友問其節次於余，余辭不獲已略採歷代因行之禮，粗定儀節如左。”

41) 향음주례에서 사용하는 연주 역시 『詩經』에 등장하는 시들로 대표적으로 왕후나 군주의 덕으로 인해 교화가 이루어진 일을 칭송한 周南과 召南의 시들이 연주 대상이 되었다.

〈표 2〉 경상도 지역 향음주례 기록에 나타난 의례 절차⁴²⁾

	「향음주례의식」 (17C)	『동도향음례 (1699)』	『달성향음록』 (1807)	『동도향음례 (1810)』	『달성관덕당 향음주례록(1891)』
준비 단계	賓主介僎	戒賓	謀賓介		謀賓介
	戒賓介		設席		設席, 立, 次
	設席	席賓	陳器		陳器
	陳器		具饌		具饌
거행 단계	迎賓	迎賓	立班	迎賓	速賓
	序賓	獻賓	迎賓	主人獻賓	迎賓
	獻賓		迎遵	賓酢主人	獻賓
	賓酢主	一人舉觴	獻賓	主人酬賓	賓酢主人
	主酬賓	迎遵獻遵	賓酢主人	主人獻介	主人酬賓
	主獻介	樂賓	酬賓	介酢主人	獻介
	主獻衆賓	司正中通讀訓	獻遵	主人獻衆賓	介酢主人
	獻衆賓	旅酬	遵酢主人	一人舉觴	獻三賓
	升位	二人舉觴	主人獻介	主人獻僎	獻堂下衆賓
	選入	徹俎	介酢主人	僎酢主人	一人舉觴
	樂賓	燕	獻衆賓	樂賓	迎遵
	司正揚觴		卽席	立司正	獻遵
	旅酬		一人舉觴	司正舉觴	遵酢主人
	無筭爵		樂賓	旅酬	樂賓
			立司正	二人舉觴	司正舉觴
			讀訓辭	徹俎	旅酬
			讀約	燕	二人舉觴
			旅酬	無數爵	徹俎
			二人舉觴		燕
			徹俎		
			燕		
사후 단계	賓出	賓出	賓出	賓出	賓出
		賓拜賜		拜禮	拜禮
		息司正		息司正	息司正

이들 경상도 지역에서 거행되었던 향음주례의 경우 상략에 따라 의절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인 구성은 앞서 세 가지 단계를 따르고 있어 대체적인 형식에는 큰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 일부 세세한 의절에 대한 명칭이나 상황에 따른 변화가 존재하는 정도이다. 대략적으로 차이가 나는 주요한 것들을 살펴

42) 김문식(2018), 앞의 논문, 208~209쪽의 〈표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보면 먼저 준비 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역할을 맡은 인물들의 선정이다. 「향음주례의식」이나 『달성향음록』, 「달성관덕당향음주례록」의 경우에는 주인이 누구를 향음주례의 빈이나 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인 모빈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두 가지 『동도향음례』의 경우 모빈의 과정은 생략하고 곧바로 계빈이나 영빈이 시작되고 있다. 두 가지의 『동도향음례』에서는 이미 빈과 개 등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놓았는데, 이를 통해 모빈을 진행했음에도 의절 속에 포함하지 않고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술과 함께 안주를 마련하는 구찬(具饌)에 대해서도 유무가 드러나고 있다. 『의례』 속에서는 찬을 마련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이후 예를 거행하는 중에 술과 함께 포(脯)를 올리는 의절이 마련되어 있었다. 당시 향음주례를 거행하고 이를 기록하는 중에 『의례』를 짐작하여 의절 속에 술과 함께 안줏거리도 함께 마련하는 의절을 새롭게 추가했던 것이다. 「향음주례의식」이나 두 가지의 『동도향음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술을 올리는 과정에서 포나 해(醢) 등을 함께 올리고 있으며 단지 구찬이라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다.

향음주례를 하는 도중에 사정은 훈사(訓辭)를 읽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조오례의』에는 이러한 훈사를 읽는 의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유일하다. 그 내용은 『국조오례의』와 큰 차이는 없으나 모든 향음주례 참석자를 대상으로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잘 준수하여 향촌의 풍속을 잘 지키자는 일종의 다짐하는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즉, 술을 마시는 장소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일종의 윤리적 교육을 함으로써 향음주례 본래의 목적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옛 현장에 따라 예교(禮敎)를 숭상해왔습니다. 지금 향음(鄉飮)을 거행하는 것은 마시고 먹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과 젊은이 각자가 서로 권면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안으로 규문(閭門)을 돈독하게 하고, 밖으로 향당(鄉黨)을 친히 하도록 서로 깨우치고 타이르며 서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혹여라도 잘못을 저질러서 어버이를 욕되게 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⁴³⁾

그러나 살펴볼 수 있듯이 훈사를 읽는 것 역시 다섯 가지 향음주례 시행하는 중에서 읽는 경우와 읽지 않는 경우 모두 혼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도향음례』(1699)와 『달성향음록』에서만 사정이 『국조오례의』를 바탕으로 한 훈사를 직접 읽고 있으나 나머지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달성향음록』에서만 향약을 읽는 독약(讀約)이라는 의절이 있다. 향약의 목적 역시 향촌 사회의 질서 확립과 풍속의 진작시키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정조가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간행하고 내린 윤음에도 ‘백성을 옛날 풍속으로 변화시켜서, 인의(仁義)로 근본과 실상을 보여준다면, 향약(鄉約)으로 가르치는 효과는 향음주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⁴⁴⁾ 즉, 향약 자체 역시 향음주례 의식과 함께 향촌 구성원들 간 도덕적 의식을 고취하며 궁극적으로 교화의 수단으로써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례의 현장에서 읽을 수 있던 것이다.

마지막 사후 단계에서는 향음주례가 모두 끝나고 빈이 나가는 중에 주인이 전송하는 빈출(賓出)의 의절은 다섯 가지 경상도 향음주례에서는 모두 수록되어 있다. 다만 주인이 빈에게 재배하고 빈이 주인에게 답배하는 경우 그 유무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인이 빈에게 재배하면 빈이 주인에게 답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의례』 경문에 있는데, 이는 향음주례의 예가 마쳤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만약 빈객과 개가 주인의 재배에 답배를 하게 되면 처음 주인과 빈이 서로 재배했던 것처럼 예의 시행이 계속 이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를 마치고 나갈 적에 빈객과 개는 주인에게 답배를 하지 않아 향음주례를 마치고자 한 것이다.⁴⁵⁾ 그러나 실제 향

43) 『國朝五禮儀』卷4, 嘉禮, 鄉飲酒儀, “乃言曰, 仰惟國家, 率由舊章, 崇尚禮教, 今茲舉行鄉飲, 非專爲飲食而已, 凡我長幼, 各相勸勉, 忠於國, 孝於親, 內睦於閨門, 外比於鄉黨, 胥訓告胥教誨, 無或愆墮, 以忝所生.”

44) 『五倫行實圖』,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酒禮鄉約綸音」, “鄉約之於化民成俗, 亦易爲力, 朱夫子蓋嘗月朝讀約, 三代之制, 如復可見予. 故曰因今之民, 變古之俗, 被之以仁義, 示之以本實, 鄉約之效, 不差於鄉飲酒, 此規亦不可不講而明之.”

45) 『禮記集說大全』, 「鄉飲酒義」, “云賓介不答拜, 禮有終也者, 於迎賓介時, 賓介答拜,

음주례 기록에서는 빈과 개가 답배를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로 의절이 나누어졌는데 전자의 경우는 주희는 이러한 『의례』의 조항을 고쳐 빈 이하 또한 주인에게 답배하는 것으로 고쳤던 것을 근거로 하였다.

- * 「향음주례의식」: 빈(賓) 이하가 문밖의 서쪽에 서면 주인은 문 밖의 동쪽에 서 전송하여 재배한다.【빈과 개(介)는 답배하지 않는 것은 예에 끝이 있기 때문이다.】⁴⁶⁾
- * 『동도향음례』(1699): 주인이 문밖에서 전소하여 재배한다. 빈과 개 이하는 모두 재배하지 않고 예가 끝난다.⁴⁷⁾
- * 『달성향음록』: 빈이 떠나면 찬(贊)이 인도하고 문밖에서 전송할 때에 주인을 이끌고 재배한다.【주자(朱子)가 『의례』를 개정하여 빈과 개가 답배로 재배한다.】⁴⁸⁾
- * 『동도향음례』(1810): 주인은 재배한다. 준(僎)은 빠르게 돌아서서 물러간다.⁴⁹⁾
- * 『달성관덕당향음주례록』: 주인은 문밖에서 전송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고 재배한다. 빈과 개 이하는 답배한다.【주자가 『의례』를 개정하여 빈과 개가 답배로 재배한다.】⁵⁰⁾

또한 당일 향음주례가 끝난 이후 다음날에 빈이 초대해준 주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답배하는 의절 역시 모든 향음주례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향음주례의식」이나 『달성향음록』에서는 주인이 빈을 전송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예가 끝나지만, 나머지 기록들의 경우 다음 날까지 예가 진행되어 빈이 주인에게 선물과 같은 사례를 보내고 사정 역할

今送賓，主人再拜，若賓介答拜，是行禮無終畢，故賓介不答，是禮有終也。”

46) 朴昌宇, 『槐泉集』 卷2, 雜著, 鄉飲酒禮儀式, “賓以下 出立於門外之西, 主人送於門外之東再拜【賓介不答拜, 禮有終也.】”

47) 李衡祥, 『東都鄉飲禮』(1699), “主人送於門外再拜. 賓介以下, 皆不拜禮畢.”

48) 尹光顔, 『達城鄉飲錄』, “賓出, 贊引引主人送於門外再拜.【朱子改正儀賓介答再拜.】”

49) 李采, 『東都鄉飲禮』(1810), “主人再拜, 僎趨巡而退.”

50) 李鏞永, 『敬窩集略』 下, 「達城觀德堂鄉飲酒禮錄」, “主人送於門外東西面拜. 賓介以下答拜.【朱子改定儀賓介答拜.】”

을 한 인물을 위해 일정한 사례를 하는 의절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같은 향음주례라는 예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조선 내에서도 시간적·공간적 차이에 따라 세세한 의절의 차이는 일정 부분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의 속성인 시의성에 따라 향음주례가 전개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예경(禮經)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한 고대의 향음주례를 현재의 조선에 복원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를 존중하되 세세한 의절들은 상황에 맞게 참작하여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IV. 향음주례 시행의 예학적 의미

이처럼 당시 향음주례는 향촌 지역의 친목을 도모하고 풍속을 교화하는데 중요한 의례였다. 특히 향음주례를 시행하고자 했던 향촌에 거주하는 학자들은 예서들을 탐독하며 향음주례에 관한 구체적인 의절을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촌 유생들에게 익히게 하였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생의 의례인 관·혼·상·제의 경우 이미 근거로 삼을 『가례(家禮)』를 비롯한 예서들이 존재했으며 학문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향음주례의 경우 당시 사람들이 명칭은 알고 있었어도 그동안 행하는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남아 있는 경상도 지역의 향음주례에 대한 남아 있는 기록들 역시 당시 단편적인 기록이 아닌 향후 계속해서 본 지역을 중심으로 향음주례를 시행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써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음주례와 관련된 여러 예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더라도 이를 참고하여 완벽하게 복원하기란 쉽지 않았다. 고대 주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여 예를 다시 조선의 향촌에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음주례에 대한 구체적인 의절을 기록하면서도 세부 의절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음주례(鄉飲酒禮)의 의식은 옛날 하나라와 은나라 시대에는 이에 대해 고증할 바가 없으나 오직 주나라 제도에서 오례(五禮)의 항목이었으니 가례(嘉禮)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서민에게도 적용하여 두루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여 있는 때로 인하여 읍양(揖讓)과 승강(升降) 예를 그들과 함께하여 어진 이를 숭상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이고 경양(敬讓)의 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례』의 「향음주례」에는 그 문장이 기록되지 않았고, 또한 『예기』 「향음주의(鄉飲酒義)」의 뜻도 순수하지 않아, 같지 않은 것이 있다. 말하기를 '개와 준은 해와 달을 상징한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삼빈(三賓) 세위 삼광(三光) 상징한다'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선(僎)은 주인을 돕는 자라 하면서 찬(贊)은 곧 주인을 돕는다.'라고 하였고 사양하기를 세 번 한다는 것은 '달이 3일 만에 백(魄)을 이룸을 형상한 것'이라고 하여 모순의 단서를 면하기 어려운 듯하니 고대 예법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⁵¹⁾

박창우는 「향음주례식」에서 이미 『의례』나 『예기』에서 언급된 향음주례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예에 기록된 명문 역시 모순적인 단서가 있었기 때문인데, 가령 개와 준을 해와 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면서 삼빈(三賓)을 해·달·별인 삼광(三光)을 상징한다고 했던 것이나 주인을 돕는 자인 선(僎)과 찬(贊)의 명칭 중복 등이다. 이는 향음주례 설행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예경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고증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 시대 학자이자 관료였던 박이장(朴而章)이 성균관에서 향음주례를 행하고 남긴 서문에서도 '향음주례는 역대로 그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각 학자의 해석 또한 다양하다.'고 하면서 향음주례 거행에 대한 의절이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남을 인정하였다.⁵²⁾ 그러나 향음주례의 본령인 풍속 교

51) 朴昌宇, 『槐泉集』卷2, 雜著, 鄉飲酒禮儀式, “鄉飲酒禮 古也夏殷之世, 無所攷, 獨周制五禮之目, 是爲嘉禮之一, 而達之於庶民, 而通用者, 因其聚會之際, 與之揖讓升降, 使之尙賢尊長, 興敬讓之道焉. 然儀禮鄉飲酒之編, 不著其文, 且禮記鄉飲酒義, 亦有純駁, 不同者 其曰介僎, 象日月, 又曰立三賓以象三光 其曰僎以輔主人贊, 乃主人之輔, 其曰讓之三也, 象月之三曰 而成魄者, 似不免矛盾之端, 則古禮不可復見矣.”

52) 朴而章, 『龍潭集』卷4, 書, 「泮東鄉飲禮序」, “吾輩既從事學問, 而若是汨沒於舉業,

화의 목적을 위해서 의리를 잘 밝힌다면 되는 것이라고 하며 이른바 향음주례의 시행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약용 역시 향음주례에 대한 세세한 도수(度數)와 같은 것의 경우 구해질 필요가 없다고 하며 중요한 것은 그 대의(大意)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향음주례를 시행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의절이나 도수 등은 시의에 따라 참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먼저 향음주례 시행을 통한 올바른 예속을 만들어 향촌민들에게 선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역대 향음주례의 기록을 살펴보다도 시대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손익(損益)된 만큼 상호 보완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절차(節次)의 뜻은 모두 향음주의(鄉飲酒義)에 나와 있으니, 상고하여 알 수 있거니와, 장유(長幼)를 분별하고 귀천(貴賤)을 밝히는 것이 그 대의(大義)이고, 즐기되 어지럽지 않고 화목하되 빠져들지 않는 것이 그 미문(微文)이다. 그 도수(度數)의 출입(出入)이라면 고금(古今)의 시의(時宜)가 다르니 구해질 필요가 없다.⁵³⁾

고례(古禮)에 집착하면 너무 간략하고 풍속을 따르자면 너무 번잡하여 지금의 풍속과 고례를 참작(參酌)하여 그 절충점을 찾아 취하여 절목으로 삼아 그 쓰임에 맞추었을 뿐입니다.⁵⁴⁾

이러한 예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바탕으로 당시 거행된 향음주례 기록들에서는 각기 다른 의절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미 향음주례에 대한 예법을 완

則不有愧於累科之訓耶。如愧之，盍相與約之於禮法之場乎。蓋鄉飲一節，歷代之斟酌相殊，各家之註疏亦多。然至於潔敬而讓，辨義而終，則所以淑世教繼聖學之道，實在是矣。”

53) 丁若鏞, 『牧民心書』 禮典, 興學, “季秋行養老之禮, 教以老老, 孟冬行鄉飲之禮, 教以長長, 仲春行饗孤之禮, 教以恤孤,” 按此諸節, 其義理並見鄉飲酒義, 可按而知也, 辨弟長, 明貴賤, 其大義也, 燕而不亂, 和而不流, 其微文也, 至若度數之出入, 古今異宜, 不必拘也.

54) 權好文, 『松巖集』 卷6, 洞鑑, 「酒禮跋」, “泥古則太簡, 從俗則太煩, 參今酌古, 取其中而節之, 以適其用耳.”

벽하게 할 수 없었던 한계로 인해 시행함에 어느 정도의 참작에 대한 허용이 용인되었던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는 『의례』나 『국조오례의』를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참석자를 정하는 일에서 음주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예가 끝나는 단계는 진행된다. 그러나 그 속에 나타나는 세세한 의절의 경우는 고급과 공간에 따라 시의가 다르니 굳이 엄매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는 향음주례라는 예 자체가 거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 의미가 큰 것이기도 하다. 음주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자리에 따른 준비, 세 번 사양하거나 오르내리는 의절, 술잔을 사양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함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향촌에서 거행된 향음주례에서 세세한 의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술은 여러 학자와 시인들에 의해서 감흥을 고취시키고 심신을 즐겁게 하는 매개체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도를 벗어난 음주의 형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음주의 폐해는 크게 음란과 무별로 요약된다. 음주를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음란과 무별에 대한 경계는 곧 예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향음주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향음주례의 기능은 지나친 음주에 대한 폐해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 구성원 간 도덕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향음주례는 이미 주나라 대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선에 유입된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그 시행이 활발히 중용되었다. 특히 한 지방의 수령이 되면 향음주례를 시행하는 것이 수령의 역할을 다했던 대표적 모범으로 여길 만큼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 내에서 거행된 향음주례는 일상적 예의 단계로까지 이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옛날에 행해진 예법을 완전히 복원하여 그대로 재현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상도 지역에서 거행된 향음주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이나 예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의절이 비슷하거나 혹은 달랐다. 제일 처음 빈과 개 등 참석자를 정하는 모빈 단계에서부터 향음주례를 진행하고 이후 빈이 나가 예가 끝나는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비슷하지만, 세세한 의절 자체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음주례에 대한 완벽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상고할 수 있는 예서는 남아 있다 해도 그 기록들이 완전하지 않았을뿐더러 시행한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참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용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상도 지역에서 남아 있는 향음주례에 대한 기록들은 작성자 혹은 시행된 지역, 그리고 시간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원전

- 『攷事撮要』(PC15-2, MF35-8494) (魚叔權)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儀序例』
『敬窩集略』(李鑣永)
『槐泉集』(朴昌宇)
『論語集註』(朱熹)
『達城鄉飲錄』()
『東都鄉飲禮』(1699年) (李衡祥)
『東都鄉飲禮』(1810年, PA5E-42, MF35-9082) (李采)
『三峯集』(鄭道傳)
『書經集傳』(蔡沆)
『世宗實錄』
『松巖集』(權好文)
『承政院日記』
『禮記集說』(陳澠)
『儀禮注疏』
『日省錄』
『林下筆記』(李裕元)
『立齋集』(鄭宗魯)
『中宗實錄』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신승훈, 정명현, 최시남 옮김), 『임원경제지-향례지』,
풍석문화재단, 2021.

박례경, 이원택 역주, 『의례역주 二-향음주례·향사례』, 세창출판사, 2013.

장병섭 외, 『禮記集說大全-鄉飲酒義』, 학고방, 2017.

2. 論著

고영진, 「조선 중기 鄉禮에 대한 인식의 변화」, 『國史館論叢』 81, 국사편찬위원회,

1998.

김문식, 「1807년 경상감사 尹光顔의 鄉飲酒禮」,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사학회, 2018.

신주엽, 「1810년(순조10) 慶州府 鄉飲酒禮의 시행과 의미」,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_____, 「1699년 慶州府의 鄉飲酒禮 시행과 의미」, 『대구사학』 156, 대구사학회, 2024.

이광우, 「19세기 후반 지방관 이현영(李鉉永)의 향음주례(鄉飲酒禮) 거행과 그 의미」, 『청계사학』 26, 청계사학회, 2023.

이수덕, 「향음주례(鄉飲酒禮)의 기원(起源)과 형성」, 『대구사학』 83, 대구사학회, 2006.

전성수, 「『시경』의 음주시(飲酒詩)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020.

한재훈, 「한국 서원 의례의 종류와 의의 ; 강학례, 향사례 그리고 향음주례」,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3. 웹사이트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조선시대법령자료(<https://db.history.go.kr/joseon/law.do>)

동양고전종합DB(<https://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

Abstract

Sewon and Hyangrye(鄉禮) during the Joseon
Dynasty'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Meaning of Hyang Eum Ju-rye Ritual (鄉飲酒禮)
in Gyeongsang Province

Kim JinHong

Hyang-eum-jurye (鄉飲酒禮) is a ritual designed to promote moral awareness and reform local customs within Hyangchon (鄉村) society. Its origins stem from cautionary practices concerning alcohol consumption. The adverse effects of excessive drinking were described as a departure from proper decorum (淫亂) and the erosion of social distinctions (無別). It was believed that such behaviors could harm an individual's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destabilize nations, and disrupt the five cardinal relationships (五倫).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rituals were developed to encourage moderation and propriety in drink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concern for alcohol's societal impact was incorporated into governance strategies for Hyangchon society. The implementation of Hyang-eum-jurye was proposed as a means of moral education. Regional officials were tasked with promoting ethical behavior and often invited prominent local figures to preside over these rituals. The ceremonies aimed to reduce tensions between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while fostering enlightenment and guidance (曉諭) through the observance of

*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Ph.D. Student, scarlet9656@naver.com

formal etiquette.

This study examines records documenting the actual practice of Hyang-eum-jurye.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Park Chang-woo's (朴昌宇) "Hyang-eum-juryeui-sik (鄉飲酒禮儀式)" from Ulsan (蔚山) and records of rituals conducted by regional officials such as Lee Hyang-sang (李衡祥), Yun Gwang-an (尹光顔), Lee Chae (李采), and Lee Deok-young (李鐔永). These rituals were informed by classical texts such as the "Yegi (儀禮)" and the "Gukjo Oryeui (國朝五禮儀)." While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rituals was consistent—beginning with the selection of attendees in the Mubin (謀賓) stage, proceeding through the main ceremonial activities, and concluding with the guest of honor's departure—minor variations were evident in the specific details of execution.

Such differences arose due to the temporal and cultural distance between Joseon and the ancient origins of Hyang-eum-jurye, making precise replication impractical. Furthermore, as the rituals prioritized moral instruction over strict ceremonial adherence, they did not evolve into routine practices. Consequently, surviving records reveal regional adaptations, reflecting the distinct contexts of their implementation while maintaining the core framework of the ritual.

These adaptations illustrate the scholars' nuanced understanding of ritual principles. They balanced fidelity to traditional intentions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dapting the rituals to the needs and circumstances of their time.

Key word : Hyang-eum-jurye(鄉飲酒禮), Hyangrye(鄉禮), 「Jugo」(酒誥), 『Dongdo Hyang-eum-rok』(東都鄉飲錄), 『Dalseong Hyang-eum-rok』(達城鄉飲錄), Park Chang-woo(朴昌宇)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書院의 社會史: 庶類系 儒賢의 登場과 社會的 外裝 —章山書院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 지 은*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서원의 특별한 제향인들
- III. 장산서원의 건립과 그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퇴계 이황의 書院觀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조선시대 서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황에 따르면 조선시대 서원의 성격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서원은 道學을 講明하는 機構이다. 둘째, 士子의 藏修處이다. 셋째, 講堂과 祠廟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祀賢은 부차적이며 祠廟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섯째,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道學 위주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 혹은 사우에 봉안되었던 인물이 반드시 사대부만은 아니었던 것을 의외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시대의 서류계 유현이 제향되어 있는 서원과 사우를 살펴봄으로 조선시대에서 서류계 인물을 제향한 서원이 가지고 있던 사회사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서류계 서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장산서원은 화재 이전적의 서자인 잠계 이전인을 봉안하는 장산사로 그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다. 이 외에도 사대부 출신이 아닌 인물이 제향되어 있는 사우로는 고청 서기가 제향되어 있는

* 한국학중앙연구원 / jeeunkwon@naver.com

공주 충현서원, 향리 출신 관료인 권희학이 봉안되어 있는 안동 봉강영당, 아전 출신이나 정희량이 반란을 일으키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 순절한 이슬원을 제향하는 거창의 포충사 등이 있다.

이 시기에 향리 출신 인물들이 문집을 편찬하거나(金時儔, 『水西集』, 權載運, 『麗澤齋集』 등) 서자 출신인 이전인을 장산서원에 제향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신분적 제약을 초월하여 자신의 존재를 사회에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시대적 분위기와 만나 표출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서원은 17세기 이후 그 수가 급증하는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원의 강학기능은 점차 그 비중이 작아지고 가문의 선조를 제향하는 향사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문중서원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문중의 풍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서얼정책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던 노론 세력과의 연대는 장산서원에 이전인을 제향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한편 장산서원은 서자 출신 인물을 제향했다는 사회적·신분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현전하는 서원의 儒生案을 살펴보면 여타 서원과는 달리 양인 혹은 군역에 차출당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산서원은 조선의 폐쇄성을 한 단계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서원의 본 기능인 지식의 생성과 보급의 중심지 역할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산서원은 문중서원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잡계 이전인을 가문의 현조로 부각하고 추앙하려는 의식이 매우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이는 곧 여주이씨 옥산파 가문의식의 표현이자 옥산파가 서원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 家格이 신장되었으며 사회·문화적인 흐름 또한 조선의 폐쇄성을 점차 완화시켜나가는 맥락 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옥산서원, 이언적, 장산서원, 이전인, 서류, 서원 제향

I. 머리말

조선시대의 서원은 宋代 書院制를 수용하였으나 그 역할과 위상이 중국의 서

원과는 분명히 달랐다. 송나라 때에 건립된 중국의 서원은 인재의 육성, 지식의 보급 등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서원을 운영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원 역시 일반적으로 학문연구와 先賢祭享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향촌에서의 사림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거나 서원보급운동이 활발해져 그 보급과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람이 집권한 이후 봉당정치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의 서원은 政爭의 방식이 학문에 바탕을 둔 명분론과 義理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學緣이 형성되고 學派가 형성되는 본거지로 지칭할 수 있다. 이에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들은 원칙적으로 뛰어난 도학자이자 사회적으로 명망을 가지고 있었던, 즉 개인의 학술과 인품은 물론이며 조정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증명된 인물이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수록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先賢과 鄉賢을 제향하던 서원에 사대부 출신의 학자가 아닌 인물이 서원에 제향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의 서원 연구에 있어서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사례와 기록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 선행 연구가 여타 서원 연구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¹⁾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서원의 제향 기준을 살펴본 후 그에 부합하지 않는, 즉 일반적인 ‘학자’ 또는 ‘선현’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별한’ 제향인들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潛溪 李全仁(1516~1568)은 李彥迪(1491~1553)의 아들로 이언적이 경영하

1) 庶類 인물을 배향한 章山書院에 대한 연구가 2014년에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 도학자가 아닌 인물이 사우 또는 서원에 봉안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주 여주이씨 옥산동 동계를 자료로 하여 조선후기 서얼의 마을 운영에 관련된 연구가 있다.

(이수환, 「慶州 世德祠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45집, 2010 ; 이수환, 「朝鮮後期 安東 鄉吏 權喜學 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鳳岡影堂 建立」, 『대구사학』 제106집, 2012 ;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제4호, 2014 ; 정수환, 「조선후기 서얼의 마을 개발과 결속- 경주 여주이씨 옥산동 동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0, 2022.)

며 그의 학술문화적 공간으로 삼았던 別墅인 溪亭을 기반으로 하여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공간에 애착을 가지고 가꾸어 나갔다. 이전인의 후손들은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가정을 경영해나갔으며 이 장소는 그들과 교유와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경주 여주이씨 옥산파는 庶派인 이유로 嫡派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적파와 같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인은 아버지 이언적이 丁未土禍에 연루되어 강계에 유배되었을 때 부친을 배소에서 극진히 봉양하였으며 그 학문을 계승하고 세상에 알려 아버지의 顯揚에 평생을 매진하였다. 이러한 이전인의 활동은 스스로를 사회적 신분에 얽매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孝의 실현을 통해 후대에까지 사회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일가를 이루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다.

그 결과로 조선시대의 서류계 유현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전인을 제향하기 위해 장산서원이 창건된다.²⁾ 이 글에서는 이전인이 제향되어 있는 장산서원을 중심으로 사대부 출신이 아닌 인물이 제향되어 있는 사우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서원과 사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 변화의 양상이 조선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사회·문화적 맥락 위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 서원의 특별한 제향인들

서원은 사람을 양성하고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주자학의 보급을

2) 章山書院의 건립 배경 및 운영 등에 관련해서는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제4호, 2014에 상세하다. 장산사의 건립 주도세력인 玉山派와 그들의 훈인 관계, 노론계의 지원을 통한 서원 운영 등 영남 지역 노론계 서원 건립 양상에 대해 장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위해 조선의 사대부 계층이 건립하고 운영하였던 교육 기관이며,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사람의 문묘중사운동과 교학 체제의 변혁을 배경으로 설립되었는데 趙光祖로 대표되던 신진사류들은 金宏弼·鄭汝昌 등의 종사를 추진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도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숭상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학에 뛰어난 학자를 문묘에 제향해야 한다는 명분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서원이 본격적으로 그 유생을 교육하고 강학 활동을 하는 독자적 주체로 성장하게 된 것은 退溪 李滉에 의한 것이었다. 서원이 후대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정착하는데 있어 이항의 공은 매우 컸으며 이는 서원의 보급과 발전 뿐 아니라 학파의 형성도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退溪全書』의 여러 글 중 〈迎鳳書院記〉는 중국 서원의 교육과 당시 조선의 상황을 비교하여 서원의 순수한 강학 기능이 과거 시험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된다는 이항의 書院觀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서원에 대해 중국에서는 반드시 유학자로서 도술을 알고 있는 이를 택하여 산장이나 주맹으로 삼아 이끌게 하니 그러므로 도술이 나누어지지 않고 배우는 자들 또한 나아갈 바를 안다. 만약 우리 나라로 볼 것 같으면 서원의 가르침이 새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이 제도는 강고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서원에 들어온 선비의 공부하는 방향이 불행하게도 옛사람의 위기지학에 벗어나 오직 과거시험 보는 일에만 힘쓰게 된다면 ... 어찌 두렵지 않으랴.³⁾

이항은 서원의 성격을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3)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2, 「迎鳳書院記」 “上國之於書院 必擇儒先之知道者 爲之山長 主盟以倡率 故道術不分 而學者知所趨矣 若吾東方 則院教新興 而此典未講 儻或入院之士 爲學之方 不幸而不出於古人爲己之學 而惟科目譁競之事 是尙是務 則雖日從事於書林藝苑之中 而求邇聖賢之門牆 比如適越而北轅 反之於心而無得 揆之於事而太乖 豈不可畏之甚耶.”

서원은 道學을 講明하는 機構이다. 둘째, 士子의 修藏處이다. 셋째, 講堂과 祠廟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祀賢은 부차적이며 祠廟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섯째,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道學 위주여야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다섯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묘가 院儒의 본보기가 되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제향 인물은 당연히 사림의 師表여야 하며 그것은 도학자를 제외하고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이러한 이황의 서원관을 토대로 하여 국가로부터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

아래 내용은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의 자격에 대한 것이다. 서원에 제향되기 위해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尊奉人物은 반드시 학문이 뛰어난 儒賢으로 斯文有功人이어야 하며 一節之士는 사우에 제향해야 한다는 上筭의 내용이다.

이에 先聖과 先賢으로서 후세의 사표가 될 만한 분과, 그곳 고을의 이름난 선비나 군자로서 후세에서 우리러볼 만한 인물을 골라 神位를 배설하여 섬기면서 봄과 가을로 제향을 드리는 것이 어느 것이나 斯文을 진작시키고 인재를 권장하여 성취시키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⁵⁾

한편, 반드시 斯文有功人이 아니더라도 서원에 제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감사나 수령의 자격으로 유림의 교화를 일으키거나 품행과 도의가 있는 사람 또한 제향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는 1700년(숙종 26) 閱鼎重을 위한 서원 건립을 논의하는 廟議에서 우의정 申玩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

서원의 제향인은 반드시 斯文에 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령지가 없어서 감사나 수령으로 儒化를 일으키거나 士子로써 行誼가 있는 자 또

4)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42~47쪽 참조.

5) 『孝宗實錄』 卷19, 효종 8년 7월 8일 己酉.

6) 정만조, 위의 책, 94쪽.

한 제향을 하니, 반드시 모두 학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故相臣인 李元翼·李恒福·李德馨 등이 평소에 순전히 학문을 하는 선비는 아니지만 또한 향사하는 서원이 있습니다.⁷⁾

위의 내용은 민정중의 서원을 건립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자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 즉 유화를 남긴 수령, 행의 있는 사자까지도 서원에 모시게 되며 서원에서 봉사하는 인물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⁸⁾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양반 사대부 계층을 제향한다. 지역 유림들과 문중의 관련자들, 그리고 제향자의 문인들이 서원을 운영하고 강학활동을 이어가면 서도 동시에 정치·사회적 기구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곧 서원이 운영되고 활용되는 양상에서 당대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장산서원은 화재 이전적의 서자인 잠계 이전인을 봉안하는 장산사로 그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고 서원의 건립 과정과 운영에 있어서 서류계 서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초기 서원에 제향되었던 인물들과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 특별한 제향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가운데 장산서원에 제향된 이전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庶類系 儒賢의 등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를 위하여 서원 또는 사우에 제향된 조선시대의 인물들 가운데 사대부의 신분이 아닌, 조금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제향인들의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孤靑 徐起(1523~1591)는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이천이며 徐敬德·李仲虎·李之函의 문하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뜻

7) 정만조, 위의 책, 94쪽 재인용.

『書院謄錄』卷4, 경신(숙종 26년) 11월 초5일. “書院之享, 必待有功於斯文者. 而近來則不然, 方伯守令之興起儒化, 士子儒行誼者, 亦得享之, 不必盡是學問之人也. 如故相臣李元翼李恒福李德馨, 素非純有學問之士, 而亦有享祀之院.”

8) 정만조, 위의 책, 94~96쪽 참조.

이 있어 제자백가와 기술에 능하였고 평생을 학문과 강학에 전념하였는데 계룡산의 북쪽 고창봉 아래에서 강학을 하면서 충현서원을 창건하였다. 서기는 이러한 그의 학문적 공로를 인정받아 노비 출신의 학자로 공주 충현서원 별사로 제향되었다.

權喜學(1672~1742)은 조선 후기의 무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가문은 안동의 명문 吏族으로 그 권력을 세습·독점하여 경상도 내의 향리사회를 영도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권희학은 영조 때 무신란을 계기로 분무공신(3등)에 策勳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관 및 高官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무신으로서 학문으로 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哀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문 차원의 노력으로 봉강영당이 건립되었다. 봉강영당을 건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권희학이 사망한지 62년 뒤인 1805년(순조 5)이다. 이 시기 향리 신분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허통운동을 전개하고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선조를 顯揚하는 사우를 건립하는 등의 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⁹⁾ 이러한 행위는 향리 출신의 관료가 본인과 가문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이며, 동시에 이 시기 향리층의 성장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¹⁰⁾ 이러한 조선 후기 향리층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18세기를 기점으로 향리들의 사적류가 편찬되고 시문집이 활발하게 간행되는 한편 이들을 제향하는 祠宇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¹¹⁾

이 시기에 향리 출신 인물들이 문집을 편찬하고(金時儔, 『水西集』, 權載運, 『麗澤齋集』 등)¹²⁾ 무신을 제향하는 사우가 건립되었던 것은 서자 출신인 이

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조선후기향리관계자료집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10) 이수환, 「朝鮮後期 安東 鄉吏 權喜學 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鳳岡影堂 建立」, 『대구사학』 제106집, 2012. 참조.

11) 김학수, 「『麗澤齋遺稿』를 통해 본 조선후기 鄉吏知識人」, 『장서각』 2, 1999. 109~110쪽 참조.

전인을 장산서원에 제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신분적으로 양반이 아니었던 인물의 문집을 간행하고 사우를 건립하여 그들을 제향했던 것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신분적 제약을 초월하여 자신의 존재를 사회에 드러내며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시대적 분위기와 만나 표출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Ⅲ. 장산서원의 건립과 그 의미

장산서원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서류계 유현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라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 남인의 세력이 강성했던 영남 지역에서 노론계 서원으로 건립되어 화양서원의 법식을 따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서인 세력의 지원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여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서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강학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은 이 서원이 교육공간으로서 유생을 양성하기보다는 제향 공간으로 기능하여 이들 문중의 정치·사회적 신분을 확인해주는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이 있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¹²⁾

이전인은 1516년(중종 11)에 태어나 1568년(선조 1)에卒하였다. 이전인의父는 회재 이언적(1491~1553)이다. 이언적이 을사사화의 여파로 발생한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강계로 유배되었다. 그러자 이전인은 유배지로 내려가 부친을 侍側하였으며 이에 그를 효자로 일컫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한 이전인의 효자로서의 모습은 『潛溪集』에서 朴光輔가 지은 〈章山書院奉安文〉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2) 김학수, 위의 논문, 112면 〈표 1〉, 113쪽 참조.

13)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194~195쪽 참조.

아들로서 허물됨이 없으니 공이 오직 으뜸이라. 지난 날 서쪽으로 귀양가는 길 陪從하여 7년을 侍側하니 교훈을 잘 받아 薰德에 젖었도다. 어려운 점 문답 하니 부자이며 사제이라. 제사에 마음을 다하고 학문에 진력하라 하셨도다.¹⁴⁾

이전인은 비록 서자였지만 부친을 잘 봉양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언적 역시 이전인을 가깝게 생각하여 제사를 모시고 학문에 정진하기를 당부하였다. 이전인의 문집인 『잠계유고』에는 〈장산서원봉안문〉 이외에 〈常享祝文〉에서도 이전인에 대해 ‘효성은 道宗을 천향하고 학문은 義方을 궁구했다.’¹⁵⁾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효행과 학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언적의 伸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대의 저명한 인물들에게 사후 추모 관련 文字를 얻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行狀은 이황, 年譜는 노수신, 墓誌는 이항복, 옥산서원의 記文은 허엽이 찬술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이전인이 부친을 봉양하고 그 가르침을 잘 계승하여 이언적의 복관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명성을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점¹⁶⁾에 있어서 ‘효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과연 그를 ‘학자’라고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교유활동과 학문세계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전인을 師表로 삼기에 일말의 의구심도 없는 상태에서 서원에 제향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산서원은 효를 실천한 이전인을 제향함으로써 서파 세력의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에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일종의 저항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경주 여주이씨 옥산파는 노론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적파와 鄉內 사족

14) 李全仁, 『潛溪遺稿』, 〈章山書院奉安文〉(朴光輔 撰), “以子无咎 惟公似魯 昔陪西竄 七年侍側 怡愉過庭 涵泳薰德 難疑答問 父子師弟 祭侍盡心 學勉履禮”

15) 李全仁, 『潛溪遺稿』, 〈常享祝文〉, “孝闡道宗 學究義方 百世矜式 母替苾香.”

16) 『고문서집성 65 -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345쪽.

이전인은 이언적의 進修八規를 명종에게 진상하였고, 명종은 그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그 뜻을 경주부를 통해 전하는 帖을 내렸다.

들의 공론에 대응했다. 이전인의 두 아들인 李浚(1540~1623)과 李淳(1544~1580)은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여 조부인 이언적의 추증과 증시, 『晦齋集』 간행을 주도하는 등 현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준은 1583년(선조 16) 納粟의 공로로 庶出이라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사로 허통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⁷⁾ 이 일로 이준은 물론 이후로부터 前後所生子孫이 모두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갖추고 있었던 경제적 기반 역시 庶派를 모아 문집을 간행하고 1780년(정조 4) 章山祠를 건립하는 등의 일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되었다.¹⁸⁾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공식적으로 신분의 틀이 벗겨지고 사로 허통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향론의 시각은 좋지만은 않았다. 1616년(광해 8) 이준은 鄕員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문서를 올렸으나 향청에 참여하는 제도는 公論에 의한 他薦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지 스스로 단자를 올려 자천하는 것은 향청을 가뻐이 여긴 것이라는 이유로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이 일이 성사되지 않자 약 한달이 지난 후에 이준은 같은 건으로 다시 경주부에 상서하였으나 결국 공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¹⁹⁾

전술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옥산과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기

17) 『고문서집성 65-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19쪽.

18) 『고문서집성 65-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599쪽.

이언적은 그가 63세였던 1553년에 이 분재기를 작성하여 孝誠을 명분으로 別給하였다. 이전인은 7년간 이언적의 배소에서 그를 侍奉하였고 저술을 정리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재기에는 이전인의 어머니인 揚州石氏에게 상속한 것도 있으니 나중에 아들이 次知할 것을 부기하였다. 이는 이언적이 손수 마련한 자산 玉山別業을 서자인 이전인에게 물려줌으로 서자가 입을 수도 있었던 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 『고문서집성 65-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84~85쪽.

위한 활동에 보다 더 무게를 두는 계기가 된다. 장산서원은 제수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官의 지원을 받는 경로를 확보한다. 이는 장산서원이 官으로부터 인정받고 鄕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역할하게 된다. 장산서원은 사액을 받지 못한 서류계 인물을 제향한 서원이었지만 지방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래 <표 1>의 내용은 章山書院의 『考往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산서원에 대한 지방관의 지원 내용이다.

<표 1> 章山書院에 대한 지방관의 지원²⁰⁾

시기	지방관	지원 내용
1781년 9월	觀察使 李文源	廟直二名
	府尹 尹坊	廟下典守人雜役勿侵
	營將 洪仁默	典守人警守直勿侵
1783년 3월	觀察使 李秉模	廟下典守人雜役勿侵
1784년 3월	府尹 金光默	廟直 三名
	營將 韓聖養	廟守人警守直及雜役勿侵
1787년 3월	營將 崔範重	典守人警守幕勿侵
1790년 10월	觀察使 李祖源	廟下典守人雜役勿侵
1791년 8월	觀察使 鄭大容	廟下典守人雜役勿侵
1793년 9월	府尹 李益運	廟下典守人雜役勿侵
1794년 3월	觀察使 趙鎭宅	廟下典守人雜役勿侵
1798년 7월	府尹 吳鼎源	廟下典守人二名
1799년 1801년 1803년 1804년 1806년(2) 1817년 1818년 1824년 1828년 1830년 1840년 1841년 1846년 1848년(2) 1850년	慶州府尹	祭需

서원에 대한 토지나 노비 등에 대한 劃給은 없었으나 廟直, 잡역 면제 등의 지원이 있었으며 경주부윤이 향사에 사용되는 酒米, 祝文紙, 黃筆, 香, 黃燭 등의 祭需를 지원한 單子²¹⁾ 또한 확인된다. 1781년의 관찰사 李文源(1740~

20)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옥산파의 장산서원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제4호, 2017, 119쪽 재인용.

21) 『고문서집성 66- 경주 옥산 여주이씨 장산서원·치암종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274~282쪽.

1794), 1790년 관찰사 李祖源(1735~1806)은 李廷龜의 6세손이며, 李秉模는 李植(1584~1647)의 아들이자 송시열의 문인이기도 했던 李端夏(1625~1689)의 현손으로,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노론계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趙鎭宅은 洪良浩(1724~1802)와 교유하였으며,²²⁾ 안동김씨 金洙根(1798~1854)을 사위로 맞이하기도 하였다.

〈표 2〉『潛溪遺稿』 수록 李全仁 관련 文字

번호	형태	찬자	비고
1	潛溪李先生遺稿序(1839)	洪直弼(1776~1852)	南陽洪氏 宋煥箕, 李直輔, 任魯와 교유
2	行狀(1846)	宋來熙(1791~1867)	恩津宋氏 宋浚吉 5세손
3	墓誌	孫曄(1546~1600)	慶州孫氏 孫昭 玄孫
4	墓碣	金建準(1627~1688)	一善金氏
5	墓表(1806)	宋煥箕(1728~1807)	恩津宋氏 宋時烈 5세손 湖論
6	書潛溪自序後(1818)	姜必孝(1764~1848)	晉州姜氏 法田 尹光紹 門人(「四遊錄」) 成近默(1784~1852)과 교유
7	書潛溪誓天箴後	李克梓 ²³⁾	
8	跋(1847)	姜泰重(1778~1862)	晉州姜氏 姜始煥 子

22) 洪良浩, 『耳溪集』 卷7, 〈館于鎭邊軒〉.

23) 李克梓는 1820년(순조 20) 장산서원 향례 시 제수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上書를 올렸다. 전 순찰사가 이전인의 위패가 있는 장산서원을 尊崇하는 뜻에서 犧牲과 幣帛을 더해 주고자 하였다가 체직되어 돌아갈 때 이 사실을 알고 邑例에 신지 않았으므로 이를 다시 실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소청은 받아들여져서 이후 시기 장산서원에 제수가 지원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극재는 1824년(순조 24) 12월에 道內 유생들과 함께 이전인의 학행과 덕행을 임금에게 진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찰사에게 上書한 문서가 남아 있다. 다만 이에 대한 題辭는 이전인의 학행과 덕행에 대하여 齋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朝野에도 모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문에서 啓達하면 흠이 될 수 있으므로 사림의 공의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의 <표 2>는 『잠계유고』에 수록되어 있는 이전인 관련 문자 현황이다. 孫曄(1546~1600)이 찬술한 墓誌, 金建準(1627~1688)이 쓴 墓表를 제외하고는 시기적으로 『잠계유고』를 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서문과 발문, 행장, 묘표[宋煥箕 撰] 등의 문자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서문을 찬술한 洪直弼(1776~1852)은 후손들이 간수해 둔 이전인의 遺稿를 보았고, 그들이 서문을 청하였는데 30년 간 쓰지 못하고 미루어 두었다고 하였다.²⁴⁾ 홍직필은 1813년(순조 13) 9월 경주에 부임해 있던 부친 洪履簡(1753~1827)을 찾아 뵙고 玉山書院과 佛國寺 등지를 유람하였는데, 이때 이전인의 후손들을 만나고 서문을 부탁받았던 것 같다.²⁵⁾

현재 남아있는 장산서원 관련 고문서 자료를 살펴보면 서원을 둘러싼 경제 활동, 군역, 부세, 그리고 당시 노론계 인물들과의 교류를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장산서원봉안문>을 작성한 박광보는 義興에 거주하였던 노론계 咸陽朴氏 軍威派로 옥산파와 혼인 관계에 있었다. 章山祠의 편액은 朴賢輔, 묘우명과 位版은 朴良輔가 전담한 것을 통해 장산서원의 전신인 장산사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론계열의 인물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서원은 17세기 이후 그 수가 급증하는데, 18세기에 접어들면 서원의 교육적 기능인 강학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가문의 선조를 제향하며 향사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곧 문중서원의 성

(『고문서집성 65 -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207~208쪽.)

24) 李全仁, 『潛溪遺稿』, <潛溪李先生遺稿序>(洪直弼 撰), “愚曾遊東京止宿玉山精舍 即先生舊宅 而傳于潛溪者也 潛溪諸孫 出眎家藏書籍 摩挲久之 不忍離非直以文獻之足徵也 其中有關西問答及潛溪遺稿 問答已卑剗刪 而遺稿尙戢巾衍 諸孫請爲文弁卷 愚辭非其人者 已三十年 而閱盡存歿 常恐食言於逝者 泚筆而叙之如右.”

25) 洪直弼, 『梅山集』 附錄, <年譜>, “九月往觀判書公慶州任所, 陪祠宇而往. ○將行操文哭辭于外王母鄭夫人靈筵, 遊佛國寺 往拜玉山書院.”

26) 위의 논문, 120쪽.

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문중의 풍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서얼정책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던 노론 세력과의 연대가 장산서원에 이전인을 제향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산서원은 서자 출신 인물을 제향했다는 사회적·신분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1〉 장산서원소속안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바위틈에 핀 들꽃-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그림 2〉 장산서원소속안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바위틈에 핀 들꽃-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서원의 강학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사회적 역할이 증대된다. 봉당이 형성되며 각 파의 성리학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지고 명분과 의리를 중심으로 향촌 사림의 여론이 수렴되는 장소가 곧 서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서원은 문중서원으로서의 기능이 더 큰 무게를 가지는데 이르렀다. 이는 곧 서원이라는 공간이 지역 유림의 학술적 활동을 지원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동족집단의 사회적 결속과 지위 유지를 위한 역할의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산서원은 서원의 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의 생성과 보급의 중심지 역할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나, 조선시대의 사회적 폐쇄성을 한 단계 완화시켜주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일례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본고에서 다룬 장산서원은 영남지역 내 서류계 인물을 제향한 서원임과 동시에 노론계 서원의 건립 양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서원에 제향된 사람은 그 인물이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신분의 한계라는 점이 더욱 원동력이 되어 부친의 유배 길을 따라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친을 侍側하며 그 과정에서 부친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후일 『關西問答錄』이라는 문집의 간행을 통해 학문적嫡傳이 됨을 표방하였다.

조선 후기에 학술적인 인물을 현양하기 위해서는 행장, 묘도문자 등 사후 문자의 마련, 문집 간행, 서원 제향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이전인이라는 서자 출신의 인물을 제향하기 위한 서원이 건립되었고, 제향된 서원은 지방관을 통해 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로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이전인의 문집 간행을 위한 문자의 정비 과정에서 행장은 송준길의 후손이었

던 송내희에게 받았으며, 손엽의 墓誌, 金建準의 墓碣, 宋煥箕의 墓表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조선시대 서원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통념적 의미를 넘어서서 또 다른 사회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산서원의 건립은 서자인 이전인이 그의 부친 이언적의 현양사업과 『관서문답록』의 간행을 통해 이언적의 학통을 계승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비록 문중 서원이기는 하나 서자 출신의 인물이 제향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가진 사례가 된다.

장산서원은 문중서원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잠계 이전인을 가문의 현조로 부각하고 추앙하려는 의식이 매우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²⁸⁾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곧 여주이씨 옥산파의 가문의식의 표현이자 옥산파가 서원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 家格이 신장되었으며 사회·문화적인 흐름 또한 조선의 폐쇄성을 점차 완화시켜나가는 맥락 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8)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위의 책, 295쪽.

【참고문헌】

1. 원전

『孝宗實錄』

『書院叢錄』

『退溪全書』

『潛溪遺稿』

『耳溪集』

『梅山集』

2. 단행본 및 자료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조선후기향리관계자료집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고문서집성 65-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고문서집성 66- 경주 옥산 여주이씨 장산서원·치암종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바위틈에 핀 들꽃-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 학술논문

김학수, 「『麗澤齋遺稿』를 통해 본 조선후기 鄉吏知識人」, 『장서각』 2, 1999.

이수환, 「慶州 世德祠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45집, 2010.

_____, 「朝鮮後期 安東 鄉吏 權喜學 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鳳岡影堂 建立」, 『대구사학』 제106집, 2012.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옥산파의 장산서원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제4호, 2017.

中文摘要

书院的社会史：庶类系儒贤的登场和社会的外饰

權志垠*

透过退溪李滉的书院观我们对朝鲜时代书院的特点将会有一个大体的把握。根据其描述的朝鲜时代书院大致有以下五个特点。第一，书院是讲明道学的机构。第二，书院是士子的藏修处。第三，书院必须同时具备讲堂和祠庙。第四，祀贤为次，祠庙不是必要的。第五，书院内供奉的人须以道学为主。但是与此同时，我们也会意外发现朝鲜时代的书院或祠堂供奉的并不一定都是士大夫。

本文通过分析朝鲜时代庶类系儒贤被供奉的书院或祠堂，考察此类书院所蕴含的社会意义。章山书院可以说是这种类型的代表性书院。此书院始于供奉着晦斋李彦迪的庶子潜溪李全仁的章山祠。除此之外，还有供奉着孤青李起的忠贤书院，乡吏出身的官吏权喜学的凤冈影堂，郑希亮叛乱时拼命抵抗而殉节的胥吏李述源的居昌表忠寺。

这一时期出身乡吏的人物通过编纂文集，将庶子出身的李全仁供奉在章山书院，借此试图打破其自身身份的制约，彰显自己的社会存在价值。

17世纪以后书院数量大量增加。进入18世纪，其所具备的讲学功能已逐渐减弱。与此同时，书院在供奉家门祖先的功能上逐渐加强。这正意味着门宗书院的性格开始凸显。当时的社会背景和门宗给与的雄厚经济支援，以及和对待庶孽政策持有相对柔和眼光的老论势力间的联合等使李在仁得以被供奉在章山书院。本文的重点是通过章山书院内对庶子的供奉来把握当时对社会·身份制约的突破。此外，通过查看现存书院内的儒生案，可知章山书院与其它书院不同的是它还记录了平民百姓和被选去兵役的人。由此可知章山书院作为知识生成和普及中心的功能已经很微弱，而在缓和朝鲜社会的封闭性上明显起到了一定的作用。

朝鲜的书院在接纳了宋代书院制的基础上根据自身实际情况有所发展。因此，通过比

* 韓國學中央研究院 / jeeunkwon@naver.com

较分析中国和朝鲜书院各自运营·讲学活动等, 我认为可以发现中韩书院的相似性和普遍性. 但是, 通过在书院内供奉庶类系儒贤或带有门宗祠堂等特点, 又可以得知朝鲜与中国的书院发展方式也存在着不同之处.

主題語 : 玉山书院, 李彦迪, 章山书院, 李全仁, 庶类, 书院 祭享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2

安東 西礪祠 建立 과정과 의미

김 충 현*

- I. 머리말
- II. 안동 우거기 김상헌의 활동과 기억
- III. 서간사 건립과 사액의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안동의 西礪祠는 淸陰 金尙憲(1570~1652)을 제향한 祠宇이다. 서인-노론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영남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편의 하나로 서원을 활용했다. 영남의 기존 서원을 서인-노론계 서원으로 전향시키는 한편, 서인-노론의 주요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였다. 하지만 안동은 영남 남인의 주요한 지역으로 다른 곳에 비해 완고한 곳이었다. 이때 김상헌이 소환되었다.

김상헌은 본관이 안동이고, 생전 두 차례 안동에 우거한 이력이 있었다. 또한 지역 명사들과 교류를 통해 다수의 묘도문자를 찬술하였으며, 문중 사업의 정비에 힘쓰기도 했다. 이런 김상헌의 안동에서의 활동은 그 후손들 역시 종종 안동에 머무르며 김상헌의 행적을 회고하는 시를 짓고 학습의 장소로 삼기도 하는 등 안동과 유대를 지속해 나갔다. 이는 안동의 서인-노론계 사족들이 활동 공간으로 서원을 마련하는데 제향 인물로 김상헌을 주목했던 배경이었다.

1738년(영조 14) 안동 법상동에 김상헌을 제향하는 鶴東書院을 마련하려했지만 안동 남인계 사림에 의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다. 안동의 서인-노론계 사족들은 이후 다시 김상헌을 제향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西礪書堂을 건립하고 사액서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1786년(정조 10) 사액 사우로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 비록 서원으로 사액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서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원과 사우의 구분이 강고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영남의 주요 지역에 노론의 영향력 확대 노력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주제어 : 金尙憲, 西礪祠, 鶴東書院, 書院, 祠宇, 安東

I. 머리말

안동에 위치한 西礪祠는 淸陰 金尙憲(1570~1652)을 제향한 祠宇이다. 김상헌은 생전 安東 豐山에 은거한 이력이 있다. 그에게 안동은 貫鄉이면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곳이었다. 김상헌의 선대는 서울에 근거지를 마련해 중앙에서 활동하면서도 안동과 유대를 이어갔고, 이러한 가풍은 김상헌과 그 후손들에게도 유전되었다.¹⁾ 김상헌은 ‘청음’ 외에도 생활했던 지명을 차용한 ‘石室山人’, ‘西礪老人’ 등을 호로 사용했다. 이 중 ‘서간노인’은 만년에 안동에서 생활하며 사용한 것이다.

김상헌은 두 번에 걸쳐 안동에 낙향해 생활했다. 첫 번째는 1618년(광해 10, 49세)에 낙향해 1621년(광해 13, 52세) 봄 양주 석실로 돌아오기 전까지이며, 두 번째는 1637년(인조 15, 68세) 2월 안동 학가산 서미동으로 들어갔다가 1640년(인조 18, 71세) 당시 淸의 수도였던 瀋陽으로 압송되기 전까지

1) 김학수, 「제1부 충절과 학문으로 이룬 명가의 전통—안동김씨 청음 김상헌 가문」, 『끝내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17세기 명가의 내력과 가풍』, 삼우반, 2005, 36~43쪽.

金尙憲의 5대조 金係權이 세종 때 대제학을 역임한 權孟孫의 사위가 되면서 서울 장의동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손자인 金瑛과 金璠이 문과에 급제하였고, 김번 후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장동김씨로 지칭되었다. 김번은 서울에 정착한 후에도 안동과 유대를 깊이 가져갔다. 풍산김씨 金義貞을 사위로 삼은 한편 고향인 안동에 淸遠樓를 지었다. 이후 청원루는 김상헌과 그 후손들이 안동을 찾아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이다. 1618년에 宣祖의 계비인 仁穆王后(1584~1632)가 西宮[덕수궁]에 유폐되어 폐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김상헌은 안동으로 이거했다. 1637년은 丙子胡亂(1636)의 여파로 조선이 청에 항복하자 主戰論을 펼쳤던 김상헌은 남한산성에서 나와 곧바로 안동으로 향했다. 이처럼 안동은 김상헌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은거했던 곳으로 지금도 서간사를 비롯해 木石居 등 관련 유적이 다수 남아있다.

안동은 영남 남인의 주요한 근거지였다. 서인계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서인은 영남 곳곳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남의 남인들은 퇴계학과로 결집하고, 근기 남인들과 제휴를 통해 대응했다. 그러나 환로의 차단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과 노론의 회유와 포섭, 무신란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영조대를 전후한 시기 남인에서 노론으로 전향하는 인물과 가문이 속출했다.²⁾ 영남 곳곳에 서인계 인사를 제향한 서원이 세워졌던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³⁾ 하지만 안동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완강했다. 이때 노론은 안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김상헌을 소환했다.

서인-노론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중앙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영남 남인은 士族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중 하나는 서원을 통해 향론을 장악하는 방법이었다. 영남의 사족과 유력 가문은 선조 중학덕으로 이름 높았거나, 중앙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제향한 사우나 서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향론을 주도했다. 단독 제향 사우나 서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 학맥을 통해 기존 서원에 제향하기도 했다. 이러한 영남지역의 경향은 서인-노론이 영남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 안동지역 서인-노론계 사족은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서원을 마련하

2) 김학수, 「노론의 대 남인 분열·통합책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45~246쪽.

3) 영남 노론계 서원의 건립과 확산, 그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는 채광수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영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에 잘 정리되어 있다.

기 위해 안동지역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이 필요했다. 이황은 서원 배향 인물의 유적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곳에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었다.⁴⁾ 안동의 서안-노론계 사족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김상헌이었다.

안동지역 서안-노론계 사족은 김상헌을 제향한 서원을 마련해 이를 자신들의 활동 공간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녹록한 방법은 아니었다. 1721년(경종 1) 안동 부사 김진옥은 김상헌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을 건립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후 1738년(영조 14) 안동 법상동에 김상헌을 제향한 鶴東書院을 마련하려 했지만 안동 남인계 사림에 의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사건에 주목하여 안동에 김상헌 제향 서원을 건립하려 했던 것은 노·소론의 정치적 대결이었음을 밝혔으며, 동시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폈다.⁵⁾

학동서원 건립에 실패한 이후 안동지역 노론계 사족은 김상헌 제향 서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정조 때 김상헌을 배향한 사우인 西礪祠가 사액을 받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⁶⁾ 본 글에서는 학동서원

4)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그의 教化論과 관련하여－」,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69~70쪽 참조.

서원 건립에 배향 인물의 유적이거나 연고지가 중요시되는 점은 '기억'과 관계 깊다. 향촌의 士林들이 자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했던 先賢의 흔적을 좇아 그처럼 될 수 있다는 像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안동지역 김상헌 배향 서원 건립 운동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정만조, 「영조 14년의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시비」,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김형수, 「1738년(영조 14)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법성일기』를 중심으로」,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회, 2015.

6) 이경구는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61~63쪽)에서 西礪祠 건립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는 안동에 김상헌 배향 사우 건립 추진이 초기에는 素山派의 단독 추진으로 인해 京派와 대립하였으나 결국

강제 회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원 건립 운동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서간사 사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동서원 회파 이후 전개된 안동지역 노론계 사족들의 활동 양상과 김상헌 배향서원 설립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간사 건립과 관련한 자료는 실록과 『승정원일기』, 『홍재전서』, 金養根(1734~1799)의 문집인 『東莖集』, 학동서원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法城日記』 등이 있다. 안동지역 김상헌 제향 서원 설립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역시 『법성일기』는 중요한 사료로 제시되었다. 『법성일기』는 학동서원 건립과 회파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며, 서원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법성일기』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西礪建院事實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서간건원사실략」은 1738년 발생한 학동서원 회파 사건 이후 진행된 서간사 건립 및 사액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동지역 서안-노론계 사족들이 서간서당을 건립한 이후 서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김상헌의 안동 우거기 활동을 함께 살펴 안동지역 사족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Ⅱ. 안동 우거기 김상헌의 활동과 기억

김상헌은 두 차례에 걸쳐 안동에 우거했다. 첫 번째 우거기는 1618년(광해 10, 49세)에서 1621년(광해 13, 52세) 봄 양주 석실로 돌아올 때까지이다. 이 때는 광해군의 폐정이 극에 달한 때였다. 또한 1618년 2월 생부 金克孝가 서

양 지파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차 사액 청원 활동부터 안동 인근 고을의 지방관으로 부임해있던 장동파 인물들의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산파와 장동파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립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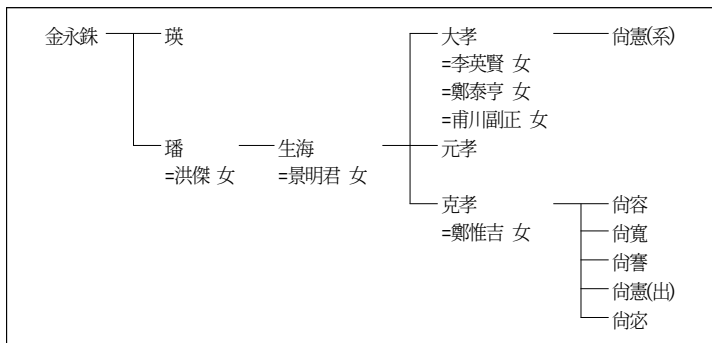
거하였고 이후 김상헌은 양모 전주이씨를 모시고 안동 풍산으로 내려가 우거했다.⁷⁾

안동 풍산에는 김상헌의 고조 金永銖가 지은 집이 남아있었다. 이 집은 김상헌의 증조부 金璠으로 계승되어 壯洞金氏는 안동 고향집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풍산에는 金瑛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일족이 상당수 남아있었고 현재도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素山金氏라고 따로 칭한다. 이처럼 안동 풍산은 김상헌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국 이 어지러워지자 고향으로 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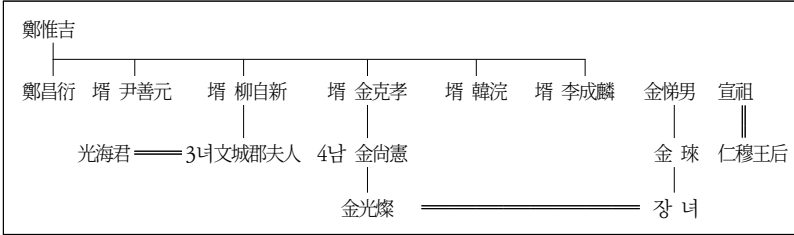
김상헌은 정유길의 외손으로 광해군 부인인 문성군부인과는 외사촌이었으며, 아들 金光燦은 金璫의 딸과 혼인했는데 김래는 선조의 계비인 仁穆王后와 동복형제였다. 이러한 왕실과 중첩된 혈연관계는 김상헌의 정치적 입지 변동

7) 金璠의 아들 金生海는 成宗의 아홉째 서자인 景明君의 딸과 혼인해 金大孝, 金元孝, 金克孝를 낳았다. 金尙憲은 김극효의 넷째 아들이었으나 후사를 남기지 않은 큰아버지 金대효의 뒤를 잇게 되면서 가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한편 金대효는 태종의 11번째 서자 益寧君의 손자 甫川副正의 딸과 혼인하였다. 김상헌의 양모 전주이씨는 바로 보천부정의 딸이다.

한편 김번의 후손들은 안동 素山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서울 장동을 현실적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생활 공간으로 삼았다. 그리고 양주 석실은 강학과 수양의 도량인 동시에 휴식의 공간이었으며, 문중묘역을 조성하여 신성시했다. 소산과 장동 석실은 장동김씨가 활동하는 세 축이었다(김학수, 『끝내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삼우반, 58쪽 참고).



〈표 1〉 김상헌을 중심으로 본 훈맥



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김상헌은 1596년(선조 29)에 문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갔고, 1608년(광해 즉위)에는 重試에 합격한 후 이듬해 世子侍講院 弼善, 司諫院 司諫, 經筵侍講官 등을 거쳤다. 그러나 대북정권이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하자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된다. 1613년(광해 5) 金梯男 역모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김상헌은 延安府使로 있었는데 의금부에서 그 아들 김광찬이 김래의 딸과 혼인하여 인척 관계이므로 파직하라는 주장을 하였고, 광해군은 이를 받아들였다.⁸⁾ 또한 김상헌은 광해군의 생모 恭嬪金氏가 恭聖王后로 추숭되었을 때 冊封誥命에 대한 謝恩箋文을 지었다. 이때 ‘觀過(허물을 보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어 관작이 삭탈되었다.⁹⁾ 여기에 인목왕후의 폐비 논의가 더해지면서 정국이 어지러워지자 고향인 안동 풍산으로 낙향하게 된 것이다.¹⁰⁾

1차 안동 우거기 때 김상헌은 안동에서 가문과 관련한 여러 일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안동 태사묘의 위차문제를 조정하러 한 것이다. 안동부의 태사묘에는 신안동김씨 시조인 金宣卞, 안동권씨 시조인 權

8) 『光海君日記』 권67, 광해 5년, 6월 21일 戊申.

이때 김상헌뿐만 아니라 김제남의 둘째 아들인 金珪의 처부 徐景衢도 함께 파직 당하였다. 서경주는 達城尉로 1592년(선조 25)에 선조의 딸 貞慎翁主와 혼인하였다. 정신옹주는 仁嬪金氏의 소생으로 반정으로 즉위한 仁祖에게는 고모가 된다.

9) 『光海君日記』 권93, 광해 7년 8월 13일 丁亥.

10) 仁穆王后 폐위 문제와 관련해 金尙憲의 정치적 발언이 어떠했는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폐비 논의에 반대했던 李恒福이 유배를 가자 「楊山野人淡綠」을 지어 전송할 것을 미루어 이에 동조했던 입장은 아니었다.

幸, 안동장씨 시조인 張吉張貞綱을 배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견훤을 토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古昌郡은 안동부로 승격되었다. 안동으로 낙향한 김상헌은 태사묘의 제향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선평보다 권행에게 먼저 獻爵하는 것을 목도했다.¹¹⁾ 당시 신위의 배향 순서는 동쪽에 김선평, 가운데 권행, 서쪽에 장길의 신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앙에 위치한 권행에게 먼저 獻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權泰一(1569~1631)에게 편지를 보냈다.¹²⁾

김상헌은 처음 왕건이 김선평과 권행, 장길에게 직임을 제수할 때 三太師 중 城主였던 김선평을 大匡, 권행과 장길을 大相으로 삼고 후에 권행과 장길을 다시 대광으로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당시의 위차와 상하, 공의 높고 낮음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어느 쪽을 우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쪽을 우선했다면 김선평이 먼저이고, 서쪽이 우선했다면 장길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기록으로 미루어 장길의 차서가 가장 낮으니 마땅히 김선평이 제일 위가 되고 먼저 헌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헌은 1차 안동 우거기를 마치고 양주 석실로 돌아가기 전 태사묘 위치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상헌의 문제제기가 바로 반영되어 고쳐지지 않았다. 이 일은 영조대에 가서야 酌獻 순서가 바로잡아졌다.¹³⁾

김상헌이 태사묘 위치문제를 상의한 권태일은 본관이 안동으로 안동부 가

11)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8~19쪽 참고.

태사묘는 1542년(중종 39) 안동 권씨 외손 金光輶과 형조판서였던 權輶 등이 재건하였다. 이후 제사의 주관은 안동 권씨가 맡았고, 안동 김씨와 안동 장씨 후손들은 현관으로 참였다. 헌작 문제는 중수 초반부터 제기되었으나 이황이 안동 권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매듭지어졌다. 김상헌의 문제제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황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12) 김상헌, 『淸陰集』 권40, 書牘, 「與權慶州[泰一○辛酉]」; 「再答權慶州」.

송시열, 『淸陰年譜』 권1, 萬曆 48년 庚申[先生51歲], 「與權慶州泰一書, 論安東三太師享獻儀」.

13) 『영조실록』 권108, 영조 43년 5월 7일 庚午.

구[柯丘, 佳邱] 사람이었다. 이황 제자 중 한 사람인 具鳳齡에게 나아가 수학했으며, 김성일의 사위이기도 했다. 당시 김상헌이 권태일에게 보낸 편지에 ‘權慶州’라 지칭하였는데, 권태일이 慶州府尹을 역임했던 이력 때문에 ‘권경주’라 부른 것이다. 이처럼 권태일은 권행의 후손이자 당시 안동지역의 유력 인사 중 한 사람이었기에 편지를 써 일을 바로 잡으자 한 것이다. 권태일과의 교류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김상헌은 권태일이 제작한 壽宴圖에 題詩하기도 하였고, 그 아버지 權春蘭(1539~1617)의 墓誌銘과 권태일의 神道碑銘을 짓기도 했다.¹⁴⁾

〈표 2〉 金尙憲의 영남 관련 인물 墓道文字 撰述 목록 15)

번호	碑名	碑主	書者	篆者	관계
1	行司諫院大司諫 權公神道碑銘 并序	權泰一 (1569~1631)	미상	미상	○南人. ○본관은 안동. ○퇴계학과 具鳳齡, 金彦璣에게 수학. ○金誠一 사위.
2	義興縣監權侯 墓碣銘	權儀 (1475~1558)	미상	미상	○본관은 안동. 權穰의 형. ○첫 번째 안동 우거기 작성. ○묘갈 목록 중 첫 작품. ○1621년(광해 13) 權曄(趙穆, 金誠一, 金彦璣 문인)가 아들 權克堪을 통해 비문 청탁.
3	掌隸院司議金公 墓碣銘	金農 (1534~1591)	미상	·	○본관은 풍산. ○어머니가 金璠의 딸, 아들은 金大賢(성혼 문인).
4	承文正字金君 墓碣銘并序	金延祖 (1585~1613)	미상	·	○南人. ○본관은 풍산, 김대현의 다섯째 아들. ○부인은 김성일의 손녀, 金湫의 딸. ○吳長, 柳成龍, 鄭述 제자. ○아들 金時任이 가장을 가져와 비문 청탁.

14) 『淸陰集』에는 권태일이 제작한 壽宴圖에 題詩한 「寄題完山府尹權守之壽宴圖【名泰一】」이라는 시가 수록되어있는데, 제목에서 권태일을 ‘完山府尹’으로 표기하고 있다. 권태일은 1623년(인조 1) 全州府尹으로 나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 역시 그 이후 지어진 것이다. 또한 권태일의 신도비의 글을 김상헌이 지은 것으로 미루어 교류 시작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김상헌의 1차 안동 우거기 이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5	慶州府尹朴公墓碣銘并序	朴守弘 (1588~1644)	미상	·	○본관은 밀양. ○영남 거주 서인. ○손자 朴重輝가 비문 청탁. ○상주에서 서거, 선산에 묘역 조성. ○김상헌이 李碩明 묘갈 작성. 박수홍은 이석명의 孫婿 朴鼎實의 아들.
6	進士金君墓誌銘并序	金繼宗 (1567~1623)	미상	·	○본관은 안동, 예안 西村 거주. ○동고조팔촌. ○김상헌이 1622년 양모 전주이씨 상을 당했을 때 金繼賢이 편지로 묘지명 청탁. ○첫 번째 안동 우거기에 교류. ○차남이자 金兌(閔純 문하)에게 양자간 金震遠이 김상헌에게 배움. ○柳成龍이 칭찬함.
7	贈貞夫人完山李氏墓誌銘并序	李繼金 女	미상	·	○본관은 전주, 태종 8대손. ○풍산 金大賢(1553~1602)의 처. ○장남 金奉祖가 동생 金榮祖를 보내 김상헌에게 묘지명 청탁. ○김대현은 성혼의 제자, 고향은 영천, 이황을 제향한 이산서원 원장 역임. ○김상헌이 김대현에게 배움.
8	司憲府執義晦谷先生權公墓誌銘并序	權春蘭 (1539~1617)	미상	·	○南人. ○본관은 안동. ○이황, 구봉령 문인. ○유성룡, 정구와 교류. ○1639년(인조 17) 조카 權泰精이 묘지명 청탁. ○동생의 아들 權泰一을 양자로 삼음.
9	司憲府持平金君墓表陰記	金奉祖 (1572~1630)	미상	·	○본관은 풍산, 金大賢 아들. ○柳成龍 문인.

〈표 2〉는 영남과 관련된 인물의 墓道文字 撰述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이는 김상헌이 안동에서의 활동과 교류의 일면을 잘 드러낸다. 묘도문자는 해당 가문의 위세, 즉 사회·정치적 영향력과 경제력 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따라서 묘역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글을 받고, 명필로 이름난 사람에게 글씨를 받아 돌에 새겨 비석으로 세우고, 墓誌를 제작해 埋安했던 것이다. 특히 비석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15) 金尙憲의 문집인 『淸陰集』에 기재된 순서를 따랐다.

그 기능이 크다 할 수 있다. 서인인 김상헌이 남인의 주요한 지역인 안동에서 묘도문자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해당 가문과 세의가 돈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헌의 문집인 『淸陰集』에 따르면, 그는 神道碑와 墓碣, 墓表, 墓誌銘과 같은 묘도문자를 모두 112건 작성했다. 그 중 영남과 관련한 인물의 묘도문자는 모두 9건이다.

〈표 3〉 본관별 묘도문자 찬술 수량

본관	밀양박씨	안동권씨	안동김씨	풍산김씨	계
건	1	3	1	4 ¹⁶⁾	9

김상헌이 작성한 묘도문자 중 안동권씨와 풍산김씨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며, 안동김씨와 밀양박씨, 전주이씨는 각각 1건이다. 안동권씨는 權儀墓碣銘, 權春蘭墓誌銘, 權泰一神道碑銘 등을 찬술하였다. 권의는 冲齋 權機(1478~1548)의 형으로 그 손자 權暉가 아들 權克堪을 김상헌에게 보내 비문을 청탁했으며, 권춘란과 권태일의 묘도문자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태일과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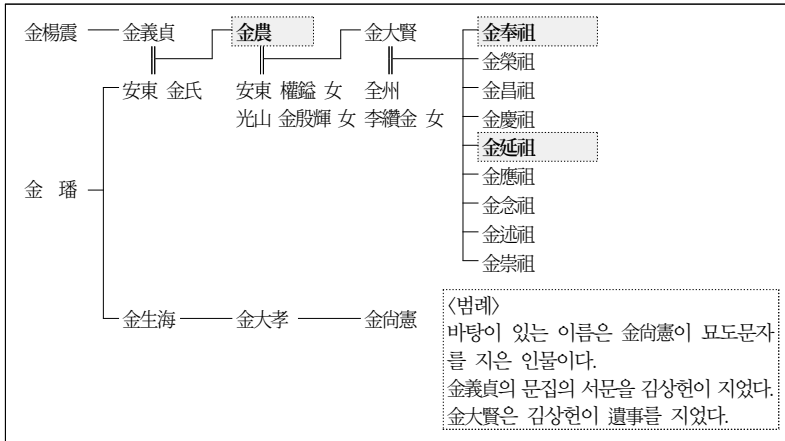
풍산김씨는 金農墓碣銘, 金延祖墓碣銘, 金奉祖墓表陰記, 그리고 金大賢의 부인인 全州李氏墓誌銘 등을 지었다. 이는 풍산에 세거하는 안동김씨와 풍산김씨 사이의 혼인 관계가 바탕이었다. 김농의 아버지 金義貞은 김상헌의 증조부인 金璠의 딸과 혼인했다. 또한 김상헌은 金奉祖와 함께 김대현에게 배웠는데 당시 김상헌은 9세, 김봉조는 7세였다. 김봉조는 서울 壯義洞莊義洞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에는 그의 증조부 김의정이 벼슬살이를 하며 마련한 京第가 있었다. 김봉조는 8살 때 할아버지 김농이 龍宮縣監에 임명되어 임지에 따라가기 전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다.¹⁷⁾ 이후에도 오랫동안 안동김씨와

16) 金大賢의 처 贈貞夫人完山李氏를 합하였다.

17) 金奉祖의 문집인 『鶴湖集』에 수록된 年譜에 따르면 金尙憲은 金奉祖과 함께 한 방에 거처했으며 情好가 밀접해 형제나 다름 없었다고 한다.

풍산김씨와의 世誼는 이어졌다.¹⁸⁾

〈표 4〉 안동김씨와 풍산김씨 관계도



이밖에도 朴守弘은 그 손자 朴重輝가 청하여 묘갈명을 지었다. 박수홍의 후손은 당시 영남에서 많지 않았던 서인계 인사로 보인다. 박수홍의 처외조가 李珥의 동생 李瑀였으며, 김상헌에게 비문을 청한 박중휘의 동생 朴增輝는 金壽昌의 사위였는데, 김수창은 김상헌의 형인 김상용의 손자이다.¹⁹⁾ 이처럼 영남지역과 관련한 김상헌 찬술 묘도문자는 안동권씨의 사례에서 보듯 교유관계인 경우도 있으나, 풍산김씨와 밀양박씨 사례에서처럼 주로 혈연으로 관계된 인물인 사례가 더 많았다.

1637년(인조 15) 丙子胡亂의 결과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갈 때 김상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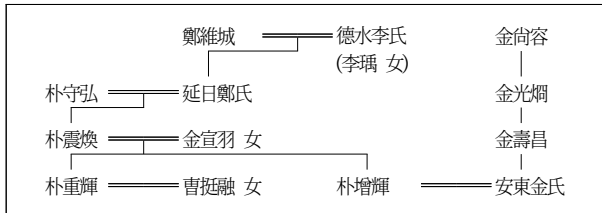
18) 『문중이야기 6—풍산김씨 오미마을 영감댁』, 한국국학진흥원, 2021, 29·44쪽.
김상헌과 그 후손들은 대대로 김의정의 후손들과 교유하면서 서신을 교환하고 묘도문자를 지어주기도 했다. 『世稿抄略』에 수록된 글을 보면 김상헌과 김광찬, 金光燦 등이 풍산김씨 문중 인물에 대해 쓴 묘도문자와 시, 만시, 제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19) 朴守弘의 혈연 관계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은 隨駕하지 않고 안동으로 향했다. 같은 해 2월 7일 안동 풍산 학가산 西美洞(훗날 김상헌이 西薇洞으로 개칭)으로 옮겨 ‘木石軒’이라는 편액을 걸고, 스스로 西礪老人이라 호를 붙였다.

중앙에서는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설 때 김상헌이 陪從하지 않은 일로 비판하는 논의가 일었다. 이를 해명하고자 김상헌은 〈豐岳問答〉(1638)을 지어 자신이 인조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大義를 따른 행동이었음을 밝혔다. 간쟁하였는데 쓰이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이 신하의 의리이며, 신하는 임금의 명령이 아니라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령대로만 따르는 것은 부녀자나 환관들의 충성이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아니라 주장했다. 또한 적이 물러난 뒤 인조에게 문안하지 않은 것 역시 임금과 함께 남한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문안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떠난 것일 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드러내었다.²⁰⁾ 그럼에도 조정에서 김상헌을 極邊에 安置하라는 주장이 그치지 않았고, 인조는 삭탈관작 하였다.

김상헌이 남한산성에서 나오기 전 1월에는 김계권의 신주가 조천되어 묘역에 신주를 매안했다. 이후 대수가 먼 선조들에 대해서는 10월 18일 묘소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더불어 김상헌은 묘역의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재실과 제기의 관리하는 일 등을 정하였다.²¹⁾ 또한 1639년(인



20) 『효종실록』 권8, 효종 3년 6월 25일 을축.

실록의 金尙憲 卒記에 〈豐岳問答〉 내용을 싣고 있다. 또한 김상헌의 병자호란 이후 행적을 기록한 『南漢紀略』에도 〈풍악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21) 金尙憲, 『淸陰集』 권38, 序, 「驛洞先墓會奠立議序」.

조 17) 여러 族人들과 5대조 이상 조상 무덤에 奠을 올리는 등 문중 사업에 힘썼다.²²⁾

이처럼 김상헌은 안동에 은거하며 교유한 가문과 인물들에 대한 묘도문자를 찬술해 주었으며, 문중 사업의 정비에 힘쓰기도 했다. 또한 그 후손들 역시 때때로 안동에 머물렀는데, 이때 김상헌의 행적을 회고하는 시를 짓기도 하고 학습의 장소로 삼기도 하는 등 안동과 유대를 지속해 갔다.

Ⅲ. 서간사 건립과 사액의 의미

김상헌을 주향으로 하는 鶴東書院의 건립이 실제로 돌아간 뒤에도 안동의 노론계 사족들은 그 뜻을 꺾지 않았다. 서원 건립을 위해 마련된 토지를 '建院所'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면서 서원 재건립의 의지를 드러냈다.²³⁾ 하지만 바로 다시 서원 건립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먼저 1770년(영조 46) 서당 건립을 시작해 이듬해 공사를 마치고 〈西礪書堂〉이라는 편액을 달았다.²⁴⁾

학동서원 사건 이후 김상헌을 배향하는 서원을 건립하기 위한 시도는 크

22) 金尙憲, 『淸陰集』 권38, 序, 「追遠錄序」; 권39, 題跋, 「書八世祖典農正七世祖閣門奉禮兩墓會奠子孫錄後」.

이 시기 김상헌은 제사를 복원하기 위해 宗會를 구성하고, 각종 의절과 함께 묘역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연보에 따르면 「추원록서」는 1639년(인조 17)에 지었다고 되어 있으며, 「서팔세조전농정칠세조합문봉례양묘회회전자손록후」의 말미에 '崇禎己卯十月上浣'이라 작성시기를 밝히고 있다.

23) 金養根, 『東塾集』 권7, 記, 「西礪精舍建置顛末記」.

我東無書院則已, 有則安東而無我淸陰先生書院, 豈非莫大羞憤乎. 原初院事, 佳邱安公宅駿, 法田姜公元一, 九潭申公鑣, 申公思國, 輞川李公滄實主其議, 又尙州成參奉爾漢諸丈, 同來與聞, 而戊午鄉變, 言之罔極, 債事之後, 只餘五六斗落種土田, 名之曰建院所, 示其有志也. …(후략)….

24) 『法城日記』, 「西礪建院事實略」, “…., 始於庚寅, 營建書堂. 辛卯告功, 扁之曰西礪. 書堂主事措辦者, 金龍一, 金沃慶, 李命龍, 申光翕諸人. ….”

게 세 번 있었다. 1차 시도는 1776년(영조 52)에 시작하여 1777년(정조 1)에 마무리 되었으며, 2차 시도는 1779년(정조 3), 3차 시도는 1786년(정조 10)에 이루어졌다.

1차 시도는 周溪書院 士林들이 김상헌 배향 서원 건립에 관한 회의를 개최 하자는 발의를 통해 이루어졌다.²⁵⁾ 당시 通文名帖에 院長은 安明逸, 齋任은 鄭來鳳과 權用中이었으며, 會員으로 安明迪, 安明述, 安索 등 30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앞서 학동서원 건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었다. 안명일과 안명적, 안명술, 안채의 본관은 순흥으로, 안동 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가계였기 때문에 가구 안씨로 지칭되었다.²⁶⁾ 안명일은 宋時烈과 宋浚吉을 문묘와 효종 묘정에 종사하자는 영남 유생소에서 이름이 보인다.²⁷⁾ 정래봉 역시 김장생 문묘 종사를 청하는 팔도유생 상소 등에 이름이 보인다.²⁸⁾ 권용중은 김상헌과 교유했던 권태일의 5대손으로 역시 송시열과 송준길 문묘 종사를 청하는 영남유생소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들이 이미 학동서원 건립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었던 점, 송시열과 송준길의 효종묘정과 문묘 제향을 촉구하는 상소 활동으로 미루어 당시 주계서원은 안동지역 서인-노론계 서원으로 자리잡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⁰⁾

25) 주계서원은 李滉의 제자 具鳳齡을 주향으로 배향한 서원으로 權春蘭을 종향하였으며, 1693년(숙종 19) 사액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김상헌은 권춘란의 묘지명을 찬술했던 인연이 있었다.

26)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휘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71, 한국사연구회, 2015, 221쪽.

안동 가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순흥 안씨들은 15세기 중반 안동권씨의 사위로 가구에 들어왔다. 입향조의 증손 安霽(1538-1602)는 權春蘭과 함께 이항의 제자였으며, 그 아들 安景淹은 權泰一의 사위가 되었다.

27) 『승정원일기』 832책, 영조 12년 8월 20일 신사 ; 『승정원일기』 1036책, 영조 24년 11월 8일 무오 ; 『승정원일기』 1112책 영조 30년 10월 13일 무오 ; 『승정원일기』 1390책, 정조 즉위 10월 10일 무신.

28) 『승정원일기』 473책, 숙종 38년 10월 18일 무진.

29) 『승정원일기』 1035책, 영조 24년 10월 10일 신묘.

회의 장소는 안동향교였다. 향교는 府의 중심에 위치했으며, 지역 사족들에게 대표성을 갖는 공간이기도 했다. 게다가 앞서 학동서원의 사례처럼 돌발적으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도 용이할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남 남인들의 관직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대개 지방관으로 임명되었던 인물들은 서인계 인사들이었다. 향교는 지방관이 관장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동지역 서인-노론계 인사들의 회합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³¹⁾

〈표 5〉 1차 疏廳 구성 인물³²⁾

직임	이름	비고
疏首	姜瀚(1711~1782)	姜怡(1602~1671) 현손. 본관은 진주. 속칭 法田姜氏. 漢湖 金元行 제자. 훗날 西礪祠 講先生. 埃德祠에 배향.
製疏	申光集(1738~1809)	본관은 평산. 九潭 거주. 1783년(정조 7) 사마입격. 아버지는 申曠, 형은 申光翕.
寫疏	安寵(1736~?)	본관은 순흥. 佳邱거주. 1789년(정조 13) 사마입격. 아버지는 安明翕, 생부는 安明逸. 安鰲, 安取는 본생가 형.
日記有司	姜遂煥(1751~?)	본관은 진주. 속칭 法田姜氏. 姜禧의 아들. 徐命采의 사위. 姜泰煥, 姜益煥의 형.
公事員	安明澤(1734~)	본관은 순흥. 자는 光世. 안동 佳邱 거주.

30) 周溪書院은 현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에 있었다. 그러나 院任錄과 같은 주계서원 운영과 관련한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명의로 훼손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철폐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다. 『雲下見聞錄』에 수록된 『道內各邑書院毀撤查括成冊草』에 따르면 안동의 서원은 두 차례에 걸쳐 훼손이 이루어졌는데 주계서원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大東地志』(1866, 고종 3)에서 주계서원의 존재가 확인되고, 『嶺南邑誌』(1871, 고종 8)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1871년 이전 훼손이 이루어진 것 같다.

31) 당시 안동부사는 李養遂였다. 선조와 온빈 한씨 소생인 慶平君의 5대손이며, 아버지는 李彦衡, 어머니는 洪鉉輔의 딸이며, 趙暉의 사위이다. 사승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혼맥으로 미루어 노론계 인사로 구분할 수 있다.

안동향교 菁莪樓에서 이루어진 회합에서 사액 청원을 위한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다. 疏首와 製疏, 寫疏, 日記有司, 公事員 등 인적 구성이 되면서 疏廳은 준비되었다. 그러나 英祖의 국상으로 因山 이후 일을 다시 추진하였다.

소수가 된 姜瀚은 姜怡의 현손이다. 강흠은 申欽의 문인으로 병자호란 이후 준양에 은거했다. 그 후손들은 이후 안동 法田(현 봉화)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속칭 法田姜氏로 지칭되었다. 법전강씨는 서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학동서원 건립과 서간서당의 사액서원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³³⁾ 申光集의 선대는 중앙에서 활동하다 인조반정을 전후한 시기 안동 九潭으로 이주했다. 주로 서인계 인물들과 교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평집의 5대조 申屹은 金瑬와 俞伯曾 등이 인척이었으며, 부친 申曄의 묘갈명은 宋煥箕가 지었고, 7대조 申黈의 墓誌銘을 김상헌이 짓기도 했다.³⁴⁾ 다른 인물들 역시 학동서원 건립 활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관련한 가문 소속이었다.

안동의 노론계 사족은 김상헌 제향 서원을 청원하기 위해 영조 국상이 마무리 된 8월 11일 안동향교에 소청을 설치하고 명륜당 서벽에 서원 건립과 관련한 대강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당시 英陽縣監 洪樂純이 兼府使 자격으로 안동부에 있어 申晔과 金正根이 만나 소청 설치와 관련한 여러 일을 의논하고 확정하였다. 이때 홍낙순이 쌀과 돈을 보내 주었다. 또한 김상헌을 배향하는 서원 건립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주변으로 전해지자 인근 고을의 목민관의 응답이 있었다. 이를 뒤 榮川郡守 金履鉉가 안동으로 와 김정근을 만나면서 쌀과 돈, 종이 등을 보내왔으며, 경상도관찰사 李衍祥이 순행 도중 안동에 도착하자 활동을 격려했다.³⁵⁾

서원 개건과 관련한 상소를 준비하면서 서울의 여론을 감지하고 장동파와

32) 『法城日記』, 「西礪建院事實略」, 6월 28일.

33) 봉화 법전에 거주하는 법전 강씨는 이후 노론계와 소론계로 분화하였다. 강흠의 아우 강각의 후손의 일부가 윤증의 제자가 되면서 이들 계열은 소론으로 분류된다.

34) 宋穉圭, 『剛齋集』 권8, 「澹窩申公墓誌銘」; 『剛齋集』 권11, 「湖隱申公行狀」.

35) 『法城日記』, 「西礪建院事實略」, 8월 13일.

일기 기록에는 경상도관찰사의 이름이 李延祥으로 되어있다.

연대를 위해 안충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안충은 서울의 상황을 전하면서 대부분 천천히 기회를 엿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안동의 노론계 사족들에게 알렸다. 정조 즉위 초 정국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시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 자격으로 영조의 뒤를 이었고, 정조 스스로도 즉위와 동시에 사도세자 추숭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켰다.³⁶⁾ 그럼에도 안동에서 사도세자를 신원시켜달라는 상소가 올라왔다.

신임 안동 부사 金尙默(1726~1779)이 부임해 소청에서 상소와 관련한 일을 상의했다. 그러던 중 안동의 유생 李應元이 아버지 李道顯과 함께 사도세자의 신원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정조는 이미 즉위하면서 사도세자의 신원이나 추숭과 관련한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이들을 親鞫하였고, 역적으로 지정해 사사했으며 안동은 府에서 縣으로 강등시켰다.

鞫獄이 잇달았다. 1775년(영조 51) 영조는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명령하였다. 이 때 尹象厚와 尹養厚, 洪麟漢 등은 영조에게 대리청정을 거두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정조 즉위 후 관련한 인사들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정조 즉위 후 정국의 불안으로 김상헌 배향 서원을 改建하는 계획은 결국 미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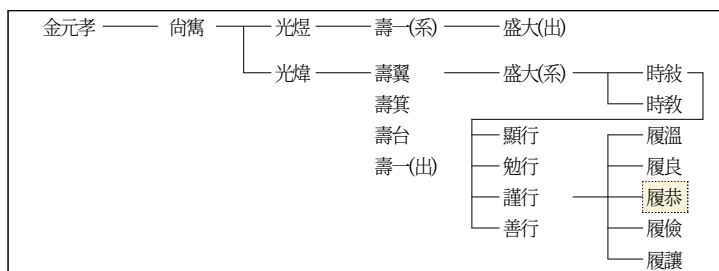
이듬해인 1777년(정조 1) 3월 서원 건립 청원이 다시 이루어졌다. 3월 21일 서울에 도착해 성균관 장의 金履恭에게 통문을 보내 성균관 유생들의 호응을 요청하였다.³⁷⁾ 마침내 4월 11일 승정원에서 상소를 봉입하였다. 상소에서 김상헌의 절의를 강조하면서 목석거와 삼귀정 같은 자취가 두루 남아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상헌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첩설의 혐의에서 자유롭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정조는 1738년(영조 14) 영조가 학동서원이 안동 유생들에 의해 강제로 파괴된 일을 처리하며 영조가 결정한

36)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신사.

37) 金履恭의 본관은 안동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김상헌의 생부 金克孝의 형 金元孝의 7대손이다.

내용을 확인했다. 연루된 유생들을 처벌했지만 다시 건립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영조의 결정을 따랐다. 1차 김상헌 배향 서원 건립 청원을 통해 안동지역 서인-노론계 사족들은 학동서원 훼파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연대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서원 개건을 위한 계획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학동서원 건립이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주도한 것이라면, 서간서당 건립 이후 진행된 서원 개건 청원은 지역에 기반을 둔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후 2차 3차 서원 건립 청원 시도에서는 좀 더 발전한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장동파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2차 서원 건립 청원 시도가 마무리 된 후 서간서당에서는 제향이 이루어졌다. 제향은 滄洲精舍에서 이루어진 의식을 따라 지냈다.³⁸⁾ 창주정사는 복건성 건양현에 있는 주희 말년에 강학 및 공부처로 1192년(紹熙 3, 고려 명종 22) 이곳에 집을 지어 거처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희에게 공부를 청해 모여들자 지은 것이 竹林精舍이고, 후에 이름이 바뀌어 창주정사라고 했다.³⁹⁾ 주희는 『禮記』 「文王世子」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봄에는 가르치는 관원이 그



- 38) 宋煥箕, 『性潭集』 권14, 記, 「詠薇樓記」. “後幾年吾黨若而人, 構成數間屋於木石居舊址. 而與知府金侯尙默定議欲滄洲祀儀, 設紙牌以行.”
- 39) 주희는 창주정사에서 8년을 강학하다 1200년(慶元 6)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225년(보경 1, 고려 고종 13) 건양현령 劉克庄이 사당을 지었고, 1244년(淳祐 4)에 書院으로 지칭되다가 宋 理宗의 어필로 考亭書院이라 사액되었다. 현재 남은 돌로 만든 패방은 1531년(嘉慶 10, 중종 26)에 만든 것이고 다른 시설물들은 1998년 복원한 것이다.

先師에게 석전을 올리니 가을과 겨울도 역시 같다. 무릇 학교를 세우면 반드시 先聖과 先師에게 석전을 올려야 한다.”⁴⁰⁾는 내용을 근거로 1194년(소희 5)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성현과 宋의 학자에게 춘추로 석전을 베풀었다. 이 석전 의식은 후에 서원에서 성현을 배향해 제사를 지내게 된 선례가 되었으며, 서간서당 역시 이를 따라 김상헌에게 춘추 석전을 올린 것이다. 앞서 서원 개건 청원에 실패하고, 비록 사당을 마련하지 못하였지만 제향을 시작하여 서원로의 전환과 사액 청원의 의지를 드러낸 행위였다.

2차 서원 개건 청원은 1779년(정조 3)에 이루어졌다. 당시 정조는 여주에 능행하는 일정이 있었다. 당시 申翬이 여주에 머무르는 중이었는데 정조의 행행 전에 상소문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정조의 능행은 세종 英陵과 효종 寧陵에 배알한 후 남한산성에서 道科를 설행하였다. 이는 병자호란의 기억을 통해 김상헌을 배향하는 서원을 건립하려 하는 안동지역 노론계 사족들에게는 더욱 좋은 기회였다. 이에 申光翕과 金養根을 비롯한 서원 개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향교에서 관련한 논의를 하였는데 법전 강씨들은 거리가 멀어 긴급히 이루어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편지로 상황을 통보받았다. 疏請을 위해 8월 1일 안동을 출발해 5일 여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주에서 소청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에서 伏閣하기로 뜻이 모아졌다. 9일 김정근이 金履翼과 함께 반촌에서 만났고 신혁, 신평흡 등 역시 합류하였으며, 15일 상소가 봉입되었다. 2차 청원 상소에서는 1차보다 좀 더 강화된 논리가 등장한다. 김상헌과 송시열을 서로 비교하며 사액을 청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론에서는 송시열이 1689년(숙종 15) 사사된 직후부터 효종 묘정에 배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숙종은 끝내 송시열의 배향을 미루었고, 영조 역시 아버지 숙종의 결정을 뒤집지 못하였다. 그러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⁴¹⁾ 정조는 송시열을 존숭하여 재위 기간 내 여러

40) 『禮記』 「文王世子」. “凡學，春教官釋奠于其先師，秋冬亦如之。凡始立學者，必釋奠于先聖先師.”

41)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22일 임진.

추송 사업을 벌였는데 송시열의 효종 묘정 배향은 그 신흥탄 같은 일이었다. 여기에 여주에 송시열을 제향하는 사당을 건립하라는 결정은 김상헌 제향 서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동 사족들에게는 사액 청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⁴²⁾ 더군다나 정조의 효종 영릉 배알과 남한산성에서 과거를 설행한 점, 삼학사인 홍익한·윤집·오달제를 배향한 현절사에 致祭한 일은 이번 능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특히 송시열은 춘추의리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상헌을 더욱 높이는데 활용되었다. 서원 개건을 청하는 상소에서 김상헌 역시 송시열 만큼이나 절의를 지켜 의리의 주인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바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신혁은 정조가 안동은 김상헌이 생을 마감한 곳이 아니어서 사액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전해듣고 알려졌다.⁴³⁾ 이에 소청을 진행한 사족들은 이전과 다르게 곧장 새롭게 소청 임원을 구성하고 상소문을 다시 작성해 8월 27일 봉입했다. 새롭게 작성된 상소문은 본래 25일 봉입하려 하였으나 국기일이라 이를 미루어졌다. 2차 청원의 첫 번째 상소문이 들어간지 열흘 만에 새로운 상소문을 작성하여 들인 것이다.

서울에서 다시 작성된 상소문에는 김상헌의 절의를 드러내는 논의가 더욱 강조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안동으로 낙향해 머무른 곳마다 반청의식과 절의를 드러내는 지명을 붙인 점, 이전까지 사용했던 호인 ‘淸陰’에 복수의 대상의 국호인 ‘淸’이 포함되어 폐기하고 스스로 ‘西礪老人’으로 지칭했던 점, 안동은 김상헌의 고향이자 의리를 지킨 지역인 곳인 점 등을 더욱 부각하였다. 특히 德水에 이이를 배향한 서원이 있는 것은 관향이기 때문이며, 連山の 돈암서원은 김장생의 세거지이기 때문에 세워졌고, 화양서원은 송시열이 의리를 품고 강론했던 곳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안동은 김상헌의 관향이면서 생활

당시 송시열의 효종 묘정 배향이 이루어지며 윤선거와 윤증은 추탈관작하였고, 사액된 서원은 훼손되었다.

42) 『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8월 6일 정사.

43) 『法城日記』, 「西礪建院事實略」, 1779년(정조 3) 8월 15일.

했던 이력이 있는 공간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김상헌이 청나라를 배척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호를 폐기하고 '서간'이라는 지명을 차용해 절의를 드러낸 것은 그 역시 의리의 주인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상헌을 배향한 서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정조는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다.

2차 청원에서 주목되는 점은 김양근의 등장이다. 김양근은 金珽의 후손으로 素山派에서 문과에 급제해 지평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는 京派인 金履寅의 후원을 통해 문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인물로 서울과 안동에 거주하는 안동 김씨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던 인물이다.⁴⁴⁾ 그의 문집인 『동야집』에는 서간사 건립과 관련한 다수의 기록이 전해 안동에 김상헌을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간사의 강학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지역 노론계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김양근은 이후 서간당이 서간사로 사액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道疏를 올리자는 논의가 일었고 尙州, 咸昌, 善山, 星州 등의 사족들이 호응했다. 이들 지역은 영남에서도 노론세가 강력한 곳들이었다. 1786년 10월 宋浚吉을 제향한 상주의 興巖書院에서 疏廳 임원을 구성하였다. 疏首는 申儼, 都廳에 金燬, 疏色에 沈翼之과 金濟默, 製疏 金正根, 寫疏 申光集으로 정하였다. 이때 서울에서 別試가 있었기 때문에 신광집과 김정근, 이인은 과거 응시와 소청을 겸하기로 하는 한편 새롭게 疏任을 정했는데 疏首는 金濟默, 製疏는 李宅彬, 疏色은 申光集, 姜始煥이며, 管行은 金正根, 寫疏는 沈能泰, 掌議는 李詡과 洪居聖였다.⁴⁵⁾

44) 이경구, 앞 논문, 16~17쪽 참고.

김양근의 문집인 『동야집』에는 장동파와 소산파의 사적이 동일한 비증으로 수록되어있다. 이를 통해 그가 가졌던 역할과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서울과 안동의 전체 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안동 길안 목계의 김계행 후손들이 영남 남인으로 좌정했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45) 해당 별시는 1786년(정조 10) 2월 27일 설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丙午十年親臨春塘臺對舉別試文科殿試로 春塘臺에서 설행된 과거였다.

1785년(정조 9) 여주에 大老祠가 마련된 것 역시 세 번째 소청에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경기 감사 徐有防은 송시열을 제향하는 院宇의 건립이 끝났음을 보고하였다. 정조는 ‘大老祠’로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金鍾秀의 글씨로 편액을 만들게 하였다.⁴⁶⁾ 안동 노론계 사족들은 김상헌을 송시열과 함께 춘추 의리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하려 했다. 이는 정조가 세손 시절 『兩賢傳心錄』(1774)을 편찬하게 하는 등 송시열을 존숭하는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았던 것과도 관련 있다. 여기에 여주에 송시열을 제향하는 사우에 이름을 직접 지어 내리는 상황에 안동 노론계 사족들이 다시 한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세 번째 소청에서 주목할 점은 장동김씨와 연대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2월 7일 疏廳을 梁守僑의 집에 설치하였다. 이날 金履翼이 와서 소임들을 만났고, 金履素는 사람을 보내 문안하며 상소 작성에 필요한 종이와 붓, 먹 등을 보내왔다.⁴⁷⁾ 이를 뒤인 9일에는 김정근이 漢湖로 가서 김원행에게 초를 잡은 상소문을 보이고 교정을 받아왔다. 김원행은 김상헌의 직손이자 김창협(金昌協)의 손자였다. 또한 그는 노론 산림으로 중앙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김원행이 상소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은 안동에 김상헌을 제향하는 서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중앙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장동김씨 핵심 인물들이 소청에 힘을 실었다. 결국 정조는 사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서간서당을 서원으로 승격하는 것은 김상헌의 뜻과 맞지 않다고 여기고, 사당의 이름을 ‘西礪祠’라고 내려 사액했다. 정조는 서간사 사액 이후 치제 승지로 안동에 다녀온 李頤祥에게 보고를 받았다. 정조는 안동의 김상헌 관련 유적의 현황과 서간사 사액으로 인한 치제 당시 안동의 동향을 파악하였는데, 이때 서간사를 ‘서원’으로 칭하고 있다.⁴⁸⁾ 이는 당시 서원과

46) 『日省錄』 정조 9년 9월 5일 신해.

47) 金履翼은 金昌業의 증손, 金履素는 金昌集의 증손으로 모두 김상헌의 6대손이다.

48) 『승정원일기』 1611책, 정조 10년 9월 23일 계사. “丙午九月二十三日巳時, 上御重

사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비추어 앞서 정조가 굳이 ‘사당’으로 사액했던 것은 영남의 여론을 의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서인-노론이 중앙 정계를 장악한 이후 영남 남인의 중앙 진출은 요원한 것이었다. 조선에서 사족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이 필수적이었지만 영남의 사족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중 하나가 서원을 통해 향론을 주도하고 향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었다.

서인-노론의 입장에서는 남인의 주요한 지역이었던 영남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유력 가문을 포섭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영남 남인의 정신적 지주인 이황과 퇴계학파의 주요 인물들의 근거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인-노론에 포섭

熙堂。右副承旨與致祭承旨入侍時，右副承旨洪義榮，假注書金祖淳，記注官承膺祚，記事官尹行任，致祭承旨李頤祥，以次進伏訖。上曰，昨日聞之則宣額不得爲之云耶。頤祥曰，然矣。上曰，政院未及出給，以致如此耶。頤祥曰，然矣。上曰，西礪書院，何如耶。頤祥曰，在於萬山中，而草創院宇，多有未備之節，又是離群絕俗之地，故後來守護，亦似難矣。上曰，先正所居之屋，至今猶存耶。頤祥曰，只有遺墟碑而已，屋宇則自先正在時，不過數間草屋，而今焉無矣。上曰，然則觀其遺墟，可以堪居乎。頤祥曰，在於亂山中，初無村落之可隣，所見極爲愁絕，殆非一時可堪之地，故臣及諸人，相與感歎欽慕矣。上曰，士夫多來會乎。頤祥曰，數日間陸續來會者，爲數千人矣。上曰，安東府使當出來矣。頤祥曰，以祭官出來矣。上曰，沿路年事，何如。頤祥曰，沿邊則甚於癸卯云矣。上曰，安東入於稍實耶。頤祥曰，聞府使之言，入於稍實云矣。上曰，民情遑遑乎。頤祥曰，來頭則雖未可的知，蓋今則田穀足可繼食，故姑無遑遑之色云矣。上曰，今番行路有何可達之事乎。頤祥曰，往來恩遽，故別無所聞矣。上曰，然則退去。頤祥退出，上曰，左副承旨與禮判入侍。賤臣承命出，與左副承旨徐龍輔，禮曹判書徐有隣偕入進伏。上曰，右副先退。義榮退出。命書傳教曰，西礪書院致祭，既命宣額曰爲之，則書寫官所書扁額，齎送於下去承旨之行，可也。否則依例遣禮官，可也。今聞致祭承旨言，扁額不爲下送，權令地方官，書揭後致祭云，該房承旨事，大是不察，當該禮房承旨罷職，書寫官則藝文館學士差出啓下云。書置扁額，下送本道，卽爲書揭後狀聞事，下諭。”

된 지역에 비해 완고한 곳이었다. 서인-노론은 안동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파의 인물 중 안동에 연고가 있었던 김상헌을 소환해낸다.

안동은 김상헌의 관향임과 동시에 그와 관련한 사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생전 짧지 않은 시간 안동에 머무르며 명사들과 교유를 통해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행적은 안동, 특히 素山에 거주하는 일족들이 안동에서 서인-노론으로 당색을 유지할 수 있는 영향이기도 했다. 김상헌은 영남 남인의 핵심지역인 안동의 사족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1738년(영조 14)에 안동 유생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안동 학동서원을 강제 훼파한 사건은 당시 안동 남인계 사족들의 위기의식이 잘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동서원 훼파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안동의 서인-노론계 사족은 지속적으로 김상헌을 제향하는 서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선 서간서당을 설립하여 강학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기존의 서원들이 서당이나 精舍에서 출발하여 서원으로 승격을 이루었던 사례를 참고한 결과이기도 했다. 여기에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는 장동파와의 연대, 조정에서 파견하는 노론 출신 지방관의 후원 등을 통해 西礪祠 사액에 성공한다.

서간사는 서원으로 이름을 얻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당시 서원은 강학 기능이 약화되어 祠宇와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액을 내려준 정조가 서간사를 ‘서간서원’으로 칭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역시 서원과 사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송시열과 함께 춘추 의리의 상징인 김상헌을 독향으로 제향하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남 사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안동 서간사 건립과 사액은 영남의 주요 지역에 노론의 영향력 확대가 성공했음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1. 원전

『禮記』, 『조선왕조실록』, 『承政院日記』, 『大東地志』, 『法城日記』, 『嶺南邑誌』.

金奉祖, 『鶴湖集』.

金尙憲, 『淸陰集』.

金壽增, 『谷雲集』.

金養根, 『東塾集』.

宋德相, 『果菴集』.

宋時烈, 『淸陰年譜』.

宋穉圭, 『剛齋集』.

宋煥箕, 『性潭集』.

李喜朝, 『芝山集』.

正祖, 『弘齋全書』.

『道內各邑書院毀撤査括成冊草』(이우성 편, 『栖碧外史海外蒐佚本 15』)

2. 논저

김학수, 『끝내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17세기 명가의 내력과 가풍』, 삼우
반, 2005.

_____, 「노론의 대 남인 분열·통합책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김형수, 「1738년(영조 14)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법성일기』를
중심으로」,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
회, 2015.

채광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형국 조선후기 영남사림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8.

『문중이야기 6-풍산김씨 오미마을 영감댁』, 한국국학진흥원, 2021.

〈부표〉 西礪祠 설립 및 서원화 시도 과정*

기년	날짜	내 용
1710년 (숙종 36)		豐山 西薇洞에 淸陰金先生木石居遺墟碑 건립. 李喜朝 撰.
1738년 (영조 14)		鶴東書院 파괴.
1763년 (영조 39)		鶴駕山淸陰金先生木石居遺墟碑 및 비각 건립.
1769년 (영조 45)		木石居遺墟祠 건립.
1770년 (영조 46)		西礪書堂 건립.
1771년 (영조 47)		서간서당 준공. ‘서간서당’ 편액 게시.
1776년 (영조 52)	6월 15일	周溪書院 士林이 안동향교에서 김상헌 배향 서원 건립 회의 개최를 발의. 通文名帖: 원장 安明逸, 齋任 鄭來鳳, 權用中, 會員 安明迪, 安明述, 安來 등 30인.
	6월 27일	안동향교 上齋 金正根, 掌議 李詵, 徐有淵, 齋任 安審, 權得中이 통문을 보내 향교에서 회의를 발의. 會員은 姜斯 文洞, 進士 安明逸, 安明迪, 李命龍, 權貞運, 李商梅, 安來, 申光翕, 金養慶, 安龍, 姜遂煥.
	6월 28일	안동향교 蓍菴樓에서 임원 望定. 疏首 姜瀚, 製疏 申光集, 寫疏 安龍, 日記有司 姜遂煥, 公事員 安明澤. 서간서당 錢 100금, 향교 50냥, 주계서원 50냥 分定. 인근 고을로 통문 발송. 疏廳 설치 즈음 고을 수령에게 품의하는 전례를 따라 申光翕, 金正根, 姜遂煥이 안동 부사 李養憲(1743~?)에게 상소의 대강을 설명.
	6월 29일	英祖 因山 전이라 소청 설치를 연기.
	7월 28일	因山 望哭禮 마친 뒤 향교에 모임. 會員 兪知 金宇淳, 安明逸, 金應八, 金沃慶, 申晔, 徐建修, 徐遠修, 申嚇, 安明述, 李詵, 徐有淵, 金正根, 金宅淳. 8월 11일에 소청 설치 결정.
	8월 11일	안동향교에 소청 설치. 8월 26일로 發疏日 확정. 上齋 申晔, 會員 安明逸, 姜瀚, 權貞運, 安明述, 安來, 金源淳, 金正根, 李詵, 徐有淵, 安弘, 姜遂煥. 신질과 김정근이 영양 현감 겸 안동 부사 洪樂純(1723~?)을 만나 소청설치에 대해 상의하고 확정함. 홍낙순이 쌀 한 포와 세 껌미 동전 부조.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法城日記』의 「西礪建院事實略」의 내용을 바탕으로 金養根, 『東塾集』에 수록된 내용을 보충해 정리한 것이다.

기년	날짜	내 용
	8월 13일	영천 군수 金履鉉(1736~1785, 김상헌 6대손, 金昌翁의 증손)가 안동에서 김정근 만남. 쌀 한 포, 동전 다섯 꾸러미, 종이 두 묶음 부조 관찰사 李延祥이 “서원 개건하자는 주장은 의리를 여는 것으로 오직 사람의 공의에 달렸다.”고 함.
	8월 17일	疏首가 身病이 있다는 세 번째 단자 도착.
	8월 24일	安龍이 서울에서 돌아와 천천히 기회를 보고 하자는 말이 많았다는 상황을 전함.
	8월 27일	신임 안동 부사 金洵黻(1726~1779) 부임. 소청에서 疏事에 대해 지도함.
	9월 16일	李道顯이 사도세자 신원을 청하는 소를 올려 賜死되고 안동은 縣으로 강등되는 일이 발생해 疏事 진행을 미룸.
	10월 20일	서간서당에서 동전 100궤미 보내 임원에게 노자 分定. 안동부사 동전 10궤미, 쌀 2포, 종이 2묶음, 초 2쌍 부조.
	10월 27일	아침에 疏首가 들어와 오후에 출발. 西岳寺(안동 태화산)에서 유숙.
	10월 28일	서간서당으로 출발.
	12월 01일	榮川(현 영주) 도착. 영천 군수 김이계, 金履鉉(김이계 동생)가 供饋를 영주에서 담당하기로 함.
	12월 4~6일	淸風(현 제천) 도착. 청풍 부사 金履鉉(김상헌 6대손, 김수증 현손)가 숙소와 식사 제공.
	12월 10일	충주 樓岩 도착. 鄭京의 상사에 조문하고 鄭趾煥, 鄭履煥과 疏事에 대해 논의. 당시 尹象厚의 鞫獄이 일어나 疏行을 미루기로 결정.
1777년 (정조 1)	3월 06일	知義禁府事 安復駿의 숙소에 모임. 僉知 金宇淳, 參判 姜奉瀟, 金應八, 申思復, 安明逸, 申旺, 金養根, 申嘯, 申旺, 安明述, 金正根, 申光翁, 安來, 李詒, 安龍, 金相采가 發行하는 일상의. 안동 부사 김상목 참여.
	3월 13일	疏首 安明述, 都廳 金正根이 서간서당에 묵음. 여러 임원들은 山陽店에서 모이기로 함.
	3월 21일	泮村 도착. 성균관 掌議 進士 金履恭에게 통문을 발송.
	3월 24일	성균관 答通 도착.
	3월 25일	泮主人 守石의 집에 疏廳 설치.
	3월 28일	疏를 씀.
	4월 01일	승정원에 상소를 入啓하려 했으나 허락하지 않음.
	4월 11일	상소 捧入.
1778년 (정조 2)	上丁日	滄洲精舍의 예에 따라 지방을 설치해 제향. 제기와 제수는 안동부사 김상목이 마련.

기년	날짜	내 용
1779년 (정조 3)	7월 25일	進士 申翕이 驪江에서 8월 3일 陵幸 전 소를 마련해 올라오라는 편지 보냄.
	7월 26일	進士 申光翕이 素山(안동 풍산 소산)을 방문, 持平 金養根(1734~1799)과 향교에서 疏行 출발 논의. 進士 安明述, 碩士 安明鐸, 安寬, 李詔, 安騫 등이 모임. 安明述, 申光翕, 金正根, 姜遂煥을 疏儒로 정함. 예산—동전 20궤미.
	8월 01일	출발
	8월 05일	여주 도착. 대가는 淸心樓(여주 객관 북쪽 누각) 도착.
	8월 07일	행재소에서 伏閣하는 것보다 도성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서울로 향함.
	8월 09일	金正根, 進士 金履翼, 申翕, 申光翕 泮村에 모임.
	8월 10일	성균관에 통문 발송.
	8월 12일	疏首 申翕, 製疏 金正根, 疏色 申光翕. 성균관에서 回通 도착.
	8월 13일	疏를 씀.
	8월 15일	金履翼이 승정원에 捧入하고 入啓.
	8월 20일	다시 상소를 올리는 일 의논. 疏首 金正根, 製疏 申翕, 疏色 申光翕.
	8월 25일	상소를 들이려 했으나 國忌라 승정원에 들이지 않음.
	8월 27일	상소를 입계.
	9월 04일	파하고 돌아옴. 注書 李益洙가 거주하는 곳에 들러 道疏하는 일을 상의.
1786년 (정조 10)	1월 03일	進士 金正根이 進士 申光翕의 집에 가 벗들과 扁額을 청하는 일을 상의. 1779년(정조 3) 세 번째 소를 올린 후 도내에서 道疏를 올리자고 논의. 10월 상주 홍암서원에서 尙州 進士 金燧, 斯文 成煥儒, 進士 金濟默, 咸昌 斯文 申儼, 善山 斯文 沈翼之, 斯文 郭守伋 등 50인이 모임. 疏首 申儼, 都廳 김직, 疏色 沈翼之, 金濟默, 製疏 金正根, 寫疏 申光集으로 구성하여 상소하려 하였으나 사고로 연기. 1786년 別科가 설행될 때 상주 선산 성주 등 여러 고을 士友에게 통고하여 도성에서 일을 의논하기로 함. 前都廳 김직이 1779년(정조 3)에 거둔 疏錢 30냥을 보냄. 申光集, 金正根, 李詔은 科行을 겸해 참여.
	2월 02일	泮村 도착.
	2월 03일	東泮 李德曾의 집에서 嶺南文會를 정함. 회원은 進士 鄭東翼, 進士 申光集, 進士 金正根, 進士 李敏哲, 碩士 姜樸, 碩士 李詔, 碩士 李宅彬, 進士 金益顯, 碩士 沈能泰, 進士 洪居聖, 碩士 姜樂, 碩士 姜周煥, 碩士 姜遂煥, 碩士 姜始煥, 碩士 姜棟이고, 疏任을 추천하였는데 疏首는 金濟默, 製疏는 李宅彬, 疏色은 申光集, 姜始煥이며, 管行은 金正根, 寫疏는 沈能泰, 掌議는 李詔과 洪居聖.
	2월 04일	疏首의 辭單 도착.

기년	날짜	내 용
	2월 05일	金正根, 申光集, 李詡이 소수의 客館으로 나아가 돈독히 청하고 사단을 돌려줌.
	2월 07일	梁守僑의 집에 소청을 설치. 校理 金履翼이 와서 봄. 判書 金履素가 사람을 시켜 문안, 疏紙와 筆墨을 보내음. 성균관에서 笞通 도착. 申光集, 金正根, 李詡이 疏草의 계획 상의.
	2월 09일	金正根이 미호에서 金元行에게 疏草를 質正, 자손이라는 혐의로 사양했지만 글자를 교정.
	2월 11·12일	소를 베껴 적었다.
	2월 13일	金濟默, 金正根, 申光集, 李詡, 姜樸, 金益顯, 李宅彬, 沈能泰, 洪居聖, 姜遂煥이 소를 받들고 나아가 돈화문 밖에서 부복하고 승정원의 대강의 개요를 들어보냄. 승정원이 국기재일이라는 핑계로 받지 않음. 判書 金履素가 병풍과 地衣[뚝자리를 依幕에 보내음.
	2월 14·15·16일	모두 국기 때문에 伏閣하지 않음.
	2월 17일	승정원에서 서원사액청원 儒疏를 금했다는 이유로 들이지 않음. 該房은 승지 李敬一.
	2월 18일	伏閣하였으나 捧入하지 않음.
	2월 19일	瑞慈臺에서 殿坐하여 伏閣하지 않음.
	2월 20일	오후 승정원에서 관리를 보내 呈疏하라 함. 疏首가 奉入하니 該房에서 毓祥宮의 齋日이니 다음날 捧入하겠다고 약속.
	2월 21일	入啓.
	2월 22일	祠號를 西礪으로 하사. 편액을 하사할 때 近侍를 보내 치제 하라 함.
	2월 23일	疏儒가 각각 泮瑑성균관으로 돌아감.
	2월 24일	縉紳과 章甫[儒生]를 有司로 망정하고 편지를 발송. 疏儒들이 돌아감.
	3월 01일	享禮 入齋日. 안동에 서간사 사액 소식이 알려짐.
	3월 02일	申光翕, 金源淳이 소식을 듣고 來到. 金正根, 李詡 來到.
	3월 03일	罷齋 후 각처의 儕友에게 발문, 6일 향교에서 사당 건립하는 일 상의하기로 함. 首席 持平 金養根이 上京해 呈單. 都有司는 進士 申晳로 하고 齋任 金正行으로 함. 舊齋席 李詡은 간사로 유임.

기년	날짜	내 용
	3월 06일	향교에서 임원 선출. 각 문중에서 찬조 요청. 收合有司는 申暎 李商球, 金善根, 安弘, 姜葉. 都聽은 金齊行, 安弘. 수합한 것이 백여궤미. 九潭 20궤미, 素山 30궤미, 輞川 10궤미, 佳邱 10궤미, 法田 20궤미, 春陽 洪氏門中 3궤미, 梅川 李氏門中 2궤미, 五樂 金氏門中 3궤미 보냄. 梧臺 孫氏門中, 鹿洞 權氏門中, 巨里 任氏門中, 浦底 柳氏門中, 佳邱 李氏門中, 安望谷 南氏門中 약간의 궤미. 택일함. 4월 21일 奉安, 4월 22일 延祭·延額. 法田에서 편지가 왔는데 다소 말이 있어 僉議[여러 사람의 의논]이 끝내 모순됨.
	3월 12일	首席 申咥 향교의 논의가 모호하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의 비답이 이미 내렸으니 사당을 세우는 한 가지 일만큼은 西礪에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급히 法田으로 보냈다.
	3월 19일	首席과 地師가 서간에 도착해 사당의 터를 잡음. 각처에 편지를 보내 통보.
	3월 24일	成造都監은 生員 安明述, 幼學 金源淳, 進士 申光翕, 幼學 姜櫟, 成最烈, 沈翼之. 監役有司는 進士 金正根, 求材有司는 幼學 金周鐸, 李商雨. 日記有司, 幼學 安珪, 金善根, 生員 洪居聖.
	3월 28일	開基
	4월 08일	立柱
	5월 03일	上樑
	5월 18일	文孝世子 서거.
	5월 28일	金善根의 편지에 문효세자의 서거로 국가제사가 정지되어 延額을 정해진 날 할 수 없어 가을에 다시 정해야 한다 함.
	6월 01일	金善根이 서울에서 여강에 들러 持憲 閔彝顯을 만나 奉安文 및 常享 祝文을 받아 옴. 賜祭文은 판서 김이소에게 부탁.
	8월 07일	奉安과 延祭日을 고쳐 택일. 봉안일은 8월 12일 오시. 연제일은 9월 17일 오시. 관에 통보.
	8월 12일	奉安에 필요한 祭物을 유사가 관청에서 받아옴. 執禮는 金濟默, 寫位板은 成最烈, 奉位板은 安棗, 奉楨은 金濟仁, 奉幣는 金度均, 洪述堯, 奠幣은 呂彥坤, 張八壽, 李邦玉, 大祝은 沈能泰.
	9월 16일	致祭禮官이 額板 없이 옴. 안동부에서 다음날 衙客 柳說이 쓴 액판이 도착.
	9월 17일	致祭. 禮官은 承旨 李頤祥.

기년	날짜	내 용
		祭官은 本府使 柳義養, 義城縣令 金鑿, 比安縣監 南旻耆, 龍宮縣監 韓弘裕, 安奇察訪 張宅祚, 昌樂察訪 崔雲翰, 幽谷察訪 李錫祺, 本孫 金履鎬가 聞慶縣監으로 와서 참석.
	10월 16일	禮安縣監 徐有器가 檢부사의 자격으로 편액판을 받들고 와 게시. 앞서 온 예관은 액판을 잇고 누락했다는 이유로 파직. 안동부사가 휴가를 받아 상경해 檢부사가 대행.

中文摘要

安东西礪祠的建立过程与其意义

金 忠 铉*

位于庆尚北道安山市丰山邑的西礪祠是祭祀清阴金尚宪(1570~1652)的祠宇. 对于金尚宪来说, 安东不仅是他的贯乡, 也是其经济基础得以确立的地方. 金尚宪的先代在首尔建立了根据地, 在中央活动的同时, 与安东保持联系, 这种家风也遗传给了金尚宪及其后代. 金尚宪除了使用“清阴”作为号外, 还借用他生活过的地名, 使用了“石室山人”·“西礪老人”等号. 其中“西礪老人”是他晚年在安东生活时使用的.

金尚宪曾两次在安东隐居. 1618年, 宣祖的继妃仁穆王后被幽闭于西宫[德寿宫], 当时围绕废妃问题展开议论, 金尚宪因此迁居安东. 1637年, 由于丙子胡乱(1636)的余波, 朝鲜向清投降, 主战论者金尚宪从南汉山城出来, 直接前往安东. 因此, 安东是金尚宪在经历政治浮沉时隐居的地方, 至今仍留有西礪祠·木石居等相关遗迹.

安东是岭南南人的主要根据地. 在西人系掌握政权后, 西人尝试进入岭南各地, 并取得了一定成果. 岭南的南人结集于退溪学派, 通过与近畿南人的结盟来应对老论的影响力扩张. 然而, 由于仕途受阻·老论的怀柔与包摄·戊申乱的影响等多种原因, 许多人及家族在英祖时期前后从南人转向老论. 岭南各地建立祭祀西人系人士的书院的事实反证了这一点. 然而, 被称为南人本山的安东地区, 南人的抵抗比其他地区更为激烈. 在此期间, 为了向安东扩张势力, 老论召唤了金尚宪.

西人-老论掌握政权后, 岭南南人难以进入中央. 岭南南人探索了多种保持士族地位的方法. 其中之一是通过书院掌握乡论. 岭南的士族和有力家门确保祭祀先祖中以学德闻名或在中央有活动履历的人物的祠宇或书院, 并通过这些祠宇或书院主导乡论. 如果难以单独设立祭享祠宇或书院, 则通过学脉配享于现有书院. 这种岭南地区的倾向也被西

* 韩国国学振兴院 傳任研究員

人-老论用作扩大其在岭南地区影响力的方法。安东地区的西人-老论系土族需要一个能让安东地区士林接受的人物,以建立他们可以活动的书院。李滉曾提出应在有书院配享人物遗迹或缘故的地方建立书院。在安东的西人-老论系土族看来,金尚宪正是符合这些要求的人物。

1738年(英祖14年),几乎建成祭祀金尚宪的鹤东书院,但被安东儒生动用武力强行破坏。此后,主导鹤东书院建立的安东西人-老论系土族持续努力,试图建立祭祀金尚宪的书院。他们通过建立西礪书堂,确保讲学空间,努力收敛地区社会舆论。这也是参考当时现有书院从书堂或精舍起步升格为书院的事例的结果。在此过程中,通过与在中央活动的安东金氏壮洞派的联系,以及中央派遣的老论出身地方官的支持,成功获得了西礪祠的赐额。西礪祠未能获得书院的名义,但考虑到当时书院的讲学功能已弱化,与祠宇的区分变得模糊,这一意义仍然重大。正祖虽未允许西礪书堂升格为书院,却给予了祠堂的名称。然而,这仅是安抚岭南土族的修辞而已。安东西礪祠的建立和赐额是老论在岭南核心地区渗透成功的象征性事件。

关键词 : 金尚宪, 西礪祠, 鹤东书院, 书院, 祠宇, 安东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근세말 일본의 난학 수용 양상과 특징

—난학숙(蘭學塾)의 교육문화를 중심으로—

박 소 영*

- I. 머리말
- II. 난학의 성립과 발전
- III. 난학숙에서의 지식 형성 과정과 지적 교유의 운용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근세 말 일본에서 난학(蘭學)이라는 학문이 도입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난학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던 난학숙의 교육문화적 특징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난학자 중심의 난학 연구·교육 인프라 형성 과정과 막부가 주도했던 '공학(公學)'으로서 난학 연구와 교육이 체계화되어 갔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시바타 슈조(柴田収蔵)의 『시바타 슈조 일기(柴田収蔵日記)』, 가나타케 료테츠(金武良哲)의 수업(修業)일기,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자서전 『복옹자전(福翁自伝)』을 중심으로 난학숙에서 이루어졌던 지식 형성 과정과 지적 교유 운용에 관한 실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네덜란드어를 통해 얻은 서양 학문을 의미하는 난학은 소수의 의사 그룹에 의해 시작된 『해체신서(解体新書)』(1774)의 번역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연구로 전개되었으며, 이들 초기 난학자 세대에서부터 시작된 난학 교육도 세대를 거듭하며 그 토대를 다져나갔다. 난학자들의 연구와 교육은 그들의 이름을 건 난학숙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난학숙은 계보를 형성하며 자숙(子塾), 손숙(孫塾)으로 발전했다. 막부와 번에서도 난학을 국가에 쓰임이 되는 실용 학문으로 공인하였고 난학자들을 기용하여 관 주도의 난학 연구 및 교육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난학은 출세를 위한 학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난학숙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난학숙은 일본 학술사적 흐름에서 새로운 조류로서 등장한 난학을 연구·교육하는 장으로서 학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력주의와 엄격함을 고수하는 것이 전반적인 원칙으로 통용되고 전통으로서 계승되었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각 난학숙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스승 세대 간의 광범위한 지적 네트워크는 문하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난학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식을 심화시키고 향후 진로를 준비하고 탐색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난학숙의 교육문화적 특징은 일본의 사숙(私塾)이라는 전통적 교육문화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난학이라는 학문적 특징으로 인해 지식의 형성 과정과 지적 네트워크 운용의 다채로움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어 : 난학, 난학숙, 수업일기, 쇼센도(象先堂), 데키주쿠(適塾), 번서조소(蕃書調所)

I. 머리말

일본 학술사적 흐름에서 18세기 새로운 조류로서 등장하게 된 난학¹⁾은 일본의 근대 학문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에서 난학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서양 학문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과는 상이한 독자적인 특징을 보이며, 근대 일본의 서양 학문 연구·교육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소수의 의사가 중심이 된 연구자 그룹이 『해체신서』(1774)라는 네덜란드

1) 난학이란 네덜란드 학문, 또는 네덜란드어를 통해 얻은 서양 학문을 의미한다. 에도(江戸) 시대에 네덜란드어, 서양의 의학·본초학, 천문학·지리학, 병학, 인문 과학 계통의 내용으로 도입된 학문·기술·사상에 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片桐一男, 「蘭学者の地域的・階層的研究－門人録の分析を繞って」, 『法政史学』 13, 法政大学史学会, 1960, 59~60쪽).

해부학 서적을 번역한 것을 계기로 난학 연구의 문은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열리게 되었지만, 점차 기초 과학, 인문학으로 분야가 확대되었고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 말기, 매튜 페리(Matthew C. Perry)의 일본 내항(來航)으로 인해 대외적 위기감이 고조되자 막부가 주도하는 병학, 군사과학으로 학문과 교육의 중심축이 옮겨갔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에서 생명을 끊는 기술’²⁾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의 8대 쇼군(將軍) 요시무네(吉宗, 1716~1745 재임)가 난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려 정책을 펼친 것을 난학 연구의 전사(前史)로 보지만, 본격적으로 난학의 씨를 뿌리고 그것의 성장 기반을 다졌던 1세대 난학자—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 1723~1803) 등—와 이들 제자 난학자 세대를 거둬하며 형성된 난학 연구와 교육에 관한 학술 문하는 이후 일본의 양학(洋學)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초기 난학자들의 연구와 교육은 그들의 이름을 건 난학숙이라는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에도(江戸), 오사카(大阪), 나가사키(長崎)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 난학숙이 개설되었고, 그 곳에서 이루어진 학문 연구와 교육, 사제·교우 관계의 형성은 일본 각지로 퍼져나가 난학숙의 번창을 이루었다. 그리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난학숙은 계보를 형성하며 지숙(子塾), 손숙(孫塾)으로 발전했다. 난학숙 중심의 난학 연구는 막부 말기를 향해가게 되면 관—막부, 번(藩)—이 주도하는 형태로 확대·체계화되고 학문의 성격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학문을 포함한 양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학 연구 성과와 교육 체계의 기반은 명치(明治)유신을 거쳐 근대의 고등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되기에 이른다.

난학숙의 문을 두드렸던 문하생도 초기에는 서양의 의학지식과 의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든 의사 계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서민, 하급 무사 등 신분과 무관하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계층이 학문을 연마하고 각자의 특색에

2) 荒川 紘, 「洋学教育の歴史的意義」, 『人文論集』 54, 静岡大学人文学部, 2004, 15쪽.

맞는 진로를 선택했다. 각 번에서는 서양 병학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사(藩士)를 유학시키기도 했다. 막부와 번에서 본격적으로 난학을 수용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난학숙에서 배출한 학자가 채용되어 난학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난학숙은 난학의 요람으로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뿐만 아니라 난학 외연의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숙(私塾)으로서의 난학숙은 저마다 스승의 교육 철학, 학풍, 문하생의 주요 구성 등에 따라 독자적 전통을 형성해 갔으며, 난학숙이 사제 간 계보를 이으며 확산되어 갔던 양상을 고려하면 공통적으로 계승되고 유지되는 교육문화적 요소들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되는 부분이다.

난학숙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수업(修業)의 실상에 관해서는 문하생들이 남긴 일기와 회상록 등을 통해 고찰이 가능하지만, 그들의 지식 형성과정과 수련 생활의 모습, 교우·사제 관계, 진로와의 연계, 난학숙의 생활사적 부분까지를 포괄하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근세 말기 일본의 난학 수용 양상과 난학숙에 관한 연구는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문하생들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난학숙의 교육문화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니시도메 이즈미(西留 いずみ)는 1839~1841년 기간 동안 쇼센도(象先堂)라는 난학숙에서 수학한 가나타케 료테츠(金武良哲, 이하 ‘가나타케’) 일기를 고찰하였고, 요시다 다다시(吉田 忠)는 시바타 슈조(柴田収蔵, 이하 ‘시바타’)의 일기를 통해 1850년 쇼센도에서의 난학 수련 과정을 분석하였다.³⁾ 이들 연구는 일기를 남긴 인물이 난학숙에 입문한 후 난학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주요하게 고찰한 것으로 난학숙이라는 교육기관의 교육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3) 西留 いずみ, 「天保期における伊東玄朴塾「象先堂」の蘭学修業・佐賀藩蘭学者金武良哲「江戸日記」の分析」, 『国史学』 222, 国史学会, 2017; 吉田 忠, 「柴田収蔵の蘭学修業: 『柴田収蔵日記』に見る伊東玄朴塾」, 『佐賀大学地域学歴史文化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 12, 佐賀大学地域学歴史文化研究センター, 2017.

이 글에서는 근세기 일본의 사실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숙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난학이라는 서양학문을 학습하기 위해 새롭게 형성되었던 난학숙의 교육문화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2장에서는 근세 말 일본에서 난학이라는 학문이 도입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에서 난학자들 기록물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난학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던 난학숙의 교육문화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Ⅱ. 난학의 성립과 발전

1. 난학의 수용과 연구·교육 인프라 형성

난학은 ‘남만학(南蠻學)’에 의해 선도되었다. 1543년 포르투갈 선박의 일본 다네가시마(種子島) 표착, 1549년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Xavier)의 그리스도교 포교를 계기로 서양과 일본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포르투갈에서 유입된 ‘철포’의 군사적 유용성과 ‘총상 치료’라는 서양 의학의 실용성이 인정되어 포르투갈과 스페인 학문을 의미하는 남만학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쇄국령이 선포되었던 1639년까지 약 80년간 지속되었다.⁴⁾ 난학은 이 남만학의 뒤를 이은 것으로 네덜란드(阿蘭陀, 和蘭)의 서적을 통해 전달된 학문을 지칭한다.

난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학문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도쿠가와 8대 쇼군 요시무네가 실시한 실학 장려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 서양 문물과 서양학에 관심이 많았던 요시무네는 어의(御醫) 노로 겐조(野呂元丈)에

4) 이원순, 「朝鮮 ‘西學’과 日本 ‘蘭學’－對西洋 學問的 對應의 比較的 接近－」, 『일본학보』 10, 한국일본학회, 1982, 7쪽.

게 서양의 본초서를 조사하게 하고, 유자(儒者) 아오키 곤요(青木昆陽)에게는 네덜란드어 학습을 명하였다. 막부의 학자들에 의해 네덜란드 학술의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몇 년의 시간을 들여 겨우 약간의 네덜란드어 단어와 25자의 알파벳을 익히는 정도로 기초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의 막부는 난학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⁵⁾

본격적인 난학 연구는 아오키 곤요에게서 네덜란드어의 일단을 배운 마에노 료타쿠, 오바마번(小浜藩) 의사 스기타 겐파쿠 등 의사 중심 연구 그룹에 의한 『해체신서』⁶⁾의 번역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난학자는 에도를 거점으로 매우 희귀했던 네덜란드 서적의 필사본에 의존한 연구와 에도 참부(参府)⁷⁾를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 에도에 들렀던 네덜란드인 방문단의 수행을 맡은 통사들에게 질문하는 기회를 겨우 얻는 방법으로 난학을 연구해야 하는 한계를 감수해야 했다.

난학 교육은 스기타 겐파쿠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해체신서』 완성 후 의업에 종사하면서 난학숙을 세워 후학을 지도했다. 그의 첫 번째 제자가 오쓰키 겐타쿠(大槻玄沢)⁸⁾이며, 마에노 료타쿠⁹⁾로부터는 네덜란드어를 배웠다.

5) 荒川 紘, 앞의 논문, 2004, 2쪽 ; 片桐一男, 앞의 논문, 1960, 61쪽.

6) 『해체신서』는 독일인 의사 요한 아담 쿨무스(Johann Adam Kulmus)가 저술한 의학서 『Anatomische Tabellen (解剖圖譜)』를 네덜란드인 의사 게라두스 디켄(Gerardus Dicken)이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Ontleedkundige Tafelan』을 일본어로 중역한 것이다(清水 稔, 「外来文化の受容の歴史から見た日本の外国語学習と教育について」, 『佛教大学文学部論集』 94, 佛教大学文学部, 2010, 3쪽).

7) 나가사키 데지마(出島) 주재 네덜란드 상관장 일행이 에도의 쇼군(將軍)을 알현하여 통상의 예를 표하고 현상물을 바치는 행사로 1609년부터 1850년까지 11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8) 오쓰키 겐타쿠(大槻玄沢)의 이름은 그의 스승인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의 '겐(玄)'과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의 '타쿠(沢)'를 채용해서 새롭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종찬, 『난학의 세계사』, 알마 출판사, 2014, 78쪽).

9) 마에노 료타쿠는 아오키 곤요의 제자로 들어가 약간의 네덜란드어를 배운 후, 100일간 나가사키에 체류하면서 네덜란드어를 배웠다. 그는 의사 관직이 없는

오쓰키 겐타쿠는 이후 나가사키에 유학하여 통사들에게서 네덜란드어를 익힌 후 에도로 돌아와 시란도(芝蘭堂)라는 난학숙을 열었다(1786년). 시란도는 최초의 본격적인 난학숙으로 후학에게 네덜란드 의학서를 통한 의학 지식과 자신의 임상적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였다. 또한 그는 네덜란드어 입문서인 『난학계제(蘭學階梯)』(1788)를 저술하여 자신의 학문 내용을 공개하고 난학 입문에 활용되도록 했다.¹⁰⁾

시란도에서는 다음 세대의 난학 발전을 이끌어갈 학자가 다수 배출되었다. 그 중에서 우타가와 겐신(宇田川玄真)은 후운도(風雲堂)를 개설하여 쓰보이 신도(坪井真道)와 미쓰쿠리 겐포(箕作阮甫)와 같은 걸출한 학자들을 양성했다. 쓰보이 신도는 에도에 안카이도(安懷堂, 1829)¹¹⁾를 열고 원서를 철저히 강독하도록 하는 엄격한 학습과 교육의 전통을 형성했다.¹²⁾ 이러한 교육 방식은 그 곳을 거쳐 간 문학생들이 설립한 난학숙에도 계승되었다. 미쓰쿠리 겐포는 네덜란드어 습득을 위한 교재를 비롯하여 의학·역사·병학 등 160여 편에 이르는 저·역서를 편찬하여¹³⁾ 난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 세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난학 교육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란도에서 유학한 하시모토 소키치(橋本宗吉)는 고향 오사가

사람이 난학을 배우기 위해 나가사키에 간 최초의 사례로 『해체신서』 번역 그룹 중에서 네덜란드어에 가장 통달했다(이종찬, 앞의 책, 2014, 38쪽, 46쪽, 66쪽).

10) 片桐芳雄·木村 元 編著, 『教育から見る日本の社会と歴史』, 八千代出版, 2008, 60쪽.

11) 안카이도는 1832년 니치슈도(日習堂)로 개편되었다.

12) 松田 清, 「坪井家旧蔵本の洋学資料」, 『静修』 31-2, 京都大学附属図書館, 1994, 2쪽.

13) 미쓰쿠리 겐포의 대표적인 저역서로는 네덜란드어 습득을 위한 문법편 교재 『和蘭文典 前編』(1842), 문장편 교재 『和蘭文典 後編 成句編』(1848), 蘭日事典 『改正 蛮語箋』(1848), 세계역사서 『八紘通誌』(1851), 세계지리서 『地球說略』(1860) 등이 있다(下山純正, 「諸學問の源泉 津山の蘭学—宇田川家三代と箕作家一族を中心に—」, 『薬史学雑誌』 51(1), 日本薬史学会, 2024, 76쪽). 그 중에서 네덜란드어 습득을 위한 문법편과 문장편 교재는 대부분의 난학숙에서 네덜란드어 교재로 사용되었다.

로 돌아와 시간도(絲漢堂)를 개설했다. 그는 교육과 의업을 겸하면서 천문학과 지리에 관한 저서·번역서를 남겼으며 특히 전기학의 업적으로 특기되는 인물이다.¹⁴⁾ 그의 제자 나가 덴유(中天遊)는 과학과 자연철학 연구에 몰두하면서 시시사이주쿠(思々齋塾)를 열어 일본 난학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는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을 길러냈다.

오가타 고안은 스승 나가 덴유의 권유로 에도로 건너가 쓰보이 신도의 안카이도에 입문하여 서양 의학의 최신 임상 기술을 배웠다. 또한 나가사키에서 2년간 수련하며 네덜란드인 의사와도 폭넓게 교류하는 등 오사카, 에도, 나가사키의 난학자들과의 교유 관계도 확장해 나갔다.¹⁵⁾ 이후 오사카로 돌아와 데키주쿠(適塾)¹⁶⁾를 개설하여(1838년) 후학 양성에 힘을 쏟게 된다.

한편,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 상관을 겸한 독일인 의사 시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가 나루타키주쿠(鳴瀆塾)를 열었는데(1823년) 서양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난학숙으로 의학을 전문으로 했다. 그 곳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난학자가 성장했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이토 겐보쿠(伊東玄朴)이다. 그가 에도로 돌아와 세운 쇼센도(象先堂, 1833년)에서는 수많은 후학이 배출되었다.

데키주쿠와 쇼센도는 각각 오사카와 에도지역에서 난학 교육의 일대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본격적 최초의 난학숙 ‘시란도’의 문하생들이 저명한 난학자로 성장하여 각자의 난학숙을 개설하고, 그들이 길러낸 제자들이 또 다

14) 荒川 紘, 앞의 논문, 2004, 11쪽.

15) 沖田行司, 『藩校・私塾の思想と教育』, 日本武道館, 2011, 300-301쪽.

16) 데키주쿠(適塾)는 오가타 고안의 호 ‘適々齋’에서 유래한다. 適々齋는 莊子の大宗師篇의 “伯夷·叔齊のような人たちは・人の役みを役みとし・人の適しみを適しみとして・自らその適しとせざる者である(伯夷·叔齊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스로 즐거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문장에서 유래했으며, “自分の心に適しむとすところを適しむ。(자기 마음이 즐거운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즉 ‘자신의 뜻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梅溪 昇, 『緒方洪庵と適塾』, 大阪大学出版会, 1996, 27쪽).

『해체신서』 번역 이후, 에도에서 본격적인 네덜란드 서적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전 편찬을 위한 도전도 시작되었다. 드디어 1796년 최초의 난일 사전인 『하루마와게(波留麻和解)』가 탄생했는데 시란도 출신 이나무라 산파쿠(稲村三泊), 우타가와 겐즈이(宇田川玄隨) 등이 사전 편찬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1810년에는 이나무라 산파쿠의 제자 후지바야시 후잔(藤林普山)이 『하루마와게』의 콘사이즈판 『역전(訳鍵)』을 발간하였다. 나가사키에서도 상관장 헨드릭 드프(Hendrik Doeff)와 네덜란드 통사가 중심이 되어 『드프 하루마(ドーフハルマ)』를 1833년에 완성하였다.¹⁹⁾ 이와 같은 난일 사전의 편찬을 계기로 난학 연구는 열기를 더해갔다.

난학숙은 세대를 거듭하며 학술적·교육적 계보를 이어나갔고 난학 연구와 교육의 전통과 체계성을 갖추나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길러진 난학자를 중심으로 난일 사전과 난학 전문 서적의 생산, 학문 분야의 확대와 심화, 지적 네트워크를 통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이와 같은 난학 연구와 교육 인프라 형성 과정은 일본에서 이루어진 독자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난학이 실용 학문으로서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막부와 위정자들도 이러한 측면을 인정하여 난학 연구의 중도적 장려 정책을 펼치며 연구에 중요한 난학서의 수집을 지원했던 것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경우와 달리, 일본은 서양의 종교와 학문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른바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연구와 교육의 이념으로써 확고히 할 수 있었다.²⁰⁾ 동시에 에도시대 사회 곳곳에 설립되어 있었던 사적 교육기관-한학숙(漢學塾), 국학숙(國學塾), 서민

19) 『하루마와게(波留麻和解)』(1797년)는 네덜란드에서 간행된 『하루마 난불사전 제2판』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에도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에도 하루마’라고도 불린다. 『드프 하루마(ドーフハルマ)』(1833년)도 동일한 『하루마 난불사전』을 저본으로 하지만 어휘의 설명이 상세하고 예문도 풍부하게 실고 있다. 나가사키에서 편찬되었다는 것으로 ‘나가사키 하루마’라고도 칭해진다. 1858년에는 동사전의 번각본 『和蘭字彙』가 출판되었다(櫻井 豪人, 앞의 논문, 2023, 24~25쪽).

20) 한국과 일본의 서양 학문 수용에 관한 상세한 비교 고찰은 ‘이원순, 앞의 논문, 1982’을 참고할 것.

교육 시설인 데나라이주쿠(手習い塾) 등의 전통도 난학숙 설립과 확산의 중요한 저변 환경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통치 집단의 난학 장려 정책과 근세 일본의 전통적 교육문화가 맞물려 전개된 난학의 수용은 난학자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발전과 후학 양성으로 이어졌다.

2. 막부 주도의 난학 연구와 교육

지금까지 난학의 수용과 난학 연구 및 교육 인프라 형성과정에 관해 난학자들의 학문적 기여와 후학 양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도쿠가와 막부의 난학에 대한 인식과 장려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막부 초기에는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통사들에게조차 네덜란드 문자의 사용을 금지했다.²¹⁾ 그러나 1720년대 8대 쇼군 요시무네 시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농업생산량 증대와 상품경제 발전을 위한 식산흥업정책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학술과 중국의 실용적 과학·기술 도입을 장려하였고 나가사키를 통해 수입되는 서적을 규제했던 금서령을 완화하였다. 서양 문물의 실용성을 인정하고 서양 학문과 언어 학습을 허가·장려한 정책인 것이다.²²⁾

또한 막부는 난학에 대해서 장려와 통제라는 양면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로주(老中)²³⁾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1759~1829)는 막부에서 자체적으로 서양 서적을 수집하도록 권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난학을 통제하여 오직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우하인언(宇下人言)』에서 “아만국 사람들은 이(理)에 능하고, 천문지리, 병학, 내과·

21) 막부 초기에는 외국 문자 습득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덜란드어 통사들도 네덜란드어 문자를 알지 못한 채 통사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로써 통역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이종찬, 앞의 책, 2014, 37쪽).

22) 이진상, 『난학계제(蘭學階梯)』를 통해 본 네덜란드어 학습과 번역, 『일본연구』 42,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124쪽.

23) 로주(老中)는 막부 쇼군의 직속으로 국가 정사를 통솔하는 직책이다.

외과의 치료에 관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서양의 서적은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유해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다.”²⁴⁾고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난학에 대한 막부의 양면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막부는 체제 비판 성향의 난학자에 대해서는 항상 엄중한 감시 하에 두었다.

한편, 막부는 북방의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인식하게 되면서 1811년 천문방(天文方) 내에 ‘만서화해어용(蠻書和解御用)’²⁵⁾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외국어 번역과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나가사키의 통사뿐만 아니라 오쓰키 겐타쿠, 미쓰쿠리 겐포 등 다수의 난학자들을 초빙하였다. 난학이 국가의 용무를 돕는 실용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이다.²⁶⁾

1853년에는 미국의 매튜 페리가 일본에 내항하여 개국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막부는 일거에 다량의 외교 문서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막부는 ‘만서화해어용’의 인재를 증강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처했으며 이 일을 계기로 서양 서적의 번역 및 연구, 양학자(洋學者)의 양성을 위한 새로운 기관으로서 1856년 ‘번서조소(蕃書調所)’를 설립하였다. ‘서양 열강을 아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각국의 강약(強弱)·허실(虛實), 수륙군의 규모·양상, 기계(器械)의 이둔(利鈍), 실용 방법을 연구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이를 위한 서적들을 번역·연구하여 용도에 따라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요한 임무로 삼았다.²⁷⁾ 대외

24) 荒川 紘, 앞의 논문, 2004, 14쪽.

25) 천문방(天文方)은 막부에서 역법의 연구, 편력(編曆), 개력(改曆) 작업을 위해 부여한 직책이며 이들이 근무했던 장소는 아사쿠사(浅草)에 위치한 천문대이다. 천문방에게는 서양 역학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네덜란드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으며,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해외의 사정과 지리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번역 작업도 진행하였다(東京外国語大学文書館 編, 「前史'蠻書和解御用'から東京外国語学校へ」, 『東京外国語大学150年のあゆみ』, 東京外国語大学出版会, 2023, 4쪽).

26) 김연옥, 「1850년대 나가사키의 ‘난학(蘭學) 붐’ 실태-1855~56년 데지마 전습(出島傳習) 참가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37, 역사학회, 2018, 120쪽.

27) 茂住 實男, 「蕃書調所における英語教育」, 『英学史研究』 16, 日本英学史学会, 1983,

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양의 실용 과학과 군사학 수용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번서조소는 기존의 만서화해어용을 독립시켜 확대시킨 기관으로 난학뿐만 아니라 서양 학문의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번서조소 안에 ‘난학계고소(蘭学稽古所)’를 설치하여 막신(幕臣)·배신(陪臣)과 그들의 자제에게 난학을 가르쳤다. 막신과 그 자제들 중에서 우수자를 선별하여 전문적으로 통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외국 사절과 교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했다. 통역은 막부의 기밀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막신 신분에게만 한정했다.²⁸⁾

번서조소의 대표(頭取)에는 막부의 유관 고가 긴이치로(古賀謹一郎)가 취임했으며, 교수로는 미쓰쿠리 겐포, 스기타 세이케이(杉田成卿)가 선임되었다. 이들은 번의 전담 의사이자 난학자로 신분 상으로는 배신 계급인 게라이(家来)²⁹⁾에 속해 있었다. 미쓰쿠리 겐포는 임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의약, 군사, 지리, 역사에 관한 네덜란드 서적의 번역과 저술에 전념했으며, 스기타 세이케이는 난학의 창시자 스기타 겐파쿠의 손자로 의서의 번역에 힘썼던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만서화해어용에서 번역을 담당했으며 네덜란드어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번서조소의 교수로 발탁된 것이다.³⁰⁾ 이들은 난학숙에서 길러진 인물들로서 철저한 실력주의가 그 기반이 되었다. 번서조소에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게 될 난학숙에서 계승·정착되었던 네덜란드어 교육 방법을 채용하였다. 난학숙에서의 교육 방법론이 관 주도의 교육 기관에도 도입된 셈이다.

번서조소의 역할은 서양 열강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실용적 학문의

103쪽.

28) 東京外国語大学文書館 編, 앞의 책, 2023, 8쪽.

29) 게라이(家来)는 영주나 주인을 섬기를 가신(家臣)이다.

30) 荒川 紘, 앞의 논문, 2004, 4쪽; 東京外国語大学文書館 編, 앞의 책, 2023, 17~19쪽.

번역·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난학의 중심 분야는 의학·천문학·본초학 등의 이른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에서 병학 중심의 군사과학으로 중심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군사과학의 기초과목인 수학, 물리, 화학이 중시되면서 난학의 학문적 성격도 변모되었다. 번서조소는 설립 당시 난학을 중심으로 한 어학 습득과 훈련에 중심을 두고 있었지만, 점차 학문·교육 분야의 영역을 확장해갔다. 고가 긴이치로는 1860년 ‘서적의 관독(觀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언어학, 정련학(精鍊學), 화학(化學)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주창하였고 실제로도 관련 분야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³¹⁾

이후 난학을 포함한 서양학 각 분야가 발전하게 되고, 막부의 군제 개혁에 의해 서양식 군사지식과 기술의 전습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어학과 수학, 병학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서양학을 배우려는 학생 수가 급증하였다. 막부는 1863년 번서조소를 ‘개성소(開成所)’로 개칭하고 조직의 개편, 교관의 편성 등을 통해 기구를 새롭게 정비하였다.³²⁾ 개성소는 명치유신 이후, 신정부에 의해 접수되어 도쿄대학의 법학부, 이학부, 문학부로 계승되었다.

각 번(藩)에서의 난학 수용과 연구는 막부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특히 난학의 발신지 나가사키와 근접하거나 지리적으로 해방(海防)을 중시했던 번-사가번(佐賀藩), 조슈번(長州藩), 미토번(水戸藩), 후쿠이번(福井藩) 등-에서는 번교의 유학 중심의 교육과정에 난학을 편성하고, 난학자를 영입하거나 교관으로 초빙하였다. 또한 번사들을 에도와 오사카 등의 난학숙으로 유학시켜 난학을 연마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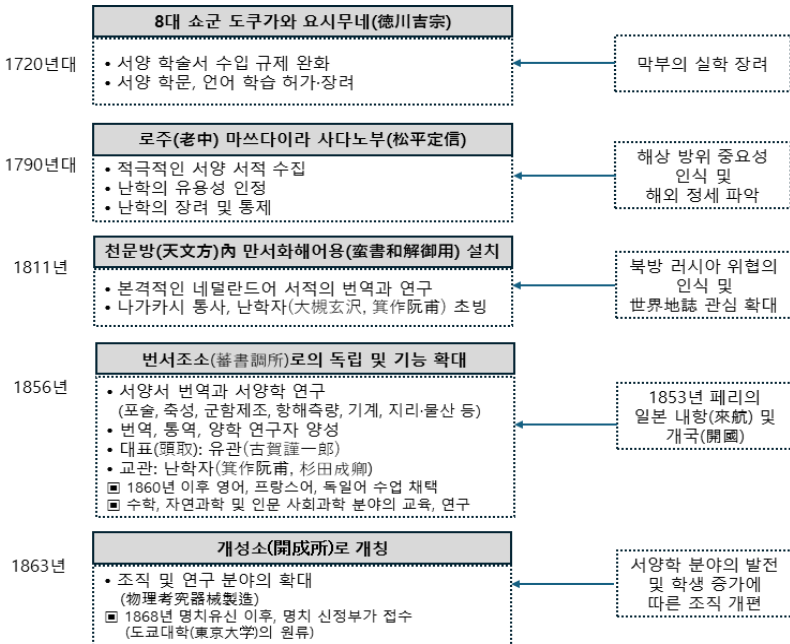
난학이 공학적 성격을 띠고 막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장려된 시점은 천문

31) 번서조소에서 1862년에 새롭게 개설한 학문 분야는 다음과 같다.

絵図調方, 活字方, 翻譯方, 精鍊方, 英學, 書籍調, 筆記方, 仏蘭西學, 西洋書畫, 物理學, 數學, 獨乙學, 器機方. ‘方’가 붙은 분야는 현재의 ‘연구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교육 활동보다는 연구를 주안으로 삼았다(東京外國語大學文書館 編, 앞의 책, 2023, 22-23쪽).

32) 宮崎 ふみ子, 「開成所に於ける慶応改革—開成所 學政改革を中心として—」, 『史學雜誌』 89-3, 公益財団法人史學會, 1980, 67쪽.

방 내에 만서화해어용을 설치한 1811년 무렵이다. 난학자들이 이미 2, 3세대 들을 거치며 학문적 성과와 연구의 역량을 높여갔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전 술한 바와 같이 에도 난학의 거장으로 일컬어졌던 오쓰키 겐타쿠와 그의 후 학인 미쓰쿠리 겐포가 난학자를 대표하여 만서화해어용에 임명되어 난서의 번역과 연구에 기여했다. 1856년 막부가 번서조소를 설립했을 때에도 난학 자는 교관으로 임명되었고 난학숙의 전통적 교육 방법이 그 곳에서도 일부 계승되었다. 막부에 의해 난학이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서양 학문으로 확대 되고 학문의 중심 분야가 변모되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한 서양 학술의 원류는 난학자들이 일궈낸 연구와 교육의 성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림 2〉 막부의 난학 연구 및 교육의 장려

Ⅲ. 난학숙에서의 지식 형성 과정과 지적 교유의 운용

난학숙은 난학의 요람으로서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하생 각자가 진로를 찾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제·동학 간의 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용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난학숙은 사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어져왔던 한학숙의 교육문화가 일부 계승되는 가운데 서양 학문에 다가가기 위한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과 교육의 원칙 및 철학을 형성했다. 그 주체들인 난학자는 문하생으로서, 상급자로서, 진로를 준비하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스승이자 숙주(塾主)로서 그들 난학숙의 전통을 세워 나갔다.

이 장에서는 난학숙에서 이루어졌던 난학 연구와 교육의 실상들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문하생들이 남긴 수업 일기와 회상록 등의 기록을 통해 그들의 지식 형성과정과 수련 생활 모습의 단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난학숙 가운데 쇼센도와 데키주쿠는 에도와 오사카를 대표하는 곳으로 각각의 숙주인 이토 겐보쿠와 오가타 고안은 당대를 대표하는 난학자이자 교육자였다. 이들의 난학숙에 입문했던 문하생들이 남긴 일기 등의 기록은 현재 몇 안 되는 희귀 자료로 남겨져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가나타게가 1839~841년 동안 쇼센도의 수련 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일기(이하 ‘金武日記’)³³⁾, 시바타가 1850년 4월부터 12월까지 쇼센도를 중심으로 에도에서의 면학, 활동을 기록한 『시바타 슈조 일기(柴田収蔵日記)』(이하 ‘柴田日記’)³⁴⁾가 있다.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자서전 『복옹자전(福翁自伝)』³⁵⁾에서는 그가 1855년 입문했던 데키주쿠의 숙풍과 난학 교육 방법,

33) ‘金武日記’는 「金武良哲文書」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金武日記’의 구체적인 기록에 대해서는 선행연구(西留 いずみ, 앞의 논문, 2017)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4)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柴田収蔵日記 2』, 平凡社, 1996.

35) 福澤諭吉 著·齋藤孝 編訳, 『現代語訳 福翁自伝』, 筑摩書房, 2011.

문하생의 공부와 생활 모습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가나타케는 고향인 사가번(佐賀藩)에서 난학의 기초를 배우고 의업을 하던 중 1839년 쇼센도에 입문하였고 수련을 마친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가번 의학교 고세이칸(好生館)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시바타는 사도(佐渡)출신으로 1844년 쇼센도에 입문하여 다음해 가을에 귀향하여 4년 여간 의업에 종사하다가 1850년 봄에 쇼센도에 다시 입숙하여 난학을 수련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1855년 테키주쿠에 입숙하였고 이후 양학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명치기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계몽사상가이자 교육가이다.

이 장에서는 1차 자료로서 시바타의 ‘柴田日記’와 후쿠자와의 자서전 『복용자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며, 가나타케의 ‘金武日記’는 관련 선행연구인 니시도메 이즈미의 연구³⁶⁾를 토대로 고찰함으로써 난학숙에서 이루어진 지식 형성 과정과 지적 교유 운용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난학숙의 숙풍과 난학 수업

1) 입숙과 숙풍

난학숙의 문하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문을 위한 시험은 없으나 ‘속수(束脩)의 예’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당시 일본의 한학숙, 데나라 이주쿠 등과 같은 사숙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속수로서 부채, 부채와 금전, 혹은 금전만을 정상(呈上)하여 입문을 청하는 절차가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원 보증인 혹은 중개인의 추천이 필요한 숙도 있었다.³⁷⁾ 이러한 관례가 난학숙에도 계승되어 속수의 예를 행했다. 일정 정도의 입학금과 다과를 준비하여 입문 소원을 빌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의식이다. 월사금을 별도

36) 西留 いずみ, 앞의 논문, 2017, 67~91쪽.

37) 斎藤 祥男, 「幕末の蘭学修行時代(1) : 日蘭通商の背後を支えたもの」, 『中央学院大学商経論叢』 6, 中央学院大学商学部, 1991, 51쪽.

로 내지는 않으며 명절에 스승에게 선물하는 것은 관례로 행해졌다.³⁸⁾

시바타는 쇼센도에 재입숙한 경우여서인지 이 절차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柴田日記’에는 “이토(伊東, 필자주: 쇼센도)에 가서 池田洞雲(필자주: 옛 동기이자 당시 숙두)에게 입숙을 청하자 즉시 승낙했다. 그가 중개하여 이토 선생님과 대면하도록 했으며 (중략) 선생님이 내일 아침 즉시 입숙하라고 하셨다.(1850.4.9.)”³⁹⁾는 정도의 내용만 적혀있다.

가나타케도 입숙 과정이 좀 특별했던 것으로 보이며 역시 입숙 절차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니시도메 이즈미의 연구에 의하면, 가나타케가 사가번에서 난학의 입문을 배웠던 스승인 시마모토 료준(島本良順)은 이토 겐보쿠와도 사제 관계였으며, 이토가 시마모토에게 자신의 숙(塾)과 의업을 지원해 줄 적당한 문하생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은 바가 있다. 이후 가나타케도 쇼센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이토의 대진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수업의 목적을 위한 입문이라기보다는 이토의 보좌적 역할이 기대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⁴⁰⁾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난학숙과 문하생의 입숙 배경에 따라 입문 절차와 원칙은 상이하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입문을 위한 비용은 스승, 스승의 부인(奥方), 숙두(塾頭), 숙감(塾監), 숙중(塾中), 숙복(塾僕 등⁴¹⁾을 위해 일정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스승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하생이 임의로 정하는 것으로 본래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각자 형편에 맞게 준비했다. 그러나 문하생 간의 격차와 숙의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점차 난학숙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금액이 정비되어 왔다. 난학숙에서도 이것을 따라 입숙료를 결정했다. 예컨대

38) 沖田行司, 앞의 책, 2011, 303쪽.

39)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182쪽.

40) 西留 いずみ, 앞의 논문, 2017, 72쪽.

41) 숙두는 숙의 생활을 총괄하며 그 아래에 숙감을 두고 있다. 숙복은 숙의 잡무를 맡으며 난학 수련도 겸한다.

쓰보이 신도의 니치슈도와 오가타 고안의 데키주쿠는 쇼센도와 비교하여 금액이 절반에 불과했다. 쓰보이 자신이 빈곤한 문하생의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숙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⁴²⁾

후쿠자와의 『복용자전』에는 그가 입숙료를 면제받게 된 사정에 관해 상세히 적혀있다. 그는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이어받아야 했던 가정의 책임을 뒤로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키주쿠에의 입숙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오가타 고안은 “자네의 사정을 들어보니 학비가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므로 내가 사정을 봐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자네만 특별히 돌봐주는 것으로 알면 곤란하다. 그러니 그 원서(필자주: 후쿠자와가 은밀하게 필사한 축성학 난서)를 번역시키는 것으로 하겠다.”⁴³⁾라고 하며 후쿠자와의 입숙을 허락했다.

한편, 쇼센도의 경우에는 여타의 난학숙에 비해 두 배 이상 입숙료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쇼센도에 입문하고자 몰려들었다. 쇼센도의 이토 겐보쿠는 외국에서 들여온 네덜란드 서적을 거의 모두 구입했으며 당시 난서는 입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이나 고가에 달했다. 의학서, 이학서, 병서를 비롯하여 문학, 역사, 지리, 법률 서적에 이르기까지 진귀한 서적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며 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토의 장서를 보려고 입숙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⁴⁴⁾ 그들에게는 높은 금액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난학숙은 숙칙을 정해 숙생의 교육 방침과 생활 원칙으로 삼았다. 현재 데키주쿠, 쇼센도, 니치슈도의 일부 숙칙이 알려져 있다. 쇼센도 숙칙의 주요 내용은 ‘난서, 번역서 이외의 독서는 금지, 외출은 매달 5회까지, 통금 시간에 늦어질 경우 신원 보증인 인감 날인의 서류가 필요, 입욕·머리 손질(髮結)을 할 경우에는 미리 알릴 것, 아침 8시에 명찰(札, 필자주: 숙의 출입증

42) 齋藤 祥男, 앞의 논문, 1991, 53쪽.

43) 福澤諭吉 著・齋藤孝 編訳, 앞의 책, 2011, 77쪽.

44) 片桐一男, 앞의 논문, 1960, 65쪽.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제출하고 밤10시에 명찰을 받아갈 것, 이 사항들을 위반한 자는 20일 간 외출을 금하며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에는 퇴숙 처리함⁴⁵⁾과 같이 엄격한 규칙을 담고 있다.

‘柴田日記’에서도 쇼센도 숙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바타 슈조는 입숙이 결정된 이후 “上村周聘를 만나 숙의 별규(別規)에 관해 들었다.”(4.11)⁴⁶⁾와 같이 기록하고 있으며, “근래 숙감에게 무단 출타 등으로 3일간 외출 금지를 통보받아 (중략) 선생님께 숙칙을 조금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의논을 했다.”(6.4), “숙칙에 관해 모두 모여 회의했다.”(6.9.)⁴⁷⁾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는 엄격한 숙칙에 숙생들이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니치슈도의 경우에도 17개 조의 숙칙을 마련하였는데 제1조로 정한 것은 ‘금주’이며 ‘매일 아침 (의학) 강석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출석이 요구되며 중도 퇴석은 금지한다’⁴⁸⁾와 같이 문하생의 태만을 제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니치슈도에서 수학한 오가타 교안의 데키주쿠의 숙칙은 전체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니치슈도와는 전혀 다른 숙풍이 형성되어 있었다. 후쿠자와의 『복옹자전』에 기록된 데키주쿠의 모습으로 숙내에서 음주가 묵인되었거나 자유분방한 숙의 생활이 묘사되어 있는데 일례로 후쿠자와 자신이 숙두를 맡으면서도 음주로 인해 숙풍을 어지럽게 했다⁴⁹⁾는 내용이 적혀있을 정도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구속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교육 방침에 관해서는 “난서를 읽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오로지 읽기만 할 것이며 원서를 한 페이지라도 번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⁵⁰⁾라는 원칙을 고수하였다.⁵¹⁾

45) 西留 いずみ, 앞의 논문, 2017, 70쪽.

46)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183쪽.

47)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199, 200쪽.

48) 吉田 忠, 앞의 논문, 2017, 22쪽.

49) 福澤諭吉 著・齋藤孝 編訳, 앞의 책, 2011, 87쪽.

50) 石河幹明, 『福澤諭吉傳』第1巻, 岩波書店, 1932, 153쪽.

난학숙 입숙 절차와 각 난학숙의 교육 원칙은 숙주의 개인적 성향, 교육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후대 난학자가 자신의 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 계승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숙풍을 형성해가기도 했다. 사숙이라는 교육기관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자율성과 창의성에 더해 새로운 학문 연구와 교육에 대해 숙고된 방법론들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2) 난학 수업

난학 수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네덜란드어를 익히는 과정이다. 데키주쿠에서의 네덜란드어 학습과 원서 공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복옹자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입문자가 초급에서 시작하여 상급으로 올라가는 단계별 공부법에 관한 내용이다. 반면 시바타는 일정 정도 네덜란드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재입숙한 경우이므로 ‘柴田日記’에는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진행된 학습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가나타케도 입숙 전 네덜란드어의 기본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金武日記’에서는 회독(會讀)을 통해 중급 네덜란드 학습이 이루어진 내용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네덜란드어 학습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난학숙에서 유사한 절차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학생들은 실력에 따라 8급 내지 9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초급 단계에서는 문법을 배우며 상급으로 올라가면 원서로 공부했다. 어떤 난학숙이든 네덜란드어 교재로는 문법 교과서 『가란마치카(ガランマチカ)』와 문장론 교과서 『세인타키스(セインタキス)』를 사용했다.⁵²⁾ 네

51) 원서 독해 제일주의를 채택한 것은 1850년 막부가 네덜란드 서적을 함부로 번역하는 것을 금한다는 포달을 내렸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며, 정치권력의 간섭에서 학문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오가타 고안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梅溪 昇, 앞의 책, 1996, 49쪽).

52) 梅溪 昇, 앞의 책, 1996, 54쪽. 이들 교재는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발간된 네덜란드어의 책이었지만, 앞 장에서 언급되었던 미쓰쿠리 겐포가 목판으로 이 책들을

덜란드어 학습은 소독(素讀), 강석(講釋), 회독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문의 교수법·학습법을 계승한 것이다. 소독은 한적(漢籍)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글자만을 쫓아 소리 내어 읽는 것이며, 이 과정을 마치면 회독이라고 하여 몇 명이 모여 누군가가 한적의 내용을 말하면 다른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⁵³⁾ 이러한 공동학습 방법이 한문 학습의 전통적 교육 방법이다. 이것이 네덜란드어 학습에도 채용되었다.

우선, 데키주에서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⁵⁴⁾ 초급자에게는 『가란마치카』의 내용과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한편 내용을 해설해주는 ‘강석’도 곁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세인타키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이렇게 두 권의 학습이 마무리되면 ‘회독’의 단계로 넘어간다. 회독 그룹의 인원은 각급 10명에서 15명 정도이며 급별로 회두(會頭)를 지정하고 회두가 읽은 부분에 대해 문하생이 각각 설명을 하며 그것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 백색 원, 흑색 원으로 표시하여 성적을 매긴다. 두 권 문법서의 소독, 강석, 회독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이후부터는 각자 자학(自學)에 의해 난학을 익힌다.

당시 난서는 매우 희귀했기 때문에 난학숙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서를 겨우 한부씩만 소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회독을 위해서는 이들 원서를 필사하지 않으면 안됐다. 회독은 각급별로 매월 6회 정도 행해졌으며 회두가 각 회독 분량 3~5페이지 가량을 지정하면 숙생들은 그 부분을 필사하여 예습한다. 예습을 위해서는 문법서를 토대로 사전의 단어를 찾으며 준비해야 했는데 사전도 역시 한부만 소장하고 있었다. 이른바 ‘드프의 방(ヱーフ部屋)’에는 1833년에 완성된 난일사전 『드프 하루마(ドゥーフハルマ)』의 사본이 소장되어 있

복각(復刻)하여 전자는 1842년에 『和蘭文典 前編』, 후자는 1848년에 『和蘭文典 後編 成句編』으로 출판했다.

53) 清水 稔, 앞의 논문, 2010, 4쪽.

54) 福澤諭吉 著·齋藤孝 編訳, 앞의 책, 2011, 112~117쪽 내용에 의거함.

있으며 외부로의 반출을 엄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숙생이 이 방에 모여 앉아 서로 사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연출하며 사전에 의존하며 회독 준비를 해야 했다. 데키주쿠에서는 한 글자라도 타인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사전에 의존하여 회독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잦아든 심야 시간에 ‘드프의 방’에서 회독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회독 당일에는 회독 그룹 간에 제비뽑기를 하여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원서의 몇 줄씩을 해석했다. 만약 지정된 사람이 제대로 해석을 못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게 넘어간다. 성적 부여 방식은 정확하게 읽어내면 백색 원, 제대로 못 해낸 경우에는 흑색 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완벽하게 해석하면 삼각형으로 표기했다. 삼각형은 백색 원의 3배 정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달간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자를 상석에 배치하고 석 달간 수석의 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진급한다.

이처럼 데키주쿠에서는 자력에 의한 자학, 철저한 실력주의, 매월 여섯 차례 행해지는 회독을 위한 치열한 학습과 연구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숙주인 오가타가 수련한 쓰보이 신도의 니치슈도의 학습 전통을 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柴田日記’에서는 시바타의 네덜란드어와 의학 수업에 관한 내용이 날짜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 『복응자전』의 내용과도 비교 고찰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네덜란드어 수학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⁵⁵⁾ 시바타가 쇼센도에 재입숙한 1850년 4월 23일에 처음으로 『가란만치카』 학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토 겐케이(伊東玄圭)에게 『가란만치카』의 구독(句讀)을 부탁했다”(4.23.)⁵⁶⁾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후 이 책의 학습에 대한 기록은 없고 티트만(Johahn August Tittman, 1774-1840)의 의학서

55) 시바타 슈조의 난학 수련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吉田 忠, 앞의 논문, 2017’을 참고할 것.

56)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188쪽.

를 학습하고 의학 관련 서적을 필사하는 내용이 7월 14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4월 23일부터 “포술서의 그림을 묘사했다”⁵⁷⁾라는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5월 5일에는 “포술서 그림 묘사를 완료하고 선생님에게 돌려주었다”⁵⁸⁾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 후술하겠지만, 시바타는 그림과 글의 묘사 실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 막부의 유관이자 1856년 번서조소의 대표가 되는 고가 긴이치로는 시바타의 실력을 인정하여 지도와 서양서 그림의 묘사를 빈번하게 의뢰했다. 시바타는 고가와 잦은 교류를 하며 다양한 세계지도와 서양서를 접하고 그것의 묘사 작업에도 시간을 할애하는 상황이었다.

『가란마치카』 학습에 대한 집중적인 기록은 7월 17일부터 나타나며 9월 21일 “문전(文典)의 受讀(수독)이 끝났다”⁵⁹⁾고 기록할 때까지 거의 매일 수업과 복습, 교재의 번역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이후 단계인 회독에 관한 기록들도 발견된다. “문전 윤독일(輪讀日), 오후 문전 윤독 처음으로 출석하다.(9.23.)”, “문전 윤독일, 오후 문전 윤독에 출석(10.3.)”, “오후 문전회에 나가다.(10.13)”, “오후부터 문전 윤독에 출석(10.23.)”⁶⁰⁾과 같이 ‘3’으로 끝나는 날이 회독일로 지정되어 회독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¹⁾ 10월 23일에는 “이번 윤강(輪講)으로 앞자리로 진전했다”고 적고 있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도 파악된다. 회독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8월 8일 “문전회를 위하여 魯齊에게 지시대명사 및 관계대명사의 문장을 수독했다”⁶²⁾고 적고 있어 회독 연습을 위해 상급자로 여겨지는 魯齊가 교습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독은 보통 오후에 열렸기 때문에 회독일 이틀가량 전부터 혹은 당일 오전에 “예습했다(9.23.)”, “문전을 읽다(10.23.)”와 같이

57)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188쪽.

58)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192쪽.

59)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227쪽.

60)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228, 229, 232쪽.

61) ‘柴田日記’에 회독은 문전 윤독, 윤강, 문전회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1850년 10월 23일 이후에 회독이 열린 날짜는 11월 3일, 11월 13일, 12월 13일이다.

62)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216쪽.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도이다.

『세인타키스』 학습은 1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부터 이토 겐케이에게 부탁하여 『세인타키스』의 구독을 받았다.”⁶³⁾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수업과 복습을 이어가고 있어 『가란마치카』의 회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바타는 의사로서의 경력을 갖고 쇼센도에 재입숙한 사례로 『가란마치카』 학습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네덜란드어 실력이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티트만의 의학서 수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쇼센도에서의 수련 생활과 직업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 숙생의 다양한 이력과 실력의 정도에 맞춰 난학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나타케는 입문 전에 이미 고향에서 네덜란드어를 익혔기 때문에 ‘金武日記’에는 쇼센도 입문 후 상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웨일랜드(P. Weiland)의 문법서’ 회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⁶⁴⁾ 한 가지 더 특기할만한 내용은 이 회독은 쇼센도 문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쓰보이 신도의 니치슈도의 문학생, 소속 숙 불명의 문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난학 수업은 특정 난학숙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서도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배움 공동체로서의 난학숙

스기타 겐바쿠의 『난학사시』에는 『해체신서』 번역 과정의 고충에 관해 기록하면서 이들 번역자 그룹을 ‘사중(社中)’이라고 표현하였다. 사중은 동학인(同學人)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연구회·학회와 같은 성격에 해당

63)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238쪽.

64) 西留 いずみ, 앞의 논문, 2017, 76쪽.

된다.⁶⁵⁾ 이처럼 난학은 함께 배우고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학문이 깊어지고 세대를 거듭하며 사제관계가 형성되지만, 스승 간, 문하생 간의 네트워크는 소속되어 있는 숙이라는 범위를 넘어 활발한 지적 교류를 이끌었다.

‘金武日記’에는 이러한 지적 네트워크의 운용 양상의 다양한 측면이 기록되어 있다. 니시도메 이즈미의 연구에 의하면, 가나타케 일기에 기록된 난서의 회독은 두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의학서의 회독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쇼센도에서, 네덜란드 문법서의 회독은 오쓰키 순사이(大槻俊齋)의 숙에서 열렸다. 쇼센도에서 열린 의학서의 회독은 숙주인 이토 겐보쿠가 이끌었으며 최신 네덜란드에서 입수한 난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 이토 겐보쿠가 의업을 종료한 이후인 야간에 행해졌다. 오쓰키 순사이의 숙에서 열린 네덜란드어 문법서의 회독도 마찬가지로 오쓰키의 의업이 종료된 이후인 야간에 이루어졌으며 지정된 날짜에 정례적으로 행해졌다. 회독의 참가자는 쇼센도의 문하생 뿐만 아니라 소속 숙이 불분명한 문하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⁶⁶⁾

이 당시 에도에는 쇼센도 주변에 저명한 난학자들과 그 곳에서 배우는 문하생들의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문하생들의 수업과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난학숙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난학자가 개인으로서 문하생을 받아들여 가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숙주와 난학자들 간 친밀감이 있을 경우, 문하생들이 소속 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⁷⁾

숙주와 난학자들 간의 친분 관계는 문하생의 향후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도 유익한 환경이 되었다. 가나타케와 시바타 두 사람 모두에게 쇼센도에서의 수련과정은 그들을 전문적이며 특별한 진로로 나아가게 했다. 먼저, 가나타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난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난서의 필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金武日記’는 의학 수련과 난서의 필사와

65) 片桐一男, 앞의 논문, 1960, 63쪽.

66) 西留 いずみ, 앞의 논문, 2017, 75-76쪽.

67) 西留 いずみ, 앞의 논문, 2017, 78-79쪽.

같이 두 가지의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일기의 후반부에는 필사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 가나타케가 쇼센도에서 수학했던 것은 1839년-1841년으로 미쓰쿠리 겐포가 천문방 ‘만서화해어용’에 근무하고 있던 시기이며, 미쓰쿠리와 가나타케의 스승인 이토 겐보쿠와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가나타케는 미쓰쿠리의 관저를 방문하여 당시 번각본이 간행되어 있지 않았던 『가란마치카』와 『세인타키스』, 그리고 매우 희귀하기로 알려진 난불사전 『드프 하루마』 등을 빌려 적극적으로 사본을 만들었다. 막부의 천문방 소속의 미쓰쿠리 겐포에게 직접 서적을 빌려 사본이 가능하다는 환경은 쇼센도의 문하생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이었다.⁶⁸⁾ 가나타케는 퇴숙 후 고향 사가번으로 돌아가 의학관에서 연구와 교육에 공헌하게 되는데 이러한 귀중한 난서의 사본은 그의 연구와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시바타 슈조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시바타는 막부의 유관이자 1856년 번서조소의 대표가 되는 고가 긴이치로와 깊은 학문적 친분 관계를 쌓는다. 시바타가 1850년 4월 쇼센도에 재입숙한 시점 이후 바로 “빨리 입숙하여 그림의 묘사를 요청한다는 것을 선생님께 들었다.”(4.19)⁶⁹⁾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고가’인지 ‘이토’인지 불분명하지만, 시바타의 그림과 글을 묘사하는 실력은 이미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 고가 긴이치로와 이토 겐보쿠 사이에도 난학에 정평한 막부 관료와 저명한 난학자로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시바타의 묘사 실력은 고가에게도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시바타는 쇼센도에서 네덜란드어와 의학 수업뿐만 아니라 고가의 의뢰로 포술서의 그림 묘사 작업(1850.4.23.~5.5), 해상포술서의 그림 묘사 작업(1850.9.8.-10.6), 서양 화폐의 그림(『서양전보(西洋錢譜)』 의뢰 요청(1850.10.25)⁷⁰⁾ 등 서양서 그림 묘사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 또한 고가는 지리학

68) 西留 いずみ, 앞의 논문, 2017, 79쪽.

69)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187쪽.

70)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189, 192, 224, 230, 236쪽.

에도 정통하여 세계지리, 세계 각국의 사정에 관한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고 시바타가 이들 서적을 빌려서 독서·필사하거나 세계 지도를 연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선생님이 필사한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지도를 빌렸다.”(6.10), “선생님에게 『채람이언(采覽異言)』⁷¹⁾ 권2를 반납하고 권3을 빌렸다.”(8.22)⁷²⁾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결국 시바타는 과거 의업에 종사했던 경력과 무관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1856년 번서조소의 이등교수(二等教授)로 임명되어⁷³⁾ 지도제작자, 지리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IV. 맺음말

일본에서 난학은 소수의 의사 그룹에 의해 시작된 『해체신서』의 번역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연구로 전개되었으며, 이들 초기 난학자 세대에서부터 시작된 난학 교육도 세대를 거듭하며 그 토대를 다져나갔다. 난학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난학숙에서는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뛰어난 난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스기타 겐바쿠는 『난학사시』에서 그의 제자 오쓰키 겐타쿠가 천문방 만서화해어용에 초빙이 되자 “내가 오래 전 우연히 친구들과 시작한 학업이 꽃을 피워 내 생전에 제자가 이렇게 명예로운 관직을 얻게 된 것은 지극히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다.”⁷⁴⁾라고 술회하고 있다.

막부와 번에서는 난학을 국가에 쓰임이 되는 실용 학문으로 공인하였고 난학자들을 기용하여 관 주도의 난학 연구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제

71) 『采覽異言』(1725)은 1708년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그리스도교 선교를 위해 일본에 온 이탈리아 선교사 지오바니 시도티(Giovanni Battista Sidotti)를 심문하여 얻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저술한 일본 최초의 체계적 세계지리서이다.

72)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앞의 책, 1996, 200, 220쪽.

73) 東京外国語大学文書館 編, 앞의 책, 2023, 28쪽.

74) 이종찬, 앞의 책, 2014, 92쪽.

난학은 출세를 위한 학문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난학 붐이 전국적으로 일게 되었다. 난학숙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사숙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전통적 일본의 교육문화와도 맞물려 난학 연구와 교육을 위해 숙고된 방법론이 축적되어 학문의 발전과 인재의 양성을 이끌었다.

난학숙은 문하생 각자가 난학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고 사제·동학 간의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용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시바타의 『柴田日記』, 후쿠자와의 『복용자전』, 가나타게의 일기를 통해 난학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실제, 문하생들의 학문적 교류, 진로를 준비하는 생생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학숙은 일본 학술사적 흐름에서 새로운 조류로서 등장한 난학을 연구·교육하는 장으로서 학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력주의와 엄격함을 고수하는 것이 전반적인 원칙으로 통용되고 전통으로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각 난학숙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졌으며, 스승 세대 간의 광범위한 지적 네트워크는 문하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난학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식을 심화시키고 향후 진로를 준비하고 탐색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난학숙의 교육문화적 특징은 일본의 사숙이라는 전통적 교육문화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난학이라는 학문적 특징으로 인해 지식의 형성 과정과 지적 네트워크 운용의 다채로움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 근세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난학이라는 학문의 수용·발전 양상과 난학숙이라는 공간에서 형성되었던 교육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나 일본의 전통적 학문 연구와 교육에 관해서도 근세 말기를 거치며 어떤 형태로 변이 혹은 계승·발전되었는지에 관한 고찰도 후속 연구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세 말기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문화를 둘러싼 변이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 난학숙의 교육문화적 특징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福澤諭吉 著・齋藤孝 編訳, 『現代語訳 福翁自伝』, 筑摩書房, 2011.

柴田収蔵 著・田中圭一 編注, 『柴田収蔵日記 2』, 平凡社, 1996.

2. 논저

김연옥, 「1850년대 나가사키의 ‘난학(蘭學) 붐’ 실태－1855~56년 데지마 전습(出島傳習) 참가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37, 역사학회, 2018.

이건상, 「『난학계제(蘭學階梯)』를 통해 본 네덜란드어 학습과 번역」, 『일본연구』 42,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이종찬, 『난학의 세계사』, 알마 출판사, 2014.

이원순, 「朝鮮 ‘西學’과 日本 ‘蘭學’－對西洋 學問的 對應의 比較的 接近－」, 『일본학보』 10, 한국일본학회, 1982.

宮崎 ふみ子, 「開成所に於ける慶応改革－開成所 学政改革を中心として－」, 『史学雑誌』 89-3, 公益財団法人史学会, 1980.

吉田 忠, 「柴田収蔵の蘭学修業：『柴田収蔵日記』に見る伊東玄朴塾」, 『佐賀大学地域学歴史文化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 12, 佐賀大学地域学歴史文化研究センター, 2017.

東京外国語大学文書館 編, 「前史 ‘蛮書和解御用’から東京外国語学校へ」, 『東京外国語大学150年のあゆみ』, 東京外国語大学出版会, 2023.

梅溪 昇, 『緒方洪庵と適塾』, 大阪大学出版会, 1996.

茂住 實男, 「蕃書調所における英語教育」, 『英学史研究』 16, 日本英学史学会, 1983.

西留 いずみ, 「天保期における伊東玄朴塾「象先堂」の蘭学修業：佐賀藩蘭学者金武良哲「江戸日記」の分析」, 『国史学』 222, 国史学会, 2017.

石河幹明, 『福澤諭吉傳』第1巻, 岩波書店, 1932.

松田 清, 「坪井家旧蔵本の洋学資料」, 『静修』 31-2, 京都大学附属図書館, 1994.

櫻井 豪人, 「洋学資料における単語集の特徴－辞書との関係と相違点を中心に－」, 『日本語の研究』 19-2, 日本語学会, 2023.

斎藤 祥男, 「幕末の蘭学修行時代(1)：日蘭通商の背後を支えたもの」, 『中央学院大学商経論叢』 6, 中央学院大学商学部, 1991.

- 清水 稔, 「外来文化の受容の歴史から見た日本の外国語学習と教育について」, 『佛教大学文学部論集』 94, 佛教大学文学部, 2010.
- 沖田行司, 『藩校・私塾の思想と教育』, 日本武道館, 2011.
- 片桐芳雄・木村 元 編著, 『教育から見る日本の社会と歴史』, 八千代出版, 2008.
- 片桐一男, 「蘭学者の地域的・階層的研究－門人録の分析を繞って」, 『法政史学』 13, 法政大学史学会, 1960.
- 下山純正, 「諸学問の源泉 津山の蘭学－宇田川家三代と箕作家一族を中心に－」, 『葉史学雑誌』 51(1), 日本葉史学会, 2024.
- 荒川 紘, 「洋学教育の歴史的意義」, 『人文論集』 54, 静岡大学人文学部, 2004.

Abstrac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cceptance
of Dutch Studies in 19th Century Japan
—Focusing on the Educational Culture of the Rangaku
Juku(Dutch studies schools)—

Park, So-yo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discipline of Dutch studies in Japan and examines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utch studies schools where Dutch studies research and education were conducted. To this end, I examined the process of Dutch studies research and education infrastructure centered on Dutch studies scholars and the process of systematization of Dutch studies research and education as a government-run school led by the shogunate. The main objects of study were Shibata's *Shibata Shujo Diary*, Kanatake Ryotetsu's *Diary*, and Fukuzawa Yukichi's autobiography *Fukuo Autobiography*. Through these records, I hav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formation process and intellectual exchange operations that took place at the Dutch studies schools.

As a place for research and education of Dutch studies, which emerged as a new trend in Japan's academic history, the overall principle of thorough meritocracy and rigor with regard to academics has prevailed and has been passed down as tradition. Based on these principles, each school of Dutch studies exercised autonomy and creativity, and education and training were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enior Researcher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diversity of its members. The extensive intellectual network among the teacher generation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t was useful for students to deepen their knowledge freely without being bound to the Dutch studies school to which they belonged, and to prepare and explore their future career paths.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utch studies schools are rooted in the traditional educational culture of private schools(Sizuku) in Japan, but due to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Dutch studies, they include diversity in the process of knowledge formation and intellectual network operation.

Key word : Rangaku(Dutch studies), Rangaku-juku(Dutch studies schools), Diary, Shosendo, Tekijuku, Bansho Sirabesho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趙旅(1420~1489) 현창과 함안 西山書院의 역할 —『西山延謚錄』을 중심으로

김 현 자*

- I. 머리말
- II. 生六臣의 등장과 범주 확립
- III. 서산서원 합동 延謚 거행과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함안 서산서원은 생육신 元昊·金時習·李孟專·成聘壽·南孝溫·趙旅 여섯 명을 처음 합향한 서원이다. 1703년(숙종 29) 건립되어 1713년(숙종 39) 賜額이 이루어졌으며, 1784년(정조 8)에는 이 서원에서 성담수·남효온·조려에 대한 합동 延謚가 거행되었다. 연시는 본래 대상자의 후손이 私家 또는 任地에서 시호 교지를 받드는 의례로, 서원에서 다수의 인물이 한꺼번에 시호를 받는 것은 드문 사례였다. 이 서산서원의 연시는 중앙의 함안조씨와 경상도 재지사족들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진행되었다. 창녕성씨, 현풍곽씨, 진양하씨 등이 협력하였으며 함께 시호 의정을 준비한 이맹전의 후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연시를 준비하고 진행한 과정은 『西山延謚錄』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생육신'으로서의 존재감이 김시습이나 남효온 등의 인물에 비해 미약했던 조려를 추송하기 위한 함안조씨 가문의 현양 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조려는 서원 건립 및 연시 행사를 통해 의심받지 않는 생육신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후 함안을 중심으로 함안조씨 인물들의 총질 현창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 지역의 여러 서원에서 『咸安趙氏十忠實錄』 등 함안조씨 인물들의 행적을 기리는 저술이 간행되었고 함안지역 읍지류의 내용도 변화하였다. 이 일련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four 참여대학원생 / khj941010@gmail.com

의 현양 사업을 통해 함안조씨 가문은 조상의 위상과 가문의 지역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고, 국왕 정조 역시 절의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자신의 지 지집단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西山書院, 『西山延誼錄』, 趙旅(1420~1489), 생육신, 함안조씨

I. 머리말

조선시대 단종과 死六臣 문제는 세조와 직접 관련되어 후대 국왕이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환국이라는 정치 변동 속에서 사육신과 단종의 追復을 추진하였다. 숙종대 이후로 국왕은 환국 및 청과의 관계 변화에 대응하여 왕정을 공고히 하고 군신의리를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被禍된 인물의 신원과 충신 현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원과 사우가 대대적으로 건립되었다. 당대 尊周大義가 작동되고 국왕이 이에 조응하는 맥락 아래에서 현창사업이 추진된 것이다.¹⁾

숙종은 군주에 대한 신료들의 절의를 강조하여 군신의 分義를 명확히 하고 정국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였다.²⁾ 이는 선왕의 사업을 이어받아 발전시킨다는 繼述 이념으로 영조와 정조에게도 이어졌다. 영조는 앞서 숙종대 세조 공훈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던 三相, 즉 皇甫仁(?~1453), 金宗瑞(1382~1453), 鄭本(?~1454)의 추복을 단행하였고, 단종과 관련하여 화를 입은 왕실 자제들도 신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癸酉靖難과 단종 복위 시도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왕에게 충성한 인물로 표상되어 신원되었다.³⁾

1) 김성희, 『朝鮮 肅宗의 君臣義理 定立과 尊周大義』,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 윤정, 「숙종대 단종 추복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2, 2004.

3) 윤정, 「정조대 단종 사적 정비와 ‘군신분’의 확립」, 『한국문화』 35, 2010.

그 가운데 生六臣을 합향하기 위해 창건, 사액된 함안 西山書院이 주목된다. 서산서원은 1703년(숙종 29) 경상도 유학 郭億齡의 건의로 인해 이듬해 생육신을 배향하도록 건립되었으며, 1713년(숙종 39)에 사액되었다. 서산서원 창건의 핵심 인물인 趙旅(1420~1489)는 1453년(단종 1)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계유정난 이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인물로,⁴⁾ 함안조씨를 번성하게 한 中興祖로 평가된다.⁵⁾ 조려와 서산서원에 대해서는 중심-주변의 꾸준한 노력 아래 조려가 생육신으로 현창되었다고 파악한 연구가 있다. 즉 중앙에서 서인과의 인연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함안조씨와 지역에서 조려의 행적을 정리하고 기록한 함안조씨의 연계 과정을 거쳐 조려가 생육신의 일원으로 기억되었다는 것이다.⁶⁾

서산서원은 지금 ‘생육신’으로 통칭되는 元昊(?~?)·金時習(1435~1493)·李孟專(1392~1480)·成聘壽(?~?)·南孝溫(1454~1492)·조려 여섯 명을 처음으로 합향한 서원이다. 남효온의 「六臣傳」으로 처음부터 여섯 명으로 범주화되었던 사육신과 달리, 생육신은 대개 八賢(‘생육신’ + 鄭保, 權節)으로 칭해지던 범위 내에서 18세기까지 가감을 더하여 오다가 완성된 개념이다.⁷⁾ 이는 단적으로 서산서원의 건립 및 현창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중앙의 함안조씨와 재지사족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16~17세기 함안에 거주하던 5대손 趙任道(1585~1664)가 함안 출신 인물들을 정리하였고, 9대손 趙榮祏(1686~1761)과 趙榮福(1672~1728)은 조려의

4) 조려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지두환, 「漁溪 趙旅(1420~1489)의生涯와 影響」, 『한국민족문화』 2, 1989 ; 김봉곤, 「生六臣 漁溪 趙旅의生涯와 追崇」, 『남명학연구』 49, 2016.

5) 허권수, 「咸安趙氏의 咸安 定着과 大笑軒 家門」, 『남명학연구』 38, 2013 ; 김봉곤, 앞의 논문, 2016.

6) 강창규,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본 생육신-漁溪 趙旅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3, 2022.

7) 윤정, 「18세기 ‘단종제신’ 포장의 확대와 ‘生六臣’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2010.

문집을 간행하고 묘소를 정리하였다. 광역령의 상소 이후 1781년(정조 5) 조려의 10대손인 趙重晦(1711~1782)가 조려의 贈諡를 요청한다.⁸⁾ 조중회와 趙重瞻은 조려의 시호가 낙점되었음에도 3년의 시간을 기다려 후손이 없는 세명(성담수, 김시습, 남효온)의 시호 의정을 주도하며 1784년 서산서원에서의 延諡를 준비하였다.

이 글에서는 『西山延諡錄』(한국학중앙연구원, PB9C-75)을 활용하여 서산서원에서 이루어진 생육신 현창을 살펴보고 이 전후에 발생했던 함안조씨들의 선조 현창 활동을 함께 조망한다. 1781년(정조 5)부터 3년 동안 서산서원에서 거행될 연시, 즉 시호를 맞이하는 의례를 준비한 과정이 『서산연시록』에 자세하게 정리되었다. 총 4권 156면으로 생육신의 청시 소장과 諡狀, 연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간찰 및 延諡儀節 등이 수록되어 있어 1784년(정조 8) 이루어진 서산서원 연시 논의를 세밀히 추적할 수 있다.

시호는 죽은 인물의 행적을 褒貶하는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는 논의부터 반사까지 국가에 귀속되어 있었다. 특히 시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字·號와 달리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었으며, 국가적 공공성을 지니고 고치거나 삭탈할 수 없는 칭호였다. 망자에게 부여되는 이름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접하는 후대인들에게 전례가 되었고, 이러한 勸懲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엄정하게 시행되었다. 또한 시호 교지를 맞이하는 의례까지 마치지 못하면 후손은 결정된 시호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연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의 함안조씨들은 조려를 생육신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생육신으로서의 위상을 의심받지 않던 김시습·남효온 등의 시호 의정을 주도하였다. 결국 조려는 서산서원의 건립 및 서원에서의 연시 거행을 통해 생육신으로 확실히 인식되었다. 중앙과 지역의 함안조씨들이 그들의 터전이었던 함안에 생육신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고, 후손이 없는 구성원의 시호 의정과 비용까지 부

8)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9월 29일 무진.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였다. 그리고 시호를 반사하고 맞이하는 의례 장소로 서원이 선택된 드문 사례이다. 이는 19세기 서원이 중심이 되어 시호를 요청하고 연시까지 행한 사례들의 모델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II. 生六臣의 등장과 범주 확립

생육신은 그들이 은거한 당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개 八賢으로 불리던 김시습·이맹전·성담수·남효온·조려·정보·권절에서 출입이 있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성립된 범주로 이해된다. 단종에게 충절을 지킨 신하로 가장 대표되는 범주는 사육신일 것이다. 이는 남효온이 『六臣傳』을 찬술하여 이 여섯 명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바탕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육신’으로 불렸을 뿐 굳이 ‘사육신’으로 칭해지지 않았는데, 실상 사육신이란 개념은 ‘생육신’의 범주가 형성되는 데 대응하여 생겨난 이름이다. 단종이 복위되어 국왕 위상을 회복한 이후에 그에 대한 충절은 목숨을 바친 육신에 국한되지 않게 되면서 죽지 않고 군신관계를 지키고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신료들 역시 충의의 한 표현으로 떠올랐다.⁹⁾

함안 서산서원은 지금 통용되는 이 생육신을 합향한 서원이다. 서산서원 건립을 처음 요청한 사람은 경상도 유학 郭億齡이다. 그는 1703년(숙종 29) 상소에서 조려가 함안의 伯夷山 아래에서 지조를 지키다 죽었으므로 이곳에 계유정난 이후 은거한 여섯 신하를 함께 배향할 사우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대 ‘六臣’으로 불린 河緯地(1412~1456)·成三問(1418~1456)·兪應孚(?~1456)·朴彭年(1417~1456)·柳誠源(?~1456)·李塏(1417~1456) 등을 박팽년을 모시는 대구의 洛濱書院에 합향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⁰⁾

9) 윤정, 앞의 논문, 2010, 55~61쪽.

10)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10월 13일 을유.

그런데 사육신의 사우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곳은 영월의 彰節祠(六臣祠)에서 개칭, 이후 彰節書院)이다. 낙빈서원은 처음 박팽년만을 제향했던 달성 河濱祠에 나머지 다섯 사육신을 추가로 모시고 서원으로 승격한 곳으로, 광역령은 이와 같이 조려의 고장에 서원을 세우기 위해 일부러 낙빈서원의 예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광역령은 조려 현창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조려가 생육신으로 인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조려 및 함안조씨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생육신은 문헌에 따라 그 구성원에 출입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八賢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사육신과 달리 집단으로 범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왔다. 원호는 원주 七峯書院(1624년 건립, 1693년 사액)에 먼저 배향되었고, 이맹전 역시 선산 月巖書院(1630년 건립, 1694년 사액)에 모셔졌다. 성담수는 창녕 勿溪書院(1710년 彰孝祠로 건립)에서, 김시습은 양주 淸節祠에서 제사를 지냈다. 鄭保는 진주(현재 하동) 玉山書院(1715년 世德祠로 건립)에 鄭夢周 등과 합향되었다. 魯山大君의 장릉 근처에 사육신 모두를 합향하는 彰節祠가 세워진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광역령은 『魯陵志』를 전거 삼아, 살아서 의리를 지킨 인물로 원호·김시습·이맹전·성담수·남효온·조려 여섯 명을 제시하였다.¹¹⁾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노릉지』에 조려 없이 정보·김시습·남효온·이맹전·원호·권질 여섯 명이 열거되어 있으며, 광역령이 사육신에 대비되도록 육신의 개념을 가져오되 조려를 넣고자 인물 구성을 조정하였다고 이해하였다.¹²⁾ 또는 조임도가 조려의 절의를 칭송하고 부각하면서 현종대 그의 행적이 『노릉지』에 실렸다고 이해되었다.¹³⁾

11)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10월 13일 을유. “其生而守義者, 有若元昊·金時習·李孟專·成聘壽·南孝溫暨趙旅六人. …(중략)…., 念此六人之事跡顯末, 詳載於故掌令臣尹舜舉所撰《魯陵誌》中, 頃年莊陵復位之日, 聖明亦嘗命而賜覽矣.”

12) 윤정, 앞의 논문, 2010. 60쪽.

13) 김봉곤, 앞의 논문, 2016, 154~155쪽.

그러나 『노릉지』에서 신하들의 행적을 정리한 부록에 따르면, 皇甫仁·金宗瑞·鄭本·許詡·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정보·錦城大君李瑜·김시습·남효온·이맹전·원호·권철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¹⁴⁾ 三相(황보인, 김중서, 정보)과 삼상을 옹호했던 허후, 그리고 육신(박팽년~유응부) 다음으로 일곱 명의 행적이 실려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범주화의 시도라기 보다는 편찬자인 윤순거가 행적을 나름대로 분류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삼상과 허후, 사육신을 차례로 열거한 뒤,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된 정보와 금성대군을 넣고, 이후 출사하지 않고 은거했던 인물을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여섯 명으로 묶으려 한 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死節한 인물 외에도 행적을 인정하고 기술해야 한다는 인식은 윤순거의 『노릉지』에서 드러났으며 이후에도 그 전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순거는 영월군수를 역임하면서 『노릉지』를 편찬하여 생육신 개념에 발단이 된 주요 인물이다. 윤순거는 成文濬에게 학문을 배웠고, 의령현감을 지낸 1652년(효종 3)에는 이웃 고을인 함안에 거주하던 趙任道와 교류하였다. 조임도는 윤순거에게 의령현감을 지내는 동안 의령에 남효온의 사당을 건립하도록 권하였고,¹⁵⁾ 그는 이에 따라 남효온의 사당을 지었다. 성문준은 成渾의 아들이자 조려의 후손 趙堪의 사위로, 이후 조려의 전기 「漁溪先生傳」을 지은 인물이다. 조임도 역시 조려의 5대손으로 함안 지역에 거주하며 함안조씨의 기록을 충실히 남긴 인물이다. 윤순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종 충신들을 기록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역령의 상소로 서산서원이 창건된 이후에 한동안은 서원의 활동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조려를 포함한 여섯 신하를 제향하기는 했지만

14) 尹舜舉, 『魯陵志』(한국학중앙연구원, K2-4418), 「附錄」.

15) 趙任道, 『潤松集』 권2, 「奉呈尹宜寧[舜舉], 勸立秋江祠宇」, “추강의 높은 절개 우리나라에서 으뜸인데도 매몰되어 사우 하나 짓는 사람이 없네. 전하께서 그대를 이 고을에 내려보내셨으니 유림이 그리워하며 남은 교화를 바라네[秋江大節冠吾東, 埋沒無人建一宮, 天遣使君來下邑, 儒林想慕餘風.]”

1784년(정조 8) 합동 연시가 준비될 때까지 이 여섯 인물을 두고 생육신이라 명명하지는 않은 듯하다. 구성원 가운데 조려만 연고가 있는 함안에 창건된 것 또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영조대 八賢祠가 등장하는데, 은거한 신하들 여덟 명을 모두 제향하는 사우로 1732년(영조 8) 영월 장릉 육신사 옆에 창건되었다.¹⁶⁾ 이는 영월 유생과 지역민들이 재물을 모아 지은 것이었고, 1736년(영조 12)에는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¹⁷⁾

청액소를 올린 영월 유생들은 육신과 팔현을 鄭夢周와 吉再에 비견하여, 절의를 위해 죽은 인물과 살아서 절의를 온전히 한 인물로 대비시켰다. 또한 微子·箕子·比干은 행적을 달리했지만 공자가 모두 어진 인물이라 칭송한 점을 들어, 죽음이 삶보다 반드시 훌륭하지는 않고, 삶 또한 죽음에 부끄럽지 않으니 삶과 죽음으로 그 보답을 다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¹⁸⁾ 이렇듯 당대에 은거한 인물을 대상으로도 사절한 인물만큼 현창을 베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영조는 김시습과 남효온의 사우가 이미 있고, 팔현은 스스로 의리에 편하고자 자취를 감춘 선비들이라 하며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팔현의 행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대 서원을 통해 군역을 피하는 폐단을 인식한 것이었다.¹⁹⁾ 이후 팔현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창사업은 나타나지 않는다.

서산서원에서는 새로이 육신에 대한 延謚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생육신의 범주를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은 조려의 후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함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서울과 경상도에 거주하는 함안조씨

16) 李德壽, 『西堂私載』 권4, 「八賢祠記」.

17) 승정원일기 827책(탈초본 46책), 영조 12년 6월 1일 갑자.

18) 승정원일기 827책(탈초본 46책), 영조 12년 6월 1일 갑자, “臣等又按國朝故章, 鄭夢周·吉再, 以王氏故臣, 俱得廟祀. 然夢周, 死而殉節, 再, 生而全節, 聖祖之意, 豈以爲二臣之跡雖殊, 均之爲盡節所事, 則崇報之典, 不宜異同歟. 且三仁之行不同, 夫子竝以仁稱之, 豈不以得其心之所安而無疚乎? 義命則死不必賢於生, 生亦無愧於死歟. 若然, 八賢與六臣, 所謂易地則皆然, 不當以生死而殊其報也審矣.”

19) 승정원일기 827책(탈초본 46책) 영조 12년 6월 5일 무진.

가문의 인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서산서원에서의 생육신 褒贈이 진행되었다. 또한 禮淵書院, 道東書院, 勿溪書院에서 도왔으며,²⁰⁾ 영천의 이맹전 후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하였다.²¹⁾ 광역령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서산서원이 창건되었을 때 郭壽龜(1636~1709)가 서원 봉안문과 고유문을 썼다는 점에서²²⁾ 오랜 시간 함안조씨와 혈연관계를 맺어 온 현풍 광씨 또한 조려의 생육신 조정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조려를 생육신의 일원으로 포장하는 데에는 그 이전 조려의 5대손 조임도가 함안 내에서 함안조씨 인물들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전승해 온 기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임도는 함안조씨의 세계도를 정리하였으며,²³⁾ 함안의 인물을 정리한 『金羅傳信錄』을 편찬하였다. 『金羅傳信錄』을 보면 「漁溪先生傳」과 「大笑軒傳」을 찾아내 실은 것이 눈에 띈다. 「漁溪先生傳」은 조려의 생애를 서술한 것으로 성문준이 지은 것이다. 조임도는 「어계선생전」이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찾았고, 성문준의 아들 成櫟(1580~1651년)이 이를 듣고 1628년 겨울에 베껴서 보냈다.²⁴⁾

「大笑軒傳」은 정유재란 당시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절한 조종도의 행적을 적은 것으로 柳成龍(1542~1607)이 지었다. 조임도는 류성룡의 아들 柳祔(1582~1635년)에게 1631년(인조 9)과 1632년(인조 10) 두 차례 편지를 보낸 끝에 얻을 수 있었다.²⁵⁾ 『金羅傳信錄』 편찬 당시에는 「漁溪先生傳」과 「大笑軒傳」 둘 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조임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임진왜란과 이후 짧은 시기(1592~1603년)의 피란을 제외하고 줄곧 함안과 이웃 군현 漆原·靈山에 머물며 그 조상의 업적을 정리하고 함안의 인물과

20)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4, 延謚儀節【附物目助需】.

21)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又李文龍升龍稷臣仁器仁觀等」.

22) 趙旅, 『漁溪先生集』 권2, 「西山書院六先生奉安告文」; 元昊, 『觀瀾遺稿』 권3, 「奉安文」.

23) 趙任道, 『澗松集』 「澗松先生世系圖」.

24) 趙任道, 『澗松集』 권4, 「漁溪先生傳後跋」.

25) 趙任道, 『澗松集』 권4, 「金羅傳信錄序」.

문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초가 이어져 조려의 9대손 趙榮祐는 『어계선생집』을 다시 편찬하면서 1740년(영조 16) 발문과 묘표를 덧붙였다.²⁶⁾ 이는 1742년(영조 18) 서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당시 조영석과 그의 형 趙榮福은 서울 壯洞(현재 서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려의 증손인 趙庭璽(1558~?)은 자신의 아들 趙塹(1530~1586)과 白仁傑(1497~1579)의 딸을 혼인시켰다. 백인걸의 문인이었던 成渾은 1551년(명종 6)부터 조감과 절친한 친구로 교유하였으며, 조감은 이 인연으로 성혼의 아들 성문준을 사위로 삼았다. 성문준은 장인의 문중인 함안조씨에 관심을 갖고 조려의 생애와 절의를 기록한 「漁溪先生傳」을 짓게 된 것이다.²⁷⁾ 조감은 1556년(명종 11) 아버지를 여의고, 이후 1571년(선조 4) 모친상까지 당하자 삼년상을 마친 후 장인인 백인걸을 모시기 위해 서울로 이거하였다.²⁸⁾ 이로부터 이어진 함안조씨들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조정에 출사하였던 것이다.

조영복은 숙종대 경상도감사·개성유수·한성부윤 등을 역임하였으며 趙重晦를 낳았고, 조영석은 趙重瞻의 아버지다. 조중회와 조중첨은 이후 정조대 서산서원에서의 연시를 중앙에서 주도한 인물들로, 관련된 활동이 『서산연시록』에서 자세히 보인다. 자료의 체재와 작성자, 작성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서산연시록』 구성과 작성자, 작성 시기

序	西山延謚錄序, 趙昺奎 (1922)	
	原序, 趙元中 (1784, 정조 8)	
	序後識, 趙希隆 (1784, 정조 8)	
目錄		
권1	淸謚疏 三首	耕隱李先生請謚上言, 李猶龍, (1781, 정조 5) 漁溪趙先生請謚上疏, 趙重晦, (1781, 정조 5) 觀瀾元先生請謚上言, 元景迪, (1782, 정조 6)

26) 趙旅, 『漁溪先生集』 권2 부록, 「墓表[九代孫榮祐撰]」; 「漁溪先生集跋[趙榮祐]」.

27) 成文濬, 『滄浪集』 권4, 「漁溪先生傳」.

28) 成渾, 『牛溪集』 권6, 「宗簿寺主簿趙君墓誌銘」.

	諡狀 六首	耕隱李先生諡狀, 李福源 (1781, 정조 5) 漁溪趙先生諡狀, 李徽之 (1781, 정조 5) 觀瀾元先生諡狀, 徐有隣 (1783, 정조 7) 梅月堂金先生諡狀, 鄭民始 (1783, 정조 7) 文斗成先生諡狀, 李命植 (1784, 정조 8) 秋江南先生諡狀, 李性源 (1784, 정조 8)
권2	書簡 二十五首	書 趙貞益大郁景泌景潛相朴相憲等 (1781.09.06) 又 新寧縣監趙重瞻 (1781.09.30) 又 李文龍升龍稷臣仁器仁觀等 (1781.12.08) 又 新寧縣監趙重瞻 (1781.12.15) 又 奉朝賀趙重晦 (1782.03.10) 又 新寧縣監趙重瞻 (1782.03.10) 又 元景迪 (1782.03.20) 又 奉朝賀趙重晦 (1782.04.22) 又 李文龍猶龍升龍應龍景範等 (1782.07.01) 又 趙大郁貞益景浩景潛相朴龍慶等 (1782.08.13) 又 新寧縣監趙重瞻 (1783.11.24) 又 趙貞密彥國新慶偶昌相彥元燮等 (1784.01.11) 又 進士趙春慶 (1784.01.13) 又 新寧縣監趙重瞻 (1784.03.12) 又 正言李級 (1784.03.14) 又 新寧縣監趙重瞻 (1784.04.15) 又 趙大郁相鐸新慶元燮彥燮明燮等 (1884.06.15) 又 進士趙春慶 (1784.06.18) 又 進士趙相彥 (1784.09.30) 又 趙衡鎮 (1784.09.30) 又 進士趙相彥 (1784.10.07) 又 新寧縣監趙重瞻 (1784.10.07) 又 新寧縣監趙重瞻 (1784.10.09), 延諡儀節 又 吏曹佐郎曹允大 (1784.11.05) 又【事係延諡故附于此】進士趙春慶 (1758.12.21)
	通章 四首	通章, 相奎復奎瑞奎宅奎晉奎德奎良奎等 (1782.01.10.) 又, 龍溪河會中(이맹전 후손 32명, 조려 후손 32명) (1782.07.01.) 又, 沙村宗人 (1783.02.06) 又, 陶山書院 (1784.01.05)
권3	營軍及各邑校院與士林書簡【語疊事繁只存諸目】	
	詩章	原韻 二十一首
		次韻 二十二首
권4	延諡儀節【附物目助需】 (1784.11.06)	
	跋, 趙翰奎	

이 『서산연시록』은 1784년(정조 8) 11월 6일 이루어진 성담수·남효온·조려 세 사람의 延謚에 대한 기록이다. 김시습의 시호 의정도 함께 준비하고 결정되었지만, 김시습의 연시는 楊州에서 이루어졌다. 시호를 의정하여 대상자의 사가에 시호 교자를 頒賜하는 것을 宣謚라 하고, 후손이 이를 맞이하는 것을 연시라 한다. 본문은 1784년(정조 8) 11월 세 인물의 연시가 끝난 이후 조려의 9세손 趙元中이 서문을 쓰고 성책한 것이다. 이후 1922년 趙昇奎(1846~1931)가 새로 서문을 붙여 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간과 통장의 제목들은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서산연시록』은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은 이맹전, 원호, 조려 각각의 請謚疏와 생육신 여섯 명의 謚狀 및 시호 삼망을 수록하였다. 권2에는 연시를 준비하는 3년 동안(1782~1784) 서울과 경상도(함안, 진주, 산청, 대구, 청송, 영천)에서 함안조씨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편지 25편 및 通章(통문) 4편이 실려 있다. 권3에는 시문 43수, 권4에는 각읍의 향교·서원에서 지원한 물품 및 연시에 소요된 물품을 실었다. 간인은 확인할 수 없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서산서원에서 함안조씨의 충절을 현양하는 서적을 활발하게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서원이 중심이 되어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헌은 통상적인 시호 의정 절차에 따라 시간순으로 정리되었다. 가장 먼저 시호를 요청한 것은 이맹전의 후손 李猶龍으로, 그는 1781년(정조 5) 8월 15일 상소하였다. 이유룡은 함안 서산서원에 배향된 여섯 명은 세상에서 생육신으로 불리며, 그 사적이 『莊陵誌』와 『海東名臣錄』 등 여러 기록에 보이니 이맹전에게 사육신의 전례에 따라 시호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⁹⁾ 이 상언이 받아들여져 9월 21일 이맹전의 증직 및 증시가 허락되었다.³⁰⁾ 같은 달 조

29)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1, 請謚疏「耕隱李先生請謚上言」, “臣之十代祖正言臣孟專, 卽端廟時守義之臣也. 與贈參判臣趙旅, 直提學臣元昊, 贈執義臣金時習, 幼學臣 南孝溫, 進士臣成聃壽, 世所稱生六臣, 而若其事蹟則俱載莊陵誌及海東名臣錄及國朝諸先賢所撰文字. …(중략)… 生六臣節義之重, 一依死六臣爵謚之典, 千萬望良.”

중회는 생육신 가운데 이맹전에게만 시호의 은전이 미친 것은 정사의 흠결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선조 조려에게도 시호를 내려달라 요청하였다.³¹⁾

이유룡과 조중회가 연이어 상소한 것은 함안조씨와 벽진이씨 문중에서 함께 세운 계획이었다. 9월 6일 청송에 거주하던 함안조씨들이 이유룡의 상언 초안과 해조의 복계를 베껴보내 회람하도록 하였다.³²⁾ 또 조중회는 이유룡의 상언에 따라 조려의 청시소를 준비하였다.³³⁾ 이유룡은 같은 해 12월 8일, 두 집안의 정분이 한 집안과 같고 이맹전과 조려 두 현인의 현창이 결정되었으니 연시를 준비하여 함께 축하하자는 편지를 보내왔다.³⁴⁾ 이는 청송의 함안조씨들과 영천의 벽진이씨들이 본래 왕래하였고, 또 조중침이 1773년(영조 49)부터 1776년(영조 52)까지 新寧縣(현재 영천시 신녕면)의 현감으로 부임하면서³⁵⁾ 인근의 이맹전 후손들과 교유관계를 형성하였던 결과로 여겨진다.

청시소 다음으로 서산서원에 제향된 여섯 인물의 시장이 수록되었다. 본래 시장은 요청하는 후손 측에서 文任을 지낸 인물에게 부탁하여 짓는 것인데, 자손이 없는 남효온·김시습·성담수를 위해 정조가 직접 문임의 여러 신하들에게 짓도록 명한 것이었다.³⁶⁾ 이에 따라 김시습의 시장은 鄭民始(1745~1800), 남

30)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9월 21일 경신.

31)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9월 29일 무진: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1, 請謚疏「漁溪趙先生請謚上疏」, “臣先祖 贈參判臣旅, 一依故正言臣李孟專, 例特許贈謚之典, 使聖朝褒忠之政, 無或闕遺.”

32)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又 趙貞益大郁景泌景潛相朴相憲等」. “茲以書告, 而李氏上言草及該曹覆啓, 竝爲謄送. 輪照後或因便有回眎之路耶.”

33)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又 新寧縣監趙重瞻【居京壯洞】」.

34)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又 李文龍升龍稷臣仁器仁觀等」, “兩地埴分, 便同一室, 隔江人事, 恨未得源源, 不審窮律. …(중략)…., 就先祖耕隱公暨先生漁溪公兩賢爵謚之典, 恨未蒙洛濱宣謚之日矣. 百年公議不泯, 兩家恩數有待, 適幸今年, 一時竝判, 爲子孫榮幸, 如得不世事. …(중략)…., 延謚之節, 似在不遠, 此時同慶”

35) 『新寧郡邑誌』(奎 10833) 「官蹟」.

36) 승정원일기 1508책(탈초본 82책), 정조 6년 4월 19일 을유, “命植曰, 南孝溫·金時習·成聃壽三人, 旣無子孫, 故亦無謚狀, 不得舉行, 若以樹風礪世之道, 自有別般下教, 則可以同爲舉行矣. 上曰, 何待謚狀? 以其文集所載, 撰出謚狀, 亦可矣. …(중

효온의 시장은 李性源(1725~1790), 성담수의 시장은 李命植(1720~1800)이 작성하였다.³⁷⁾ 1781년~1784년 사이 작성된 이 청시소와 시장들에서는 ‘생육신’이라는 명칭이 공공연하게 등장한다. 함안 서산서원을 중심으로 여섯 인물을 ‘생육신’으로 현창하려는 의식이 공유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함안조씨들은 연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월의 창절사와 대구의 낙빈서원과 같이 생육신 전원의 연시를 서산서원에서 일체 추진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다.³⁸⁾ 그 과정에서 후손이 없는 세 인물에 대한 시호 의정도 함안조씨가 주선하게 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1782~1784년 조중회와 조중침을 중심으로 함안 서산서원에서의 생육신 연시를 준비하고 논의한 과정을 추적하고, 추후 서원의 활동과 의미를 살펴본다.

Ⅲ. 서산서원 합동 延謚 거행과 의미

조중회는 1781년(정조 5) 조려의 시호를 요청한 이후 서산서원에서의 연시를 준비한다. 조려의 10대손인 조중회는 1781년(정조 5) 앞서 광역령이 상소했던 여섯 인물을 ‘생육신’의 이름으로 포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³⁹⁾ 그는 1736년(영조 12)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폐서인하고 뒤주

략)…, 上曰, 令文任諸臣, 分製謚狀, 誠爲得宜矣.”

37) 정조는 홍문관·예문관·규장각 출신의 전, 현직 당상관이 시장을 짓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관을 지내고 학문과 문장을 겸한 인물이 제술하면 무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장 찬자에 대한 항목은 『弘文館志』로 정리되었다. 김현지, 「17세기 謚狀의 출현과 의미」, 『대구사학』 146, 2022. 182쪽.

38) 대구에 거주하던 趙春慶이 낙빈의 謚宴에 참여하고자 서산서원에서도 이러한 연시를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낙빈서원에 宣謚官을 파견한 기록이 없고, 사육신의 연시는 창절사에서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 언급된 시연은 박팽년 집안에서 사적으로 열린 연회로 생각된다.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又【事係延謚故附于此】進士趙春慶」.

39)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9월 29일 무진.

에 가둘 때 승지로 입사하여 그 교지를 읽어야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조중회는 14년을 신하로 섬겼기 때문에 교지를 읽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무장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영조는 이를 두고 ‘거센 바람에 굳센 풀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조중회를 이르는 것이다.’라 높게 평가하였다.⁴⁰⁾ 이후 조중회는 개성부유수·대사헌을 거쳐 판서직을 역임하였으며 정조대에는 봉조하가 되었다.

조중회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비호하였을 뿐 아니라 영조 말년 외척과의 대립에서 정조의 편에 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이조판서였던 조중회가 정조의 측근인 李鎭衡(1723~1781)과 洪國榮(1748~1781)을 세자시강원의 弼善과 司書로 임명하여 보호하였다.⁴¹⁾ 정조는 不事二君의 의리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충신을 발굴하고 현창하였다. 조중회의 서산서원 연시 추진은 정조의 의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조중회 자신이 사도세자를 비호한 군신의리를 지니면서, 서산서원에 배향된 여섯 명 역시 절의로 표상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1784년(정조 8) 이루어진 서산서원 연시는 처음 조중회와 조중첨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조중회는 처음 1781년(정조 5) 9월 29일 선조 조려에 대한 贈諡를 상소하여 허락을 받았고,⁴²⁾ 같은 해 11월 20일 ‘貞節’이란 시호가 낙점되었다.⁴³⁾ 그 이전 9월 6일부터 해가 가기 전에 연시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맹전의 집안과 달리 조씨의 후손들이 쇠잔하다는 이유로 우선 각지에 흩어진 이들에게 통문을 보내도록 준비하였다.⁴⁴⁾ 이후 영천에 거주하는 이맹전의

40)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4월 30일 병신. “壬午禍變, 以承旨入侍, 命宣諭傳教. 泣對曰, 臣於十四年臣事之地, 不忍讀此教也. 嚴教謫茂長, 未幾賜還. 英宗常曰, 疾風知勁草, 趙某之謂也.”

41) 강창규, 앞의 논문, 2022, 281~282쪽.

42) 趙旅, 『漁溪先生集』 권3, 부록 「請諡疏 正宗, 辛丑. 十世孫判書重晦」;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9월 29일 무진.

43)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11월 20일 무오.

44)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趙貞益大郁景泌景潛相朴相憲等」.

후손들 및 원주에 거주하는 원호의 후손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호와 이맹전은 따로 연시를 거행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후손이 없는 김시습·남효온·성담수에 대한 시호 의정 및 교지는 중앙의 조중회가 담당하기로 하였다.⁴⁵⁾

1782년 3월 10일에는 함안이 서울에서 너무 멀어 연시를 거행하기에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다. 조중회는 함안에 모여 연시를 준비하게 된다면 집안에 수령이 없어 담당할 만한 이가 없고,⁴⁶⁾ 수천 금 이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물을 거둔다면 향족들이 가난해질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서울에서 거행할 수 있다면 자신이 600~700금을 내어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⁷⁾ 조중침도 宣謚에 파견될 전랑의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여 지방까지 나갈 수 없다는 실정을 밝히면서, 당시 이미 紙榜을 써서 행례하는 것이 관례화되었으므로 서울에서 거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⁴⁸⁾ 연시는 원칙적으로 신주를 모신 곳에서 해야 하지만 18세기 후반에는 전랑을 파견하는 어려움이나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任地나 묘소, 또는 서울의 사가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45)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李文龍升龍稷臣仁器仁觀等【居永川】」; 「又 元景迪【居原州】」.

46) 『西山延謚錄』에서는 조중침을 新寧縣監으로 쓰고 있지만, 1773년 부임했다가 1776년에 이미 죄를 입고 갈린 상태였으며 성책 및 편지할 때 최근의 관직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新寧郡邑誌』(奎 10833) 「官蹟」(25면). “趙重瞻, 癸巳赴任, 丙申拿遞.”

47)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奉朝賀趙重晦【居京壯洞】」. “延謚事一門盛舉, 固不宜一時遲緩, 而以物力言之, 則在京子孫, 姑無作宰擔當者, 別欲收斂, 則貧殘鄉族實多有悶憐者, 然以處所言之, 至於咸安, 則銓郎萬無下往之, 望於京, 則遐鄉斂物取, 而來之, 不但有弊, 亦多有難便者. 方此趙趙, 多小酬酢, 此來宗人, 似可以口傳矣. 然既未得行於去夏, 則第依所教, 趁秋成收聚, 以置更俟京報, 而進退之如何. 至於數交多寡, 在鄉設判, 似不下數千, 而若欲設行於京中, 闊狹在我, 能六七百金庶可爲之耳.”

48)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新寧縣監趙重瞻」, “從兄書已盡此來, 族姪似當細達矣. 近來銓郎通望者不過三四人, 皆兼閣職不能一刻暫離, 故畿伯家延謚, 定於今初六, 凡百皆已設施一日之內, 不免狼狽, 咫尺之地, 猶尚如此, 況八百餘里之地乎. 侍往一節, 斷無其望, 紙榜行禮, 既是通行之事, 在京宣謚, 亦無不可, 而無論多少, 斂而來設, 實多難處者, 未知何以則爲好耶.”

그런데도 조중회는 후손이 없는 셋까지 똑같은 포증을 입어야 하니 서원에서 연시를 행해야 하며, 서울에서 써 올린 세 선생의 교지를 본원에 부쳐 보내겠다는 편지를 4월 22일에 보내왔다.⁴⁹⁾ 그런데 며칠 후 조중회가 사망하는 바람에,⁵⁰⁾ 이 일련의 논의들은 1년 넘도록 중단되었다. 그 이후로는 趙春慶(1714~1786)과 조중침이 일을 이어받아 진행하였다. 조춘경은 사도세자가 사망하자 대구로 낙향하여 벼슬하지 않은 인물로, 崔興遠(1705~1786)과 같이 교유하며 대구향교와 研經書院의 일에 관여한 인물이다.

12월 21일, 조춘경은 서산서원에서의 연시는 영월 彰節祠에서 거행된 사육신 연시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전례인데 해가 지나도록 논의가 멈춰있으니 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통문을 보냈다. 조춘경은 이 일을 유림에게 전적으로 맡겨서도 안 되고 자손의 반열에 있는 자가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 우선 청송 및 함안과 진주의 집안 사람들에게 通告하도록 하였다.⁵¹⁾ 그러나 조중회의 부재로 중앙에서의 시호 의정을 위한 움직임이 멈추었을 뿐 아니라 도성 밖으로 나갈 전력이 없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 1783년(정조 7) 11월 17일 李滉(1501~1570)의 형인 고 참판 李瀾

49) 趙元中, 『西山延誼錄』 권2, 書簡 「又 奉朝賀趙重晦」, “六先生諡號事, 自昨冬, 先祖及耕隱蒙恩以來, 每以四先生之未及均被褒贈, 爲至恨, 頃因觀瀾子孫之上言, 回啓, 自上命就議大臣, 以稟而竝蒙特允, 無子孫家諡狀, 至命文任諸臣, 分受製進, 待其製呈, 早晚可以議諡, 幾百年未遑之典, 今將第次并舉, 此不但爲其子孫之私慶, 實是士林之一大幸也. 延諡一事, 諡號出後, 從當相報, 而茲送委告, 此由耳. 三先生教旨, 既無後孫, 故自此處書呈, 該曹安寶後, 當從信便付送本院, 以爲藏置之地耳.”

50)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4월 30일 병신.

51) 趙元中, 『西山延誼錄』 권2, 書簡 「又【事係延諡故附于此】進士趙春慶」, “寧越彰節祠宣諡事實, 是曠世盛典, 斯文有光, 士林同慶, 推此而西山書院宜有次第之典. 何幸僉宗大發論設疏叫闕甚盛舉也. 非但士林之慶榮光, 祖宗其爲欣頌當如何. 第事巨力綿, 且不可遷延時日, 其何以經紀也. 似不當專委之於儒林, 其在子孫之列者, 疇不敢聳動拔例, 而散在各處, 未由趁速相知, 恐未免臨時窘急之弊, 其將奈何. 青松當自此通告爲計, 其無浮沈, 何可必也. 四界首通文, 亦當自本校轉諭耳. 此來族從綏之, 遠涉數百里委參洛濱, 諡宴眞所謂百年世誼, 其在瞻聆何等欣幸. 疏行未發之前, 似當有往來之便, 暫此忙候.”

(1496~1550)의 연시가 결정되었고, 정조가 이에 맞춰 이황에게도 추가적으로 치제를 행하라는 특교를 내렸다.⁵²⁾ 서울에서 조중회의 小祥까지 마친 조중첨은 이 소식을 접하고 11월 24일 서산서원으로 편지를 보내 중단되었던 연시에 필요한 물품을 다시 모으게 하였다. 국왕의 특교로 치제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랑이 鳥嶺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부탁하여 함안에서의 연시까지 치르자는 내용이었다.⁵³⁾

이 소식은 도산서원에도 전해졌다. 도산서원에서는 1784년(정조 8) 1월 5일, 서산서원에서 보내온 편지에 답장하였다. 서산서원에 제향된 여섯 선생의 증시가 일제히 허락된 것을 축하하고, 전랑이 곧 도산면 온혜리의 진성이 씨종택에 올 것이니 조씨 문중에서는 신속히 서울에 사람을 보내 시호를 낙점하는 것까지 주선하도록 권하였다.⁵⁴⁾ 이는 시호를 선포할 전랑이 한 번의 여정으로 도산서원을 지나 서산서원까지 가도록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어 1784년(정조 8) 3월 11일 이해에게는 ‘貞愍’, 증이조판서 김시습에게 ‘淸簡’, 증이조판서 남효온에게 ‘文貞’, 증이조판서 성담수에게 ‘靖肅’, 전 직제학 원호에게 ‘貞簡’의 시호가 결정되어 내려졌다.⁵⁵⁾ 다음날인 12일 조중첨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서울에서 거행할 수밖에 없으니 100금 이상의 재물을 마련해 두도록 당부하고, 자신은 이해 집안의 李紱(1721~1790)과 계속 연

52)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11월 17일 갑진.

53)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新寧縣監趙重瞻」, “延謚事, 尙今遷就. 雖因事勢而子孫之抑鬱, 士林之慨然, 固已久矣. 近者, 本道儒疏以故參判李公贈謚事, 仰請自上特許之命, 宣謚之日, 致祭於退溪先生. 其舉行早晚姑不可知, 而銓郎似當踰嶺, 然則因此會, 欲請轉往本院, 以爲迎恩之地, 未知如何. 但物力猝難, 收聚幸望, 商議預爲留念如何. 秋江謚狀, 姑未到館, 而其前若一體議謚則幸矣.”

54)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通章 「又」, “貴院六先生易名之典, 一體蒙允, 次第議謚. 凡在遠近章甫, 孰不爲之欣抃而相賀耶. 近者鄙鄉溫溪李先生, 因儒疏陳請, 幸蒙特典, 成命卽下, 大低抵皆曠世異數. 其爲慶幸, 當顧何如. 而第以中書闕員, 姑未議謚蒙點, 不知延謚之日, 正在何間. 然早晚銓郎宣謚溫惠本家後, 仍宣貴院之謚, 則實爲兩便, 來諭誠得之矣. 此則惟在僉尊先期入京, 相宜周旋之如何.”

55) 『정조실록』 권17, 정조 8년 3월 11일 병신.

락을 주고받으며 전랑이 언제 하직하고 떠날지 살펴 알려주기로 한다.⁵⁶⁾ 이후 10월까지의 계속 돈과 물목을 모으고, 마침내 10월 11일 전랑이 서울에서 출발하여 원주(원호 연시)와 예안(이해 연시)을 들른 후 10월 30일 함안에 당도하여 11월 2일 연시를 거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⁵⁷⁾

10월 9일에는 조중첩이 서산서원에 두고 볼 수 있도록 연시의절을 1부 베껴 보내주고 연시를 거행한 이후에는 들인 돈과 물목을 베껴 보관하도록 하였다.⁵⁸⁾ 결과적으로 비바람이 심하여 전랑이 11월 5일 함안과 이웃한 칠원현에 도착하였고,⁵⁹⁾ 연시는 다음날인 6일에 조려, 남효온, 성담수 세 인물을 대상으로 거행되었다.⁶⁰⁾ 중앙의 조중회와 조중첩이 핵심적으로 추진하였지만, 함안 내의 재지사족뿐 아니라 德淵書院, 道東書院, 禮淵書院, 勿溪書院 등 서원과 인근 향교의 유림들 대부분이 助需를 보내왔으며, 창녕성씨, 현풍곽씨, 의령남씨, 진양하씨 문중 등이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육신에 대응하는 六臣, 六賢으로서 조려를 포함하는 생육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는 함안조씨 내에서 족보

56)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新寧縣監趙重瞻」, “延謚事, 昨冬書盡之諸謚號, 昨日政已爲下批. 李判書家之奉請, 銓郎雖未知的在何時, 而自此探其下往之期, 雖欲請其轉往西山, 而尚未知其處消息. 既無延謚物力, 則遽然請行於銓郎, 恐有使人狼狽之慮, 今方渴待其處所教耳. 無論多寡, 錢物收聚然後, 可以設施矣. 雖請銓郎而行, 自此所可備去者, 如謚號紙·禮幣等物, 可入近百金耳. 若失此會, 則不論早晚, 勢當在京行之, 幸望雖專件必於今朔內, 下示之如何. 爲此更爲書付邸吏, 未知何時, 當入達否也. 姑不備, 伏惟諸謚望書呈.”

57)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趙相彥」, “延謚事, 幸得如意, 出場今日, 文科唱榜後, 銓郎即爲辭陛, 十一日乘馬, 次第宣于原州·禮安·寧海, 晦日當到本郡, 以爲初二日行禮, 事之如許速成, 實非始慮之所到一門之慶幸, 莫此爲大. 方會壯洞新寧宅, 書成謚號教旨, 欲以今日安寶, 襍函等物, 亦俱成京宗之用意, 實非偶然. 行禮時, 銓郎及資備官幣物, 新寧寺侍記草送之, 可依此爲之. 第念事甚急迫責應, 凡節得無窘窒之患耶. 惟望各自惕意, 使大禮利成, 豈非吾宗之幸耶.”

58)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延謚儀節」.

59)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吏曹佐郎曹允大」.

60)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4, 「延謚儀節【附物目】」.

의 편찬 및 보완이 여러 차례 일어나던 때로, 각파의 草譜를 모아 인원과 재물을 모으는 바탕으로 삼았다.⁶¹⁾ 이렇듯 경제적·지리적 문제가 컸을 뿐 아니라 중앙에서의 일처리를 전임했던 조중회가 사망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마침내 함안까지 전랑을 불러와 선시 및 연시를 거행하게 된 것이다.

紙榜을 써서 서울에서 행할 수 있음에도 함안의 서원에서 행하고자 한 것은 여섯 인물의 현창을 一體의 의식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의식을 함안조씨 가문이 공유하고 있었던 데에서 기인하였다. 특히 조려의 시호는 1781년(정조 5) 이미 결정되었음에도 후손이 없는 셋의 시호 의정을 주도하며 3년을 기다리면서 宴需에 필요한 재물까지 함안조씨 가문에서 주선한 것은 조씨 가문이 이 ‘생육신’의 범주화를 주도했던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다.

1784년 이후 서산서원에서는 『咸安趙氏十忠實錄』을 간행하였는데,⁶²⁾ 생육신의 연시를 주도하면서 함께 준비한 것이었다. 조종도의 후손인 趙輝晉은 1784년 10월 蔡濟恭을 방문하여 『咸安趙氏十忠實錄』의 서문을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⁶³⁾ 진양에 거주하던 조휘진은 같은 시기 청송과 함안을 왕래하며 전랑의 일정을 전달하고 연시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한 인물이다.⁶⁴⁾ 1794년

61)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 「又 趙貞益·大郁·景泌·景潛·相朴·相憲等」. “望須擺萬來會得免緯繯, 而乙未各派草譜收來, 以爲考據廟才之地, 切仰切仰. 此奇即通于龍山召南, 俾無踴躍之幣, 如何. 今年備無之災天地同然, 大事經紀之道, 甚難而如許莫大之慶, 不可泛忽, 各自另意圖之是望耳. 壯洞喪事, 不但邦國之不幸, 當此斯文有事之時人事之變, 良可痛悼.”

62) 『咸安趙氏十忠實錄』은 함안조씨 출신 열 명의 충신에 대한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조려·趙鵬·趙邦·조종도·趙俊男·趙信道·趙敏道·趙凝道·趙善道·趙繼先을 이른다. 이 책의 서문을 蔡濟恭이 1784년 작성하였으므로 간행은 그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蔡濟恭, 『樊巖集』 권33, 「趙氏十忠錄序」.

구지현은 이 책이 함안조씨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우지역의 공문을 제고하고 이 지역 남명학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편찬되었다고 보았다. 구지현, 『東窩 趙輝晉의 생애와 강우 지역에서의 활동』, 『남명학연구』 60, 2018, 150~154쪽.

63) 蔡濟恭, 『樊巖集』 권33, 「趙氏十忠錄序」; 권33, 「送趙文然【輝晉】歸德川序」.

(정조 18)에는 趙坦·趙亨道·趙壽千 세 사람을 추가하여 『咸安趙氏十三忠實錄』을 인출하였다.⁶⁵⁾ 그리고 송정서원에서는 조임도의 『금라전신록』을 1813년(순조 13)에 간행하는 등 18~19세기 함안조씨 인물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선조의 행적을 기록한 판본을 다수 간인하였다.

이러한 함안조씨 출신 인물들의 현창 양상은 당시 함안군 읍지류 저술에 서도 나타난다. 1587년(선조 20) 鄭述(1543~1620)가 편찬한 현전하는 最古의 사찬읍지인 『咸州志』 인물조에는 오히려 조려가 빠져 있고 조려의 아들인 趙銅虎를 조열의 증손이라고만 쓰고 있다. 또한 실고 있는 함안조씨 인물들은 趙烈, 趙悅, 조동호, 趙金虎, 趙舜, 趙參, 趙績의 일곱 사람이며 묘소조에서도 조려의 묘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1786년(정조 10) 편찬된 『咸安郡邑誌』(奎 17452)에서는 정구가 『함주지』를 편찬할 때 빠진 조려를 추가하고 조려가 지은 시문도 題詠조에 수록하였다.⁶⁶⁾

또 읍지류 자료의 山川조가 주목되는데, 처음 광역령이 1703년(숙종 29) 서산서원 건립을 요청하는 상소에서 조려가 지조를 지키다 죽은 곳에 마침 백이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설명하였다.⁶⁷⁾ 그런데 『함주지』에는 雙岸山이라 되어 있고 조임도가 1618년(광해군 10) 지은 朴齊仁의 만사에서도 쌍안봉이라 적고 있다.⁶⁸⁾ 이후 1656년(효종 7) 『東國輿地志』 경상도 함안군 항목에서도 백이산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1738~1743년 함안군수로 재직했던 李德熙가 증보한 『함주지』에서 서산서원의 주산인 백이산의 옛이름이 雙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⁶⁹⁾ 정조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읍지 편찬과 金正

64) 趙元中, 『西山延謚錄』 권2, 書簡「又 進士趙相彥」; 「又 趙衡鎮」.

65)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2009. 319쪽 참고.

66) 『咸安郡邑誌』(奎 17452) 「人物」; 「墓所」; 「題詠」.

67)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10월 13일 을유.

68) 趙任道, 『간송집』 권2 「挽朴簞巖【齊仁】」, “雙岸峯高鼎水清, 孕精千載碩人生, 聞風山海明趨向, 味道林泉養性靈, 晚節微官那稱德, 幽貞事業只窮經, 斯文遽喪吾安仰, 執紼佳城涕自零.”

浩의 『大東地志』(1861~ 1866년 추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⁷⁰⁾ 이는 조려의 사적이 추송되면서 그 행적을 백이·숙제에 비견하며 산이름을 바꿔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백이와 숙제는 17, 18세기 이미 조선에서 충절의 상징으로 표징되고 있었지만, 이를 조선 최초로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물은 생육신 김시습이었다. 김시습은 「伯夷叔齊贊」과 「古今君子隱顯論」을 지었는데,⁷¹⁾ 이는 조선시대 백이 숙제 담론의 초기적 모습일 뿐 아니라 은일로 점철된 김시습의 내적 토대를 잘 표방하였다고 평가된다.⁷²⁾ 김시습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육신의 일원인데다, 조중화와 조중침이 김시습의 연시를 함안에서 같이 거행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생육신으로 현창하기에 근거가 약했던 조려의 사적에 김시습으로 대표되는 백이 숙제의 명칭을 끌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서원의 명칭을 ‘西山’으로 정한 것과 서산서원 곁에 採薇亭을 지은 것 모두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⁷³⁾

함안조씨 가문은 조선중기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자신의 선조 조려를 단종조 충신, 생육신으로까지 현창하여 범주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려가 나고 자란 함안에 서원을 건립하고 나머지 육신의 위패도 함께 봉안하였으며, 후손이 없는 김시습·남효온·성담수의 시호 의정과 연시 비용까지 주선하며 함안에서의 합동 연시를 거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함안 출신 조려는 의심의 여지 없는 생육신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후 후손들은 다

69) 鄭述, 『咸州志』 권2, 前集 「山川」.

70) 『함안군읍지』(奎 17452) 「山川」, “伯夷山【舊名雙岸, 在郡西二十五里. 雙峯對峙, 故名焉. 晉州長安嶺來.】”; 『大東地志』 권10, 경상도 함안, “伯夷山, 一名雙岸. 西南二十里, 晉州界, 雙峯對峙, 清秀.”.

71) 金時習, 『梅月堂集』 권19, 「伯夷叔齊贊」; 권18, 「古今君子隱顯論」.

72) 이홍식, 「매월당 김시습의 백이 이해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7, 2013.

73) 조선초기부터 백이·숙제와 건주어 충절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인물로 吉再가 대표적이다. 16세기 이후 선산 및 인동 지역에 길재의 충절을 기리는 서원과 그를 백이·숙제에 비견하는 採薇亭 등이 건립된 점도 참고된다. 임근실,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한국서원학보』 15, 2022.

른 선조들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함안 내 자신들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서산서원에서의 연시는 조상 또는 스승의 현창을 위해 청시 운동을 기획하고 시호를 받드는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로 서원이 활용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이는 19세기 이후 서원을 중심으로 청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래 연시는 후손의 私家 또는 任地에서 이루어지다가 조선후기부터는 서원과 사우에서도 연시 거행이 허락되었다. 여러 인물에게 한꺼번에 연시한 사례는 이 생육신의 서산서원과 사육신의 창절사만 확인되며, 이 두 사례가 19세기 서원에서 거행된 연시례의 전례가 된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상으로 함안조씨 가문을 중심으로 서산서원이 건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함안조씨 인물들이 활동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함안 서산서원은 처음부터 조려의 사적을 현양하기 위하여 건의되어 창건되었다. 그 과정에서 六臣, 八賢, 六賢 등 다양하게 불리며 확정되지 않았던 ‘生六臣’의 범주가 결정되었다. 본래 조려는 기록자와 문헌에 따라 육신에 출입이 있었던 인물이지만, 생육신 합향 서원으로서 서산서원이 건립·사액된 이후로는 그 위상이 굳건해졌다.

조려를 생육신에 포함하여 서산서원을 창건하고 사액 받은 이후 70년이 지나 봉조하 趙重晦, 趙重瞻에 의해 서산서원에서의 생육신 합동 延謚가 추진되었다. 연시란 본래 시호를 받드는 후손의 私家에서 거행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서원에서 다른 인물들과 함께 시호 교지를 받고자 한 것이다. 이는 서산서원의 창건으로 조려가 생육신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데서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함안조씨 인물들이 협력하여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 마무리 작업으로 생각된다. 함안은 서울에서의 거리가 매우 멀어 전랑이 와야 하는 국가전례를 행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또 후손을 남기지 못한 세 인물

(김시습, 성담수, 남효온)의 연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함안조씨 인물들은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조려의 포증을 생육신 일체의 의례로 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연시 비용을 각 지역의 집안에 통고하여 거두어 부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려의 시호는 낙점되었음에도 3년 동안 연시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장 작업을 바탕으로 서울에 자리 잡은 함안조씨 집안은 지역(함안)에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함안조씨 또한 이에 호응하여 자신의 선조를 생육신의 일원으로 공고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업적이 있는 다른 선조들을 집중적으로 현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8~19세기 함안조씨 충신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많은 출판물들이 서원에서 인출되었다.

서산서원은 애초에 조려의 고장에 조려의 사우를 세워 그에 다른 육신의 위패를 봉안하도록 요청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또 생육신 포장이 연시라는 의례로 완료된 이후에도 함안조씨 인물들만이 주로 현창되었음을 보아, 함안조씨 주도로 자신의 선조들을 현창하려는 의도로 건립되었다고 보인다. 더불어 서원이 강화과 제향뿐 아니라 선조 또는 스승에 대한 현창의 무대로서, 청사를 기획하고 연시를 거행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조임도의 『금라전신록』 및 『함안조씨십충실록』 등에 기재된 조씨 인물들은 대다수 지역의 충신으로 인정되어 읍지에도 추가되었다. 국가로부터 사우를 지어 배향되도록 허락되는 인물들도 다수 증가하였다. 또한 서산서원을 낀 쌍안봉이 18세기를 지나며 백이산 숙제봉으로 명칭을 달리한 것 역시 절개를 지킨 조려를 높이고, 덧붙여 백이 숙제 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생육신 김시습의 명망을 빌려온 것이라 생각된다.

조중회·조중침 등 중앙의 함안조씨 인물들과 지역의 함안조씨 인물들이 상호 조응하여 함안에서의 생육신 제향 및 포증이 완료되었다. 서울로 올라온 조중회 집안은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또한 이에 호응하여 자신의 선조를 생육신의 일원으로 공고화할 수 있었다. 이후 함안조씨 인물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처음 조려의 사적을 정비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하여, 서산서원에서의 생육신 포증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함안조씨 인물들만이 주로 현창되었다는 점에 서 산서원은 함안조씨 선조들을 현창하려는 의도 아래에 건립 및 확장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연시를 추진한 것은, 중앙과 지방에 포진해 있던 함안조씨 인물들이 함께 주도하여 조려를 생육신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작업이 완료되었고, 이를 훗날에도 확실히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1. 원전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西山延謚錄』(한국학중앙연구원, PB9C-75)
『魯陵志』(한국학중앙연구원, K2-4418)
『梅月堂集』
『漁溪先生集』
『牛溪集』
『澗松集』
『西堂私載』
『觀瀾遺稿』
『觀我齋稿』
『咸州志』
『大東地志』
『咸安郡邑誌』(奎 17452)
『新寧郡邑誌』(奎 10833)

2. 논문

- 구지현, 「東窩 趙輝晉의 생애와 강우 지역에서의 활동」, 『남명학연구』 60, 2018.
김성희, 『朝鮮 肅宗의 君臣義理 定立과 尊周大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강창규,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본 생육신-漁溪 趙旅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3, 2022.
김봉곤, 「生六臣 漁溪 趙旅의 生涯와 追崇」, 『남명학연구』 49, 2016.
김현지, 「17세기 謚狀의 출현과 의미」, 『대구사학』 146, 2022.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2009.
윤정, 「숙종대 단종 추복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2, 2004.
윤정, 「정조대 단종 사적 정비와 ‘군신분’의 확립」, 『한국문화』 35, 2010.
윤정, 「18세기 ‘단종제신’ 포장의 확대와 ‘生六臣’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2010.

- 이홍식, 「매월당 김시습의 백이 이해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7, 2013.
- 임근실,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한국서원학보』 15, 2022.
- 지두환, 「漁溪 趙旅(1420~1489)의生涯와影響」, 『한국민족문화』 2, 1989.
- 허권수, 「咸安趙氏의 咸安 定着과 大笑軒 家門」, 『남명학연구』 38, 2013.

Abstract

The Role of Haman Seosan Seowon (西山書院) in Honoring Cho Ryeo (趙旅)

—Focusing on the Seosan Yeonsirok (西山延諡錄)—

Kim, Hyeon-ji*

Haman Seosan Seowon (西山書院) is the first Confucian academy (seowon) to jointly enshrine six members of the Saengyuksin (生六臣, six living ministers): Won Ho (元昊), Kim Si-seup (金時習), Yi Maeng-jeon (李孟專), Seong Dam-su (成聘壽), Nam Hyo-on (南孝溫), and Cho Ryeo (趙旅). This seowon was established in 1703 (the 29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and officially recognized in 1713 (the 39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In 1784 (the 8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a joint posthumous title conferment (yeonsi, 延諡) ceremony was held at this seowon for three members: Seong Dam-su, Nam Hyo-on, and Cho Ryeo. Posthumous title conferment ceremonies (yeonsi, 延諡) traditionally involved descendants receiving the royal decree of posthumous titles (siho, 諡號) in a private residence (saga, 私家) or at the deceased's place of office (imji, 臨地). Thus, the rare occurrence of multiple individuals receiving posthumous titles simultaneously at a seowon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this event. The yeonsi at Seosan Seowon was conducted with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Haman Cho clan (Hamanjossi, 咸安趙氏)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and the local gentry of Gyeongsang Province (jaejisajok, 在地士族). Other prominent clans, including the Changnyeong Seong clan

* Ph.D. candidate participating in BK21four, Department of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hj941010@gmail.com

(Changnyeongseongssi, 昌寧成氏), Hyeonpung Gwak clan (Hyeonpunggwakssi, 玄風郭氏), and Jinju Ha clan (Jinyanghassi, 晉陽河氏), cooperated, and descendants of Yi Maeng-jeon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preparing the ceremony. The entire preparation and proceedings of the ceremony were recorded in the Seosan Yeonsirok (西山延謚錄).

This effort was part of the Haman Cho clan's project to elevate the status of Cho Ryeo, whose recognition as a member of the Saengyuksin was relatively weak compared to figures like Kim Si-seup or Nam Hyo-on. Ultimate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eosan Seowon and the yeonsi ceremony, Cho Ryeo solidified his position as an undisputed member of the Saengyuksin. Following this, the loyalist achievements of the Haman Cho clan were extensively honored, centering around the Haman region. As part of this process, members of the Haman Cho clan were enshrined at various seowons across the Gyeongsang Right Province (Gyeongsangu-do, 慶尙右道). Publications such as the Haman Cho Clan's Ten Loyalists' Records (Hamanjossisipchungshillok, 咸安趙氏十忠實錄) were produced to commemorate their deeds, and the content of local gazetteers (eupji, 邑志) in the Haman area was also revised. Through these successive projects, the Haman Cho clan not only enhanced their ancestors' status but also consolidated their regional base. Similarly, King Jeongjo supported this endeavor to reinforce his loyalist faction and align with the broader societal emphasis on integrity and loyalty.

Key word : Seosan Seowon(西山書院), Seosan Yeonsirok(西山延謚錄), Cho Ryeo(趙旅, 1420-1489), Saengyuksin(生六臣), Haman Cho Clan(咸安趙氏)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조선 후기 陽谷 吳斗寅의 추모와 정치적 위상 — 德峰書院을 중심으로 —

김 우 진*

- I. 머리말
- II. 생애와 활동
- III. 사후 追慕와 褒獎
- IV. 오두인·오두인 가문과 덕봉서원의 정치적 위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 후기 吳斗寅을 배향하고 있는 德峰書院은 1871년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서원철폐령’에도 47개의 하나로 존치하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대인들이 오두인이라는 인물과 덕봉서원이라는 공간이 지닌 시대적 가치와 상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간으로는, 우선 國母인 仁顯王后를 위해 죽을 장소에서 절개를 지키며 죽었다는 충정의 표본이다. 또한 오두인 집안이 그를 전후로 尙文的 가풍이 강화되면서 5명의 장원급제자를 배출하고, 7명이 국가로부터 贈諡를 받으며, 왕실의 지친으로 국왕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노론의 京華士族인 여흥민씨·안동김씨와 중첩되는 인맥·혼맥을 맺고, 그 가운데 이름난 학자나 고위 관료를 덕봉서원 원장으로 다수 배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두인과 그의 가문 그리고 덕봉서원의 정치적 위상은 오두인의 죽음에 상징하는 충절의 이미지, 역대 국왕들이 오두인과 그 후손들에게 보인 존경과 우대, 덕봉서원의 원장 및 관련자들 등 명문세가의 구성원들이 지닌 사회적·정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연구원

적·문화적 영향력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吳斗寅, 德峰書院, 己巳換局, 甲戌換局, 仁顯王后, 海州吳氏

I. 머리말

한번 죽음으로 일을 이루니 세도가 여기에 의지하도다. 아아, 그대 충성스러운 신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네 ... 경은 실직 없는 벼슬에서 앞장서서 동지들을 이끌었으니, 그 말은 열렬하였고, 그 의리 늠름하였도다 ... 애도와 후회 교차하여 뒤미처 은총과 포상을 더하건만, 영령에게 부끄럽도다.¹⁾

위의 글은 양국 오두인을 모신 덕봉서원에 숙종이 賜額하면서 내린 치제문이다. 이는 知製教였던 李觀命이 작성한 것이지만, 숙종의 오두인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즉,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했던 국왕 숙종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충성스러운 신하 오두인을 잃었다는 사실에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뒤늦게나마 은총과 포상을 더해 영혼을 위로하였다. 이후 오두인에 대한 추모는 비단 숙종으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고종 때까지 이어졌으며, 각지에 그를 配享하는 서원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오두인만을 享祀하던 ‘덕봉서원’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존치하였다.²⁾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를 넘어 오두인이라는 인물과 덕봉서원이

1) 『屏山集』卷8, 〈應製文·判書吳斗寅陽城祠宇致祭文〉. “一死以之, 世道賴焉 ... 卿從散秩, 唱率同志, 烈烈其言, 凜凜其義 ... 悼悔交並, 追加寵褒, 有媿英靈.”

2) 德峰書院은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甲午更張·庚戌國恥 등 근대 외세의 침략과 대한제국의 멸망이라는 사회적 부침을 겪었다. 그럼에도 광복 이후 祠宇 正義堂은 인재 양성을 위해 陽城中學으로 변모하였고, 서원은 1972년 5월 4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는 등 현재까지도 교육기관과 향토 문화유산으로서의 명맥을 잇고 있다(『德峰書院誌』, 〈德峰書院沿革〉).

라는 공간이 지닌 시대적 정신과 상징적 가치의 기저는 과연 무엇일까.

기존의 오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오두인이 평소 詩文이나 書畫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타인과 수창하는 일이 드물었던 데다,³⁾ 外職·遊覽·使行 등에서도 개인적인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죄인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의 기록을 수합하고 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들 吳泰周가 부친의 기록과 관련하여 소략할지언정 사실과 과장되고 허황된 것을 지양하며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사후 오두인에 대한 평가가 담긴 神道碑銘·謚狀·墓誌銘 등에서 그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⁴⁾ 그래서 오두인은 대체로 해주오씨 집안이나 그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⁵⁾ 그나마 최근 해주

(陽城中學)).

3) 『陽谷集』 卷4, 〈附錄·謚狀[李畬]〉.

4) 『月谷集』 卷9, 〈題跋·題曾王考碑文草後〉.

5) 海州吳氏 가문에 대한 연구로는 정재훈,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 임철현, 『海州吳氏 集姓村의 풍수지리적 考察－덕봉마을의 음택과 양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현영, 「조선시기 先代 파악 방식의 족보 반영 양상－해주오씨 族圖를 중심으로」, 『韓國系譜研究』 7, 한국계보연구회, 2017 ; 김인경, 「조선의 名家: 안성 덕봉마을 海州吳氏」, 『선비문화』 33, 남명학연구원, 2018이 있다. 한편, 海州吳氏 貞武公派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문학이나 사상, 철학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노론 산림 吳熙常·洪直弼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李相益, 「老洲 吳熙常의 理氣相互主宰論과 心本善不可待論」, 『동양고전연구』 21, 동양고전학회, 2004 ; 金炳木, 「老洲 吳熙常의 性理說에서 主宰의 의미」, 『儒敎思想文化研究』 56, 유교사상문화연구, 2014 ; 박학래, 「老洲 吳熙常의 性理說 研究－19세기 전반기의 호락논쟁에 유의하여」, 『동양고전연구』 54, 동양고전학회, 2014 ; 최선아, 「老洲 吳熙常의 음악적 배경과 음악관」, 『한국음악사학보』 53, 한국음악사학회, 2014 ; 신영주, 「老洲 吳熙常의 講學 활동과 독서론」, 『漢文古典研究』 38,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등이 있다.

오씨 貞武公派 가문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분석한 오세현의 논문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오세현은 武人 吳定邦을 중심으로 조정과 사림에서 활약한 후손들을 하나하나 살펴면서, 오두인을 기점으로 하여 왕실 및 기호학적 가문과의 혼맥을 바탕으로 名家로 부상하였고, 이후 후손 吳載純-吳熙常에 이르러 도학의 명가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밝혔다.⁶⁾ 하지만 여기서도 오두인은 해주오씨 정무공파의 여러 구성원들 가운데 한 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두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와 위상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오두인의 개괄적인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활동 및 사망을 분석하고 사후 추모와 현창되는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덕봉서원이 ‘辛卯存置’ 서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있어 오두인 및 오두인 가문 그리고 덕봉서원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위상의 배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된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면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陽谷集』, 『德峰書院誌』 등을 중심 사료로 활용하되, 주변인들의 다양한 文集에서 파편적으로 기술된 오두인의 활약과 평가를 수집하여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인물 연구는 사료의 작성자와 해당 인물과의 관계, 취합되는 혹은 취합하는 자료의 성격, 해당 인물과 관련된 사안 자체가 내재하는 해석의 다면성, 필자가 기술하고자 하는 의도성 등으로 인해 때로는 평가가 극과 극을 이루기도 한다. 오두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 역시 그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오두인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6) 오세현, 「貞武公 吳定邦(1552-1625) 가문의 형성과 畿湖 학계에서의 역할과 위상」, 『한국계보연구』 11, 한국계보연구회, 2021.

II. 생애와 활동

오두인의 본관인 해주오씨는 고려 成宗 대에 宋에서 고려로 건너와 檢校軍器監을 지낸 해주오씨 吳仁裕를 시조로 하고 대대로 무인을 배출한 가문이다. 그 가운데 무과에 장원급제한 貞武公 吳定邦은 倭亂 당시 선조를 호종하고 戰功을 세운 공으로 1604년(선조 37) 扈聖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그리고 광해군의 仁穆大妃 廢妃論을 반대했으며, 1624년(인조 2) 李适의 亂에 인조를 호종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워 해주오씨 집안의 명성을 높이고 가세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의 후손들은 貞武公派라는 일정한 家系를 인식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오정방이 武人으로서의 전공을 바탕으로 해주오씨 집안의 尙武의 가풍에 정점을 찍었다면, 오두인은 文人으로서의 문장을 기반으로 右文的 가풍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諫官 및 지방관으로서의 정치력과 왕실·畿湖學派 가문들과의 인맥·혼맥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名家로 성장시켰다.⁷⁾

오두인의 자는 元徵, 호는 陽谷으로, 1624년 9월 30일 吳翺과 李孝吉의 여식 固城李氏 사이에서 태어나 伯父인 吳翺에게 입적되었다.⁸⁾ 그는 어려서 총명하고 진중하였는데, 詔使 程龍과의 에피소드는 그의 문장력이 주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1633년(인조 11) 假島에서 후금과 대치하고 있던 명의 副總兵 정룡은 후금이 旅順을 함락시키자 조선의 동요와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다. 그는 황해도 巡營에서 9살 된 오두인을 만나 운을 내려 시를 짓게 하였는데, 오두인이 前漢의 程不識을 연상해 자신과 연결짓자 그 시문과 書法에 감탄해 ‘奇童’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곧장 그 운에 화

7) 오세현, 앞의 논문, 2021, 57~73쪽.

8) 吳斗寅의 일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海州吳氏家乘』, 『燃藜室記述』 卷35, 〈肅宗朝故事本末·元子定號〉; 『陽谷集』 卷4, 〈附錄·墓表陰記[副提學崔昌大撰]〉; 〈墓誌銘[領議政崔錫鼎撰]〉; 〈諡狀[李奎]〉; 〈書像贊[大提學金昌協撰]〉; 『農巖集』 卷28, 〈刑曹判書贈領議政諡忠貞吳公神道碑銘〉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답하였고, 귀국해서까지도 오두인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며 더욱 勉勵하였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시는 『皇華集』에 수록되었고, 오두인의 명성이 조선과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다.⁹⁾

오두인은 인조에서 숙종까지 4대의 국왕을 섬기면서 두루 총애를 받았다. 1648년(인조 26) 오두인은 進士 初試에 일등으로 입격하고, 이듬해 別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入朝한 이래, 누차 司憲府·司諫院·弘文館의 여러 직책에 제수되는 등 약 10여 년 간 三司로 재직했다. 또한 국왕의 최측근인 承政院 都承旨로 활약하였으며, 형조·병조·공조의 판서도 역임하는 등 정부의 수뇌부로서 활동하였다. 자·타의에 의한 外職으로는 慶尙都事·高山道察訪·海運判官·光州牧使·北靑判官·洪州牧使·光州牧使·開城留守·平安監司 등을 역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조실록』·『효종실록』을 纂修하였고, 1662년(현종 3) 동지사 서장관으로, 1679년(숙종 5) 진하 부사로 청에 파견되기도 하였으며, 1684년(숙종 10)에는 遠接使와 伴送使로 발탁되어 청 사신을 대접하였다.

오두인은 정치·외교·민생·사회적 질서 유지 등 시비가 명확한 사안에 있어서 완고한 입장을 취하며 爭執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기근과 재해·이변에 修省하고 節儉하는 도리에 대한 상소는 물론, 무리한 刑獄·工役·閱武·進宴·溫幸 등을 행하는 국왕에게 민심을 우선시하길 바라는 開導적인 劄子를 자주 올렸다. 특히 왕실의 체통 유지와 국왕의 종실 비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진언하였다.

때로는 이러한 가감없는 진달로 인해 국왕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1657년(효종 8) 朗善君의 가노를 둘러싸고 대간으로서 종실과 대립하다가 외직으

9) 『皇華集』(K4-380) 卷50, 〈黃州吳觀察使有子斗寅九歲, 謁予叩畢, 卽揮成韻, 字亦工端, 可謂奇童矣. 遂次韻贈之〉. “명문가에서 소장한 異器, 잘 길러서 현군을 섬기리. 붓을 들면 李白의 장구요, 서법[臨池]을 휘두르면 王羲之의 글씨일세(名門藏異器, 英育事賢君. 落筆騎鯨句, 臨池揮右軍).” 〈原韻〉. “아름다운 강 남쪽에서 시작되는데, 동쪽으로 와서 聖君에게 보고하네. 程不識로부터 유래하였으니, 오히려 이장군[李廌]보다 낫다네(程不識有美河南產, 東征報聖君. 從來程不識, 猶勝李將軍).”

로 逐出되었고,¹⁰⁾ 1665년(현종 6) 능의 수목을 도벌한 의관 尹後益이 침술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현종이 贖錢으로 무마시키려 하자 이를 반대했다가 엄한 질책을 받았다.¹¹⁾ 이듬해에는 청이 현종에게 내린 贖罪金을 계기로 대간은 물론 성균관 유생까지 국왕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현종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¹²⁾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를 듣고 서둘러 건의했다가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보고했다고 하여 미움을 받기도 하였다.¹³⁾ 그럴 때마다 자주 체차되었으나, 역시 이내 다시 서용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북인·남인의 대척점에서 서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노·소론이 분기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偏黨하지 않았다. 봉당이 나라를 병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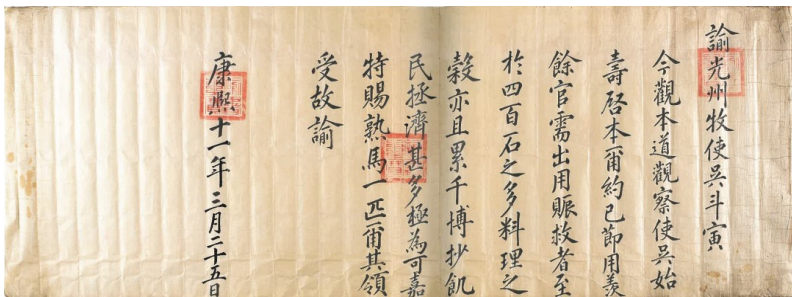
10) 閭巷에서 무뢰배들이 칼을 끼고 분쟁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朗善君의 家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오두인이 개의치 않고 이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낭선군 측에서 양심을 품고 金虎門 밖에서 오두인의 奴子를 공격하려 했으나 오인하여 민유중의 노자를 구타하였다. 대간 민유중과 오두인은 폭력을 가한 宮奴를 체포해 刑推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만 궁노가 사망하고 말았다. 낭선군은 宗簿寺를 통해 민유중과 오두인을 탄핵하면서, 사건의 원인을 행사 도중 양가의 말들이 뒤엉킨 것이 중들이 相爭으로 확대되었다고 축소·왜곡시켰다. 분노한 효종은 종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였고, 대신과 대간들의 반대에도 민유중을 鏡城判官에, 오두인을 北靑判官에 임명하여 逐出하였다(『陽谷集』 卷2, 〈因宗簿寺啓辭聯名避嫌啓〉; 『承政院日記』 145冊, 孝宗 8年 3月 21日(甲子); 145冊, 孝宗 8年 3月 25日(戊辰)).

11) 『顯宗改修實錄』 卷12, 顯宗 6年 1月 11日(戊戌); 顯宗 6年 1月 12日(己亥); 顯宗 6年 1月 13日(庚子).

12) 1666년(현종 7) 走回人 安秋元 사건을 계기로 현종은 淸使가 보는 앞에서 황제를 향해 엎드려 請罪했을 뿐만 아니라 贖罪金까지 바쳐야 하는 등 인조의 城下之盟 이후 최고의 굴욕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굴욕이 조정 내외로 알려지면서 간원, 신하 그리고 성균관 유생까지 가세해 三大臣의 탄핵을 주장하였다. 조정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현종은 이들을 遞差·罷免·나문 후 遠竄 등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우진, 「安秋元·南明 遭民 사건과 현종의 현실인식」, 『사학지』 54, 2017, 5~15쪽 참고.

13) 1666년(현종 7) 오두인은 천제와 흥년에 莊烈王后와 仁宣王后가 宮女를 選入하는 일로 閭巷이 소란스럽다는 소문을 듣고 宮闈를 엄격히 할 것을 진달했으나, 추후에 이것이 뜬 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현종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다(『顯宗實錄』 권11, 顯宗 7年 1月 19日(庚子); 顯宗 7年 2月 11日(壬戌); 『承政院日記』 193冊, 顯宗 7年 3月 5日(乙酉)).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인들과의 논쟁이나 名論을 내세우는 일을 기피하고, 혼자 사색하며 독서하고, 노·소론을 가리지 않으며 평소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¹⁴⁾ 특히 1679년(숙종 5) 아들 吳泰周가 明安公主와 혼인을 하면서 왕실의 인척이 되자 더욱 진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정사에는 가능한 간여하지 않고자 하였다.¹⁵⁾



〈그림 1〉 1672년(현종 13) 현종이 광주목사 오두인을 치하하는 〈吳斗寅諭書〉

한편, 오두인은 外職에 임해서는 牧民官으로서 큰 활약을 하였다. 慶尙都事가 되어 어지럽던 영남의 試場을 진정시켰고, 高山道察訪·海運判官으로 부임해서는 법대로 驛路·運路를 엄숙히 다스렸으며, 암행어사로 道臣의 불법을 고발하는 등 지방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기 관찰사가 되어서는 募兵을 통해 營卒을 충분히 확보하여 변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특히 1669년(현종 10) 光州牧使로 부임해서는 인재를 육성하고 몸소 經史를 講說하는 등 興學에 매진했으며, 救恤 및 절약에 힘쓴 결과 庚辛大飢饉에도 다른

14) 대표적으로 崔錫鼎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오두인은 대대로 최석정 집안과 우의를 다졌고, 최석정의 아들 崔昌大를 사위로 맞이해 姻戚의 교분을 거듭했다. 이를 반영하듯 오두인의 사후 아직 숙종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최석정은 李寅燁·李世華와 함께 祭文을 보내어 오두인을 기렸으며, 평소 오두인의 뜻에 따라 그의 墓誌銘을 작성하였다(『明谷集』 卷10, 〈祭陽谷吳公文〉; 『月谷集』 卷9, 〈題跋·題曾王考碑文草後〉).

15) 『農巖集』 권28, 〈神道碑銘·刑曹判書贈領議政諡忠貞吳公神道碑銘〉.

지역의 流民들까지 수용하여 진휼할 수 있을 정도였다.¹⁶⁾ 그의 선정이 조정
에까지 전달되자, 현종은 이를 치하하여 오두인에게 말을 하사하였고, 지역
민들의 소원대로 계속 유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오두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면서 후대에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그의 죽음이었다. 이는 己巳換局이 빠르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숙종
이외에 어느 누구도 예단하지 못하는 급격한 정세변화에 휘말려 발생했다.

1689년(숙종 15) 4월, 희빈 장씨 소생의 아들(景宗을 원자로 삼은 숙종은
그녀를 왕비로 책봉하여 공고한 후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중전 민씨를 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오두인은 知義禁으로 세 차례 牌招되었으나 부
임하지 않아 삭직되어 두문불출하고 있었다.¹⁷⁾ 하지만 왕비의 폐출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罷散될지 언정 입을 다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통문을
돌려 동지들을 平市署로 규합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합류한 朴泰輔·李世
華¹⁸⁾ 등을 포함해 총 80명의 散官이 모여 상소할 내용을 함께 논의하였다.

抗疏文의 疏頭는 오두인이 추대되었다. 〈부록〉을 살펴보면, 현직이 11명이
고 전직이 69명이었으며, 대체로 서인에 속하고, 90대에서 20대까지, 8품 別
檢에서 정2품 判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직과 연령의 인물들이 聯名하였
다. 이 가운데 오두인은 최연장자는 아니었으나, 최고위직을 역임하였고 부
마의 부친이라는 신분을 지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더욱 소두를 맡으
면 안 된다는 일부 의견과 자제들의 강한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듣지 않았고 박태보가 작성한 초고를 바탕으로 행간의 세세한 글자를 수정하
여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문을 올렸다.¹⁹⁾

16) 광주목사로 부임한 오두인은 광주의 충장로5가와 독립로가 교차 지점 위치한
折楊樓를 拱北樓로 改號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의 숙종 그리고 왕실에 대한 충성
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조광철, 「절양루와 유림숲: 옷소매로 눈물을
흘렸던 곳, 『광주드림』, 2022.09.14 기사(<http://www.gjdream.com>)).

17) 『承政院日記』 333冊. 肅宗 15年 2月 29日(丁卯).

18) 吳斗寅은 朴泰輔의 부친 朴世堂 및 李世華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西溪集』 卷3,
〈石泉錄中·奉呈吳尙書(斗寅)赴鎮西都〉; 『雙柏堂集』 卷1下, 〈雜著·祭陽谷文〉).

4월 25일 밤 二鼓, 오두인의 우려대로 숙종은 매우 진노하여 상소문을 찢고 곧장 仁政門으로 나아가 대신들이 채 모이기도 전에 親鞫을 시작하였다.²⁰⁾ 숙종은 자신과 원자가 아닌 인현왕후를 위해 절의를 세운 이들이 謀反大逆보다 무엄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 배후에 분명 누군가 사주하고 지휘한 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에 閔鎮厚·閔鎮遠 형제를 의금부에서 국문하도록 하고, 오두인·박태보·이세화를 刑問하며 그 배후 세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刑罰의 강도는 더해져도 오두인 등은 끝내 승복하지 않았고 어느새 날이 밝았다. 숙종은 친국을 강행하려 했으나, 국왕의 仁德이 손상될까 우려하는 영의정 權大運의 제안에 국문을 중지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오두인은 戚臣에서 大逆罪人이 되었고, 아들 海昌尉 吳泰周는 削奪官爵되었다. 그나마 死罪에서 義州에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減罪해 준 성은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래도 숙종은 오랫동안 국정을 함께 운영했고, 매제의 부친인 오두인이 소두가 되어 인현왕후를 옹호했던 행태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²¹⁾ 이에 숙종은 오두인의 아들·사위·동생 및 叔姪 모두를 영구히 削奪·禁錮하라는 비망기를 내렸다. 그리고 과도한 친국으로 자칫 귀양지에서 사망해 국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은혜를 베풀 것을 요청하는 여론을 일체 물리쳤다.²²⁾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되었다. 들것에 실려 귀양지로 이동하던 도중 5월 7일, 오두인이 파주 旅舍에서 숨을 거뒀다.²³⁾

19) 『陽谷集』 卷4, 〈附錄·諡狀(李奮)〉; 『老洲集』 卷15, 〈屠維諫草跋〉.

20) 상소문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 비답이 없자, 이세화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자’고 제안하였으나, 오두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하였다. 여기서 그는 이미 비관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陽谷集』 卷4, 〈附錄·諡狀(李奮)〉).

21) 실제로 海昌尉 吳泰周는 부친 吳斗寅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貴近하게 된 데에서 말미암았다고 여기고 평생 죄인으로 자처했다고 한다(『月谷集』 卷9, 〈醉夢軒記〉).

22) 『肅宗實錄』 卷20, 肅宗 15年 4月 27日(癸巳); 卷21, 肅宗 15年 5月 4日(己亥); 『承政院日記』 335冊, 肅宗 15年 4月 26日(壬辰); 335冊, 肅宗 15年 5月 2日(丁酉); 335冊, 肅宗 15年 5月 5日(庚子).

23) 한편 박태보 역시 오두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5월 4일에 果川에서 사망하였다.

친국이 있는 지 약 일주일만의 일이었다.

Ⅲ. 사후 追慕와 褒獎

오두인·박태보의 사망은 인현왕후의 폐위나 宋時烈의 賜死와 같은 환국 상황의 큰 기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숙종의 분노를 다소 누그러트리고, 오두인 등에게 홀전을 베풀길 요청하는 상소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숙종은 오두인 등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했던 민진후·민진원 형제를 방면하였고, 오두인·박태보의 사위·동생·숙질을 모두 금고하는 것에서 자손에 한해서만 금고하는 것으로 연좌의 대상을 축소시켰다.²⁴⁾ 그리고 庚申換局 獄事에 대해 시시비비를 다시 가리고 保社功臣을 僞勳으로 정립한 후 오두인·박태보의 관작을 회복시켰다.²⁵⁾

오두인 등에 대한 명예 회복은 1694년(숙종 20)에 이루어졌다. 4월 1일, 숙종은 돌연 집권 여당인 남인을 정계에서 축출하고 대신 소론 집권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기사환국 당시의 결정을 반성하며 송시열·김수항·민정중·金萬重 등을 復官하게 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는 등 기사환국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렸다. 甲戌換局이었다.

4월 21일, 太廟에 인현왕후의 복위를 고하는 날에 幼學 辛相東이 상소하여 말했다.

故牧使 朴泰輔와 故判書 吳斗寅은 ... 나라에 전에 없던 變節을 당해 彝倫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죽음으로 爭執하였으나, 끝내 원통함을 품고 땅으로 들어가

(『承政院日記』 335冊, 肅宗 15年 5月 5日(庚子)).

24) 『肅宗實錄』 卷21, 肅宗 15年 5月 9日(甲辰); 『承政院日記』 335冊, 肅宗 15年 5月 11日(丙午); 335冊, 肅宗 15年 5月 12日(丁未); 『葛庵集』 卷3, 〈再辭吏曹參議 兼 陳所懷疏〉.

25) 『承政院日記』 336冊, 肅宗 15年 7月 18日(壬子).

는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 다행히 우리 전하께서 ... 震怒의 노여움을 겨우
푸시고, 이내 관작을 회복하는 綸音을 내리셨습니다. ... 지금 國運이 泰平을 회
복함에 이르러 坤璽이 복위하셨으니, 致祭하고 旌閭하는 특별한 은전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²⁶⁾

인현왕후의 복위는 오두인 등의 명예를 회복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
다.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상소에서
신상동은 일찍이 숙종이 오두인·박태보의 관작은 회복시켜 주셨으나, 갑술환
국 이후 나라가 다시 태평해지고 인현왕후가 복위했으니, 이들에게 별도로
치제하고 정려하는 특별한 은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오두인 등에게 贈職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광주 유학
李時俊의 건의에 동조한 이조판서 柳尙運은 ‘원래 신하가 간언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니 褒贈할 필요가 없지만, 오두인·박태보는 불행히 먼저 죽어 이 경
사를 보지 못했으니 은전을 내려도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이에 숙
종은 두 신하의 충절이 송나라의 孔道輔에 비길 만하다고 인정하고, 조야의 제
안을 흔쾌히 수용하여 오두인은 議政에, 박태보는 正卿에 추증하였다.²⁷⁾ 그리
고 윤5월 8일, 禮曹正郎 朴見善을 파견해 旌門을 세우고 치제하게 하였으
며,²⁸⁾ 치세 말기까지도 자신의 충신 오두인을 죽게 했음을 자책하며 매우 후
회하였다.²⁹⁾

26) 『承政院日記』 356冊, 肅宗 20年 4月 21日(戊子). “幼學辛相東上疏 ... 故牧使臣朴
泰輔, 故判書臣吳斗寅 ... 值國家無前之變節, 暫扶彝倫, 爭之以死, 未免含冤而入地.
... 幸賴我殿下 ... 纔霽雷霆之怒, 旋下復爵之音. 逮今邦運回泰, 坤璽復位, 則合有致
祭旌閭之別恩.”

27) 『承政院日記』 357冊, 肅宗 20年 5月 6日(癸卯); 357冊, 肅宗 20年 5月 28日(乙
丑).

28) 『陽谷集』 卷4, 〈附錄·家廟賜祭文(甲戌閏五月初八日)[知製教俞得一製進]〉; 『海州吳
氏家乘』, 〈忠貞公府君 致祭文〉; 『德峰書院志』, 〈忠臣〉.

29) 『列聖御製』 卷13, 肅宗大王文, 〈諭祭海昌都尉文〉. “至若先卿, 忠款誠純, 悔恨何極,
殲我藎臣.”

오두인의 충절과 명예가 국가적으로 공인된 만큼 지방 유생들은 그를 서원에 모셔 기리고자 도모하였다.

〈표 1〉 오두인을 향사한 서원 정보³⁰⁾

	명칭	위치	향사 대상	윤혁	비고
1	德峰書院	陽城	吳斗寅	1695. 창건 및 배향 1697. 사액 건의 1700. 사액	李觀命 賜額祭文 朴權 奉安祭文 金炳學의 致祭文 閔泳穆의 致祭文
2	老德書院	北靑	李恒福 金德誠·鄭弘翼 閔鼎重·吳斗寅 李尙眞·李世華	1627. 창건 및 배향 1686. 추배[金德誠·鄭弘翼] 1687. 사액 1694. 추배[閔鼎重·吳斗寅] 1708. 추배[李尙眞·李世華]	李健命의 老德書院 追享告由祭文·老德書院配享祭文
3	豐溪祠	坡州	吳斗寅·朴泰輔 李世華	1694. 창건 및 배향 1695. 사액 1702. 추배[李世華]	知製敎의 賜額祭文 徐宗泰의 奉安祭文 1754년(영조 30) 치제 1784년(정조 8) 치제 1809년(순조 9) 치제
4	義烈祠	光州	朴光玉 金德齡 吳斗寅	1604~05. 창건 및 배향 1678. 추배[金德齡] 1681. 사액 1694. 추배[吳斗寅]	金昌協의 並享祭文
5	鶴山忠烈祠 (九賢祠)	義城	成三問·朴彭年·河緯地 ·柳誠源·李塏·俞應孚 吳斗寅·朴泰輔·李世華	1697~98. 건립 및 배향 1703. 추배[李世華] 1709. 사액 1730. 移建	權尙夏의 奉安祭文

〈표 1〉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오두인을 기리는 서원은 5곳으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덕봉서원은 1695년(숙종 21) 5월 오두인의 고향 이자 선대의 묘소가 있는 양성에 창건되어 오두인을 봉안하였다.³¹⁾ 그리고

30) 본 표는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書院謄錄』; 『輿地圖書』; 『德峰書院志』; 『春官通考』; 『燃藜室記述』; 『丹溪先生遺稿』; 『農巖集』; 『陽谷集』; 『定齋後集』; 『寒圃齋集』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義烈祠나 忠烈祠의 창건 시기는 사료마다 1년의 오차를 보이기도 한다.

31) 경기도 양성의 덕봉은 1525년(중종 20) 해주오씨가 柳世昌 등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멸문의 위기에 봉착하자, 경기도 용인에서 吳慶雲의 妻家 豐山沈氏가 근

조정에서 박태보의 서원에 사액과 치제를 허락하자, 1697년(숙종 23) 양성의 幼學 李明謙 등 47인이 덕봉서원에도 사액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1700년(숙종 26) 숙종은 禮曹正郎 吳羽進에게 知製敎 李觀命이 작성한 祭文을 가지고 가서 덕봉서원에 치제하게 하고 사액을 내렸다.³²⁾

다음은 노덕서원이다. 노덕서원은 1617년(광해군 9) 李恒福이 光海君의 仁穆大妃 廢母論에 반대했다가 복청으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 곳에 세워졌다. 인조반정 이후 창건되어 이항복을 제향했고, 1687년(숙종 13)에 ‘노덕’으로 사액되었다. 그리고 1694년 갑술환국을 계기로 민정중과 오두인을 合祀하였는데, 민정중은 함경도 관찰사로, 오두인은 北靑 判官으로 파견되었던 인연이 있었다.³³⁾ 특히 오두인 역시 인현왕후의 폐위를 항소하다가 죽었던 만큼 이 항복의 유배 사례와 매우 유사하여 ‘시대는 달라도 절개는 부합하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³⁴⁾

한편 파주의 풍계사는 오두인·박태보·이세화를 모시기 위해 1694년에 창건되어 이듬해에 사액된 곳으로,³⁵⁾ 오두인과 박태보는 창건되고 나서, 이세화는 사후에 향사하였다. 풍계사가 위치한 파주는 오두인의 귀양 도중 사망지, 박태보의 부임지, 이세화의 거주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³⁶⁾ 이곳은 수도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고 세 사람만을 향사하고 있는 만큼, 영조·정조·순조는 기사년이나 갑술년 구갑을 기념하거나 파주의 永陵을 배알할 때 별도로 관원을 보내 치제하도록 하였다.³⁷⁾

거지로 두고 있는 덕봉으로 이주한 이래 경제적 기반으로 삼은 곳이다(오세현, 앞의 논문, 2021, 60쪽).

32) 『承政院日記』 371冊, 肅宗 23年 4月 23日(壬申); 394冊, 肅宗 26年 11月 6日(甲午); 394冊, 肅宗 26年 11月 12日(庚子); 『書院謄錄』, 肅宗 23年 6月 2日; 『屏山集』 卷8, 〈應製文·判書吳斗寅陽城祠宇致祭文〉.

33) 『承政院日記』 436冊, 肅宗 33年 8月 4日(癸未); 『肅宗實錄』 卷27, 肅宗 20年 10月 28日(壬戌).

34) 『書院謄錄』, 肅宗 44年 11月 2日.

35) 『書院謄錄』, 肅宗 21年 5月 27日; 肅宗 28年 正月 23日.

36) 『春官通考』 卷38, 吉禮, 〈院祠·京畿〉.

그리고 광주의 의열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약한 박광옥·김덕령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곳인데, 갑술환국 이후 오두인이 추배되었다.³⁸⁾ 이는 전술한대로 광주가 바로 오두인이 목사로 활약했던 지역적 연고지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를 향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金鶴山 아래에서 死六臣을 모시던 의성의 충렬사는 그 곁에 사당을 세워 오두인·박태보·이세화를 함께 배향하다가 1730년(영조 6) 梧桐山 아래로 이진하여 숭배하였다.³⁹⁾ 이곳 역시 세 사람이 각각 인연이 있는데, 오두인은 1651년(효종 2) 慶尙都事로 부임하였으며, 이세화는 1687년(숙종 13) 경상도 관찰사로 제수되었고, 박태보는 1687년 湖南暗行御史로 파견되었다.⁴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오두인을 봉안한 서원은 창건 여부로 보았을 때 그의 개인적인 행적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새로 창건되거나(①·③), 기존에 다른 인물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에서 합향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②·④·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갑술환국 이듬해를 전후로 하여 집중적으로 오두인을 봉안하였고(①·②·③·④), 이세화가 죽은 다음 3명을 한꺼번에 모시기도 하였다(⑤). 또한 성격적으로는 오두인 혹은 인현왕후 폐출 抗疏文의 주체들만 모아서 그 충정을 기리기도 하지만(①·③), 해당 지역의 인연과 함께 이들의 충절이 기존에 향사된 인물들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다고 판단하여 함께 배향하기도 하였다(②·④·⑤). 대부분 사액서원의 역할이 그러하듯

37) 『承政院日記』 1110冊, 英祖 30年 8月 16日(癸亥); 1565冊, 正祖 8年 8月 17日(庚子); 1962冊, 純祖 9年 1月 25日(乙酉). 참고로 정조는 마침 오두인의 증손 吳載純이 工曹判書에 올라 배종하였으므로, 특별히 그를 祭官으로 파견하였다.

38) 『書院謄錄』, 肅宗 20年 10月 19日.

39) 『輿地圖書』 下, 慶尙道, 〈義城·壇廟〉. 『丹溪遺稿』에 따르면 1703년(숙종 29)에 오두인·이세화·박태보를 추향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權尙夏의 제문 명칭이 '義城八賢祠奉安祭文'인 것으로 보아, 오두인과 박태보를 먼저 배향하고, 이세화는 사후 추향한 것으로 유추된다(『丹溪遺稿』 附錄, 〈院享錄〉; 『定齋後集』 권6, 〈己巳慰節錄(下)·義城八賢祠奉安祭文【右議政權尙夏】〉).

40) 義城의 幼學 申一模의 상서에 '御使로 왔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 1687년 '湖南暗行御史'로 활약한 것만 확인된다(『書院謄錄』, 肅宗 44年 10月 21日).

이곳 역시 오두인을 공식적으로 배향하여 지역에서의 위상을 공인받고, 그의 활동과 충절을 드러냄으로써 지역민들을 교화시키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토대로 활용하였다.

IV. 오두인·오두인 가문과 덕봉서원의 정치적 위상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은 전국 650개의 서원 가운데 師表가 될 만한 47개의 서원만을 남기고 모두 훼철하였다. 이른바 ‘辛未存置’인 47개 사액서원은 문묘에 종향된 16개의 서원과 忠節大義로 알려진 31개의 서원이었다. 후자의 경우, 전란 중에 순절하거나 큰 공을 세운 인물을 모셨다는 명분에 정확히 부합하는 곳도 있지만, 名臣이라는 세간의 평가 혹은 고위직 후손들에 대한 배려·청탁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서원들도 있었다. 실제로 당시에 金尙憲을 배향한 광주 顯節祠와 柳成龍을 모신 屏山書院의 존치는 안동김씨나 柳厚祚와 같은 현달한 후손 덕분이라는 여론이 존재했다.⁴¹⁾ 즉, 47개 서원은 뚜렷한 원칙을 기준으로 존치된 것이 아닌 정책 결정자들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당대인들 역시 존치 선정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지니고 있었다.⁴²⁾

오두인을 향사한 5곳의 서원 가운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 제외된 곳은 덕봉서원과 노덕서원이었다. 노덕서원은 함경도 내에 위치한 서인계의 대표적인 서원이고, 명재상으로 이름 높은 이항복을 배향하는 만큼 훼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덕봉서원이 신미존치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기저는 무엇이었을까?⁴³⁾

첫째, 오두인이 지닌 충절의 상징성을 들 수 있다. 충절의 형태는 다양하

41) 『響山日記』, 辛未(高宗 8) 4月 4日.

42)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163~168쪽.

43) 참고로 박태보를 향사하는 鰲江書院도 서원철폐령에서 제외되었다.

다. 국가와 왕실의 절체절명 속에 개인을 희생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거나, 망한 자국을 위해 자결 혹은 은둔을 통해 항거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군주의 정당하지 못한 국정운영에 대해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두인은 마지막 조건에 해당한다. 물론 그가 형장에서 고문을 받고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형에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감형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숙종이 상소문을 올린 것으로 반역죄인으로 취급하고 추국한 것에 대해 지나친 처사였다는 여론이 당파를 떠나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박태보가 추국의 여파로 인해 유배지로 가는 도중 먼저 사망한 상황에서, 왕실의 척신이자 고령의 오두인 역시 별세한 것이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 金昌協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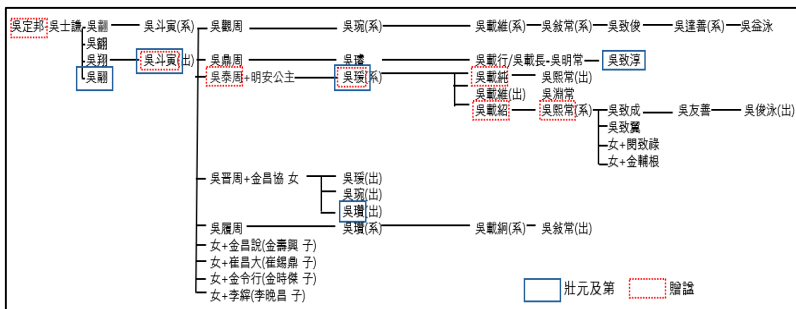
人臣이 國母를 위해 죽는 것은 大義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이를 실천한 자는 적었는데, 두 공이 간언하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대의가 비로소 밝아졌다. 무릇 간언하다가 죽거나 죽지 않는 것은 天命이나, 죽지 않으면 그 장렬함이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두 공은 반드시 죽은 후에야 당시의 조정 신하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간사하고 아침하는 자들의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시의 화가 어찌 그 정도에 그쳤겠는가. 그리고 聖人の 허물은 ... 그 변화가 오늘날 처럼 빠른 경우가 없었으니, 또한 두 공의 죽음이 먼저 성상을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찌 알겠는가. 그러므로 오늘날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실로 두 공이 한번 죽은 힘에 의한 것이다.⁴⁴⁾

김창협은 두 사람이 장렬하게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켜 조정 신하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었고, 남인들의 악행을 막아 더 큰 화로 확대

44) 『農巖集』 卷28, 〈刑曹判書贈領議政諡忠貞吳公神道碑銘〉. “人臣而爲國母死, 此大義也. 然而古鮮有蹈焉者, 至二公以諫死, 而此義始明. 夫諫而或死或不死, 天也. 然不死則其爲烈未彰, 而其感人猶不深也. 故爲二公者, 必死而後, 可以愧一時在廷諸臣, 而塞奸壬之禍心. 不然, 當日之禍, 豈止於此哉. 且聖人之過 ... 其更也, 未有若今日之過者, 亦安知非二公之死, 先有以感動之也. 是則今之爲今, 固二公一死之力也.”

되지 않았다고 비평하였다. 동시에 두 사람의 죽음에 숙종을 감동시켜 예상보다 빨리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이니, 그 덕에 갑술환국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숙종이 환국을 단행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겠지만, 적어도 당대인들은 두 사람의 죽음 역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오두인은 모두가 침몰을 지킬 때 나서서 직언하여 한 몸을 희생해 민심을 이끌고 죽을 장소에서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인물로 인식되었다. 정조 역시 오두인에 대해 ‘한 장의 상소에 血誠을 쏟아 대궐 문을 부르짖어 綱常을 세운 공이 있다’고 평가하였다.⁴⁵⁾ 이렇게 오두인은 국가로부터 국모를 위해 절의를 지킨 ‘충신’으로 공인받아 충절의 표상이 되었다.

둘째, 京華士族으로서 대대로 내려오는 오두인 집안의 위세를 들 수 있다. 오두인 집안은 다수의 장원급제자를 배출하고, 국왕으로부터 贈諡를 받았으며, 왕실의 지친으로 존중받았다. 季父인 吳翬은 1646년(인조 24) 정시 문과에서, 오두인은 1648년 進士試 및 이듬해 별시 문과에서, 손자 吳瑗과 吳璣는 각각 1728년(영조 4)과 1751년(영조 27) 春塘臺試에서, 來孫5대손 吳致淳은 1825년(순조 25) 式年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⁴⁶⁾



〈그림 2〉 海州吳氏 貞武公派 家系圖

45) 『弘齋全書』卷20,〈忠貞公吳斗寅致祭文〉。“屹屹坡山,凜然忠節。尺疏叫闕,寸腔瀝血。扶植綱常,繫誰之功。前月致侑,益感予衷。替遣公孫,三忠祀同。”

46) 『月谷集』卷13, 〈告祖考墓文【戊申】〉; 『文蔭譜』(古929.4).

또한 오두인 가문은 조선 후기 한 집안에서 시호를 많이 받은 가문 가운데 하나였다. 시호는 국가에서 한 인물의 생애[諡]와 업적[勳]을 仕宦·學行·功勳·忠節 등의 조건에서 평가하여 구체화한 명칭으로, 해당 가문에게 있어 매우 영예로운 일이었다. 오두인 가문에서 이런 시호를 받은 대상자는 모두 7명이다. 즉, 증조부 오정방은 ‘貞武’, 오두인 본인은 ‘忠貞’, 아들 吳泰周는 ‘文孝’, 손자 吳璦은 ‘文穆’, 증손 吳載純은 ‘文靖’, 증손 吳載紹는 ‘定獻’,玄孫 吳熙常은 ‘文元’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 가운데 오원과 오재순은 종2품 大提學을 역임했던 전력을 기준으로 애초의 정2품에서 확대된 조선 후기 諡法 기준에 적용되어 증시되었고,⁴⁷⁾ 오희상은 생전의 벼슬이 3품이었으나 儒賢으로 인정받아 시호가 하사되었다.⁴⁸⁾

이를 반영하듯 오두인 집안에 대한 국왕들의 관심과 배려는 남달랐다. 해주오씨는 오정방 대부터 왕실과 유대 관계를 맺었는데, 오정방의 본생가 모친은 定宗의 후손이고, 조모는 세종의 후손이었다.⁴⁹⁾ 오두인 역시 明聖王后와 고종사촌 관계로,⁵⁰⁾ 숙종은 모친 명성왕후가 병환이 나자 侍藥을 담당하는 副提調로, 붕어에는 役事를 감독하는 山陵都監提調로 임명하였다.⁵¹⁾ 그리고 선대에 걸쳐 형성된 왕실과의 종척 관계는 아들 海昌尉 오태주와 明安公主의 혼인으로 이어졌다.⁵²⁾ 이런 오태주를 숙종이 매우 좋아하며 일생의 詩

47) 『英祖實錄』 卷53, 英祖 17年 2月 15日(庚戌); 卷53, 英祖 17年 4月 8日(壬寅).

48) 증시의 기준과 관련하여 조선 전기에는 종친, 친공신 및 문무 실직 정2품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조선 후기에는 종2품 대제학은 물론 정2품이 아니더라도 儒賢이나 死節人으로 특별히 드러난 자까지 포함하였다(『經國大典』, 〈吏典·贈諡〉; 『續大典』, 〈吏典·贈諡〉).

49) 오정방의 본생가 어머니인 전주이씨의 부친은 三陽令, 조부는 崑山守, 증조는 語山副正, 고조는 守道君으로 定宗의 아들이다. 吳士謙의 아내는 부친이 李時中, 할아버지는 順天君, 증조는 喜安君, 고조는 江陽君, 5대조는 潭陽君으로 世宗의 아들이다.

50) 오두인의 둘째 부인인 金崇文의 딸 原州金氏는 金堉의 외손녀로, 明聖王后와 고종사촌 관계이다(이혜지, 『17세기 淸風金氏 家門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현종비 명성왕후 집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1) 『承政院日記』 254冊, 肅宗 2年 6月 13日(甲子).

友로 여긴 것은 유명하다. 『列聖御製』에 수록된 총 584편의 숙종의 시 가운데 오태주에게 보낸 것은 54편으로 대략 9.3%를 차지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명절이나 왕실의 큰 행사, 국왕의 행차 등에서부터 날씨, 독서, 그림이나 신식 문물 감상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안을 주제로 시를 짓고 이에 대해 화답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숙종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喜怒哀樂을 그와 시로 공유하며 누구보다도 가까운 知己로 여겼다. 다른 종친들도 숙종에게 비공식 루트로 요청할 때 오태주를 통해 부탁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막역했다.⁵³⁾ 그런 만큼 숙종은 오태주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였고, 이후 누구에게도 다시는 시를 주지 않았다.⁵⁴⁾ 영조는 오두인의 손자이자 오태주의 양자 오원이 비록 탕평책에 대해 黨色을 띠며 비판하자 파직시키기도 하였으나, 이내 조정애 중용하고 왕실의 지친으로 대우하며 나라를 향한 그의 丹心을 인정하였다.⁵⁵⁾ 정조는 1784년(정조 8) 吳載純이 공조 판서에 오르자 기뻐하면서 오두인의 충절을 기리는 제문을 직접 짓고 그를 파견해 치제하도록 하였다.⁵⁶⁾ 그리고 이듬해에 御筆로 ‘醇庵’이라는 호를 내리며 도장에 새기게 하였고, 1786년(정조 10) 오재순의 초상화를 내리면서 愚不及齋로 改號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오재순은 印石에 ‘賜號醇庵’이라 새기고, ‘순암’과 ‘우불급재’를 판에 새겨 堂號로 삼고 방 남·북 벽에 걸었다.⁵⁷⁾ 정조의 오재순에 대한 우대는 그 후대까지 미쳤는데, 아들 吳淵常이 급제하자 오재순의 집에

52) 신채용, 『조선왕실의 백년손님』, 역사비평사, 2017, 222~223쪽.

53) 東平尉 鄭載崙이 寧陵을 참배하기 위해 말을 요청하는 疏章을 오태주를 통해 대궐에 들여보낸 바 있다(『肅宗實錄』 卷56, 肅宗 41年 9月 11日(癸卯)).

54) 『列聖御製』 卷12, 肅宗大王詩, 〈海昌都尉之喪, 感悼書懷〉; 卷13, 肅宗大王文, 〈諭祭海昌都尉文〉; 박용만, 「문형·학술 이어진 海州吳氏 吳翻의 가계」, 『중부일보』, 2014.11.09.

55) 『承政院日記』 922책, 英祖 16年 10月 11日(戊申); 1084책, 英祖 28年 7月 18日(丙子).

56) <표 1> 참고.

57) 『醇庵集』 卷5, 〈賜號醇庵〉; 이해원, 「정조의 奎章閣臣 書齋肖像 요구」, 『규장각』 56, 2020, 222쪽.

씨 판서 閔聖徽의 여식이었고, 민유중의 외손인 이재는 오두인의 여식과, 來孫5대손 민치록은 오두인의 玄孫4대손 오희상의 여식과, 仍孫7대손 閔泰鏞은 오두인의 현손 李徽常의 여식과 혼인을 맺었다. 한편 안동김씨는 노론 성향의 가문들과 혼인하며 세력을 공고히 했는데, 그 가운데 해주오씨 정무 공파도 포함되어 있다.⁶²⁾ 金壽興은 오두인의 여식을 며느리로 맞이하였고, 아들 金昌協은 오두인의 아들 오진주를 사위로 삼아 양가는 사돈 관계를 맺었다. 이후 金壽恒의 昆孫6대손 金植根은 오두인의 현손 吳紱常의 여식을, 김수향과 민유중의 곤손인 金輔根은 오두인의 현손 오희상의 여식을 아내로 맞이하였다.⁶³⁾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덕봉서원의 원장 가운데 여흥민씨·안동김씨와 관련 된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덕봉서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⁶⁴⁾

〈표 2〉 德峰書院 역대 원장

	성명	생몰년	본관	관직	당파	비 고
1	李畚	1645~1718	德水	領相	노론	仁顯王后의 中宮復位敕命文과 吳斗寅 謚狀 작성
2	李健命	1663~1722	全州	左相	노론	老德書院에 閔鼎重·吳斗寅 追享告由祭文과 配享祭文 작성 노론4대신, 辛壬土禍로 처형
3	閔鎭遠	1664~1736	驪興	左相	노론	仁顯王后 오빠, 노론의 영수
4	李宜顯	1669~1745	龍仁	領相	노론	仁顯王后·閔鎭厚 挽詞, 閔鎭長 謚狀, 閔鎭遠 祭文 작성 金昌協 문인, 노론의 영수
5	李紱	1680~1746	牛峰	判書	노론	오두인 사위, 『陽谷集』〈序文〉 작성, 閔鎭遠·仁顯王后 조카, 俞拓基와 사돈, 吳重周와 친분, 노론 峻論
6	俞拓基	1691~1767	杞溪	領相	노론	奮武功臣, 노론 淸名黨 ⁶⁵⁾ 金昌集·李頤命의 신원 운동 전개, 金昌集 손자 金元行과 이웃사촌 ⁶⁶⁾
7	閔鍾顯	1745~1798	驪興	判書	노론	閔鎭厚 증손
8	韓用龜	1747~1828	淸州	領相	노론	閔鎭厚의 아들 閔翼洙의 외손, 노론 時派

62) 윤민경, 『세도정치기 安東金門의 정치적 기반』,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5, 4쪽.

63) 『老洲集』 卷16, 〈從兄敎官公墓誌銘(并序)〉; 〈老洲吳先生行狀(丁酉)〉.

64) 『德峰書院誌』〈院長先生案〉.

9	吳熙常	1763~1833	海州	贊善	노론	吳斗寅 高孫, 閔致祿·金輔根 장인, 노론 山林 ⁶⁷⁾
10	李光文	1778~1838	牛峰	判書	노론	李穡 孫子
11	李光正	1780~1850	牛峰	奉朝賀	노론	
12	金輔根	1803~1869	安東	輔國	노론	金壽恒 후손, 閔鍾顯 외손, 吳熙常 사위, 孝顯王后 숙부
13	閔應植	1844~?	驪興	判敦寧	노론	閔鎭遠 후손, 壬午軍亂 당시 明成王后에게 피난처 제공
14	閔丙承	1866~?	驪興	參判	노론	閔應植 子

위의 표를 보면 오두인의 고손인 9대 원장 오희상 이외에는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장들은 본인이 노론의 영수이거나 대대로 노론 집안 출신으로, 정1품 삼정승에서 정3품 贊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상관에 올라 조정에서 주요 보직을 담당한 핵심 세력들이었다.

역임했던 원장들을 살펴보면, 1대의 이어는 만년에 조정에서 벼슬하며 오두인을 마음속으로 공경하였으나 친해지지는 못했다고 밝혔는데, 인현왕후의 復位 敎命文을 작성하였고, 오탈주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오두인의 謚狀을 지었다.⁶⁸⁾ 2대 이견명 역시 오두인과 함께 입시하여 조정에 활약했던 인물로, 노덕서원에 민정중과 오두인을 추향할 때 고유제문과 배향제문을 작성하여 그의 절개를 기린 바 있다.⁶⁹⁾

〈그림 3〉을 통해 1대와 2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여흥민씨·안동김씨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閔鎭遠은 평소 오두인과 자주 시를 주고받으며 부친 민유중에 이어 친목을 다졌다. 18세기 도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대 李穡은 오두인의 사위이자 민진원의 조카이면서 평소 오중주와 우애가 깊었는데, 그의 사돈이 6대 俞拓基이고, 증손이 10대 李光文과 11대 李光正이

65)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66) 『梅山集』 卷52, 〈雜錄〉.

67) 노대환, 앞의 논문, 『한국문화』 42, 2008.

68) 『陽谷集』 卷4, 〈附錄·謚狀[李畚]〉.

69) 『寒圃齋集』 卷10, 〈老德書院老峰陽谷追享告由祭文, 老德書院老峰陽谷配享祭文〉.

다.⁷⁰⁾ 그리고 7대 閔鍾顯과 8대 韓用龜는 민진후의 증손자이며, 13대 閔應植과 아들 14대 閔丙承은 민진원의 遠孫이다. 안동김씨 가문에서는 4대 李宜顯과 12대 金輔根이 있는데, 이의현은 金光燦의 외증손이고, 김보근은 金昌集의 來孫으로, 9대 원장 오희상의 사위였다.

이외에도 김창흡의 외증손자인 李翊會는 덕봉서원의 祠宇인 ‘正義堂’의 현판을 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종의 어명 아래, 김창집의 후손인 영의정 金炳學은 1869년(고종 6) 기사년을 기념하기 위해, 민진후·오두인의 원손인 直閣 閔泳穆은 1874년(고종 11) 갑술년을 기념하여 덕봉서원의 치제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⁷¹⁾ 특히 김병학이 제문을 작성한 때가 흥선대원군이 한창 서원철폐령을 추진했던 시기이고, 민영목이 제문을 기술한 것은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초기와 맞물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4〉 德峰書院 正義堂 扁額과 李翊會 印章

주지하다시피 여흥민씨와 안동김씨는 조선 후기 왕비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다. 숙종비 인현왕후의 가문인 여흥민씨는 비록 1777년(정조 1) 閔弘燮이 恩全君 역모 사건(丁酉逆變)에 휘말려 한때 가문이 몰락하기도 하였으나, 고종비 明成王后, 순종비 純明孝皇后가 왕비로 간택되어 고종의 집권 이후 조정

70) 권진욱, 「陶菴 李穡 碑誌類 문장의 일고찰-神道碑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54, 2018, 80쪽.

71) 『德峰書院誌』, 〈致祭文〉.

의 주요 보직을 다수 장악하였다. 세도정치기의 대표적인 戚臣家門 안동김씨는 순조비 純元王后를 시작으로 헌종비 孝顯王后, 철종비 哲仁王后를 유례없이 연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공고한 외척의 지위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였다.⁷²⁾

그리고 자연히 숙종·순조·헌종·철종·헌종비와 다수의 덕봉서원 원장들이 연결되어 있다. 1대 이여, 2대 이견명, 4대 이의현을 제외한 덕봉서원 원장은 기본적으로 모두 인현왕후와 근친 혹은 족친이다. 그 가운데 12대 김보근은 효현왕후의 숙부이면서 순원왕후 및 철인왕후의 족친이고, 13대 만응식은 임오군란 당시 명성왕후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한 인물이다.

이상 <그림 3>과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 가문 혹은 이들과 연결된 당대의 저명한 인물들은 혼맥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덕봉서원의 원장을 역임하거나 치제문을 작성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숙종 대 이래 고종 대까지 대대로 국왕들이 관원을 파견해 덕봉서원을 치제하고 서원철폐령에서 존치된 것만으로도 조선 조정 및 지역 사회에서의 오두인과 그의 가문 그리고 덕봉서원에 대한 높은 평가와 인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최석정은 그의 오랜 벗 오두인의 죽음을 서러워하며 제문을 지어 애도했다.

옛말에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으니, 죽을 장소에서 죽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네. 돌아보건대 성취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뿐 어찌 危禍를 탄식할 것이 있으랴 ... 슬프게도 간언하다가 땅에 묻혀 죽었으니, 그 정성 해처럼 빛나고 단

72) 임혜련, 「19세기 國婚과 安東 金門 家勢」, 『한국사학보』 57, 2014.

주처럼 밝았도다 ... 생각건대 친구의 차이를 내 거칠고 미련하다 하지 않겠네 ... 담박하고 활달한 그대 성품 흠모하였고, 晩福의 넉넉하고 한가로움을 이야기하였네. 꽃내음 향기롭고 새 소리 지저귀니, 술자리 갖고 여러 번 만났지 ... 묵은 자취 더듬어 보니 꿈같고, 사람들 사이에 나만 홀로 남았네 ... 술 한잔 올리고 남은 정을 떠나 슬픔이 가슴을 가득 메워 떨치기 어렵다오.⁷³⁾

제문에서 그는 오두인과 함께 나누었던 평화로운 추억을 회고하다가 벗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 남아 술 한잔 올리며 슬픔이 가득 차는 감정을 떨치기 어려워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오두인이 간언하다가 죽게 된 것에 있어서는 거칠고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사람이라면 언젠가 죽게 되는 그런 평범한 사망이 아닌 죽을 장소에서 죽음으로써 명예와 절의를 빛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오두인의 충신 이미지는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강하게 각인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의 삶의 행적이다. 어려서 문장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문과에 장원급제한 이후에는 淸顯職과 내·외직을 두루 거치면서 판서까지 올랐으나 평소 관직의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민생을 우선하였다. 서인의 黨論을 지지하면서도 노·소론 당파의 분기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아들 오탈주가 부마가 되어서는 조정의 정사와 논의에 거리를 두고자 했다. 하지만 정작 인현왕후 폐비 논란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때 숙종의 분노를 무릅쓰고 직접 소두가 되어 항소를 올렸다. 결국 이를 계기로 사망하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바로 충절의 상징으로 인정받아 6년 후에 추증 및 旌閭가 내려졌고, 덕봉서원을 포함하여 전국 5곳의 사액서원에 배향되었다.

한편, 오두인 집안의 위격 상승을 들 수 있다. 해주오씨 집안은 오정방을

73) 『明谷集』 卷10, 〈祭陽谷吳公文〉. “古語有之, 人有一死. 處死爲難, 顧成就之如何 ... 慘毀璧以摧蘭, 血埋土而化碧, 衷炳日而如丹 ... 念輩行之差殊, 不謂余之疏頑 ... 欽風槩之冲曠, 說晩福之優閑. 當花馥而鳥嚶, 幾接晤於杯槃. ... 撫陳迹而若夢, 餘後死於人間. ... 奠單甗而敘情, 悲墳塋而難刪.”

중심으로 했던 상무적인 가풍에서 오두인을 전후로 5명의 장원급제자를 배출하고, 7명이 시호를 받는 등 우문적인 가풍으로 변모해 정착하고 점차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현종의 부마인 오테주는 숙종의 詩友로 충애를 받았으며, 오원, 오재순, 오연상, 오희상 등 역시 대대로 국왕의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조선 후기 왕비를 다수 배출한 노론의 명문세가 여흥민씨·안동김씨와의 중첩된 인맥과 혼맥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총 12명의 덕봉서원 원장이나 제문 혹은 현판을 작성한 사람이 이 세 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세 가문이 장기간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적 인맥과 세 가문이 지닌 위상, 그리고 기사환국을 겪으며 역울함과 울분을 감내해야 했던 공감대가 잠재적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⁴⁾

물론 덕봉서원 원장들이 해당 서원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로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확인된 바는 없다. 그리고 서인계 서원은 이름난 학자나 고위 관료가 원장을 역임하기도 한다. 덕봉서원이 서인-노론계 서원이며,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앙에서 활동하는 유력한 인물들을 원장으로 모시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 후기 양반사회는 문벌과 가문의 위세가 실제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정치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⁷⁵⁾ 그리고 원장의 면면이 당대 노론의 영수, 왕후의 친척 혹은 왕후를 위기에서 도운 인물들로, 정치적 지위는 물론 사회적 명망이나 영향력이 대단히 높았을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결과적 봤을 때, 조선 후기 오두인과 그의 가문 그리고 덕봉서원

74) 『農巖集』 卷17, 〈書·與海昌尉【吳公泰周○甲戌】〉. 참고로, 기사환국으로 인해 金壽恒은 유배지에서 사사되었고, 金壽興과 閔鼎重은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75)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114~115쪽.

의 정치적 위상은 오두인의 죽음이 상징하는 충절의 이미지, 국왕들이 오두인과 그 후손들에게 보인 존경과 우대, 덕봉서원의 원장 및 관련자들 등 명문 세가의 구성원들이 지닌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이 어우러져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부록〉 1689년(숙종 15) 仁顯王后 폐위 抗疏文에 聯名한 인물들⁷⁶⁾

	성명	본관	관직	생몰년	비고
1	吳斗寅	海州	前判書	1624~1689	
2	李世華	富平	前監司	1630~1701	吳斗寅의 벗, 豐溪 忠烈祠에 향사, 南九萬의 비문 작성
3	俞樾	杞溪	前行司直	1617~?	趙師錫을 비판한 金萬重 비호
4	金載顯	慶州	前承旨	1627~1700	宋時烈的 削黜 명령 환수 요청으로 파직
5	崔渲	海州	前郡守	1628~?	서인 崔有海의 子
6	李塾	牛峰	牧使	1642~?	소론
7	徐文裕	達城	前承旨	1651~1707	徐貞履 子, 己巳換局으로 竹山府使에 좌천
8	趙聖輔	豐壤	及第	1634~?	宋時烈 문인
9	徐宗泰	達城	前府使	1652~1719	徐文尙 子, 吳斗寅과 자주 入侍. 己巳換局으로 鐵原府使에 좌천
10	李光夏	德水	前牧使	1643~1701	李枰과 閔聖徽 女의 子, 吳斗寅의 처조카
11	朴泰輔	潘南	前應教	1654~1689	尹宣攀 外孫, 朴世堂 子. 朴世堂과 吳斗寅은 知友
12	沈思泓	青松	前府使	1632~?	沈世鼎 子, 己巳換局으로 竹山府使에 좌천
13	申汝哲	平山	前經歷	-	무신, 申砬 曾孫, 申景禎 孫子, 서인 申汝哲 弟
14	李行夏	遼山	前府使	1633~?	-
15	沈楫	青松	前郡守	1634~1689	-
16	李志雄	星州	前郡守	-	세 신하의 추국을 목도하고 은퇴
17	柳命才	星州	前郡守	-	柳命雄의 형으로 抗疏文에 함께 聯名
18	尹塹	海平	前郡守	-	-
19	尹坪	海平	前郡守	1600~?	-
20	權尙夏	安東	前郡守	1641~1721	宋時烈 제자
21	洪受濂	南陽	前正郎	1640~1711	己巳換局 당시 務安으로 유배
22	李東旆	驪興	判官	1643~?	-
23	李宜昌	龍仁	府使	1650~1697	소론, 己巳換局으로 관직 삭탈
24	沈壽亮	青松	前參議	1644~?	己巳換局으로 驪州牧使로 좌천
25	朴泰淳	潘南	縣監	1653~1704	宋時吉 외손, 朴泰輔와 遠親
26	金演	商山	前都事	-	소론, 己巳換局으로 江春都事에 좌천
27	徐宗憲	達城	前察訪	1656~1712	徐貞履 孫, 徐文夏 子, 己巳換局으로 高山察訪에 좌천
28	金斗南	安東	前典籍	1657~?	-
29	金洪福	金海	前正郎	1649~1698	尹拯의 만사 작성, 己巳換局으로 관직에서 파직
30	金夢臣	慶州	前正郎	1647~?	金夏振 子, 朴世堂과 친분, 己巳換局으로 茂朱府使에 좌천
31	俞命弘	杞溪	都事	-	臨城君과 사돈, 己巳換局으로 체차됨

76) 본 〈부록〉은 『조선왕조실록』·『承政院日記』·『德峰書院志』·『定齋後集』·『推案及鞫案』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金洪福은 『定齋後集』에는 金洪福으로, 『推案及鞫案』에서는 金弘福으로 확인된다.

	성명	본관	관직	생몰년	비고
32	李彥紀	全州	前縣監	1640~?	寧海君 李瑬 후손, 李伯麟 子, 서인, 희빈 장씨 모친이 屋簷를 타고 입궐하자 종을 치죄
33	李三碩	全州	前司果	1656~1710	靈川君 李挺 후손
34	洪萬選	豐山	前判官	1643~1715	李廷龜 外孫, 洪柱國 子
35	柳成運	晉州	前判官	1651~1710	尹拯 문인, 소론
36	安重	順興	前縣令	-	-
37	吳斗晟	海州	前縣監	1642~?	吳斗寅과 사촌(숙부 吳翺의 子)
38	李鼎基	全義	前縣監	1624~?	李壽俊 子
39	朴龍見	尙州	前縣監	1629~?	朴日省 子
40	金梓	安東	前縣監	-	-
41	金世楨	-	前主簿	-	-
42	韓德克	淸州	前別提	-	許穆과 친분
43	李震拭	全州	前博士	1645~?	-
44	李箕疇	全州	前別檢	1641~1708	宋時烈·宋浚吉 문인, 己巳換局 당시 宋時烈을 변론하다 會寧에 유배
45	任元聖	豐川	前察訪	1636~?	任瀟 子
46	李寅煒	慶州	前待敎	1656~1710	李時發 孫, 李慶億 子, 소론, 己巳換局 당시 사직
47	趙大壽	豐壤	前正字	1655~1721	趙相鼎 子, 徐文重 사위, 소론
48	李慤	延安	前郡守	1631~1695	李貴 孫, 李時昉 子, 李敬輿 사위, 己巳換局 후 은거
49	尹以徵	南原	前縣監	1631~?	尹集 子
50	柳時蕃	晉州	前僉正	1616~1692	崔鳴吉과 동서, 崔錫鼎과 重親
51	李寅熾	慶州	前郡守	1634~1701	李時發 孫, 李慶徽 子, 從弟 7명과 상소
52	李寅燾	慶州	前縣令	1637~1698	李時發 孫, 李慶億 子, 從弟 7명과 상소
53	李寅熿	慶州	前奉事	-	李時發 孫, 李慶徽 子, 從弟 7명과 상소
54	鄭正陽	溫陽	前縣監	1638~?	鄭麟卿 子, 鄭以周 外孫
55	李世瑗	廣州	前縣監	1667~?	-
56	金德基	善山	前司果	1654~1719	노론, 己巳換局으로 체차
57	李世瑜	星州	前奉事	-	-
58	崔邦彦	晉州	前奉事	1634~1724	宋時烈 문인, 己巳換局 당시 宋時烈 신원 운동 주장
59	洪受漸	南陽	前判官	1646~?	-
60	李厦成	全州	前奉事	-	李景奭 孫, 李哲英 子
61	李萬亨	全州	前奉事	1628~1708	宋時烈 문인, 己巳換局 당시 宋時烈 신원 운동 주장
62	鄭維漸	河東	參奉	1655~1703	宋時烈 문인, 노론
63	李德齡	全州	參奉	1630~?	孝寧大君 후손, 己巳換局 당시 사직
64	南磐	宜寧	參奉	-	-
65	朴世集	潘南	參奉	1651~?	-
66	李世敬	-	前參奉	-	-
67	李齊夏	全州	前參奉	-	-
68	柳命雄	-	前參奉	-	柳命才의 동생으로 함께 抗疏文에 연명

	성명	본관	관직	생몰년	비고
69	金龜瑞	江陵	前參奉	1642~?	-
70	金世翊	安東	及第	1634~1698	소론, 己巳換局으로 伊川府使로 좌천
71	閔光益	驪興	前參奉	-	-
72	姜錫範	晉州	前縣監	-	宋時烈이 부친 姜裕後의 碑銘 작성
73	李萬徵	驪州	前縣監	-	-
74	李行迪	全義	前縣監	1629~?	李濟臣 曾孫, 李碩基 子
75	趙泰來	漢陽	前府使	1640~1705	趙泰采 兄
76	徐文淑	大丘	前監察	-	徐弘履 子
77	金夏錫	瑞興	前縣監	1638~1687	金元龜 子, 金宏弼 후손, 鄭述·李玄逸의 문인
78	郭昌徵	淸州	前縣監	1629~?	-
79	吳遂大	海州	前都事	1651~?	-
80	李敬秀	韓山	前縣令	1631~?	宋時烈 문인

【참고문헌】

1. 원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續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列聖御製』

『弘齋全書』

『書院謄錄』

『輿地圖書』

『春官通考』

『海州吳氏家乘』

『燃藜室記述』

『德峰書院志』

『葛庵集』

『農巖集』

『老洲集』

『丹溪遺稿』

『明谷集』

『梅山集』

『屏山集』

『西溪集』

『雙柏堂集』

『陽谷集』

『月谷集』

『定齋後集』

『寒圃齋集』

『響山日記』

『文蔭譜』(古929.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皇華集』(K4-38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 논저

- 김우철 역주, 『推案及鞫案』 30, 「吳斗寅 등 親鞫 추안」, 흐름출판사, 2014.
 『世蹟－海州吳氏貞武公波宗中』, 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2014.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신채용, 『조선왕실의 백년손님』, 역사비평사, 2017.
 『安山市史』 권7,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권진옥, 「陶菴 李緯 碑誌類 문장의 일고찰－神道碑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54, 온지학회, 2018.
 金炳木, 「老洲 吳熙常의 性理說에서 主宰의 의미」, 『儒敎思想文化研究』 56, 유교사상문화연구, 2014.
 김우진, 「安秋元·南明 遺民 사건과 현종의 현실인식」, 『사학지』 54, 단국사학회, 2017.
 김인경, 「조선의 名家: 안성 덕봉마을 海州吳氏」, 『선비문화』 33, 남명학연구원, 2018.
 김현영, 「조선시기 先代 파악 방식의 족보 반영 양상－해주오씨 族圖를 중심으로」, 『韓國系譜研究』 7, 한국계보연구회, 2017.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노론 산림 吳熙常·洪直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박학래, 「老洲 吳熙常의 性理說 研究－19세기 전반기의 호락논쟁에 유의하여」, 『동양고전연구』 54, 동양고전학회, 2014.
 신영주, 「老洲 吳熙常의 講學 활동과 독서론」, 『漢文古典研究』 38,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엄철현, 『海州吳氏 集姓村의 풍수지리적 考察－덕봉마을의 음택과 양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윤민경, 『세도정치기 安東金門의 정치적 기반』,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5.
 오세현, 「貞武公 吳定邦(1552-1625) 가문의 형성과畿湖 학계에서의 역할과 위상」, 『한국계보연구』 11, 한국계보연구회, 2021.
 李相益, 「老洲 吳熙常의 理氣相互主宰論과 心本善不可恃論」, 『동양고전연구』 21, 동

양고전학회, 2004.

이혜원, 「정조의 奎章閣臣 書齋肖像 요구」, 『규장각』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임혜련, 「19세기 國婚과 安東 金門 家勢」, 『한국사학보』 5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정재훈,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최선아, 「老州 吳熙常의 음악적 배경과 음악관」, 『한국음악사학보』 53, 한국음악사학회, 2014.

박용만, 「문형·학술 이어진 海州吳氏 吳翹의 가계」, 『중부일보』, 2014.11.09. 기사.

조광철, 「절양루와 유림숲: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던 곳」, 『광주드림』, 2022.09.14. 기사.

Abstract

The Political Status and Legacy
of O Du-in in Late Joseon Korea
—Focusing on Deokbong Academy—

Kim, Woo Jin*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political status of O Du-in (1624-1689) in late Joseon Korea through the lens of Deokbong Academy. The academy's survival through the sweeping abolition of private academies in 1871 under the Heungseon Daewongun regime demonstrates O Du-in's enduring legacy and embodiment of late Joseon cultural ideals. O Du-in emerged as an exemplar of loyalty through his martyrdom in defense of Queen Inhyeon during the political upheavals of the late 17th century. The sustained prominence of his lineage is evidenced by their production of five recipients of the highest civil service examination honors (Jangwon) and seven posthumous titles from the throne. The family maintained close ties to the royal household while establishing marriage alliances with powerful Noron faction families, notably the Yeoheung Min and Andong Kim clans. The academy's succession of distinguished scholars and high-ranking officials as heads further amplified its regional influence. This research argues that O Du-in's elevated political status, along with that of his family line and Deokbong Academy, was constructed through the interplay of multiple factors: the symbolic power of his martyrdom, consistent royal patronage of his

* Researcher, Jangseogak Archiv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escendants, and the extensive socio-political and cultural networks maintained through the academy's leadership.

Key word : O Du-in, Deokbong Confucian Academy, Gisa Restoration, Gapsul Restoration, Queen Inhyeon, Haeju O Clan

논문 투고일: 2024. 10. 28 심사 완료일: 2024. 12. 12 게재 확정일: 2024. 12. 13

■ 후보

1. 연혁

2024. 06. 30. : 한국서원학보 18집 간행
2024. 09. 28. : 한국서원학회 9월 연구발표회
2024. 10. 10. : 한국서원학회 추계기획학술회의 〈호계서원의 학술문화적 스펙트럼〉
2024. 11. 09. : 한국서원학회 11월 연구발표회
2024. 11. 14. ~ 11. 17. : 하북대학교·한국서원학회 공동개최 ‘동아시아 서원 문화(東亞書院文化國際研討會)’ 학술대회

2. 활동

■ 2024년 9월 연구발표회

발표 ① : 安東 西礪祠 건립 과정과 의미

- 발표자 : 김충현(한국국학진흥원)
- 토론자 : 이근호(충남대학교)

발표 ② 17세기~18세기 서원을 통한 지방 사족의 향약 활동

- 발표자 : 안다미(성균관대학교)
- 토론자 : 임근실(단국대학교)

연구윤리교육(17:00~18:00)

■ 2024년 10월 추계기획학술회의 〈호계서원의 학술문화적 스펙트럼〉

발표 ① 호계서원의 이해방향

- 발표자 : 정만조(국민대학교)

발표 ② 예학적 관점에서 본 학봉과 서애의 학술

- 발표자: 한재훈(성공회대학교)

발표 ③ 호계서원과 조선시대의 경세론

- 발표자 : 정재훈(경북대학교)

발표 ④ 호계서원 제향 인물의 문학과 공간 감성

- 발표자 : 정우락(경북대학교)

발표 ⑤ 서원의 上樑文

- 발표자 : 심경호(고려대학교)

발표 ⑥ 虎溪書院의 立地 景觀과 그 儒學的 審美

- 발표자 : 김덕현(경상국립대학교)

종합토론

- 좌 장: 정순우(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前 한국서원학회 회장)
- 토론자: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이근호(충남대학교, 한국서원학회 부회장), 이규필(경북대학교), 전성건(안동대학교)

■ 2024년 11월 연구발표회

발표 ① : 중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과 위기지학론의 확산

- 발표자 : 최만규(연세대학교)
- 토론자 : 정재훈(경북대학교)

발표 ② 이형상 수령통치론과 영천 성남서원으로서의 전승

- 발표자 : 김동일(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자 : 김정운(경북대학교)

■ 2024년 11월 14일 ~ 11월 17일 하북대학교·한국서원학회 공동개최 ‘동아시아 서원문화(東亞書院文化國際研討會)’ 학술대회학술대회

발표 ① 조선 서원의 사회문화적 구실 : 지역공동체를 향한 주자학적 온정의 표출

- 발표자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② 백운동 서원에 대한 주세붕의 구상

- 발표자 : 정우락(경북대학교)

발표 ③ 武城書院의 立地 景觀 講學傳統의 特性 -韓國의 다른 書院과의 差別性的 觀點에서-

- 발표자 : 김덕현(경상국립대학교)

발표 ④ 17~19세기 경상도 상주 지역 서원의 지식 집적과 활용

- 발표자 : 김정운(경북대학교)

발표 ⑤ 창작 오페라 선비 : 소수서원 설립의 재현과 변용

- 발표자 : 김수경(상지대학교)

발표 ⑥ 명치유신 전후 일본의 교육문화

- 발표자 : 박소영(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⑦ 유네스코 등재 서원에 봉안된 초상화 속 복식의 의미 및 상징성

- 발표자 :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⑧ 김홍욱(金弘郁, 1602~1654) 신원 운동과 성암서원(聖巖書院)

- 발표자 : 하서정(경북대학교)

발표 ⑨ 朝鮮時代 慶州 西嶽書院의 建立과 『西嶽志』의 編纂

- 임근실(단국대학교)

발표 ⑩ 安東 西礪祠 건립 과정과 의미

- 김충현(한국국학진흥원)

발표 ⑪ 서원의 사회사: 서류계 유현의 등장과 사회적 외장

- 권지은(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⑫ 한국 서원과 향례(鄉禮)-경상도 지역 향음주례 시행을 중심으로

- 김진홍(한국학중앙연구원)

3.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1) 7월 임원회의

-일시: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12~14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안건

(1) 9월 연구발표회 발표자, 토론자 선정

2) 10월 임원회의

-일시: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12~14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안건

(1) 11월 연구발표회 발표자, 토론자 선정

(2) 추계기획학술회의 〈호계서원의 학술문화적 스펙트럼〉 진행사항 점검

3) 11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일시: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17~19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안건

(1) 『한국서원학보』 제19호 원고 모집 현황 점검

(2) 『한국서원학보』 제19호 심사자 선정 논의

4) 12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일시: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17~19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안건

(1) 『한국서원학보』 제19호 심사 결과 수합 및 향후 간행 일정 재논의

- (2) 2024년도 학술지 평가(재인증평가) 관련 논의
- (3) 수정후 재심 논문 최종 게재여부 논의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 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 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과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瑱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¹⁾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²⁾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2.15.>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묵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3.15.〉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개정 2021.3.15.〉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8기 임원명단(2024.3~2026.2)

고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수환
회장	: 김학수(한중연)
부회장	: 이근호(충남대)
총무이사	: 김정운(경북대)
편집이사	: 김수경(상지대)
재무이사	: 윤해민(건국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한국국학진흥원),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부산가톨릭대), 김대식(경인교육대),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최석기(경상대), 배창현(울산대), 임근실(단국대), 신채용(국민대), 이치역(공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송실대), 백광렬(서울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김연수(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이사	: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김자운(공주대), 임근실(단국대), 박소영(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채광수(영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왕무(경기대) / 전라·제주 김봉곤(원광대), 박정민(전북대) / 경상 정재훈(경북대),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충청 김의환(충북대),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이사	: 김순한(영남대)
총무간사	: 권지은(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간사	: 김진홍(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근호(역사, 충남대)
편집위원	: 등흥파(역사, 중국 호남대), 정수환(역사, 한중연), 정우락(문학, 경북대), 조준호(역사, 경기도박물관), 정재훈(역사, 경북대), 어강식(문학, 충북대), 이치역(철학, 공주대), 김자운(교육사, 공주대), 김봉곤(역사, 원광대)
편집이사	: 김수경(상지대)
편집간사	: 김진홍(한중연)

종신회원(2006~2024)

강대걸, 권오영, 김덕현, 김문택, 김순한, 김정자, 김의환, 김자운, 김학수, 박종배,
안상천, 이병갑, 이병훈, 이상해, 이수환, 이우진, 이해준, 정만조, 정수환, 정순우,
조준호

韓國書院學報 제19호

값 15,000원

인쇄일 2024년 12월 23일
발행일 2024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학수
발행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전화 031-730-8840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김학수(한국서원학회)
KB국민은행 673601-04-074420
제작 도서출판 온샘(02-6338-1608)

ISSN 2234-8603